



#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79호 2023. 3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차례

## 특집 한중 교과서 서술에 보이는 교류와 이민

- 위가야 ▣ 역사교과서에 서술된 한군현 내용의 변화과정 검토 7
- 구도영 ▣ 중국 대학교 역사교재의 ‘조선시대 한중관계 및 문화’ 서술과 인식 61
- 김종호 ▣ 마공정(馬工程) 『중국근현대사강요』의 중국계 이주민 서술의 특징  
- 싱가포르 및 대만 역사교육과의 비교 분석 107

## 논문

- 김근식 ▣ 평양천도 후 고구려 묘장문자문화의 전이와 변용 151
- 추명엽 ▣ 고려 ‘동변(東蕃)’ 여진문제의 국제환경과 정벌 추진세력의 구상 177
- 이춘호 ▣ 모용선비(慕容鮮卑)의 업성(鄴城)시대와 중화정통 213
- 박순우 ▣ 임진왜란기 대씨·태씨(조선시대 발해인)들의 활동 연구  
- 『난중일기(亂中日記)』와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을 중심으로 257
- 정상우 ▣ 식민지기 지방사 편찬을 통해 본 지방 구현과 식민주의 역사학의 전개  
- 『평안북도사(平安北道史)』(1938)를 중심으로 287
- 이상민 ▣ 「정전협정」 이후 중국의 북한 경제지원과 북·중 관계, 1953~1957 335
- 강인옥 ▣ 조종고발굴대의 조사와 북한-중국의 고조선 역사 갈등  
- 『안지민 일기』를 중심으로 373

## 자료소개

- 윤성호 ▣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연구』  
- 고구려 연구의 새로운 공간을 확장하다 419

## 서평

- 이해진 ▣ 근세 한일관계의 실체적 검증  
- 『近世日朝關係と對馬藩』(酒井雅代, 吉川弘文館, 2021) 439
- 조건 ▣ 죽음의 운명공동체에 관한 기록  
- 『너희는 죽으면 야스쿠니에 간다』(박광홍, 오월의 봄, 2022) 453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465



# Contents

## Special Issue Exchanges and Immigration in the Korean-Chinese Textbook Descriptions

- Wee Kaya ■ A Review of Change Process of Han Commanderies Contents Described in History Textbooks 7
- Koo Doyoung ■ Description and Perception of ‘Korea-China Relations and Culture in the Joseon Dynasty’ in Chinese University History Textbooks 61
- Kim Jongho ■ Characteristics of Chinese History Education through *Outline for Modern History of China* in “Marxism Project”: Comparing with History Education of Singapore and Taiwan 107

## Articles

- Kim Keunsik ■ Acculturation and Spread of Koguryo Tomb Character Culture after Move to Pyongyang 151
- Choo Myungyeop ■ The International Situation of Jurchens Problem and the Policy Direction of Goryeo 177
- Lee Chunho ■ The Ye City Era of Murong Xianbei and the Chinese Orthodoxy 213
- Park Soonwoo ■ Study of the *Joseon Balhae* People(The *Dae* and *Tae* Figures), and Their Actions during the War with the Japanese: Examination of *Nanjung Ilgi*(『亂中日記』) and *Honam Jeol'eui-rok*(『湖南節義錄』) 257
- Jeong Sangwoo ■ The Development of Colonial Historiography through the Compilation of the Local History during the Colonial Period: with Emphasis on *History of North Pyongan Province*(1938) 287
- Lee Sangmin ■ China's Economic Aid to North Korea and Sino-North Korea Relations after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1953~1957 335
- Kang Inuk ■ North Korea-Chinese Joint Excavation in 1963~1965 Years and the Beginning of Historical Conflict over Gojoseon, Based on Newly Published *An Zhimin's Diary*. 373

## Introduction to Documents

- Yun Sungho ■ A Study on the Archaeological Site and Relics of Goguryeo in China: Expanding a new space for Goguryeo research 419

## Book Review

- Lee Haejin ■ A Substantial Review of Early Modern Joseon-Japan Relations 439
- Cho Geon ■ Records of the community of death 453

## 특집

한중 교과서 서술에 보이는 교류와 이민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역사교과서에 서술된 한군현 내용의 변화과정 검토

위가야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I. 머리말
- II. 3~7차 교육과정 시기 국사교과서의 한군현 관련 서술 내용
- III. '국사교과서 파동'과 국사교과서 내용의 변화
- IV. 2007 교육과정 이후 역사교과서의 한군현 관련 서술 내용
- V. 맺음말



## I. 머리말

사전은 교과서의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교육에 사용되는 교재를 교수학습에 편리한 형태로 편집한 도서.<sup>1</sup>

이처럼 교과서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필수적인 수단이며, 교육의 내용이 입시로 직결되는 한국에서는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이 곧 정답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곤 한다. 이는 역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학습자는 교과서를 통해 얻은 정보를 정답으로 암기하며, 암기한 내용은 점차 그의 사고 속에서 역사적 사실로 자리 잡는다. 이 때문에 역사교과서에는 역사학계의 논의를 거쳐 정설화된 견해가 서술되어야 함이 원칙으로 받아들여졌다.

2014년부터 한국의 역사학계는 시련에 직면하였다. 과거 ‘고대사 파동’의 진행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이른바 재야사학계의 공격이 재개된 것이다. 계기는 동북아역사재단이 미국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를 지원해 2014년에 발간한 *The Han Commanderies in Early Korean History*의 내용이었다. 이 책이 과거 중국 한나라가 설치한 식민지인 한군현의 위치를 한반도 북부에 비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제 식민주의 사관을 답습한 것으로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2015년 『동북아역사지도』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으며, 이 역시 한군현의 위치를 한반도 북부에 그려 넣은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sup>2</sup>

---

\* 투고: 2023년 1월 15일, 심사 완료: 2023년 2월 7일, 게재 확정: 2023년 2월 13일

1 「교과서」, 『두산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5373&categoryId=40942&categoryId=31723>).

2 재연된 ‘고대사 파동’의 전말은 다음을 참조할 것. 송호정, 2016, 「최근 한국상고사 논쟁의 본질과 대응」, 『역사와 현실』 100; 젊은역사학자모임, 2017, 『한국고대사

한군현에 대한 이러한 위치 비정은 한국 역사학계의 통설이었다. 때문에 한군현에 대한 역사학계의 견해는 이른바 재야사학계가 그들을 일제 식민사관의 후신으로 비난하는 주장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 이 견해가 역사학자들이 집필한 교과서에도 반영되었으므로, 그들은 식민사학자인 동시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식민사관을 심어준 매국노가 되었다.

이른바 재야사학계는 한군현이 역사교과서에서 대단히 강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그들의 인식을 반영한 역사대중서 집필자 자신의 소환된 경험담을 통해 설득력을 얻는다. 그 경험담 속에서 한군현의 위치는 시험에 꼭 나오므로 반드시 외워야 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과연 한군현이 한국의 역사교과서에서 이처럼 중시되었는가. 아니 역사교과서의 한군현 관련 서술 내용이 역사학계의 성과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역사학계에서 제출된 역사교과서의 고대사 서술 관련 논문 중에는 교과서가 학계의 연구 성과를 충실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비판적 관점에서 작성된 것이 많다.<sup>3</sup> 한군현과 관련해서도 이미 국정교과서의 서술이 역사학계의 연구성과와 무관하게 편향된 인식이 작용하여 일부 왜곡된 역사상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왔음이 지적된 바 있다.<sup>4</sup>

---

와 사이비역사학』, 역사비평사; 조인성, 2017, 「『고대사파동』과 식민주의 사학의 명령」, 『역사비평』 118; 정요근, 2018, 「박근혜 정부의 비호 아래 진행된 국수주의 유사 역사의 세력 확장」, 『내일을 여는 역사』 70; 이문영, 2018, 『유사역사학비판-『환단고기』와 일그러진 고대사-』, 역사비평사.

- 3 송호정, 2003, 「제7차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선사 및 국가 형성 관련 서술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29; 강중훈, 2008,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실린 역사 지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선사·고대 부분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106; 이부오, 2010, 「제1차~제7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에 나타난 고대 영토사 인식의 변화」, 『한국고대사탐구』 4; 정호섭, 2015,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고구려사와 발해사 서술 검토」, 『선사와 고대』 46; 조인성, 2016, 「『고대사 파동』과 고조선 역사지도」, 『한국사연구』 172.
- 4 임기환, 2017, 「3~7차 교육과정 국정 교과서의 고조선, 한군현 관련 서술의 변화」, 『사회과교육』 56-1.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역사교과서는 대부분 학계에서 연구를 진행 중인 역사학과 교수들과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역사교사들이 집필한다. 그럼에도 같은 학계의 연구자들에 의해 교과서의 내용에 학계의 연구 성과가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문제 있는 서술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시작된 3차 교육과정 이후 편찬된 국사교과서, 그리고 교과서 검정제가 실시된 2007년 이후 역사(한국사)교과서의 한군현 관련 서술 내용을 순차적으로 비교 검토할 것이다.<sup>5</sup> 시기별 내용의 변화와 그 특징, 그리고 변화를 추동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상기한 의문을 해결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재야사학계의 문제 제기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의 여부 또한 판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II. 3~7차 교육과정 시기 국사교과서의 한군현 관련 서술 내용

### 1. 3차와 4차 교육과정 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 비교

1973년과 1974년에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발표되어 3차 교육과정이 실시되었다.<sup>6</sup> 3차 교육과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교과서 제도에 변화가

---

5 이 글에서 교과서 국정제가 실시된 3차 교육과정 국사교과서부터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국정제라는 제도가 실시된 3차 교과서의 서술과 이후 첫 번째로 개정된 4차 교과서의 서술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며, 이 변화가 국정제라는 제도 자체가 가지는 서술 방향의 강제는 물론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따른 서술 내용 변경 가능성을 알려주는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6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김한중의 글(김한중, 2006, 「1장 해방 이후 국사교과서의 변

생긴 것이다. 1973년 5월 문교부는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발행을 검인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국사교과서는 국정제로 발행되었다.

1977년에는 국정교과서의 단점을 보완하고 검인정교과서의 부작용을 막음으로써 두 가지 교과서 제도의 장점을 취합한다는 취지로 교과서를 기존의 국정과 검인정 대신 1종과 2종으로 분류하였다. 1종 교과서란 이른바 ‘연구개발형 도서’로 표현되는데, 문교부가 기획·감독의 기능만 담당하며 연구와 집필은 전문연구기관에서 맡고, 집필 → 심의 → 출판 및 보급의 교과서 발행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는 교과서를 말한다. 1종 교과서의 연구와 저술은 주로 국사편찬위원회가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 제도 개정에 따라 1979년 개정본 국사교과서가 발행되었다.<sup>7</sup>

1981년 12월에 4차 교육과정이 고시되었고, 이에 따른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가 1982년 3월에 발행되었다. 3차와 4차 교육과정 모두 국사 교육의 우선 목표로 “올바른 민족 사관”의 “확립”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sup>8</sup> 서술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 예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한군현 관련 서술에서는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난다. 먼저 중학교 국사교과서의 서술을 비교하겠다.

3차와 4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사교과서의 한군현 관련 서술을 비교하면 체제상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차 교과서는 「고조선의 변천과 한의 군현」이라는 소제목 아래 한의 군현 설치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 반면에 4차 교과

---

천],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연구』, 선인)과 우리역사넷 역대 국사 교과서 데이터베이스(<http://contents.history.go.kr/front/ta/main.do>)의 교육과정별 국사교과서 해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각주를 달지 않았다.

7 이 글에서는 이 교과서를 3차 교육과정의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8 문교부령 제350호(74. 12. 31.) 별책3,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17쪽; 문교부 고시 제442호(1981. 12. 31.) 별책4, 『고등학교 교육과정』, 18쪽. 교육과정 원문은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교육과정 자료실(<http://ncic.go.kr/mobile.dwn.ogf.inventoryList.do>)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였다.

〈표 1〉 3차 중학교 국사와 4차 중학교 국사(상)의 한군현 관련 서술 내용

내용 분류 <sup>9</sup>	3차 교육과정	4차 교육과정
한군현 설치	한은 고조선을 멸망시킨 후, 낙랑, 진번, 임둔, 현도의 4군을 두고, 그들의 관리를 파견하여 다스렸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끈질기게 저항하여 임둔군과 진번군을 곧 철폐시키고, 이어서 현도군도 통구 지방에서 요동 방면으로 몰아 냈다. 다만, 낙랑군은 여러 차례 우리 민족의 저항을 받으면서도 지속되다가, 고구려에게 망하였다(313).	고조선이 망한 후 한은, 그 일부 지역에 세력을 뻗었으나, 우리 민족은 계속 항쟁하여 그를 몰아 내는 데 성공하였다.
고구려의 건국과 한군현	고구려인은 억세고 날랜 습성을 키워, 한의 현도군을 요동 방면으로 몰아 낼 수 있었다. 그 후, 고구려는 도읍을 국내성으로 옮기고, 주위의 여러 부족 국가들을 아울러서 고대 왕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의 현도군을 요동 방면으로 몰아 낼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기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고구려는 서울을 국내성으로 옮기고, 주위의 여러 부족들을 합쳐 고대 왕국으로 발전하였다.
변한과 한군현	변한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 대방, 일본 등지로 수출하였다.	변한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이를 화폐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생산된 철은 낙랑, 대방, 일본 등지로 수출하였다.
고구려의 발전과 한군현	고구려는 중국 세력과 맞서 싸우면서 성장하였다. 3세기에 이르러 고구려는 위의 침략을 받아 한때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 뒤 서안평을 점령하고, 이어 4세기 초 미천왕 때에는 낙랑군을 점령하고 대방군을 백제와 함께 몰아 내어, 고조선의 옛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다.	고구려는 중국 세력과 맞서 싸우면서 성장하였다. 3세기에 위의 침략을 받아 한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그 뒤 서안평을 점령하고, 이어 4세기 초 미천왕 때에는 낙랑군 지역을 점령하고 대방군을 백제와 함께 몰아 내어, 고조선의 옛 영토를 차지하였다.
백제의 성장과 한군현	옛 대방군의 땅을 사이에 두고 고구려와 여러 번 충돌한 백제는 …	서술 없음
가야와 한군현	가야에는 일찍부터 철기 문화가 발달하였다. 생산된 많은 철은 해상 활동을 통하여 낙랑, 대방 등 한의 군현과 일본 등지에 수출되었다.	가야에는 철의 생산이 많아 일찍부터 철기 문화가 발달하였다. 생산된 많은 철은 바다를 통하여 낙랑, 대방과 일본 등지에 수출하였다.
연표	고조선 멸망, 한군현 설치, 대방군 설치, 낙랑군 멸망	고조선 멸망, 대방군 설치, 낙랑군 멸망

9 필자가 임의로 설정한 내용 분류로 교과서의 대주제 및 소주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서에는 같은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소제목이 「고조선의 변천」으로 ‘한의 군현’이 빠졌다. 동시에 내용 면에서도 큰 변화가 보인다. 3차 교과서에서는 군현의 설치 및 4군의 명칭, 그리고 4군의 연혁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에 반해, 4차 교과서의 서술은 극히 소략하다. “한은, 그 일부 지역에 세력을 뻗었으나”와 같은 서술은 군현 설치의 사실 자체를 숨기고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 하지만 ‘고구려의 건국’, ‘변한’, ‘고구려의 발전’, ‘가야’를 서술하는 내용에서 현도군, 낙랑군, 대방군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어 그렇게까지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3차 교과서에 서술된 백제가 옛 대방군의 땅을 사이에 두고 고구려와 충돌했다는 한 부분이 4차 교과서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한군현의 위치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을 꺼린다는 인상을 준다.

지도에서 한군현의 존재가 사라진 것은 이러한 인상이 단순한 추정이 아닐 수 있음을 알려준다. 고조선의 멸망 이후 등장한 부여, 고구려 등 여러 나라의 위치를 설명하는 지도를 모든 교육과정을 통틀어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는 전부 수록하고 있다. 그런데 3차 교과서의 지도가 지도상에 낙랑군과 대방군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는 데 반해 4차 교과서에는 표시하지 않고 비워놓았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이후 7차 교육과정까지 변하지 않고 이어진다.<sup>10</sup> 또한 4차 교과서의 연표에는 한군현의 설치 사실이 빠져 있다. 본문에서 군현의 설치를 서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생각되지만, 대방군의 설치와 낙랑군의 멸망 사실은 그대로 적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혼란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0 정호섭은 이를 고조선 멸망 이후에 평양 일대에 존재한 낙랑군을 표기하는 것은 민족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보았다. 그는 식민사학이 극복된 현대 역사학에서 이러한 인식에 여전히 사로잡혀 역사를 객관적으로 살피지 못하고 있는 점은 과거에 발목 잡혀 실증된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지 못하는 한계라고 평가하였다. 정호섭, 2015, 앞의 글, 5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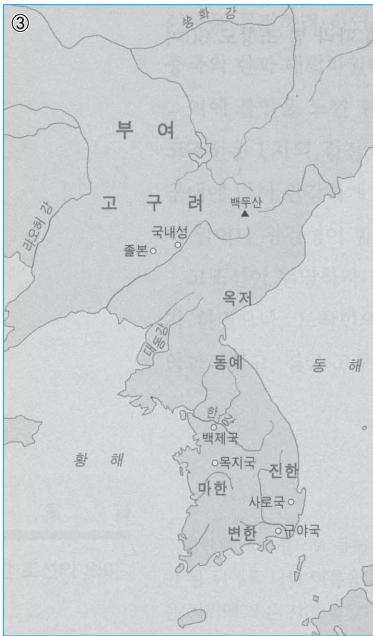


그림 1

① 3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사, ② 4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사(상), ③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에 수록된 지도

다음은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서술을 비교하겠다.

〈표 2〉 3차 고등학교 국사와 4차 고등학교 국사(상)의 한군현 관련 서술 내용

내용 분류	3차 교육과정	4차 교육과정
단원 개관	고조선이 한의 침략으로 멸망한 뒤, 여러 부족 국가들이 한의 군현과 싸우면서 성장하였다.	고조선이 한의 침략으로 멸망한 뒤, 여러 나라들이 한의 군현과 싸우면서, 삼국으로 성장, 발전하였다.
한군현 설치	한은 고조선을 넘어뜨린 후 낙랑, 진번, 임둔, 현도의 4군을 두어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러나, 임둔군과 진번군은 한의 군현을 축출하려는 토착 세력에 견디지 못하여 곧 없어지고, 통구(통고우)의 현도군도 요동 방면으로 쫓겨갔다. 다만, 낙랑군과 후한 말기에 옛 진번군 지역에 설치되었던 대방군만이 오래 계속되다가, 고구려와 백제에게 망하였다.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낙랑, 진번, 임둔, 현도의 4군을 두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이에 대항하여 이들을 축출하면서 계속 발전하였다.  주석: 한이 고조선 지역에 설치하였다는 4군현의 위치에 대해서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설과, 요동·요서 지방설이 있다.
고구려의 건국과 한군현	고구려는, 원래 졸본 지방에서 일어나 뒤에 통구로 옮겨 오면서 강대해졌다. 통구 지방은 중국의 동방 침입의 요로로서, 이 지방을 거쳐 낙랑군과 임둔군에 도달하였는데, 고구려의 대두는 이들의 교통로를 절단하는 결과가 되었다. 2세기 초 태조왕 때에는 고대 국가의 기반이 성립되어, 지금의 싱징 부근으로 쫓겨 나간 현도군을 다시 푸순 방면으로 몰아 냈고, 동으로 부전 고원을 넘어 옥저를 정복하였으며, 낙랑군에 자주 쳐들어갔다.	졸본 지방에서 일어난 고구려는 뒤에 통구로 옮겨 오면서 강대해졌다. 통구 지방은 대륙에서 한반도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외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목일 뿐만 아니라, 외적의 침략을 쉽게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지리적 잇점을 이용하여 고구려는 일찍부터 문화를 수용할 수 있었다. 2세기 초 태조왕 때에는 고대 왕국의 기반이 성립되어 만주 지방에 그 세력을 넓혀 갔고, 동으로 부전 고원을 넘어 옥저를 정복하였으며, 낙랑군을 자주 공격하기도 했다.
동예와 한군현	각 족장들은 한의 군현에 복속하였다가 얼마 후에 고구려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서술 없음
변한과 한군현	철은 국내 수요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낙랑, 대방과 일본 지역에도 수출되었다.	변한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쇠붙이를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하였고, 낙랑, 대방과 일본 지역까지도 수출하였다.

내용 분류	3차 교육과정	4차 교육과정
고대국가 성립·발전과 한군현	우리 나라에서는 고대 국가의 성립과 발전이 중국보다 늦었다. 그 원인은, 지금의 대동강 유역에서 고대 국가로 성장하려던 고조선이 한족의 침입으로 붕괴되었고, 그 뒤에도 한의 군현이 분열 정책으로 각 부족을 조종하여 통일 세력의 성립을 방해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의 분열 정책과 그 침입 세력에 대한 투쟁 과정은 자연히 한국 고대 국가의 성립 과정이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대 왕국의 성립과 발전이 중국보다 늦었다. 그것은, 고대 왕국으로 성장하려던 고조선이 한족의 침입으로 무너졌고, 그 후 한의 분열 정책으로 각 부족의 통일 세력의 성립이 방해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한의 분열 정책과 그 침입 세력에 대처해 나가면서 고대 왕국을 성립시켜 나가게 되었다.
고구려의 발전과 한군현	고구려는 이미 태조왕 때부터 인근 부족과의 연맹을 확대하고, 요동군, 현도군과 자주 충돌하면서 고대 국가 세력을 형성하였다. ... 그 뒤 3세기 동천왕 때에는 ... 중국의 군현만 상대로 싸우던 고구려는, 이 때부터 국제 관계에 대한 안목을 가지게 되어 위, 촉, 오의 대립 관계를 이용하였다. ... 고구려는 3세기 중엽에 중국과 낙랑군을 연결하는 통로의 요충인 서안평을 공격하다가, 위장 관구검의 반격을 받아 수도까지 함락된 일이 있었다. ... 고구려는 미천왕 때에 서안평을 점령하고, 또한 오랫동안 계속된 낙랑군을, 그리고 대방군의 일부를 점령하여 고조선 시대의 옛 땅을 회복하였다.	고구려는 이미 태조왕 때부터 고대 왕국으로서의 세력을 형성하였다. 그 뒤 3세기 동천왕 때에는, ... 한 군현을 상대로 싸우던 고구려는, 이 때부터 국제 관계의 변화에 대처하여, 위, 촉, 오의 대립 관계를 이용하면서 발전하였다. 고구려는 3세기 중엽에, 중국과 낙랑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인 서안평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위장 관구검의 반격을 받아 수도까지 함락된 일도 있었다. ... 고구려의 미천왕은 서안평을 점령하고, 낙랑을 공략하여 고조선 시대의 옛 땅을 회복하였다.
백제의 성장과 한군현	백제는 고이왕 때에 이르러 여러 부족 국가들을 통합하기 시작하였다. 그 뒤, 낙랑군의 압력을 배제하면서 전 한강 유역을 통합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백제의 경제력은 크게 발전하여, 근초고왕 때에는 옛 대방군의 땅을 놓고 고구려와 싸우는 한편 ...	백제는 고이왕 때에 이르러 고대 왕국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한강 유역의 대부분을 통합하였다. 이와 아울러 백제의 국력이 크게 성장하여, 근초고왕 때에는 북으로는 고구려와 싸우는 한편 ...
가야와 한군현	가야 연맹 세력은 낙랑, 대방, 일본과 빈번히 교류하였고 ...	가야 세력은 낙랑, 대방, 일본과 빈번히 교류하였다.
고대 무역과 한군현	고대 무역을 독점하던 낙랑군이 멸망한 뒤, 삼국의 국제 무역은 크게 발달하였다.	중세 무역을 독점하던 낙랑군이 멸망한 뒤, 삼국의 국제 무역은 크게 발달하였다.
연표	고조선 멸망, 한군현 설치, 대방군 설치, 낙랑군 멸망	고조선 멸망, 한군현 설치, 대방군 설치, 낙랑군 멸망

중학교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체제상 차이가 나타난다. 3차 교과서는 「한군현의 세력」이라는 별도의 소제목 아래에 한의 군현 설치와 그 연혁을 서술하였지만, 4차 교과서는 소제목이 사라지고 「고조선의 변천」 아래에 함께 서술하였다. 하지만 중학교 교과서와는 달리 군현의 설치 사실과 명칭을 서술하고 있으며, 연혁은 3차에 비해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차이는 군현의 위치를 별도의 주석으로 서술한 점이다. 군현의 위치에 대한 여러 설을 나열할 뿐 특정설의 입장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 때문인지 4차 교과서는 군현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모든 부분의 서술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의 건국 부분 서술에서 3차에 있던 통구 지방의 교통로와 낙랑군·임둔군과의 관계를 삭제한 것이 대표적이다. 고구려의 발전 부분 서술에서는 “낙랑군 그리고 대방군의 일부를 점령”을 “낙랑을 공략”으로 바꿔 대방군을 빠뜨렸는데, 이는 백제의 성장 부분 서술에서 옛 대방군의 땅을 놓고 고구려와 충돌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과 관계가 있다. 고구려와 백제의 위치가 명백하다고 할 때 두 나라 사이에 대방군이 있었다는 서술을 통해 한군현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서 중학교 교과서에서 백제와 대방군에 관련된 서술이 빠진 이유 또한 같았을 것이다.

4차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변화는 한군현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이다. 3차 교과서의 동예 부분 서술에 있었던 “각 족장들은 한의 군현에 복속하였다가 얼마 후에 고구려의 지배하에 들어갔다”는 내용은 4차 교과서에서 삭제되었다. 또한 고대 국가의 성립과 발전에 미친 중국의 영향을 서술하면서(표의 ‘고대국가 성립·발전과 한군현’ 부분) “한의 군현이 분열 정책으로 부족을 조종하여 통일 세력의 성립을 방해해 왔기 때문이다(3차)”를 “한의 분열 정책으로 각 부족의 통일 세력의 성립이 방해받았기 때문이다”로 고친 것은 중국의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한군현의 영향으로 서술하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할 수도 있게 한다.

사실 한군현 서술의 더욱 극적인 변화는 검정제였던 2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한군현의 설치와 그 연혁을 2~4쪽에 걸쳐 서술했던 데 반해 국정화가 시

작성된 3차 교육과정에서는 두 문단으로 간소화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사에서 한사군의 비중을 낮게 평가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는데,<sup>11</sup> 이러한 변화의 배경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1969년 작성된 『중·고등학교 국사교육개선을 위한 기본방향』(김용섭·이기백·이우성·한우근)에서는 한군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술 방향을 제시하였다.<sup>12</sup>

⑩ 漢四郡의 變遷은 간략히 다룰 것이며, 이 勢力을 逐出하는 데서 우리 社會가 成長하였음을 強調한다.<sup>13</sup>

3차 교과서의 서술 내용이 이상의 서술 방향을 충실하게 따른 것임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즉, 3차 교과서의 서술은 한군현을 고대 국가 성립의 저해 요인으로 보았는데, 이는 2차 교과서에서 고대국가 발전의 동력이 한군현이란 외부에 있었다고 본 것과 정반대였다.<sup>14</sup> 이에 대해 민족주체성과 내재적 발전을 통해 민족주의 역사학을 지향한 당시 역사학계의 공통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sup>15</sup> 대체로 동의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역사학계의 인식 변화만으로는 4차 교과서에서 다시 한번 극적으로 서술 분량 및 내용이 변화한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변화가 생긴 원인에는 역사학계 내부가 아닌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여겨지며, 이 압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82년이라는 발행 시점에 벌어진 사회적 문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11 이부오, 2010, 앞의 글, 244쪽.

12 『중·고등학교 국사교육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의 내용은 장신의 해제(장신, 2016, 「해제-『中·高等學校 國史教育改善을 爲한 基本方向』」, 『역사문제연구』 36)에 수록된 것을 참고하여 인용하였다.

13 장신, 2016, 앞의 글, 451쪽.

14 이정빈, 2018b, 「제3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의 한국고대사 서술과 특징」, 『역사와교육』 27, 96~97쪽.

15 이정빈, 2018b, 위의 글, 103~104쪽.

## 2. 4차와 5차 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 비교

5차 교육과정은 1987년과 1988년에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고시되면서 실시되었다. “한국의 역사를 구조적으로 파악하여 그 발전의 특성을 이해하고, 역사 학습 과정을 통해 탐구 기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며, 올바른 역사 의식을 바탕으로 새 문화 창조와 민주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를 교과 목표로 강조하였다.<sup>16</sup> “올바른 민족 사관”이 “올바른 역사 의식”으로 변화한 것이 눈에 띈다. 하지만 이후의 서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과서의 서술에서 민족 중시 관점이 약화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에 따른 교과서 개정 작업은 1986년 10월 31일 국사교육 심의회 구성에서 시작하여, 1987년 6월 국사 교육 심의회의 ‘국사 교과서 편찬준거안’이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0년 새로운 국사교과서가 발행되었다.

먼저 중학교 국사교과서의 서술을 비교하겠다.

〈표 3〉 4차와 5차 중학교 국사(상)의 한군현 관련 서술 내용

내용 분류	4차 교육과정	5차 교육과정
한군현 설치	고조선이 망한 후 한은, 그 일부 지역에 세력을 뻗쳤으나, 우리 민족은 계속 항쟁하여 그를 몰아 내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한은 고조선 옛 지역의 일부에 세력을 뻗쳤으나, 우리 민족은 이에 대항하여 마침내 그들을 몰아 내는 데 성공하였다.
고구려의 건국과 한군현	한의 현도군을 요동 방면으로 몰아 낼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기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고구려는 서울을 국내성으로 옮기고, 주위의 여러 부족들을 합쳐 고대 왕국으로 발전하였다.	고구려인들은 험한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야 했으므로, 그들의 기질은 자연 억제도 날랐다. 그 후, 고구려는 서울을 국내성으로 옮기고, 주위에 있던 여러 국가들을 합치면서 연맹 왕국으로 발전하였다.

16 문교부 고시 제 88-7호(1988. 3. 31) 별책1,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 분류	4차 교육과정	5차 교육과정
변한과 한군현	변한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이를 화폐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생산된 철은 낙랑, 대방, 일본 등지로 수출하였다.	변한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이를 화폐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한 군현, 일본 등지로 수출하였다.
고구려의 발전과 한군현	고구려는 중국 세력과 맞서 싸우면서 성장하였다. 3세기에 위의 침략을 받아 한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그 뒤 서안평을 점령하고, 이어 4세기 초 미천왕 때에는 낙랑군 지역을 점령하고 대방군을 백제와 함께 몰아 내어, 고조선의 옛 영토를 차지하였다.	고구려는 불리한 지리적 환경을 극복하고, 중국세력의 침략을 물리치면서 발전하였다. ... 3세기 동천왕 때에는 서안평을 공격하여 위나라의 진출을 막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위나라의 관구검의 침입을 받기도 하였다. 4세기 미천왕 때에는 중국 세력을 고조선의 옛 땅에서 몰아내고 영토를 넓혀 나갔다.
가야와 한군현	가야에는 철의 생산이 많아 일찍부터 철기 문화가 발달하였다. 생산된 많은 철은 바다를 통하여 낙랑, 대방과 일본 등지에 수출하였다.	이 지방은 일찍부터 철기 문화와 농업이 발달한 곳이므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문화를 이룩하였다. ... 가야는 문화의 수준이 높아서 일본에 까지 영향을 주었다.
연표	고조선 멸망, 대방군 설치, 낙랑군 멸망	고조선 멸망, 낙랑군 멸망

우선 서술 내용에서 군현의 구체적인 이름이 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의 건국 부분에 서술되어 있던 현도군의 존재가 사라졌고, 고구려의 발전 부분에서 고구려가 상대한 세력을 낙랑군과 대방군이 아니라 ‘중국 세력’으로 모호하게 서술하였다. 변한이 철을 수출한 지역도 4차의 ‘낙랑, 대방’이 ‘한군현’으로 바뀌었다. 가야 부분 서술에 이르러서는 아예 한군현 관련 서술이 사라졌는데, 철기 문화의 높은 수준을 말하면서도 철 수출에 관련된 내용이 서술되지 않은 것은 해당 내용 서술에 한군현의 존재가 빠질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가야의 대외 관계를 일본에 문화적 영향을 미친 것만으로 서술한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방군 설치가 삭제됨으로써 고조선과 낙랑군의 멸망만 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표 4〉 4차와 5차 고등학교 국사(상)의 한군현 관련 서술 내용

내용 분류	4차 교육과정	5차 교육과정
단원 개관	고조선이 한의 침략으로 멸망한 뒤, 여러 나라들이 한의 군현과 싸우면서, 삼국으로 성장, 발전하였다.	고조선 멸망 사실 언급 없음
한군현 설치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낙랑, 진번, 임둔, 현도의 4군을 두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이에 대항하여 이들을 축출하면서 계속 발전하였다. 주석: 한이 고조선 지역에 설치하였다는 4군현의 위치에 대해서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설과, 요동·요서 지방설이 있다.	고조선이 멸망하자,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여 지배하려 하였으나, 지역 토착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그리하여 그 세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드디어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소멸되었다(313).
한군현의 수탈과 법 조항의 증가	서술 없음	한의 군현이 설치된 이후 억압과 수탈을 가하게 되자, 토착민들은 그것을 피하여 이주하거나 단결하여 한 군현에 대항하였다. 이에, 한 군현인들은 엄한 율령을 실시하여, 자신들의 생명과 수탈한 재산을 보호하려 하였다. 그에 따라 법 조항도 60여 조로 증가되었고, 풍속도 각박해졌다.
고구려의 건국과 한군현	일본 지방에서 일어난 고구려는 뒤에 통구로 옮겨 오면서 강대해졌다. 통구 지방은 대륙에서 한반도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외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목일 뿐만 아니라, 외적의 침략을 쉽게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지리적 잇점을 이용하여 고구려는 일찍부터 문화를 수용할 수 있었다. 2세기 초 태조왕 때에는 고대 왕국의 기반이 성립되어 만주 지방에 그 세력을 넓혀 갔고, 동으로 부진 고원을 넘어 옥저를 정복하였으며, 낙랑군을 자주 공격하기도 했다.	고구려는 ... 압록강변의 통구로 옮겨 오면서 5부족 연맹을 토대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후, 활발한 정복 전쟁으로 한의 군현을 공략하여 요동 지방으로 진출하였고, 또 동쪽으로는 부진 고원을 넘어 옥저를 정복하여 공물을 받았다.
변한과 한군현	변한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쇠붙이를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하였고, 낙랑, 대방과 일본 지역에게까지도 수출하였다.	변한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 일본 등지에도 수출하였다. 철은 교역에서 화폐처럼 사용되기도 하였다.

내용 분류	4차 교육과정	5차 교육과정
고대국가 성립·발전과 한군현	우리 나라에서는 고대 왕국의 성립과 발전이 중국보다 늦었다. 그것은, 고대 왕국으로 성장하려던 고조선이 한족의 침입으로 무너졌고, 그 후 한의 분열 정책으로 각 부족의 통일 세력의 성립이 방해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한의 분열 정책과 그 침입 세력에 대처해 나가면서 고대 왕국을 성립시켜 나가게 되었다.	삼국은 그 성장 과정에서 강력한 정치력을 바탕으로 중국 세력에 대항하면서 발전하였다.
고구려의 발전과 한군현	고구려는 이미 태조왕 때부터 고대 왕국으로서의 세력을 형성하였다. 그 뒤 3세기 동천왕 때에는, ... 한 군현을 상대로 싸우던 고구려는, 이때부터 국제 관계의 변화에 대처하여, 위, 촉, 오의 대립 관계를 이용하면서 발전하였다. 고구려는 3세기 중엽에, 중국과 낙랑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인 서안평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위장 관구검의 반격을 받아 수도까지 함락된 일도 있었다. ... 고구려의 미천왕은 서안평을 점령하고, 낙랑을 공략하여 고조선 시대의 옛 땅을 회복하였다.	초기의 고구려 성장 과정에서 2세기 태조왕 때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우선,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복과 통합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어 현저한 대외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만주 지방에서의 세력 확대 이외에 함경도 지방의 옥저를 정복하고, 낙랑에 대해서도 자주 압력을 가하였다. ... 4세기 초에 고구려는 낙랑을 쳐서 중국 세력을 우리 나라에서 몰아 내는데 성공하였다(313).
백제의 성장과 한군현	백제는 고이왕 때에 이르러 고대 왕국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한강 유역의 대부분을 통합하였다. 이와 아울러 백제의 국력이 크게 성장하여, 근초고왕 때에는 북으로는 고구려와 싸우는 한편 ...	한강 유역의 백제는, 이후 연맹 왕국으로 성장하면서 마한을 대신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3세기 중엽 고이왕 때에 이르러, 백제는 확대된 영토와 통치 조직을 갖추으로써 중앙 집권 국가로서의 기틀을 확립하였다. 이 때의 백제는, 한성을 중심으로,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한 군현과 항쟁하였고,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관계를 마련하고, 관리의 복색을 제정하는 등 지배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개혁 작업은 백제의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 체제의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야와 한군현	가야 세력은 낙랑, 대방, 일본과 빈번히 교류하였다.	가야 연맹은 주변의 여러 나라 이외에 한 군현이나 일본과도 교역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하였다.

내용 분류	4차 교육과정	5차 교육과정
삼국의 대의 관계와 한군현	서술 없음	삼국 시대에는 주로 중국의 침략 세력에 대하여 맞서 항쟁하였다. 특히, 국경을 직접 접하고 있던 고구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였다. 고구려는 중국 한 군현과의 대립 항쟁 속에서 성장하였고, 마침내는 이들 세력을 축출함으로써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고대 무역과 한군현	중계 무역을 독점하던 낙랑군이 멸망한 뒤, 삼국의 국제 무역은 크게 발달하였다.	삼국의 국제 무역은 4세기 이후 크게 발달하였다.
연표	고조선 멸망, 한군현 설치, 대방군 설치, 낙랑군 멸망	고조선 멸망, 한군현 설치, 낙랑군 멸망

먼저 ‘낙랑, 진번, 임둔, 현도’의 군현명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려 지배하려 하였으나”라는 서술은 군현을 설치하지 못했던 것으로도 여겨질 수 있을 정도로 모호하다.<sup>17</sup> 가야 부분 서술에서도 ‘낙랑, 대방’이 ‘한군현’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중학교 교과서처럼 구체적인 군현명에 대한 서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변한, 고구려의 발전 부분 서술에서 ‘낙랑’이 서술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 ‘대방’의 존재는 확실하게 사라지는데, 이 때문인지 연표에도 대방군 설치가 빠져 있다.

한군현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서술 역시 4차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대 무역 부분의 서술에서 삼국의 국제 무역이 발달한 시점을 “중계 무역을 독점하던 낙랑군이 멸망한 뒤”에서 “4세기 이후”로 변경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대국가의 성립과 발전의 걸림돌로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

17 이와 같은 표현이 한군현이 구체적으로 설치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한 서술임은 이미 송호정이 지적한 바 있다. 송호정, 2003, 앞의 글, 26쪽.

조하는 서술(〈표 4〉의 고대국가 성립·발전과 한군현 부분)은 사라졌다. 대신 삼국이 중국 세력에 대항하면서 발전한 것으로 서술하였는데, 「삼국의 대외관계」라는 소제목으로 삼국의 대외관계를 일괄 정리하는 부분을 추가하면서 고구려를 비롯한 삼국의 대(對)중국 세력 항쟁을 성장 배경으로 서술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흥미로운 점은 백제와 한군현의 관계에 대한 서술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백제의 성장 부분 서술에서 백제가 한성을 중심으로 한군현과 항쟁한 사실이 나타난다. 이는 고구려의 한군현 축출을 “고구려는 낙랑을 쳐서 중국 세력을 우리나라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다”라고 서술한 것과 관계가 있을 것 같다. 앞서 3차에 있던 백제의 성장과 한군현의 관계가 4차에서 빠진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이유가 군현의 위치를 특정하지 않으려 한 것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낙랑을 쳐서 우리나라에서 몰아냈다는 서술은 곧 낙랑이 우리나라에 있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한군현 세력이 우리나라, 즉 백제와도 가까운 지역에 위치했을 것이라는 입장에서 백제가 한군현과 항쟁하며 성장했다는 서술이 추가될 수 있었던 것이다.

5차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고조선의 사회」라는 소제목 아래에 한군현이 설치되면서 법 조항이 늘었고 그에 따라 풍속이 각박해졌다는 서술이 추가된 것이다. 이 서술은 6차와 7차 교과서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데, 3차에서 4차, 그리고 5차로 이어지면서 일관해서 한군현 관련 서술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 3. 5차·6차·7차 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 비교

6차 교육과정은 1992년에 고시되었다. 1994년에 확정된 ‘국사교과서 편찬준거안’을 기준으로 서술된 새로운 국사교과서가 1996년에 발행되었다. 6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3차 이래 독립 교과였던 국사가 사회과로 통합되어 운영된 것인데,

이 때문에 중·고등학교 역사 교육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평가도 있다.<sup>18</sup> 그런데 이 시기 국사교과서의 한군현 관련 서술에서는 이제까지의 추세와 상반된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중학교 국사교과서의 서술을 비교하겠다.

〈표 5〉 5차와 6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사의 한군현 관련 서술 내용

내용 분류	5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
한군현 설치	그리하여 한은 고조선 옛 지역의 일부에 세력을 뻗쳤으나, 우리 민족은 이에 대항하여 마침내 그들을 몰아 내는 데 성공하였다.	한은 고조선 일부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였으나, 우리 민족의 반격을 받아 물러갔다.
변한과 한군현	변한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이를 화폐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한 군현, 일본 등지로 수출하였다.	변한에서는 철을 많이 생산하여 한의 군현과 일본으로 수출하였으며, 이를 화폐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고구려의 발전과 한군현	고구려는 불리한 지리적 환경을 극복하고, 중국세력의 침략을 물리치면서 발전하였다. ... 3세기 동천왕 때에는 서안평을 공격하여 위나라의 진출을 막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위나라의 관구검의 침입을 받기도 하였다. 4세기 미천왕 때에는 중국 세력을 고조선의 옛 땅에서 몰아내고 영토를 넓혀 나갔다.	압록강의 중류 유역에서 일어난 고구려는 불리한 지리적 환경을 극복하고 중국 세력을 물리치면서 발전해 나갔다. 3세기 동천왕 때에 고구려는 중국과 낙랑군을 연결하는 서안평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위나라의 반격을 받아, 한때 수도인 국내성까지 함락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4세기 초 미천왕 때에는 낙랑군을 공격하여 중국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고조선의 옛 땅을 되찾았다(313).
가야와 한군현	이 지방은 일찍부터 철기 문화와 농업이 발달한 곳이므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문화를 이룩하였다. ... 가야는 문화의 수준이 높아서 일본에 까지 영향을 주었다.	가야 연맹에서는 발달된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여 농업 생산력이 크게 증대되었고, 또 풍부한 철을 중국과 일본 등지에까지 수출하였다.
연표	고조선 멸망, 낙랑군 멸망	고조선 멸망, 낙랑군 멸망

18 「제6차 교육과정 국사 교과서 해제」, 우리역사넷 역대 국사 교과서 데이터베이스 ([http://contents.history.go.kr/resources/front/html/txthj\\_m\\_06.html](http://contents.history.go.kr/resources/front/html/txthj_m_06.html))

4차 이후로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사라졌던 군현 설치에 대한 서술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5)의 ‘한군현 설치’ 부분). 가야 부분 서술에서도 한군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철을 수출한 나라에 중국이 포함됨으로써 4차에서 삭제되었던 철 수출 관련 내용이 다시 나타난다. 또한 고구려의 발전 부분에서 상대방인 ‘낙랑군’의 존재가 다시 서술됨으로써 내용의 모호성을 극복할 수 있었다.

다음은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서술을 비교하겠다.

〈표 6〉 5차와 6차 고등학교 국사(상)의 한군현 관련 서술 내용

내용 분류	5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
한군현 설치	고조선이 멸망하자,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여 지배하려 하였으나, 지역 토착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그리하여 그 세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드디어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소멸되었다(313).	고조선이 멸망하자,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여 지배하였으나, 토착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그리하여 그 세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드디어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소멸되었다(313).
한군현의 수탈과 법 조항의 증가	한의 군현이 설치된 이후 억압과 수탈을 가하게 되자, 토착민들은 그것을 피하여 이주하거나 단결하여 한 군현에 대항하였다. 이에, 한 군현인들은 엄한 율령을 실시하여, 자신들의 생명과 수탈한 재산을 보호하려 하였다. 그에 따라 법 조항도 60여 조로 증가되었고, 풍속도 각박해졌다.	한의 군현이 설치되어 억압과 수탈을 가하게 되자, 토착민들은 이를 피하여 이주하거나 단결하여 한 군현에 대항하였다. 이에 한 군현은 엄한 율령을 시행하여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 하였다. 그에 따라 법 조항도 60여 조로 증가되었고, 풍속도 각박해졌다.
고구려의 건국과 한군현	고구려는 … 압록강변의 통구로 옮겨 오면서 5부족 연맹을 토대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후, 활발한 정복 전쟁으로 한의 군현을 공략하여 요동 지방으로 진출하였고, 또 동쪽으로는 부진 고원을 넘어 옥저를 정복하여 공물을 받았다.	고구려는 … 압록강변의 국내성(통구)으로 옮겨 5부족 연맹을 토대로 발전하였다. 그 후 활발한 정복 전쟁으로 한의 군현을 공략하여 요동 지방으로 진출하였고, 또 동쪽으로는 부진 고원을 넘어 옥저를 정복하여 공물을 받았다.
변한과 한군현	변한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 일본 등지에도 수출하였다. 철은 교역에서 화폐처럼 사용되기도 하였다.	변한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 일본 등에 수출하였다. 철은 교역에서 화폐처럼 사용되기도 하였다.
고구려의 발전과 한군현	초기의 고구려 성장 과정에서 2세기 태조왕 때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우	고구려 성장 과정에서 태조왕 때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우선, 주변 지역

내용 분류	5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
	<p>선,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복과 통합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어 현저한 대외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만주 지방에서의 세력 확대 이외에 함경도 지방의 옥저를 정복하고, 낙랑에 대해서도 자주 압력을 가하였다.</p> <p>4세기 초에 고구려는 낙랑을 쳐서 중국 세력을 우리 나라에서 몰아 내는 데 성공하였다(313).</p>	<p>에 대한 정복과 통합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어 현저한 대외 발전이 이루어졌다. 함경도 지방의 옥저를 정복하고, 만주 지방으로 세력을 확대시켰으며, 낙랑에 대해서도 자주 압력을 가하였다.</p> <p>4세기 초에 고구려는 낙랑군을 쳐서 중국 세력을 우리 나라에서 몰아 내는 데 성공하였다(313).</p>
백제의 성장과 한군현	<p>한강 유역의 백제는, 이후 연맹 왕국으로 성장하면서 마한을 대신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3세기 중엽 고이왕 때에 이르러, 백제는 확대된 영토와 통치 조직을 갖추으로써 중앙 집권 국가로서의 기틀을 확립하였다. 이 때의 백제는, 한성을 중심으로,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한 군현과 항쟁하였고,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관제를 마련하고, 관리의 복색을 제정하는 등 지배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개혁 작업은 백제의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 체제의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다.</p>	<p>한강 유역의 백제는, 이후 연맹 왕국으로 성장하면서 마한을 대신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한 군현 세력이 한강 유역으로 뻗어 오자, 백제는 한강 유역의 소국과 연맹하여 이를 막아 내었다. 그리하여 3세기 중엽 고이왕 때에 이르러, 백제는 확대된 영토와 통치 조직을 갖추으로써 중앙 집권 국가로서의 기틀을 잡았다. 이 때의 백제는, 한성을 중심으로,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한 군현과 항쟁하였고,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관제를 마련하고, 관리의 복색을 제정하는 등 지배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개혁 작업은 왕권이 강화되고 중앙 집권 체제가 진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p>
가야와 한군현	<p>가야 연맹은 주변의 여러 나라 이외에 한 군현이나 일본과도 교역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하였다.</p>	<p>가야 연맹은 주변의 여러 나라 이외에 한 군현이나 일본과도 교역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하였다.</p>
삼국의 대외 관계와 한군현	<p>삼국 시대에는 주로 중국의 침략 세력에 대하여 맞서 항쟁하였다. 특히, 국경을 직접 접하고 있던 고구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였다. 고구려는 중국 한 군현과의 대립 항쟁 속에서 성장하였고, 마침내는 이들 세력을 축출함으로써 국가 발전을 이룩하였다.</p>	<p>삼국 시대에 우리 민족은 주로 중국의 침략 세력에 맞서 항쟁하였다. 특히, 국경을 직접 접하고 있던 고구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고구려는 중국 한 군현과의 대립 항쟁 속에서 성장하였고, 마침내는 이들 세력을 축출함으로써 국가 발전을 이룩하였다. ... 한편, 백제는 북방 민족이나 중국의 북조와 자주 접촉한 것은 아니었으나, 역시 한 군현의 침입을 물리치면서 성장하였다.</p>
연표	고조선 멸망, 한군현 설치, 낙랑군 멸망	고조선 멸망, 한군현 설치, 낙랑군 멸망

중학교 국사교과서와 같은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한군현 설치 부분 서술이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여 지배하였으나, 토착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로 수정되었다. 5차에서 군현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실패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정도로 모호했던 표현이 정돈된 것이다. 한군현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서술도 좀 더 늘어났는데, 백제의 성장 부분에서 “한 군현 세력이 한강 유역으로 뻗어 오자, 백제는 한강 유역의 소국과 연맹하여 이를 막아내었다”라고 서술을 추가하여 한군현이 한강 유역 근처에 위치하였음을 암시하였다. 삼국의 대외관계 부분에서도 기존 고구려와 한군현의 관계에 이어 백제와 한군현의 관계가 추가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추세는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사교과서에서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경향을 보인다. 1997년에 고시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2002년 새로운 국사교과서가 발행되었다.

먼저 중학교 국사교과서의 서술을 비교하겠다.

〈표 7〉 6차 중학교 국사(상)과 7차 중학교 국사의 한군현 관련 서술 내용

내용 분류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한군현 설치	한은 고조선 일부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였으나, 우리 민족의 반격을 받아 물러갔다.	한군현 설치 서술 없음
변한과 한군현	변한에서는 철을 많이 생산하여 한의 군현과 일본으로 수출하였으며, 이를 화폐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변한에서는 철을 많이 생산하여 마한, 한의 군현, 일본 등으로 수출하였으며, 이를 화폐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고구려의 발전과 한군현	압록강의 중류 유역에서 일어난 고구려는 불리한 지리적 환경을 극복하고 중국 세력을 물리치면서 발전해 나갔다. 3세기 동천왕 때에 고구려는 중국과 낙랑군을 연결하는 서안평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위나라의 반격을 받아, 한때 수도인 국내성까지 함락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고구려는 압록강 중류의 국내성(통구 지방)으로 천도하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여 평야 지대로 진출하는 데 힘쓰는 한편, 중국의 침략을 물리치면서 발전하였다. 고구려가 성장하여 중앙 집권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태조왕 때부터였다. 이 때, 고구려는 동해안으로 진출하여 물자가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한 옥저와 동예를 정복하였으며,

내용 분류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4세기 초 미천왕 때에는 낙랑군을 공격하여 중국 세력을 완전히 몰아 내고, 고조선의 옛 땅을 되찾았다(313).	요동 지방으로도 진출을 꾀하였다. 이러한 정복 활동에 힘입어 계루부 출신의 고씨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할 정도로 왕권이 강화되었다. 그 후, 고국천왕 때에는 부족적 전통을 가진 5부족을 동, 서, 남, 북, 중의 5부로 바꾸었다. 그리고 왕위 계승도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꾸어 왕권을 강화하였다. 4세기 초 미천왕 때에는 남으로 대동강 유역을 확보한 후, 요동 지역으로 세력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백제의 성장과 한군현	백제는 처음 마한의 한 소국에 불과했지만, 점차 마한 세력을 통합하면서 그 중심 세력이 되었다. 백제도 고구려처럼 중국 세력의 간섭과 침략을 물리치면서 성장하였다. 3세기 고이왕 때에는 한강 유역에 있는 여러 세력을 통합하고, 안으로 국가 제도를 정비하여 나라의 기틀을 확립하였다.	백제는 성장 과정에서 중국 군현의 압력을 받아 어려움을 겪었다. 백제가 중국 세력의 간섭과 침략을 물리치면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3세기 중엽 고이왕 때였다. 고이왕은 밖으로 마한의 중심 세력인 목지국을 병합하고, 한반도의 중부 지역을 확보하였다.
가야와 한군현	가야 연맹에서는 발달된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여 농업 생산력이 크게 증대되었고, 또 풍부한 철을 중국과 일본 등지에까지 수출하였다.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발전하였던 가야 문화는 뒤에 신라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또, 가야의 일부 세력이 일본에 진출하여 일본의 고대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연표	고조선 멸망, 낙랑군 멸망	고조선 멸망, 한군현 설치, 낙랑군 멸망

7차 중학교 교과서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군현의 설치에 대한 서술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왕검성이 함락되고 고조선은 멸망하였다”는 서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없다. 고구려의 발전 부분에서 미천왕이 중국 세력을 몰아내는 내용에 대한 서술 역시 “미천왕 때에는 남으로 대동강 유역을 확보”했다고 하여 대동강 유역에 있던 세력을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가야에 대한 서술 역시 5차의 그것으로 되돌아갔다.

7차 중학교 교과서에서 한군현의 존재가 확인되는 서술은 변한의 철 수출과

백제의 성장과정에 미친 중국 군현의 압력에 대한 내용이다. 전자의 경우 기존 교과서와 다르지 않지만, 후자인 백제의 성장 부분 서술은 돌출적일 뿐만 아니라, 7차 중학교 교과서 서술의 추세와도 맞지 않아 독자의 이해를 혼란스럽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연표에 3차 이래로 서술되지 않았던 한군현 설치와 낙랑군 멸망을 기재한 연표뿐이다.

다음은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서술을 비교하겠다.

〈표 8〉 6차 고등학교 국사(상)과 7차 고등학교 국사의 한군현 관련 서술 내용

내용 분류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상)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한군현 설치	고조선이 멸망하자,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여 지배하였으나, 토착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그리하여 그 세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드디어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소멸되었다(313).	고조선이 멸망하자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여 지배하고자 하였으나, 토착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그리하여 그 세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결국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소멸되었다.
한군현의 수탈과 법 조항의 증가	한의 군현이 설치되어 억압과 수탈을 가하게 되자, 토착민들은 이를 피하여 이주하거나 단결하여 한 군현에 대항하였다. 이에 한 군현은 엄한 율령을 시행하여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 하였다. 그에 따라 법 조항도 60여 조로 증가되었고, 풍속도 각박해졌다.	한의 군현이 설치된 후 억압과 수탈을 당하던 토착민은 이를 피하여 이주하거나 단결하여 한의 군현에 대항하였다. 이에 한의 군현은 엄한 율령을 시행하여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 하였다. 그에 따라 법 조항도 60여 조로 증가하였고, 풍속도 각박해졌다.
고구려의 건국과 한군현	고구려는 … 압록강변의 국내성(통구)으로 옮겨 5부족 연맹을 토대로 발전하였다. 그 후 활발한 정복 전쟁으로 한의 군현을 공략하여 요동 지방으로 진출하였고, 또 동쪽으로는 부진 고원을 넘어 옥저를 정복하여 공물을 받았다.	고구려는 … 압록강 가의 국내성(집안)으로 옮겨 5부족 연맹을 토대로 발전하였다. 그 후, 활발한 정복 전쟁으로 한의 군현을 공략하여 요동 지방으로 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쪽으로는 부진 고원을 넘어 옥저를 정복하여 공물을 받았다.

내용 분류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상)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변한과 한군현	변한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 일본 등에 수출하였다. 철은 교역에서 화폐처럼 사용되기도 하였다.	변한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 왜 등에 수출하였다. 철은 교역에서 화폐처럼 사용되기도 하였다.
고구려의 발전과 한군현	고구려 성장 과정에서 태조왕 때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우선,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복과 통합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어 현저한 대외 발전이 이루어졌다. 함경도 지방의 옥저를 정복하고, 만주 지방으로 세력을 확대시켰으며, 낙랑에 대해서도 자주 압력을 가하였다.	졸본성에서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긴 고구려는 1세기 후반 태조왕 때에 이르러 정복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4세기 초에 고구려는 낙랑군을 쳐서 중국 세력을 우리 나라에서 몰아 내는데 성공하였다(313).	미천왕 때에 낙랑군을 완전히 몰아 낸 고구려는 압록강 중류 지역을 벗어나 남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백제의 성장과 한군현	한강 유역의 백제는, 이후 연맹 왕국으로 성장하면서 마한을 대신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한 군현 세력이 한강 유역으로 뻗어 오자, 백제는 한강 유역의 소국과 연맹하여 이를 막아 내었다. 그리하여 3세기 중엽 고이왕 때에 이르러, 백제는 확대된 영토와 통치 조직을 갖추으로써 중앙 집권 국가로서의 기틀을 잡았다. 이 때의 백제는, 한성을 중심으로,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한 군현과 경쟁하였고,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관제를 마련하고, 관리의 복색을 제정하는 등 지배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개혁 작업은 왕권이 강화되고 중앙 집권 체제가 진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백제는 한강 유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던 한의 군현을 막아 내면서 성장하였다. 고이왕 때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
기야와 한군현	기야 연맹은 주변의 여러 나라 이외에 한 군현이나 일본과도 교역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하였다.	기야의 소국들은 ... 풍부한 철의 생산과 해상 교통을 이용하여 낙랑과 왜의 규슈 지방을 연결하는 중계 무역이 발달하였다.
삼국의 대외 관계와 한군현	삼국 시대에 우리 민족은 주로 중국의 침략 세력에 맞서 항쟁하였다. 특히, 국경을 직접 접하고 있던 고구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고구려는 중국 한 군현과의 대립 항쟁 속에서 성장하	서술 없음

내용 분류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상)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p>였고, 마침내는 이들 세력을 축출함으로써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p> <p>...</p> <p>한편, 백제는 북방 민족이나 중국의 북조와 자주 접촉한 것은 아니었으나, 역시 한 균현의 침입을 물리치면서 성장하였다.</p>	
연표	고조선 멸망, 한군현 설치, 낙랑군 멸망	고조선 멸망, 낙랑군 멸망

7차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한군현 관련 서술은 6차 교과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앞서 확인한 7차 중학교 교과서와 같은 경향성 아래 서술되었음을 알 수 있는 단서를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다.

먼저 한군현의 설치 관련 내용을 “고조선이 멸망하자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여 지배하고자 하였으나, 토착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로 서술하였다. 이는 5차 교과서와 거의 동일한 것이고 이 서술의 모호성이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삼국의 대외관계 부분에서 고구려·백제와 한군현의 관계를 서술한 부분이 통째로 빠졌다.<sup>19</sup> 또한 연표에서 한군현 설치가 보이지 않는데, 이는 7차까지의 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틀어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7차 교과서 한군현 관련 내용의 서술 추세는 축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 교과서 국정화가 시작된 3차 교육과정에서 7차 교육과정까지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한군현 관련 서술 내용을 차수별로 비교해보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서술 내용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차수가 진행될수록 대체로 한군현 관련 내용 서술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앞서 확인한 대로 6차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역전되는 경향을 보

19 다만 이 경우는 교과서 체제상의 변화로 6차 교과서 「삼국의 외교」에 대항하는 소절이 7차 교과서에서 사라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지만, 대체적인 추세는 축소 일변도였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이는 서술 분량뿐만 아니라 한군현이 한국사에서 가지는 영향력 및 의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서술이 일부 발견된다. 교과서의 본문 서술을 통해서 한군현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학습자의 한군현 이해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정확한 서술로 명확한 이해를 유도해야 하는 교과서의 서술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국정교과서의 한군현 관련 서술 내용에서 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앞서 확인한 것처럼 국정교과서 연구와 저술의 담당 기관은 국사편찬위원회였으며,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사람들은 학생을 가르치며 연구를 진행하던 교수와 교사들이었다. 이들의 전문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교과서의 한군현 관련 서술 내용이 이처럼 혼란스럽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 Ⅲ. '국사교과서 파동'과 국사교과서 내용의 변화

앞서 확인한 3~7차 국정교과서의 한군현 관련 서술 내용의 추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3차에서 4차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크게 변화되었으며, 4차에서 5차로 넘어가는 과정 역시 교과서 내용의 큰 변화를 수반하였다. 5차에서 7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앞서보다는 작지만 추세상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다. 6차에서 7차로 넘어갈 때 역시 차이는 작지만 추세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를 편의상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어 검토하겠다.

## 1. 1기(1973~1982)

1973년 5월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이 발표되자 역사학계와 교육계는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sup>20</sup> 그런데 이와는 다른 방향에서 교과서에 문제를 제기한 집단이 있었다.<sup>21</sup>

1978년 안호상 외 8인이 공동명의로 국사의 고칠 점과 국사교과서 내용 시정에 대한 건의서를 대통령, 국무총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건의서의 내용은 교과서의 고대사 서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학계의 고대사 인식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회답문을 통해 이들의 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혔다. 그러자 안호상 측에서는 『자유지』 등의 언론을 통해 학계에 대한 맹렬한 비난을 개시하는 한편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1980년 4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시작되고 이와 동시에 국사교과서 개정 작업도 진행되었다. 그러자 안호상 측은 다시 강력한 공세를 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국회의원 19인의 소개로 「국사교과서 내용 시정 요구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기하였다. 청원서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1978년의 건의서 내용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는데, 이 중에는 한군현의 위치가 중국 북경지방이었음을 주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청원을 받은 국회 문공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하였다. 학문적인 내용을 국회 의결을 통해 교과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이기에 먼저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여기서 모아진 여론에 따라 교과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이유에서였다.

1980년 11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공청회는 안호상 측은 나름

20 「국사교과서 국정에 대한 각계 의견」, 『동아일보』, 1973.6.25, 5면.

21 이하의 서술은 윤종영의 책(윤종영, 1999, 『국사교과서 파동』, 혜안)과 기경량의 논문(기경량, 2016, 「사이비 역사학과 역사 파시즘」, 『역사비평』 114)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각주를 달지 않았다.

의 사료 해석을 근거로 확장된 고대사상을 주장하고, 학계 측 발표자들이 이에 대해 사료 해석의 오류와 확대된 고대사상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공청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안호상 측의 주장에 호응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학계 측 발표자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자세로 일관하였다. 일례로 둘째 날 발표자로 참가했던 김원룡 교수는 발언 중에 있었던 “학문은 학계에서 해결해야지 이곳에 불러 나온 것은 시간낭비요 서글프다”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어 박재욱 의원의 집요한 추궁을 받았고, 발언 취지에 대한 해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박 의원에게 머리를 숙여야 했다. 또한 이기백 교수는 국회에서의 답변 방법에 생소하여 질문한 의원의 성함을 잘 몰라 죄송하다고 전제하고 답변에 나섰다. 그러나 훈계조의 반박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4차 교육과정 국사교과서에서 나타나는 한군현 관련 서술 내용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당시 교육부 역사담당 편수관으로 근무하며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정에 참여하고, 1980년 11월 국회공청회에서도 제반 실무를 담당했던 윤종웅의 회고에 따르면 공청회에 참가한 일부 학자들이 국회에서 받은 충격 때문에 교과서 개발 참여를 기피하였다고 한다.<sup>22</sup>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사교과서의 서술은 자연스럽게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앞서 4차 교과서의 한군현 관련 서술이 가지는 특징으로 소재목과 지도에서 한군현이 빠지는 것, 위치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를 남긴 것을 들었다. 그런데 1978년의 건의서와 1980년의 청원서, 그리고 1980년 11월의 공청회에서 드러난 안호상 측의 한군현 관련 주장은 한군현이 한반도에 없었을 뿐더러 고조선의 멸망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었다.<sup>23</sup> 이들 중 그나마 학술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22 윤종웅, 1999, 위의 책, 95쪽.

23 이와 같은 주장은 공청회에 안호상 측 발표자로 참가한 박시인 교수의 발언에 잘 드러난다. “다음에 조선 4군에 대하여 ... 한무제의 사관인 사마천이 한나라가 졌다는 전쟁인데 왜 우리가 저서 망했다고 하는지 그 근거를 내놓았으면 좋겠다. 그 근거는 없다. 교과서에는 진번·임둔·낙랑·현도 등 4군을 한무제가 두었다고 하는

남는 부분은 한군현의 위치문제이다.<sup>24</sup> 이 때문에 4차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한군현의 위치를 주석으로 처리하여 해석의 여지를 남겼고, 그 위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도에는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안호상 측의 재공격 가능성을 차단하려 했던 것이 아닐까.<sup>25</sup>

## 2. 2기(1986~1990)

4차 교과서의 발행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였던 국사교과서에 대한 공격은 1986년 8월 『조선일보』가 「국사교과서 새로 써야 한다」는 기사를 11회에 걸쳐 연재하면서 다시 시작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역사학계가 식민주의사관에 물들어 일본이 의도적으로 왜곡한 우리 역사를 그대로 국사교과서에 쓰고 있다. 이것은 국민교육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따라서 이를 시

---

데, 이는 중국 사기에도 없는 낭설이다. 진번과 임둔은 한무제가 설치한 군이 아니라 그의 선조인 한고조 때도 있었던 조선의 지명이다. 낙랑과 현도는 사기에도 없는 지명이다. 한무제가 죽은 뒤에 그의 아들 소제 때 현도라는 지명이 나타나고 낙랑이라는 지명은 더 후에 나타난다. 현도·낙랑은 『한서』권28 지리지에 나오는데 지금의 하북성 북경 부근인 연나라에 있다고 되어 있다.”윤종웅, 1999, 앞의 책, 41~42쪽.

- 24 사실 해석의 여지가 남는다는 평가마저 과분할 수 있다. 임기환은 4차 교과서에서 요동·요서설을 소개한 것을 “한사군의 위치 문제에서 요동·요서설은 소수설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실증적 기반이 취약한 견해”인데 “그럼에도 국사교과서에 한군현 위치에 대한 이설이 기술된 점 자체가 바로 고대사 파동의 후파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평가하였다. 임기환, 2017, 앞의 글, 27쪽.
- 25 이부오는 이와 같은 교과서 서술의 변화를 민족주의를 강조해 신군부의 통치를 안정시키려는 5공화국의 교육정책과 비학문적 방식으로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려 했던 일부 사람들의 시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였다(이부오, 2010, 앞의 글, 249쪽). 한편, 임기환은 “지도에 한군현을 표기하지 않는다고 그 사실을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한반도의 중요 지역인 대동강 일대에 아무 정치세력도 표기하지 않는 지도 자체가 그 지역에 표기하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고 하면서 교과서의 해당 서술이 고대사 파동으로 인한 논란을 회피하려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임기환, 2017, 위의 글, 26쪽.

정하기 위해 조속히 국사교과서를 새로 써야 한다.<sup>26</sup>

같은 해 10월에는 윤보선 전(前) 대통령과 이종찬 국회의원(민정당 민족사관 정립 추진위원장)을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하는 ‘민족사 바로잡기 국민회의’라는 단체가 결성되어 국사편찬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sup>27</sup>

이에 대한 국사편찬위원회의 대응은 학계 인사를 망라한 국사교육심의회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심의회 회의를 통해 1987년 3월 25일 ‘국사교과서 편찬준거안 시안’이 발표되었다. 이 시안은 같은 해 4월 14일 설명회를 거쳐 6월 5일 최종안이 발표되었다.

이보다 앞서 1987년 2월 25일~26일의 양일간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국상고사의 제문제」라는 주제의 학술회의가 열렸다. 이 학술회의의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sup>28</sup>

- ① 해방후 민족주체사관 확립의 주요과제로 되어 있는 고조선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통하여 이 부문 연구에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한다.
- ② 이른바 재야사학자들과 강단사학자간의 폭넓은 의견 교환을 통하여 피차 쟁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앞으로 이 부문의 연구를 심화·수렴하고, 그 결과를 국사교육에 적극 활용토록 한다.<sup>29</sup>

---

26 기사의 회별 제목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의 ‘역사왜곡’ 이길 고대사 교육 회복 시급」, 「2. 당시 학자들 “삼국사기 믿을 수 없다”」, 「3. 일(日) 총독 “조선인은 조선사(朝鮮史) 모르게 하라”」, 「4. 조선사편수회」, 「5. 왜 고대사 말살했나」, 「6. 일(日)의 ‘남한지배설’ 교육」, 「7. 실증사학의 한계」, 「8. 국사학계와 고고학계」, 「9. 의식 없는 역사교육」, 「10. 문교부의 책임」, 「11. 학계의 소리」.

27 이 단체에는 당시 여야의 정치인들이 두루 참여하고 있었다. 이는 고문으로 참여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단체의 고문으로 참여한 사회 지도급 인사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최규하, 허웅, 이강훈, 윤길중, 김동리, 윤치영, 이희승.”

28 이 학술회의의 내용은 같은 해 9월 발행된 『한국상고사의 제문제』에 수록되어 있다.

2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서문」, 『한국상고사의 제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 학술회의는 매일 1,000여 명의 청중이 모여드는 등 대성황을 이루었다. 회의의 목표에서 제시한 것처럼 고조선에 관련된 발표와 토론이 있었으며, 자연히 한군현에 관한 문제도 다루어졌다. 하지만 이 회의는 학술회의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험악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역사학계 측 발표자로 참여한 교수들에 대한 청중들의 야유와 폭언이 이어졌는데, 이 때문인지 발표자와 토론자 가운데 일부가 자리를 뜨는 일도 있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들 중 학계 측의 발표자였던 이기동 교수는 청중들에게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을 받아야 했다.<sup>30</sup> 역사학자들에게 이 회의는 한마디로 1980년에 있었던 국회 공청회의 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국사교과서 편찬준거안’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표되었다. 따라서 그 내용에는 이른바 재야사학자들의 주장과 학계의 입장이 절충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많았다.<sup>31</sup> 이 준거안의 한군현 관련 서술 방향은 다음과 같다.

한군현에 관해서는 근래의 학문적 성과를 유의하여 서술하되 그것이 한국사의 주류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한다(위치 문제는 주에서 처리함).<sup>32</sup>

흥미로운 것은 이 준거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술 방향과 5차 교과서의 서술 내용의 차이이다. 5차 교과서는 앞서 확인한 것처럼 한군현의 설치와 영향력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처리한 반면 그 위치는 주석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서술을 통해 한반도 내에 있었음을 넉넉히 드러내고 있었다. 위치 문제를 주석으로 처리한 것은 오히려 4차 교과서였다. 이는 교과서의 한군현 서술

vi쪽.

3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위의 책, 286~296쪽의 토론 녹취문 참조.

31 준거안이 발표된 다음 날 『중앙일보』의 사실은 “새 국사교과서 편찬준거안의 내용은 한국사의 주체성 회복과 국사학계의 학문적 심화의 양면을 수렴하려는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라고 썼다.

32 윤종영, 1999, 앞의 책, 172쪽.

내용에 대해 예상되는 재야사학계의 반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군현 자체에 대한 서술을 줄였지만, 고구려에 의해 멸망된 낙랑군의 위치를 한반도 내로 암시함으로써,<sup>33</sup> 학계의 통설적 이해를 서술 내용에 반영시킨 일종의 교육지책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서술은 학계의 명분을 만족시켰을지는 몰라도 교과서를 통해 공부하는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이해의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 3. 3기(1992~1996)

1970년대부터 이어진 이른바 국사교과서 파동이 마무리되고 1990년대에 접어들자 국사교과서의 고대사 부분 서술에 대한 이른바 재야사학계의 공격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 때문인지 6차 교과서는 앞서 확인한 것처럼 학계의 통설적 이해에 좀 더 수렴한 서술이 나타난다.

6차 교육과정 국사교과서 서술을 위한 「국사교육 내용전개의 준거안」은 1994년 3월 시안이, 같은 해 7월 최종안이 보고되었다. 이 준거안의 한군현 관련 서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 낙랑군 등 한사군이 위만 조선의 영역에 설치되었음을 기술한다.

고등학교: 낙랑군 등 한군현의 위치를 기술한다. 중국 군현이 고조선 사회의 정치적 성장을 억제한 면과 한군현의 지배에 대항하고, 한편으로는 한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면서 고조선 사회의 외곽에서 다음 단계의 삼국이 성장하게 된 사실을 설명한다.<sup>34</sup>

33 “한사군 문제는 우리 나라 고구려의 역사가 한사군을 구축하면서 발전한 점을 인식, 고구려 성장에 대한 이해의 전제로 한사군의 서술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선에서 일 단락되었다.” 「구석기시대 등 고대 비중 높여」, 『동아일보』, 1987.6.6, 10면.

34 이준희 외, 1994, 「국사교육 내용전개의 준거안 연구보고서」, 17~18쪽.

이 준거안의 서술 방향과 6차 교과서의 서술 내용은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4차 이후로 중학교 교과서에서 사라졌던 군현 설치에 대한 서술이 나타나는 변화는 준거안의 서술 방침에 기인한 것이라 보아도 좋을 것 같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준거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군현의 위치를 명확하게 서술하지는 않았지만 백제와 한군현의 관계를 추가함으로써 그 위치 및 삼국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준거안이 <참고 내용>에서 “부여·고구려·삼한·옥저·동예 등의 초기 고대 국가와 종족들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에서 낙랑군의 위치도 함께 표시하는 것이 좋다”고 한<sup>35</sup> 권고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군현의 위치에 대한 명확한 서술이 국사교과서에 대한 불필요한 공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집필진들에게 여전히 존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 4. 4기(1997~2002)

7차 교과서에서는 중·고등학교 모두 6차 교과서와는 달리 한군현 관련 내용의 서술 방향이 5차 때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서술 내용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외부적 요인은 쉽게 짐작하기 어렵다. 2002년부터 진행된 동북공정의 영향을 추정할 수도 있지만, 국내에 동북공정이 처음 알려진 것은 2003년 7월의 일이며,<sup>36</sup> 7차 교과서는 2002년에 발간되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사교과서 서술을 위한 별도의 준거안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교육과정 문서에서 6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상세한 성취기준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sup>37</sup> 한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한군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술 방향을 제시하였다.

35 이준희 외, 1994, 위의 보고서, 23~24쪽.

36 송기호, 2007, 『동아시아의 역사분쟁』, 숲, 140쪽.

37 임기환, 2017, 앞의 글, 36쪽.

[중학교]

한군현 관련 서술 방향 제시 없음

[고등학교]

4. 한의 침략과 그 결과로 설치된 한 군현은 고조선의 일부만을 지배하였으며, 토착민의 반발로 그 세력이 점차 약화되다가 고구려의 공격으로 소멸되었음을 이해한다.

이 내용을 6차 교육과정의 준거안과 비교하면 한군현의 위치를 기술하라는 서술 방향 제시가 빠진 것은 물론 내용 자체가 소략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한군현 관련 서술 방향 제시 자체가 없는데, 앞서 확인한 것처럼 중학교 국사교과서에서 한군현의 설치 사실 자체가 빠진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7차 교과서의 서술 변화는 교육과정의 서술 방향 제시를 충실하게 따른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 있었는지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한군현 관련 서술 내용이 학술 외적 요인에 의해 점차 축소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확장된 고대사상(古代史象)을 주장하는 이른바 재야사학계가 정치권 및 시민사회 일각의 지지를 등에 업고 국사편찬위원회 및 역사학계를 압박한 결과였다. 이와 같은 압박하에 역사학계가 모호한 서술을 통해 학계의 통설적 이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시키려 노력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학계로서는 주어진 조건하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였지만, 이로 인한 혼란이 모두 학습자의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학계 외부의 압박은 국정화라는 조건 또한 외적 배경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교과서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2009년부터 교육현장에서 사용된 검정교과서의 한군현 관련 내용의 변화와 2015년 시도된 국정교과서의 반동이 바로 그것이다.

## IV.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역사교과서의 한군현 관련 서술 내용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변화는 역사 교과서의 발행 제도가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교과서 내용의 대강화 원칙이 표방되는 한편에 집필기준이 별도로 제시되어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도 있지만,<sup>38</sup> 몇 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을 거친 교과서의 한군현 관련 서술은 이전 국사교과서와 극적인 차이를 보여준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 같다.

〈표 9〉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검정이 진행되어 2011년 발행된 『중학교 역사(상)』의 한군현 관련 서술을 정리한 것이다.

〈표 9〉 2011년판 검정교과서 『중학교 역사(상)』의 한군현 관련 서술

출판사	서술 내용	
교학사 (신)	본문	이후 한은 고조선 땅에 군현을 설치하였는데, 낙랑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곧 사라졌다.
		4세기에 중국 지역은 진(晉)이 멸망하고 5호 16국 시대의 혼란기를 겪고 있었다. 이때를 틈타 고구려의 미천왕은 낙랑군을 몰아내고 대동강 유역을 확보한 후 요동 지역으로 세력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교학사 (양)	본문	한나라는 고조선의 영토 일부에 한나라의 행정 구역인 군과 현을 설치하였다. 고조선 유민들은 한의 억압과 수탈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였고, 이에 한 군현은 엄격한 법을 만들어 유민들을 통제하려 하였다. 이 시기에는 8개의 법률 조항이 60개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풍속도 각박해져 갔다.
	본문 외(外)	한국의 군현 중 3개의 군은 고조선 유민과 토착민의 저항으로 일찍 사라지거나 축소되었고, 최후까지 남아 있던 낙랑군은 고구려에 의해 한반도에서 사라지게 되었어.
	본문	4세기 초 미천왕 때에는 중국의 낙랑군을 완전히 몰아내고 대동강 유역을 확보함으로써 남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백제는 중국의 한나라가 설치한 군현의 압력을 받아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물리치면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38 임기환, 2017, 위의 글, 42쪽.

출판사	서술 내용	
두산동아	본문	이후 한은 고조선의 옛 영토에 군현을 설치하여 지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토착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얼마 지나지 않아 폐지되거나 옮겨가는 등 변화가 일어났다.
		4세기 초 미천왕은 중국의 분열을 틈타 낙랑군을 몰아내고 대동강 이남의 황해도 지역까지 영토를 넓혔으며, 요동 지역으로도 세력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백제는 3세기 고이왕 때 중국 군현의 침략을 막아 내면서 나라의 기반을 다졌다.
미래엔	본문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였으나 한의 통치에 대한 저항 운동은 계속되었다. (고구려는) 4세기에는 요동을 공격하고 중국의 군현에 맞서 싸우며 성장하였다. 또한, 남쪽으로는 대동강 유역을 확보하였다.
지학사	본문	고조선이 멸망하자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면서 억압과 수탈을 강화하였다. 이에 옛 고조선의 백성들은 이를 피해 한반도 남부로 이주하거나, 단결하여 한의 군현에 강력히 대항하였다.
		4세기 들어 중국이 혼란에 빠지자 고구려는 다시 영토 확장에 나섰다. 미천왕 때에 서안평을 점령한 뒤 여세를 몰아 대동강 유역을 확보하고, 이후 요동 지역으로 세력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본문 외	고구려와 중국 세력의 대립 서안평은 압록강 하류 유역에 있었는데, 낙랑과 중국 본토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본문	백제는 성장 과정에서 북쪽에 위치한 중국의 군현 세력과 남서쪽에 위치한 마한 목지국의 압력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대교	본문	위만의 손자 우거왕은 수도 왕검성이 포위된 상황에서 약 1년간 항거하였으나 지배층의 내분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멸망하였다(기원전 108년). 이후 한은 옛 고조선의 영토와 그 주변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여 다스렸다.
		미천왕은 중국 대륙에서 여러 유목 민족이 일어나 흉망을 거듭하는 혼란스러운 시기(5호 16국 시대)를 틈타 한반도와 요동 지역을 이어 주는 길목인 서안평을 점령하였다. 또한 낙랑군을 공격하여 중국 세력을 몰아내고 대동강 유역을 차지하였다. (백제는) 하지만 북쪽에 인접한 중국의 군현을 통해 우수한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고 한강 유역 일대의 소국들을 통합하며 빠르게 세력을 넓혀 나갔다.
비상교육	본문	고조선이 멸망한 후 한은 한반도에 여러 군을 두어 다스리하고자 하였다. 이에 토착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단결하여 한에 대항하였다. 한은 점차 세력이 약화되었고, 마지막까지 버틴 낙랑군을 고구려가 공격하여 소멸시켰다. 4세기 초 미천왕 때에는 낙랑군을 멸망시키고 중국 세력을 한반도에서 몰아냈다.
천재교육	본문	이후 한은 고조선의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여 지배하였다. 이때 많은 고조선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주하여 삼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4세기 초 미천왕 때에는 중국의 군현 세력을 몰아내고 세력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2011년판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군현 설치 및 연혁에 관련된 서술은 7차 교과서의 내용과 분량 및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 여러 나라의 성장 지도에 대동강 유역을 비워놓는 것 또한 4차 교과서 이래의 흐름을 따르고 있다.

검정교과서의 집필 방향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자료는 각각의 교과과정 발표와 함께 제시된 교과서 집필 기준이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 따라 집필되었는데, 이 집필 기준에는 한군현 관련 별도의 서술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가 7차 교과서의 내용과 크게 차이 없게 서술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서술 내용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표 10>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검정이 진행되어 2011년 발행된 『중학교 역사(1)』의 한군현 관련 서술을 정리한 것이다.

<표 10> 2013년판 검정교과서 『중학교 역사(1)』의 한군현 관련 서술

출판사	서술 내용	
천재교과서	본문	고조선이 멸망하자 한은 고조선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군현을 설치하고 고조선 유민에 대한 억압과 수탈을 강화하였다. 또 법이 엄격해지면서 범조항도 60여 개조로 늘어났다. 한편, 고조선 지역에 설치된 한의 군현은 토착민들의 반발과 고구려 등 주변 국가들의 성장으로 점차 세력이 약화되거나 소멸하였다.
		미천왕 때 요동 지역으로 세력을 점차 확대하였으며, 중국의 군현 세력을 몰아내고 대동강 유역을 확보하였다.
		이후 백제는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의 군현 세력을 막아내고, 마한을 이끌던 목지국을 위협하면서 강력한 나라로 발전하였다.
금성출판사	본문	한은 고조선을 정복한 후 그 지역에 낙랑군을 비롯한 몇 개의 군을 설치하여 직접 지배를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고조선 유민이 한의 지배를 피해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내려갔다. 이를 통해 새로운 소국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고조선의 문화 전통이 다시 계승되는 길이 열렸다.
		4세기에 들어와 중국 내부에서 정치적 혼란이 일어났다. 고구려의 미천왕은 이 틈을 타 대동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던 낙랑군과 그 남쪽의 대방군을 정벌하여 그 땅을 차지하였다(313). 이로써 4백 년 이상 존속하였던 중국 세력은 한반도 내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출판사	서술 내용	
금성출판사	본문	<p>백제가 성립한 한강 유역은 농경에 유리한 자연 조건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서북부의 중국 군현과 교류하기에도 편리한 위치였다. 백제는 이러한 이점을 잘 살려 세력을 키워 나갔다.</p> <p>이러한 빠른 성장에 놀란 중국의 대방군은 백제 왕실과 혼인을 통해 우호 관계를 두터이 하여, 백제의 세력이 북쪽까지 확장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백제는 이를 계기로 대방군 등과 더욱 활발히 교류하면서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입하였다. 그 결과 백제는 한강 유역은 물론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로 떠올랐다.</p>
	본문 외	<p>대방군 3세기 초에 낙랑군에서 분리된 군으로, 이후 낙랑군을 대신하여 한반도 남부의 국가들과 교류하였다.</p>
	본문	<p>고조선이 멸망한 후, 한나라는 고조선의 영토 일부에 한나라의 행정 구역인 군과 현을 설치하였다. 고조선 유민들은 한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였고, 이에 한은 엄격한 법을 만들어 유민들을 통제하려 하였다. 이 시기에는 8개의 법률 조항이 60개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풍속도 각박해졌다.</p>
교학사	본문 외	<p>한나라가 설치한 4개의 군 낙랑, 임둔, 진번, 현도군 중 낙랑을 제외한 3개의 군은 고조선 유민과 토착민의 저항으로 군현의 일부가 폐지되거나 한나라에 가까운 쪽으로 옮겨 갔다. 대동강을 중심으로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낙랑군은 최후까지 남아 있었으나, 압록강 중류에서 성장한 고구려에 의해 한반도에서 완전히 축출되었다(313년).</p>
	본문	<p>4세기 초 미천왕 때에는 낙랑군을 완전히 몰아내고(313), 대동강 유역을 확보함으로써 남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p> <p>백제는 마한 세력을 병합해 가면서 성장하였고, 한나라가 설치한 군현의 압력을 물리치면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였다.</p>
	본문	<p>그 뒤 한은 고조선이 있던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 군현을 설치하였으나, 토착민의 강력한 반발로 곧 폐지되거나 옮겨졌다.</p> <p>4세기 미천왕은 중국 군현 지역을 병합하여 황해도까지 영토를 넓혔다. 고구려는 그 뒤 요동 지방까지 점차 세력을 확대하였다.</p> <p>백제는 마한의 한 소국으로 출발하였으며, 중국 군현을 비롯한 주변 세력의 압력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 고이왕은 중국 군현의 지속적인 침략을 막아내는 한편,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였다.</p>
동아출판	본문	<p>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여 지배하였으나 한의 통치에 대한 저항 운동은 계속되었다. 결국 한이 설치한 군현은 이후 등장한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라오허 강 유역으로 쫓겨나가거나 고구려에 정복되었다.</p>
미래엔	본문	<p>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여 지배하였으나 한의 통치에 대한 저항 운동은 계속되었다. 결국 한이 설치한 군현은 이후 등장한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라오허 강 유역으로 쫓겨나가거나 고구려에 정복되었다.</p>

출판사	서술 내용	
미래엔	본문 의	<p>한 근현의 설치 한은 고조선을 멸망시킨 후 고조선이 있던 자리에 낙랑·임둔·진번·현도의 4군과 많은 현을 두었다. 이곳에는 한에서 파견된 관리와 그 가족이 옮겨와 살았으며, 이들은 고조선의 옛 지배층과 함께 사회를 통치하였다. 특히 낙랑군은 고구려에 통합된 4세기 초반까지 중국의 문화를 들여오는 창구 역할을 하였으며, 남쪽의 삼한, 가야 등과 교역하면서 경제·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고구려와 백제의 성장으로 점차 위축되다가 낙랑군은 고구려에 의해 멸망하였다(313).</p>
	본문	<p>4세기에는 낙랑군을 점령하여 중국의 근현 세력을 몰아내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여 전연과 대립하였다. (백제는) 한강과 황해를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중국의 선진 문화를 수용하였고, 우수한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중국의 근현과 대결하면서 성장하였다.</p>
지학사	본문	<p>한은 고조선의 옛 땅에 낙랑군을 비롯한 한사군을 설치하여 직접 지배하고자 하였다. 이에 고조선의 유민들은 한의 근현에 맞서 싸우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한사군은 고조선 유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곧 폐지되거나 물러났다.</p>
	본문 의	<p>낙랑군의 흥망 낙랑은 옛 고조선 땅에 한이 설치한 근현 중 하나로서, 한반도 북부에서 오랫동안 존재하였다. 낙랑은 정치적으로는 초기 여러 나라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었지만, 한반도 고대 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하였다. 한사군의 성립과 변천 한 무제는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반도 북부에 낙랑, 진번, 임둔, 현도의 네 군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한은 현지 주민들의 저항을 받아 기원전 82년에 진번군과 임둔군을 폐지하였다. 그 후 현도군도 고구려 계통 주민들의 저항으로 요동 방면으로 쫓겨나서, 한반도에는 낙랑군만 남게 되었다. 낙랑군은 고구려의 공격으로 동해안 지역을 빼앗기는 등 영토가 축소되었다가, 4세기 초에 고구려 미천왕에게 멸망하였다. 낙랑군의 성격 낙랑군은 옛 고조선 지역의 자치를 인정하고, 중계 무역의 이익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리하여 낙랑 태수와 일부 중앙 관리를 뺀 대부분의 관리와 군인은 현지인들이 차지하였다. 그 후 중국에서 이주해 온 소수의 한인과 고조선계 주민들이 차츰 융합되다가, 3세기 후반에는 거의 토착화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낙랑의 문화는 소수의 중국 계통 주민과 대다수의 옛 고조선 유민들이 함께 이룩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생각해 보기 01 낙랑의 문화는 우리 민족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p>

출판사	서술 내용	
지학사	본문	한동안 위축되었던 고구려는 4세기 초 미천왕 때에 서안평을 점령하고, 낙랑군과 대방군을 몰아냈다.
		백제는 3세기 후반에 낙랑과 대결하면서 내부의 단결을 이룩하고 국가의 위신을 드높였으나, 낙랑의 반격으로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낙랑과 대방이 고구려에 멸망한 뒤, 4세기 중엽 왕위에 오른 근초고왕은 그 유민들을 받아들여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고 지방 통치 조직을 정비하였다.
비상교육	본문	이후 한은 고조선의 옛 영토에 여러 군현을 두어 다스리려 하였다. 그러나 토착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단결하여 한에 대항하였다. 한 군현은 점차 사라졌으며,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낙랑군은 고구려에 멸망하였다.
		4세기 초 미천왕 때에는 중국의 낙랑군을 멸망시키고 대동강 유역을 확보하는 등 세력을 더욱 확대하였다.
천재교육	본문	이후 한은 고조선의 옛 땅에 군현을 설치하여 지배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저항이 계속되어 이내 폐지되거나 옮겨 가야 했다.
		4세기 초 미천왕 때에는 대동강 이남 지역까지 확보하고, 점차 요동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좋은책 신사고	본문	이후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였고, 이에 토착민들은 단결하며 한 군현의 억압에 맞섰다. ... 한 군현이 설치된 이후 풍속이 점차 각박해지면서 8조에 불과하던 법은 60조로 늘어나게 되었다.
		4세기 초 미천왕 때에는 중국의 혼란을 틈타 낙랑군을 몰아내고, 대동강 유역을 확보하여 남쪽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백제는 성장 과정에서 중국 군현의 압력을 받아 어려움을 겪었지만, 3세기 중엽 고이왕 때 이르러 이를 물리치고 나라의 기틀을 튼튼히 하였다.

2013년 판 김정교과서 『중학교 역사(1)』 가운데 금성출판사와 지학사의 서술에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금성출판사 발행본에서는 백제의 성장과정을 서술하면서 대방군의 존재를 드러내고 해당 군현과 백제의 관계를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는 한편 당시 동아시아 세계에서 대방군의 역할을 언급하였다. 또한 지학사 발행본은 본문 외에 「낙랑군의 흥망」이라는 별도 코너를 한 페이지를 할애하여 서술하였는데, 여기서 낙랑군의 설치와 연혁, 그리고 성격과 문화의 특징을 함께 서술하였다. 특히 낙랑의 문화를 “소수의 중국 계통 주민과 대다수의 옛 고조선 유민들이 함께 이룩한 문화”라고 평가하여 낙랑군의 역사를 한국사 속에서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각 교과서의 내용에서 학습자의 오해



▲ 여러 나라의 발전



▲ 여러 나라의 성립



▲ 고조선 이후 등장한 여러 나라

**그림 2**

- ① 2011년판 『중학교 역사(상)』 교학사 발행본.
- ② 2013년판 『중학교 역사(1)』 교학사 발행본.
- ③ 금성출판사 발행본

를 유발할 수 있는 모호한 서술이 줄어든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극적인 변화는 9종 교과서 가운데 천재교육 발행본을 제외한 8종 교과서의 여러나라의 성장 지도가 낙랑군의 위치를 표기한 것이다. 6차 교과서의 준거안에서 한군현의 위치를 서술하라는 방향 제시가 있었음에도 지도에 표기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할 때 중요한 변화라는 의미 부여가 가능할 것 같다. 과거 교과서에서 여러 나라의 성장 지도에 군현의 위치를 표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역사학계의 지적이<sup>39</sup> 수용된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러한 변화는 별도의 집필 지침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 따라 집필되었는데, 이 집필 기준은 2007년과 마찬가지로 한군현과 관련하여 별도의 서술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같은 시기에 공표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도 한군현에 관련된 별도의 서술 방향 제시가 없었다. 서술 내용의 변화가 외부의 압력이 아닌 교과서 집필자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결과였음을 알려준다.

이는 검인정이라는 제도 변화를 통해 부분적이거나 교과서 필자의 재량이 확보되었을 때, 군현 관련 서술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서술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한편, 국정화라는 제도하에서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 서술 내용이 특정한 방향으로 강제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2015년 이후 도입이 시도되었다가 결과적으로 실패한 2016년판 국정 교과서 현장검토본의 내용 변화가 이러한 추정에 힘을 실어준다.

2016년판 국정 교과서의 서술은 적어도 위치 문제만큼은 7차 교과서의 모호한 서술로 돌아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모습은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두드러지게 확인되는데 여기에는 낙랑군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서술되지 않았다. 미천왕이 요동 지역을 공격하고 낙랑군을 축출하였다는 서술은

---

39 강중훈, 2008, 앞의 글, 234쪽.

〈표 11〉 2016년 판 국정교과서의 한군현 관련 서술

출판사	서술 내용	
중학교 역사	본문	한편, 한은 위만 조선의 옛 땅에 낙랑군을 비롯한 한 군현을 설치하고 직접 지배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한의 세력이 쇠퇴하면서 한 군현의 지배력도 점차 약화되고, 토착 세력이 성장해 갔다.
	본문 외	낙랑군은 우리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오늘날 평양 일대에 자리했던 낙랑군에서는 고조선의 유민과 한에서 온 사람들이 융합되었다. 따라서 낙랑군은 중국 문화를 한반도에 들여오는 창구 역할을 하였다. 낙랑군은 삼한, 가야 등과 경제·문화적으로 교류하다가 고구려에 통합되었다(313).
	본문	4세기 초 고구려는 중국 내부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낙랑군을 공격하여 그 지역을 차지하였다(313).
고등학교 한국사	본문	한은 위만 조선의 옛 땅에 낙랑군 등의 군현을 설치하였다. 낙랑군은 일부 중국계 유민과 기존의 토착 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운영되었고, 교역과 문화 교류의 중심지가 되었다. 하지만 한 무제 사후 한이 쇠퇴하고 고구려와 백제가 성장하면서 한이 세운 군현은 점차 약해지고, 토착세력이 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 군현도 함께 변화를 겪다가 결국 고구려에 의해 축출되었다(313)
	본문 외	낙랑군 고조선 멸망 이후 한이 그 지역에 설치한 지방 행정 기구로, 4세기 고구려에 의해 축출될 때까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여러 국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본문	4세기 북중국에서는 여러 유목 민족이 잇달아 나라를 세우고 주도권을 다투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틈을 이용해 미천왕은 적극적으로 정복 활동을 벌여 요동 지역을 공격하고 낙랑군을 축출하였다(313).

학습자에게 낙랑군이 요동 지역에 위치했다는 착각마저 유발할 수 있다. 여러 나라의 성장 지도에서도 다시 대동강 유역을 공백지로 표기하였다. 반면에 중학교 역사의 경우 여러 나라의 성장 지도는 고등학교 한국사와 마찬가지로의 서술 태도를 보였지만 본문 서술에서는 낙랑군의 위치를 평양 지역으로 명시하였다.

두 교과서의 이러한 차이는 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 한국사의 집필 기준에서 한군현 관련 서술 방향이 제시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 교과용 도서 편찬기준(안)』의 「고등학교 한국사 편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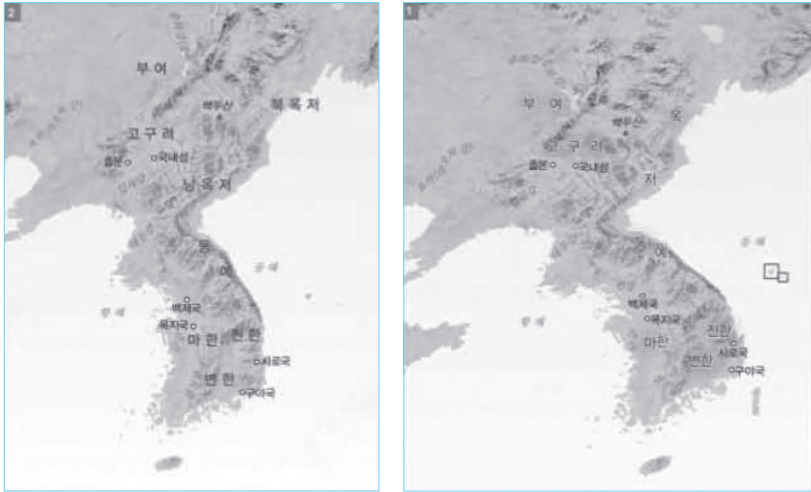


그림 3 왼쪽부터 2016년판 국정 고등학교 한국사, 2016년판 국정 중학교 역사

준」은 한군현 관련 서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한시군에 대해 서술할 경우 그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하므로 지도를 통하여 표시하기보다는 한시군과 삼한 등 한반도의 여러 국가와의 관계를 위주로 서술한다.

이러한 서술 방향 제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추진될 당시 재연되고 있던 ‘고대사 파동’의 여파가 미친 것이었다. 2015년 11월 3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 고시하면서 밝힌 특별담화에서 한국사 중 ‘상고사·고대사’ 서술 보강을 천명하였는데, 학계에서는 이러한 방침에 따른 국정교과서의 서술 내용에 민족주의적 성향이 과도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근대에 창출된 위서인 『환단고기』의 내용을 인용한 것을 근거로 당시 정부의 역사 인식이 이른바 재야사학의 국수주의적 고대사에 경도되었을 가능성과 이것

이 교과서 내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공개된 국정 교과서의 서술 내용에서는 단편적이지만 일부 아마추어 역사저술가 중에서 국수주의적 색채가 짙은 ‘사이비역사학’ 내지 ‘유사역사’의 영향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sup>40</sup> 「고등학교 한국사 편찬 기준」의 한군현 관련 서술 방향의 제시와 이에 따른 서술 내용의 변화는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sup>41</sup>

2015년의 상황을 앞서 확인한 1980년대의 4차 및 5차 국사교과서 발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확실해지는 것이 하나 있다. 외부의 압력이 교과서 서술 내용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과 그러한 외부 압력이 쉽게 미칠 수 있는 배경에 교과서 국정화라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역사교과서의 한군현 관련 서술은 교과서 발행제도가 검인정에서 국정으로 전환된 3차 국사교과서부터 서술의 분량과 내용 면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경향성이 7차 교과서까지 지속되었다. 그 특징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이다.

먼저 차수가 진행될수록 한군현 관련 내용 서술이 축소되었다. 6차에서 이러한 추세가 역전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체적인 추세는 축소 일변도였다. 서술 분량뿐만 아니라 한군현이 한국사에서 가지는 영향력 및 의미에 대

40 이상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재추진을 둘러싼 전말은 이정빈의 글을 참조하였다. 이정빈, 2018a, 「국정 역사교과서의 한국고대사 서술과 유사역사 문제」, 『역사교육연구』 31.

41 이정빈은 “한사군의 위치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는 편찬 유의점은 유사역사가의 견해를 학설의 하나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국정 역사교과서(2017)는 편찬유의점에 따라 유사역사가의 견해를 학설의 하나로 인정했고, 서술에 서도 그 일부를 수용한 셈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정빈, 2018a, 위의 글, 27쪽.

해서도 같은 경향성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게 서술하려는 집필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 결과 교과서의 본문 서술을 통해서 한군현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서술이 초래할 결과는 학습자의 혼란이며, 이는 정확한 서술로 명확한 이해를 유도해야 하는 교과서의 서술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상의 경향성에 영향을 끼친 것은 역사학계 내부의 변화가 아닌 외부의 압력이었다. 1980년대 국수적 고대사 인식에 기반한 이른바 재야사학계의 문제 제기는 국정화라는 배경하에 국사교과서의 한군현 관련 서술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 발행 제도가 검인정으로 전환된 이후 확인되는 한군현 관련 서술의 변화가 2015년 국정화가 재추진된 이후 발행된 국정교과서에서 다시 과거의 그것으로 회귀한 사실이 이러한 추정에 타당성을 부여한다.

이상의 정리는 글을 시작할 때 소개한 일부 역사대중서 집필자의 경험담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물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해당 집필자들의 경험은 보편적이지 않다. 그리고 그들이 설파하는 교과서 내용의 경향성 또한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한군현은 강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축소되어, 그것이 한국사에서 올바르게 자리매김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던 것이다. 검인정제 이후 발행된 교과서에서 확인되는 서술 내용의 변화는 어쩌면 이러한 반동에 대해 학계가 각성한 결과 나타난 대응일 수도 있겠다.

2007년 「초원 4년 호구부 목간」의 내용이 확인되고, 이를 토대로 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한군현 관련 연구는 단순히 지배와 저항의 이분법을 넘어 현대인이 아닌 고대인의 시선에서 군현 지배의 실상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었다.<sup>42</sup> 하지만 앞서 확인한 것처럼 검정제 실시 이후의 여러 긍정적인 변화에

---

42 최근 한군현 관련 연구의 경향과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할 것. 임기환,

도 불구하고 최근의 연구 경향과 성과가 현재 학습현장에서 사용되는 역사교과서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사실(史實)’에 근거하지 않은 문제 제기가 이제까지의 서술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실(事實)’이 아닌 경험담을 토대로 대증을 선동했고, 이것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초래했던 ‘사건(事件)’이 여전히 교과서 집필자들에게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는 첫걸음은 외부의 압력이 무엇 때문에 초래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초래한 선동의 실상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이 글의 장황한 정리가 혹여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까닭이다.

---

2015, 「한사군은 ‘어디에 있었나?’ 그리고 ‘어떤 역사인가?’」, 『내일을 여는 역사』 60; 안정준, 2017, 「1990년대 이후 한국학계의 낙랑군(樂浪郡) 연구현황과 문제의식」, 『인문학연구』 34,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참고문헌

### 단행본

- 김한중, 2006,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연구』, 선인.  
송기호, 2007, 『동아시아의 역사분쟁』, 솔.  
윤종영, 1999, 『국사교과서 파동』, 혜안.  
이문영, 2018, 『유사역사학비판-『환단고기』와 일그러진 고대사-』, 역사비평사.  
젊은역사학자모임, 2017, 『한국고대사와 사이버역사학』, 역사비평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한국상고사의 제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논문

- 강중훈, 2008,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실린 역사 지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선사·고대 부분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106.  
기경량, 2016, 「사이비 역사학과 역사 파시즘」, 『역사비평』 114.  
송호정, 2003, 「제7차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선사 및 국가 형성 관련 서술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29.  
\_\_\_\_\_, 2016, 「최근 한국상고사 논쟁의 본질과 대응」, 『역사와 현실』 100.  
안정준, 2017, 「1990년대 이후 한국학계의 낙랑군(樂浪郡) 연구현황과 문제의식」, 『인문학연구』 34,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이부오, 2010, 「제1차~제7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에 나타난 고대 영토사 인식의 변화」, 『한국고대사탐구』 4.  
이정민, 2018a, 「국정 역사교과서의 한국고대사 서술과 유사역사 문제」, 『역사교육연구』 31.  
\_\_\_\_\_, 2018b, 「제3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의 한국고대사 서술과 특징」, 『역사와 교육』 27.  
임기환, 2015, 「한사군은 ‘어디에 있었나?’ 그리고 ‘어떤 역사인가?」, 『내일을 여는 역사』 60.  
\_\_\_\_\_, 2017, 「3~7차 교육과정 국정 교과서의 고조선, 한군현 관련 서술의 변화」, 『사

- 회과교육』 56-1.
- 장신, 2016, 「해제-『中·高等學校 國史教育改善을 爲한 基本方向』, 『역사문제연구』 36.
- 정요근, 2018, 「박근혜 정부의 비호 아래 진행된 국수주의 유사 역사의 세력 확장, 『내일을 여는 역사』 70.
- 정호섭, 2015,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고구려사와 발해사 서술 검토, 『선사와 고대』 46.
- 조인성, 2016, 「'고대사 파동'과 고조선 역사지도, 『한국사연구』 172.
- \_\_\_\_\_, 2017, 「'고대사파동'과 식민주의 사학의 망령, 『역사비평』 118.

## 역사교과서에 서술된 한군현 내용의 변화과정 검토

위기아

이 글은 한국의 교육현장에서 사용된 역사교과서의 한군현 관련 서술 내용의 변화과정을 검토하고 변화의 배경과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역사교과서의 한군현 관련 서술은 교과서 발행제도가 김인정에서 국정으로 전환된 3차 국사교과서부터 서술의 분량과 내용 면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경향성이 7차 교과서까지 지속되었다. 그 특징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이다.

먼저 차수가 진행될수록 한군현 관련 내용 서술이 축소되었다. 6차에서 이러한 추세가 역전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체적인 추세는 축소 일변도였다. 서술 분량뿐만 아니라 한군현이 한국사에서 가지는 영향력 및 의미에 대해서도 같은 경향성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게 서술하려는 집필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 결과 교과서의 본문 서술을 통해서 한군현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서술이 초래할 결과는 학습자

의 혼란이며, 이는 정확한 서술로 명확한 이해를 유도해야 하는 교과서의 서술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상의 경향성에 영향을 끼친 것은 역사학계 내부의 변화가 아닌 외부의 압력이었다. 1980년대 국수적 고대사 인식에 기반한 이른바 재야사학계의 문제 제기는 국정화라는 배경하에 국사교과서의 한군현 관련 서술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 발행 제도가 검인정으로 전환된 이후 확인되는 한군현 관련 서술의 변화가 2015년 국정화가 재추진된 이후 발행된 국정교과서에서 다시 과거의 그것으로 회귀한 사실이 이러한 추정에 타당성을 부여한다.

**주제어:** 국사교과서 파동, 한군현, 사이버역사학, 국정제, 검인정제, 역사교과서 서술

## ABSTRACT

# A Review of Change Process of Han Commanderies Contents Described in History Textbooks

Wee Kaya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nge process of contents that describe Han Commanderies in history textbooks of Korean education field and summarizes the background and meaning of the change. The examination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contents of Han Commanderies in history textbooks show remarkable changes in both amount and content after the History textbook of third curriculum, when the publication system converted from authorized to government-designated system. This trend continued until the seventh curriculum textbook. It can be described in two major characteristics as follows.

The first characteristic is that the contents of Han Commanderies reduced as the curriculum developed. The tendency to reduce is also confirmed in the Han Commanderies' influence and meaning in Korean history.

The next characteristic is the attitude of the author of the non-specific and ambiguous description. Such description causes learners' confusion and violates the description principle of textbooks, which should lead to clear understanding with accurate description.

External pressures, not internal changes within the history academia, have influenced this tendency. Problem-posing in the so-called pseudo-history based on the nationalistic perception of ancient history in the 1980s was relatively easy to exert influence on the description of contents of Han Commanderies under the background of government-designated system. Giving validity to this assumption is that the changes in the description of Han Commanderies, which were confirmed after the textbook publication system was converted to authorized system according to the revised curriculum in 2007, returned to the tendency to reduce in the government-designated textbook published after the government-designated system was promoted again in 2015.

**Keywords:** Korean History Textbook Controversies, Han Commanderies, Pseudo-history, Government-designated System, Authorized System, History Textbook Description

# 중국 대학교 역사교재의 '조선시대 한중관계 및 문화' 서술과 인식

구도영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I. 머리말

II. 『중국사강요(中國史綱要)』(2006): 북경대 등 대표적 중국사 교재

III. 『세계중고사(世界中古史)』(2006): 북경사범대의 세계사 교재

IV. 『중국고대사(中國古代史)』(2010): 상해 인근 대학들의 중국사 교재

## V. 맺음말



## I. 머리말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이후 국정교과서 체제를 유지하였다. 이에 역사 국정교과서는 1950년에 설립된 ‘인민교육출판사’에서 약 40년 동안 독점 출판하였다. 국정교과서에서 검정교과서로 점차 전환하게 된 것은 1985년에 이르러서이다. 검정제로 전환한 이후 2002년 8월까지도 교과서의 편집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지정한 일부 기관이 실시하였다. 중학교 교과서는 인민교육출판사, 북경사범대학출판사, 화동사범대학출판사 등 세 곳에서 출판되었다.<sup>1</sup> 이 출판사가 중국 역사 교과서 및 교재를 생산한 핵심 출판사인 것이다.

시진핑 정부의 집권 2기가 시작된 2017년 이후, 중국 중고등학교의 역사교과서는 다시 국정교과서로 전환하고 있다. 국정제로 탄생한 역사교과서는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계급투쟁사를 강화하여 왕조 말기 농민봉기와 그로 인해 탄생한 중화인민공화국 및 공산당을 미화하고 있다. 현대 중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퇴조하였고 시진핑에 대한 노골적 선전도 더해졌다.<sup>2</sup>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중고등학교에서 나아가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역사교재도 국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학교의 교재를 국정화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간 국내 학계에서 중국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다대하게 이루어졌다. 중국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체제 등을 분석하는 가운데,<sup>3</sup> 교과서 내용의

---

\* 투고: 2023년 1월 12일, 심사 완료: 2023년 2월 6일, 게재 확정: 2023년 2월 13일

1 김지훈·정영순, 2004, 「최근 중국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한국사」, 『중국근현대사연구』 23.

2 윤세병, 2019, 「중국의 역사 교과서 논쟁과 국정화」, 『역사교육연구』 33.

3 방영춘·백주현, 1992, 「중국의 역사교육」, 『歷史와 現實』 8; 김유리, 2001, 「중국 교육과정의 변천과 역사교육」, 『근대중국연구』 2; 오병수, 2002, 「중국 중등학

성격과 그 특징,<sup>4</sup>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사 서술 파악 등 분석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졌다.<sup>5</sup> 중국 교과서에서 한국사를 어떻게 서술하는지가 가장 큰 관심을 받았

- 교 역사 교육과정의 추이와 최근 동향, 『歷史教育』 84; 오병수, 2004, 「中·日 歷史教科書 發行制度和 運用 實態」, 『역사교육』 91; 오병수, 2016, 「국내 학계의 중국 역사교과서 연구 경향과 과제」, 『동북아역사논총』 53.
- 4 김중건, 2004, 「중국 역사교과서상의 명청사(明清史) 내용과 변화 검토-최근 초·중·고 교과서를 중심으로-」, 『경북사학』 27; 윤세병, 2010, 「중국 교과서 속의 지도의 현황과 문제점-인민교육출판사판 초중 [중국역사]를 중심으로」, 『역사와 역사교육』 20; 오병수, 2001, 「중국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서술양식과 역사인식」, 『역사교육』 80; 윤세병, 2013, 「중국 역사교과서의 서사구조와 이데올로기」, 『역사교육연구』 18; 권소연, 2019, 「중국 의무교육교과서 『중국역사』 근대사 서술 분석-국정화 교과서의 역사인식의 특징과 교과서 구성을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 33; 김지훈, 2019, 「국가의지(國家意志)와 역사교과서의 정치화-2018년 중국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현대사 서술-」, 『역사교육연구』 33; 이유표, 2021, 「중국 고등교육 역사 교재 중국사강요의 편찬과 개정」, 『문화와 융합』 87; 임상훈, 2022, 「중국 국정 역사교과서 중의역사강요의 도입과 그 성격」, 『역사문화연구』 82.
- 5 오병수, 2001, 위의 글; 박영철, 2002,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서술」, 『歷史教育』 84; 유용태, 2002, 「중국 역사교과서의 현대사 인식과 국가주의: 현대 한국사를 중심으로」, 『歷史教育』 84; 송상헌, 2002, 「세계사 교과서 서술에서 동아시아 담론 문제: 중국 세계사 교과서의 경우」, 『歷史教育』 84; 전인영, 2002, 「중국 근대사 교육의 관점과 한국사 인식」, 『歷史教育』 84; 송기호, 2003, 「중국의 한국 고대사 빼앗기 공작」, 『역사비평』 65; 김중건, 2004, 위의 글; 김지훈, 2004, 「최근 중국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한국사」, 『중국근현대사연구』 23; 장세운, 2004, 「근간 한·중 역사교과서의 양국 관련내용 검토」, 『백산학보』 68, 2004; 김한중, 2005, 「한·중·일 3국의 근대사 인식과 역사교육」, 고구려연구재단; 권소연 외, 2006, 『중국의 역사교육과 교과서』, 고구려연구재단; 윤취탁, 2006, 『중국 역사 교과서의 민족·국가·영토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최갑순·문형진, 2006, 「중국 역사교과서(1949~2003)의 한국 현대사 서술」, 『역사문화연구』 24; 김지훈, 2007, 「한·중 역사갈등 줄이기-동북공정과 중국의 역사교과서-」, 『역사문제연구』 17; 강택구·박재영, 2008, 「중국 조선족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한국관련 내용분석 I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과 중국의 역사 만들기」, 『백산학보』 81; 임상선 등, 2008, 『중국과 타이완·홍콩 역사교과서 비교』, 동북아역사재단; 장희홍, 2009a, 「중국계 역사 교과서의 조선시대 서술 분석-중국, 대만, 홍콩 교과서를 중심으로-」, 『동국사학』 47; 장희홍, 2009b, 「한·중 역사 교과서의 왜란 서술 내용 분석」, 『사학연구』 96; 조영현, 2009, 「『문명굴기』와 제삼세계: 2000년 이후 중국 고등학교 세계사 인식」, 『역사교육』 112; 김중건, 2010, 「북사-中國 歷史教科書上的 韓國 關聯 敘述 內容 變化에 대한 검토-최근 초·중·고

는데, 주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가 대상이고, 대학의 역사교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대학 역사교재에 대한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중국 대학 역사교재를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시기별로 나누어서 고찰하고,<sup>6</sup> 중국, 홍콩, 대만 대학교재에서 발해사에 대한 인식을,<sup>7</sup> 식민사학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한4군과 임나일본부 서사를 분석한 연구 정도가 있다.<sup>8</sup> 최근 중국 대학 역사교재 국정화 가능성에 따라 국내 학계에서도 중국 대학 역사교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반해 상대적으로 관련 연구가 희소하여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학은 교재보다 교수의 재량이 크기는 하지만, 해당 대학 활용 교재를 확인하는 일은 중국 역사 교육의 전반을 파악한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한 일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중국 역사교과서의 대표적인 출판사인 인민교육출판사, 북경사범대학출판사 등에서 출판되고, 북경대학과 북경사범대학, 화동사범대학교 등 중국 주요 대학에서 집필하고 활용하는 역사교재부터 분석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역사교재는 『중국사강요(中國史綱要)』(인민출판사, 2006, 2차 개

---

학 [중국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69; 윤재운, 2010, 「중국 역사교과서에 보이는 소수민족정책과 내용」, 『역사교육논집』 44; 김종박, 2011, 『중국의 역사교과서와 통일적다민족국가론』, 동북아역사재단; 우성민, 2011, 「韓 中間 ‘相互理解와 歷史和解’의 인식 제고를 위한 역사교과서의 과제」, 『중국사연구』 75; 임상신, 2015, 「중국 역사교과서의 북방민족영토관련 서술분석」, 『백산학보』 101; 김지훈, 2018, 「현대 중국의 한국전쟁 인식 변화-역사 교과서의 서술 변화를 중심으로-」, 『사림』 64; 권소연, 2019, 위의 글; 김지훈, 2019, 앞의 글; 윤세병, 2019, 앞의 글; 정동준, 2019, 「중국 『역사』 교과서의 고대사 서술 분석-2016년 판 중학교 국정교과서의 특징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중국고중세사연구』 52; 이성원, 2021, 「2019 검정 교과서 『중학교 역사 ①』의 분석-중국 고대사를 중심으로-」, 『역사와담론』 97; 임상훈, 2022, 「중국 국정 역사교과서 중외역사강요의 도입과 그 성격」, 『역사문화연구』 82.

6 이경룡 외, 2008, 『중국 대학 역사교재 속의 한국·한국사』, 동북아역사재단.

7 임상신 외, 2008, 『중국과 타이완·홍콩 역사교과서 비교』, 동북아역사재단.

8 권은주, 2021, 「중국 대학 역사교재의 고조선(한4군)과 임나일본부에 대한 서술 변화-식민사학의 영향과 중화주의가 결합한 한국고대사상(像)-」, 『동북아역사논총』 74.

정판)이다.<sup>9</sup> 『중국사강요』의 주편인 전백찬(翦伯贊)은 북경대학 역사학과 교수였고,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마르크스주의 신사학을 대표하는 학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1968년 사망했지만 그가 정리했던 역사 내용이 1979년 출간된 이후, 개정을 거쳐 현재 북경대학 등 중국 대학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역사교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분석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역사교재는 『세계중고사(世界中古史)』(북경사범대학출판사, 2006, 2차 개정판)이다. 한국은 중국에게 외국이므로 중국의 세계사 교과서 내용도 검토하여 중국 내 조선사 내용을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책은 북경사범대학에서 출판하고 활용하는 교재로, 중국의 중고등 학생을 가르칠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세계사 교재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세 번째 역사교재는 『중국고대사 상·하(中國古代史 上·下)』(북건인민출판사, 2010, 5차 개정판)이다. 중국 상해의 저명한 사범대학인 화동사범대학교와 산둥대학교, 절강대학교 등 10여 개 지방대학이 연합하여 만든 중국사 교재이다.<sup>10</sup> 이 글의 분석 대상 교재 중 가장 최근에 발간되었으며, 북경과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상해 이남 대학들의 역사 인식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앞서 교재와의 차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 대상은 조선시대 한중관계와 조선문화에 대한 중국의 역사서술이다.<sup>11</sup> 최근 중국 역사학계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문화원조 논의가 광범위하게 확산되

9 翦伯贊, 2006, 『中國史綱要』, 人民出版社; 제본찬 주편, 심규호 역, 2015, 『중국사강요』 2(오대십국부터 근대까지), 중앙북스.

10 朱紹侯 主編, 2010, 『中國古代史 上』, 第5版修訂說明, 福建人民出版社.

11 분석 시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1392년 조선 건국부터 1876년 강화도 조약 이전 시기까지를 다룬다. 청나라는 1912년에 멸망하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1840년의 아편 전쟁을 중국 근대의 시작으로 보고 있어, 아편전쟁 이후는 서구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내용으로 그 집필 방향이 변화한다. 한국 역사학계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1874년 강화도 조약을 근대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개항을 기점으로 그 전후의 역사서술의 맥락이 바뀌며 시기구분도 바뀌므로 이 글의 분석 대상 시기도 조선 건국~1874년까지로 제한하고자 한다.

고 있고, 그 원조론을 촉발시킨 중심에 조선시대 문화가 있다. 유교문화에 기반한 한국 드라마 <대장금>이 중국과 동아시아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면서, 정작 유교문화의 발원지였던 중국인들은 ‘한국이 중국의 유교문화 주권을 빼앗아간다’는 위기감을 느꼈고, 과거 문화 수혜국이었던 한국에게 중국의 민족문화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인식이 중국 내에서 부상하였다.<sup>12</sup> 한국의 전통문화 관련 한류 열풍이 주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중국학계에서 조선시대 한중관계와 중국의 문화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학계의 변화 속에서 향후 교과서와 대학교재에도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기존 대학교재 내용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중국 주요 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역사교재에 조선시대 한중관계와 문화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 글이 향후 새롭게 개편될 중국 대학 역사교재와 비교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고, 중국의 조선시대 역사교재 변화 추이를 인지할 단서가 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II. 『중국사강요(中國史綱要)』(2006): 북경대 등 대표적 중국사 교재

『중국사강요』는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를 다루는 중국 통사(中國通史)로, 북경대를 비롯해 오늘날 중국 대학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는 역사교재이다. 또한 2010년 ‘동아시아 인문도서 100권’에 선정된 바 있다. 이 책의 주편이었던 쥬보잔(翦伯贊)은 왕후장상의 삶을 시대의 주축으로 보는 봉건시대 사서의 단점을 보완하여, 마르크스주의 계급투쟁의 시각에서 중국 역사를 서술하였다. 개정판이 나오면서 일부 내용은 수정되었지만, 전근대시대 백성의 고단한 삶과 농민

12 박정수, 2013, 「세계화와 민족주의의 문화갈등: 한중 간 한류와 반한류의 사례 분석」, 『중화연구』 37(1).

분투를 강조했고, 소수민족의 삶도 돌아보았다. 이 책은 1960년대 이후 중국 대학에서 가장 많이 채택한 교재라는 점에서, 한국사 관련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13</sup>

## 1. 본 교재의 목차 구성

이 교재는 모두 1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한국의 조선시기에 해당하는 중국의 명·청(明·淸) 시대를 8장에서 다룬다. 8장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8장 명·청(아편전쟁 이전) 시대

1. 명 전기의 경제와 정치
2. 명 중기 정치·경제·사회의 변화
3. 명의 민족관계
4. 명의 대외관계
5. 명 후기 사회 모순 격화와 농민 기의(起義)
6. 청병 입관과 전국 통일
7. 청의 사회경제
8. 청의 정치-청 통치하의 사회 모순
9. 청의 대외관계
10. 명·청의 문화

위와 같이 8장 명·청 시대는 10절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4절 ‘명의 대외관계’에서 조선 관련 내용이 등장한다. 9절이 ‘청의 대외관계’이지만, 조선에 대한 내용이 없다. 러시아, 미얀마, 태국, 안남, 구르카 등과의 관계가 기술되어 있고 그 내용은 통일전쟁이나 국경분쟁 등이며, 서유럽 식민주의자들이 중국을 침략

13 젠보잔 주편, 심규호 역, 2015, 앞의 책, 출판사 서평; 이유표, 2021, 앞의 글.

한 내용도 있다. 즉, 청대 대외관계에는 영토분쟁이나 침략사 등 외국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어,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조선과의 관계는 설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책에서 조선시대 한중관계 내용은 ‘4절. 명의 대외관계’로 제한된다.

명·청 시대 문화는 10절에서 설명되고 있지만, 중국과 외국의 문화 교류에 대한 내용은 없고, 중국문화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를 강조하는 저자의 특성상, 인민의 투쟁과 정치 경제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사 영역은 간소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 조선시대 한중관계가 기술되어 있는 4절 ‘명의 대외관계’ 부분을 검토해보자. 그 구성은 아래와 같다.

#### 4절. 명의 대외관계

- 1) 명과 남양 각지의 관계
- 2) 동남 연해 왜구의 소란과 만력 연간 조선 원조전쟁(萬曆年間朝鮮援助戰爭)
- 3) 서방 식민주의자의 침입과 예수회 전도사

위와 같이 4절은 다시 세 소절로 나뉜다. 목차 각각을 살펴보면, ‘1) 명과 남양 각지의 관계’ 부분에서는 명 영락제(永樂帝) 시기 환관 정화의 원정을 다룬다. ‘2) 동남 연해 왜구의 소란과 만력 연간 조선 원조전쟁(萬曆年間朝鮮援助戰爭)’에서는 16세기 중국과 무역하고자 약탈과 살인을 일삼은 일본 왜구의 난동과 중국의 대응, 이어서 16세기 말 만력황제 시기 조선을 원조한 전쟁(한국의 ‘임진왜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이는 조선에 대한 내용이므로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3) 서방 식민주의자의 침입과 예수회 전도사’에서는 16~17세기 포르투갈, 네덜란드, 스페인 식민주의자들이 말라카 등지를 점령한 뒤 왜구 세력들과도 결탁하여 중국에 침략한 정황을 고찰하였다. 또한

이들이 동방으로 오면서 마테오 리치와 같은 예수교 선교사 세력도 함께 중국으로 들어와 교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결국 이 교재에서 조선시대 한중관계에 대한 내용은 임진왜란 하나로 요약된다. 임진왜란은 명군(明軍)이 참전한 전쟁이었기에 기술된 것이지, 조선과의 관계를 염두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중국사에서 조선과의 관계는 그다지 중요한 서사가 아닌 것이다.

## 2. 내용 검토: 만력 연간 조선 원조전쟁(朝鮮 援助戰爭)

임진왜란은 조선, 명, 일본이 모두 참여한 국제전쟁이었기에 한국사, 중국사, 일본사의 대외관계 부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다. 세 나라가 이 전쟁에 모두 참여하여 싸웠지만 이를 부르는 이름은 각 나라마다 다르다. 이 중국사 교재에서는 임진왜란을 ‘만력 연간 조선 원조전쟁’이라 명명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명나라 만력황제 시기에 일어난 조선을 도와준 전쟁’이라는 뜻으로, 중국에서 6.25전쟁을 ‘미국에 대항하여 조선을 도와준 전쟁(抗美援朝戰爭)’이라 지칭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다만 이 교재에서 임진왜란명에 ‘일본에 대항하여’라는 뜻을 가진 ‘항왜(抗倭)’는 없다.<sup>14</sup> 조선을 도와주었다는 점만 강조했다는 점에서 현대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형성할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제 임진왜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명조와 조선은 오랫동안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 양국 상인이 끊임없이 왕래하고 양국 정부 역시 매년 4~5차례 정식무역을

14 중국의 연구 논문에서는 임진왜란을 항왜원조전쟁이라고도 표현한다. 柳樹人, 1987, 「壬辰抗倭戰爭」, 『延邊曆史研究』第2輯; 劉子敏·苗威, 2006, 『明代抗倭援朝戰爭』, 香港亞洲出版社; 周一良, 2019, 『明代援朝抗倭戰爭』, 北京古籍出版社; 劉喜濤·宋明哲, 2021, 「明朝東亞地緣政治思想及其在抗倭援朝戰爭中的體現」, 『長春師範大學學報』; 孫衛國, 2020, 「明抗倭援朝水師統帥陳璘與露梁海戰」, 『南開學報』2020年4期.

해왔다. 조선은 중국의 농사에 필요한 경우(耕牛)와 저포(苧布), 종이, 약재 등을 수출했고, 중국의 사직업과 방직업에 관한 기술과 도구가 조선에 널리 전파되기도 했다.

위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前) 조·명 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양국 관계를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한중 교류 관련 내용은 사실적인 측면에서 오류가 많다. 조선의 상업적 수출품목 중에 경우(耕牛)는 없다. 단지 조선 초 명 정부가 외교적으로 조선 정부에 요청하여 일시적으로 소를 거래한 적이 있을 뿐이다.<sup>15</sup> 중국사 교재에서 조선의 수출품이라 언급될 정도로 비중 있는 교역품은 아닌 것이다. 또한 위 글에서 조선 수출품을 저포, 종이, 약재라 하였는데, 이 역시 맞지 않다. 수출품을 3개로 한 것은 이를 대표적 상품으로 여긴 것인데, 조선이 명나라에 저포를 수출한 것은 맞지만, 약재는 조선이 명에서 수입한 수량이 훨씬 많아 수출품이라 보기 곤란하다. 인삼과 같은 약재가 명에 본격적으로 수출된 것은 16세기 중반 이후이며, 17세기 폭증했으므로 약재 수출도 정확한 설명이라 보기 어렵다. 게다가 조선의 두꺼운 종이는 조선 정부가 규정한 수출 금지 품목이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후지(厚紙)를 외국에 몰래 파는 자에게는 장(杖) 1백, 도(徒) 3년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sup>16</sup> 임진왜란 이후 명 황실 조공품으로 조선이 종이를 보낸 바는 있으나, 조선 전기 경제적 의미를 갖는 수출품은 아니었던 것이다.<sup>17</sup> 이는 추정컨대 고려와 조선 종이의 품질이 송나라와 명나라 사대부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고, 『대명회전(大明會典)』 조선의 조공품목에 종이가 오기(誤記)된 것을 학자들이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의 사직업과 방직업 기술과 도구가 조선

15 『太宗實錄』 권7, 태종 4년 4월 18일(戊子).

16 『經國大典』卷5, 刑典, 禁制條.

17 구도영, 2021, "Items of Tributary Gifts (Pangmul 方物) Sent to the Ming Dynasty by Chosŏn and their Changing Trend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26(2).

에 전파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 문익점이 원나라의 목화씨, 씨아와 물레 만드는 법을 배워 온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아래는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이다.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한 목적은 조선을 점령하여 통치하겠다는 의도 이외에도 조선을 발판으로 중국을 침략하겠다는 것이었다. ... 당시 일본군 10만 명은 부산에 상륙한 후 신속하게 왕경을 공략하고 계속 쳐들어가 평양을 점령하면서 조선 팔도가 거의 적의 수중에 넘어갔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조선 국왕 이연(李 暎)이 명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긴급 원조를 요청했다. 명조는 조선과 입술과 이처럼 서로 의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좌시하지 않고 즉각 원군을 파견했다.

일본의 침략에 원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던 조선 백성들은 각지에서 의병을 일으켜 완강하게 저항했다. 만력 20년(1592) 말 명조는 송응창을 경략, 이어송을 동정제독(東征提督)으로 임명하고 대군을 조선으로 파병했다. 명군은 조선 군민과 합심하여 만력 21년(1593) 2월 평양성을 포위하여 일본의 최정에 고니시 유키나가 이끄는 군대를 격파하고 평양을 탈환했다. 이후 명군과 조선군은 개성을 되찾았으며, 일본군은 왕경을 포기하고 부산으로 물러났다. 평양성 전투는 조선의 전세를 뒤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군사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되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침략에 실패했지만 야심마저 죽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권토중래(捲土重來)를 위해 명나라와 거짓 강화를 추진하여 명군의 철수를 유도했다. 병부상서 석성을 위시로 한 명조 주화와 역시 일본과 타협할 것을 주장했다. 결국 명 정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음모에 걸려 피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위의 글은 크게 평양성 전투와 강화협상에 대한 내용이다. 평양성 전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서술은 없다. 다만 명군이 유일하게 대승을 거둔 평양성 전투를 과도하게 확대해석하고 있다. 평양성 전투가 전세를 바꾸는

계기가 된 전투는 분명하지만, 평양성을 탈환하였을 뿐 곧이어 중국 이여송 부대가 경기도 벽제에서 패배를 경험하였고, 이후 강화협상으로 돌입하게 된다. 따라서 평양성 전투 이후의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일본군이 부산으로 물러난 것처럼 서술한 것은 임진왜란에서 중국군의 승리만 편집해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강화협상 역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추진한 음모이자 계략이라 하였다. 그러나 명나라 관료들이 강화협상을 추진했고, 중국 측 협상자인 심유경과 일본 측 협상자 고니시가 양국 정부에 거짓 협상안을 전하면서 4년이나 협상기간이 길어졌다. 명 조정뿐만 아니라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속았기 때문에 이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음모라 볼 수 없으며, 명 심유경과 일본 고니시의 책임이 크다 할 수 있다. 이 교제는 임진왜란 발발 원인은 물론 전개 과정에서도 일본의 악행만 강조하고, 명나라의 실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만력 25년(1597) 2월 합의가 결렬되면서 일본이 또다시 대거 조선을 침입했다. 명 정부는 형개가 이끄는 원병을 보냈다. 명조 장수인 유정, 진린 등이 일본 군대를 크게 무찔렀다. 만력 26년(1598) 2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명군은 수비에서 공수로 전환하여 조선 남해안에서 일본군과 결전을 벌였다. 일본군이 거의 전멸할 정도로 치열했던 전투에서 조선의 걸출한 장군 이순신이 전사했고, 명조의 장수 등자룡도 전사했다. 이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두 번째 전쟁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위 글은 정유재란에 대한 내용이다. 조명 연합군이 일본군을 크게 무찌른 것으로 묘사되고 있고,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을 조금 길게 설명하고 있다. 이순신이 사망했고, 무엇보다 명나라 장수 등자룡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등자룡은 임진왜란에 참전했다 사망한 장군이어서 이후 조선에서 영웅으로 추앙받게 된다. 노량해전에서 명나라 장수들은 일본 장수에게 뇌물을 받고 이들이 도망갈 길을 열어주기도 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언급되지 않고, 이 전

쟁에서 전사한 등자룡만 강조 서술하고 있다.

이 교재는 일본이 일으킨 이 전쟁이 실패로 끝났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일본의 실패 요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본이 조선 침략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조선 인민의 굳건한 항쟁 때문이었다. 명군의 두 차례에 걸친 원조도 중요한 작용을 했다.

사회주의 계급투쟁의 시각에서 중국 역사를 서술했기에 임진왜란 승리의 원인은 조선 인민의 투쟁을 중시하였다. 중국의 원조도 간과할 수 없지만, 이 교재에서 조선 의병과 이순신 등 조선인의 항쟁이 임진왜란 성공에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강조하였다. 중국 역사교과서를 보면 조선과 중국 군민의 공을 함께 언급하고 있어,<sup>18</sup> 대학교재가 중고등 교과서에 비해 애국주의적 시각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이 책은 중국의 ‘국사(國史)’ 교재로 중국 국내사에 내용이 집중되어 있다. 문화 교류에 대한 내용도 일부 있으나 오류가 많다. 하지만 한국사학계에서도 조선과 명나라 간 교류사 연구가 생산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대 연구 기반하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외국과의 관계사에 대한 내용도 매우 적는데, 조선이 등장하는 사건은 임진왜란뿐이다. 임진왜란 시 일본군의 강성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나치게 중국 중심적인 역사상은 보이지 않는다. 2006년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1960년대 져보쩀이 주장했던 중국사의 이론적 틀이 수정되는 변화는 있었지만, 기존 사관이 이 책을 관철하고 있어,<sup>19</sup> 2000년대 이후 중국에서 벌어진 동북공정식 역사 인식은 보이지 않는다.

18 송요후, 2008, 「중화권 교과서의 조선시대 서술 분석」, 『중국과 타이완 홍콩 역사 교과서 비교』, 동북아역사재단.

19 이유표, 2021, 앞의 글.

### Ⅲ. 『세계중고사(世界中古史)』(2006): 북경사범대의 세계사 교재

#### 1. 본 교재의 특징과 목차 구성

현재 중국의 대표적인 사범대학인 북경사범대학 등 여러 대학에서 세계사 교재로 『세계중고사』(북경사범대학출판사)를 활용한다. 이 교재는 1990년대 북경사범대학교에서 편찬한 세계사 교재로, 사학과 대학생을 교육시킬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1950년대부터 1998년까지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하였고,<sup>20</sup> 2006년 개정판의 참고문헌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세계중고사』의 목차를 보면, 세계사를 국가별·시기별로 나누어 장별로 구성하고 있다. 총 10장 체제이며, 1~3장은 서유럽 국가의 역사를, 4장은 동유럽 국가, 5장은 아랍제국의 역사를 다룬다. 6장에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내용이 등장한다. 그리고 다시 7~10장은 대항해시대 이후 유럽 국가들의 약진에 대한 내용이다. 요컨대 10장 체제에서 5장과 6장을 제외하면 모두 유럽사이다. 세계사 책이라고 하지만, 유럽사에 가깝다.

중국의 역사 교육 체제를 한국의 역사교과서 체제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역사교과서도 과거에는 ‘자국사(自國史)-세계사’ 체제였으나, 2000년대 이후 ‘한국사(자국사)-동아시아사(지역사)-세계사’ 구조로 재편되었다. 동아시아사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전근대 한국이 밀접하게 교류했던 동아시아 지역과의 교류사를 지역사의 차원에서 별도로 학습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역사교재를 한국의 동아시아사 교과서와 비교하면, 한국 동아시아 교과서는 동아시아라는 지역의 지리적 범위와 특성, 민족 등 동아시아의 개념과 범위부터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sup>21</sup>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에 이르는 아시아 지역과의 교류

20 孫祥民 主編, 2006, 『世界中古史』,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1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미래엔, 2020.

내용이 상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사 교과서 역시 ‘1. 인류의 출현과 문명, 2. 동아시아사, 3. 서아시아 및 인도지역사, 4. 유럽 및 아메리카사’로 목차를 구성하여 지역적 균형을 맞추고 있다.<sup>22</sup>

다시 중국의 『세계중고사』로 돌아오면, 이 교재에서 6장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내용인데, 동남아시아 국가도 조선, 일본, 남아시아 대륙의 역사(인도 지역 일대)가 전부이다. 중국의 세계사 체제에서 동남아시아는 한국과 일본, 인도 정도의 역사를 다루고 있을 뿐이다. 중국 북경대와 북경사범대에서 편찬하여 대학교재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중국사-세계사 교재를 함께 살펴보면, 중국 학생들은 중국을 둘러싼 동아시아 역사를 정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세계사를 유럽사 중심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즉, 중국인의 동아시아 인식 시각은 좁히고, 유럽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하고 있다.

이제 본 교재의 목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6장 1절의 한국사 목차는 아래와 같다.

## 6장 중고(中古)의 조선, 일본과 남아시아 대륙

### 1. 조선(朝鮮)

- 1) 원시 사회와 고대국가
- 2) 봉건제도의 형성
- 3) 농민 기의(起義)와 고려왕조의 건립
- 4) 전시과제도와 고려의 강성
- 5) 인민 기의(起義)와 몽골침략에 항거하는 투쟁
- 6) 이조(李朝) 전기 봉건사회의 발전
- 7) 조선과 중국 인민이 일본 봉건주(封建主) 침략에 대항한 투쟁
- 8) 조선문화

22 『고등학교 세계사』, 미래엔, 2020.

한국의 역사는 위와 같이, 6장 1절에서 고대~일제강점기까지 모두 소개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기에 ‘대한민국’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통칭할 수 있는 한반도 국가명이 필요한데, 이를 ‘조선(朝鮮)’이라 명명하고 있다.<sup>23</sup> 다만 한반도를 조선이라고 표현하면, 선사시대의 고조선과 15~19세기에 존재했던 조선의 국가 이름을 차별화해야 하는데, 이를 각각 ‘고조선(古朝鮮)’과 ‘이조(李朝)’라 칭하고 있다. 15~19세기 한반도 국가를 이조라 부르고 있는데, 이조는 주지하다시피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조선을 이씨 왕조라고 부른 데서 유래한다. 이씨 왕조란 용어는 식민사학의 유산으로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중국 교재에서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이제 목차 구성을 살펴보자. 한국사는 8소절 체제이고, 조선시대는 앞의 표에서 밑줄 친 바와 같이, 6)~8)소절까지이다. 6)소절은 조선 건국 초기 체제 개혁 및 정립에 대한 내용이고, 7)소절은 임진왜란, 8)소절은 조선문화를 다룬다. 6)소절은 조선 전기 정치사, 7)소절은 전쟁사, 8)소절은 문화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국내학계에서 조선 후기의 정치 사상사 연구가 전기보다 훨씬 많이 진척되어 있음에도 이 교재에서 조선후기사 내용은 별도로 없고, 전쟁도 병자호란은 한 줄 정도로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이제 한중관계와 문화사를 서술한 7)소절과 8)소절을 각각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 2. 내용 검토: 7)소절 조선과 중국 인민이 일본 봉건주(封建主) 침략에 대항한 투쟁

임진왜란은 한국과 중국이 연합군이 되어 일본과 싸웠다는 점에서 중국의 자국 사든 세계사든 역사교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특히 이 세계사 교재는 임진왜란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였다. 아래는 7)소절 내용이다.

23 물론 중국은 현재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줄여서 조선이라 지칭하기도 한다.

16세기 말 조선의 당쟁이 한창일 때 일본은 오히려 합병 전쟁을 통해 장기 할거 국면을 끝내고 국가 통일을 이룩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을 통일한 후 조선과 중국에 대한 침략 전쟁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였다. 전쟁 전야에 그는 조선의 국왕 이연(李愔)(선조)에게 보낸 편지에서 ... 침략의 야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1592년 4월(선조 25, 임진) 일본군은 20만 명 가까이 부산에 상륙하였고, 파죽지세로 쳐들어가서 삼경(한성, 개성, 평양)을 함락시키고, 군사를 나누어 동북부의 함경북도도 향하였다. 많은 지방 관리들이 싸우지 않고 도망쳤고, 조선 국왕은 황급히 북쪽 의주로 향하였다. 침략자의 “칼날의 피해로 천리가 숙연해지고 백성은 농사짓지 못하고 굶어 죽어갔다.” 이 위급한 고비에서 조선 인민들은 분연히 의병을 조직하여 용감하게 저항하였다. 그들은 부산과 동래 일대에서 적에게 심한 타격을 주었다. 민중영웅이자 전라도좌수사 이순신(1545~1598)은 우국우민으로 죽음으로써 나라에 보답하기로 결심하여, 소란한 분위기를 일소하여 국치를 설욕하고자 하였다. 일본군이 한반도에서 횡행하고 있을 때, 그는 수군을 이끌고 남해 일대에서 잇달아 승리하여 적의 오만한 기세와 침략 계획을 좌절시켰다. 조선 인민이 창조한 거북선은 해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귀선의 길이는 11장(丈), 면적이 1장 남짓이며 ...; 선체는 철제 꺾테기를 겹쳐서 송곳칼을 달았으니 적이 접근할 수도 없고, 불태우기도 어렵다; 배 머리에는 용두가 있어 연기를 내뿜어 적을 현혹시킬 수 있다; 선체 사방에 72개의 화구가 있어 여러 각도에서 사격할 수 있다; 선내에는 비교적 많은 식량과 식수를 적재할 수 있어 장시간 항해에 편리하다. 거북선은 철갑함의 전신(前身)으로 당시 매우 우수한 전함이었다.

5월 초 한성이 함락된 후, 이순신은 함대를 이끌고 경상도 연해로 출격하여 거제도 부근의 옥포(玉浦)와 거포(巨浦), 적진포(赤珍浦)에서 적함 40여 척을 격침시키고, 조선군은 전혀 손실이 없어, 조선 군민의 사기와 항적의 결의를 크게 고무시켰다.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이순신은 수군을 거느리고 당포, 당항포와 한산도 일대에서 적을 공격하였는데, 특히 한산도 전투에서 적함 59척을 격침시켜 적 수백을 죽이고, 해상의 주도권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의 수륙 병진 계획을 좌

절시켜 감히 평양으로 복상하지 못하게 하여, 명나라의 지원군이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9월에 이순신은 우군(友軍)과 부산을 습격하여 또 적함 100여 척을 파괴하여 크게 손상시켰다. 조선 정부는 이순신을 자헌대부와 전라·경상·충청 삼도 수군 통제사(전라 좌수사 겸임)에 봉하고 한산도에 본거지를 두었다.

1592년 12월 조선 정부의 요청에 따라 명나라는 대장 이여송을 보내 4만의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지원하여 조선 인민의 환영을 받았다. 이듬해 1월 조명 연합군은 격렬한 전투 끝에 평양을 수복하였고, 4월 19일 한성을 수복하고 침략자들을 부산 연해 일대로 몰아갔다. 일본은 심각한 타격을 입은 후 평화회담을 제의하여 시간을 벌며 권토중래(捲土重來)하였다. 일본 측이 무리한 요구를 견지했기 때문에 3년 동안 끌어온 평화회담은 결렬되었다.

1597년 2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4만 일군을 보내 다시 조선을 침략하였다. 수륙병진하되 해상에 중점을 두었다. 당시 당쟁으로 인해 이순신은 해직되어 수군을 통제할 이는 무능한 원군이였다. 7월 고성(固城) 해역에서 일전이 있었는데 원군은 실패하여 피살되었고, 대본거지인 한산도도 적수에 떨어졌다. 8월 조선 정부는 이순신을 다시 기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조선 수군은 겨우 12척의 전선과 120명의 전사가 남아 있었다. 이순신과 수병 장병은 고도의 애국 열정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적을 사살할 것을 목숨 걸고 맹세하였다. 그들은 진도 동남쪽의 명량해협의 유리한 지형을 충분히 활용하여, 두 줄의 철사를 암암리에 설치하여 적함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여(썰물) 교묘하게 승리를 거두어, 마침내 12척의 전선과 120명의 병사로 적함 300여 척을 격파하고, 4,000여 명의 적을 사살하여, 해군전 역사상 적은 수로 거대하고 뛰어난 전공을 거둔 사례를 창조하였다.

1598년 7월 명나라 정부가 진순과 등자룡을 파견하여 수군을 이끌고 조선을 지원하게 하였고, 이순신 장군의 수군과 합류하게 하였다. 8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사하자, 조선에서 출군할 것을 유언하였다. 이와 동시에 조중(朝中) 연합군은 육상에서 일본군의 남방 연해 중요 거점인 울산, 사주(泗州)와 순천으로 진격하였는데, 적군은 해상으로 도주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 11월 18일 조중 연합함대는 노량(露梁) 해면(남해군 서북)으로 가서 적을 맞아 적함 300여 척을 격침시키

고, 만여 명의 적을 죽여 침략자에게 괴멸적인 타격을 주었다. 이번 해전에서 이순신은 일본군 대장을 격파하여 죽이고 명군의 통수권자인 진순이 적선에 포위된 것을 물리쳤다. 명군의 70세 노장 등자룡이 탄 배에 부주의로 불이 나자 이순신이 배를 몰고 와서 구하려다가 왼쪽 가슴에 총을 맞았다. 그는 군기(軍旗)를 조카에게 넘겨 대신 호령하게 하고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조선과 중국의 명장(名將) 이순신과 등자룡은 모두 이번 해전에서 장렬히 전사하여 피로써 전투 우정의 송가(頌歌)를 썼다. 임진위국전쟁(壬辰衛國戰爭)은 마침내 조선 인민의 최후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일본의 침략전쟁은 조선 국민에게 무거운 재난을 가져왔다. 인구가 대량으로 감소했고, 전쟁 이후 전국의 농지 면적은 전쟁 이전 전라도 경지 면적과 비슷했고, 가장 피해가 컸던 경상도는 전쟁 전의 1/6에 불과하였다. 17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전쟁의 상처가 점차 회복되었으나, 또 여진 귀족의 침략을 받았다. 1627년과 1636년, 후금(청)이 두 차례 조선에 침입하였다. 1637년 1월 조선은 어쩔 수 없이 청나라에 항복하였다.

위의 내용과 같이, 본 교재 7)소절 임진왜란 분량은 매우 많으며, 그 특징을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임진왜란 승리의 공로를 조선군에게 돌리고 그들의 역할과 활약상을 자세하게 그리고 있다. 임진왜란에 명군이 참전하여 조명 연합군이 일본과 전투했으므로 중국인의 입장에서 명군의 활약을 크게 부각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앞서 『중국사강요』처럼 조선 장군과 인민의 투쟁을 중시하고 있다. 중국 군대의 역할을 중시하는 중국 중고등학교 교과서와 다른 부분이라 할 수 있다.<sup>24</sup>

둘째,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에 대한 내용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임진왜란 내용의 약 60~70%가 조선 이순신 장군, 거북선, 수군에 대한 것이다. 거북선에 대해서는 그 크기나 형태까지 설명하고 있으며, 한산도대첩

24 송요후, 2008, 앞의 글.

에서 명량대첩까지 그 활약상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이렇게 이순신에 내용이 편중되어 있어, 전쟁 자체의 전개 과정은 풍성하지 않다.

셋째, 명군의 실패를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중국사강요』도 마찬가지다. 다만 『중국사강요』는 임진왜란 분량이 적어 명군의 실패를 언급할 여유가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 교재는 조선 장군 원균의 무능함과 칠천량해전 패배, 노량해전의 모습까지 그렸다. 조선군의 패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명군의 첫 패전인 조승훈 장군의 평양성 전투나 이어송의 벽제관 전투 패배 등도 언급될 여지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아서, 명군의 부진한 모습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이 전쟁의 모든 책임을 일본에게 전가하며, 일본군의 강성함은 언급하지 않는다. 이도 『중국사강요』와 비슷한데, 전쟁 발발부터 휴전 협상 제안과 결렬까지 모두 일본이 제안하고 악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 4년간의 명·일 휴전 회담의 실패는 중국의 책임도 있으나 언급하지 않는다. 전쟁 전후의 입체적 조명은 탈각되고 흑백논리처럼 선악이 분명한 전쟁으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일본군이 조명연합군에 맞서 싸운 것이기에 그 전력이 강성하다고 할 수 있는데, 조명연합군의 승리 위주로 기술하고 있어, 일본군의 군사력과 활약상을 알기 어렵다.

7)소절의 마지막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짧게 언급하고 있으며, 1637년 조선이 청나라에 항복하였다는 사실을 서술하였다. 병자호란은 조선 역사에서 임진왜란에 견줄 만큼 크고 중요한 전쟁인데, 한 줄 정도로 짧게 언급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sup>25</sup>

---

25 조선은 명과 청이라는 국가를 구분하였고, 한중관계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쟁이었으나, 한족과 만주족 모두를 '중화민족'이라는 하나의 민족체제로 설명하려는 중국 정부의 논리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 3. 내용 검토: 8)소절 한국문화

8소절은 한국문화 전반을 소개한다. 문화에 대해서는 한문, 유가, 불교, 역사서, 한글, 인쇄술, 천문학, 의학, 천문기구, 물시계, 측우기, 『동의보감』 등 다양하다. 그중 조선시대 문화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A)~D)로 구분하여 살펴 보겠다.

A-1) 중조 양국과 양국 인민 사이에는 예부터 밀접한 우호왕래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한자, 한문, 유가 사상이 일찍이 조선에 전래되었다. 4세기에 고구려가 태학을 설치하고 한문과 유가 경전을 공부하였다. ...

조선의 역대 통치자들은 역사서 편찬을 중시했다. ... 1451년 이조(李朝)의 학자 정인지 등이 고려왕조실록에 근거하여 기전체인 『고려사』 139권을 편찬하였는데, 이는 고려의 역사를 연구하는 주요 사서이다. 1415년에 완성된 『고려사절요』(35권)와 1484년에 편찬된 『동국통감』(56권)도 고려 시기와 조선 역사에 관한 중요한 사적이다. 이조 제왕들은 전대(前代) 실록 편수를 중시하여 27대 국왕의 『이조실록(李朝實錄)』 1893권을 연대순으로 편찬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은 인력을 조직하여 『이조실록』을 한문에서 조선어로 번역하였다.

A-2) 조선 자모(字母)-훈민정음의 창제는 이조 시대의 중요한 문화적 성취였다. 세종대(1418~1449) 조선 학자 정인지, 성삼문, 신숙주 등은 조선 어음(語音)에 근거하여, 한자 음운(音韻)을 고려하여, 표음 자모(表音 字母) 28자를 창제했으며, 이 중 모음 자모(母音 字母)는 11자, 자음 자모는 17자였다. 새로운 자모로 구성된 조선 문자는 획이 단순하고 읽기가 민첩하여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

A-3) 조선의 인쇄술과 천문학, 의학의 성과는 현저하다. 고려 현종 때(1010~1031) 조판(造版)으로 한역인 대장경(大藏經)을 새기는 작업에 착수하여 60여 년 동안 6,000여 권을 인쇄하였으나, 아쉽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몽골군에 의해 소실되

었다. 1236년 정부가 대장경을 다시 새기도록 명령하여, 16년에 걸쳐 8만 6,000장의 서판을 완성하였는데, 속칭 ‘팔만대장경’이라고 한다. 고려인들은 또한 동화자인쇄술을 발명하였는데, 서양의 유사한 발명품보다 약 200년 앞선 것이었다.

A-4) 약 647년에 경주에 첨성대를 세웠고, 8세기에 또한 천문관측의(天文觀測儀)와 물시계[누각기(漏刻器)]를 창건하였다. 이조 초년에 수력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자격루를 발명하였다. 1441년에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였으며, 아울러 정기적으로 강우량을 보고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1613년 태의(太醫) 허준은 중국과 조선 의서(醫書) 500여 권을 참고하여 『동의보감』 23권을 편찬하였는데, 지금까지도 참고와 임상적 가치가 있어 중국과 일본의 의사들에게 중시되고 있다.

A-1)은 한국의 한자, 한문, 유학, 불교, 역사서 편찬에 대한 내용이다. 중국의 한자, 유가, 불교 사상이 일찍이 고구려에 전래되었으며, 고려, 조선 등 한국의 역대 통치자들이 역사서 편찬을 중시했다고 하였다. 조선이 기전체 역사서인 『고려사』를 편찬하였고, 『동국통감』,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했다는 사실도 설명하였다. 이 역사교재는 고구려가 한국사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의 역사서 편찬 서술을 담박하게 언급하고 있다.

중국 역사교재의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중국학계에서 중국문화기원론을 강조하는 연구 경향과 대비된다. 예컨대 난카이대 교수 쑤웨이궈(孫衛國)는 「돛달아 바다에 배 띄우니, 긴 바람 만 리로 나아가네-중국 고대 문화가 한반도에 미친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한국문화를 기자(箕子) 전설의 역사 연원, 한자·유학 사상의 유대 관계, 중국 불교문화의 가교 등으로 분석하여, 한반도는 역사 발전 과정에서 중화 문명의 영향을 깊게 받았으며, 한반도에 전해진 문화를 통해 중국 고대 문화의 특색을 돌이켜 볼 수 있고 중국문화의 우월한 전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26</sup> 또한 「고대 조선의 기전체에 대한 인지와 실천」이라는 논문에서 중국 기전체 역사서체 방식이 조선에 미친 영향을 발표

하였다.<sup>27</sup> 우징과 진스주는 인류 문명의 진보에 중대한 공헌을 한 주자학이 중국을 넘어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조선에 주자학이 미친 영향을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sup>28</sup> 청웨이룽(程水龍)도 성리학과 중국식 과거시험 제도를 지적하며 중국이 한반도 유학문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29</sup> 이처럼 최근 중국학계는 기존의 한중문화교류사 내용을 재생산하는 수준의 논문에 조선문화의 기원이 중국이라는 점을 핵심으로 둔 연구를 잇따라 내고 있다. 이 『세계중고사』는 중국학계의 문화 원조론이 확장되기 이전 시기에 출판된 역사교재이므로 중국문화 기원론이 보이지 않는다. 향후 출판될 중국 역사교재가 한국문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서술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A-2)는 한글에 대한 설명이다. 훈민정음 창제를 조선시대의 중요한 문화적 성취라고 보고 있으며, 중국에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은 없다. 최근 중국이 한글 까지도 중국 영향력으로 이해하려는 경향과 대비된다.<sup>30</sup> A-3), A-4)는 조선의 금속활자, 팔만대장경, 천문학, 자격루, 측우기, 의학 등의 성과를 논하고 있다. 조선의 금속활자는 서구보다 200년 앞섰으며, 측우기는 조선이 세계 최초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자격루를 발명하고, 정기적으로 강우량을 보고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조선의 천문학과 의학의 성과

26 孫衛國, 2021, 「孫席浮滄海 長風萬里通-中國古代文化對朝鮮半島的影響」, 『歷史評論』.

27 孫衛國, 2022, 「古代朝鮮對紀傳體的認知與實踐」, 『鄭州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8 吳靜·金石柱, 2020, 「麗末鮮初朱子學對朝鮮半島的影響」, 『文化創新比較研究』 2020年 18期.

29 程水龍, 2021, 「論朝鮮李朝將《近思錄》作為策試的歷史文化意義」, 『朱子學研究』.

30 예컨대 찌우아이팡(鄒愛芳)과 류춘핑(劉春平)은 「조선 문자 ‘훈민정음’과 중국 철학사상의 상관성」이라는 논문에서 중국 철학사상이 훈민정음 창제에 끼친 영향을 연구하였다. 鄒愛芳·劉春平, 2020, 「朝鮮文字“訓民正音”與中國哲學思想的相關性」, 『長春大學學報』.

가 현저하다고 치하하였다. 허준의 『동의보감』이 중국과 조선의 의학서를 참고했다고 설명했으나, 타당한 수준의 내용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세계중고사』에서 다루는 한중관계사는 임진왜란뿐이며, 한국문화 서술은 대부분 조선 전기사에 머무르고 있다. 훈민정음, 자격루와 측우기 발명 등 과학기술이 세종대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에서 조선시대 연구가 조선 후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다르다. 조선문화에 대해서는 한글, 과학, 의학 기술을 높이 평가하며, ‘중국문화 기원론’과 같이 한국문화를 중국 중심으로 해석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 IV. 『중국고대사(中國古代史)』(2010): 상해 인근 대학들의 중국사 교재

### 1. 본 교재의 특징과 목차 구성

이 글에서 마지막으로 다룰 역사교재는 『중국고대사 상·하(中國古代史 上·下)』이다. 『중국고대사』는 중국 상해의 저명한 사범대학인 화동사범대학교, 그리고 산둥대학교, 서북대학교, 절강대학교, 광서사범대학교, 산서대학교, 안휘사범대학교, 섬서사범대학교, 복건사범대학교, 하남대학교 등 여러 지방대학이 연합하여 만든 중국사 교재이다. 1980년대 주샤오허우(朱紹侯) 주편을 시작으로 2010년 제5판이 출판되었다. 제5판 개정을 위해 2009년 화동사범대 등의 대학 학자들이 모여 이 교재의 기본원칙을 합의하였다. 기본원칙은 유물사관을 중심으로 하여 역사법칙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중시하고, 역사적 사실 서술과 사료 이용을 엄밀하게 하며, 근래 연구의 새로운 관점과 새 성과를 흡수한다는 것이다.<sup>31</sup>

31 朱紹侯 主編, 2010, 앞의 책.

새로운 관점 및 성과를 흡수한다고 하였으므로 앞서 교재들보다 중국학계의 최신 연구 경향이 담겨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중국 지방 여러 대학 학자들이 연합하여 만든 교재이므로 수도인 북경대학교와 북경사범대학에서 만든 앞서의 역사교재와도 차별성이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 책의 구성과 내용을 비교하며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 중국사 교재는 14장에서 명대를, 15장에서 청대를 서술하고 있다. 목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4장 명대 군주전제제도의 강화와 자본주의 맹아

1. 명대전기의 정치, 경제와 사회
2. 명대 중후기의 정치, 경제와 사회
3. 명대 변경지구 각 민족 사회경제의 발전
4. 명 후기 사회모순의 격화와 명말 농민 전쟁
5. 명대의 문화와 사회생활
6. 명대 중외관계와 중서문화 교류

#### 15장 청대 통일다민족국가의 진일보 발전

1. 청군 남하와 각지 인민이 청에 항거하는 투쟁
2. 청대의 정치
3. 통일형세의 발전과 변경지구의 진일보 개발
4. 청대사회경제의 발전과 자본주의 맹아의 성장
5. 청대사회모순의 격화
6. 청대의 문화와 사회생활
7. 청대 중외관계와 중국인민이 서방 식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투쟁

위의 표는 『중국고대사』의 14, 15장 목차이며, 이 중에서 조선 관련 내용은 14장의 ‘6절 명대 중외관계와 중서문화 교류’, 15장의 ‘7절 청대 중외관계와 중국인민이 서방 식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투쟁’에 언급되어 있다.

이 역사교재가 ‘중국사’라는 점에서, 앞서 북경대 출판 쟈보판의 『중국사강

요』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사강요』의 조선시대 한중관계 내용은 임진왜란에 불과하였다. 임진왜란도 관계사라기보다 명군이 참전했기 때문에 서술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고대사』는 명대와 청대 각각 대외관계 목차가 별도로 있어, 『중국사강요』보다 외국과의 관계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문화사와 문화교류사를 분리하여 서술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앞서 북경대와 북경사범대가 제작출판한 두 역사교재에 교류사의 비중이 현저히 낮았다는 점과도 크게 비교된다.

그럼 명대와 청대 조선과의 관계와 문화교류 서술을 각각 살펴보자.

## 2. 내용 검토: 14장 6절 명대 한중관계

14장 6절 명대 중외관계와 중서문화 교류는 다시 아래와 같이 6개 소절로 나뉜다.

### 14장 명대 군주전제제도의 강화와 자본주의 맹아

...

#### 6절. 명대 중외관계와 중서문화 교류

- 1) 정화가 서양으로 가다
- 2) 화교의 남양(南洋) 지역 개발
- 3) 중·일(中·日) 우호 왕래와 동남연해 인민의 항왜(抗倭) 투쟁
- 4) 만력 시기 조선을 원조한 정벌(役)
- 5) 서방 초기 식민주의자의 중국 연해지역 침탈
- 6) 명대 후기 서방 선교사의 동래(東來)와 중·서(中·西) 문화의 충돌

명대 조선에 대한 언급은 4)소절 ‘만력 시기 조선을 원조한 정벌(役)’에서만 등장한다. 근래 중국학계는 한류를 통해 한국문화의 위상이 강화되고 조선시대를 다룬 사극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자, 조선과 교류했던 중국 왕조로서 명대

(明代)의 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역사교재에서는 명대 조선과의 문화교류가 중국사에서 그다지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서 북경대 출판 『중국사강요』와 마찬가지로 임진왜란만 언급하고 그 목차 안에서 조명관계에 대한 내용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명나라 시대 중국과 조선 양국은 줄곧 우호적으로 지내며 사신 왕래가 빈번하였다. 당시 명나라는 조선으로 견(絹), 포(布), 약재 등을 수출하고, 판매가 금지된 초황(硝黃), 화약(火藥)과 우각(牛角)도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하였다. 조선은 주로 중국에 경우(耕牛), 마필(馬匹), 종이와 모시 등 물품을 수출하였다. 명초 요동 지구 둔전용 경우는 주로 조선 수입품에 의존하였다. 예를 들어 영락 2년(1404)에 조선은 한 번에 명나라에 1만 마리나 되는 농우를 보냈다. 정치적 우호관계와 경제적 상호 원조는 양국 간의 문화 교류를 촉진시켰다. 조선은 먼저 중국의 활자 인쇄술을 도입하여 개조를 거친 후 15세기 초에 처음으로 동활자 인쇄를 창안하였는데, 후에 이 신기술이 다시 중국으로 전해졌다.

위의 4)소절의 첫 내용이다. 임진왜란 전사(前史)로, 15~16세기 조명관계를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조선과 명이 우호적으로 지냈다고 여기는 것은 중국의 모든 역사교재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위의 내용에서 돋보이는 점은 이 글의 분석 대상 교재 중 조명 교류사를 가장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내용에 오류는 있다. 명나라가 조선에 판매가 금지된 초황(硝黃), 화약(火藥)과 우각(牛角)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는 것은 부분적으로만 맞다. 초황, 화약과 우각은 군수품이므로 명은 이 물품을 모두 수출 금지하였다. 활의 재료였던 우각은 1480년(성종 11) 조선 조정이 주청하여 1년에 200대까지 수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sup>32</sup> 염초는 임진왜란이라는 특수한 전시 상황을 겪은 이후

32 『明 憲宗實錄』 卷212, 成化 17年 2月(丙寅); 구도영, 2017, 「16세기 조선 對明

1606년 무역을 허가한 바 있다.<sup>33</sup> 위 서술을 보면 마치 명이 임진왜란 이전부터 우각과 화약을 조선에 수출한 것으로 오해하게 한다.

한편, 조선이 15세기에 동활자 인쇄를 창안했다는 것도 오류이다. 13세기 초반 고려에 이미 금속활자가 있었으며, 1277년 금속활자로 찍은 인쇄본 직지는 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sup>34</sup> 중국 중고등 교과서에서도 조선이 금속활자를 15세기에 발명했다고 잘못 기술하고 있는데 이 교재도 마찬가지다.<sup>35</sup> 중국 역사 교재에서 교류사 관련 내용은 특히 오류가 많아서, 향후 개정판에서 수정 보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제 임진왜란 서술을 살펴보자.

B-1) 16세기 80년대 일본의 “관백”(丞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각지에서 할거하는 제후들을 누르고 일본을 통일하였다. 그는 본국의 봉건주(封建主)와 상인의 재물 욕구 충족을 위하여 대외확장정책을 펴기 시작했는데, 목표는 먼저 조선을 취한 후에 요동으로 진격하는 것이었다. 만력 19년[일본 천정(天正) 19, 1591] 9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공식적으로 조선 침략 전쟁을 발동하였다.

B-2) 일본은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를 선봉으로 하여 10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만력 20년 4월에 조선 부산에 상륙하여 5월에 한양을 점령하였다. 6월에는 구로다 나가마사 등이 평양을 함락하였다. 이에 조선은 광대한 토지를 상실하고, 전쟁이 전국을 뒤덮어 인민들이 참혹한 화를 입었다. 조선국왕 이연(李

---

使行貿易의 수입품과 그 전개양상」, 『국학연구』 34.

33 『宣祖實錄』 권199, 선조 39년 5월 6일(계유); 『宣祖實錄』 권201, 선조 39년 7월 17일(갑신).

34 이희재, 2004, 「백운화상초록직지심체요결과 조선 초기 활자 인쇄 문화」, 『서지학연구』 28; 황정하, 2005, 「고려시대 금속활자의 발명과 「직지」활자 주조방법」, 『서지학연구』 32.

35 송요후, 2008, 앞의 글.

曠)은 명에 위급함을 고하며 병사를 내어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명나라도 “관백이 조선을 도모하고 뜻이 실로 중국에 있다”는 것을 탐지하고 즉시 조선에 군대를 파병할 것을 결정하였다. 12월 송응창을 경략, 이여송을 동정제독으로 삼아 병사 4만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크게 조선을 원조하였다. 만력 21년 정월 중·조 군대가 협동하여 싸워 평양에서 일본군은 대패하였고, 일본군이 남쪽으로 도망가게 하여 조선의 전세를 근본적으로 역전시켰다. 오래지 않아 개성, 한성도 연이어 수복하였다. 2월 조선군민은 행주 수성전에서 눈부신 전과를 올렸다. 결국 일본군은 부산으로 물러났고 조선 국토 기본(基本)이 광복되었다.

B-3)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패배를 달가워하지 않고 거짓으로 명과 화해하여 철병을 유도하였다. 이후에 다시 조선을 점령하였다. 명조 내부에서는 병부상서 석성을 비롯한 주화파가 우위를 점하였다.

B-4) 만력 25년[일본 경장 원년(慶長 元年), 1597] 1월 일본은 조선을 다시 침략하였으니, 이를 경장지역(慶長之役)이라 한다. 명조는 또 병부상서 형개를 파견하여 군대를 이끌고 조선에 가서 중조 양국 군대를 긴밀히 협력하여 일본군을 연패시켰다. 26년 8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였다. 그해 겨울, 조선 남해에서 격렬한 결전 중에 일본군 대부분이 죽었다. 일본이 일으킨 조선 침략 전쟁은 결국 참패하였으나, 이 전투 중에 조선민족 영웅 이순신과 일흔이 넘는 명나라의 노장 등자룡이 함께 작전을 지휘하다가, 불행하게도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양국 우호관계의 역사에 빛나는 장을 썼다.

위의 B-1)~B-4)는 본 교재의 임진왜란 서술 전체이다. B-1)은 임진왜란 발발 이전, B-2)는 임진왜란 발발과 전개과정, B-3)은 강화협상기간, B-4)는 정유재란 이후 종전(終戰)까지를 다루고 있다. 위 글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만력 19년(일본 천정 19, 1591)’, ‘경장지역(慶長之役)’이라는 표현이다. 천정(天正), 경장(慶長)은 일본 천황의 연호이다. 일본 천황의 연호를 굳이 언급하고, 일

본에서 부르는 전쟁명을 언급하였다. 임진왜란은 조선, 명, 일본이 함께 싸운 전쟁으로, 현재 이 전쟁을 지칭할 때 중국은 명 황제 연호인 만력(萬曆)을, 한국은 당시의 간지인 임진(壬辰)을, 일본은 일본 천황 연호인 문록(文祿), 경장(慶長)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중고등 역사교과서에서도 임진왜란을 조선임진국가보위전쟁, 7년국가보위전쟁, 임진위국전쟁 등으로 표기한다.<sup>36</sup> 그럼에도 이 교재는 특이하게도 일본 천황의 연호를 중국 황제와 동시에 열거했고, 일본에서 부르는 전쟁명도 언급하였다. 다른 역사교재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다.<sup>37</sup>

B-2)의 전쟁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의 『중국사강요』, 『세계중고사』 교재들보다 표현도 깔끔하고 섬세하며 전쟁 전개 내용도 상대적으로 정확하다. 앞의 교재들은 평양성 전투의 승전으로 일본군이 바로 부산까지 밀려난 것처럼 서술했는데, 이 교재는 전세를 역전시킨 것으로 한정하였다. 평양성 전투 이후 순차적으로 개성, 한성이 수복되었다고 하였으며, 조선군민이 행주산성에서 치열하게 방어전을 치른 점도 소개하였다. 『세계중고사』는 임진왜란 분량이 가장 많았음에도 이러한 전투들이 설명되지 않았기에 대비된다. 한편 B-4)를 보면, 이 교재 역시 마무리는 조선민족 영웅 이순신과 일흔이 넘는 명나라의 노장 등자룡이 함께 작전을 지휘하다 전사한 것을 언급하였다. 조선에서 사망한 명나라 장수 등자룡은 양국이 함께 싸운 전쟁의 우호관계를 상징하는 역사 언어가 되어 있다.

### 3. 내용 검토: 15장 청대 한중관계와 문화교류

15장은 7절에서 청대 한중관계 서술이 등장한다. 7절은 다시 다음과 같이 2개의 소절로 나뉜다.

36 송요후, 2008, 위의 글.

37 역사교재 집필 교수들의 학적 기반과 연구 동향 등을 모두 검토해야 이 책에서 왜 일본 천황 연호를 굳이 사용했는지 추정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그에 대한 분석까지 나아가지 못하였다. 차후에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 15장 청대 통일다민족국가의 진일보 발전

...

7절. 청대 중외관계와 중국인민이 서방 식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투쟁

### 1) 아시아 각국 간의 경제 문화교류

2) 중국과 서양 경제문화 교류와 중국인민이 서방식민주의자들에게 저항한 투쟁

위와 같이 7절 1)소절에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 내용이 등장한다. 앞서 『세계중고사』는 세계사 교재임에도 아시아 교류국가로 한국, 일본, 인도의 역사만 언급한 것에 비해 이 교재는 조선, 일본 외에 월남(베트남), 섬라(태국), 먼전(버마) 등과의 관계도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다.

7절 1)소절 조선과의 교류사를 살펴볼 것인데, 그 내용에 따라 C-1)~C-5)로 구분하였다. 우선 아래와 같이 C-1)~2)부터 살펴보자.

C-1) 청대 중·조 간의 문화교류는 정치교왕에 수반하여 더욱 밀접해졌다. 청조는 명조와 조선 건립의 종번(宗藩)관계를 계승하여 매년 정단, 동지, 성절(황제 생일) 등의 명절과 조선 국왕 책봉 시, 조선은 모두 대사신단을 중국에 반복해 파견해 모종의 예의를 이행했다.

C-2) 허다한 사신단 구성원은 도중에 보고 들은 바에 따라 일기를 썼고, 혹자는 귀국 후 다시 출사기간의 경험을 추가하였으며, 이 자료를 연행록이라 부른다. 지금까지도 90여 종 못지않게 남아 있으며, 특히 사절단의 서장관은 그 직책 중 하나가 귀국 후 조선 국왕에게 상세한 서면 보고를 작성하는 것이었고, 이에 귀중한 중·조 관계의 문헌이 대량으로 생산되었다.

C-1)은 청대 조선사행의 왕래를 언급하면서, 청과 조선의 관계를 조공관계가 아니라 ‘종번관계’라고 표현하고 있다. 종번관계로는 청과 조선의 관계를 표

현할 수 없다. 중국학자 리다룡(李大龍)은 ‘중변은 황실 구성원이나 번왕(藩王)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을 뿐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서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하였다. 중변관계는 역사적 용어도 아니다. 19세기 중국이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입을 받고 친중국가인 조선을 외부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조선에게 정치간섭을 하게 되는데, 중변관계는 19세기 말 10여 년의 특수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바 있다. 중변관계는 서구 식민주의 관념이 투영되어 있는 데다 전근대 동아시아 외교질서를 나타내는 용어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중국학계 내에서도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학계에서 청과 조선의 관계가 ‘형식적인 조공관계’가 아니라, ‘실제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중변관계’로 이해하고자 조선시대까지 확장 사용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sup>38</sup> 현재도 중국학계 내에서 완전히 합의되지 못한 ‘중변관계’를 20여 년 전 역사교재에서 이미 사용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앞서 북경에서 출판한 교재들과 차별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

C-2)는 조선 사신의 연행록에 대한 설명이다. 중국학계에서는 지금도 연행록에 대한 관심이 크다. 연행록을 분석한 논저가 지속적으로 출간되고 있다.<sup>39</sup>

38 손성욱, 2019, 「중변(宗藩)과 중화(中華)로 청제국을 볼 수 있는가-왕위안충 ‘조선 모델’의 가능성과 한계」, 『동북아역사논총』 66; 손성욱, 2022, 「중변(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동북아역사리포트』 제9호.

39 중국의 최근 연행록 관련 연구만 소개해도 이와 같다. 王小芳·姚曉娟, 2021, 「朝鮮文人李海應燕行詩歌中的中國元素」, 『河北科技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4期; 陳在教·張珊, 2021, 「燕行錄與知識及信息-知識及信息的收集與記錄方式」, 『中國傳統文化研究』 2期; 楊柳青·溫兆海, 2022, 「從抵轄走向認同-清代朝鮮使臣燕行詩中的盛京書寫」,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1期; 谷小溪, 2022, 「金昌業《老稼齋燕行日記》中的清代遼西走廊民俗」, 『遼寧工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1期; 倪金艷, 2021, 「朝鮮李朝時期漢文典籍《燕行錄》中的孟姜女書寫」, 『中國語言文學研究』 2期; 賈艷, 2022, 「試論燕行使臣對中朝文化交流的貢獻」, 『哈爾濱學院學報』 7期; 金明實, 2022, 「《燕行錄》中的遼寧歷史文化資源開發與保護研究-以遼陽地區爲中心」, 『文化創新比較研究』 6期; 金哲·張慧雯, 2022, 「明清時期“燕行錄”中孟姜女傳說變異考-以“情節”和“人物”演變爲例」, 『東疆學刊』 3期; 王微笑, 2022, 「古文書學視域下的燕行錄研究獻議-從奎章閣藏《啓下》談起」, 『檔案學通信』; 李榮, 2022, 「中唐岭南

연행록이 한중관계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조선인의 시선으로 중국사회를 볼 수 있는 기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중국학계는 중국에 대한 미시 역사와 한중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텍스트라는 점에서 연행록의 가치를 주목하였고, 역사교재에서도 이를 잊지 않고 설명하고 있다.

C-3) 사절단은 보통 60일 정도 북경에 머물렀는데, 이 기간 중에는 청 황제가 하사한 대량의 서적을 받을 수도 있었고, 대부분 미리 준비한 단서에 따라 직접 서점에 가서 구입하였다. 예를 들어 강희 59년(1720) 조선사절단은 한 번에 각종 유서(類書), 집부서(集部書), 지서(志書) 류 50종을 구입하였고, 그 밖에 또한 얼마간의 비첩(碑帖)과 자화(字畵)도 있었다. 조선사절의 한문 수준은 일반적으로 매우 높으며, 또한 오랫동안 유학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좋은 한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있다. 그들은 북경에 머무는 동안 청나라 관리들과 학자들과 우정을 쌓고, 시문에 답례하고, 서로 저작을 주고받으며, 중조 문화 교류를 촉진시켰다. 예컨대 가경 21년(1816) 조선 사신 조인영(趙寅永)이 북경에 왔을 때 조선 고비(古碑) 탁본 수십 종을 가져와 청나라 금석학자이자 산동 제성(諸城) 사람인 유희해(劉喜海)[자(字) 연정(燕庭)]에게 보내주었다. 후에 그는 이 탁본을 바탕으로 다른 조선 지인들의 기증도 받아道光 11년(1831)에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8권)으로 편집하여 조선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문헌이 되었다.

C-4) 농업생산기술 방면에서도 청나라가 조선에 영향을 미쳤다. 건륭 45년(이조 정종 4년, 1780), 건륭제 70년 탄신을 축하하기 위해 조선에서는 박명원을 정사로, 정원시를 부사로 하는 60~70명의 사절단을 파견하여, 8월 초에 북경에 도착하였다가, 후에 열하 피서산장에 이르러 탄신을 축하하고, 후에 다시 북경을 거쳐 귀국하였다. 중국에서 한 달 반 정도를 머물렀다. 사행파견에 동행한 박지원은 상세한 기록을 남겼고, 견문과 교왕, 간혹 평론 발표 등으로 저작 『열하일기』를 완성

---

謫臣與越南獨立 - 基于《熱河日記》文獻的中國嶺南歷史認識, 『南海學刊』 4期.

하였다. 그는 중국의 부유함을 극찬하며, 귀국 후 중국 농기구를 모방하고, 요동의 가는 논두둑 경작과 적분축비(積糞蓄肥) 방법을 모방하고 채택하여 조선의 농업 생산을 개선할 것을 건의하였다.

C-5) 조선은 사신을 늘 보내 토물을 진헌하고 상사(賞賜)받은 조공무역 외에도 국경 지역인 의주, 회령, 경원 등에 정기무역 시장을 설립하였다. 중국상인은 비단, 가죽, 포필(布匹), 문구 등을 수출하고 종이, 모시, 인삼, 우마, 소금 등의 물품을 바꾸었다. 조선 개성의 송상과 의주의 만상은 모두 청나라 상인들과의 통상 과정에서 유명하였다. 이 때문에 양국 간 민간 교역량은 끊임없이 상승하였다.

C-3)은 조선사행과의 학적 교류에 대한 내용이다. C-4)는 청나라가 조선에 농업생산 기술에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통해 이를 입증하고 있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 박지원은 조선의 관리가 아니라 자제군관(子弟軍官)이다. 즉, 정사(正使)의 친인척(조카) 신분으로 사행에 참여한 학생일 뿐이다. 그러니 그의 『열하일기』 속 주장은 박지원 개인의 의견일 뿐 공문서도 아니고 조선 정부에 채택된 문건도 아니어서 조선 농업 생산 기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었다. 이 교재는 조선 한 학생 개인의 견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

C-5)는 한중 경제교류, 무역에 대한 내용이다. 조선이 보내는 토산물과 명황제가 보내는 상사(賞賜)를 조공무역이라 설명하고 있으며, 의주, 회령, 경원 등의 국경무역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토산물과 상사는 선물교환의 성격이 강한 한중무역의 아주 일부에 불과한데 이를 대표적으로 거론하고 있으며, 정작 중요한 공무역과 사무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또한 회령, 경원 등의 국경무역은 조선 전기 여진족과의 무역을 위해 존재했던 시장이므로 조선 후기 청과의 무역에 대한 내용으로 전혀 맞지 않다. 교역품도 잘못 소개되고 있다. 중국상인이 비단, 가죽을 수출한 것은 맞지만, 문구는 조선의 대표적인 수출품이기 때문에 이를 수입품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조선에서 만든 붓 황모필(黃毛筆)이 청

나라와 일본으로 수출되어 널리 알려졌다.<sup>40</sup> 우마, 소금도 조선이 청으로 수출한 핵심 상품도 아니다. 중국의 역사교재에서 교류사에 대해서는 오류가 특히 많아,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 V. 맺음말

이 연구는 현재 중국 대학교에서 활용하는 대표적인 역사교재 3가지를 선정하여, 조선시대 한중관계와 문화 서술을 살펴보고 그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 글이다.

첫 번째 분석 대상 교재는 진보판 주편 『중국사강요』(2006)이다. 중국 통사(通史)로, 북경대를 비롯해 오늘날 중국 대학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는 역사교재이다. 중국의 ‘국사’ 교재로, 중국 국내사에 내용이 집중되어 있고, 대외관계 비중이 매우 적어서 조선에 대한 내용은 임진왜란뿐이다. 1960년대 편찬된 이후 개정되기는 했으나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이 강하다. 이에 명군이 참전했던 임진왜란을 만력원조전쟁이라 부르면서도, 전쟁이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을 조선 인민의 투쟁이라고 해석하였다. 2000년대 이후 중국에서 벌어진 동북공정식 역사 인식은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 분석 대상 교재는 중국의 대표적인 사범대학인 북경사범대학 등 여러 대학에서 세계사 교재로 활용하는 『세계중고사』이다. 이 책은 세계사 교재라고 하지만, 유럽사에 치중되어 있다. 아시아 국가로는 조선, 일본, 인도가 전부이며 분량도 매우 적다. 따라서 중국 대학생들은 이 교재로는 중국을 둘러싼 동아시아 역사를 정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세계사를 유럽사 중심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선시대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임진왜란이 전부이며, 그 안에서도 이순신과 거북선에 대한 내용이 절대적으로 많다. 한국문화에 대해서

---

40 이승민, 2020, 「조선산 黃毛筆의 생산과 일본과의 교역」, 『한일관계사연구』 70.

는 한글, 과학, 의학 기술을 높이 평가하며, 최근 중국학계에서 보이는 ‘중국문화 기원론’과 같이 한국문화를 중국 중심으로 해석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세 번째 분석 대상 교재는 중국 상해의 사범대학인 화동사범대학교, 산둥대학교 등의 여러 지방대학들이 연합해서 만든 『중국고대사』이다. 북경이 아닌 상해 이남의 대학들이 연합해서 만든 교재여서 앞서 분석한 역사교재, 또는 중국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와도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다. 세계사 교재가 아니라 중국사 교재지만, 앞서 『세계중고사』보다 더 많은 외국과의 교류 내용을 담고 있고, 문화교류사를 별도의 목차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다만 교류사에 대한 내용에 오류가 많다는 점은 앞서의 다른 교재와 비슷하다. 임진왜란을 언급하며 일본 천황의 연호를 중국 황제와 병기하고, 일본학계에서 부르는 전쟁명을 별도로 언급한 것도 다른 교재들과 차별적이다. 조선과 청과의 관계를 조공관계가 아니라 서구 식민주의 관념이 투영된 ‘종번(宗藩)관계’라고 정의한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 글의 분석 대상인 3가지 책을 종합적으로 보면, 국내사 중심으로 역사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외관계 비중이 적으며, 세계사 교재는 유럽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아시아 국가에 대한 관심이 적다고 이해된다. 조·명 교류, 조·청 교류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목차도 없고, 관련 내용도 매우 적다. 중고등학교의 역사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한중 교류에 대한 내용이 대거 감소되어 문제될 만한 여지도 줄었다. 3가지 역사교재에서 임진왜란은 빠지지 않고 모두 등장하는데,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는 일본과 명나라의 비중이 크게 묘사된 반면,<sup>41</sup> 대학교재에서는 조선 인민의 분투가 전쟁 승리의 가장 큰 요인이라 인정하고 있다. 대학교재와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조선 관련 내용을 비교하면, 대학교재가 상대적으로 중국중심주의적인 시각이 덜하다.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최근 중국학계의 ‘문화원조론’을 반영한 우려할 만한 연구 내용은 아직 없다. 이는 이

---

41 송요후, 2008, 앞의 글.

교재들이 편찬된 당시 중국에서 조선시대사 관련 첨예한 논쟁이 없어 관심이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중국학계에서 조선시대사와 문화사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향후 중국 대학의 역사교재에서 한국문화 내용이 어떻게 다루어질지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고등학교 세계사』, 미래엔, 2020.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미래엔, 2020.

권소연 외, 2006, 『중국의 역사교육과 교과서』, 고구려연구재단.

김종박, 2011, 『중국의 역사교과서와 통일적다민족국가론』, 동북아역사재단.

김한중, 2005, 『한·중·일 3국의 근대사 인식과 역사교육』, 고구려연구재단.

송요후 외, 2008, 『중국과 타이완·홍콩 역사교과서 비교』, 동북아역사재단.

윤휘탁, 2006, 『중국 역사 교과서의 민족·국가·영토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이경룡 외, 2008, 『중국 대학 역사교재 속의 한국·한국사』, 동북아역사재단.

젠보잔 주편, 심규호 역, 2015, 『중국사강요』 2(오대십국부터 근대까지), 중앙북스.

劉子敏·苗威, 2006, 『明代抗倭援朝戰爭』, 香港亞洲出版社.

剪伯贊 主編, 2006, 『中國史綱要』, 人民出版社.

朱紹侯 主編, 2010, 『中國古代史 上』, 第5版修訂說明, 福建人民出版社.

周一良, 2019, 『明代援朝抗倭戰爭』, 北京古籍出版社.

### 논문

강택구·박재영, 2008, 「중국 조선족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한국관련 내용분석-중국 조선족의 정체성과 중국의 역사 만들기」, 『백산학보』 81.

구도영, 2017, 「16세기 조선 對明 使行貿易의 수입품과 그 전개양상」, 『국학연구』 34.

\_\_\_\_\_, 2021, “Items of Tributary Gifts (Pangmul 方物) Sent to the Ming Dynasty by Chosŏn and their Changing Trend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26(2).

권소연, 2019, 「중국 의무교육교과서 『중국역사』 근대사 서술분석-국정화 교과서의 역사인식의 특징과 교과서 구성을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 33.

권은주, 2021, 「중국 대학 역사교재의 고조선(한4군)과 임나일본부에 대한 서술 변화-

- 식민사학의 영향과 중화주의가 결합한 한국고대사상(像), 『동북아역사논총』 74.
- 김순자, 2000, 「麗末鮮初 對明馬貿易」, 『韓國史의 構造와 展開(河炫綱教授定年紀念論叢)』, 혜안.
- 김유리, 2001, 「중국 교육과정의 변천과 역사교육」, 『근대중국연구』 2.
- 김종건, 2004, 「중국 역사교과서상의 명청사(明清史) 내용과 변화 검토-최근 초급중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경북사학』 27.
- \_\_\_\_\_, 2010, 「中國 歷史教科書上의 韓國 關聯 敘述 內容 變化에 대한 검토-최근 초급중학 [중국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69.
- 김지훈, 2004, 「최근 중국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한국사」, 『중국근현대사연구』 23.
- \_\_\_\_\_, 2007, 「한·중 역사갈등 줄이기-동북공정과 중국의 역사교과서-」, 『역사문제연구』 17.
- \_\_\_\_\_, 2018, 「현대 중국의 한국전쟁 인식 변화-역사 교과서의 서술 변화를 중심으로-」, 『사림』 64.
- 김지훈·정영순, 2004, 「최근 중국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한국사」, 『중국근현대사연구』 23.
- 박정수, 2013, 「세계화와 민족주의의 문화갈등: 한중 간 한류와 반한류의 사례 분석」, 『중화연구』 37(1).
- 방영춘·백주현, 1992, 「중국의 역사교육」, 『歷史와 現實』 8.
- 손성욱, 2019, 「종번(宗藩)과 중화(中華)로 청제국을 볼 수 있는가-왕위안충 ‘조선 모델’의 가능성과 한계」, 『동북아역사논총』 66.
- \_\_\_\_\_, 2022, 「종번(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동북아역사리포트』 제9호.
- 오병수, 2001, 「중국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서술양식과 역사인식」, 『역사교육』 80.
- \_\_\_\_\_, 2002, 「중국 중등학교 역사 교육과정의 추이와 최근 동향」, 『역사교육』 84.
- \_\_\_\_\_, 2004, 「中·日 歷史教科書 發行制度和 運用 實態」, 『역사교육』 91.
- \_\_\_\_\_, 2016, 「국내 학계의 중국 역사교과서 연구 경향과 과제」, 『동북아역사논총』 53.
- 우성민, 2011, 「韓 中間 ‘相互理解와 歷史和解’의 인식 제고를 위한 역사교과서의 과제」, 『중국사연구』 75.
- 윤세병, 2010, 「중국 교과서 속의 지도의 현황과 문제점-인민교육출판사판 초중 [중국

- 역사를 중심으로, 『역사와 역사교육』 20.
- \_\_\_\_\_, 2013, 「중국 역사교과서의 서사구조와 이데올로기」, 『역사교육연구』 18.
- 윤재운, 2010, 「중국 역사교과서에 보이는 소수민족정책과 내용」, 『역사교육논집』 44.
- 이성원, 2021, 「2019 검정 교과서 『중학교 역사 ①』의 분석-중국 고대사를 중심으로」, 『역사와담론』 97.
- 이승민, 2020, 「조선산 黃毛筆의 생산과 일본과의 교역」, 『한일관계사연구』 70.
- 이유표, 2021, 「중국 고등교육 역사 교재 중국사강요의 편찬과 개정」, 『문화와 융합』 87.
- 이희재, 2004, 「백운화상초록직지심체요절과 조선 초기 활자 인쇄 문화」, 『서지학연구』 28.
- 임상선, 2015, 「중국 역사교과서의 북방민족영토관련 서술분석」, 『백산학보』 101.
- 임상훈, 2022, 「중국 국정 역사교과서 중외역사강요의 도입과 그 성격」, 『역사문화연구』 82.
- 장세운, 2004, 「근간 한·중 역사교과서의 양국 관련내용 검토」, 『백산학보』 68.
- 장희홍, 2009a, 「중국계 역사 교과서의 조선시대 서술 분석-중국, 대만, 홍콩 교과서를 중심으로-」, 『동국사학』 47.
- \_\_\_\_\_, 2009b, 「한·중 역사 교과서의 왜란 서술 내용 분석」, 『사학연구』 96.
- 정동준, 2019, 「중국 『역사』 교과서의 고대사 서술 분석-2016년판 중학교 국정교과서의 특징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중국고중세사연구』 52.
- 조영현, 2009, 「문명굴기와 제삼세계: 2000년 이후 중국 고등학교 세계사 인식」, 『역사교육』 112.
- 최갑순·문형진, 2006, 「중국 역사교과서(1949~2003)의 한국 현대사 서술」, 『역사문화연구』 24.
- 황정하, 2005, 「고려시대 금속활자의 발명과 「직지」활자 주조방법」, 『서지학연구』 32.
- 賈艷, 2022, 「試論燕行使臣對中朝文化交流的貢獻」, 『哈爾濱學院學報』 2022年 7期.
- 谷小溪, 2022, 「金昌業《老稼齋燕行日記》中的清代遼西走廊民俗」, 『遼寧工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22年 1期.
- 金明實, 2022, 「《燕行錄》中的遼寧歷史文化資源開發與保護研究-以遼陽地區為中心」, 『文化創新比較研究』 2022年 6期.

- 金哲·張慧雯, 2022, 「明清时期“燕行錄”中孟姜女傳說變異考-以“情節”和“人物”演變爲例」, 『東疆學刊』 2022年 3期.
- 孫衛國, 2020, 「明抗倭援朝水師統帥陳璘與露梁海戰」, 『南開學報』 2020年 4期.
- \_\_\_\_\_, 2021, 「挂席浮滄海 長風萬里通-中國古代文化對朝鮮半島的影响」, 『歷史評論』.
- \_\_\_\_\_, 2022, 「古代朝鮮對紀傳体的認知與實踐」, 『鄭州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 吳靜·金石柱, 2020, 「麗末鮮初朱子學對朝鮮半島的影響」, 『文化創新比較研究』 2020年 18期.
- 王小芳·姚曉娟, 2021, 「朝鮮文人李海應燕行詩歌中的中國元素」, 『河北科技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21年 4期.
- 王微笑, 2022, 「古文書學視域下的燕行錄研究獻議-從奎章閣藏《啓下》談起」, 『檔案學通信』 2022年 4期.
- 柳樹人, 1987, 「壬辰抗倭戰爭」, 『延邊曆史研究』 第2輯.
- 劉喜濤·宋明哲, 2021, 「明朝東亞地緣政治思想及其在抗倭援朝戰爭中的體現」, 『長春師範大學學報』.
- 李榮, 2022, 「中唐岭南謫臣與越南獨立-基于《熱河日記》文献的中國岭南歷史認識」, 『南海學刊』 2022年 4期.
- 程水龍, 2021, 「論朝鮮李朝將《近思錄》作爲策試的歷史文化意義」, 『朱子學研究』.
- 陳在教·張珊, 2021, 「燕行錄與知識及信息-知識及信息的收集與記錄方式」, 『中國傳統文化研究』 2021年 2期.
- 鄒愛芳·劉春平, 2020, 「朝鮮文字“訓民正音”與中國哲學思想的相關性」, 『長春大學學報』.

## 중국 대학교 역사교재의 ‘조선시대 한중관계 및 문화’ 서술과 인식

구도영

최근 중국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아가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역사교재도 국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중국 대학교에서 활용하는 대표적인 역사교재 3가지를 선정하여, 조선시대 한중관계와 문화 서술을 살펴보고 그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첫 번째 분석 대상 교재는 쥬보잔(翦伯贊) 주편 『중국사강요』이다. 북경대를 비롯해 현재 중국 대학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역사교재이다. 중국의 ‘국사’ 교재로, 중국 국내사에 내용이 집중되어 있어 조선에 대한 내용은 임진왜란뿐이다. 1960년대 편찬된 이후 개정되기는 했으나 쥬보잔이 만든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이 관철되어 있어, 2000년대 이후 중국에서 벌어진 동북공정식 역사 인식은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 분석 대상 교재는 북경사범대학 등 여러 대학에서 세계사 교재로 활용하는 『세계중고사』이다. 이 책은 세계사 교재이지만, 내용은 유럽사에 가깝다. 아시아는 조선, 일본, 인도사만 소개되고 있으며 분량도 매우 적다. 세계사를 유럽사 중심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선시대 한중관계는 임진왜

란이 전부이고, 조선문화에 대해서는 한글, 과학, 의학 기술을 높이 평가하며, 최근 중국학계에서 보이는 ‘중국문화 기원론’과 같이 한국문화를 중국 중심으로 해석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세 번째 분석 대상 교재는 중국 상해의 사범대학인 화동사범대학교, 산둥대학교 등의 여러 지방대학이 연합해서 만든 『중국고대사』이다. 북경이 아닌 상해 인근 대학 연합 교재여서 앞서 분석한 역사교재와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다. 앞서 『세계중고사』보다 외국들과의 교류 내용이 더 많고, 문화교류사를 별도의 목차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임진왜란 편에서 일본 천황 연호를 중국 황제와 병기하고, 일본학계에서 부르는 전쟁명을 별도로 언급한 것도 다른 교재들과 차별적이다. 조선과 청과의 관계를 조공관계가 아니라 ‘종변(宗藩)관계’라고 정의한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요컨대 중국 대학 교재가 2000년대 초중반 집필되어 최근 중국학계의 ‘문화 원조론’과 같은 내용은 없으며, 조선시대 한중관계에 대한 내용은 임진왜란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중국학계에서 조선시대사와 문화사 연구가 급증하고 있으니, 향후 중국의 역사교재에서 한국문화가 어떻게 서술될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중국대학교, 교과서, 조선, 한중관계, 문화, 임진왜란, 종변(宗藩)

## ABSTRACT

# Description and Perception of ‘Korea-China Relations and Culture in the Joseon Dynasty’ in Chinese University History Textbooks

Koo Doyoung

Recently, China is moving to nationalize not only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s but also history textbooks used in universit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elect three representative historical textbooks currently used by Chinese universitie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he cultural description of the Joseon Dynasty and to confirm their aspects.

The first textbook to be analyzed is *Main points of Chinese history*(『中國史綱要』) compiled by Zen Bojian(剪伯贊). It is a history textbook that is widely adopted by Chinese universities today, including Peking University. It is China’s “National History” textbook, and the contents are concentrated in Chinese domestic history, so the only content about Joseon is the Imjin War(壬辰倭亂). Although it has been revised since it was compiled in the 1960s, the book does not

contain the ‘North-east Historical Project of China(東北工程)’ style historical perception that has taken place in China since the 2000s.

The second textbook to be analyzed is *The ancient history of the world*(『世界中古史』), which is used as a textbook for world history by various universities such as Beijing Normal University. This book is a world history textbook, but the content is close to European history. As for Asian countries, only Joseon, Japan, and Indian history are introduced, and the volume is very small. I am concerned that Chinese students will perceive world history as centered on European history. In this textbook, Korea-China relations during the Joseon Dynasty were all about the Imjin War. As for Joseon culture, we highly appreciate Hangeul, science, and medical technology, and there is no attempt to interpret Korean culture as China-centered, such as the “Chinese Culture Origination Theory” in recent Chinese academia.

The third textbook to be analyzed is *The ancient Chinese history*(『中國古代史』) created by various local universities such as Hwadong Normal University and Shandong University, which are universities of education in Shanghai, China. It is a university association textbook near Shanghai, not Beijing, so it differs from other history textbooks in terms of content. It is also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contains more contents of exchanges with foreign countries than the textbook of *The ancient history of the world*(『世界中古史』), and that the history of cultural exchange is composed of a separate table of contents. In the section explain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he Japanese emperor’s name is written with the Chinese emperor, and the name of the war called by the Japanese academic community is also mentioned. In this book, I am concern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Joseon and

the Qing Dynasty was defined as a ‘Zongfan(宗藩) relationship’, not a tribute relationship.

In short, Chinese university textbooks were written in the early and mid-2000s, and there is no such content as the ‘the theory of cultural origin(文化起源論)’ of Chinese academia, and the contents of Korea-China relations during the Joseon Dynasty are concentrated in the Imjin War. Recently, research on the history of the Joseon Dynasty and cultural history has been rapidly increasing in Chinese academia, so it is necessary to track how Chinese history textbooks will describe Korean culture in the future.

**Keywords:** Chinese University, Textbook, Joseon, Korea-China Relations, Culture, Imjin War, Zongfan(宗藩)

# 마공정(馬工程)

## 『중국근현대사강요』의

## 중국계 이주민 서술의 특징

— 싱가포르 및 대만 역사교육과의 비교 분석

김종호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조교수

- I. 머리말
- II. 마공정(馬工程) 『중국근현대사강요(中國近現代史綱要)』의 중국 근대사 서술구조와 특징
- III. 『강요』 속 화교화인 및 대만 서술의 특징
- IV. 싱가포르·대만 역사교육 속 국가 정체성과 중국과의 관계 설정
- V. 맺음말



## I. 머리말

현대 사회에서 교육은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삶을 영위하고 공동체의 규범을 지키면서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미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이유로 현대의 교육에는 그 주체인 국가의 의도가 다분히 녹아들어 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역사교육이다. 국가는 역사교육을 통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구성원들에게 공통의 과거를 교육하고, 이를 통해 현 정치체제의 정당성, 중요시하는 가치, 국가 성립의 과정 등을 이해시킴으로써 국가 정체성과 소속감을 심어주고자 한다.<sup>1</sup>

\* 투고: 2023년 1월 13일, 심사 완료: 2023년 2월 6일, 재심사 완료: 2023년 2월 16일, 게재 확정: 2023년 2월 20일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1093243).

\*\*\* 이 글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비평이 중요한 나침반이 되었다. 심사내용을 대체로 반영하려 노력했지만, 부득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추후 연구를 통해 보충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1 Claudia Schneider, 2005, "Looking at our story with different eyes: History textbooks on both sides of the Taiwan Strait", *Internationale Schulbuchforschung*, Vol. 27, No. 1; Meihui Liu, & Li-Ching Hung, 2002, "Identity issues in Taiwan's history curriculum",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7; Pei-Fen Sung, 2020, "Historical consciousness matters: national identity, historical thinking and the struggle for a democratic education in Taiwan",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52(5); Vladimir Stolojan, 2017, Curriculum Reform and the Teaching of History in High Schools during the Ma Ying-jeou Presidency, *Journal of Current Chinese Affairs*, 46(1); Hsuan-Yi Huang and Chen Hsiao-Lan, 2019, "Constructing collective memory for (de)colonisation: Taiwanese images in history textbooks, 1950-1987", *Pedagogica Historica* 55(1); Suhaimi Afandi and Ivy Maria Lim, 2022, "History Education in Singapore:

그런 이유로 역사교육은 국가 정체성과 깊은 연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역사교육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진행한다고 해도 커리큘럼, 관점, 개념, 범위 등을 보면 해당 국가가 추구하는 정체성과 학습자에게 심어주고 싶은 가치, 역사관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중등교육까지는 국가에서 지정한 규정에 따라 국정화라는 이름으로 역사 교과서 서술이 이루어지고, 교육 역시 그러한 차원에서 진행된다. 대학 이후에는 좀 더 자유로운 방향의 역사교육이 개별 교수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이 경우 별다른 교과서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아시아에서는 한국뿐 아니라 대만, 싱가포르 모두 이와 비슷한 형식을 취한다.

다만, 최근 중국이 10대를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뿐 아니라 대학 교육에서도 마르크스 사상으로 대표되는 국가 정체성을 심어주는, 혹은 강조하는 방향의 역사교육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 관련 연구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sup>2</sup> 이 글에서는 소위 “마공정(馬工程)”이라 부르는 “마르크스주의 이론 연구와 건설 프로젝트(馬克思主義理論研究和建設工程)”의 교재 편찬사업을 통해 출간된 2018년판 『중국근현대사강요(中國近現代史綱要)』와 그 보조교재로 출간된 『중국근현대사강요-학습독본(中國近現代史綱要-學習讀本)』을 중심으로 현재 중국의 대학 교육에서의 근대사 서술구조를 파악하고, 그 가운데 근대 시기 중국인 이주민의 역사와 깊은 연계를 지닌 화교화인 및 대만 관련 서술을 분석하고자

---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Education in Singapore*, vol. 66; Yeow Tong Chia, 2012, “History Education for Nation building and state formation: The case of Singapore”, *Citizenship Teaching & Learning* Vol. 7, No. 2.

2 이유표, 2021, 「중국 고등교육 역사 교재 중국사강요의 편찬과 개정-노예사회, 봉건사회 서술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3(11); 윤세병, 2019, 「중국의 역사교과서 논쟁과 국정화」, 『역사교육연구』 vol. 33; 오병수, 2020, 「시진핑 시대 중국의 역사정책과 자국사의 재구성-歷史: 中外歷史綱要과목의 개설 배경과 이데올로기-」, 『歷史教育』 156; 권은주, 2021, 「중국대학 역사교재의 고조선(한4군)과 임나일본부에 대한 서술 변화-식민사학의 영향과 중화주의가 결합한 한국고대사상」, 『동북아역사논총』 74호.

한다.<sup>3</sup> 그리고 이 시기 중국인 이주를 통해 형성된 두 국가, 싱가포르와 대만의 관련 역사교육 규정을 분석함으로써 중국, 대만, 싱가포르, 세 중화권 국가의 근대사 인식을 비교하여 각 국가가 추구하는 국가 정체성의 일면을 엿보고자 한다.<sup>4</sup>

맥퀸의 연구에 따르면, 1840년에서 1940년까지 중국의 동남부 지역인 푸젠(福建), 광둥(廣東), 하이난(海南) 지역에서 당시 난양(南洋)이라 부르던 동남아시아로 이주한 중국계 이주민의 숫자는 2,000만 명에 달한다.<sup>5</sup> 이 시기 진행된 중국인의 대량 이주와 활동은 제국주의 식민시대와 두 번의 세계대전, 중일전쟁,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거치면서 싱가포르와 대만이라는 대표적 중화권 국가를 탄생시켰다. 이 역사를 세 국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역사 서술의 가장 중요한 세 축은 역사적 사실과 관점, 그리고 해석이다. 관점이 달라지면 같은 사실이라도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면, 역사 서술이 달라진다. 관점에 따라 중국계 이주민이나 그 후예들이 대부분인 대만 거주민들의 역사가 중국사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중국사와 관계없는 독립적인 대만사가 되기도 한다. 혹은 중국계 이주민의 활동이 싱가포르 국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과도하게 축소되어 교육되기도 한다. 즉,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100여 년간 진행된 중국계 이주민들의 활동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성립된 세

3 이 글에서 주로 쓰이는 주 교재인 『중국근현대사강요(中國近現代史綱要)』(高等教育出版社, 2018)의 경우 북경전영학원(北京電影學院)의 마르크스주의 학부에 해당하는 사정부(思政部)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전자판임을 밝혀둔다. 보조교재는 『中國近現代史綱要-學習讀本』(張玉瑜·高福進 主編, 2018, 上海人民出版社)이다.

4 싱가포르와 대만의 역사교육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과정은 중국과는 달리 의무교육인中等교육과정까지이기 때문에 세 국가의 대학 교육을 단순비교할 수는 없다. 싱가포르와 대만의 경우 대학 역사교재라 할 만한 사례 역시 발견하기 힘들다. 이 글의 목적은 세 국가의 대학교재를 직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국정화 대학교재를 중심으로 그 속에 기술된 화교화인 관련 내용을 싱가포르와 대만中等교육의 역사교육 커리큘럼과 비교함으로써 세 중화권 국가가 보여주는 화교화인사 인식의 차이를 밝혀내고자 한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5 Adam McKeown, 2010, "Chinese Emigration in Global Context, 1850-1940", *Journal of Global History*, 5(1), p. 98.

국가가 추구하는 국가 정체성을 만나 역사교육을 명분으로 다르게 해석되는 모습을 보인다.

무엇보다 중국 근대사에서 중국계 이민자인 화교화인(華僑華人)의 존재와 싱가포르의 탄생 및 발전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점, 원주민을 제외한 근대 시기 대만 거주민의 구성이 대부분 중국계 이주민이었다는 점은 같은 시기 폭발적으로 증가한 중국인 이주 현상을 둘러싼 세 국가의 역사교육에서 비교할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짓는지에 따라 범중화권으로 분류되는 세 국가의 정체성,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민족관 및 역사관이 뚜렷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sup>6</sup>

## II. 마공정(馬工程) 『중국근현대사강요(中國近現代史綱要)』의 중국 근대사 서술구조와 특징

2013년 시진핑 정권 성립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역사교육과 교과서의 국정화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sup>7</sup> 더 나아가 최근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은 역사교육과 교과서 편찬의 국정화가 의무교육을 넘어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기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사(四史) 편찬 공정을 통해 『당사(黨史)』, 『신중국사(新中國史)』, 『개혁개방사(改革開放史)』, 『사회주의발전사(社會主義發展史)』를,<sup>8</sup> 마공정이라 부르는 “마

6 기존 관련 연구에서는 중국, 싱가포르, 대만, 세 국가의 역사교육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경향이 강했고, 상호 비교해보는 연구는 드물었다는 점에서 이 글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7 이유표, 2021, 앞의 글; 윤세병, 2019, 앞의 글; 오병수, 2020, 앞의 글.

8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2020.10.20, 「教育部啓動編寫“四史”大學生讀本」(검색일: 2022년 11월 10일); 馮俊, 2021, 「學習和研究“四史”的理論指引-深入學習習近平總書記關於“四史”的重要論述」, 『紅旗文稿』3.

르크스주의 이론 연구와 건설 프로젝트(馬克思主義理論研究和建設工程)”의 교재 편찬사업을 통해 『중국근현대사』, 『세계현대사』, 『중화인민공화국사』, 『고고학개론』, 『중국사상사』, 『세계고대사』 등의 교재를 출간하여 대학 교육에서의 국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연구와 뉴스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역으로 대학교재에서의 역사 서술을 통해 현재 중국 정부가 드러내고 있는 국가 정체성, 세계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과 관점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sup>9</sup>

중국 정부의 대학교재 국정화 작업 방향은 이를 주관하는 국가교재위원회(國家教材委員會)의 성격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해당 위원회는 초중고대학의 교과서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여기에는 대학의 마르크스주의 중점교과서 역시 포함되어 있다. 역사분과의 전문위원인 마민(馬敏)에 따르면, 현재 중국 정부는 유례없을 정도로 교재 공정을 중시하고 있는데, 국가가 교재 공정을 중시하는 이유는 “교재는 국가 의지의 체현으로 어떠한 교재와 교재 시스템을 만드는지가 국가의 인재배양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는 국가의 직권”이기 때문이다.<sup>10</sup>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국가 의지의 체현’은 마르크스 사상 이론과 이를 통한 역사관을 전체 국가 구성원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의 중요한 특징은 마르크스주의와 유물사관을 적용한 역사교육을 강조한다는 부분이다. 이러한 흐름은 2011년 「역사과정표준(歷

9 물론 그 이전에도 국가에서 주도하여 편찬한 대학교재용 역사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1963년부터 2006년까지 초판과 수정, 보완을 거친 『중국사강요(中國史綱要)』다. 『중국사강요』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의 대학에서 가장 많이 쓰인 교재로 선사시기부터 중국 근대까지를 대략적으로 다룬 교재라고 할 수 있다. 해당 교재는 이미 국내에 번역 출간되기도 했고, 교재 자체에 대한 연구, 저자인 쥬보잔(翦伯贊)의 역사관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하게 진행된 바 있다(쥬보잔 지음, 심규호 옮김, 2015, 『중국사강요』 1 & 2, 중앙북스). 다만 이 글에서는 중국 정부의 국가관, 정체성이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난 마공정 편찬 중국근현대사 관련 교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0 「國家教材委員會馬敏：教材是國家意志的體現」, 『中國經濟網』, 2017.7.24(검색일: 2022년 11월 15일).

史課程標準)」과 2017년 「보통고중역사과정표준(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에 분명히 드러나 있고, 최근 편찬해낸 2022년판 「의무교육역사과정표준(義務教育歷史課程標準)」에는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sup>11</sup>

「의무교육역사과정표준」(이하 표준)에 따르면, 중국 근대사의 범위는 1840년 아편전쟁에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까지이며, 교육내용은 열강의 중국 침략과정과 중국이 반식민·반봉건사회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서술한다. 이 시기는 ‘중화민족(中華民族)’이 대외적으로는 열강의 침략에 저항하고, 내부적으로는 봉건 전제정치에 반대하여 최종적으로 중국공산당이 전국 각지의 종족, 인민들을 일치단결시킴으로써 민족독립, 인민해방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해당 표준에 따른 중국 근대사 교육의 핵심 사건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 「의무교육역사과정표준」속 중국 근대사 서술구조

##### 가. 서구 열강의 침입과 아편전쟁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열강의 침략에 대해 인민들은 태평천국운동(太平天國運動)으로 청조 왕조의 통치와 외세에 저항해온 한편, 자강(自強)을 제창한 양무운동(洋務運動)을 통해 중국 자본주의의 발생과 발전이 격화되었다. 자산계급의 유신파는 민족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유신변법운동(維新變法運動)을 진행하였다. 의화단(義和團) 운동의 경우 중국 인민들이 수년 동안 서구 열강의 침략에 저항하고,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그들의 의도에 용감하게 저항한 중요한 사건이다.

##### 나. 신해혁명(辛亥革命)

신해혁명을 통해 중화민국을 세움으로써 수천 년 동안 지속된 군주전제제도를 타

---

11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制定, 2022, 「義務教育歷史課程標準(2022年版)」, 北京師範大學出版社.

파하였고, 완전한 의미의 근대 민족민주주의 혁명의 서막을 열었다. 그러나 신해 혁명을 통해서도 중국 인민의 반식민, 반봉건 상태를 벗어나게 할 수는 없었다.

다. 신문화운동과 5.4운동, 그리고 중국공산당 창당

신문화운동은 옛 사상과 도덕, 문화에 충격을 주어 사상해방의 장을 연 사건으로 중국이 고난의 와중에도 경제, 정치, 사상문화적 변혁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특히 5.4운동을 계기로 구민주주의 혁명이 끝나고 신민주주의 혁명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었는데, 마르크스 사상의 전파로 1921년 중국공산당이 창당하여 중국혁명의 면모가 이로부터 일신하였다. 1차 국공합작의 결렬 이후 중국공산당은 국민당의 반동 통치에 저항하여 공농(工農) 무장혁명을 진행함과 동시에 농촌에 근거지를 마련하여 중국혁명의 새로운 길을 탐색하였다.

라. 항일전쟁

1931년 일본 제국주의가 일으킨 9.18사변으로 중화민족은 엄중한 민족의 위기를 겪게 되었고, 전국의 항일 운동이 고조되었다. 1937년 일본의 7.7 사변으로 2차 국공합작(國共合作)이 성사되었고, 중국이 대(對)파시스트 전쟁의 동방 주전장이 되면서 중국 인민들이 분투하였으며, 근대 이래 외적의 침입에 대해 처음으로 완전히 승리할 수 있었다.

마. 해방전쟁과 신중국 건설

항일전쟁 승리 후, 중국은 화평민주(和平民主)를 추구했으나 국민당(國民黨)은 독재 통치를 원했으므로 내전이 발발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공산당의 3년간의 해방전쟁을 통해 국민당의 대륙통치를 뒤집고, 신민주주의 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취득하였다. 혁명의 와중에 마오쩌둥(毛澤東) 동지를 대표로 하는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기본원리를 중국의 구체적 실재와 결합하여 마오쩌둥 사상을 창시하였는데, 이는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의 첫 번째 역사적 도약이다.

상기 서술구조의 핵심은 청말의 내우외환과 국가와 민족의 생존, 신해혁명과 중화민국의 건립, 근대 사회와 생활의 변화(공업화, 과거제 폐지 등), 중국공산당 성립과 신민주주의 혁명의 흥기, 중화민족의 항일전쟁, 인민해방전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학습자들이 익혀야 하는 자질은 유물사관과 중국식 시간 및 공간 관념(時空觀念)이며, 동시에 역사를 해석하는 소양을 기르는 것이다.

「표준」의 규정은 의무교육 중 역사교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지만, 마공정 중점교재 가운데 근현대사 관련 대학교재인 『중국근현대사강요(中國近現代史綱要, 이하 강요)』 역시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강요』에서 중국 근대사에 해당하는 시대 범위의 목차는 <표 1>과 같다.

<표 1> 『중국근현대사강요(中國近現代史綱要)』 목차(근대사 부분만 발췌)

<p>상편: 아편전쟁에서 오사운동 직전, 1840~1919</p> <p>종술 풍운변환의 80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편전쟁 전의 중국과 세계</li> <li>2. 외국 자본주의 침입과 근대 사회의 반식민지 반봉건적 특징</li> <li>3. 근대중국의 주요 모순과 역사 임무</li> </ol> <p>제1장 외국 침략 반대 투쟁</p> <p>제1절 자본-제국주의의 중국 침략</p> <p>제2절 외국 무장 침략을 억제하고 민족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p> <p>제3절 반침략전쟁의 실패와 민족의식의 각성</p> <p>제2장 국가 출로에 대한 초기 탐색</p> <p>제1절 농민군중투쟁 폭풍의 흥망</p> <p>제2절 양무운동의 흥쇠</p> <p>제3절 유신운동의 흥기와 요절</p> <p>제3장 신해혁명과 근주전제제도의 종결</p> <p>제1절 근대 민족민주혁명의 기치</p> <p>제2절 신해혁명과 중화민국 건립</p> <p>제3절 신해혁명의 실패(봉건군벌 전제통치의 형성)</p>	<p>중편: 오사운동에서 신중국 성립까지, 1919~1949</p> <p>종술 변천복지의 30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국이 처한 시대와 국제환경</li> <li>2. 삼좌대산의 중앙</li> <li>3. 중국의 두 가지 명운</li> </ol> <p>제4장 천지개벽의 대사변</p> <p>제1절 신문화운동과 오사운동</p> <p>제2절 마르크스주의의 전파와 중국공산당 탄생</p> <p>제3절 중국혁명의 신국면</p> <p>제5장 중국혁명의 새로운 길</p> <p>제1절 혁명의 새로운 길에 대한 고난의 탐색</p> <p>제2절 중국혁명 탐색의 우여곡절 속 전진</p> <p>제6장 중화민족의 항일전쟁</p> <p>제1절 중국 멸망을 위한 일본의 침략전쟁</p> <p>제2절 중국 인민의 일본 침략자에 대한 반격</p> <p>제3절 국민당과 항일의 전면 전장</p> <p>제4절 항일전쟁의 중류지주(中流砥柱)가 된 중국공산당</p> <p>제5절 항일전쟁의 승리와 그 원인 및 의의</p>
---	---

제7장 신중국을 위한 분투  
제1절 화평민주의 쟁취에서 자위전쟁의 진행  
으로

제2절 전체 민족의 포위를 당한 국민당 정부

제3절 중국공산당과 민주당파의 합작

제4절 인민 민주 집권의 신중국 창건

하편: 신중국 성립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의 신시대, 1949~2018

『강요』의 도론(導論)에는 “대학생은 조국 미래와 각종 전선의 활력소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건설자이자 후계자다. 조국 건설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의 정세를 알아야 하고, 중국의 오늘뿐 아니라 응당 어제와 지난날을 알아야 한다. 어떠한 전공을 하던 『중국근현대사강요』 과목을 학습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점과 더불어 해당 교재를 통해 근현대 중국 사회 발전과 혁명, 건설, 개혁의 역사적 과정, 그리고 내재된 규율성을 인식하고, 국사, 국정을 이해하여 역사와 인민이 어떻게 마르크스주의, 중국공산당, 사회주의 노선, 개혁개방을 선택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표준』과 『강요』 모두 중국 근대는 아편전쟁으로부터 시작한다. 서구의 침입은 외부 열강의 침략이므로 민족이 일치단결하는 계기이기도 하고, 내부에 축적되어온 봉건적 요소와 사회 모순이 드러남으로써 인민들로 하여금 이를 각성하게 만든 계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러한 아편전쟁과 유럽 열강의 침입에 대해 각 학급별로 토론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있는 시기도 있었지만, 시진핑 집권 이후, 특히 2020년 전후한 시기부터는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한 노선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sup>12</sup> 결과적으로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사회주의 노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민들의 역사적 노정을 중심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뚜렷하다.

12 윤세병, 2019, 「중국의 역사교과서 논쟁과 국정화」, 『역사교육연구』 vol. 33.

『표준』의 중국 근대사 서술 기준과 『강요』의 근대사 서술을 통해 본 마공정 중심 역사교육 및 교과서 서술의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해보면, 첫째, 강한 운명론적 서술방식이 눈에 띈다. 서구의 침략과 농공민(農工民)의 각성, 신문화운동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문화의 영향으로 성립된 중국공산당, 두 차례의 국공내전으로 자산계급 중심의 국민당과 대립하면서도 끝까지 버틴 끝에 성립된 신중국으로 이어지는 서술과정을 보면, 근대사의 핵심은 결국 중국공산당이 자본주의 자산계급과 서구 제국주의, 봉건 전제주의를 몰아내고 신중국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운명론, 체제의 승리라는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 역사적 사실을 끼워 맞추는 목적론적 해석이다.

둘째, 그 과정에서 각종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승리를 쟁취해낸 중국공산당, 특히 마오쩌둥과 그 동지들의 영웅적인 행적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셋째, 운명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웅적 행적의 중국공산당을 적대하는 세력으로 서구 제국주의, 봉건 전제주의, 자본주의 자산계급,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함으로써 강한 선악 구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이다. 사실 운명론, 영웅, 선악 구조는 실증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 서술보다는 신화에 가까운 용어라는 점에서 현재 중국 정권이 중국 근대사 교육과 교과서의 국정화 작업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학습자에게 이식하고자 하는 정권의 정체성은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판단된다.

### Ⅲ. 『강요』 속 화교화인 및 대만 서술의 특징

『강요』는 그 목적과 의도가 뚜렷한 교재인 만큼, 그 속에서 언급되는 화교화인, 대만 관련 부분 역시 반봉건, 반제국주의를 각성하면서 일치단결하게 되는 중화민족이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 기술되고 있다. 우선 화교화인 관련 서술을 살펴보자.

〈표 2〉 『강요』와 『강요-학습독본』 속 화교화인 관련 서술

『강요』	『강요-학습독본』
<p>42쪽                      난징(南京) 임시정부가 제정한 각 정책 조치는 중화민국 자산계급의 바람과 이익을 집중적으로 대표하면서 반영하고 있어 상당 정도로 광대한 중국인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였다. 예를 들어, 각종 봉건페단의 일소하여 인권 보호, 자본주의 상공업 발전을 독려하여 공장, 광산, 은행, 개간사업 등의 창설 제창, 고문 금지, 화교 보호를 위한 화공(華工, 중국계 노동자) 판매 금지, 인신매매 금지 등의 선포, 노비제 폐지, 이권의 재배 및 흡연 금지 등의 조치가 있었다.</p>	<p>44쪽                      1890년대 손중산(孫中山)은 미국 각지에서 혁명을 선전하였고, 최종적으로 1894년 미국 호놀룰루(檀香山)에서 화교들의 지지하에 중국의 첫 번째 민주혁명단체인 흥중회(興中會)가 창건되었고, 그 자리에서 그가 작성한 「흥중회장정」이 통과되었다.</p>
<p>92쪽                      해외 화교는 계속해서 조국과 호흡하면서 운명을 함께하였다. 그들은 각종 방식으로 조국의 항전을 지원하였다. 예를 들어,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에서 천지아경(陳嘉庚)을 주석으로 하는 화교주진조국난민총회(華僑籌賑祖國難民總會)가 설립되어 그 지부가 동남아시아 각국에 분포되었다. 진 민족 항전의 첫 3년 동안에만 해외 교포들이 헌납한 비행기 217기, 탱크 23대, 구호차량 1,000여 대, 물자 총수는 3,000여 건 이상이었다. 다수의 해외 화교들이 귀국하여 항전에 투신하였고, 참전한 광둥 출신 귀국 화교 군인 수만 4만여 명이었다.</p>	<p>87쪽                      1894년 미국과 청정부는 「제한래미화공조약」을 맺었다. 1904년 조약의 기한이 다가오자 중국 인민, 특히 미국으로 건너간 화교들은 이 불평등 조약이 폐기되기를 희망하였는데, 미국은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조약을 계속 이어가기를 희망하였다. 소식이 전해진 이후 군중들은 격분하였고 …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각 통상 항구 및 성급의 도시로 퍼졌고, 해외화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얻기도 하였다.</p>
<p>105쪽                      (항일전쟁 승리의 원인과 의의 중)                      세 번째, 진 민족 항전은 중국 인민 항일전쟁 승리의 중요한 보배였다. 침략에의 반격과 국가 생존의 도모가 중국 각 당파, 민족, 계급, 계층, 단체, 및 해외화교화인의 공동의지가 되었다.</p>	<p>213쪽                      이러한 항전 사적과 활동은 노동자, 농민, 애국 지사로 확대되거나 혹은 자식을 보내 참가시키기도 하였고, 물자를 보내거나 혹은 국공양당 합작을 선전하는 등의 활동을 포괄하였고, 송칭링(宋慶齡)은 1938년 홍콩에서 “보위중국동맹(保衛中國同盟)”을 성립하였다. 또한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및 해외화교들이 각종 방식으로 항전하였다.</p>
<p>120쪽                      (중국 혁명 승리의 원인과 기본 경험)                      각 민주당파와 무당파 인사, 각 소수민족, 애국적 지식분자 및 화교 등은 모두 이 투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 애국 화교 지도자 천지아경, 쓰투메이탕(司徒美堂) 등 또한 모두 차례로 공산당의 친밀한 친구가 되었다.</p>	<p>235쪽                      - 신중국분투의 학습요점                      각 민주당파와 무당파 민주인사, 각 소수민족, 애국지식분자 및 화교를 포괄하는 인민대중의 지지 확대는 중국혁명이 승리를 취득한 결정적 요소였다.</p>
	<p>243쪽                      중국치공당(中國致公黨)은 미국의 화교단체가 1925년 10월 샌프란시스코(金山)에서 성립하였는데, 그 목표는 화교의 정당한 권의 보호에 있었고, 중화민족의 독립과 조국의 부강에 집중하였다.</p>

250쪽

이 외에 각 민주당파와 무당파 민주인사, 각 소수민족, 애국지식분자 및 화교들은 모두 이 투쟁 중에 적극적인 작용을 하였고, 혁명의 형세가 변화함에 따라 그들은 시중 혁명의 입장을 취하여 결국 공산당과 함께하였다. 광대한 인민과 각계 인사의 광범한 참여와 적극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중국 혁명의 승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252쪽

(필독문헌에 대한 설명 중)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공동강령』(1949년 9월 29일)

1949년 9월 21일에서 29일까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체회의가 북평에서 거행되었다. 회의에 참가한 인원으로는 중국공산당과 각 민주당파, 인민단체, 인민해방군, 각 지역, 민족, 해외화교, 기타 애국민주분자의 대표들로 모두 662인이었다.

『강요-학습독본』은 『강요』의 보조교재로 교수자와 학습자의 『강요』 교과과정 수행을 위한 해설서에 가까운 교재다. 보조교재는 주교재에서 언급한 화교화인에 대한 기술 외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어쨌든 두 교재 모두 공통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화교화인이 청말 혁명과 항일전쟁 기간 동안 반제, 반봉건 운동을 위해 조국에 각종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고, 이를 연결고리로 하여 화교화인들의 신중국 성립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면서 그들을 중화민족의 우산 아래 위치 지으려 한다는 점이다. ‘중화민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 해석은 기존 연구에서도 다양하게 다루어져왔지만, 상기 교재의 화교화인 관련 서술을 통해서도 비교적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sup>13</sup> 심지어 『강

13 박장배, 2003, 「근현대 중국의 역사교육과 中華民族 정체성 2-중화인민공화국 시대의 민족 통합문제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20집; 김종학, 2021, 「중국의 국사 교육과 ‘중화민족’의 의미: 고중(高中) 통편교재(統編教材) 「歷史: 中外歷史綱要(上)」의 사례」, 『주요국제문제분석』 26; 최승현, 2018, 「중국공산당

요』와 『강요-학습독본』에는 이들이 왜 해외로 건너갔는지, 건너가서 어떤 공동체를 형성했는지에 대한 이민사 관련 기술은 거의 없고, 주로 ‘조국’에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해외 자산계급으로만 묘사되고 있다.

〈표 3〉 『강요』 속 대만 관련 서술

<p>88쪽 1895년 ‘마관조약(馬關條約)’ 체결 직후, 일본은 곧 50년에 달하는 대만에서의 식민통치를 시작하였다. 일본은 대만에 총독부를 설치하였다. … 그들은 일련의 경찰제도와 보갑(保甲)제도를 건립하여 대만 인민의 생사여탈권을 장악하였다. 일본은 또한 대만에서 광폭한 경제 침탈을 진행하여 대만의 자원과 재부를 수탈하였다. 그들은 “농업대만, 공업일본”의 식민지 경제 모델을 추진하여 대만을 일본의 쌀 공급지로 만들었다.</p>	<p>92쪽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영향하에 각 소수민족과 한족들이 함께 각종 방식으로 항일 투쟁에 투입되었다. … 수많은 대만 동포들이 다시 조국인 대륙으로 건너와 각종 항일 단체와 항일 무장을 조직하였다. 섬내의 고산족 등 대만동포들은 곧 끊임없이 항일 폭동을 일으켰고, 항일 의용군을 조직하였다(대만동포들의 장장 반세기에 달하는 항일 투쟁 가운데 모두 65만 명이 달하는 이가 장렬히 희생하였다).</p>
<p>103쪽 1945년 10월 25일, 중국 정부는 대만에서 투항의식을 거행하였다. 포츠담 회담의 발표에 근거하여 일본에 의해 50여 년간 점령당했던 대만과 팽호 열도가 중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는 항일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p>	<p>105쪽 (항일전쟁 승리의 원인과 의의 중) 중국 인민은 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 근국주의가 중국을 식민화하여 노예로 부리려는 의도를 철저히 분쇄하였다. 중국인민은 자신들의 맹렬한 분투와 거대한 희생으로 갑오전쟁(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탈취한 동북, 대만, 팽호 열도 등의 신성한 영토를 돌려받아 국가 영토와 주권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근대 이래 외래의 침략으로 연전연패한 민족의 치욕을 씻을 수 있었다.</p>
<p>113쪽 1947년 2월 28일, 대만성 타이페이시의 인민들은 국민당 당국의 폭정에 항거하고, 군경이 시민들을 학살한 것에 항의하여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다. 2월 말과 3월 초, 대만 각지의 한족, 고산족 인민들이 이에 응하여 흥기하였고, 무</p>	<p>114쪽 (중국공산당과 민주당파의 합작) 대만민주자치동맹(약칭 ‘대맹’), 2.28기의 실패 후, 대만 각계의 인사들이 단결하여 투쟁을 견지하기 위해 1947년 8월, 세쉐홍(謝雪紅) 등이 홍콩에서 양성하여 설립한 정치 조직.</p>

의 “중화민족”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23(1); 오병수, 2014, 「중국 근대 역사 교과서의 자국사 구축과정과 ‘중화민족’」, 『歷史教育』 132집; 서정경, 2013, 「아시아의 민족주의와 민족문제; 중국의 중화민족 만들기 and 대내외적 갈등」, 『민족연구』 55권.

<p>기를 탈취하여 봉기하였다. 아울러 타이중, 지아이 등의 도시를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 2.28기에는 비록 실패했지만, 전국 인민민주운동의 일부가 되어 유력하게 대만 인민의 혁명정신을 보여줌으로써 전국의 인민을 고무시켰다.</p>	<p>11월, 대만민주자치동맹(臺灣民主自治同盟)이 정식으로 성립하였다.</p>
<p>118쪽 국민당 장제스 집단은 인민들에 의해 중국 대륙으로부터 쫓겨나 중국 대만성으로 도망하였다.</p>	<p>119쪽 1949년 9월 7일,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정협(政協) 대표들을 향해 진행한 보고에서 지적한 것은 오늘날 제국주의는 우리의 시짱, 대만, 심지어 신장을 분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황 아래 우리 국가의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 불러야 하지, 연방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비록 연방은 아니지만, 도리어 민족 구역의 자치와 민족 자치 권력의 행사를 주장한다.”</p>

『강요』에 서술된 대만 관련 내용에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더욱 강하게 드러나는데, 한족 이주민과 원주민으로 이루어진 대만인들을 모두 동포, 혹은 동지로 설정하고, 이들의 일본에 대한 저항을 반제국주의 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중국 근대사와의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 ‘항일전쟁’ 이후에는 대만인과 국민당 정권의 대립, 갈등 관계를 만들어 2.28 사건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중국 근대사의 일부로서 자산계급과 독재에 저항한 인민의 혁명과정으로 보는 관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이미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과정에서 대만을 영토 내에 위치 짓는 것을 요지로 하는 회의 내용을 통해 대만 영유권에 대한 명분도 분명히 하였다.

『강요』에서 강조하는 중국 근대사와 신중국 성립의 중요한 분기점은 ‘항일전쟁’과 국공내전이다. 이 두 전쟁은 중국공산당이 세력을 키워 중국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성립하게 되는 직접적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다. 『강요』에는 이 두 전쟁 속 화교화인과 대만인들의 기여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화교화인과 대만인들의 역사적 활동들을 모두 소위 ‘신중국’ 성립을 위한 노력으로 치환함으로써, 그리고 ‘신중국’ 성립의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강제함으로써 이들을 거대한 중화민족의 범주에 두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중국이 추구하는 ‘중화민족 대가정’ 관념의 일면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중국의 이러한 의도에 대해 이민자들이 세운 도시 국가, 싱가포르와 대륙으로부터 건너온 한족 이주민들의 후예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만의 역사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 IV. 싱가포르·대만 역사교육 속 국가 정체성과 중국과의 관계 설정

### 1.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교육과정은 초등교육(Primary school) 6년과 중등교육 4~6년(Secondary school)이 전 국민에게 주어지는 의무교육과정이고, 중등교육 이후부터는 각자 진로 및 학업 성과에 따라 대학 입학 준비과정, 직업학교, 전문학교 등으로 진로가 나뉜다. 그러므로 전 국민이 의무교육과정에서 받는 국정 역사교육은 중등학교 저학년(lower)과 고학년(upper)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3세에서 17세까지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싱가포르 교육부에서 배포한 교과과정 계획을 보면, 저학년에 편년 서술 기반 싱가포르사를 가르치고, 고학년에서는 세계사적 변화에 따른 동남아시아 전체 지역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근현대를 중심으로 교육하는 방식으로 나뉜다.<sup>14</sup>

싱가포르 역사교육의 가치는 학생들이 과거 발전의 성격과 충격이 어떻게 현재 세계를 설명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연계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중국의 운명론적·목적론적 역사 교과서 기술과는 다르다. 싱가포르 교육

---

14 History Syllabus, 2017, Upper Secondary(Express course/ Normal course), MOE; History Syllabus, 2021, Lower Secondary(Express course/ Normal course), MOE.

과정에서 역사교육은 학습자들을 균형감, 통찰력, 관용, 호기심, 지식, 체계성을 갖춘 개인이 되도록 돕고,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논리정연한 주장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sup>15</sup> 그럼에도 싱가포르의 역사교육은 개인, 국가, 국제 레벨에서의 역사 이해를 통해 학생들의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싱가포르 중등교육과정에서 싱가포르사 역사서술은 크게 4개의 단계로 나뉜다.<sup>16</sup>

1단계(1299~1800s): 영국의 식민지가 되기 이전, 싱가포르가 인도, 중국, 동남아시아,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었는지에 주목한다.<sup>17</sup>

2단계(1819~1942): 1819년 이후 영국 통치 아래 항구도시로서 싱가포르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변화를 추적하고, 1942년 일본에 점령되기까지 다른 그룹들의 경험들을 서술한다.

3단계(1942~1965): 194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싱가포르가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 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전후 국제 정세와 현지인들 사이의 상

15 History Syllabus, 2021, Lower Secondary(Express course/ Normal course), MOE.

16 History Syllabus, 2021, Lower Secondary(Express course/ Normal course), MOE.

17 싱가포르는 21세기, 특히 2010년대를 전후하여 국가의 역사를 1819년 싱가포르가 영국 동인도회사에 의해 발견되기 이전의 원주민 및 중국계 이주민의 역사로 재서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각종 문헌자료 및 고고발굴 자료를 통해 국가적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실행 중인데, 상기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김중호, 2019, 『50년의 역사, 200년의 역사, 700년의 역사, '이민국가' 싱가포르의 건국사, 식민사, 21세기 고대사』, 『동서인문』 제12호 참조.

호 작용이 어떻게 싱가포르의 독립에 영향을 주었는지 고찰한다.

4단계(1965~1970s): 독립 국민국가로서 싱가포르의 새로운 지위와 싱가포르인들의 소속감, 현실, 희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이 중에서 중국의 근대와 겹치는 부분은 2단계이다. 2단계의 학업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항구도시로서 싱가포르의 발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3년간의 일본 점령(1942~1945)이다. 특히 전자의 경우 크게 세 가지 문항으로 나뉜다.

- (1) 싱가포르의 발전에 영국 지배가 끼친 영향: 영국 동인도회사 지배에서 왕실 지배로 넘어가는 과정/ 법과 제도/ 경제적·사회적 정책(자유항, 교육, 공중보건 등)
- (2) 싱가포르 발전과 (종족) 공동체들의 역할: 싱가포르로 이민자들이 모이는 이유/ 싱가포르의 발전에 다른 공동체들이 끼치는 사회적·경제적 영향
- (3) 싱가포르 무역과 산업 발전: 무역과 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끼친 주요 사건과 발전(수에즈 운하의 개설, 고무 및 주석 산업의 발전, 대공황)

사실 싱가포르의 역사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2단계의 일본 점령 경험과 3단계 국가의 탄생과정이다. 이 두 사건은 기존 학계에서도 싱가포르사, 특히 ‘싱가포르인(Singaporean)’ 내셔널리즘 및 국가 공동체 형성의 중요한 분수령이라 평가받는 시기로 이 시기 동안 기존에는 없었던 싱가포르인들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게 된다. 중국의 근대사 서술과 비교하면 중국공산당이 국공내전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을 성립하는 과정과 같다. 새로운 국가가 성립하면서 구성원들이 국가의 정체성과 민족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교육부에서 배포한 2021년 중등교육 고학년/저학년용 역사

교육 계획서에 “Chinese”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China”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만, 모두 싱가포르와는 전혀 관계없는, 냉전시기 공산권 국가 가운데 하나로 기술되고 있을 뿐이다.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기술은 전체 “이민자들”로 뭉뚱그려 서술되고 있는데, 2단계의 역사과정에서 싱가포르 정부가 이민자들의 유입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이미 독립된 주체로서 ‘싱가포르 공동체’의 존재를 상징한 다음, 남중국해를 건너온 이민자들을 대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여준다. 이는 실제 이민자들이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었던 역사적 사실을 싱가포르 정부가 현재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영국 식민시기 싱가포르 인구구조에서 중국계 인구의 비율을 보면, 187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줄곧 70~80%를 차지하고 있다.<sup>18</sup> 심지어 대부분의 중국계 인구가 노동자, 농민, 상인 할 것 없이 당시 중국 동남부 지역 푸젠, 광둥, 하이난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었다. 혹은 일부 2~3세대 화교화인의 후예들도 있었다. 그런 이유로 식민시기, 그리고 국가 성립 기간 동안 싱가포르의 중국계 이주민들은 ‘교향(僑鄉)’이라고 부르던 대륙 중국의 고향과 혈연, 지연을 바탕으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었고, 냉전기에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이데올로기 대리전의 양상이 펼쳐지면서 역시나 강하게 연계되어 있었다.<sup>19</sup> 싱가포르 교육부에서 편찬한 역사 교과과정에 대한 설명에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또한 중국과 최대의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던 시기를 다루는 2단계 역사교육 과정의 주요 참고문헌 역시 싱가포르 전체 역사에 대한 개설서 3권, 1819년 영

18 Brenda S. A. Yeoh, 2003, *Contesting Space in Colonial Singapore—Power Relations and the Urban Built Environment*, Singapore: NUS Press.

19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김중호, 2020, 「친공(親共)과 애국 사이—CIA 문서를 통해 본 냉전초 동남아 화교화인의 대중(對中)인식—」, 『중국근현대사연구』 85집; 김중호, 2017, 「‘중화성’ 모색을 위한 시도들—서구권 및 동남아시아 지역 화교 화인 디아스포라 연구 경향 분석—」, 『중국근현대사연구』 73 등 참조.

국 식민지 이전의 역사 1권, 영국 식민정책에 대한 개설서 1권, 1942년 일본에 의한 점령 관련 연구서 3권으로 싱가포르의 형성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중국인 이민에 대한 저서는 하나도 없다는 점이 눈에 띈다.<sup>20</sup> 특히 1942년에서 1945년까지의 단 3년에 불과한 일본 점령 관련 참고문헌이 3권이라는 점에서 싱가포르 공동체, 더 나아가 싱가포르인 민족주의의 탄생과도 같은 일본 점령 경험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sup>21</sup> 실제 싱가포르 교육계와 학계에서는 3년의 일본 점령기간 동안 겪은 인적·물적 수탈과 ‘숙칭(肅淸, Sook Ching)’이라 부르는 학살을 싱가포르 민족주의 탄생의 분수령으로 평가하고 있다. 영국 식민기간 동안 자유 무역항이었던 싱가포르로 다양한 이주민이 모여들면서 중국계, 인도계, 말레이계, 각종 혼혈 집단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다종족의 싱가포르 사회가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이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자, 국가 형성의 시작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교과 계획에 의해 편찬된 싱가포르 중등교육에서의 역사 교과서

- 
- 20 C. T. E. Chew & E. Lee, 1991, *A History of Singapore*,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B. P. Farrell, 2005, *The Defence and Fall of Singapore*, Gloucestershire: Tempus Publishing Group; M. R. Frost & Y. Balasingamchow, 2009, *Singapore: A Biography*, Singapore: Editions Didier Millet Pte Ltd; K. Hack & K. Blackburn, 2009, *Did Singapore Have to Fall: Churchill and the Impregnable Fortress*, Abingdon, Oxon: Routledge; C. K. Kwa, D. Heng, P. Borschberg, & Tan T. Y., 2019, *Seven Hundred Years: A History of Singapore*, Singapore: Marshall Cavendish Editions; E. Lee, 1991, *The British as Rulers: Governing Multiracial Singapore, 1867-1914*, Singapore: Singapore University Press; National Archives of Singapore, 2011, *Battle for Singapore: Fall of the Impregnable Fortress*, Singapore: National Archives of Singapore; C. M. Turnbull, 2009, *A History of Modern Singapore, 1819-2005*, Singapor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Press.
- 21 싱가포르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역사 서술에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과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3년 점령은 각 지역 민족주의 발생의 중요한 계기로 여겨진다. 기존 서구 식민세력이 몰려가고 현지인들이 일본에 저항, 혹은 협력하면서 각 공동체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지은 첫 경험이기 때문이다.

는 어떻게 서술되어 있을까. 2021년 편찬된 싱가포르 국정 역사 교과서, *Singapore - A Journey Through Time, 1299-1970s*에는 싱가포르의 역사가 1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2</sup>

## Secondary One

Introduction: 역사란 무엇인가

Unit 1 개관: 테마섹에서 싱가포르로(1299~Early 1800s)

Chapter 1: 초기 싱가포르의 역사를 어떻게 지역사 및 세계사와 연결할 것인가

Chapter 2: 싱가포르는 어떻게 영국의 무역항이 되었나

Unit 2 개관: 영국 통치하 항구도시 싱가포르의 발전 (1819~1942)

Chapter 3: 1819년부터 1942년까지 항구도시 싱가포르의 성장에 영국의 통치와 외부 발전은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Chapter 4: 1819년부터 1942년까지 항구도시로서의 발전에 싱가포르의 거주민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Chapter 5: 싱가포르는 제2차 세계대전기 일본에 의해 점령당해야만 했는가

## Secondary Two

Unit 3 개관: 싱가포르의 독립을 위한 분투(1942~1965)

Chapter 6: 일본 점령기 싱가포르인들은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

Chapter 7: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싱가포르인들은 영국의 통치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Chapter 8: 싱가포르는 어떻게 독립국가가 되었는가

Unit 4 개관: 독립 국민국가로 살아남기(1965~1970년대 후반)

---

22 Curriculum Planning & Development Division of Singapore Ministry of Education, 2021, *Singapore - A Journey Through Time, 1299-1970s* (Secondary One & Two), Star Publishing Pte. Ltd.

Chapter 9: 1965년 이후 싱가포르의 독립을 어떻게 유지하였는가

Chapter 10: 독립 이후 대중들의 삶은 어느 정도로 변화하였는가

Conclusion: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상기 내용 가운데 이 글에서 주로 다루는 중국의 근대사 구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3장과 4장이다. 3장은 싱가포르가 스탬포드 래플스(Stamford Raffles)에 의해 발견되어 항구도시로 개발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서술하고, 4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싱가포르로 이주해 온 이주민들의 역할과 기여는 어떠한지를 다룬다. 상술한 것처럼 싱가포르의 근대적 발전에 중국계 이주민의 역할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서술을 생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당 교과서 역시 중국계 이주민들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지점은 그 경제적 기여도나 거대 자본가의 존재는 축소되고, 이들이 철저히 영국 식민정부의 법과 질서 속에서 통제받는 존재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서술된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에 대한 전체적인 서술 방향은 영국령으로서 그 시스템 아래 성장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3장의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질문이 “영국은 어떻게 싱가포르를 항구도시로 발전시켰는가”이고, 이를 6개의 핵심분야, 즉 자유항 지위, 행정적 변화, 법과 질서, 교육, 보건, 인프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중국계 이주민 그룹은 무관세 원칙을 설정한 자유항이라는 지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치부한 자산가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이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서술에서 중국계 자본가 관련 서술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모든 서술이 중개 무역항으로서 싱가포르가 가진 지리적 이점, 수출입 무역 규모의 급증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싱가포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던 중국계 이주노동자들은 3장에서 철저히 영국 식민지의 법과 질서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데 활용되고 있다. 영국 법과 질서 분야에서 중국계 이주민 노동자들의 경우 초기에는 싱가포르의 가혹한 노동환경 속에서 고통받는 존재, 그들끼리 이권 다툼을 위해 비밀결사조직

(Secret Society)을 만들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존재, 도박, 아편, 성매매를 거리에 유행시키는 존재로 그려진다.

교과서는 이러한 초기 중국계 이주민들에 의해 벌어지는 싱가포르의 혼란한 상황을 영국 식민정부가 어떻게 안정화하였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특히 1877년 설립된 화민호정사(Chinese Protectorate, 華民護政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화민호정사는 19세기 초중반 싱가포르의 건설을 위해 유입을 장려한 중국계 이주민들 사이에 내부 갈등이나 사회적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이를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해협식민지(Straits Settlements)의 관청이다. 주요 업무는 점증하는 중국인 이주민들의 행정업무를 담당한 관료들에게 중국어를 교육하는 것, ‘쿨리(coolie)’라고 불리던 신이민자들을 관리하는 것,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비밀결사조직을 통제하는 것, 그리고 매춘부들의 보호와 질병 관리 등 중국계 이주민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주로 담당하였다.<sup>23</sup> 교과서는 초대 호정사인 윌리엄 피커링(William Pickering)의 활동을 중심으로 영국의 식민 시스템 아래 중국계 이주민들이 어떻게 제도 속으로 편입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중국계 이주민들의 역할에 대해 본격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은 4장인데, 이 부분 역시 중국계뿐만 아니라 유럽계, 말레이계, 인도계, 기타 종족에 이르기까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어 서술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4장은 싱가포르의 근대적 발전에 기여한 일반 대중들을 서술한 부분으로 이들을 기업가, 노동자, 기술자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기업가 부분에서는 무역업자로서 유럽인,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 해상 민족인 부기스인(Bugis)까지 다양한 종족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데, 사실 유럽계와 중국계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이 역시 의도적 균형 맞추기임을 짐작할 수 있다.<sup>24</sup> 3장과 4장의 전체 서술에서 중국계 자산가들은 주로 교육, 보건, 법질서를 세우

23 S. Y. Ng, 1961, "The Chinese Protectorate in Singapore, 1877-1900", *Journal of Southeast Asian History*, 2(1).

24 실제 식민시기 싱가포르 식민정부 세입의 70~80% 이상은 중국계 자본가들에 의

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한 존재 정도로 언급되고 있고, 대자본가로서 경제적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서술하지 않는다.<sup>25</sup> 기술자들에 대한 서술에서도 도시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중국계 기술자들에 대한 언급은 없고, 오로지 부기스인들이나 말레이인들이 주로 담당하였던 전통 선박 건조 기술자들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노동자들의 경우 중국계와 인도계를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었는데, 독특한 부분은 삼수이(Samsui) 여성 노동자들에 대해 따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수이 여성은 광둥성 광저우 인근 삼수(三水)지역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하게 집단이주한 여성들을 가리킨다. 이들이 중국인 이민사에서도 매우 드문 케이스인 이유는 남성들을 따라오거나 팔려 온 것이 아닌, 여성들이 스스로 의식을 가지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 이주한 여성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결혼을 ‘노예가 되는 길’로 여겼고,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일하게 될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의식의 표현으로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육체노동도 불사하였다. 대표적으로 삼수이 여성들은 1920~1940년대 싱가포르의 건설업에 뛰어들어 각지에서 지어지고 있던 근대적 건축물들의 완공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는데, 통계에 따라 1934~1938년 사이에만 20만 명의 삼수이 여성이 싱가포르로 건너왔다고 하고, 1980년대에는 이러한 여성들을 주제로 한 TV 드라마도 제작되어 싱가포르 현지에서 방영되기도 하였다. 대부분 집단을 이루어 서로 모여 살면서 특유의 붉은색 사각형 두건이 상징으로 기억되기도 한다. 이들에 대한 서술은 중국계라는 점을 강조하기보다는 남성 중심의 이주사에서 여성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

한 세금 수입이었다. 많은 기록 및 연구가 당시 싱가포르를 중국계 자본가 및 노동자들의 기여가 없었다면 재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25 해당 교과서에는 교육에 기여한 간응성(Gan Eng Seng), 최대의 민간병원을 세운 탄톡성(Tan Tock Seng), 싱가포르 화교화인들의 삶과 교육, 제도 등에 기여한 림분켅(Lim Boon Keng)등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싱가포르가 자국의 역사를 서술하고, 교육하는 데 중국인 이민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현상을 의식적으로 축소하고, 그리 중요하게 평가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실제 싱가포르 정부는 역사교육에서 중국계 이민자들의 역할을 과도하게 강조할 경우-그게 설령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 하더라도<sup>26</sup>-1965년 건국한 신생 싱가포르 공화국의 국가 정체성과 구성원들의 민족주의 형성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sup>27</sup> 역사교육 교과과정 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학습자 개인의 성장과 시민교육을 지향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싱가포르 역사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명료하고 간단하다. 바로 국가 건설 과정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국가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다. 서로 다른 종족적 배경을 지닌 거주민들이 싱가포르라는 단일한 국가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역사교육의 핵심 목적이다. 이는 1965년 독립 이후부터 꾸준히 이어진 것으로 이 절대 명제는 변하지 않는다.

만일 중국계 이주민의 활동과 역할, 기여도를 명확히 기술할 경우 조화로운 다종족 중심 국민국가 형성을 목표로 하는 싱가포르의 교육 가치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sup>28</sup> 사실 싱가포르의 근대사에서 경제와 정치 분야에서 역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인물들은 거의 대부분 중국계인데, 그들에 대한 활동을 강조할 경우 다른 종족의 학습자들로 하여금 위화감과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질서와 조화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하에 중국계 중심의

26 실제 대부분 학계에서는 근대 식민시기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도시사회의 주요 구성원이자, 상업의 주체, 인프라 건설자, 서비스 산업 제공자였던 중국계 이주민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Soon Keong Ong, 2013, ““Chinese, but not quite”: Huaqiao and the Marginalization of the Overseas Chinese”, *Journal of Chinese Overseas* 9.

27 Suhaimi Afandi and Ivy Maria Lim, 2022, “History Education in Singapore: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Education in Singapore*, vol. 66.

28 Michael D. Barr, 2006, “Racialised Education in Singapore”, *Educational Research for Policy and Practice* 5.

교육은 명백히 지양하는 방향의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역사를 포함한 싱가포르 인문·사회 분야의 교육은 궁극적으로, 그리고 공통으로 다종족의 학습자들에게 공통의 민족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 역시 지적하고 있다.<sup>29</sup>

역설적으로 이러한 싱가포르의 교육과정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근대사 교육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다. 싱가포르 역시 식민지로부터 그 역사가 출발한다는 관점을 탈피하고자 식민사는 축소하고, 그 이전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국가 형성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형식의 역사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실제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중국계 이민자들의 존재 역시 축소되고, 자연히 중국의 중국 근대사 서술에서는 강조된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그들의 중국에 대한 애국 활동 역시 주목하지 않는다. 이러한 서술 및 교육 방향은 궁극적으로 싱가포르라는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역사교육이 이루어진다는 방증이고, 이는 중국공산당의 영웅적인 활동과 신중국 성립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국가 정체성을 심어주려는 목적의 중국의 근대사 교과서 서술 방향과 그 근본적 결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계 이민으로 인한 역사적 현상에 대해서는 상반된 서술을 보여주는 두 국가의 역사교육이 국가 정체성과 민족주의 함양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결을 보여준다는 점이 흥미롭다.

---

29 Suhaimi Afandi and Ivy Maria Lim, 2022, 앞의 글; Yeow Tong Chia, 2012, “History Education for Nation building and state formation: The case of Singapore”, *Citizenship Teaching & Learning*, Vol. 7, No. 2; Ting-Hong Wong and Michael Apple, 2002, “Rethinking the Education/ State Formation Connection: Pedagogic Reform in Singapore, 1945-1965”,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vol. 46, no. 2; 김한중, 2018, 「정체성을 기르는 싱가포르 역사교육의 시민교육 성격」, 『역사교육논집』 제67집.

## 2. 대만

대만의 고등학교 역사 수업 요강과 대만사에 대한 관점이 정권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이미 수차례 연구를 통해 지적되어온 사항이다.<sup>30</sup> 다만, 최근에는 중화민국 108년, 즉 2019년에 발표된 최신의 개정 역사 교과서가 각급 학교에 배포되면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고,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sup>31</sup> 이 글에서는 그 변화상을 살펴보기보다는 최근의 교육과정 개정으로 새로운 역사교육 커리큘럼이 적용된 규정을 중심으로 대만사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만의 교육과정은 한국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6년제 국민소학, 중학교에 해당하는 3년제 국민중학,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3년제 고급중학으로 나뉜다. 전체 12년의 의무교육으로 한국의 체제와 유사하다. 대만의 역사교육과 교과서는 1997년 『인식대만(認識臺灣)』이 출간된 이후 중국대륙과는 동떨어진 대만의 주체적 역사관을 강조하는 방향이 이어져왔다.<sup>32</sup> 비록 정권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의 변화는 있었지만, 대체적인 흐름은 유사했다. 특히, 최근의 교육과정

- 
- 30 Hsuan-Yi Huang and Hsiao-Lan Chen, 2019, “Constructing collective memory for (de)colonisation: Taiwanese images in history textbooks, 1950-1987”, *Pedagogica Historica* 55(1); Jyh-jia Chen, 2003, “State Formation, Pedagogic Reform, and Textbook (De)regulation in Taiwan, 1945-2000”, PhD.dis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김유리, 2009, 「대만사, 중국사, 세계사: 2004-2008년 대만의 고등학교 역사과정 개혁 분석」, 『역사교육』 109집; 김유리, 2015, 「대만의 정권교체와 고등학교 역사과정 개혁」, 『역사교육』 134집; 彭明輝, 2004, 「臺灣的歷史教育與歷史教科書(1945-2000)」, 『Historiography East & West』 2:2.
- 31 김택경, 2020, 「臺灣의 역사 교과서 개정과 근현대사 서술구조-「十二年國民基本教育課程綱要」를 중심으로-」, 『역사와 교육』 30; 고석현·박민수, 2020, 「중국 사관에서 ‘대만 사관’으로-108과강 고등학교 〈歷史〉 교과서의 ‘鄭氏 政權’ 서술변화」, 『중국학보』 제94집; 김유리, 2019, 「대만, 중국과 동아, 세계: 2018년 대만의 중등학교 역사과정 개혁 분석」, 『역사교육』 151집.
- 32 김택경, 2020, 위의 글, 308쪽.

개정 내용은 국가교육연구원(國家教育研究院)에서 편찬하여 소위 ‘108과강(課綱)’이라 불리는 「십이년국민기본교육과정강요-보통형고급중등학교-: 사회영역(十二年國民基本教育課程綱要-普通型高級中等學校-: 社會領域, 이하 108과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sup>33</sup>

국민중학과 고급중학 교과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108과강」 속 한국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3년제 고급중학의 사회영역 역사 분야 교과과정 개요에 따르면, 역사 교과과정은 ‘족군, 성별과 국가의 역사’, ‘과학기술, 환경과 예술의 역사’, ‘탐구와 실습: 역사학탐구’로 나뉜다. 이러한 구분은 역사교육을 현대 사회, 즉 현재의 대만 사회가 맞이한 중요한 과제들과 연계시킨 것으로 실용적인 역사학을 추구하는 대만의 역사교육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는 역사교육의 방향이 공간적으로는 학습자의 주변에서 원거리로 넓어져야 하고(由近及遠), 고대(古代)는 간략하게 교육하되, 근현대(近現代)는 상세하게 교육한다(略古詳今)는 대만 역사교육의 대원칙에 따른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그 역사의 특성상 역사 서술에 대한 실용적 태도와 더불어 고대사를 상세히 기술할 경우 명칭시기 이전 중국사와의 연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풀이된다.

주제 중심이 아닌, 연대별·시기별 역사교육은 그 이전 과정인 3년제 국민중학(한국의 중학교에 해당)의 역사교육에서 이루어진다. 해당 교육과정에서도 상기 대원칙은 그대로 지켜지는데, 대만 섬을 중심으로 대만 원주민의 역사, 대항해 시기의 대만, 청 제국 시기의 대만, 일본 제국 시기의 대만, 당대 대만을 차례로 기술함으로써 역사교육은 철저히 대만인의 역사, 대만인의 정체성을 함양하는 방향의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sup>34</sup> 이러한 역사 서술에서 중국의 유물론적 계급투쟁 관점이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 저항하는 대만인들의 역사는 서술하지 않거나 최소화되고, 당시 대만의 사회적, 정치·경제적

33 「十二年國民基本教育課程綱要-普通型高級中等學校-: 社會領域」, 國家教育研究院, 2019.

34 「十二年國民基本教育課程綱要-普通型高級中等學校-: 社會領域」, 國家教育研究院, 2019.

변화상을 중심으로 서술함으로써 일제 식민시기 역시 전체 대만 역사의 일부로 기술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의 『강요』에서는 자산계급 중심의 독재적 국민당 정권에 의한 중국동포들의 희생과 저항, 혁명 의식 각성의 과정으로 서술되었던 2.28사건 역시 중화민국 통치체제가 이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화민국사에서 대만사로 연결되는 과정의 일부분으로 교육하고 있다.

고급중학 과정의 역사교육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문화, 젠더, 환경, 과학기술 등 당대 대만이 가장 중요하게 여김과 동시에 중국대륙의 정권과도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인식하는 주제들을 역사와 연결짓는다는 점이다.

〈표 4〉 『108과강』 속 고급중학 역사교육과정 내용

주제	항목	세부주제
족군, 성별과 국가의 역사		
원주민, 이민 과 식민	원주민족	1. 원주민족의 전통사회, 전통영역과 지식체계 2. 원주민과 외래인의 상호 작용 3. 식민 통치하의 원주민, 원주민족 4. 원주민족의 권리회복운동과 현대국가의 역할
	이민과 식민	1. 인간 이동의 배경과 형태 2. 이민사회의 형성과 정체성 문제 3. 식민과 반식민운동 4. 식민의 영향과 식민경험에 대한 반성
성별과 역사	여성과 정치	1. 역사 속 여성지도자 2. 국족주의(國族主義)하의 여성 3. 여성권리의 신장
	성별과 사회	1. 전통사회 속 성별 역할 2. 혼인과 가정의 변천 3. 역사상의 종교와 성별 4. 성별 평등운동의 발전
현대전쟁과 국가폭력	전쟁과 역사 상처	1. 전쟁의 살육과 그 영향 2. 전쟁 선전의 조작 3. 전쟁의 창상(創傷)과 집단기억
	국가폭력과 전환기 정의	1. 현대의 국가폭력 2. 전환기 정의의 추구하고 반성

과학기술, 환경과 예술의 역사		
의료와 과학기술	질병과 의료	1. 다원적 의료전통 2. 질병 전파의 과거와 현재
	과학기술과 사회 <sup>35</sup>	1. 교통 운수의 발전과 국가 통치 2. 에너지 이용과 생활방식의 개편 3. 미디어의 발전과 사회변천
환경과 역사	동물과 문명	1. 대항해시대의 동물교류와 영향 2. 육종기술과 인류사회
	문명과 환경	1. 환경변천과 소실된 문명 2. 석화(石化)산업의 발전과 충격 3. 영속 발전의 반성
예술과 문화	예술과 인문	1. 서방 고대전통에서 현대예술로 2. 중국의 서화 예술
	문화와 생활	1. 종교신앙과 명절의 의의 2. 희극, 문학과 대중 생활 3. 과학기술, 환경과 예술창작

원주민족과 이주민에 대한 교육은 대만이라고 하는 사회를 다원적 족군사회(多元族群社會)로 인식하는 현대의 관점이 녹아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sup>36</sup> 원주민의 존재와 한족의 이주를 이해하고, 대만의 인구구성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현시대 대만의 다종족, 다문화적 특징을 자연스럽게 교육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는 이민사를 최소화한 싱가포르의 역사교육 내용과 상반된 지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이는 싱가포르가 동남아시아라는 다

35 의료기술 및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이러한 역사서술은 중국의 역사교육에서 보여주는 유물론적·계급투쟁적·반제국주의적 방향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 제국시기 경제 성장과 사회경제의 변천, 근대 문명의 이식을 실용적으로 보려는 시도인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역사관과는 배치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36 '족군'이라는 용어는 종족과 같은 의미로 'ethnic group'을 가리키지만, 대만의 교육과정 관련 용어에서는 주로 족군이라는 용어가 쓰이므로 본문에서는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양한 국가가 공존하는 지역의 일원이라는 점과 대략 30%에 달하는 다른 종족과 공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족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대만의 경우(97~98%)와 다른 것으로 풀이된다.<sup>37</sup>

국족주의는 내셔널리즘(Nationalism)을 가리킨다. 국족은 네이션(Nation)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민족주의, 민족으로 번역되는 이러한 개념들은 역사적으로 쑨원에 의해 민족주의의 대체어로 활용된 바 있다. 상기 교육과정 속 국족주의라는 용어는 원주민과 이주민을 중심으로 새롭게 국가를 형성한 대만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고산지대의 원주민족과 이주민인 한족을 포괄하는 새로운 대만이라는 국가의 종족이라는 의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는 민주 정부가 과거 독재정권 시절 행해진 위법이나 정의롭지 못한 행위들에 대해 각종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여기에는 사법적·역사적·인권적 모든 조치가 포함되며, 독재정권 이후 민주 정부가 인권 침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표 4>의 역사 교육과정에서 국가폭력과 전환기 정의는 2.28사건과 백색공포가 상징하는 국민당 정권의 독재정권이 남긴 상흔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를 역사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앞서 마공정(馬工程) 기반 중국의 역사교과서인 『강요』에서 2.28사건을 묘사하고 바라본 관점과는 상반된 해석이다. 즉, 이 사건 역시 현재의 민주 정부가 운영하는 대만이라는 국가의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상처로 인식함으로써 중국 대륙 정권과는 거리를 두는 대만 중심 역사서술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기술 및 과학기술로 통칭되는 근대 물질문명을 강조하는 역사교육은 중국의 역사교육에서 보여주는 유물론적·계급투쟁적·반제국주의적 방향과는 이질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일본 제국주의 식민시기 경제 성장과 사

37 싱가포르의 경우 인구구성에서 무슬림 말레이계의 비중은 15% 내외로 소수지만, 양옆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라는 무슬림 대국과 마주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다.

회경제의 변천, 근대문명의 이식을 실용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중국의 역사관과는 배치되는 교육이다.<sup>38</sup> 이 모든 주제와 세부항목들은 앞 장에서 언급한 중국의 마공정 기반 역사교육 및 교과서의 내용과는 배치되는 형식의 교육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부분에서 중국을 강력히 의식하고 있다는 점 역시 알 수 있다. 이러한 고급중학 과정 역사교육의 중요한 특징은 다문화/다종족 사회의 형성, 근대문명 이식의 역사 강조, 서방과 동방 문화의 혼재, 국가와 개인의 관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대만 섬의 고산지대에 퍼져 있는 원주민에 대한 대만과 중국의 해석이다. 대만의 역사교육에서는 자연스럽게 같은 대만인으로 분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족 중심의 대만 인구구성에 다양성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중국과의 차별성을 구하고 있다.<sup>39</sup> 이는 2016년 8월 1일 차이잉원 총통이 지난 400년간 이어진 원주민에 대한 ‘대만 정권’의 무력 정벌, 토지 약탈 등의 권리 침해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원주민에 대한 인권 및 권리를 신장한다는 측면과 더불어 대만의 역사를 지난 400년 동안 이어진 대만의 여러 정치 권력(명,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정씨 세력, 청, 일본, 중화민국)의 역사와 연속되는 것으로 만들면서 중국 역사의 일부로부터 독립시킨다는 선언으로도 읽힌다. 이는 이번 「108과강」 의무교육과정에서의 역사교육에서 정청궁(鄭成功) 세력에 대한 적극적 해석과도 연결되는 지점

38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에 대한 대만의 이러한 관점과 해석은 최근 국내에 번역된 『도해 타이완사』(귀팅위 외 저, 신효정 옮김, 2021, 글항아리, 원전 출판은 2016년)에 잘 드러나 있다. “타이완은 식민지 경제에서 착취만 당했을까”, “일본시대의 교육은 계몽인가, 우민화인가” 등의 장절 제목은 현시대 대만 사회가 일본 식민경험을 바라보는 관점이 반제국주의적 이분법에 기반하지 않은, 좀 더 복합적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39 물론 대만에서도 한족을 그냥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닌, 객가, 푸젠, 광둥 등과 같은 다양한 방언집단으로 분류하고, 그들의 방언 교육을 장려하는 모습도 보인다. 현 총통인 차이잉원 역시 객가 출신의 여성 지도자다. 이 역시 다종족, 다문화 집단을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여기는 대만 사회의 방침이 반영되어 있다.

이다.<sup>40</sup>

다른 한편으로 대만 섬의 원주민에 대해 중국의 『강요』에서도 이들을 동포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서술들이 보인다. 앞장에서 인용한 것처럼 한족뿐 아니라 원주민인 고산족 역시 일본 제국주의 식민세력에 저항하는 이들로 계급투쟁, 반봉건·반제국주의 투쟁의 동지로 보아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중화민족의 개념을 폭넓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최근 중국의 역사교육 흐름과 함께하는 것으로 대만 섬 주민들 가운데 2%에 불과한 원주민을 둘러싼 대만과 중국의 역사관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볼 수 있다.

## V. 맺음말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이루어진 대량의 중국계 이주는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와 같이 중국 대륙 바깥에 중국계 이주민들이 주도한 정치 공동체의 탄생을 유도하였다. 소위 범중화권으로 불리기도 하고, 최근 중국 정권은 ‘중화민족 대가정’으로 칭하는 이러한 범주화는 사실 본격적으로 중국에 편입된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독립된 주권을 가진 주권국임을 표방하는 대만과 싱가포르의 입장에서는 그리 환영할 만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공산당 정권과 대만, 싱가포르 사이의 입장 차이는 해당 정권의 국가관, 민족관, 역사관에도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해당 국가들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교육과정 및 교재다.

본문은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소위 ‘마공정’이라 불리는 중국의 대학교재 국정화 작업 아래 출간되어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중국근현대사강요』와 싱가포르와 대만의 역사교육과정 및 역사관을 비교해보았다. 특히 중국의 역사교재 및 교육과정에서 근대로 시대구분하고 있는 아편전쟁에서 중화인민공화

---

40 고석현·박민수, 2020, 앞의 글.

국 시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대규모로 이루어진 중국계 이주와 싱가포르 및 대만 공동체의 경우 중국의 ‘마공정’의 관점에서는 ‘중화민족’이 반제국주의, 반봉건의 투쟁을 이어가는 것으로 판단한 반면, 싱가포르와 대만의 경우 각각 영국과 일본의 근대적 과학기술, 법과 제도 기반 통치과정을 정당화하면서까지 이러한 인식을 거부하고 있다. 세 국가 사이 역사교재 서술 및 교육과정 구성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역사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해당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 정체성, 정권 수립의 역사적 정당성과도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흥미로운 현상이다. 또한 향후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각 국가들의 정치 권력의 성격에 따라, 혹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자료 (교과 관련)

「十二年國民基本教育課程綱要-普通型高級中等學校-：社會領域」, 2019, 國家教育研究院.

張玉瑜, 高福進 主編, 2018, 『中國近現代史綱要-學習讀本』, 上海人民出版社.

『中國近現代史綱要』, 2018, 高等教育出版社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2020, 「教育部啓動編寫“四史”大學生讀本」, 10.20. (2022년 11월 10일 검색)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制定, 2022, 「義務教育歷史課程標準(2022年版)」, 北京師範大學出版社.

Curriculum Planning & Development Division of Singapore Ministry of Education, 2021a, *Singapore-A Journey Through Time, 1299-1970s (Secondary One)*, Star Publishing Pte. Ltd.

\_\_\_\_\_, 2021b, *Singapore-A Journey Through Time, 1299-1970s (Secondary Two)*, Star Publishing Pte. Ltd.

History Syllabus, 2017, Upper Secondary (Express course/ Normal course), MOE.

History Syllabus, 2021, Lower Secondary (Express course/ Normal course), MOE.

### 단행본

귀팅위 외 저, 신효정 옮김, 2021, 『도해 타이완사』, 글항아리.

젠보잔 지음, 심규호 옮김, 2015, 『중국사강요』 1 & 2, 중앙북스.

Chew, C. T. E., & Lee, E., 1991, *A History of Singapore*,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Farrell, B. P., 2005, *The Defence and Fall of Singapore*, Gloucestershire: Tempus Publishing Group.

- Frost, M. R., & Balasingamchow, Y., 2009, *Singapore: A Biography*, Singapore: Editions Didier Millet Pte Ltd.
- Hack, K., & Blackburn, K., 2009, *Did Singapore Have to Fall: Churchill and the Impregnable Fortress*, Abingdon, Oxon: Routledge.
- Kwa, C. K., Heng, D., Borschberg, P., & Tan, T. Y., 2019, *Seven Hundred Years: A History of Singapore*, Singapore: Marshall Cavendish Editions.
- Lee, E., 1991, *The British as Rulers: Governing Multiracial Singapore, 1867-1914*, Singapore: Singapore University Press.
- National Archives of Singapore, 2011, *Battle for Singapore: Fall of the Impregnable Fortress*, Singapore: National Archives of Singapore.
- Turnbull, C. M., 2009, *A History of Modern Singapore, 1819-2005*, Singapor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Press.
- Yeoh, Brenda S. A., 2003, *Contesting Space in Colonial Singapore-Power Relations and the Urban Built Environment*, Singapore: NUS Press.

## 논문

- 고석현·박민수, 2020, 「'중국 사관'에서 '대만 사관'으로-108과강 고등학교 〈歷史〉 교과서의 '鄭氏 政權' 서술변화」, 『중국학보』 제94집.
- 권은주, 2021, 「중국대학 역사교재의 고조선(한4군)과 임나일본부에 대한 서술 변화-식민사학의 영향과 중화주의가 결합한 한국고대사상」, 『동북아역사논총』 74호.
- 김유리, 2009, 「대만사, 중국사, 세계사: 2004-2008년 대만의 고등학교 역사과정 개혁 분석」, 『역사교육』 109집.
- \_\_\_\_\_, 2015, 「대만의 정권교체와 고등학교 역사과정 개혁」, 『역사교육』 134집.
- \_\_\_\_\_, 2019, 「대만, 중국과 동아, 세계: 2018년 대만의 중등학교 역사과정 개혁 분석」, 『역사교육』 151집.
- 김종학, 2021, 「중국의 국사 교육과 '중화민족'의 의미: 고중(高中) 통편교재(統編教材) 「歷史: 中外歷史綱要(上)」의 사례」, 『주요국제문제분석』 26.
- 김종호, 2017, 「'중화성'모색을 위한 시도들-서구권 및 동남아시아 지역 화교 화인 디아스포라 연구 경향 분석-」, 『중국근현대사연구』 73.
- \_\_\_\_\_, 2019, 「50년의 역사, 200년의 역사, 700년의 역사, '이민국가' 싱가포르의 건국사, 식민사, 21세기 고대사」, 『동서인문』 제12호.

- \_\_\_\_\_, 2020, 「친공(親共)과 애국 사이-CIA 문서를 통해 본 냉전초 동남아 화교화인의 대중(對中)인식-」, 『중국근현대사연구』 85집.
- 김택경, 2020, 「臺灣의 역사 교과서 개정과 근현대사 서술구조-「十二年國民基本教育課程綱要」를 중심으로-」, 『역사와 교육』 30.
- 김한중, 2018, 「정체성을 기르는 싱가포르 역사교육의 시민교육 성격」, 『역사교육논집』 제67집.
- 박장배, 2003, 「근현대 중국의 역사교육과 中華民族 정체성 2-중화인민공화국 시대의 민족 통합문제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20집.
- 서정경, 2013, 「아시아의 민족주의와 민족문제: 중국의 중화민족 만들기와 대내외적 갈등」, 『민족연구』 55권.
- 오병수, 2014, 「중국 근대 역사 교과서의 자국사 구축과정과 ‘중화민족」, 『歷史教育』 132집.
- \_\_\_\_\_, 2020, 「시진핑 시대 중국의 역사정책과 자국사의 재구성-歷史: 中外歷史綱要과목의 개설 배경과 이데올로기-」, 『歷史教育』 156.
- 윤세병, 2019, 「중국의 역사교과서 논쟁과 국정화」, 『역사교육연구』 vol.33.
- 이유표, 2021, 「중국 고등교육 역사 교재 중국사강요 의 편찬과 개정-노예사회, 봉건사회 서술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3(11).
- 최승현, 2018, 「중국공산당의 “중화민족”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23(1).
- 馮俊, 2021, 「學習和研究“四史”的理論指引-深入學習習近平總書記關於“四史”的重要論述」, 『紅旗文稿』 3.
- 彭明輝, 2004, 「臺灣的歷史教育與歷史教科書(1945-2000)」, 『Historiography East & West』 2:2.
- Afandi, Suhaimi and Lim, Ivy Maria, 2022, “History Education in Singapore: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Education in Singapore*, vol. 66.
- Barr, Michael D., 2006, “Racialised Education in Singapore”, *Educational Research for Policy and Practice*, 5.
- Chen, Jyh-jia, 2003, *State Formation, Pedagogic Reform, and Textbook (De)regulation in Taiwan, 1945-2000*, PhD.dis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Chia, Yeow Tong, 2012, “History Education for Nation building and state formation: The case of Singapore”, *Citizenship Teaching & Learning* Vol. 7, No. 2.
- Huang, Hsuan-Yi and Chen, Hsiao-Lan, 2019, “Constructing collective memory for (de)colonisation: Taiwanese images in history textbooks, 1950-1987”, *Pedagogica Historica*, 55(1).
- Liu, Meihui and Hung, Li-Ching, 2002, “Identity issues in Taiwan’s history curriculum”,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7.
- McKeown, Adam., 2010, “Chinese Emigration in Global Context, 1850-1940”, *Journal of Global History*, 5(1).
- Ng, S. Y., 1961, “The Chinese Protectorate in Singapore, 1877-1900”, *Journal of Southeast Asian History*, 2(1).
- Ong Soon Keong, 2013, ““Chinese, but not quite”: Huaqiao and the Marginalization of the Overseas Chinese”, *Journal of Chinese Overseas*, 9.
- Schneider, Claudia., 2005, “Looking at our story with different eyes: History textbooks on both sides of the Taiwan Strait”, *Internationale Schulbuchforschung*, Vol. 27, No. 1.
- Stolojan, Vladimir, 2017, “Curriculum Reform and the Teaching of History in High Schools during the Ma Ying-jeou Presidency”, *Journal of Current Chinese Affairs*, 46(1).
- Sung, Pei-Fen, 2020, “Historical consciousness matters: national identity, historical thinking and the struggle for a democratic education in Taiwan”,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52(5).
- Wong, Ting-Hong and Apple, Michael, 2002, “Rethinking the Education/ State Formation Connection: Pedagogic Reform in Singapore, 1945-1965”,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vol. 46, no. 2.

#### 기타자료

“國家教材委員會馬敏：教材是國家意志的體現”，中國經濟網，2017년 7월 24일 (검색일자: 2022년 11월 15일).

## 마공정(馬工程) 『중국근현대사강요』의 중국계 이주민 서술의 특징

— 싱가포르 및 대만 역사교육과의 비교 분석 —

김종호

“마르크스주의 이론 연구와 건설 프로젝트(馬克思主義理論研究和建設工程)”, 소위 “마공정”이라 칭하는 교재 편찬사업은 중국이 10대를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뿐 아니라 대학 교육에서도 마르크스 사상으로 대표되는 국가 정체성을 심어 주려고 시도하는 사업이다. 이 글에서는 “마공정” 아래 편찬된 2018년판 『중국 근현대사강요(中國近現代史綱要)』를 중심으로 현재 중국 대학 교육에서의 근대사 서술구조를 파악함으로써 현재 중국 고등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교육의 실체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근대 시기 중국인 이주민의 역사와 깊은 연계를 지닌 화교 및 대만 관련 서술을 분석함으로써 중국계 이주민에 대한 서술방식을 분석한다. 아울러 분석 결과를 이 시기 중국인 이주를 통해 형성된 두 국가, 싱가포르와 대만의 관련 역사교육 규정과 비교해봄으로써 세 국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관, 민족관, 역사관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중국의 역사교재에 드러난 중국계 이주민에 대한 인식은 ‘중화민족’이라는 광범한 민족적 서사 아래 그 역사를 서술한다는 것

이다.

반면 싱가포르의 경우 의무교육에서 행해지는 교과서를 통해 중국계 이주민의 활동을 부각하기보다는, 다양한 민족 간의 화합이라는 당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계 이주민들이 영국의 법과 제도 속에서 철저히 순응한 존재였음을 역설한다. 대만의 경우 중국의 역사관과는 배치되는 역사관과 더불어 대만섬을 중심으로 한 주체적인 역사 서술을 지향함으로써 중국계 이주민이자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 하였다. 이와 같은 세 국가의 역사교육 경향은 세 국가가 개별적인 공동체를 성립한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자체적인 국가 정체성을 확고히 했음을 잘 보여준다.

**주제어:** 중국 대학 역사교재, 마공정(馬工程), 중국근현대사강요, 싱가포르 역사교육, 대만 역사교육, 중화민족

## Characteristics of Chinese History Education through *Outline for Modern History of China* in “Marxism Project”: Comparing with History Education of Singapore and Taiwan

Kim Jongho

“The Project of Marxism Theoretical Research and Establishment(馬克思主義理論研究和建設工程)”, also known as the “Marxism Project,” demonstrates the Chinese government and Communist Party’s intention to build national identity based on Marxism through history education and history textbooks in university-level education. This study delves into the nature of Chinese history education, focusing specifically on the writing structure of modern history via the “Marxism Project”-published *Outline for Modern History of China*.

This paper examines the description patterns of overseas Chinese, in particular by analyzing narratives related to overseas Chinese and Taiwan, which have a deep connection with the history of Chinese immigrants during the modern period. Furthermore, what three

countries seek to reveal in terms of the view of country, view of people, and view of history is explored by comparing the results of the interpretation with the relevant history educational regulations of Singapore and Taiwan, which formed through Chinese migration during this period. The perception of the overseas Chinese revealed in the Chinese history textbook is that the history is described under the broad national narrative of pluralistic unity of the Chinese nation, also known as 'Chinese Big Family'.

In the case of Singapore, however, rather than highlighting overseas Chinese activities through textbooks in compulsory education, it is emphasized that Chinese immigrants were beings who thoroughly conformed to British law and system in order to overcome Singapore's immediate challenge of ethnic harmony. In the case of Taiwan, they attempted to solidify their Taiwanese identity by pursuing an independent history narrative centered on the island of Taiwan, as well as a view of history that contradicted China's view of history. The history education trend in these three countries demonstrates that the three countries have solidified their national identities in the decades since they established separate national communities.

**Keywords:** Chinese University Text Book, Marxism Project(馬工程), Outline for Modern History of China, History Education in Singapore, History Education in Taiwan, Chinese Nationals, Chinese Communist Party

#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평양천도 후 고구려 묘장문자문화의 전이와 변용

김근식 | 전남대학교 사학과 강사

- I. 머리말
- II. 국내성 지역 묘장문자문화와 그 특징
- III. 천도 이후 묘장문자문화의 전이
- IV. 국내성·평양지역의 묘장문자문화와 변용
- V. 맺음말



## I. 머리말

“이도평양(移都平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장수왕 15년조<sup>1</sup>에 기록된 이 네 글자의 간단한 문구에는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천도(遷都)’라는 극적인 사건은 당시 고구려로서도 커다란 모험이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천도는 단순히 왕궁을 옮기거나 지배층을 이주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내성 일대에서 행해졌던 모든 사회시스템을 새로운 곳에 재편해야 하는 일대 사건이었다. 이는 그 자체만으로 고구려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묘제(墓制), 장의문화(葬儀文化)는 평양 천도를 계기로 극명하게 변화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이는 양 지역 간의 문화적 결합으로 이어지는데, 그 흐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벽화고분을 들 수 있다.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고구려는 천도 이후 왕실의 주 묘제를 적석총에서 석실 봉토분으로 전환한다. 이는 각자만의 방식으로 발전되어왔던 국내성과 평양지역의 벽화고분 문화를 일원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즉, 두 지역 문화가 서로 전이되어 결합된 방식의 벽화고분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에 양 지역의 묘장(墓葬)문화가 결합한 대표적인 무덤이라 파악되는 모두루총(牟頭婁塚)을 중심으로, 고구려 벽화고분 내 문자문화의 전이와 변용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국내성 지역의 묘장문자문화는 애초부터 무덤 내부에 묵서(墨書)하는 방식이 아닌, 무덤 밖에 각서(刻書)하는 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모

---

\* 투고: 2023년 1월 15일, 심사 완료: 2023년 2월 4일, 게재 확정: 2023년 2월 13일

\* 이 논문은 2020년 『高句麗壁畫古墳의 墨書 研究』의 5장을 발췌,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6 15年조, 15년(427)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두루총 묘지는 그 내용상 국내성 지역 묘비의 서사 문화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즉, 이 묘지는 중국 묘지·묘비의 영향이 아닌, 고구려 묘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성 지역 묘장에는 무덤 내에 목서를 남기는 문화가 없었다. 그렇다면 그 서술방식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이에 여기에서는 그 전파 시점을 427년을 전후한 시기, 즉 평양 천도를 매개로 국내성과 평양지역의 문화가 혼재되었고 그 결과 ‘무덤 내 묘지’라는 방식이 국내성의 고구려인들에게 전파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모두루총의 제작자는 묘지 서술내용은 국내성의 묘비(墓碑)에서, 서술기법은 평양지역의 묘지(墓誌) 방식을 따른 것으로 상정하였다. 애초부터 ‘무덤 내 문자’ 문화가 없었던 국내성 지역에 평양지역의 묘장 방식이 적용된 사례라고 본 것이다. 또한 평양 지역의 덕흥리벽화고분에는 관람자(觀覽者)를 의식한 관자(觀者) 목서가 존재했던 만큼,<sup>2</sup> 국내성 지역 역시 그 영향을 받아 ‘무덤 내 문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Ⅱ장에서는 국내성 지역에서 출토되는 묘장 관련 문자 자료를 분석하고, 천도 이전 유행하던 서술방식과 지역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천도 이후 지역 간 문화적 혼용 과정을 확인해가면서, 5세기 중반 이후 평양지역으로 국내성 문화가 전이되는 과정을 분석해보았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평양과 국내성 양 지역의 묘장문자문화와 그 변용을 나름의 방식으로 추정해보았다. 제현의 질정을 바란다.

## Ⅱ. 국내성 지역 묘장문자문화와 그 특징

4~5세기 국내성 지역의 중심묘제는 명백히 적석총(積石塚)이었다. 그러나 적

---

2 김근식, 2021a, 「덕흥리벽화고분의 ‘觀者’목서와 ‘觀覽者’」, 『한국고대사연구』 101, 167~192쪽.

석층은 그 내부에 특별한 공간을 만들 수 없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추후 석실이 추가된 적석층이 등장하면서 벽화가 일부분 활용되지만, 벽면에 문자를 남길 만한 여력은 보이지 않는다. 즉, 고구려의 무덤 문화는 애초부터 내부를 꾸미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내성 인근에서 확인되는 집안고구려비(集安高句麗碑)·광개토왕릉비(廣開土王陵碑) 등의 석비(石碑)나 태왕릉(太王陵)·친추총(千秋塚) 등에서 발견되는 명문전(銘文塼)·동령(銅鈴) 등을 고려해볼 때, 이 지역은 평양과는 다른 방식의 묘장문자문화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성 지역의 문자문화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은 단연 ‘광개토왕릉비’일 것이다. 여기에 최근 발견된 ‘집안고구려비’가 더해지면,<sup>3</sup> 적어도 5세기 초까지 고구려는 각자(刻字)에 익숙하고<sup>4</sup> 무덤 앞에 묘비를 세우는 방식을 선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들이 훈적비인가 묘비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sup>5</sup> 하지만 최소한 무덤 내부에 들어가는 방식은 아니었다. 또한 태왕릉 근처에서 발견된 ‘원진대 태왕릉이 산처럼 안전하고 피처럼 튼튼하길(願太王陵 安如山 固如岳)’이라는 글귀의 명문전, 또 친추총 인근에서 수습된 ‘천추 만세토록 영구히 튼튼하길(千秋萬世永固)’·‘하늘과 땅처럼 튼튼히 보존되길(保固乾坤相畢)’과 같은 명문전들이 계단식석실적석층(階段式石室積石塚)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 명문전들은 명문의 내용이나 그 사용처가 낙랑·대방고지(樂浪·帶方故地)와 중국에서 확인되는 명문전들과는 완전히 결을 달리한다.<sup>6</sup> 국내성 출토 명문전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그것은 무덤 내부에 쓰인

3 집안고구려비 연구동향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진원, 2013, 「신발견 <집안고구려비>의 판독과 연구 현황」, 『목간과문자』 11; 여호규, 2016, 「한중일 3국 학계의 집안고구려비 연구동향」, 『동방학지』 177.

4 박찬규, 2005, 「집안지역에서 최근 발견된 고구려 문자자료」, 『고구려발해연구』 19.

5 여호규, 2014, 「광개토왕릉비의 문장구성과 서사구조」, 『영남학』 25.

6 김근식, 2021b, 「안악3호분의 연원과 ‘무덤 내 문자」, 『중앙사론』 54, 23~27쪽.

것이 아니라 무덤 위나 밖에 건설된 시설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의 견해가 일치한다.<sup>7</sup>

중국에서는 조조(曹操)의 금비령(禁碑令) 이후 종래 많이 만들어졌던 무덤 밖 묘비(墓碑)가 무덤 안 묘지(墓誌)로 전환되었다고 하지만,<sup>8</sup> 고구려에서는 적어도 5세기 전반까지 국내성 지역에 묘지 문화가 수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5세기 중반이 되면 이러한 장의 문화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한다. 즉, 이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모두루총 내부에서 고구려인이 남긴 것이 명확한 묘지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모두루총은 중국 길림성 집안현 태왕향 하해방촌(中國 吉林省 集安縣 太王鄉 下解放村)에 위치한 고구려 벽화고분이다. 집안 평야의 동북인 용산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으며, 1935년에 발견되었다.<sup>9</sup> 1963년 집안현문물보관소(集安縣文物保管所)에 의해 일부 수리가 진행되었고, 1978년과 1994년에 재차 보수하였다. 무덤 형식은 석실봉토분이며 방향은 남으로 35도 기운 서향, 연도·전실·통로·현실로 이루어진 이실분(二室墳)이다. 벽면 전체에 정연하게 회칠을 행하였으나, 무슨 이유인지 벽화는 그리지 않았다. 묘지는 전실 북벽 상단에 있는데, 800여 자의 목서가 구획 속에 정연하게 남아 있다. 다만, 박락으로 인해 판독 가능한 글자는 300여 자에 불과하다.

모두루총에 대한 정보는 『통구(通溝)』가 출간되면서 개괄적인 내용과 묘지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sup>10</sup> 이를 바탕으로 중국에서는 묘지의 ‘노객(奴客)’을 주요 근거로 염모(冉牟)설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며,<sup>11</sup> 국내에서도 일부 판독

7 강현숙, 2013, 『고구려 고분 연구』, 진인진, 72~75쪽.

8 홍승현·양진성·소현숙, 2019, 『돌, 영원을 기록하다』, 경북대학교출판부, 179쪽.

9 池内宏, 1937, 「高句麗人牟頭婁の墓と墨書の墓誌」, 『書苑』 1-8, 法書會.

10 池内宏·梅原末治, 1938, 『通溝』 上, 日滿文化協會, 61~65쪽.

11 勞幹, 1944, 「跋高句麗大兄冉牟墓誌兼論高句麗都城之位置」, 『歷史言語研究集刊』 11; 勞幹, 1976, 『勞幹學術論文集』 甲編, 藝文印書館; 勞幹, 2009, 『中研院历史语言研究所集刊论文类编-民族与社会编』 1, 中華書局.

이 소개된 바 있다.<sup>12</sup> 모두루총과 그 묘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사실상 197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즉, 모두루의 족계(族系)와 조·부의 사적 등을 분석하거나,<sup>13</sup> ‘성왕(聖王)’·‘노객(老客)’·‘북부여(北扶餘)’ 등에 중요 용어들에 대한 상세한 고찰이 다시금 행해졌다.<sup>14</sup> 더불어 당시 무덤의 관리·보수 현황을 보고하거나, 새로운 판독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sup>15</sup>

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모두루 묘지에 대한 재판독과 역주 작업이 진행되었으며,<sup>16</sup> 북한의 경우 모두루총 묘지 사진이 포함된 도록을 처음 선보이기도 하였다.<sup>17</sup> 또한 중국에서는 드물게 염모설을 부정하면서 모두루와 염모의 생존 연대를 검토한 연구가 나타나기도 하였다.<sup>18</sup> 물론 이와 반대로 1994년 무덤 보수공사 이후 묘지 재판독을 통해 염모를 묘주로 확정하기도 하였으나,<sup>19</sup> 참고한 사진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그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후 묘지분석을 통해 추모왕 전설로의 접근을 시도하거나,<sup>20</sup> 염모와 모두루의 관계·북부여·건국 신화 등의 문제를 검토하기도 하였다.<sup>21</sup> 2010년대 들어서 그간의 묘지 판독을 종합하여 정리하거나,<sup>22</sup> 그곳에 투영된 정치적 목적이 검토되기도 하였다.<sup>23</sup> 최

12 최남선, 1954, 「高句麗, 牟頭婁墓誌」, 『增補三國遺事』, 民衆書館.

13 佐伯有清, 1977, 「高句麗牟頭婁塚墓誌の再檢討」, 『史冊』 7, 北海島大學文學部.

14 武田幸男, 1981, 「牟頭婁一族と高句麗王權」, 『朝鮮學報』 99·100.

15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3, 『集安縣文物志』, 吉林省文化廳, 122~127쪽.

16 노래돈, 1992, 「牟頭婁墓誌」, 『韓國古代金石文1』,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7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편, 1993, 『조선유적유물도감』 4, 민족문화, 150~160쪽.

18 朴眞爽, 1995, 「牟頭婁 墓誌에 대한 몇가지 문제」, 『中國境內 高句麗遺蹟 研究』, 예하, 237~259쪽.

19 耿鐵華, 2000, 「冉牟墓誌와 中原高句麗碑」, 『고구려발해연구』 10.

20 奥田尙, 2000, 「鄒牟王物語をめぐる二三の問題-好太王碑文と牟頭婁墓誌の鄒牟王物語-」, 『アジア文化學科年報』 3.

21 여호규, 2004, 『고대로부터의 통신』, 푸른역사, 31~58쪽.

22 정호섭, 2010, 「고구려 벽화고분의 명문과 피장자에 관한 제문제」, 『고구려발해연

근에는 여러 금석문 글자와의 비교를 통해, 기존 판독과 역주의 타당성이 논해진 바 있다.<sup>24</sup>

지금까지의 모두루총 연구는 전실 북벽에 남겨진 묘지 연구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는 벽화와 묘지가 함께 남겨진 안악3호분·덕흥리벽화고분과는 달리, 모두루총에서는 벽화의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에서 기인한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묘지가 ‘무덤 내 문자’라는 점과 5세기 중반경 국내성 지역의 묘장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 내용만 단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모두루 묘지를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덤의 축조 배경과 묘지의 기원 및 전파과정, 아울러 벽화가 남겨지지 않은 이유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sup>25</sup>

모두루총의 묘지는 박락으로 인해 목서가 상당 부분 판독되지 않지만,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그 내용의 대강은 알 수 있다.<sup>26</sup> 우선 이 묘지는 안악3호분·덕흥리벽화고분의 패선 방식과는 달리, 마치 묘비를 보는 것처럼 일정한 사각형 안에 한 글자씩 먹으로 써 내려가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그 내용은 크게 5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피장자가 누구인가를 알리는 제기(題記), 고구려의 건국과 연관된 모두루 시조의 내력, 모두루가의 증시조 염모의 공적, 모두루의 조상 2인의 내력, 모두루 자신의 사적과 죽음 등이다. 묘지에 따르면 모두루는 북부여 수사(北扶餘守事)를 지낸 인물이며 장수왕대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 구』 36; 정호섭, 2011, 『고구려고분의 조영과 제의』, 서경문화사, 208~215쪽.
- 23 최일례, 2017, 「모두루 묘지명에 투영된 5세기 정치세력」, 『한국고대사연구』 85.
- 24 이준성, 2020, 「牽頭婁墓誌의 판독과 역주 재검토」, 『목간과 문자』 25.
- 25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여러 고구려 벽화고분에서 발견되는 소공(小孔)을 통해, 벽화 대신 ‘유장(帷帳)’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아림, 2012a, 「고구려 벽화고분의 帷帳의 설치와 기능」, 『고구려발해연구』 44; 박아림, 2012b, 「고구려 벽화의 장식 문양과 유장의 표현」, 『고구려발해연구』 43). 아울러 모두루총과 관련된 상세한 논의는 추후 별지에서 재차 다루고자 한다.
- 26 武田幸男, 1981, 앞의 글;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韓國古代金石文』,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91~102쪽; 여호규, 2019, 「무덤 속 문자에 담긴 고구려인의 정체성」, 『문자와 고대 한국1-기록과 지배』, 주류성, 353~38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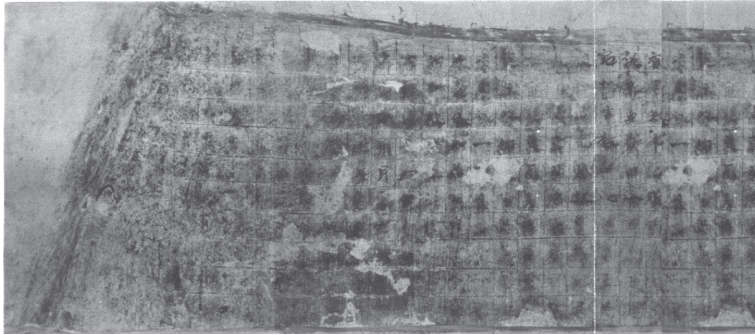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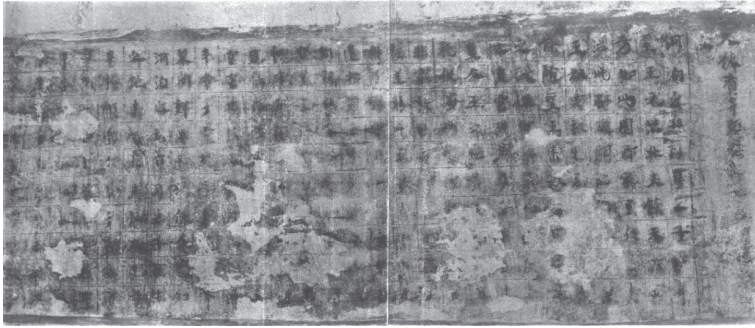


그림 1 모두루총 묘지<sup>27</sup>

27 池内宏·梅原末治, 1938, 앞의 책, 64쪽, 도판 28.

〈표 1〉 모두루 묘지의 판독과 해석

구분	행	판독문	해석문
題記	1	大使者牟頭婁(下缺)	대사자 모두루
	2	□(下缺)	
모두루가 시조의 내력	3	河泊之孫日月之子鄒牟	하백의 손자이고 해와 달의 아들이신 추모성왕은 본래 북부여로부터 나왔다. 천지 사방이 이 나라의 □가 성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다. 노객의 선조 ... 은 북부여에서 성왕을 따라 왔다.
	4	聖王元出北夫餘天下四	
	5	方知此國郡最聖□□□	
	6	治此郡之嗣治□□□聖	
	7	王奴客祖先□□□北夫	
	8	餘隨聖王來奴客□□□	
	9	之故□□□□□□□□	
중시조 염모의 사적	10	世遭官恩□□□□置上	대대로 관을 입었다. 국강상성태왕이 다스리던 때에는... 반역... 염모...
	11	聖太王之世□□□□□	
	12	祀仇□□□□□□□□	
	13	非□枝□□□□□□□	
	14	叛逆□□之□□□□□	
	15	冉牟□□□□□□□□	16~20행 생략
	21	官客之□□□□□□□	염모가 삼령으로 하여금 모용선비가... 하백의 손자이고 해달의 아들이 태어나신 땅임을 알고 북부여로 와서..., 이에 대형 염모가
	22	牟令々靈□□□□□□	
	23	慕容鮮卑□□使人□知	
	24	河泊之孫日月之子所生	
	25	之地來□北夫餘大兄冉	
	26	牟□□□公□々□□□	
	37	□夫□□□□□□□□	하백과 해달의 조인 대형 염모가 목숨을 다하니... 장사를 치렀다.
	38	□河泊日月之□□□□	
	39	□□□祖大兄冉牟壽盡	
40	□□於彼喪亡□		

선대 2명 의 사적	40	由祖父	
	41	□□大兄慈□大兄□□	조부의 □□로 말미암아 … 대형 자□와 대형 □□ 가 대대로 관음을 입고, 조의 복도 성민과 곡민을 은혜롭게(내려받고) 아울러 다스려(전왕) 이와 같이 무욕했다.
	42	□世遭官恩恩□祖之□	
	43	道城民谷民并領前王□	
	44	育如此	
44	遷至國冉上大開		
모두루의 사적	45	土地好太聖王緣祖父□	국강상대개토지호태성왕대에 이르러 부모의 □□로 말미암아 노객 모두루와 □□모에서 은혜롭게 교를 내려 령 북부여수사로 보내셨다. 하백의 손자이고 해·달의 아들이신 성왕이… 하늘 이 어여뻐 여기지 않았는데(왕이 들어가셨는데)… 노객은 먼 곳에 있어 애통한 마음이 해가… 못하고 달이 밝히고 못하는 것 같았다. 먼 곳의 □□에 있어 …에 이르러 …교를 내려 태대(큰 무리)가 용약 나이 든 노객에게 교를 내리시어 (대대로) 관음을(입은) … □도로 말미암아
	46	余恩教奴客牟頭婁□□	
	47	牟教遣令北夫餘守事河	
	48	泊之孫日月之子聖王□	
	49	□□□昊天不弔奄便□	
	50	□□奴客在遠哀切如若	
	51	日不□□月不□明□□	
	52	□□□□□□□□□□	
	53	□□□□□國□□□□	
	54	知□□□在遠之□□□	
	55	遷□□教之□□□□□	
	56	□潤太隊踊躍□□□□	
	57	□令教老奴客□□□□	
	58	官恩緣□□道□□□□	
59	使□西□□□□□□□□		
60	窺極言教□心□□□□		
			61~81행 생략

※ 모두루(牟頭婁) 묘지 판독 출처

池內宏·梅原未治, 1938, 『通溝』上, 日滿文化協會.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편, 1992, 『韓國古代金石文』,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여호규, 2019, 「무덤 속 문자에 담긴 고구려인의 정체성」, 『문자와 고대 한국1-기록과 지배』, 주류성.

이준성, 2020, 「牟頭婁 墓誌의 판독과 역주 재검토」, 『목간과문자』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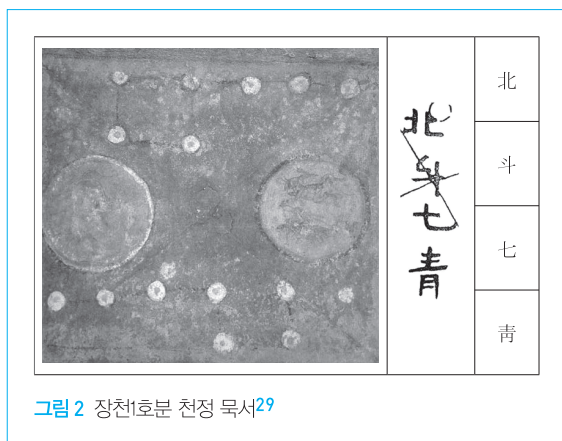
이러한 모두루총의 묘지 내용은 다른 벽화고분의 묘지와는 결을 달리하는, 완전히 고구려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낙랑·대방고지의 안악3호분이나 덕흥리벽화고분의 묘지와는 그 내용과 구성에서 큰 차이가 확인된다. 특히 모두루총 묘지에 적힌 고구려의 시조신화(始祖神話)를 보면, 이러한 묘지의 구성과 작성에 ‘집안고구려비’나 ‘광개토왕릉비’의 서사구조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sup>28</sup> 이는 결국 무덤 내에 피장자의 묘지를 쓰는 문화가 낙랑·대방고지를 거쳐 집안의 국내성 지역에도 상륙하였지만, 그러한 묘지조차도 국내성 지역은 ‘원고구려(原高句麗)’의 묘장문자문화라는 큰 틀 속에서 변용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5세기 전반까지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무덤 내 묘지 문화가 국내성 지역에서 갑자기 등장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 점과 관련하여 평양지역의 무덤 내 묘지 문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두루총의 묘지 성립에 평양지역 묘지 문화가 가장 주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즉, 427년 평양천도를 계기로 두 지역 문화의 만남이 형성되었던 만큼, 이후 서로 주고받은 문화적 영향력이 반영된 것이다.

### Ⅲ. 천도 이후 묘장문자문화의 전이

평양 천도 이후, 국내성과 평양지역의 문화는 서로 길항(拮抗)하면서도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는 고구려 묘장 문화의 변용을 이해하는 데 큰 실마리가 된다. 국내성 지역에서는 장천1호분(長川1號墳)·통구사신총(通溝四神冢)의 목서를, 반대로 평양지역에서는 고산리1호분(高山里1號墳)·개마총(鎧馬冢)의 목서를 주목한다면, 신구(新舊) 문화의 접변이 양 지역에 어떠한 변화를 가

28 여호규, 2019, 앞의 글, 365쪽.



져다주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국내성 지역에는 모두루총 외에도 장천1호분과 통구사신총에 묵서가 남아 있다. 이들은 애초부터 무덤 내 문자문화를 영유하지 않았던 국내성 지역 묘지(墓誌)와 방제(傍題)라는 평양 문자문화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다각도에서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장천1호분은 중국 길림성 집안현 황백향 장천촌(中國 吉林省 集安縣 黃柏鄉 長川村)에 위치한 고구려 벽화고분이다. 장천 분지 동쪽의 낮은 구릉 위에 자리 잡았으며, 1970년 길림성 문물공작대(吉林省 文物工作隊)와 집안현문물보관소에 의해 발굴 조사되었다.<sup>30</sup> 석실봉토분(石室封土墳)으로 무덤 방향은 남쪽으로 37° 기운 서향, 출입문으로부터 연도·전실·통로·현실로 이루어진 이실분이다. 벽화 내용은 인물풍속과 사신도이며, 현실 네 벽과 천장에는 연화(蓮花)를

29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편, 1990, 『조선유적유물도감』 6(고구려편 4), 84쪽, 도판 110.

30 吉林省文物工作隊, 1882, 「集安長川一號壁畫墓」, 『東方考古與歷史』 1;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편, 1990, 앞의 책, 91~112쪽; 전호태, 2000,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 375쪽.



가득 표현하였다.

천장석에는 해(三足烏)·달(蟾蜍)·별자리 등을 그렸는데 그 중앙에 ‘북두칠청(北斗七靑)’이라는 묵서 방제가 남아 있어 주목된다.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견해 없이 대부분 ‘북두칠성(北斗七星)’의 오기로 보고 있다. 하지만 ‘청(靑)’과 ‘성(星)’은 통가자(通假字)가 아닌 만큼, 무덤 축조기술자가 ‘북두칠성’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 받아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무덤연대는 구조와 벽화 내용에 따라 대체로 5세기 중반으로 편년된다.<sup>32</sup>

한편, 통구사신중(通溝四神塚)은 중국 길림성 집안현 태왕향 우산촌(中國吉林省集安縣太王鄉禹山村)에 위치한 고구려 벽화고분이다. 1935년에 처음 조사되었으며, 사신중(四神塚) 혹은 집안서강사신중(集安西江四神塚), 서강60호분(西江60號墳)·통구7호분(通溝7號墳) 등으로 불리다가, 1966년 무덤 구조에 대한 조사와 실측이 재실시되면서 통구고분군 우산묘구 제2112호묘(通溝古墳

31 池内宏·梅原末治, 1940, 『通溝』下, 東京: 日滿文化協會, 도판 85;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편, 1990, 앞의 책, 211쪽, 도판 282.  
 32 池内宏·梅原末治, 1940, 위의 책, 29~36쪽, 도판 69~92;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편, 1990, 위의 책, 211쪽, 도판 282; 전호태, 2000, 앞의 책, 417쪽; 전호태, 2015, 「고구려 장천1호분 연구」, 『고구려발해연구』 52.

群 禹山墓區 第2112號墓)-JYM2112로 정했다. 석실봉토분으로 무덤 방향은 남향, 연도와 현실로 구성된 단실분(單室墳)이다. 벽화 주제는 사신도(四神圖)이나, 문지기·선인(仙人)·해·달 등 기타 여러 도상이 남아 있다. 현실 천장 제 2단 고임에는 복희여와도(伏羲女媧圖)와 함께 괴조(怪鳥) 및 도철(饕餮)이 그려져 있는데, 도철 바로 우측에 ‘담육부지족(噉肉不知足)’라는 묵서 방제가 쓰여 있다. 남아 있는 서체는 남북조 해서와 당해(唐楷)로 보기도 하며,<sup>33</sup> 예서와 해서 사이의 과도적 특징이 보인다고도 한다.<sup>34</sup> 무덤의 연대는 구조와 벽화 내용, 화법 등으로 미루어보아 6세기의 것으로 판단된다.

5세기 중반 이전까지 무덤 내 문자문화가 전무(全無)했던 국내성 지역에서 제대로 된 묘지 방식을 갖춘 모두루총이 제작되고, 난해한 벽화를 설명하기 위한 방제가 남겨진 장천1호분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큰 변화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성에서도 외곽인 하해방(下解放)과 장천(長川) 지역에 벽화고분이 위치한 만큼, 이들을 당시 고구려의 중심묘제라고 할 수는 없다. 게다가 모두루총 묘지는 지극히 고구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장천1호분에도 원고구려적인 요소를 갖춘 벽화가 훨씬 더 눈에 띈다.

하지만 이들은 국내성 지역에서 처음으로 무덤 내 문자를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무덤 벽화에 묵서 방제를 남겼다는 것의 의미는 관람자(觀覽者)를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전까지 무덤 내부를 관람하는 문화가 거의 없었던 국내성 지역 묘장 문화에 큰 지각변동이 온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6세기 이후에 제작된 통구사신총 도철에 묵서 방제가 남겨진 이유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 통구사신총은 사신도 벽화고분 중에서도 강서대묘(江西大墓)에 버금가는 규모와 질을 자랑한다. 하지만 평양지역의 개마총과 마찬가지로 사신도에 대한 방제는 보이지 않고, 천장고임에 일부 난해한 벽

33 고광의, 1999, 「4-7세기 고구려 벽화고분 묵서의 서예사적 의의」, 『고구려연구』 7, 224~225쪽.

34 정현숙, 2018, 『삼국시대의 서예』, 일조각, 7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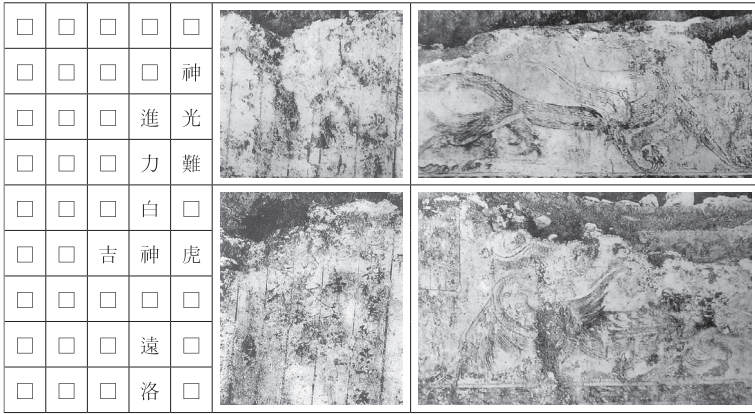


그림 4 고산리호분 현실동벽 청룡도와 목서<sup>35</sup>

화를 설명하는 방제만 확인되고 있다. 이들은 국내성과 평양문화가 융합되고 한참 뒤에 제작되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영향이 잘 반영된 이후의 벽화고분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평양지역에서도 천도 이후 본격적으로 국내성 지역의 원고구려 문화가 유입되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 변용을 일으키게 된다. 특히 5세기 이후 고구려가 추진하던 불교정책과 무덤 내 문자문화가 없었던 국내성 문화의 유입은 평양의 벽화고분 문화를 크게 바꿔놓았다. 5세기 중반 이후 평양지역에 등장하는 연꽃이 가득한 장식무늬 벽화고분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sup>36</sup> 내부 벽화가 매우 단순했던 장식무늬 벽화고분의 등장은 방제의 의미를 퇴색시켰고, 점차 벽화와 방제의 결합이 무의미해져갔다.

그런데 평양지역에 사신도 계열의 벽화고분이 처음 등장하면서 상황은 달라

35 조선유적유물도감편집위원회 편, 1990, 앞의 책, 278~279쪽, 도판 383~389.

36 전호태, 2000, 앞의 책, 129~132쪽; 김근식, 2015, 「고구려 왕자문 벽화고분의 편년과 형성배경」, 『목간과 문자』 14, 29~49쪽.

졌다. 마치 사신도에 익숙하지 않았던 관람자들을 위해, 상세한 설명이 담긴 것 같은 방제가 다시 출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고산리1호분의 목서이다. 목서는 현실 동벽 청룡도와 서벽 백호도의 곁에 남아 있다. 1937년 소장항길(小場恒吉)이 청룡 옆 목서를 ‘□신광난 □□□진력(□神光難 □□□進力)’, 백호 옆 목서를 ‘백신□□ 원락길□(白神□□ 遠洛吉□)’이라 판독을 실행한 이래, 그대로 활용되어왔다.<sup>37</sup> 그러나 2011년에 고산동1호무덤을 발굴하면서 이에 대한 재판독이 행해졌다.<sup>38</sup> 물론 기존 판독과 크게 바뀐 것은 아니지만, 가장 최근에 검토된 판독이라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

이에 따르면 청룡 앞에는 ‘□신광난 □□□진(□神光難 □□□進)’, 백호 앞에는 ‘백신□□ 원락(白神□□ 遠洛)’이 남아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 알려진 고산동1호분 목서의 선본은 소장항길의 보고서에 남아 있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양자를 비교해보면, 보고서에는 제시되고 있는 것과 달리 그 자형이 거의 보이지 않은 목서가 많다. 현재로서는 청룡도(靑龍圖)는 ‘□□광난 □□□□력(□□光難 □□□□力)’, 백호도(白虎圖)에는 ‘호 □신□□ □락 길□(虎 □神□□ □洛 吉□)’ 등의 글자만 확인된다. 해당 방제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정황상 청룡과 백호에 대한 설명이라고 판단된다. 남벽에도 구획을 그은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작도(朱雀圖)와 현무도(玄武圖) 역시 각각 방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해당 방제의 역할은 사신도를 보는 대상, 즉 관람자에게 사신도의 역할과 의미를 알려주기 위한 수단이었다.

다만 특이한 점은 고산리 1호분 이후 사신도 벽화고분에서는 사신을 설명하는 방제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는 이 역시 사신도에 익숙해지면서 방제가 소멸한 것으로 보이며, 벽화고분 내 방제의 기능성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는 6세기 이후 등장하는 고구려 벽화고분에서 새로운 벽화가 등장할 때마다

37 小場恒吉·有光教一, 1937, 『昭和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朝鮮古蹟研究會, 26~27쪽.

38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16, 「고산동1호무덤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16-1, 22쪽.



그림 5 개마총 개마도와 묵서<sup>39</sup>

방제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충분한 개연성을 가진다.

개마총(鎧馬塚)이 고산리1호분과 가까운 지역인 대성구역에 위치한 사신도 벽화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신을 설명하는 방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해준다. 방제는 오히려 현실 동벽 천장고임 1단에 금관을 쓴 묘주가 갑옷 입힌 말을 타러는 장면이 있는데, 이 개마(鎧馬) 앞쪽에 해서로 ‘총주착개마지상(冢主着鎧馬之像)’이라는 묵서가 남아 있다.<sup>40</sup> 개마총의 개마도(鎧馬圖)나 통구사신총의 도철도(饗養圖)는 모든 고구려 벽화고분을 통틀어 처음 등장하는 제재이다.

즉, 관람자들이 벽화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되면, 주저 없이 방제를 남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제의 궁극적인 역할은 새로운 벽화를 처음 접하는 관람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천도 이후 원고구려적인 국내성 문화의 유입과 익숙함의 영역에 접어들게 되면서, 방

39 朝鮮總督府, 1930, 『高句麗時代之遺蹟』圖版下卷(古蹟調查特別報告第五冊), 도판 119.

40 姜昶九, 1995, 「高句麗姜王陵考」, 『韓國上古史學報』 20; 전호태, 2000, 앞의 책, 392쪽, 註96; 小場恒吉, 1927, 「高句麗古墳の調査」, 『昭和11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4~33쪽; 關野貞, 1941, 『朝鮮の建築と藝術』, 岩波書店, 382~387쪽.

제의 활용 가치는 현격히 줄어든다. 그러나 새로운 벽화가 등장할 때마다 계속 사용된다는 점에서, 방제는 ‘소멸(消滅)’된다고보다 잠시 ‘휴지(休止)’된다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

#### IV. 국내성·평양지역의 묘장문자문화와 변용

427년 천도 이후 고구려의 중심지는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는 국내성 지역의 원고구려 문화와 평양지역의 문화가 부딪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특히 가장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장법(葬法)조차 변화를 초래했을 만큼, 두 지역의 문화접변을 야기한 평양 천도는 고구려의 문화사적인 획기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고구려 왕실이 적석총 대신에 석실봉토분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국내성 지역 역시 옛것을 고수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추세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천도를 전후로 양분되어 있었던 국내성과 평양의 벽화고분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고구려 왕실이 향유하고 있었던 묘장 문화인 적석총은 고구려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장법이였다. 당연히 왕실뿐만 아니라, 귀족·관료들 모두 적석총을 자신들의 마지막 안식처로 삼았다. 하지만 평양 천도 이후 고구려 왕실이 묘제를 석실봉토분으로 전환하자, 귀족·관료들 역시 이를 따르기 시작한다. 이는 가까이에서 그 변화를 접했던 평양 인근의 중앙귀족들은 물론, 국내성 지역에 남았던 이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즉, 천도는 고구려 문화의 중심지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겨놓았고, 결국 양자가 결합되는 새로운 문화를 형성시켰다. 그리고 이 문화는 역수입되어 국내성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묘제의 전환과 변용 과정은 고고학적인 증거로도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구려 적석총의 최정점은 국내성에 있는 장군총(將軍塚)이다. 하지만 천도 이후 고구려 묘제에서 거대 적석총의 존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대신 평양지역의 전동명왕릉(傳東明王陵)과 경신리1호분(慶新里1號墳)의 기반부에서 그 구조적 혼재가 나타난다. 이들은 적석총과 석실봉토분을 결합한 것으로 보이는 방대형기단식석실봉토분(方臺形基壇式石室封土墳)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모두 고구려 후기왕릉으로 비정할 만큼 그 규모가 크다.<sup>41</sup> 이는 남하한 국내성의 거대 적석총 축조기술자와 석실봉토분을 제작하던 평양 문화가 만나면서 형성된 산물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변용과 묘제의 혼재는 국내성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보인다. 특히 적석총과 석실이 결합하여 벽화를 남긴 형태인 적석석실벽화고분(積石石室壁畫古墳)은 천도 이전부터 존재해왔다.<sup>42</sup> 하지만 해당 벽화 고분들에서도 역시 무덤 내 문자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성에서의 무덤 내 문자문화의 수용은 5세기 중반에 제작되었던 모두루총과 장천1호분이 그 시발점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모두루총의 묘지는 안악3호분·덕흥리벽화고분의 그것과는 다른 서사 방식을 띠고 있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모두루 묘지의 구성과 작성에는 ‘집안고구려비’나 ‘광개토왕릉비’의 서사 문화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끼쳤다. 또 장천1호분의 경우 벽화는 매우 상세하지만 묘지가 없고, 천장에 간단한 방제인 ‘북두칠청(北斗七靑)’만 확인된다. 통구사신총은 개마총과 마찬가지로 벽면이 아닌 천장고임 일부에 도철 도상을 설명하는 방제만 남겼다. 이는 국내성 지역의 묘지나 방제가 원고구려의 장의 문자문화라는 큰 틀 속에서 변용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모두루총은 덕흥리벽화고분과 크기·구조·묘지 위치 등이 모두 유사하다는 점에서, 둘 사이의 연관성을 상정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물론 실마

41 사회과학원, 1976, 『동명왕릉과 그 부근의 고구려유적』,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9~13쪽;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조선고고학전서』 32, 진인진, 176~178쪽.

42 적석총 가운데 벽화가 확인되는 무덤은 우산하1041호분·우산하3319호분·절천정묘·산성하1405호분·산성하1408호분·산성하725호분·산성하798호분 등 7기가 존재한다. 정호섭, 2011, 『고구려고분의 조영과 제의』, 서경문화사, 141~142쪽.

리가 될 수 있는 벽화의 비교분석이 불가능한 만큼, 양자의 관련성을 감히 확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5세기까지 모지 문화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국내성 지역에서 갑자기 모지가 제작되기 어렵다. 결국 모두루총 모지는 평양지역의 모지 문화가 그 제작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한 추론이라고 생각된다. 평양과 국내성, 두 지역의 교류 과정이나 연관성을 모지와 묵서로만 설명한다는 자체는 무리수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평양과 국내성 지역은 입지·환경·역사 등 제반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문화적 기반 역시 분명히 다르다. 평양 천도 이후 국내성 지역은 수도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지만,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정치적 위상과 그로 인해 형성된 관습·신앙 등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평양지역도 마찬가지였다. 낙랑·대방고지로서 중국적 색채가 강했던 평양지역의 문화와 고구려적 색채가 강했던 국내성 지역 문화가 서로 부딪쳤지만, 이들이 융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평양지역은 한위진벽화고분(漢魏晉壁畫古墳)의 문화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형성된 것이었다면, 국내성 지역은 수목(樹木)과 천신(天神)을 숭배하는 자생적인 문화였다.<sup>43</sup> 고구려 벽화고분의 수용 초기를 잘 생각해 보면, 국내성과 평양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모두 요양 벽화고분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익숙한 문화를 받아들인 중국계 망명인들과 생소한 문화로 여겼던 고구려인들은 그것을 소화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다. 결국 이로 인해 양 지역의 초기 벽화고분은 제작적인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국내성 문화는 무덤 내부를 활용하지 않는 적석총이 주 묘제였기 때문에, 무덤 내부에 문자를 남기는 방식을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것보다는 무덤 크기나 외부의 웅장함을 더 우선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천도 이후 무덤 내 문자를 활용하던 평양문화와 결합하게 되면서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렇듯 평양 천도가 초래한 두 문화의 만남은, 서로 간의 영향 아래 각자의 방식을 취해갔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두 문화의 이질성은 점차 하나로

43 전호태, 1996, 「고구려 각저총벽화 연구」, 『미술자료』 57.

합쳐졌다. 특히 장식무늬와 사신도 벽화고분의 등장부터 시작된 벽화의 제재적 통일은 양 문화의 결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와 반대로 새로운 벽화의 내용을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묵서는 점차 그 기능이 축소되어갔다. 벽화 제재의 통일은 새로운 벽화의 출현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결국 묵서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후 새로운 벽화의 출현은 언제나 묵서의 필요성을 발생시켰고, 고산리1호분·개마총·통구사신총 단계까지 그 역할은 이어졌다.

##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평양 천도를 계기로 평양과 국내성 지역의 묘장 문화에서 나타난 상호 간의 영향 관계와 변화양상을 검토했다. 국내성 지역의 고구려 중심문화는 애초 무덤 내부에 문자를 쓰지 않고, 무덤 밖에 묘비를 세우는 문화였지만 천도를 전후해 평양지역의 묘장과 묵서 문화가 국내성 지역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 단적인 사례가 바로 모두루총이다. 그런데 모두루총 내부에 남아 있는 묘지는 그 내용상, 국내성 지역의 묘비 서사 문화가 보다 강하게 작용하였다. 한편, 평양지역에도 천도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고구려의 중심문화가 전파되었고, 이는 지역의 묘장과 문자문화에도 상당히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 궁극적으로는 평양 지역의 묘장 문화, 특히 무덤 내 묵서 문화의 소멸을 가져온 커다란 변화를 포착하였다.

이에 반해 5세기 중반 이전까지 무덤 내 문자문화가 자생하지 않았던 국내성 지역에, 이를 활용한 모두루총·장천1호분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었다. 특히 이들은 국내성의 중심지에서도 한참 외곽지역에 축조된 만큼, 당시 고구려의 중심모체라고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국내성 지역에 처음으로 무덤 내 문자를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국내성 지역에 관람사 문화를 들인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즉, 이전까지 무덤 안을 관람하는 문화가 없었던 국내성 지역 묘장 문화에 큰 지각변동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강현숙, 2013, 『고구려 고분 연구』, 진인진.  
사회과학원, 1976, 『동명왕릉과 그 부근의 고구려유적』,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조선고고학전서』 32, 진인진.  
여호규, 2004, 『고대로부터의 통신』, 푸른역사.  
전호태, 2000,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  
정현숙, 2018, 『삼국시대의 서예』, 일조각.  
정호섭, 2011, 『고구려고분의 조영과 제의』, 서경문화사.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990, 『조선유적유물도감』 6,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편, 1993, 『조선유적유물도감』 4, 민족문화.  
홍승현·양진성·소현숙, 2019, 『돌, 영원을 기록하다』, 경북대학교출판부.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3, 『集安縣文物志』, 吉林省文化廳.  
勞幹, 1976, 『勞幹學術論文集』, 甲編, 藝文印書館.  
\_\_\_\_\_, 2009, 『中研院历史语言研究所集刊论文类编-民族与社会编』 1, 中華書局.  
  
關野貞, 1941, 『朝鮮の建築と藝術』, 岩波書店.  
小場恒吉, 1927, 「高句麗古墳の調査」, 『昭和11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小場恒吉·有光教一, 1937, 『昭和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朝鮮古蹟  
研究會.  
朝鮮總督府, 1930, 『高句麗時代之遺蹟』 圖版下卷(古蹟調査特別報告第五冊), 朝鮮總督府.  
池内宏·梅原末治, 1938, 『通溝』 上·下, 日滿文化協會.

## 논문

- 姜昇九, 1995, 「高句麗姜王陵考」, 『韓國上古史學報』 20.
- 강진원, 2013, 「신발견 <집안고구려비>의 판독과 연구 현황」, 『목간과 문자』 11.
- 耿鐵華, 2000, 「冉牟墓誌와 中原高句麗碑」, 『고구려발해연구』 10.
- 고광의, 1999, 「4-7세기 고구려 벽화고분 목서의 서예사적 의의」, 『고구려연구』 7.
- 김근식, 2015, 「고구려 왕자분 벽화고분의 편년과 형성배경」, 『목간과 문자』 14.
- \_\_\_\_\_, 2021a, 「덕흥리벽화고분의 ‘觀者’목서와 ‘觀覽者’」, 『한국고대사연구』 101.
- \_\_\_\_\_, 2021b, 「안악3호분의 연원과 ‘무덤 내 문자’」, 『중앙사론』 54.
- 노태돈, 1992, 「牟頭婁墓誌」, 『韓國古代金石文1』,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박아림, 2012a, 「고구려 벽화고분의 帷帳의 설치와 기능」, 『고구려발해연구』 44.
- \_\_\_\_\_, 2012b, 「고구려 벽화의 장식 문양과 유장의 표현」, 『고구려발해연구』 43.
- 朴眞奭, 1995, 「牟頭婁 墓誌에 대한 몇가지 문제」, 『中國境內 高句麗遺蹟 研究』, 예하.
- 박찬규, 2005, 「집안지역에서 최근 발견된 고구려 문자자료」, 『고구려발해연구』 19.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16, 「고산동1호무덤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16-1.
- 여효규, 2014, 「광개토왕릉비의 문장구성과 서사구조」, 『영남학』 25.
- \_\_\_\_\_, 2016, 「한중일 3국 학계의 집안고구려비 연구동향」, 『동방학지』 177.
- 이준성, 2020, 「牟頭婁 墓誌의 판독과 역주 재검토」, 『목간과 문자』 25.
- 전호태, 1996, 「고구려 각저총벽화 연구」, 『미술자료』 57.
- \_\_\_\_\_, 2015, 「고구려 장천1호분 연구」, 『고구려발해연구』 52.
- 정호섭, 2010, 「고구려 벽화고분의 명문과 피장자에 관한 제문제」, 『고구려발해연구』 36.
- 최남선, 1954, 「高句麗, 牟頭婁墓誌」, 『增補三國遺事』, 民衆書館.
- 최일례, 2017, 「모두루 묘지명에 투영된 5세기 정치세력」, 『한국고대사연구』 85.
- 吉林省文物工作隊, 1882, 「集安長川一號壁畫墓」, 『東方考古與歷史』 1.
- 勞幹, 1944, 「跋高句麗大兄冉牟墓誌兼論高句麗都城之位置」, 『歷史言語研究集刊』 11.
- 武田幸男, 1981, 「牟頭婁一族と高句麗王權」, 『朝鮮學報』 99·100.
- 奥田尚, 2000, 「鄒牟王物語をめぐる二三の問題—好太王碑文と牟頭婁墓誌の鄒牟王物語—」, 『アジア文化學科年報』 3.

佐伯有清, 1977, 「高句麗牟頭婁塚墓誌の再檢討」, 『史朋』 7, 北海島大學文學部.  
池内宏, 1937, 「高句麗人牟頭婁の墓と墨書の墓誌」, 『書苑』 1-8, 法書會.



## 평양천도 후 고구려 묘장문자문화의 전이와 변용

김근식

이 글은 고구려의 평양 천도를 계기로 발생한 지역 간 묘장 문화의 영향 관계와 변화를 검토한 것이다. 이에 평양과 국내성 지역, 상호 간 영향 관계의 추이를 분석하고 그 변용을 살펴보았다. 국내성 지역의 원고구려적인 문화는 애초부터 무덤 내부에 문자를 남기는 문화가 없었다. 하지만 천도를 기점으로 평양지역의 묘장과 묵서 문화가 국내성 지역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그 문화적 변용이 일어났다. 특히 모두루총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지니는데, 국내성 지역에 처음으로 무덤 내 문자문화를 안착시켰기 때문이다. 모두루총은 국내성의 중심지에서도 한참 외곽지역인 하해방 지역에 축조된 만큼, 당시로서는 국내성 지역의 중심묘제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평양지역 묘장 문화였던 묘지 방식이 모두루총 내부에서 확인되는 만큼, 국내성 지역에 관람자 문화가 유입된 사례로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로 판단하였다. 한편, 이 무렵 원고구려적인 국내성 문화도 역시 전파되어, 평양지역의 묘장과 묵서 문화의 상당히 큰 변화를 이끌었다. 이는 결국 평양지역의 묘장 문화, 특히 무덤 내 문자문화의 소멸(消滅)을 초래하게 된다.

**주제어:** 평양 천도, 모두루총, 관람자, 묘장, 원고구려

## ABSTRACT

# Acculturation and Spread of Koguryo Tomb Character Culture after Move to Pyongyang

Kim Keunsik

In the paper, After Koguryo moved its capital to Pyongyang, we looked at the extent to which the tomb culture in Pyongyang and Ji'an, the original capital of Koguryo, were influenced and changed. In the Ji'an area, there was originally no culture of writing ink writings inside tombs. However, after moving the capital to Pyongyang, the tomb culture in Pyongyang came into the Ji'an area and even the Ji'an area was forced to write ink writings inside the tomb. On the other hand, the Ji'an area's culture spread to Pyongyang, bringing about a major change in the cemetery culture and ink writing culture. This eventually led to the disappearance of ink writings from the grave culture in Pyongyang.

**Keywords:** Move to Pyongyang, Moduru of tumb, audience, tomb, Originally Koguryo

# 고려 '동번(東蕃)' 여진문제의 국제환경과 정벌 추진세력의 구상

추명엽 | 홍익대학교 역사교육과 초빙교수

- I. 머리말
- II. 1080년 동번 정벌의 의미와 국제환경
- III. 여진문제의 전개와 고려의 개전 결정 과정
- IV. '숙종서소(肅宗誓疏)'와 여진정벌 추진세력의 구상
- V. 맺음말



## I. 머리말

고려의 여진정벌 연구는 일제강점기 초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지명 중심으로 진행되었고<sup>1</sup> 광복 이후 그 지명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sup>2</sup>가 진행되어 기초적인 이해가 상당히 축적되었다. 이와 함께 여진정벌은 여진과의 관계나 대외정책 속에서 검토되거나<sup>3</sup> 고려의 정치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검토되면서<sup>4</sup> 이후 여진정벌을 정치와 대외관계의 양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가 제기되어<sup>5</sup> 전체적인 이해의 골격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6</sup> 이후 연구는 개별적

---

\* 투고: 2023년 1월 16일, 심사 완료: 2023년 2월 7일, 게재 확정: 2023년 2월 13일

- 1 津田左右吉, 1913, 「尹瓘經略地域考」, 『朝鮮歷史地理』 II; 池內宏, 1922, 「完顏氏の曷懶甸經略と尹瓘の九城の役」,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9卷; 稻葉岩吉, 1931, 「高麗尹瓘九城考」, 『史林』 16-1.
- 2 尹武炳, 1958, 「吉州城과 公嶮鎮」, 『歷史學報』 10; 金九鎮, 1976, 「公嶮鎮과 先春嶺碑」, 『白山學報』 21; 方東仁, 1976, 「尹瓘九城再考」, 『白山學報』 21; 金九鎮, 1977, 「尹瓘九城의 범위와 朝鮮六鎮의 개척」, 『史業』 21·22; 方東仁, 1980, 「高麗의 東北地方境域에 관한 研究」, 『嶺東文化』 創刊號.
- 3 金庠基, 1959, 「여진관계의 始末과 윤관의 北征」, 『국사상의 제문제』 4; 金南奎, 1996, 「高麗中葉의 對女眞政策-宣宗·肅宗代를 중심으로」, 『가라문화』 13; 金南奎, 1997, 「高麗 睿宗代의 對女眞政策」, 『慶大史論』 10; 李貞信, 2003, 「江東6州와 尹瓘의 9城을 통해 본 고려의 대외정책」, 『軍史』 48.
- 4 金光洙, 1977, 「高麗前期 對女眞交涉과 北方開拓問題」, 『東洋學』 7; 鄭修芽, 1988, 「尹瓘勢力의 형성」, 『진단학보』 66; 金塘澤, 2000, 「高麗 肅宗·睿宗代의 女眞征伐」, 『全海宗博士八旬紀念論叢』.
- 5 秋明燁, 2001, 「11世紀後半~12世紀初 女眞征伐問題와 政局動向」, 『韓國史論』 45.
- 6 최근에 여진정벌 연구사는 왕권강화론과 9성 위치론으로 정리되어 연구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김아네스, 2014, 「고려시대 북방민족과의 전쟁사론」, 『남도문화연구』 26, 179~186쪽). 이와 관련해 왕권강화는 현상적으로 존재했던 것이고 이에 내재된 구상과 의도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 측면에서의 각 주제별 연구로 심화되어갔다.

윤관의 '9성' 축성이 당시 전쟁상황과 이전의 기미주 편제 속에서 구체적으로 파악되어 연구되었고<sup>7</sup> 여진정벌을 '고려-여진 전쟁'으로 표현하면서 이를 제1차~3차 전쟁으로 나누어 파악한 연구도 제기되었으며<sup>8</sup> 동북 9성 환부의 배경을 거란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한 연구도 제기되었다.<sup>9</sup> 이와 같이 여진정벌 관련 연구성과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축적되어 이해의 지평을 열었지만, 여전히 의문 되는 점이 많다.

먼저 11세기 후반~12세기 초 고려 북방지역에서는 고려와 여진, 요(거란) 등이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에도 고려의 여러 차례에 걸친 여진정벌에 대해 요의 직접적인 개입 사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진이 간헐적으로 요에 조공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이는 고려와 여진의 관계에 대해 요가 일정한 원칙을 가졌음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여진정벌을 둘러싼 국제환경을 통해 입증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진족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려가 국경시대 밖으로 선제공격했다는 점은 앞선 연구<sup>10</sup>에서도 주목된 사실인데 이는 고려가 여진문제에 대해 일관된 원칙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선 연구에서 고려와 여진 사이의 위계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난 '국치(國恥)'의 형성과 해소를 중심으로 여진정벌이 연구된 바<sup>11</sup> 있지만, 문종대 '동변' 정벌까지 일관된 논리로 설명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문종대 여진정벌과 이후 숙종·

7 宋容德, 2011, 「1107~1109년 고려의 葛懶甸 지역 축성과 '尹瓘 9城' 인식」, 『韓國史學報』 43; 宋容德, 2012, 「고려의 一字名 靑州 편제와 尹瓘 축성」, 『한국중세사연구』 32.

8 김순자, 2012, 「고려중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고려-여진 전쟁」, 『한국중세사연구』 32.

9 윤경진, 2017, 「고려 예종대 동북 9성 환부의 경위와 배경」, 『震檀學報』 128.

10 김순자, 2012, 앞의 글, 37쪽.

11 秋明燁, 2001, 앞의 글.

예종대 여진정벌을 일관된 논리로 살펴보면서도 그 단계별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치’의 형성과 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여진정벌은 해동천하의 역내 질서화<sup>12</sup>를 배경으로 하여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려는 여진으로부터 조공을 받던 위치에 있다가 1104년(숙종 9) 여진과의 교전과 패전 이후 강화를 맺었는데 당시 집권층은 이를 ‘국치’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국치’ 인식은 11세기 이래 고려 해동천하의 영향권 인식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그런 배경 위에서 여진정벌 추진세력의 구상과 지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II. 1080년 동번 정벌의 의미와 국제환경

### 1. 11세기 후반 고려 동번의 정세 변화와 1080년 정벌의 전개

고려의 여진문제는 여진에 대한 규제와 조정, 기미주 경영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타났다. 현종대 이래 여진지배가 점차 제도·체제화되었지만, 여진의 독립 세력화 진전도 아울러 초래하였다. ‘동번적(東蕃賊)’과 완안부(完顔部) 세력의 성장이 바로 그것이며 그것이 여진문제의 실체이기도 하였다.<sup>13</sup> 1073년(문종 27) 이후 여진문제는 점차 표면화되었는데 이는 동번과 서번(西蕃) 양측으로 기미주의 고려 편입 강화 및 영역 확대 속에서 나타나 양면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다.

1073년 2월에 동여진(東女眞)의 귀순주·익창주·전성주·공주·은복주·온주·성주 도령(都領)과 장군 등이 무리를 끌고 내부(內附)하면서 군현 되기를 요

12 秋明燁, 2005, 「高麗時期 海東 인식과 海東天下」, 『韓國史研究』 129; 추명엽, 2022b, 「8~11세기 해동천하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3 秋明燁, 2001, 앞의 글, 125쪽.

칭하여 각각 고려식 이름을 주고 관작과 물품으로 대우하였는데<sup>14</sup> 이는 기미주의 고려 편입 강화를 의미하였다.<sup>15</sup> 이어서 같은 해 4월에 제서(制書)를 통해 “동북변(東北邊) 15주 밖의 번인(蕃人)들이 서로 이어 귀부하면서 군현 설치 요청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으니 이는 실로 종묘사직의 영령에 힘입은 것이다”라면서 원근의 요청을 기다린 후 주현을 정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기미주의 영역 확대였다.<sup>16</sup> 그러자 같은 해 5월에 서북면병마사가 상주하기를, 서여진(西女眞) 추장 등 제번(諸蕃)이 동변의 예에 근거하여 주군을 설치해준다면 영원히 번병이 되어 거란의 번인과는 교통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였는데 이것도 역시 기미주의 영역 확대였다.<sup>17</sup>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를 배경으로 고려 장성 너머 지역에서 여진세력 간에 군사적 충돌과 고려의 기미주 확정이 동시에 일어났다.

1073년(문종 27) 5월에 서북면병마사의 상주에 따르면 평로진 근처의 번수(蕃帥)인 유원장군(柔遠將軍) 골어부(骨於夫)와 멩해촌(覓害村)의 요결(要結) 등이 화내(化內)의 삼산촌(三山村) 중윤(中尹)인 야서로(夜西老) 등 30도(三十徒) 추장을 설득하여 자신의 원수인 삼산(三山) 아방포(阿方浦) 부근의 지역세력을 군사적으로 공격한 사건이 있었다.<sup>18</sup> 여기서 골어부 등은 1069년(문종 23)에 고려에 내조하여 관직을 받은 인물이고 30도 추장은 고려와 맹약을 체결한 30부 여진세력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골어부 등이 고려를 배후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사건이었는데<sup>19</sup> 서북면병마사는 이 사건에 개입했던 번군(蕃軍)과

14 『高麗史』卷9 世家9, 文宗 27年 2月 乙未.

15 1038년 무렵에 이미 威雞州와 같은 二字 州名의 기미주가 운영되고 있었고 1073년경에는 一字名 기미주가 등장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는 고려 내지에 설치된 州의 명칭과 같이 一字 州名을 사용하여 명목상 고려의 내지 군현과 같이 대우하려 한 방안으로 해석한 연구(宋容德, 2012, 앞의 글)가 있어 참조된다.

16 『高麗史』卷9 世家9, 文宗 27年 4月 丙子.

17 『高麗史』卷9 世家9, 文宗 27年 5月 丁未.

18 『高麗史』卷9 世家9, 文宗 27年 5月 丁未.

19 현재 함경도 북청 부근으로 추정되는 삼산촌의 지역세력이 아방포 부근을 공격한

낭장(郎將) 문선(文選) 등에 대한 표창을 고려 조정에 상주하였다.

이에 대해 문하시중 최유선 등 13인이 논의한 결과 삼산촌적(三山村賊)은 본래 고려 변경을 침범하는 세력이 아니고 ‘번군’ 등은 고려 조정의 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적인 복수를 한 것이니 포상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따르게 되었다. 여기서 최유선 등 13인은 재추 중심의 논의였을 것이며 표면상 사적 복수가 행해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와 같은 사건 처리는 고려 정부가 장성 너머 동·서번 지역에서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중립적인 관망 정책을 취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정치적 효과로 고려 중심의 질서 약화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일단 장성 너머 동북변의 귀순 요청은 계속 이어졌다.

동북면병마사의 상주에 따르면 삼산, 대란, 지ضل, 소을포촌, 대지ضل, 소지ضل 등 동북변 700리에 걸친 ‘제번’의 귀순 요청이 이어지면서 부적(附籍) 및 주호(州號) 정하기와 주기(朱記) 사여가 이루어졌으며<sup>20</sup> 그 결과 같은 해 9월에 동여진의 대란 등 11개 촌을 11개 주로 편성한 후 주기를 사여하면서 귀순주에 예측시켰다.<sup>21</sup> 그런데 두룡골이(豆龍骨伊) 등 조근(朝覲)하지 않던 여파한령(餘波漢嶺) 밖의 ‘제번’도 귀복(歸服)하여 모두 주현이 되기를 요청했는데 모두 요새를 설치하기 어려워 점차 ‘원번(遠蕃)’에 이르게 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여 이를 수용하였다.<sup>22</sup> 정리하면 여파한령 너머 동북변 700리에 걸친 지역의 기미주화가 진행되었고 여파한령 밖 ‘제번’의 기미주화도 예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23</sup>

---

사건에 대해 삼산촌 세력은 고려와 전통적으로 우호관계에 있던 장백산 여진과 관련 있고 아방포 부근세력은 포로모타부와 관련되어 양자 간의 세력충돌이 배경에 있다고 하면서 이 시기 고려의 영향력 확대 속에서 후자의 세력이 약화되어 갔다고 본 연구가 있어 참조된다(정요근, 2012, 「11세기 동여진 해적의 실체와 그 침략 추이」, 『사학연구』 107, 79~81쪽).

20 『高麗史』 卷9, 世家9 文宗 27年 6月 戊寅.

21 『高麗史』 卷9, 世家9 文宗 27年 9月 甲辰.

22 『高麗史』 卷9, 世家9 文宗 27年 6月 乙未.

23 앞선 연구에서 여파한령은 조선의 기록을 바탕으로 현재의 마천령으로, 두룡골이는

마천령 너머 ‘제번’의 귀복까지 진행된 것은 완안부세력의 성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sup>24</sup> 두만강 너머 지역으로 완안부세력의 확장이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마천령과 두만강 사이 ‘제번’ 세력은 고려를 향한 귀복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물론 그 지역의 모든 세력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아닐 것이고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이 있었을 것이다. 완안부세력의 확장은 여진과 거란의 관계 추이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

〈표 1〉은 거란 성종의 고려 공격 시점인 1010년(현종 1) 이후 ‘여진국(女眞國)’의 조공 및 침입 관련 사실을 정리한 것이다. 당시 모든 사실이 포함된 것은 아니겠지만 추세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보면 1010년 직후 몇 년 동안 여진국의 조공이 진행되다가 사라진 후 침입까지 등장하다가 1071년(문종 25)에 진공(進貢)이 있는 이후 1080년(문종 34)부터 집중적으로 조공이 재개되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여진국의 조공은 완안부세력의 확장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부족세력의 규합은 부족 밖의 강대한 세력에 대한 외교권 확보와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여진국의 거란 조공이 집중되기 시작하는 1080년(문종 34) 시점에 고려의 ‘동변’에서 변란이 일어났다고 하여 고려 정부는 보병과 기병 3만을 동원해 진압하였다.<sup>25</sup> 이는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고려의 이와 같은 대대적인 군

---

鍾城으로 비정되었고(方東仁, 1976, 앞의 글, 150쪽), 이후 연구에서 동북변 700리 지점은 대략 마천령 이북의 길주, 명천 일대로 추정되었고 豆龍骨伊는 鍾城 지역으로, 餘波漢은 마천령 일대로 역시 비정되었다(宋容德, 2012, 앞의 글, 86쪽).

- 24 문종대 동북변 여진의 동요는 완안부 발흥의 영향이라는 점은 일찍부터 언급된 바 있다(金庠基, 1959, 앞의 글, 85~88쪽). 完顔部勢力的의 확장은 烏古酒(景祖)가 完顔部長으로 있을 때였고 그들 세력이 統門水, 즉 두만강 유역까지 세력이 미친 것이 1073년(문종 27) 전후였음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앞서 정리된 바 있다(秋明燁, 2001, 앞의 글, 82쪽).
- 25 『高麗史』卷9 世家9, 文宗 34年 12月, “東蕃作亂, 以中書侍郎平章事文正判行營兵馬事 同知中樞院事崔奭 兵部尙書廉漢爲兵馬使 左承宣李顥爲兵馬副使 將步騎三萬 分道往擊之 擒斬四百三十一級.”

〈표 1〉 1010~1100년 여진국의 대(對)거란 조공 및 침입 자료(〈요사〉 권70 표8 속국표 참조)

연도	내조(來朝)	내공(來貢)	진공(進貢)	침입	비고(주제)
1012(현종 3)	1				女眞國 太保 蒲撚  등
1014(현종 5)		1			女眞國
1015(현종 6)		1			女眞國
1033(덕종 2)		1			女眞國 詳穩 臺押
1040(정종 6)				1	女眞國人
1047(문종 1)		1			女眞國
1071(문종 25)			1		女眞國
1080(문종 34)		1			女眞國
1081(문종 35)			1		女眞國
1084(선종 1)			1		女眞國
1086(선종 3)		1			女眞國
1087(선종 4)		1			女眞國
1090(선종 7)			1		女眞國
1095(현종 1)		1	1		女眞國
1100(숙종 5)		1			女眞國

사 동원은 거란과의 전쟁 이후 거의 처음이었다. 정주(定州)에 주둔했던 3만 군대가 야음을 틈타 진격하여 다음 날 공격하는 형태를 취하였는데 거수(渠帥) 39인을 사로잡고 부락 10여 곳을 대파하는 전과를 거두었다.<sup>26</sup> 군대는 중서시랑평장사 문정이 판행영병마사로서 지휘하였고 동지중추원사 최석과 병부상서 염환이 병마사로서, 그리고 좌승선 이의가 병마부사로서 참여하였다.

26 동변이 난을 일으킨 곳은 함흥 부근이었을 것이라는 언급(金庠基, 1959, 앞의 글, 162쪽)이 일찍부터 있었다. 최근 군대의 행군 시간을 半日程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부락의 위치를 함흥 일대로 비정하여 확인한 바도 있다(宋容德, 2012, 앞의 글, 88쪽).

1080년 동변 정벌이 중앙정부 재추가 지휘한 전쟁 수준의 대대적인 군사 동원이었음에도 1080년을 전후로 하여 고려와 요의 외교를 보여주는 사실 자체가 거의 없다. 1079년(문종 33)과 1080년 모두 고려에서 요로 사신을 파견한 기록이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1079년과 1080년 12월 모두 요가 보낸 생신사 기록만 보인다.<sup>27</sup> 고려는 동변 정벌 이후인 1081년(문종 35) 5월에 요로 정기 사신을 파견하였다.<sup>28</sup> 물론 사신 파견이 모두 기록되는 것은 아니었기에 관련 사실이 없었을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전례 없는 군사 동원이 있었음에도 관련 기록이 없다는 것은 고려 측에서 요를 크게 의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고려의 동변 정벌이 고려 해동천하의 영향권과 관련된 독자의 정책적 결정이었음을 보여준다.<sup>29</sup>

## 2. 고려 해동천하의 영향권 인식과 ‘동변’ 정벌의 의미

고려의 동변 정벌에 대한 요의 묵인 배경은 고려 해동천하의 영향권 형성과 관계가 깊다. 거란은 성종(聖宗) 초에 여진을 공략하면서 수시로 고려 북쪽 경계지역을 통과하였던 것에 비해 1026년(현종 17)에는 거란이 동북여진을 공략하기 위해 길을 빌려달라고 고려에 요청하였지만 고려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sup>30</sup> 이후 고려 덕종 때에 거란과 갈등이 심화되었다가 1039년(정종 5) 거란의 고려 국왕 책봉을 수용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었다.

27 『高麗史』卷9 世家9, 文宗 33年 12月; 『高麗史』卷9 世家9, 文宗 34年 12月.

28 『高麗史』卷9 世家9, 文宗 35年 5月.

29 1080년 정벌 대상은 ‘동변’으로 명시되어 있어 당시 ‘동변’의 의미와 깊은 관계가 있다. 당시 고려 측에서 북방 제종족을 ‘번(蕃)’으로 칭할 때 그 번은 주로 번명으로 서의 이역 봉신·제후의 의미와 관련된 일정지역의 정치사회를 가리켜 고려 국왕이 ‘해동천자’로 자임하는 배경이 되었다는 연구가 앞서 제기된 바 있다(추명엽, 2002, 「고려전기 ‘번(蕃)’ 인식과 ‘동·서번’의 형성」, 『역사와 현실』 43).

30 추명엽, 2005, 앞의 글, 53쪽; 『高麗史』卷5 世家6, 顯宗 17年 閏5月 甲子, “契丹遣御院判官耶律骨打來請假途將如東北女眞不許.”

거란의 1039년 책왕(冊王) 관련 문서 등에는 고려 해동의 영향권에 대한 인식과 목인이 담겨 있었다.<sup>31</sup> 고려 정종을 중국 제 환공과 진 문공에 비기면서 고려가 ‘동역(東域)’,<sup>32</sup> 즉 해동에서 패자(霸者)임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 앞의 문장에 “밖으로는 (고려) 왕국에 오로지 정벌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하였다”<sup>33</sup>라는 서술이 있어 동역의 정벌 권한을 인정하였다. 이어 같은 글에서 “현도(玄菟)를 전부 책봉하니”<sup>34</sup>라는 서술을 통해 고려와 고구려의 관련성을 표현하였다.<sup>35</sup> 고려 정부에서 최소한 현종대 전후로 ‘현도’는 고려를 뜻하였다.<sup>36</sup>

거란은 문종 책왕 문서에도 정벌 권한을 부여하는 문장을 서술하였다. 1047년(문종 1) 책문에서 “돌아보건대 마한 땅은 본래 용절(龍節)의 나라로 칭해졌으며 대대로 왕의 봉작을 세습하여 품계와 작위가 높았다. 옥새와 인끈을 내려 제후 중 영달하였음을 표시했고, 붉은 활과 검은 활을 주어 사방 정벌을 오로지 할 수 있게 하였다”<sup>37</sup>고 서술한 것이다. 여기서 마한 땅의 고려는 제후로서 사방 정벌을 오로지 할 수 있는 나라로 표현되었다. 정종 책문의 ‘전정(專征)’과 문종 책문의 ‘전정(顯征)’은 동일한 뜻으로서 정벌을 오로지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31 추명엽, 2022b, 앞의 글, 278~280쪽.

32 『高麗史』 卷6 世家6, 靖宗 5年 4月 辛酉.

33 『高麗史』 卷6 世家6, 靖宗 5年 4月 辛酉, “外則付王國專征之柄.”

34 『高麗史』 卷6 世家6, 靖宗 5年 4月 辛酉, “玄菟全封.”

35 거란 성종은 고려를 신라 혹은 辰卞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하였고 흥종대에도 그런 인식은 지속되었지만 고려를 지칭하면서 고구려와 관련 있는 현도 또는 마한을 언급하는 등 변화가 있었으며 도종과 천조제 때에는 고려의 고구려계승인식이 좀 더 명확해졌다는 연구(허인욱, 2008, 「高麗의 歷史繼承에 대한 契丹의 認識變化와 領土問題」, 『한국중세사연구』 24)가 있어 참조된다. 같은 글에서 “玄菟全封”을 단순한 수사어구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언급이 있지만, 수사에 새롭게 담긴 의미는 고려와 거란의 변화된 맥락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6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即位年 12月 丙申, “教曰 朕忝承祖業 恭紹丕基 御玄菟之封疆 奉皇天之眷命.”

37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1年 9月 壬午, “其冊曰 眷乃馬韓之地 素稱龍節之邦 代襲王封 品高人爵. 分頒金盃 表榮冠於諸侯 申錫彤旅 得顯征於四履.”

이어 1049년(문종 3) 거란의 책문에서도 “아아! 주나라는 붉은 활을 사여하여 더욱 정벌을 오로지 할 수 있는 권세를 두터이 했고, 한나라는 도끼를 주어 더욱 번병(翰藩)의 권한을 크게 하였으니 고금에 걸쳐 서로 바라보는 은총은 이와 같다”<sup>38</sup>라고 하여 앞서 정종 책문의 ‘전정지병(專征之柄)’이 붉은 활과 관련해 주나라의 고사에 근거하고 있음을 내용상 연이어 언급하였다. 게다가 이때는 실제로 관(冠), 검(劍) 등이 사여되었음이 차복(車服), 인수(印綬), 의대(衣帶), 필단(匹段), 안마(鞍馬) 등과 함께 사여 물품 목록을 통해 확인된다.<sup>39</sup>

여기서 정벌 권한을 부여한 주체는 명목상 거란이었지만, 이는 사실상 고려 영향권의 묵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1039년 이전의 거란 책문에서는 이와 유사한 문장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는 고려와 거란 사이의 변화된 관계를 반영한 것이었다. 동시에 거란의 자체적인 변화도 배경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거란은 대체로 흥종대(1031~1055)가 성쇠의 전환기로 평가된다.<sup>40</sup> 흥종대 이후부터 권력 핵심부에서 정변이 일어나 불안정해졌고 군역의 부담 속에서 각 지역의 반란이 종종 일어났다. 그런 가운데 거란은 송과의 관계에 국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컸다. 따라서 거란은 흥종 이후 고려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요사』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진의 조공 기사는 보여도 1079년과 1080년 기록에 고려 관련 기록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에 동변 정벌이 있었던 1080년 11월에 요에서는 여러 신하를 불러 정사를 의논하였고<sup>41</sup> 같은

38 『高麗史』卷7 世家7, 文宗 3年 1月 乙巳, “冊曰 … 於戲! 周賜彤弓 尤重專征之柄 漢頒玄鉞 益雄作翰之權 今古相望 寵靈若是.”

39 『高麗史』卷7 世家7, 文宗 3年 1月 乙巳, “今差使千牛衛上將軍蕭惟德 副使御史大夫王守道 持節備禮冊命 并賜車服·冠劍·印綬及衣帶·匹段·鞍馬諸物 具如別錄 到可祇受.”

40 李桂芝, 1996, 『辽金簡史』, 福建人民出版社, 109~112쪽; 李錫厚·白濱, 2003, 『辽金西夏史』, 上海人民出版社, 57~63쪽.

41 『遼史』卷24 本紀24, 道宗 大康 6年 11月 癸卯, “召群臣議政.”

해 12월에 도종은 압록강 너머 혼동강으로 행차하였다.<sup>42</sup> 도종의 혼동강 행차는 종종 있는 것이어서 이는 고려의 움직임과 직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신하를 불러 정사를 의논한 사실은 그 의논 내용을 알 수는 없어도 도종대에 거의 유일한 이례적인 기록이고 시기적으로는 1080년 12월에 있었던 고려의 동변 정벌 직전이어서 관련 없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1080년 당시 요 조정에서는 논의할 만한 중요 사건도 기록된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당시 여진의 조공 사실과 연결시켜 이해한다면 요 측에서 고려의 움직임에 무관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추측된다.

고려 조정에서는 동변 정벌의 승첩 소식에 칙서(勅書)를 내려 “근래 변사(邊事)가 끊이지 않아 밤낮으로 근심하였는데 지금 상주한 바를 살펴보니 좋은 계획으로 오랑캐를 항복시키고 백성들의 해로움을 제거하여 집(朕)으로 하여금 동쪽지역을 주시해야 하는 근심을 없앴으니 오직 그대의 공이다”라면서 문정은 공신호 수여와 함께 장연현 개국백의 봉작이 이루어졌고 최석 등에 대해서도 포상이 주어졌다.<sup>43</sup>

칙서를 통해 동변 ‘작란(作亂)’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배경이 드러나고 있는데 당시 변사가 끊이지 않아 ‘동고지우(東顧之憂)’라고 표현된, ‘동쪽지역을 주시해야 하는 근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고려 정부가 동북지역 변방의 변란에 대해 계속 주시하면서 근심하였음이 칙서와 같은 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표방된 점이 주목된다. 작란의 전개를 보면 거의 일방적인 형태로 전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고려의 역내 질서 유지를 위해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080년 정벌은 고려 동변 기미주 질서의 안정화 차원임을 잘 알 수 있다.

1080년의 동변 정벌은 이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듬

42 『遼史』卷24 本紀24, 道宗 大康 6年 12月 戊子, “如混同江.”

43 『高麗史』卷9 世家9, 文宗 34年 12月; 『高麗史』卷95 列傳8 文正, “勅曰 近緣邊事未息 宵旰軫慮. 今省所奏 婉畫降戎 掃除民害 使朕無東顧之憂 惟乃之功.”

해인 1081년(문종 35) 2월 동변과 서변 여진의 내조에 대한 조정의 강한 규제가 이루어졌다.<sup>44</sup> 제서를 통해 “모든 동·서추장으로서 내견(來見)하려는 자는 병마사가 보고하여 선지를 받은 후에야 대궐에 이르게 허용하고 이를 항구적인 제도로 삼게 하라”고 하였다.<sup>45</sup> 이어서 같은 해 2월의 제서를 통해 “지난겨울 12월에 동북로의 추악한 오랑캐를 하루아침에 소멸시켜 변방 재앙의 기운이 크게 맑아졌으니 이는 모두 위로는 종묘의 위령에 힘입은 것이고 아래로는 여러 통솔자의 뛰어난 전략에 의지한 것이다. 지금 이미 개선하여 귀환하였으므로 마땅히 태묘와 6릉에 고해야 하니 날을 정해 행사하라”<sup>46</sup>고 공표되어 동변 정벌의 성과가 공식화되었다. 정벌된 대상을 ‘용추(戎醜)’라고 지칭하면서 하루아침에 ‘소멸’시켰다고 강하게 표현하고 태묘와 6릉에 고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은 당시 고려 정부에서 여진문제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시 고려의 동변 정벌은 동·서변으로서 내조하며 고려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위계질서 유지 단계의 정벌전으로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동변 정벌의 성공에 따라 정책 수행의 중심인물이었던 문정에 대한 봉작과 함께 최석은 이부상서 참지정사로 승진하였다.<sup>47</sup> 문정은 1093년(선종 10)에 문하시중으로 치사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sup>48</sup> 또한 이의도 1081년(문종 35) 12월

44 여진 내조의 규제와 관련해 1081년에 내조 희망 여진의 입경 절차가 공식적으로 법제화되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국인의 내조 절차에 대한 지침이 제도로 정착되었다는 연구가 앞서 제기된 바 있다(李美智, 2015, 「고려 전기 異國人入境의 유형과 실상-來獻·來朝·來投·來附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43, 60~62쪽). 이 글과 초점을 달리해 본고에서는 동·서변의 내조 절차가 강한 규제의 대상이 된 배경을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5 『高麗史』卷9 世家9, 文宗 35年 2月 辛酉, “制曰 凡東西酋長欲來見者 兵馬使申報 取旨後 方許赴闕 以爲永制.”

46 『高麗史』卷9 世家9, 文宗 35年 2月 丙子, “制曰 去冬十二月 東北路戎醜 一朝掃滅 邊禋廓清 是皆上賴宗廟之威靈 下仗群帥之雄略, 今已凱還 宜告大廟及六陵 可擇日行事.”

47 『高麗史』卷9 世家9, 文宗 35年 1月 丁酉.

48 『高麗史』卷10 世家10, 宣宗 10年 4月 己酉.

에 좌산기상시 지중추원사로 승진하였다.<sup>49</sup> 옹한만 1081년(문종 35) 1월에 병부 상서를 그대로 이어갔는데<sup>50</sup> 이는 옹한이 무반 출신이었던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옹한 관련 자료는 많지 않지만 1073년(문종 27) 6월 동번 해적이 동경(東京) 관할 지역을 침범하였을 때 전함을 거느리고 싸워 공을 세운 인물로 옹한이 거론되었는데 이때 옹한은 영군도부서 장군으로 있었다.<sup>51</sup> 이를 보건대 옹한은 무반 출신이었고 그에 따라 재추 진입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병부상서 옹한이 1081년 11월에 연로함을 들어 은퇴하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sup>52</sup> 이는 옹한이 당시 변경 상황에서 필요한 존재였음을 보여준다. 그런 상황은 이후에도 역내 질서의 안정화 문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결국 다음 선종과 숙종대에 여진문제로 재등장하게 되었다.

### III. 여진문제의 전개와 고려의 개전 결정 과정

#### 1. 12세기 초 여진문제의 전개와 대처 과정

동번 정벌의 성공 이후 변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일군의 측근세력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하였다. 그들은 최석을 중심으로 유흥, 정목, 윤관 등이었다. 인척 및 친분관계로 연결된 이들은 적극적인 변사 대처 정책을 지지하고 국왕권의 절대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정치적인 입장을 공유하고

49 『高麗史』卷9 世家9, 文宗 35年 12月 庚辰.

50 『高麗史』卷9 世家9, 文宗 35年 1月 乙未.

51 『高麗史』卷9 世家9, 文宗 27年 6月 丙申.

52 『高麗史』卷9 世家9, 文宗 35年 11月 丁未.

있었다. 이들은 선종 후반부터 계림공(숙종)을 중심으로 정치세력화하고 있었으며 선종 말년인 1091년(선종 8) 9월의 ‘변사회합(邊事會合)’을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었다. 변사회합은 선종이 중심이 되어 계림공, 부여공, 문하시랑평장사 유흥, 좌복야 소태보, 병부상서 서정, 상장군 왕국모, 직문하성 고경, 한림학사 손관 등이 함께하면서 변사를 논의한 연회 자리였다. 나중에 계림공은 이 자리에 함께한 유흥, 왕국모 등의 힘을 빌려 이자의 세력을 제압하고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들은 문벌세력인 이자의 세력과 대립하고 있었으며 숙종의 즉위를 통해 이자의 세력을 진압하고 정국주도권을 장악하였다.<sup>53</sup>

숙종은 즉위 이듬해인 1096년(숙종 1) 8월에 동여진인들이 오자 중광전에서 맞이해 ‘변사(蕃事)’에 대해 물었다.<sup>54</sup> 이는 숙종의 변사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뒤이어 1101년(숙종 6) 8월에 조서의 “집이 나라를 맡은 이래로 항상 조심하면서 북으로는 대요(大遼)와 통교하고 남으로는 대송(大宋)에 사대하였는데 또 여진이 동쪽에서 강하게 일어났다. 군국(軍國)의 업무에서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하니 마땅히 급한 역(役)이 아니면 중지하여 백성을 안정시켜야 한다”<sup>55</sup>라는 문구를 통해 여진의 ‘굴강(偏強)’을 인정하면서 ‘안민(安民)’을 우선하였다. 이를 보면 요·송에 대한 외교와 여진의 ‘굴강’에 대해 숙종이 표면적으로는 ‘소심(小心)’의 자세로 대처하였음을 잘 알 수 있다.<sup>56</sup>

그런데 그 이면에서는 고려와 요 사이에 외교적인 협력이 진전되어 일정한

53 秋明燁, 2001, 앞의 글, 125~126쪽.

54 『高麗史』卷11 世家11, 肅宗 1年 8月 丙子.

55 『高麗史』卷11 世家11, 肅宗 6年 8月 乙巳. “詔曰 朕自御神器 居常小心 北交大遼 南事大宋 又有女眞 偏強于東 軍國之務 安民爲急 宜罷不急之役 以安斯民.”

56 숙종의 ‘北交南事’에 대해 交와 事의 구분은 수사일 뿐이고 외교 질서 면에서나 기년호 사용 면에서 실제 고려의 종주국은 遼였다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라는 언급이 있다(이미지, 2018, 『태평한 변방-고려의 對』거란 외교와 그 소산』, 景仁文化社, 295쪽). 여기서 수사의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정치적 자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양해와 목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101년 8월 여진의 강성을 표명한 조서의 직전 연도인 1100년(숙종 5) 10월에 요는 사신을 파견하여 고려 왕태자 책문을 보냈는데 이때 숙종과 왕태자가 함께 책문을 받았다. 그 책문 말미에서는 “산하(山河)에 맹세하여 믿음을 전하였으니 그대는 이미 그 편안함을 함께 지킬 수 있고 활과 도끼를 주어 정벌할 수 있으니 그대는 또한 그 힘을 함께 펼 수 있다”<sup>57</sup> 라고 하여 산하에 맹세한 믿음을 표현하면서 정벌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음을 문구로 표현하면서 아울러 의대·필단·안마 등과 함께 궁전(弓箭), 즉 활과 화살을 물품으로 사여하였다.<sup>58</sup>

이는 앞서 정종·문종 책문에서 보인 정벌 권한 인정의 문구와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이었다. 문장상 정벌 권한을 부여한 주체는 명목상 거란이었지만, 사실상 고려 영향권의 목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는 앞선 책문과는 다르게 왕태자 책문에서 정벌 권한 인정의 문구가 보였다. 점에서 이례적이다. 왕태자 책문의 그런 문구는 바로 그 왕태자가 나중에 예종으로 즉위한 이후 본격적으로 여진 정벌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게다가 왕태자 책문을 받고 그 다음 해부터 고려 조정에서 여진의 ‘굴강’을 표명하며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다는 점에서 그 문구를 수사적이고 의례적인 것으로만 보기도 어렵다. 외교는 수사적이고 의례적인 문구를 통해 그 의사가 표명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시 고려 조정은 요가 보낸 외교문서 문구의 맥락을 파악하여 요의 간섭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났던 것으로 추측된다.

1103년(숙종 8)에 여진 완안부의 오아숙(烏雅束)이 권력을 잡은 이후 석적환(石適歡)을 파견하여 성현(星顯)과 통문(統門)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갈라전(曷懶甸)을 순행하면서 반망(叛亡) 7성(城)을 수습하도록 하자 고려는 논의할 것이 있다면서 통고한 후 갈라전의 관속(官屬) 야랄보(冶刺保) 등을 잡아두었다. 이때

57 『高麗史』卷11 世家11, 肅宗 5年 10月 壬子, “誓山河而傳信 汝旣同保其休 賜弓鉞以撫征 汝亦共宣其力.”

58 『高麗史』卷11 世家11, 肅宗 5年 10月 壬子, “勅曰 … 并別賜衣帶·匹段·鞍馬·弓箭諸物 具如別錄.”

오수(五水)의 백성이 모두 고려에 귀부하였고 고려에 붙잡힌 단련사(團練使)가 14인이었다.<sup>59</sup> 여기서 언급된 오수의 백성은 두만강 등을 중심으로 한 여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sup>60</sup> 고려 영향권 속의 동변인이었을 것이다. 1104년(숙종 9) 1월 동여진 남녀 1,753인이 내투(來投)<sup>61</sup>하였는데 이들이 바로 그 일부였다.

고려 기록에 따르면 동여진추장 오아속이 별부(別部) 부내로(夫乃老)와 틈이 생겨 공형지조(公兄之助)를 보내 군대로 공격하였고 그 기병이 정주(定州) 관외(關外)에 주둔하였다.<sup>62</sup> 숙종은 즉시 문하시랑평장사 임간 등을 보내 대비하게 하였다.<sup>63</sup> 그러나 임간 등은 패배하고서 ‘패적지죄(敗績之罪)’로 탄핵받아 파면되었다.<sup>64</sup> 곧이어 추밀원사 윤관이 동북면행영병마도통이 되어<sup>65</sup> 전투를 벌였지만 사상자가 과반이었다.<sup>66</sup> 임간과 윤관 모두 여진과 전투해서 패배했지만 패전 문책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전투 진행과정에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간은 공을 얻기 위해 군대를 끌고 깊이 들어갔다가 패배하여 여진이 정주 선덕진의 관성(關城)으로 난입하게 하였지만 윤관은 군세(軍勢)가 부진한 정도였다.<sup>67</sup>

59 『金史』卷1 本紀1 世紀, 康宗 1年; 『金史』卷135 列傳73 外國 高麗.

60 ‘五水之民’은 『金史』에서 잠깐 등장하고 있어 그 정확한 지역은 알기 어렵지만, 전후 사건의 맥락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일찍이 오수가 함흥부터 북청에 이르는 지역의 여러 하천을 총칭하는 것이라는 언급(津田左右吉, 1913, 앞의 글, 121~122쪽)이 있었지만, 이후 『金史』地理志에 나오는 星顯水·陶湍水·徒籠古水·乙離骨水·活湍水·統門水 등에 근거하여 오수를 曷懶甸(조선 초 6鎮 지역) 전부를 포괄하는 의미로 추정한 연구(方東仁, 1976, 앞의 글, 161쪽)가 있다. 또한 오수가 갈라전의 중심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대개 海蘭河를 중심으로 하여 豆滿江과 訓春江 등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여기서 여진 30성의 중심세력이 형성되었다는 연구(金九鎭, 1976, 앞의 글, 93쪽)도 있어 참조된다.

61 『高麗史』卷11 世家11, 肅宗 9年 1月 辛巳.

62 『高麗史』卷11 世家11, 肅宗 9年 1月 辛巳.

63 『高麗史』卷11 世家11, 肅宗 9年 1月 癸未.

64 『高麗史』卷11 世家11, 肅宗 9年 2月 壬子.

65 『高麗史』卷11 世家11, 肅宗 9年 2月 乙丑.

66 『高麗史』卷11 世家11, 肅宗 9年 3月 丁丑.

67 『高麗史』卷96 列傳9 尹璠.

그럼에도 윤관은 여진 완안부와 ‘비사강화(卑辭講和)’하고서 ‘결맹(結盟)’한 후 귀환하였다.<sup>68</sup> 고려와 여진의 강화 체결은 사실이었다.

고려의 임간·윤관 부대와 전투한 상대는 석적환의 부대였는데 두 번의 전투 모두 여진이 고려를 크게 격파하였다. 그 결과 고려에 억류되었던 14명의 여진 단련사 등을 돌려보내고 고려가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여 ‘강계(疆界)’를 정하였다.<sup>69</sup> 이에 숙종은 분노하여 천지신명에게 고하기를 “원컨대 음(陰)으로 도와 주서 적경(賊境)을 소탕하게 해준다면 그 땅에 불우(佛宇)를 짓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sup>70</sup> 이를 보면 1104년의 전투 결과 이루어진 ‘비사강화’ 이후 ‘결맹’은 고려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이는 일종의 이중 충격이었다.

그 하나는 ‘비사강화’해야 할 정도로 여진 기병세력의 위협이 크다는 것을 실감함에서 나온 군사적 충격이었다. 그 결과 별무반의 창설로 이어졌다. 또 다른 하나는 ‘비사강화’에 따른 위신 손상으로 인해 해동천하질서가 동요하게 되었고 숙종의 정치적 위신도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계의 동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이었다.<sup>71</sup> 특히 ‘비사강화’가 초래한 ‘국치’는 1107년(예종 2) 개전 결정의 핵심 논리였고 ‘국치’ 해소가 여진 정벌의 명분이 될 수밖에 없었다.<sup>72</sup>

68 『高麗史』卷96 列傳9 尹瓘.

69 『金史』卷135 列傳73 外國 高麗. “十四團練·六路使人在高麗者 皆歸之 遣使來請和 遂使斜葛經正疆界.”

70 『高麗史』卷96 列傳9 尹瓘. “王發憤告天地神明 願借陰扶 掃蕩賊境 仍許其地創佛宇.”

71 앞선 연구에서는 ‘卑辭講和’에 따라 황제국체제하의 여진지배체제가 흔들렸다는 점을 언급한 바(秋明燁, 2001, 앞의 글, 108쪽) 있는데 이후 해동천하 연구의 맥락에서 해동천하질서의 동요로 언급하고자 한다. 양자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지만 전자는 국내 정국동향의 맥락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음에 비해 후자는 국내외의 동향을 함께 보는 것에 초점이 있다.

72 당시 國恥의 전개와 해소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상세히 논급된 바 있다(秋明燁, 2001, 앞의 글, 108~112쪽).

## 2. 개전 결정과 대요(對遼) 외교의 특징

개전 결정 당시 여진 정벌은 요와 거의 관계없는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요에 관련된 사실을 알린 시점은 9성 축성을 완료한 이후 시점이었다. 1109년(예종 4) 2월에 이어림을 보내 9성 축성을 알렸다.<sup>73</sup> 이때 보낸 표문은 박승중이 작성하였다. 이 글에서 여진이 본래 변호(邊戶)로서 ‘속적(屬籍)’하였는데 이후 고려의 사졸(士卒)을 상탈(傷奪)하여 문죄하고 성지(城池)를 설치하였음을 서술하였다. 이어서 “이는 (요) 폐하의 신령한 위엄에 힘입어 백성들의 깊은 원통함을 설욕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이한 계책을 내는 자는 미리 말함을 경계해야 하고 적을 치는 자는 마땅히 빠르게 움직이고자 합니다. 또한 잔적(殘賊)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일을 대비해야 해서 삼가 일을 모두 마친 이후 상주하고자 하였고 처음 일을 모의할 때엔 명을 청할 겨를이 없었습니다”<sup>74</sup>라면서 국치 설욕을 백성의 설욕으로 서술하여 그 전쟁 명분을 명확히 밝혔다. 동시에 정벌 전에 요에 미리 알리지 않았음을 분명히 서술하여 양해를 구하였다. 게다가 요에 축성의 표문을 보냈을 때는 오히려 9성 환부를 논의하기 시작하던 시점이었다. 다시 말해 9성 환부를 논의하던 시점에 가서야 9성 축성 사실을 알린 것이다. 그러나 요는 관련 진행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미 1106년(예종 1) 3월에 요는 1104년(숙종 9) 여진과의 전투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요에 도망친 고려 군사 12인을 귀국시켜주었다.<sup>75</sup> 이때 요가 고려 군사를 귀국시키기 전에 심문하였을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관련 사실을 알고 있을 상황에서도 명시적으로 문제 삼은 바가 보이지 않고, 여진 정벌 직후인

73 『高麗史』卷12 世家12, 睿宗 4年 2月 癸卯.

74 『東文選』卷39 表箋 告伐東女眞表, “妓賴陛下靈威之被 得雪斯民冤憤之深. 然念出奇者誠在豫言 攻敵者勢當欲疾. 又因殘賊 尙備不虞 慎終故稽厥奏公謀始則靡違請命.”

75 『高麗史』卷12 世家12, 睿宗 1年 3月 丙申.

1108년(예종 3) 2월에 도착한 요의 책왕(冊王) 문서<sup>76</sup>에서도 문구상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를 보면 당시 요는 고려의 여진 정벌을 거의 문제 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요는 동변 여진문제를 고려 정부의 소관 사항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1104년(숙종 9) 4월에 요가 책왕하는 조서에서 “경(卿)은 사직을 봉토로 받아 현도(玄菟)에서 강역을 열었다”<sup>77</sup>라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고구려를 의미하는 현도로서 고려가 과거 고구려와 관련 있음을 표현하였고, 이어 책문에서는 “일역(日域)을 돌이켜보며 말하건대 정성으로 천조(天朝)를 받들며 봉토는 과거 전국시대 7웅(七雄)보다 넓고 공로는 춘추시대 5패(五霸)보다 높다”<sup>78</sup>라고 하여 고려를 ‘일역’으로 지칭하면서 과거 중국의 패자(覇者)인 5패나 7웅보다 더 높고 넓은 영토와 공로를 상찬하였다. 물론 책문으로서의 수사적인 측면이 있었겠지만 수사에 담긴 사실이 있으며 그것은 ‘일역’으로 지칭된 동방의 고려<sup>79</sup>와, 5패 7웅으로 표현된 고려의 영향권에 대한 묵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개전 결정 이전에 여진의 화친 요청 및 조공 약속이 있었음에도 출범하였다는 점에서 여진과의 관계 회복도 주요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이미 1104년(숙종 9)의 전투 직후인 6월에 여진이 스스로 성채를 허물고 사람을 보내 화친을 요청한다는 보고가 있었다.<sup>80</sup> 이후 1106년(예종 1) 3월에 동여진의 지훈(之訓)이 2,000의 기병을 끌고 와서 “임금의 은혜가 지극히 두터운데 어찌 감히 잇고 배반하겠습니까? 원컨대 사손에 이르도록 공손하고 부지런히 조공하겠습니다.”

76 『高麗史』 卷12 世家12, 睿宗 3年 2月 丙午.

77 『高麗史』 卷12 世家12, 肅宗 9年 4月 甲子, “卿白茅苴社 玄菟開疆.”

78 『高麗史』 卷12 世家12, 肅宗 9年 4月 甲子, “眷言日域 虔奉天朝 封疆廣於七雄 功烈高於五霸.”

79 추명엽, 2022a, 「‘일역(日域)’ 인식의 형성과 추이」, 『韓國思想史學』 71.

80 『高麗史』 卷12 世家12, 肅宗 9年 6月 甲寅, “東北面兵馬都統奏 女眞自毀場寨 公兄之助等六十八人 扣關乞和.”

니다”라고 말했다는 동북면병마사의 상주가 있었다.<sup>81</sup> 이와 같은 여진의 조공 약속은 고려의 별무반 준비와 같은 정벌 준비 소식을 듣고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진의 조공 약속은 고려 군주와 집권층이 기획한 축성 및 사민(徙民)을 통한 위계질서의 확대 구상과 거리가 있었던 것이다.

#### IV. ‘숙종서소(肅宗誓疏)’와 여진정벌 추진세력의 구상

개전 결정 당시 정벌의 명분은 ‘국치’의 해소였지만, 정치적 목표는 축성과 사민을 통한 북방 위계질서의 안정화 및 확대였다. 물론 목표 달성은 전황의 전개에 따라 유동적인 것일 수도 있었지만, 이는 개전 이전에 제시된 숙종의 언급과, 정벌의 성과 이후 윤관의 언급을 통해 방증된다. 숙종은 ‘적경(賊境)’을 소탕한 이후 사원을 창건하겠다는 서원(誓願)을 글로 작성하였다. 이는 그의 사후에 ‘숙종서소’로 불리면서 중광전의 불감에 소장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추한 무리를 소탕한다면 적의 경계에 성보(城堡)를 쌓고 절을 세워 불법(佛法)을 널리 펴야 한다”였다.<sup>82</sup> 그러나 ‘숙종서소’의 상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아 이후 숙종의 뜻에 충실하였던 윤관, 임언 등 정벌 추진세력이 남긴 자료를 통해 그 논리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개전 이전에 공개된 ‘숙종서소’에는 이미 축성과 절의 창건을 바탕으로 한 불법 전파가 제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는 북방 위계질서의 안정화를 위한 정치·문화적인 확산으로서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목표가 개전에 앞서 제시되었던 것은 여진과의 ‘비사강화’에 따른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강화 이후

81 『高麗史』卷12 世家12, 睿宗 1年 3月 丁酉, “上恩至渥 豈敢忘背. 願至子孫 恭勤朝貢.”

82 『高麗史』卷96 列傳9 尹瓘; 『高麗史』卷13 世家13, 睿宗 4年 5月 癸丑. “誓曰 今若掃蕩醜類 卽於賊境 築設城堡 創寺宇 恢張佛法.”

‘여진과의 강계(疆界)가 정해졌다’<sup>83</sup>는 『금사(金史)』의 기록은 고려가 기존에 영유하였던 기미주 등 고려 정부가 권위를 행사했던 지역을 사실상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숙종은 분노하여 ‘적경’을 소탕하고 그 땅에 사원을 세우겠다는 발원을 하였던 것이다. 이는 상실한 지역을 회복하겠다는 서원이었으며 나중에 윤관의 축성과 영주성(英州城) 안의 호국인왕사(護國仁王寺)·동진보제사(鎭東普濟寺) 건립<sup>84</sup>으로 이어졌다.

윤관은 영주, 복주, 응주, 길주, 함주, 공험진 등에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인 윤언순을 보내 하례하는 표문에서 “지금 하늘이 주어 이미 이를 얻었으니 위로는 종묘와 하늘에 계신 영령에게 족히 감사할 만하며 아래로는 조정의 해묵은 치욕을 족히 씻을 만하였습니다. 또한 저 주나라의 왕이 험윤(獮狃)을 정벌한 것과 한나라의 황제가 흉노를 정벌한 것은, 영토를 개척하고 변방을 넓혀서 민을 위해 해악을 제거한 것이니 지금과 비교한다면 마땅히 아래에 있습니다”<sup>85</sup>라면서 정벌의 명분과 성과를 압축적으로 서술하였다.

윤관은 종묘와 하늘의 영령의 도움으로 성과를 얻었다고 하면서 이를 ‘천여(天與)’, 즉 하늘이 주었다고 하였다. 이는 누대 선왕들이 세웠던 해동천하의 위계적인 질서화를 종묘와 하늘의 영령의 힘으로 회복하였음을 하늘이 주었다고 서술한 것이다. 동시에 실제 정벌의 명분으로서 해묵은 조정의 치욕, 즉 국치를 씻을 수 있었다고 하면서 이는 주나라나 한나라의 정벌보다 더 나은 성과임을 자부하였는데 그것은 축성과 영토 개척의 성과를 말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는 과거 해동천하의 위계질서 회복에서 더 나아가 그 성과로 확대되었음을 자부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자부는 이어진 영주 관청벽(英州廳壁)의 글에서도 잘 드러났다. 영주

83 『金史』 卷135 列傳73 外國 高麗.

84 『高麗史』 卷96 列傳9 尹瓘.

85 『高麗史』 卷96 列傳9 尹瓘, “今茲天與而既取之 上足以謝宗廟在天之靈 下足以雪朝廷積年之恥 且彼周王獮狃之伐 漢帝匈奴之征 所以拓土開邊 而得爲民去害 比之今日 宜在下風.”

관청벽의 글은 윤관이 임언에게 작성하게 한 것인데 다음 글이 그에 해당한다.

『맹자』에 이르기를 ‘약자는 본디 강자를 대적할 수 없고 소국은 본디 대국을 대적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외운 것이 오래되었으나 지금에서야 이를 믿게 되었다. 여진은 우리나라에 비해 강함과 약함, 많고 적음에서 그 세력이 현격하게 다른데, 변방을 엿보다가 숙종 10년에 틈을 타 난을 일으켜 우리의 사민을 많이 죽이고 포승으로 묶어 노예로 삼은 것이 또한 많았다. 숙종께서 대노하여 군사를 정돈하여 대의에 따라 토벌하려 했는데, 애석하게도 그 공을 이루지 못한 채 궁검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지금 임금께서 왕위를 이어 상복을 입으신 지 3년이라 예식을 마치자마자 좌우에 이르기를, ‘여진은 본래 구고려(勾高麗)의 부락으로서 개마산 동쪽에 모여 살면서 대대로 공직을 수행하며 우리 조종의 은택을 깊이 입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도하게 배반하니, 선고께서 깊이 분노하였다.’ … 아! 여진이 완악하고 어리석어, 강약과 중과의 세력을 헤아리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을 취한 것이 이와 같았다. 그 땅의 둘레는 300리로 동쪽으로 대해에 이르고 서북쪽으로는 개마산 사이에 끼어 있으며 남쪽으로는 장주와 정주 2주에 접했는데, 산천은 수려하고 토지는 기름져서 우리 백성들이 살 만하였다. 본래 구고려의 소유로 옛 비석의 유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무릇 구고려가 예전에 잃었던 것인데 지금 임금께서 그 후에 얻은 것이니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 『시경』에 이르기를, ‘울타리가 되고 담장이 되어 왕실의 울타리가 된다’고 하였으니 이로써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동쪽지역을 주시해야 하는 근심(東顧之憂)이 없어졌다.<sup>86</sup>

86 『高麗史』卷96 列傳9 尹瓘, “瓘又使林彥 記其事 書于英州廳壁曰 孟子曰 弱固不可以敵強 小固不可以敵大. 吾諷斯言久矣 而今信之矣. 女眞之於國家 強弱衆寡 其勢懸殊 而窺覲邊鄙 於肅宗十年 乘隙構亂 多殺我士民 其繫縲爲奴隸者 亦多矣. 肅宗赫然整旅 將欲仗大義以討之 惜乎厥功未集 永遺弓劍. 今上嗣位 亮陰三載 甫畢祥禫 謂左右曰 女眞本勾高麗之部落 聚居于盖馬山東 世脩貢職 被我祖宗恩澤深矣. 一日背畔無道 先考深憤焉 … 嗚呼 女眞之頑愚 不量其強弱衆寡之勢 而自取於滅亡如是. 其地方三百里 東至于大海 西北介于盖

이 글은 여진정벌의 배경과 논리, 경과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었다. 정벌의 논리는 여진이 대대로 공직(貢職)을 수행해왔는데 갑자기 무도하게 배반하여 대의(大義)로 토벌한다는 것이었다. 대의를 말하기에 앞서 맹자의 언설을 참고로 하여 소국이 대국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하였는데 맹자의 언설은 맹자와 양혜왕의 대화 속에서 나온 말이다. 맹자는 양혜왕의 소원이 토지를 개척하고 진(秦)과 초(楚)의 조회를 받아 중국에 임하는 것임을 알고서는 소국인 추(鄒)와, 대국인 초의 전쟁에서 소국이 대국을 대적할 수 없다는 논리를 이끌어냈던 것이다.<sup>87</sup> 따라서 대국인 고려에 소국인 여진이 대적할 수는 없으며 여진은 고려에 대대로 공직을 수행하는 천하의 일원이라는 것이었다.

그 천하의 연원은 ‘고구려’, 즉 과거의 고려<sup>88</sup>인 고구려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여진은 본래 고구려의 부락이었기에 고구려의 소유지역을 지금 다시 얻는 것은 하늘의 뜻, 곧 천명이라고 명시하였다. 『시경』의 언설은 그 정벌의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이로써 이 지역은 왕실의 번영이 되어 ‘동고지우(東顧之憂)’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언급은 1080년의 동변 정벌 직후 내린 칙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왔던 말이다. 1080년 정벌의 반복이면서도 그때보다 사민과 축성을 바탕으로 하여 크게 확장된 형태였던 것이다.

영주 관청벽의 글은 고구려 영역 승계를 천하 언설을 통해 논리화하였으며 이는 해동천하의 위계질서 회복에서 더 나아가 축성을 통한 대소(大小) 위계질서의 확대 강화를 정교하게 서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현종대 이래 ‘현도’ 지칭을 통한 고구려 영역 계승은 다소 관념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었지만 ‘구

---

馬山 南接于長定二州 山川之秀麗 土地之膏腴 可以居吾民. 而本勾高麗之所有也 其古碑遺跡 尙有存焉 夫勾高麗失之於前 今上得之於後 豈非天歟? … 詩所謂 于蕃于宣 以蕃王室者也 有以見晏然高枕 無東顧之憂矣.”

87 『孟子』 梁惠王章句上.

88 勾高麗에 대해서는 ‘단계적 고구려계승의식’을 보여주는 용례라면서 이전에 서희의 언급과 같이 고구려를 그대로 고려로 지칭하는 ‘일체적 고구려계승의식’과 구분된다는 연구가 있다(윤경진, 2020b, 「고려중기 고구려계승의식의 변화와 ‘勾高麗’」, 『역사와 실학』 72).

고려' 지칭을 통한 고구려 영역 승계는 축성을 통한 실제적인 지배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이는 윤관을 중심으로 오연충, 임언 등이 공유한 논리였지만 그 배후에는 숙종이 있었고 예종은 그 유지를 승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논의 안에서도 일정한 편차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오연충과 예종은 서경 용언(龍堰)의 궁궐 축조를 둘러싸고 논의에 차이가 있었다.

술사(術士)가 예종에게 용언궁을 짓고 순행(巡幸)할 것을 참언으로 권하자 예종은 1106년(예종 1) 9월에 사람을 보내 용언 옛터를 살펴보게 한 후에 양부(兩府) 및 장령전 수교유신(驛校儒臣)에게 논의하게 하였는데 모두 축조에 동의하였다. 평장사 최홍사 등이 서경 용언의 궁궐 축조가 왕업 연장에 필요하다고 상주한 내용을 통해 그 논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이때 지추밀원사 오연충만 반대하였는데 그 반대 논리는 3가지였다. 문종의 서경 궁궐 축조가 있었지만 상응하는 조짐이 없었고 최근의 남경(南京) 개창도 길한 조짐이 없었으며 징험도 없는데 궁궐축조에 따라 민가를 훼손한다면 인민을 소란케 한다는 것이 그것이었다.<sup>89</sup> 오연충은 왕업 연장에 상응하는 조짐이나 징험이 없었고 인민을 소란케 한다는 매우 현실적인 논의를 펼쳤다.

이에 비해 예종과 최홍사 등 다수 고위신료는 참언에 따른 용언궁 축조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윤관의 여진정벌군이 출발할 때 예종은 서경에 행차하여 용언궐(龍堰闕)에 가서 부월(斧鉞)을 주어 보냈다.<sup>90</sup> 예종의 행차는 장수를 보내기 위해 서경에 행차해야 한다는 일관(日官)의 상주 때문이었다.<sup>91</sup> 이는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영주 관청벽의 글에서 보이는 논리는 현실적이고 정교한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정벌 실행의 밑바탕에는 참언의 논리와 언설이 일정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다.

참언의 논리와 언설이 일정하게 영향을 끼친 것은 숙종대부터 이어져 온 것

89 『高麗史節要』卷7, 睿宗 1年 9月; 『高麗史』卷96 列傳9 吳延寵.

90 『補閑集』卷上 睿王乾統七年丁亥.

91 『高麗史』卷12 世家12, 睿宗 2年 11月 庚午.

이었다. 숙종대에 김위제가 남경에 순주(巡駐)할 것을 상서하였는데 상서 내용은 『도선기』의 ‘삼십육국초천(三十六國朝天)’, 『도선담산가』의 ‘사해신어조한강(四海神魚朝漢江)’, 『삼각산명당기』의 ‘제구지년사해조(第九之年四海朝)’, 『신지비사』의 ‘조항칠십국(朝降七十國)’ 등을 근거로 해서 남경에 도성을 건립하고 순주하자는 것이었다.<sup>92</sup> 김위제의 상서 내용은 관념적인 천하론의 전형적인 논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전래되는 참언 서적들을 바탕으로 36국이 고려 천자에 조공한다거나 사해(四海)가 조공하거나 70국이 조공 또는 항복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실제 남경 설치와 순주라는 정책을 제안한 것이기에 고려를 가장 중심에 둔 관념적인 천하론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숙종대 남경 설치와 순행이 이루어졌다.<sup>93</sup> 1101년(숙종 6) 10월에 남경 ‘시창(始創)’을 종묘사직과 산천에 고하였고<sup>94</sup> 1104년(숙종 9) 5월에 남경궁궐을 완성한 후 7월에 숙종은 남경에 순행하였다.<sup>95</sup> 이어서 숙종은 1105년(숙종 10) 8월에 서경으로 순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망하였다.<sup>96</sup> 이를 보면 숙종의 현실 속 정치적인 행적 아래에는 관념적인 논리의 영향이 일정하게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개전 결정과정에서 ‘숙종서소’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107년(예종 2) 변경 장수가 ‘여진이 강해져서 변성(邊城)을 침범한다’고 보고하자 예종은 ‘숙종서소’를 꺼내 양부대신(兩府大臣)에게 보여주었다. ‘숙종서소’를 읽어본 양부대신은 선왕의 뜻을 이어 정벌하자고 상서하였다.<sup>97</sup> 여기서 양부 대신은 재추를

92 『高麗史』 卷122 列傳35 金謂禪.

93 김위제가 인용한 다수의 도참에는 고려의 천하관과 역사계승의식이 투영되어 있다면서 남경 설치의 개경의 쇠락이라는 조건에서 새로운 도읍의 건설을 통해 일통삼한을 구현하는 것이고 이는 기존의 ‘결합적’ 삼한일통의식에서 ‘융합적’ 삼한일통의식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해석한 최근 연구가 있다(윤경진, 2020a, 「고려 숙종대 南京 설치와 역사계승의식」, 『서울과 역사』 105).

94 『高麗史』 卷11 世家11, 肅宗 6年 10月 丙申.

95 『高麗史』 卷12 世家12, 肅宗 9年 5·7月.

96 『高麗史』 卷12 世家12, 肅宗 10年.

97 『高麗史』 卷96 列傳9 尹瓘.

의미한다. 당시 개진 결정은 광범위한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 개진에 반대한 부류는 극소수였다. 이는 예부시랑 김연(김인존)만 홀로 상소하여 극간(極諫)하였던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sup>98</sup> 당시 김연의 논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숙종서소’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예종이 김연의 상소에 대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건대 그렇다.

재추의 상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종은 결심하지 못하고 태묘에서 길흉의 점을 친 후 출병을 결정하였다. 이때 재추 신료에는 재신 계열에 문하시중 위계정을 비롯해 중서령 최사추, 평장사 최홍사·이오, 참지정사 윤관·김경용·임의·유록승 등이 있었고 추밀 계열에는 오연충, 이위, 왕하 등이 있었다.<sup>99</sup> 이들 모두가 개진 결정에 동의하였던 것인데 개진 결정과정에서 요와의 관계를 고려한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요와의 양해 내지 묵인이 있었던 것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동시에 당시 고려 집권층은 여진정벌을 해동천하 내의 일로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에 따라 고려 조정이 이후 여진정벌의 결과를 사실상 요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 V. 맺음말

고려의 여진정벌 연구는 전체적인 이해의 골격이 마련되었고 개별적인 각 주제별 연구도 심화되어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축적되었지만, 고려의 여진정벌

98 『高麗史』卷96 列傳9 金仁存; 『高麗史』卷12 世家12, 睿宗 1年 8月 戊寅.

99 秋明燁, 2001, 앞의 글, 131~132쪽.

庚祿崇의 경우 예종대 참지정사로 존재했던 것은 『高麗史』 열전의 기록으로 확인 가능하지만 치사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어 개진 결정과정 참여 여부에는 불확실성이 있다. 중서령 崔思諫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양자 모두 가능성의 범주에 있기에 포함시켰다. 林幹은 1106년(예종 1) 3월에 守司空으로 致仕하였는데(『高麗史』卷12 世家12, 睿宗 1年 3月)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1104년 여진과의 전투 패배로 파면된 바 있다.

에 대해 요의 직접적인 개입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고려가 여진의 공격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국경지대 밖으로 선제공격하였다는 점 등 여러 의문점이 있다. 이는 당시 고려 북방의 국제환경과 여진정벌 추진세력의 구상과 지향을 통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려의 여진문제는 여진에 대한 규제와 조정, 기미주 경영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타났는데 현종대 이래 여진지배가 점차 제도·체제화되었지만, 여진의 독립세력화 진전도 아울러 초래하였던 것이다. ‘동번적(東蕃賊)’과 완안부 세력의 성장이 바로 그것이며 그것이 여진문제의 실체이기도 하였다. 1073년(문종 27) 이후 여진문제는 점차 표면화되었는데 이는 기미주의 고려 편입 강화 및 기미주 영역 확대 속에서 동번과 서번 양측으로 나타났다.

동번과 서번 지역의 기미주에서는 내부를 요청하였고 동북쪽으로는 마천령 너머까지 기미주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두만강 너머 완안부 세력의 확장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였다. 그에 따라 동번지역에서 변란이 발생해 1080년(문종 34)에 보병과 기병 3만을 동원한 대대적인 군사 동원이 이루어졌다. 당시 고려는 요 조정에 이를 알린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이는 고려의 동번 정벌이 고려 독자의 정책적인 결정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시 고려의 동번 정벌은 고려 해동천하의 영향권과 관련된 것이었다.

거란은 성종(聖宗) 초에 여진을 공략하면서 고려 북쪽 경계지역을 수시로 통과한 것에 비해 고려의 귀주 대첩 이후에는 거란이 여진 공략에 필요한 경로를 고려에 요청해도 고려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런 현실은 이후 묵인되면서 거란의 고려 정종·문종 책문에서는 고려가 제후로서 정벌을 오로지 할 수 있는 나라로 표현되었다. 정벌 권한을 부여한 주제는 명목상 거란이었지만 이는 사실상 고려 영향권의 묵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거란의 자체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당시 거란이 성식의 전환기에 처하면서 송과의 관계에 국력을 집중하였고 고려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점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고려의 1080년 동번 정벌은 고려 해동천하 속 동번 기미주 질서의 안정화 차원이었다. 당시 고려의 동번 정벌은 동·서번으로서 내조하며 고려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위계질서 유지 단계의 정벌전으로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성과를 거두었음은 고려의 승첩에 대한 칙서 속에서 ‘동고지우(東顧之憂)’라고 표현된, 동쪽지역을 주시하는 근심이 해소되었음을 표현한 구절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이후 고려에서는 변경의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정책을 수행하면서 일군의 측근세력 성격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하였다. 그들은 최석을 중심으로 유흥, 정목, 윤관 등이었다. 인척 및 친분관계로 연결된 이들은 적극적인 변사 대처 정책을 지지하고 국왕권의 절대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정치적인 입장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선종 후반부터 계림공(숙종)을 중심으로 정치세력화하고 있었다.

앞서 고려의 1080년 동변 정벌에 대해 요 조정에서는 무관심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직접적인 의사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이후 고려의 여진정벌에 대한 요의 태도에서도 그 특징이 잘 드러났다. 고려 숙종은 즉위 초부터 동북방 변경의 일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1101년(숙종 6)에는 조서를 통해 여진세력의 강성함을 표명하였다. 그런데 그 이면에서는 고려와 요 사이에 외교적인 협력이 진전되어 일정한 양해와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100년(숙종 5) 요의 고려 왕태자 책문에서는 고려에 “활과 도끼를 주어 정벌할 수 있으니 그대는 또한 그 힘을 함께 펼 수 있다”라는 문구가 왕태자 책문으로는 전례 없이 있어 그것을 방증하며 이때 고려는 요의 간섭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104년(숙종 9)에 고려 정부는 장성 너머 지역에서 여진세력과 군사적으로 충돌하였다. 그런데 1104년 당시 요는 고려와 여진세력의 충돌을 문제로 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요의 고려 국왕 책문에서는 고려를 과거의 고구려를 의미하는 ‘현도’로 지칭하여 고려와 고구려의 관련성을 표현하였고, 한편 고려를 동방의 ‘일역(日域)’으로 지칭하며 과거 중국의 5패나 7웅에 비견하며 고려의 영향권을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려는 여진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위계질서에 어울리지 않는 강화를 체결하였고 이는 고려에 ‘국치’가 되었다.

숙종에서 예종으로 이어지는 여진정벌 준비는 별무반 창설로 대표되는 국가적인 동원을 수반하였고 개전 결정 당시 정벌의 명분은 ‘국치’의 해소였지만 정치적 목표는 축성과 사민을 통한 북방 위계질서의 안정화 및 확대였다. 그 목표는 ‘숙종서소(肅宗誓疏)’에 잘 표현되었다. 개전 결정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숙종서소’에는 이미 축성과 사민의 창건을 통한 불법 전파가 제시되어 있었다. 이는 북방 위계질서의 안정화를 위한 정치·문화적인 확산을 이루겠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윤관 등이 정벌을 추진하고 축성한 이후 올린 표문에서는 중국 주와 한의 천하 언설을 통해 해동천하의 위계적인 질서화가 표명되었다. 이어 영주 관청벽의 글에서는 고구려 영역 승계를 천하 언설을 통해 논리화하였으며 이는 해동천하의 위계질서 회복에서 더 나아가 축성을 통한 대소 위계질서의 확대 강화를 정교하게 서술한 것이었다. 과거 현종대 이래 ‘현도’ 지칭을 통한 고구려 영역 계승은 다소 관념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구고려’ 지칭을 통한 고구려 영역 승계는 축성을 통한 실제적인 지배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해당 글에서는 1080년 동변 정벌 승첩에 대한 칙서에서 보였던 ‘동고지우(東顧之憂)’의 해소가 다시 등장하여 그 일관성을 잘 보여주었다.

고려 예종대의 개전 결정과정에서는 재추 대부분의 동의가 있었으며 김연과 같은 극소수의 반대만이 보인다. 개전 결정과정에서 요와의 관계를 고려한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요와의 양해 내지 묵인이 있었던 것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동시에 당시 고려 집권층은 여진 정벌을 해동천하 내의 일로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에 따라 고려 조정이 이후 여진정벌의 결과를 사실상 요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 자료

『高麗史』, 『東文選』, 『遼史』, 『金史』, 『孟子』.

### 단행본

이미지, 2018, 『태평한 변방-고려의 對거란 외교와 그 소산』, 景仁文化社.

李桂芝, 1996, 『遼金簡史』, 福建人民出版社.

李锡厚·白滨, 2003, 『遼金西夏史』, 上海人民出版社.

### 논문

金光洙, 1977, 「高麗前期 對女眞交涉과 北方開拓問題」, 『東洋學』 7.

金九鎭, 1976, 「公嶮鎭과 先春嶺碑」, 『白山學報』 21.

\_\_\_\_\_, 1977, 「尹瓘九城의 범위와 朝鮮六鎭의 개척」, 『史業』 21·22.

金南奎, 1996, 「高麗中葉의 對女眞政策-宣宗·肅宗代를 중심으로」, 『가라문화』 13.

\_\_\_\_\_, 1997, 「高麗 睿宗代의 對女眞政策」, 『慶大史論』 10.

金塘澤, 2000, 「高麗 肅宗·睿宗代의 女眞征伐」, 『全海宗博士八旬紀念論叢』.

金庠基, 1959, 「여진관계의 始末과 윤관의 北征」, 『국사상의 제문제』 4.

김순자, 2012, 「고려중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고려-여진 전쟁」, 『한국중세사연구』 32.

김아네스, 2014, 「고려시대 북방민족과의 전쟁사론」, 『남도문화연구』 26.

方東仁, 1976, 「尹瓘九城再考」, 『백산학보』 21.

\_\_\_\_\_, 1980, 「高麗의 東北地方境域에 관한 研究」, 『嶺東文化』 創刊號.

宋容德, 2011, 「1107~1109년 고려의 葛懶甸 지역 축성과 ‘尹瓘 9城’ 인식」, 『韓國史學報』 43.

\_\_\_\_\_, 2012, 「고려의 一字名 羈縻州 편제와 尹瓘 축성」, 『한국중세사연구』 32.

윤경진, 2017, 「고려 예종대 동북 9성 환부의 경위와 배경」, 『震檀學報』 128.

\_\_\_\_\_, 2020a, 「고려 숙종대 南京 설치와 역사계승의식」, 『서울과 역사』 105.

- \_\_\_\_\_, 2020b, 「고려중기 고구려계승의식의 변화와 ‘句高麗」, 『역사와 실학』 72.
- 尹武炳, 1958, 「吉州城과 公嶮鎭」, 『歷史學報』 10.
- 李美智, 2015, 「고려 전기 異國人入境의 유형과 실상-來獻·來朝·來投·來附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43.
- 李貞信, 2003, 「江東6州와 尹瓘의 9城을 통해 본 고려의 대외정책」, 『軍史』 48.
- 鄭修芽, 1988, 「尹瓘勢力的 형성」, 『진단학보』 66.
- 정요근, 2012, 「11세기 동여진 해적의 실체와 그 침략 추이」, 『사학연구』 107.
- 秋明燁, 2001, 「11世紀後半~12世紀初 女眞征伐問題와 政局動向」, 『韓國史論』 45.
- \_\_\_\_\_, 2002, 「고려전기 ‘번(蕃)’ 인식과 ‘동·서번’의 형성」, 『역사와 현실』 43.
- \_\_\_\_\_, 2005, 「高麗時期 海東 인식과 海東天下」, 『韓國史研究』 129.
- \_\_\_\_\_, 2022a, 「일역(日域) 인식의 형성과 추이」, 『韓國思想史學』 71.
- \_\_\_\_\_, 2022b, 「8~11세기 해동천하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 허인욱, 2008, 「高麗의 歷史繼承에 대한 契丹의 認識變化와 領土問題」, 『한국중세사연구』 24.
- 稻葉岩吉, 1931, 「高麗尹瓘九城考」, 『史林』 16-1.
- 池内宏, 1922, 「完顔氏の曷懶甸經略と尹瓘の九城の役」,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9卷.
- 津田左右吉, 1913, 「尹瓘經略地域考」, 『朝鮮歷史地理』 II.

## 고려 '동변(東蕃)' 여진문제의 국제환경과 정벌 추진세력의 구상

추명엽

고려의 여진정벌 연구는 전체적인 이해의 골격이 마련되었고 개별적인 각 주제별 연구도 심화되어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축적되었지만 고려, 요, 여진 모두 전례가 거의 없는 움직임은 보여 여러 의문점이 있다. 이는 당시 고려 북방의 국제환경과 여진정벌 추진세력의 구상과 지향을 통해 보다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려의 여진문제는 여진에 대한 규제와 조정, 기미주 경영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타났다. 1073년 이후 여진문제는 점차 표면화되었는데 이는 기미주의 고려 편입 강화 및 기미주 영역 확대 속에서 나타났다. 1080년의 동변 변란에 대한 대대적인 군대 동원은 고려 해동천하 속 동변 기미주 질서의 안정화 차원이었다. 당시 고려는 요 조정에 이를 알린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이는 고려의 동변 정벌이 고려 독자의 정책적인 결정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려의 1080년 동변 정벌에 대해 요 조정에서는 무관심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직접적인 의사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고려 숙종의 즉위 이후에는 고려와 요 사이에 외교적인 협력이 진전되어 여진정벌에 대한 일정한 양해와 묵인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고려 정종·문종대 이래 거란의 고려 영향권 묵인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그에 따라 1104년에 고려가 여진과 군사적으로 충돌하였을 때 요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교문서를 통해 고려와 고구려 관련성을 표현하였고 수사적인 측면에서 과거 중국의 5패나 7웅에 비견하며 고려의 영향권을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숙종에서 예종으로 이어지는 여진정벌 준비는 별무반 창설로 대표되는 국가적인 동원을 수반하였다. 개전 결정 당시 정벌의 명분은 ‘국치’의 해소였지만 정치적 목표는 축성과 사민을 통한 북방 위계질서의 안정화 및 확대였다. 개전 결정과정에서는 재추 대부분의 동의가 있었으며 김연과 같은 극소수의 반대만이 보인다. 개전 결정과정에서 요와의 관계를 고려한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요와의 양해 내지 묵인이 있었던 것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동시에 당시 고려 집권층은 여진정벌을 해동천하 내의 일로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고려 예종대의 개전 결정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숙종서소’에는 이미 축성과 사민의 창건을 통한 불법 전파가 제시되어 있었다. 이는 북방 위계질서의 안정화를 위한 정치·문화적인 확산을 이루겠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윤관 등이 정벌을 추진하고 축성한 이후 올린 표문에서는 중국 주와 한의 천하언설을 통해 해동천하의 위계적인 질서화가 표명되었다. 이어 영주 관청벽의 글에서는 고구려 영역 승계를 천하 언설을 통해 논리화하였으며 이는 해동천하의 질서화에서 더 나아가 축성을 통한 대소 위계질서의 확대 강화를 정교하게 서술한 것이었다.

**주제어:** 여진, 거란, 고구려, 숙종서소, 해동천하

## ABSTRACT

# The International Situation of Jurchens Problem and the Policy Direction of Goryeo

Choo Myungyeop

The study of Yun Gwan's military victory has a framework for overall understanding and specific studies have been deepened, accumulating studies in various aspects, but there are many questions. This needs to be understood in more depth through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 the northern part of Goryeo, and the policy direction of the Goryeo court.

The Jurchens problem in Goryeo appeared amid regulations to Jurchens. After 1073, the Jurchens problem emerged amid the military conflict among the Jurchens. In 1080, the mobilization of 30,000 troops to the Jurchens was for the stabilization of the Jurchens. At that time, Goryeo showed no signs of informing the Khitan court. It may be difficult to say that the Khitan court was indifferent to Goryeo's conquest, but there is no direct expression of intention.

After the accession of King Sukjong of Goryeo, diplomatic cooperation between Goryeo and Khitan seems to have progressed,

forming a certain understanding and tacit understanding of the conquest. Accordingly, when Goryeo clashed with the Jurchens militarily in 1104, Khitan did not take this as an issue, but recognized Goryeo's relation to Goguryeo through diplomatic documents, and recognized Goryeo's supremacy in terms of rhetoric.

Since then, the preparations for the conquest of Jurchens from King Sukjong to King Yejong have involved national mobilization. At the time of the decision to open the war, the political goal was to stabilize the northern order. In the process of deciding the opening of the war, most of the agreements were made, and only a few objections such as Kim Yeon were seen. There are few clues of considering the relation with Khitan in the process of deciding the war. This may have been due to the tacit understanding of the Khitan, and at the same time, the Goryeo ruling class considered the conquest of Jurchens as a matter within the Goryeo Dynasty.

**Keywords:** Jurchens, Khitan, Goguryeo, a written oath of King Sukjong, Goryeo's supremacy.

# 모용선비(慕容鮮卑)의 업성(業城)시대와 중화정통

이춘호 | 중국 惠州學院 歷史系 교수

- I. 머리말
- II. 동진(東晉)·전진(前秦)과 천하를 다툼
- III. 수덕(水德)에서 목덕(木德)으로
- IV. 왕도정치(王道政治)의 회복을 위한 노력과 좌절
- V. 맺음말



## I. 머리말

4세기 중순 모용선비는 중원(中原)으로 들어서기 전 요방(遼邦)의 극성(棘城)과 용성(龍城) 그리고 하북(河北)의 계성(薊城)에 각각 수도를 두고 그들이 이후 국가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 변화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한 바 있었다. 즉, 극성에 정도(定都)했을 때(337년) 연왕(燕王)이 권력의 정점에 서는 전연(前燕(혹은 燕王國))을 건국했으며,<sup>1</sup> 이어서 용성으로 수도를 옮기고는 기존에 진조(晉朝)와 유지해왔던 ‘근왕(勤王)’의 관계를 청산한 바 있다.<sup>2</sup> 그리고 계성에 수도를 둔 이후에는 모용준(慕容儁)이 대연황제(大燕皇帝)에 오르면서 그 국가의 형태는 왕국(王國)에서 제국(帝國)으로 바뀌었으며,<sup>3</sup> 동시에 정치·사회체제에도 변화가 일어나 이후 중원의 시대를 준비해갈 수 있었다.<sup>4</sup> 광수(光壽) 원년(357) 10월에 이르러 하북 전체와 하남(河南)의 일부 지역을 차지하고,<sup>5</sup> 이어서 그 다음 달 계성에서 업성(鄴城)으로 천도를 단행하였다. 이를 『자치통감』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승평(升平) 원년(357) 11월 계유[癸酉(17일)] 전연 주(主) 모용준은 계성에서 업성으로 천도하였다. 이어서 12월 을사[乙巳(19일)] 모용준은 업궁(鄴宮)에 들어 대사(大赦)하였으며, 동작대(銅雀臺)를 다시 건립하였다.<sup>6</sup>

\* 투고: 2023년 1월 14일, 심사 완료: 2023년 2월 2일, 게재 확정: 2023년 2월 13일

1 『資治通鑑』 卷95, 「晉紀」 17, 成帝咸康 3年(337)條, 3013쪽.

2 『자치통감』 권97, 「진기」 19, 穆帝永和 元年(345)조, 3068~3069쪽.

3 이춘호, 2021, 「燕王國에서 大燕帝國으로 -慕容鮮卑의 河北進出과 국가형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74, 123~164쪽.

4 이춘호, 2022, 「慕容鮮卑의 薊城시대와 河北지역」, 『동북아역사논총』 76, 159~209쪽.

5 『十六國春秋』 卷27, 前燕錄5·慕容儁傳 下, 533下쪽, “… 冬十月 …, 恪遂進兵渡河, 略地河南, 汝·潁·譙·沛皆陷, 分置守宰而還 … 盡陷河北之地.”

이로써 모용선비는 계성시대(하북의 시대)<sup>7</sup>를 끝내고, 정식으로 업성시대,<sup>8</sup> 즉, 중원의 시대를 열면서 이후 건희(建熙) 11년(370) 11월 전진(前秦)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13년을 이어갔다.<sup>9</sup> 이는 일찍이 모용외(慕容廆)가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중원을 차지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지 약 20년,<sup>10</sup> 그리고 모용황(慕容皝)이 모용준에게 하북으로 진출하도록 주문한 지 약 10년의 시

- 
- 6 『자치통감』 권100, 「진기」 22, 穆帝升平 元年(357)조, 3166~3167쪽, “十一月, 癸酉, 燕主儁自薊徙都鄴. …十二月, 乙巳, 燕主儁入鄴宮, 大赦. 復作銅雀臺.”
- 7 필자는 일찍이 한 연구에서 350년 2월 요방을 떠나 하북으로 남하하기 시작한 모용선비는 그해 3월 계성을 차지한 후 그곳에 하북 진출의 전초기지를 두었고, 이어서 352년 2월에 이르러 비로소 그곳으로 천도했으며, 그리고 357년 11월 업성으로 천도할 때까지 약 8년의 시간 동안 기왕의 정책과 그에 상응하는 국가제도에 변화를 주며 이후에 있을 중원의 시대를 준비해갔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계성에 수도를 둔 시간(이곳을 점령하고 천도할 때까지의 약 3년의 시간을 포함해서)을 계성시대로 명명한 후, 모용선비는 이때에 하북에서 어떻게 통치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또한 이 지역을 어떻게 요방을 대체하는 국가통치의 중심지역으로 변모시킬 것인가로 고민했다고 주장하였다(이춘호, 2022, 앞의 글, 160~165쪽). 이런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면, 하북지역은 계성시대와 떼려야 뗄 수 없으며, 나아가 전연의 국가통치 중심지역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었으므로 계성시대를 하북의 시대로 달리 부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8 모용선비는 하북 전체와 하남의 일부 지역을 차지한 후 곧이어 업성으로 천도하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학수고대해온 중원 진출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이는 바로 요방의 시대·하북의 시대를 끝낸 그들이 중원에서 화하문화를 계승하고, 그 후 천하통일에 매진하여 이를 완수함으로써 결국에는 중화의 주인에 등극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天命에 의해서만 중원을 차지할 수 있고, 더욱이 이곳을 차지한 자가 비로소 천하에 군림할 수 있으므로, 모용준은 당시 오호 출신은 천하의 제왕이 될 수 없다는 관념을 철저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목에서도 밝혔듯 중화정통을 장악하기 위한 노력이 업성시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대의 주요 특징이라 할 만하다.
- 9 업성이 낙양과 경쟁하며 수도로서 번영한 때는 魏晉南北朝와 같이 分裂의 시대에 국한되는데, 後趙·前燕·北齊처럼 업성에 수도를 둔 왕조의 특징으로는 바로 중국을 통일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隋唐 통일 이후 어느 왕조도 업성을 다시 돌아보지 못한 것은 이곳이 수도의 입지로서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박한제, 2000, 「魏晉南北朝時代 각 왕조의 首都 선정과 그 의미-洛陽과 鄴都」, 『역사학보』 168, 136, 149쪽.
- 10 『晉書』 卷110, 慕容儁載記, 2831쪽, “初, 廆常言:「吾積福累仁, 子孫當有中原。」”

간을 보낸 후의 일이었다.<sup>11</sup> 사실 천도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매우 어렵고 중요한 국가의 대사업에 틀림없다. 그럼 업성은 모용선비에게 어떤 의미의 수도였으며, 그들은 이곳에서 국가의 발전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에 옮겨갔던 것일까? 이 문제를 이 글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업성으로의 천도<sup>12</sup>가 하북 전체와 하남의 일부 지역을 차지하고 바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모용선비가 요방을 떠나 하북으로 진출한 주 목적이 이곳으로의 천도를 통해 중원의 시대를 열기 위함이었는데,<sup>13</sup> 이는 그들이 다른 오호족(五胡族)에 비해 화하(華夏)문화<sup>14</sup>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소

11 『십육국춘추』 권25, 전연록3·慕容皝傳 하, 521上쪽, “引世子僞屬以後事曰, 今中原未平, 方經建世務, 委賢任哲, 此其時也. 恪智勇兼濟, 才堪任重, 汝其委之, 以成吾志. 又曰, 陽士秋志行高潔, 忠幹貞固, 可托大事, 汝善待之.”

12 중원으로 들어선 모용선비에게 이 지역의 거점도시 업성으로의 천도는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사서에서는 상서로운 현상의 출현으로 업성 천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太平御覽』 卷121, 偏霸部5, 584下쪽, “十一月, 自薊遷鄴, 二月, 入鄴宮, 大赦, 繕宮殿, 復銅雀臺, … 二年 三月, 常山寺大樹自拔, 根出壁七十三, 光色精奇, 有異常玉, 以爲岳神之命. 遣尙書郎段勤, 以太牢祀之. 五月, 遼西獲黑兔.”

13 전연의 모든 계층은 하나같이 후조를 정벌하고, 이어서 도탄에 빠진 중원의 한인들을 구하는 것이 자신들의 하북 진출의 목표라고 주장했는데, 그중 封奕의 견해가 비교적 구체적이며 설득력이 있다. 그는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 하북으로의 진출을 추진했던 것인데, 우선 계성을 취하고(先取薊城), 나아가 중원을 차지한 후 업성으로 천도(次指鄴都)하여 중화의 주인이 될 것을 역설하였다(『자치통감』 권98, 「진기」 20, 목제영화 5년(349)조, 3092~3093쪽). 그의 견해를 통해 하북으로 남하한 모용선비의 목표는 보다 분명해졌다고 하겠다.

14 『晉書』 卷109, 慕容皝載記, 2828쪽, “(成)泮曰:「今華夏分崩, 九州幅裂 … .」」 『晉書』 卷113, 苻堅載記 上, 2896쪽, “苻融上疏於堅曰:「臣聞東胡在燕 … 遂據華夏, 跨有六州 … .」”(밑줄은 필자) 사서에는 ‘華夏’를 華夏之地의 뜻으로 쓰고 있는데, 이를 中原之地·中華之地 혹은 ‘中國’으로 바꿔 써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지역적인 뜻 외에 정치·문화·사회 등의 개념으로 보아도 이들 용어 사이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언어습관상 화하는 문화와 연용해서, 중원과 중국은 지역적인 개념으로, 그리고 중화는 이념·사상적인 뜻을 포함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자는 이 글에서 이에 충실하여 화하는 화하문화, 혹은 그 문화에 근거에 실시된 정책을 화하정책으로, 중원은 전적으로 지역의 개념으로, 중화는

화하고 발전해갔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15</sup> 352년 11월 대연황제에 오른 모용준은 우선 계성에 도읍을 정한 후 기존에 유지해왔던 여러 정책과 그에 상응하는 국가제도를 새롭게 조정함으로써 이후 중원에서 낫선 ‘나그네’가 아닌 ‘주인’의 자격으로 중화정통(中華正統)<sup>16</sup>을 장악하려 한 것이다. 당시 낙양(洛陽)을 대신해 화북(華北)<sup>17</sup>의 정치·군사·지리·상업 등의 중심지 역할을 하

중화정통과 연통해서 이를 장악한 왕조를 중화왕조 혹은 중화의 정통왕조로 사용하여 이들 사이를 구분하고자 한다. 더불어 화하문화란 용어는 근본적으로 漢文化와 구별되지 않으나, 다만 “於是漸慕諸夏之風矣”(『진서』 권108, 慕容廆載記, 2803쪽) 혹은 “大燕雖革命創制, 至於朝廷銓謨, 亦多因循魏晉”(『진서』 권110, 모용준제기, 2838쪽)처럼 당시 모용선비는 화하문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행동으로 옮겼으므로 그들의 이런 행위를 강조한다는 뜻에서 특별히 ‘화하문화’로 사용하기로 한다.

- 15 『진서』 권108, 모용외제기, 2803쪽, “時燕代多冠步搖冠, 莫護跋見而好之, 乃斂髮襲冠, 諸部因呼之爲步搖 … 遷邑於遼東北, 於是漸慕諸夏之風矣.” 『태평어람』 권121, 편패부5, 583上쪽, “遷邑遼東, 於是漸變胡風.”
- 16 秦漢시기 유행했던 大一統 이론과 天命論의 기초 위에서 형성된 중화정통은 한 왕조가 합법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중화정통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 안에는 仁禮文化正統·中原地理正統 그리고 五德終始循環論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중화정통을 가진다는 것은 인예를 중심으로 한 화하문화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중원을 차지한 후 천하의 중심인 이곳의 지리적인 정통지위를 이용하여 통일제국을 건설하려 노력하고, 나아가 오덕중시 순환론에 근거해 천명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汪文學, 1998, 「再論中國古代政治正統論」, 『貴州文史叢刊』 6, 31쪽). 이상의 논거에 근거할 때, 모용선비는 다수 한인의 협조를 얻어 정치·문화 등에 개혁을 추진하고 화하문화의 계승자임을 자처했으며, 그리고 중원으로 진출한 후 업성으로 천도함으로써 천하통일에 대한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오행에 근거해 후조의 계승자임을 자처함으로써, 오호 출신이란 혈연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결국에는 전연이 호·한인의 정치적 위상을 대변하는 정통왕조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 중화정통은 이상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며, 이를 장악하기 위한 노력이 업성시대에 있었다. 모용선비가 이상의 중화정통에 근거해 발전을 도모해갔을 때 그들의 군주를 중화의 군주, 전연을 중화왕조 혹은 중화의 정통왕조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17 華北은 지리적으로 秦嶺·淮河 이북과 長城 이남을 포괄하는 지역으로, 대체로 지금의 북경시·하북성·하남성·산서성·섬서성 등을 가리킨다. 하지만 이 글에서 지칭하는 화북은 太行山·函谷關 동쪽과 회하 북쪽, 그리고 전연이 남하한 후 차지하게 된 하북(황하 이북)과 하남지역에 국한된다.

고 있던 업성<sup>18</sup>에서 중화정통을 장악하기 위한 모용선비의 여러 노력과 시도가 있었다.

주지하듯 지금까지 모용선비에 대한 연구는 여러 방면에서 비교적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그중 이 글의 주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로, 이를테면 증원으로 들어선 이후 이 지역에 대해 어떤 통치방식을 취했는지에 대한 연구,<sup>19</sup> 한인사족과의 전반적인 관계변화에 주목한 연구,<sup>20</sup> 모용선비 지배구조의 변화 과정을 다룬 연구,<sup>21</sup> 그리고 오호(五胡)왕조의 중화정통에 대한 인식변화를 다룬 연구 중 모용선비에 대한 것이 있다.<sup>22</sup> 이 밖에 위진남북조시기 업성이 정

- 
- 18 郭黎安, 1989, 「魏晉北朝鄴都興廢的地理原因述論」, 『史林』 4, 12左쪽; 鄒逸麟, 1995, 「試論鄴都興起的歷史地理背景及其在古都史上的地位」, 『中國歷史地理論叢』 1, 80~83쪽; 박한제, 2000, 앞의 글, 121~125쪽; 劉志玲, 2008, 「縱論魏晉北朝鄴城的中心地位」, 『邯鄲學院學報』 4, 30左쪽; 峰雪幸人, 2016, 「慕容政權遷都考-五胡十六國時代における胡族'侵入'の一形態」, 早稻田大學長江流域文化研究所編, 『中國古代史論集-政治・民族・術數』, 東京: 雄山閣, 233~234쪽.
  - 19 지배선, 1986, 『中世東北亞史研究-慕容王國史』, 一潮閣, 150~154쪽; 李海葉, 2011, 「前燕中原時期胡漢分治制度考」, 『內蒙古社會科學』 2, 53~57쪽; 高然, 2018, 『慕容鮮卑與五燕國史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64~89쪽.
  - 20 鄒禮洪, 1985, 「論中原士大夫對前燕慕容氏封建化的影響」, 『新疆師範大學學報』 1, 1~7쪽; 鄭小容, 1990, 「慕容鮮卑漢化問題初探」, 『文獻』 2, 152~161쪽; 지배선, 1994, 「韓桓에 대하여」, 『동방학지』 86, 91~120쪽; 劉國石, 1997, 「鮮卑慕容氏與趙魏士族」,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5, 67~71쪽; 李海葉, 2001, 「漢士族與慕容氏政權」, 『內蒙古師範大學學報』 4, 104~110쪽.
  - 21 谷川道雄, 1971, 「慕容國家における君權と部族制」, 『隋唐帝國形成史論』, 東京: 筑摩書房, 68~99쪽; 小林聰, 1988, 「慕容政權の支配構造の特質-政治過程の検討と支配層の分析を通して」, 『九州大學東洋史論集』 16, 35~78쪽; 강문호, 1999, 『中國中世政治史研究』, 국학자료원, 107~182쪽; 姚宏杰, 2004, 「君位傳承與前燕-後燕政治」, 『史學月刊』 3, 29~35쪽; 小野響, 2017, 「前燕國家體制考-慕容僞稱帝以後を中心として」, 『史淵』 39, 25~48쪽.
  - 22 王柯, 1998, 「五胡十六國時代における胡族政權の中華王朝思想」, 『神戸大學國際文化學部紀要』 10, 1~23쪽; 鄧樂群, 2004, 「十六國胡族政權的正統意識與正統之爭」, 『南通師範學院學報』 4, 84~87쪽; 趙紅梅, 2011, 「前燕正統觀的變化-兼及中原士人出仕前燕心態」, 『北方論叢』 6, 74~77쪽; 李路·李德

치·경제·군사·지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분석한 연구<sup>23</sup>는 이곳의 전반적인 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렇다면 업성에 정당한 모용준의 입장에서 자신은 진정한 중화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동진·전진과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이들이 존재하는 한 전연의 운명은 반드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동진이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따라서 모용준은 이들과의 한판 대결을 위해 전국 각 호(戶)에 정남(丁男) 하나만 남기고 모두 보졸(步卒)로 징발하는 조령(詔令)을 내리게 된다. 이번 동원령이 실제 실행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으므로 그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결국 대규모 정복 전쟁은 발발하지 못했다. 만약 이들을 멸하고 천하통일을 이루었다면, 모용준은 바로 명실상부한 중화의 주인에 등극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모용위(慕容暉)의 재위 때에도 동진·전진과 밀고 밀리는 전쟁은 계속됐는데, 비록 모용준이 계획했을 때의 전쟁과는 성격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역시 천하의 패권을 다툰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모용준은 대연황제를 칭한 이후 한(漢)·위(魏)·진(晉)과 같은 중화왕조(中華王朝)의 정통성을 장악하기 위해서 흉노(匈奴)의 한조(漢趙)와 갈족(羯族)의 후조(後趙), 그리고 강남에 우거하고 있던 동진을 무시한 채 일찍이 천하를 통일하고 호·한인들을 호령했던 진(晉 혹은 西晉)의 계승자임을 선언한다. 따라서 진의 금덕(金德)을 이어 수덕(水德)으로 오행(五行)의 순서를 정하였다. 그런데 업성으로 천도한 후 정통의 계승과 관련하여 변화가 일어났다. 화북을 통일하고 지배했던 오호왕조 후조의 정통을 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후조가 진의 정통

山, 2018, 「十六國時期慕容鮮卑正統意識的演變」, 『北華大學學報』 1, 43~49쪽.

23 郭黎安, 1989, 앞의 글, 10~14, 5쪽; 楊洪權, 1991, 「鄴城在魏晉南北朝軍事上的地位」, 『烟台師範學院學報』 2, 40~45, 31쪽; 鄒逸麟, 1995, 앞의 글, 77~83쪽; 박한제, 2000, 앞의 글, 117~150쪽; 劉志玲, 2008, 앞의 글, 27~32쪽.

을 이은 합법적인 왕조로 모용선비에 의해 인정되고 나아가 계승되었을 때, 전연은 오후의 자격으로 호·한인의 정치적 위상을 대변하는 최초의 정통왕조로 탈바꿈하게 된다. 수덕에서 목덕(木德)으로의 변화는 바로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연의 업성시대를 모용준과 모용위의 재위시기, 그중 후자를 모용각(慕容恪)의 보정(輔政)시기와 가족훈후(可足渾后)·모용평(慕容評)의 섭정(攝政)시기로 나눌 때, 특히 가족훈후와 모용평이 섭정했을 당시 전연은 정치·군사·사회·경제 등에서 여러 문제를 돌출했는데, 신소(申紹)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지속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長治久安)에 대하여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인정(仁政)과 덕치(德治)를 시행하여 나라의 통치를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고 중원의 도덕질서를 회복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였다. 비록 그의 주장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하여 통치체계의 부패와 사치는 해결될 수 없었지만, 이런 노력들은 다분히 중화정통의 기초 위에서 왕도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왕도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이런 시도들로 인해 전연은 이념적으로 한·위·진과 같은 중화왕조로 부단히 탈바꿈해갈 수 있었다.

이 글에서 이상의 내용을 3개의 장으로 나눠 검토를 진행할 때, 4세기 중반 모용선비는 업성시대에 중화정통을 장악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이 시대가 가지는 성격은 어떠한지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 II. 동진(東晉)·전진(前秦)과 천하를 다툼

중원의 거점도시 업성<sup>24</sup>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sup>25</sup> 모용준은 동진·전진과 함께 천

24 楊洪權, 1991, 위의 글, 40左쪽; 劉志玲, 2008, 위의 글, 29右~30右쪽.

25 당시 상업도시로서의 성격이 농후했던 업성은 화북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의 집산

하를 나누고서는 진정한 중화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여겼다. 이는 천도하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때에 대규모 동원령을 내려 그들을 상대로 한 군사정벌을 준비한 것에서 확인된다.<sup>26</sup> 비록 전진의 평주자사(平州刺史) 유평(劉特)이 5,000호(戶)를 이끌고 귀항하기는 했지만,<sup>27</sup> 특히 동진의 군사적 위협은 그의 이런 믿음에 더 강한 확신을 갖게 하였다.

광수 2년(358) 10월 동진의 태산태수(泰山太守) 제갈유(諸葛攸)가 동군(東郡)을 침범하자, 모용준은 모용각과 양무(陽鶯)·모용장(慕容臧) 등을 보내 그의 공격을 막아낸다.<sup>28</sup> 그 이전 해에도 동군을 공격한 바 있던 제갈유<sup>29</sup>는 이번에도 당시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공격해 온 것이었다. 게다가 전진과 국경을 맞닿고 있던 병주(并州)의 상황도 전연에게는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았다. 흉노추수(匈奴酋帥) 출신이었던 장평(張平)<sup>30</sup>이 신흥·안문·서하·태원·상당·상군 등지에서 300여 개의 벽루(壁壘)를 장악하고 10여만 호의 호·한인을 통솔하며 세력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전연과 전진, 그리고 동진 사이를 오가며 자립을 도모하고 있었다.<sup>31</sup> 만약 장평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이 동진 혹은 전진에게로 넘어간다면, 업성을 포함한 황하 중하류는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군사정벌은 단호하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자 병주의 누벽(壘壁) 100여 곳이 항복하였고, 이에 열관(悅館)을 안서장군

지였으며, 동시에 수로·육로를 통해 요동·요서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업성으로 수도를 옮긴 배경에는 이 도시가 동북아시아와 화북지역을 연결하는 상업도시로서의 성격을 크게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峰雪幸人, 2016, 앞의 글, 234쪽). 업성으로의 천도를 상업 혹은 무역이란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매우 신선하다.

26 『자치통감』 권100, 「진기」 22, 목제승평 2년(358)조, 3171쪽.

27 『진서』 권110, 모용준재기, 2839쪽.

28 『자치통감』 권100, 「진기」 22, 목제승평 2년(358)조, 3170~3171쪽.

29 『十六國春秋輯補』 卷27, 前燕錄5, 209쪽.

30 陳連慶, 1993, 『中國古代少數民族姓氏研究』,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30~31쪽.

31 『자치통감』 권100, 「진기」 22, 목제승평 원년(357)조, 3166쪽, “張平據新興·雁門·西河·太原·上黨·上郡之地, 壁壘三百餘, 夷·夏十餘萬戶, 拜置征鎮, 欲與燕·秦爲敵國.”

(安西將軍)·호흉노중랑장(護匈奴中郎將)·병주자사(并州刺史)에 임명하여 그 지역을 치리하도록 조치한다. 이어 장평의 부하 제갈양(諸葛驥)·소상(蘇象)·교서(喬庶)·석현(石賢) 등이 누벽 136곳을 들어 귀항하자, 모용준은 크게 기뻐하며 그들의 관작을 회복시킨다.<sup>32</sup> 이렇게 태행산(太行山) 서쪽의 병주지역을 장악한 전연은 이후 전진과 있을 군사적 대결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였으며, 화북의 전체적인 정세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다.

그렇지만 모용준은 이상의 전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 그것은 특히 동진과의 한판 대결을 통해 중화의 정통성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혹자는 당시 ‘자고무호인위천자자(自古無胡人爲天子者)’처럼 오호 출신은 중화의 주인으로 천하의 제왕이 될 수 없다는 의식이 만연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던 한인왕조 동진을 무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으므로 바로 이 점이 모용준으로 하여금 동진정벌을 추진토록 한 중요한 이유였다고 주장한다.<sup>33</sup> 여하튼 이와 관련한 사서의 기록을 먼저 보기로 한다.

모용준은 전진과 동진을 정벌하고자 하였다. 12월 조령(詔令)을 내리길, 전국 주군(州郡)의 호구 수를 조사하여 각 호마다 정남 하나만 남기고 그 외 나머지 모두를 병사로 징발한다. 이렇게 150만의 보졸을 확보한 후 이듬해 봄에 낙양으로 걸 집하도록 한다.<sup>34</sup>

32 『십육국춘추』 권27, 전연록5·모용준전 하, 535上쪽. 諸葛驥·石賢 등이 이끌고 전연에 항복한 누벽의 수를 다른 사서에서는 138곳(『진서』 권110, 모용준재기, 2840쪽, “... 石賢等率壘壁百三十八降于僞.” 『자치통감』 권100, 「진기」 22, 목제승평 2년(358)조, 3170쪽, “... 諸葛驥等帥壁壘百三十八降於燕.”) 혹은 심지어 38곳이라고 기록하고 있다(『십육국춘추집보』 권27, 전연록5, 211쪽, “... 石賢等率壘壁三十八降於僞.”). (밑줄은 필자)

33 강문호, 1999, 앞의 책, 181쪽.

34 『자치통감』 권100, 「진기」 22, 목제승평 2년(358)조, 3171쪽, “燕主僞欲經營秦·晉, 十二月, 令州郡校實見丁, 戶留一丁, 餘悉發爲兵, 欲使步卒滿一百五十萬, 期來春大集洛陽.”

앞의 인용문에서 보듯, 동원령은 광수 2년(358) 12월에 내려졌는데, 각 호에 정남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모두를 병사로 징발하여 이듬해 봄(來春)까지 낙양으로 결집시킨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3~4개월의 짧은 기간 내에 150만의 보졸을 징발하기 위해 동원된 행정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더욱이 이들이 제대로 된 훈련도 없이 전장으로 향한다면 천하통일은 고사하고 그 결과는 볼 보듯 뻔한 것이다. 이에 무읍(武邑) 사람 유귀(劉貴)는 상서(上書)하여 피폐한 백성들의 삶도 문제이거니와 각 호에 정남 하나만 남기고 모두 병사로 징발하는 것 자체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법이므로,<sup>35</sup> 반드시 변란을 초래하고야 말 것이라며 극간(極諫)하였다.<sup>36</sup>

모용준은 상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동원령을 새롭게 고쳐 반포하도록 조치했는데, 즉 징병의 방법과 기한 그리고 장소를 새롭게 바꾸었다. 정남 셋 중에 하나, 혹은 다섯 중에 둘을 징발하는(三五發兵)<sup>37</sup> 방법으로, 기한은 거의 1년을 늘려 이듬해 겨울까지로 하며, 장소는 낙양 대신 업성으로 바꿔 결집하도록 조치한 것이다.<sup>38</sup> 360년 정월 모용준이 업성에서 징집된 병사들을 대열(大閱)했다는 기록을 통해,<sup>39</sup> 당시 국가의 행정력이 이번 동원령의 집행에 대대적으로 집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징집된 병사들의 관리에는 오히려 소홀하여 업성은 치안의 부재로 도적이 들끓어 밤낮으로 혼란스러웠다고 한다.<sup>40</sup> 사서기록에 의하면, 당시 침질(寢疾)을 심하게 앓고 있던 모용준은 이들 병사를 이끌고 동진과 전진의 정벌에 나서지 못한 채 끝내 업성의 응복전(應福

35 지배선, 1986, 앞의 책, 139쪽.

36 『진서』 권110, 모용준제기, 2840쪽.

37 陳琳國, 2010, 『中古北方民族史探』, 北京: 商務印書館, 404쪽.

38 『자치통감』 권100, 「진기」 22, 목제승평 2년(358)조, 3171쪽, “乃更令三五發兵, 寬其期日, 以來冬集鄴.”

39 『자치통감』 권101, 「진기」 23, 목제승평 4년(360)조, 3179쪽, “春, 正月, 癸巳, 燕主儁大閱于鄴 ….”

40 『진서』 권110, 모용준제기, 2842쪽, “是時兵集鄴城, 盜賊互起, 每夜攻劫, 晨昏斷行.”

殿)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sup>41</sup>

모용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태자 모용위의 황제 계위(繼位)는 그리 순탄치만은 못했다. 대신들이 그의 숙부 모용각을 대연황제에 추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모용각은 부(父) 모용항 때부터 전연의 국가적인 발전에 헌신했으며, 또한 지용(智勇)을 모두 겸비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동진·전진과 대치하고 있던 상황에서 황제에 오를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sup>42</sup> 그런데 그가 완강하게 고사하자, 모용위는 비로소 황제위(皇帝位)에 오르게 된다.<sup>43</sup> 그렇지만 모여근(慕輿根)의 반란 획책에서 보듯 새 군주가 막 즉위했을 당시 전연의 내부사정은 그리 안정적이지만은 못했던 것이다. 그러면 모용위의 재위 때(360년 1월~370년 11월)에도 모용준이 계획했던 것처럼 동진·전진과 천하의 패권을 다투기 위한 목적에서 전쟁이 준비되고 발발했는지가 궁금하다. 이는 업성시대가 가지는 성격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이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큰 틀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으나,<sup>44</sup> 세부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즉, 전자처럼 모용각이 모용위를 보좌하면서 전연은 허창(許昌)·여남(汝南)·낙양·완성(宛城) 등을 점령하며 강역이 회하(淮河) 이남과 형주(荊州) 이북에까지 이르러 동

41 『十六國疆域志』卷3, 前燕志, 126쪽, “僞光壽四年正月, 薨於應福前殿.”

42 谷川道雄, 1971, 앞의 글, 83쪽.

43 『진서』 권111, 慕容暉載記, 2847쪽, “及僞死, 羣臣欲立慕容恪, 恪辭曰:「國有儲君, 非吾節也。」於是立暉.”

44 건희 원년(360) 대연황제에 오른 모용위는 얼마 후慕容垂를 河南大都督·征南將軍·兗州牧·荊州刺史에 임명하고 護南蠻校尉를 겸직하여 梁國에 진수하도록 조치하였다(『진서』 권111, 모용위재기, 2847쪽). 후자는 모용수가 특히 호남만교위를 겸직한 후 “有聲於梁楚之南”(『진서』 권123, 慕容垂載記, 3078쪽)하게 됐는데, 이는 그가 전연의 남방정책(동진을 군사적으로 압박)에 종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三崎良章, 2006, 「十六國諸國の異民族統御官と東晉-南蠻校尉の設置を中心として」, 『五胡十六國の基礎的研究』, 東京: 汲古書院, 223쪽). 이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면, 모용위의 재위 초기, 즉 모용각의 보정시기 동진·전진과 천하의 패권을 다투기 위한 목적에서 전쟁이 준비되고 수행됐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진을 강하게 압박하고<sup>45</sup> 부소[苻護(혹은 苻廋·苻廋)]의 난을 이용해 장차 전진의 근거지 관릉(關隴)지역을 차지한 후 북중국을 통일할 기회를 얻기도 했지만, 후자처럼 11살의 충유(沖幼)한 나이로 즉위한 모용위가 강력한 카리스마로 친정(親政)할 수 없자, 특히 모용각 사후에는 가족훈후와 모용평이 섭정을 하면서 전연을 난정(亂政)과 부패로 몰아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용위는 스스로 정치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동진·전진과 천하의 패권을 다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인데, 더욱이 동진 환온(桓溫)의 북벌 때에는 수도 업성을 포기하고 요방의 용성(혹은 화용(和龍))으로 달아나려고 하는 등 절절절명의 위기에 빠지기도 하였다.<sup>46</sup> 당시 모용수(慕容垂)·모용덕(慕容德) 형제의 활약으로 환온이 크게 패하고 물러서긴 했으나, 당시 전연의 정치는 안정적이지 못하고 경제는 불안했으며, 사회는 혼란스러웠다. 이처럼 동진·전진과 천하를 다투기 위한 모용위 때의 사정은 모용준 때와는 사뭇 구별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업성시대를 크게 ① 모용준이 중화의 주인이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진·전진과 천하를 다투던 2~3년, ② 전연이 중화왕조로 전환되어 가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모용각<sup>47</sup>이 모용위의 재위 초기 보정을 통해 이런 의식을 기본적으로 계승했던 6~7년,<sup>48</sup> ③ 모용위의 재위 후기 여러 문제에 맞닥뜨리면서 나라가 급격하게

45 『진서』 권111, 모용위제기, 2849쪽.

46 『십육국춘추』 권29, 전연록7·모용위전 하, 545上쪽, “… 暉及太傅評大懼, 謀奔和龍 ….”

47 姚宏杰, 2004, 앞의 글, 33左쪽.

48 필자는 모용각이 자신의 보정시기에 모용준 때처럼 동진·전진과 천하의 패권을 다투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해갔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낙양을 점령한 후 모용수에 대한 관직의 임명과, 그리고 皇甫眞의 진연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자치통감』의 기록에 의하면, 건희 5년(364) 모용각은 낙양을 공략하기 위해 우선 太宰司馬 悅希를 盟津에, 豫州刺史 孫興을 成皋에 주둔하도록 명령한다. 이후 열회는 황하 이남의 여러 성을 모두 차지했으며, 이듬해 모용각은 모용수와 연합한 후 낙양을 공격하여 함락한다. 전연의 세력이 崤와 澗 지역에까지 다다르자, 전진의 부견은 친히 陝城을 지켜 전연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이어서 慕容筑은 洛州刺史의 신분으로 金墉에 진수하였고, 모용수는 都督荊·揚·洛·徐·兗·豫·雍·益·涼·秦十州諸軍事, 征南大將軍, 荊州牧에 임명된 후 魯陽에 진수하

쇠퇴로 흘러간 2~3년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모용선비가 동진·전진과 천하를 다투던 와중에 특히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첫째, 당시 여호(呂護)처럼 전연·동진·전진 사이를 오가며 귀항과 배신을 반복한 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귀항 여부가 당시 삼국 간의 관계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여호는 일찍이(353년 3월)<sup>49</sup> 전연으로 귀항하여 영남장군(寧南將軍)·하내태수(河內太守)에 임명된 바 있는데, 건희(建熙) 2년(361) 2월에 이르러 다시 동진에게 항복한 후 전장군(前將軍)·기주자사(冀州刺史)에 임명되었고, 나아가 동진의 대대적인 힘에 의존해 업성을 기습하려 획책하였다.<sup>50</sup>

장평도 여호처럼 이들 삼국 사이에서 귀항과 배신을 반복하며 자립을 도모했었음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들 외에도 풍양(馮養)은 상당태수(上黨太守) 단강(段剛)을 내쫓고 스스로 이곳의 태수를 자처한 후 영화(永和) 11년(355) 12월 동진으로 귀항했으며,<sup>51</sup> 안서장군(安西將軍)과 연주자사(兗州刺史)에 각각 임명된 바 있는 고창(高昌)과 이력(李歷)은 동연(東燕)과 복성(濮城)에서 전연에 반기를 들고 자립을 도모하였다.<sup>52</sup> 업성으로의 천도가 이들을 확실히 전

---

였다. 이들은 모용각에 의해 임명된 것임이 분명하고, 특히 모용수의 도독직에서 보듯 전진과의 대결 또한 염두에 두었으나, 그를 정남대장군과 형주목에 임명한 것은 동진에 대한 군사정벌이 주된 이유였던 것이다. 이 밖에 모용각은 귀항과 배신을 반복하며 도전해왔던 呂護를 예전처럼 은덕으로 처리하고자 했지만, 그런 그를 향해 황보진은 흉악한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도전해오는 그를 이젠 무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明公方飲馬江湘，勒銘劍閣”(『진서』 권111, 모용위제기 附皇甫眞傳, 2861쪽)이라고 진언하였다. 여기에서 특히 江湘·劍閣을 통해 모용각의 보정 시기 전쟁의 성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모용각은 동진·전진과의 한판 대결을 통해 중화의 정통성을 장악하려 한 모용준의 이런 의식을 계승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49 이춘호, 2022, 앞의 글, 191쪽, 각주 93.

50 『십육국춘추집보』 권28, 전연록6, 218쪽.

51 『자치통감』 권100, 「진기」 22, 목제영화 11년(355)조, 3151쪽.

52 『자치통감』 권100, 「진기」 22, 목제승평 2년(358)조, 3170쪽.

연의 세력 내로 묶어두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였다는 주장<sup>53</sup>도 있으나, 여하튼 천도 이후 동진·전진과 천하를 다투고 있던 모용선비에게 이들의 배반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기에 이들에 대한 군사정벌은 빠르고도 과감하게 진행되었다. 사서기록에 의하면, 풍양과 고창·이력을 제거하기 위해 모용평·모여근<sup>54</sup>과 양무·모용장 등이 각각 출병하였으며,<sup>55</sup> 이들은 모두 괴멸된 후 그 휘하에 있던 무리들 전체가 전연에게로 항복했다고 한다. 특히 동진과 대대적으로 연합하여 업성을 기습하려던 여호에 대해서는 태재(太宰) 모용각이 호군장군(護軍將軍) 부안(傅顔) 등과 5만의 병사를 이끌고 관군장군(冠軍將軍) 황보진(皇甫眞)이 통솔하던 1만의 병사와 연합하여 야왕(野王)에서 그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보다 신속하게 공격할 것을 청하는 부안에게 모용각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여호의 무리에 대해 관직의 수여 혹은 ‘금은보화(重官美貨)’ 등으로 회유하면, 결국에는 병불혈인(兵不血刃)으로 대승할 수 있다고 설득한다. 그런 후 모용각의 계책대로 크게 패한 여호는 처자를 버리고 형양(滎陽)으로 달아났다(護衆死傷殆盡, 棄妻子奔滎陽)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전연에게로 귀항하였다. 모용위는 그의 죄를 사하고 그를 광주자사(廣州刺史)에 임명했는데, 호삼성(胡三省)은 당시 전연이 광주지역을 차지하고 있지 못했으므로 이 자사직은 그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해한 바 있다.<sup>56</sup> 이처럼 당시 천하를 다투고 있던 모용선비에게 귀항과 배반을 반복하던 세력들은 비록 동진·전진보다는 그 존재감이 훨씬

53 小野響, 2017, 앞의 글, 28上下쪽. 중원으로 진출한 모용준은 이곳에서 반항하고 있던 세력들을 어떻게든 전연 안으로 통합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인데, 그의 대연황제 즉위는 이들에 대한 힘의 우위를 세우기 위한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을 자신의 세력 내로 묶어두기 위해 중앙집권 조치를 추진하게 되는데, 업성으로의 천도, 관료기구의 정비 그리고 이들에 대한 무력토벌 등이 이에 해당한다. 小野響, 위의 글, 28上~29下쪽.

54 『자치통감』 권100, 「진기」 22, 목제승평 2년(358)조, 3167~3168쪽.

55 『진서』 권110, 모용준재기, 2840쪽.

56 『자치통감』 권101, 「진기」 23, 목제승평 5년(361)조, 3187쪽, “呂護復叛, 奔燕, 燕人赦之, 以爲廣州刺史, 胡注: 燕無廣州, 以刺史之名授護耳.”

떨어질지 모르나 언제든 전연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sup>57</sup>

둘째, 모용선비는 전진과 직접적인 군사충돌이 그리 많지 않았으나, 그들이 존재하는 한 진정한 중화의 주인에 등극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전진의 부씨(苻氏)가 주(周)·진(秦)·한(漢)의 수도인 장안에 정도한 후 역시 중화의 주인을 꿈꾸며 태행산 이동으로 세력을 뻗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전연을 멸하고 북중국을 통일한 이후의 일이긴 하나, 부견(苻堅)은 명실상부한 천하의 제왕이 되기 위해서 그의 동생 부융(苻融) 및 대다수 대신의 반대를 무릅쓰고 동진에 대한 군사정벌에 나섰다. <sup>58</sup> 동진을 멸한 후에야 비로소 전진이 중화의 정통왕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모용선비의 입장에서 동진뿐만 아니라 전진 역시 공멸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중화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고 하겠다.

사실 전진과의 군사충돌은 부소의 귀향과 그의 출병 요청 때문에 촉발된 측면이 있다. 사서기록에 의하면, 건희 9년(368) 2월 부견에 반기를 든 낙주자사(洛州刺史) 부소는 자신의 진수지 섬성(陝城)<sup>59</sup>에서 전연으로 귀향한 후 도움을 청하게 된다. <sup>60</sup> 전연이 그의 도움에 응해 관중(關中)으로 밀고 들어갔다면, 후술하겠지만 모용덕의 견해처럼 당시 전연은 충분히 전진을 공멸하고 북중국을 통일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섬성은 함곡관(函谷關)과 동관(潼關) 등 관중 동쪽 관문에 해당하는 지금의 삼문협(三門峽) 지역으로 관동·서(關東·西) 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부소의 귀향으로 이 지역을 손에 넣은 전연으로서는 이후 전진을 정벌하기 매우 요긴하였다. 그래서 이 사건이 전진에게

57 高然, 2018, 앞의 책, 76쪽.

58 『진서』 권114, 苻堅載記 下, 2935쪽, “融每諫曰:「…且國家, 戎族也, 正朔會不歸人. 江東雖不絕如縵, 然天之所相, 終不可滅。」”; 『자치통감』 권104, 「진기」 26, 孝武帝太元 7年(382)조, 3301쪽, “秦王堅會羣臣于太極殿, 議曰:「自吾承業, 垂三十載, 四方略定, 唯東南一隅, 未霑王化. 今略計吾士卒, 可得九十七萬, 吾欲自將以討之, 何如?」”

59 『십육국강역지』 권4, 前秦志, 182쪽, “及堅時以洛州刺史鎮陝城.”

60 『자치통감』 권101, 「진기」 23, 海西公太和 3年(368)조, 3209쪽.

끼칠 후과(後果)는 매우 엄중한 것이었기에, 당시 참서(讖書)에는 전연의 전마(戰馬)들이 관중으로 들어와 위수(渭水)의 물을 마시게 된다고 적혀 있었던 것이다. 객관적으로 모용선비에게 전진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참서에 적혀 있었던 것이리라. 사태의 심각함에 놀란 부견은 전연이 부소의 출병 요청에 응해 군사를 내어 침공하지 않을까를 염려하여 정예의 병사들을 추려 화음(華陰)으로 보내 지키도록 조치한다.<sup>61</sup> 섬성의 서쪽에 위치한 화음은 동관지협(潼關之險)<sup>62</sup>을 이용해 전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대다수 전연의 대신들은 부소를 도와 관중지역으로 진출하기를 바랐으나, 그때 섭정하고 있던 모용평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① 전진이 비록 부소의 난으로 곤란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정벌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며, ② 모용위의 정치력이 모용준에 미치지 못할 뿐더러 모용평 본인의 경략(經略) 역시 모용각에 비견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sup>63</sup> 이에 모용덕은 하늘이 준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할 것이 틀림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는 ① 모용위는 모용준의 유업을 이어 천하통일에 나아가시라. ② 전진은 이미 사분오열된 상태이며, 부소는 성심으로 전연에 귀항했으므로 그를 도와 전진의 정벌에 임하시라. 이는 하늘의 뜻이며, 전진을 우리에게 준 것이나 다름없다. ③ 전진을 정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선 황보진에게 명령하여 병·기주의 병사를 이끌고 포판(蒲阪)으로 향하게 하고, 그리고 모용덕 본인은 모용수와 함께 허(許)·락(洛)의 병사를 이끌고 부소를 도와 진격할 것이며, 또한 모용평은 금위군(禁衛軍)을 이끌고 배후를 다지며 나아가도록 건의하였다. 모용위는 매우 만족하며 이 계획에

61 『진서』 권111, 모용위제기, 2851쪽, “時有圖書云:「燕馬當飲渭水,」堅恐暉乘輿入關, 大懼, 乃盡精銳以備華陰.”

62 『자치통감』 권101, 「진기」 23, 해서공태화 3년(368)조, 3209쪽, 胡注.

63 『진서』 권111, 모용위제기, 2852쪽.

따르려 했지만, 이번에도 모용평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말았다.<sup>64</sup> 모용위가 모용평의 반대를 물리치고 모용덕의 계획에 따라 부소를 도와 전진을 공격했다면 어땠을까 추측해본다. 적어도 2년 뒤 전진에게 속수무책으로 멸망당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모용위는 물론이고 모용평 역시 그런 원략(遠略)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추측은 매우 의미 없게 되었다. 사실 사서에는 부소가 이미 구원병이 오지 않을 것(恐救師弗至)을 예상했다고 적고 있다. 그러자 그는 모용수와 황보진에게 서신을 보내 전연은 이번 기회를 잡지 못했으므로 반드시 전진에게 멸망당한 후 통탄의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에 모용수와 황보진은 어떤 묘책을 내도 모용평에게 막혀 채택되지 않으니 결국 나라는 멸망하고 자신들은 망국인이 될 것이 틀림 없다며 한탄했던 것이다.<sup>65</sup> 이들의 예상대로 전연은 채 3년을 보내지 않은 건희 11년 11월 멸망하고 말았다.

중원을 차지하고 업성에 수도를 둔 이상 모용선비는 동진·전진과 함께 천하를 다뤄야만 하는 운명에 맞닥뜨렸고, 무력으로 이들을 멸하고 천하의 통일을 이루고서야 진정한 중화의 주인에 등극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업성시대가 가지는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III. 수덕(水德)에서 목덕(木德)으로

필자는 앞 장에서 모용선비가 동진·전진과 천하의 패권을 다뤄 승리함으로써 중화정통의 확보에 나선 것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무력에 의해 쟁취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이와 달리 그들은 이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념적

64 『진서』 권111, 모용위재기, 2852쪽.

65 『진서』 권111, 모용위재기, 2852쪽, “(慕容垂)私於(皇甫)眞曰:「方爲人患者必在於秦, 主上富於春秋, 未能留心政事, 觀太傅度略, 豈能抗苻堅·王猛乎?」眞曰:「然, 繞朝有云, 謀之不從可如何!」.”

으로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 이 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주지하듯 모용준은 영화 8년(352) 11월 정묘[丁卯(12일)]에 태위(太尉) 및 상서령(尙書令) 등 천자지제(天子之制)의 백관을 두는 동시에 관료들의 직관을 새롭게 조정했으며,<sup>66</sup> 이어서 무신[戊辰(13일)]에 계성의 정양전(正陽殿)<sup>67</sup>에서 대연황제에 등극한다.<sup>68</sup> 그리고 전국에 대사면령을 내린 후 원새(元璽)로 건원(建元)하고 국호를 대연(大燕)으로 정하였다. ‘건원칭제(稱帝)’는 ‘혁명창제(革命創制)’를 의미하므로, 이를 통해 중화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게 된다.<sup>69</sup> 이때 계성에 도착해 있던 동진의 사신을 향해 그는 “너는 되돌아가 너의 천자에게 고하라. 나는 북중국의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한인들에 의해 새롭게 추대된 황제”라고 선언하였다.<sup>70</sup> 혹자는 모용준은 스스로를 선비(鮮卑)의 소수부족(少數部族)에 비견하고, 본래부터 넘볼 수조차 없던 ‘중원제위(中原帝位)’를 운 좋게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는데,<sup>71</sup> 그렇지만 모용준의 대연황제 즉위는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이었고, 일찍이 동진 황제와 맺어왔던 상하·군신의 관계를 청산하고, 나아가 그와 대등하거나 혹은 그를 대신한 새로운 중화의 주인으로 천하에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sup>72</sup> 이는 모용준이 중원을 버리고 한인들의

66 지배선, 1986, 앞의 책, 132쪽.

67 『십육국강역지』 권3, 전연지, 122쪽.

68 혹자는 모용준은 마침내 357년 中山에서 帝位에 오른 후 국호를 大燕으로 칭하였고, 후조의 國都였던 업성으로 천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田村實造, 1985, 『慕容王國の成立とその性格』, 『中國史上の民族移動期』, 東京: 創文社, 130쪽). 이처럼 모용준의 대연황제 등극과 업성으로의 천도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모용선비가 하북으로 진출한 이후의 사정을 통해 볼 때 모용준이 중산에서 대연황제를 칭했다는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이춘호, 2021, 앞의 글, 153~154쪽 참고.

69 王柯, 1998, 앞의 글, 3쪽.

70 『진서』 권110, 모용준제기, 2834쪽, “僞謂使者曰:「汝還白汝天子, 我承人乏, 爲中國所推, 已爲帝矣.」”

71 李海葉, 2001, 앞의 글, 107쪽.

72 小林聰, 1988, 앞의 글, 45쪽.

기대를 외면한 채 강남으로 도주한 사마씨(司馬氏)를 더 이상 중화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하고, 북중국의 한인들에 의해 자신이 대연황제에 추대됐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했던 것이다. 분명 중화의 정통성이 동진에 있지 않고 전연에 있다는 선언인 것이다.<sup>73</sup>

한편, 4세기 초 흉노·갈족이 중원에서 나라를 세우고 발전을 도모하기도 했으나, 당시 한인들의 눈에 비친 이들 왕조는 정통왕조가 아닌 ‘참위(僭位)’왕조일 수밖에 없었는데,<sup>74</sup>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모용준은 중화정통을 장악하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여러 대신이 모용준을 향해 전연은 정치적으로 진조의 금덕을 계승하여 수덕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 문화적으로는 하조(夏朝)의 시력(時曆)을 시행하고 주조(周朝)의 관면(冠冕)을 착용하는 중화의 정통왕조여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그는 이에 전적으로 찬성하였다. 이를 사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여러 대신(羣下)들이 상언하길, “전연은 천명을 받아 위로는 광기(光紀) 흑정지군(黑精之君)의 정통을 잇고 운역(運曆)을 자기 것으로 하였으니, 진조의 금행(金行)을 대신하고 하조의 시력을 시행하며 주조의 관면(冠冕)을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치(旗幟)는 흑색(黑色)으로, 생모(牲牡)는 현색(玄色)으로 해야 합니다.” 모용준은 이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sup>75</sup>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군하(羣下)는 한인이 중심이 된 관료들일 것인데, 그들은 하·주·진조의 중화정통이 전연에 의해 계승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이런 상언을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희십육국시기 화하문화의 충실한 전파자 역

73 李路·李德山, 2018, 앞의 글, 48右쪽.

74 鄧樂群, 2004, 앞의 글, 84左~85右쪽.

75 『진서』 권110, 모용준제기, 2834쪽, “羣下言: 「大燕受命, 上承光紀黑精之君, 運曆傳屬, 代金行之后, 宜行夏之時, 服周之冕, 旗幟尚黑, 牲牡尚玄。」 僞從.”

할을 했던 이들 한인관료가 모용선비를 화하문화의 적극적인 수용자로 인정하면서 전연은 여느 오호왕조와는 달리 중화정통의 계승자를 자처하기에 손색이 없게 되었다. 특히 모용준이 공개적으로 한인들에 의해 추대된 중화정통을 이은 대연황제임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전연에서 아무 거리낌도 없이 출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혹자의 주장처럼 대연황제를 자칭한 모용준이 선우호(單于號)를 갖지 않은 것은 그가 ‘중원황제(中原皇帝)’가 되려는 의지의 표현이며, 다시는 요방에서와 같은 모용선비만의 주장으로 남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sup>76</sup> 따라서 후조와 대적하고 있던 당시의 상황에서, 그리고 중화의 정통왕조를 표방하고 있던 모용준에게 이상의 조치는 분명 북중국의 적지 않은 한인들의 마음을 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연은 흉노의 한조와 갈족의 후조, 그리고 강남에 우거하고 있던 동진과 구별되며, 일찍이 천하를 통일하고 호·한인들을 호령했던 서진의 계승자임을 표방하면서 그 국가의 성격은 하·주조 및 위·진조와 같이 중화의 정통왕조로 탈바꿈해갈 수 있었다.<sup>77</sup>

이렇게 오덕종시론(五德終始論)에 입각해 진조의 계승자임을 선언한 모용선비는 업성으로 천도한 후 중원의 시대를 열게 되었는데, 이때 중화정통의 계승과 관련하여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다. 즉, 중국역사상 처음으로 호·한인들이 함께 거주하며 경제·문화 등에서 교류와 융합을 이루었던 업성<sup>78</sup>에서 일찍이 화북을 통일하고 지배했던 오호왕조 후조의 정통을 이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혹자는 이와 관련하여 흉노와 갈족이 북중국에서 한조와 후조를 세우고 통치한 지 어언 반세기를 지났으니, 이 정도의 시간이라면 특히 모용준의 재위 때에 이르러 오호왕조를 지탱해줄 사회심리적인 환경은 이미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모용준과 그의 대신들은 후조의 정통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

76 陳琳國, 2010, 앞의 책, 359쪽.

77 이춘호, 2021, 앞의 글, 151쪽.

78 鄒逸麟, 1995, 앞의 글, 87~88쪽.

는데, 이는 후조와 적대관계에 있다는 감정적인 요인 외에 자신들 역시 이적(夷狄)이라는 심리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79</sup>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두 문제가 해결된다면, 모용선비는 후조의 정통적 지위를 인정하는 선을 넘어 그의 정통까지도 이어받게 되는 계승자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다. 출전에 의하면, 감정적인 요인은 후조와 그에서 파생된 염위(冉魏)를 멸하고 중원을 차지했다는 자신감으로 극복될 수 있으며, 심리적인 약점은 그들 스스로 화하문화의 새로운 전파자 혹은 계승자임을 자임하고,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화하정책의 실시를 통해 한인들의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다.<sup>80</sup> 모용준은 모용선비의 자제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소학(小學)을 설치했으며, 재위 때에는 한인관료들과 강론을 멈춘 적이 없고, 특히 문적(文籍)을 좋아하여 40여 편의 저술까지 남기기도 했었던 것이다.<sup>81</sup> 이렇게 모용준의 모습에서 어느 중화군주와 다른 모습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 결국 업성시대에 감정적·심리적 요인들이 해결되면서 모용선비가 오호왕조 후조의 계승자로 나설 여건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었다고 하겠다.

사서기록에 의하면, 제일 먼저 후조의 정통을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은 한항(韓恒)이다. 그는 일찍이 함화(咸和) 연간(326~334) 송해(宋該) 등 다수의 모신(謀臣)이 모용외의 관작(官爵)이 낮아 요방에서 호·한인들을 제대로 통치하기 곤란하므로 동진 황제에게 상표(上表)하여 대장군(大將軍)·연왕(燕王)을 요구하자고 논의했을 때 반대했던 인물이다. 그는 당시 반대의 이유로, 모용외는 동진의 신하된 자로서 마땅히 한조·후조를 공멸하고 사해(四海)를 안정시키는 일에 전념해야지 어찌 더 높은 관작을 요구하는 일에 급급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의 의견에 불만이었던 모용외는 그를 신창령(新昌令)으로 좌천시

79 羅新, 2004, 「十六國北朝的五德曆運問題」, 『中國史研究』 3, 51쪽.

80 鄒禮洪, 1985, 앞의 글, 4~5쪽.

81 『진서』 권110, 모용준제기, 2840쪽, “僞立小學于顯賢里以教胄子.”; 『진서』 권110, 모용준제기, 2842쪽, “僞雅好文籍, 自初卽位至末年, 講論不倦, 覽政之暇, 唯與侍臣錯綜義理, 凡所著述四十餘篇.”

켜버린다.<sup>82</sup> 모용선비는 한인왕조 동진과 상하·군신의 관계로 연결된 일개 오호 세력에 불과하며 시종 사마씨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인데, 그랬던 그가 요방의 시대를 끝내고 중원의 시대를 연 모용외의 손 모용준에게 오호왕조 후조의 계승자를 차치해도 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한항의 처신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sup>83</sup> 그는 왜 이런 행동을 취했을까? 그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중원의 시대로 접어든 이후 그 자신을 포함한 전연에서 벼슬을 하고 있던 적지 않은 한인관료들의 내면 속에 중화정통의 계승을 둘러싸고 분명 변화의 조짐이 있었던 것만은 확실하다.<sup>84</sup> 오호 출신 중 그 누가 이런 주장을 피력한 것도 아니며, 모용선비 밑에서 관직을 맡고 화하화(華夏化)에 노력한 한인관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sup>85</sup> 그러면 한항이 제시하고 있는 모용선비가 후조의 계승자여야 하는 이유를 보기로 한다.

한항은 모용준에게 상언하기를, 후조가 중원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천명에 의한 결과입니다. 하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사람이 바꿔 취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대연의 시작은 진(震)에 있습니다. 그것은 역(易)에 속하는 것으로 진은 청룡(靑龍)을 가리킵니다. 천명을 받았을 때 용이 도성에서 보였습니다. 용은 목덕(木德)을 가리키므로 유계지부(幽契之符)에 부합하는 것입니다.<sup>86</sup>

82 『십육국춘추』 권31, 전연록9·韓恒傳, 564上下쪽.

83 지배선, 1994, 앞의 글, 112쪽.

84 지배선, 1994, 위의 글, 116쪽.

85 『십육국춘추』 권31, 전연록9·陽鶩傳, 562下쪽, “(陽鶩)起家爲平州別駕, 屢獻安時強國之術, 事多聽用.”

86 『십육국춘추』 권31, 전연록9·한항전, 564下쪽, “(韓恒)言於僞曰, 趙有中原, 非惟人事, 天所命也. 天實與之, 而人奪之, 臣竊謂不可. 且大燕王迹始自於震, 於易, 震爲靑龍. 受命之初, 有龍見於都邑城, 龍爲木德, 幽契之符也.”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한향은 전연이 후조의 정통을 계승해야 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후조는 전적으로 천명에 의해 중원을 차지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둘째, 모용선비가 천명을 받아(受命之初) 요방의 패자가 되었을 때, 용이 수도인 용성에 나타났는데, 이는 오덕종시론으로 보았을 때 목덕에 해당하므로, 진의 금덕을 이어 수덕으로 정한 후조의 계승자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후조의 계승자를 자처한다는 것은 모용선비 스스로도 천명으로 중원을 차지했다는 뜻이며, 동시에 이를 다시 용의 출현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중원의 새로운 주인, 즉 중화정통을 장악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는 바로 중원을 차지한 자가 천하를 얻는다는 뜻이므로,<sup>87</sup> 그렇다면 모용준은 당시 오호 출신은 천하의 제왕이 될 수 없다는 관념을 철저히 부인함으로써 중화의 새로운 주인으로 등극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혹자의 주장처럼 모용선비의 전연 역시 오호왕조인 이상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오호왕조의 통치의 정당성 역시 인정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후조의 정통을 계승하게 된 배경일 수 있다.<sup>88</sup> 여하튼 모용준이 한향의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전연은 후조의 계승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

그런데 『진서·모용위재기』에 의하면, 종율랑(鍾律郎) 곽흠(郭欽)의 상소를 받은 모용위가 비로소 후조의 수덕을 이어 목덕으로 바꾸었다고 하는데,<sup>89</sup> 혹자는 이에 근거하여 모용선비가 후조의 계승자임을 자처한 시기는 모용준 때가 아니고, 모용위 재위 때인 건희 5년에서 7년(364~366) 사이일 것이라고 추정하

87 鄧樂群, 2004, 앞의 글, 86左右쪽.

88 강문호, 1999, 앞의 책, 179쪽. 줄거에 의하면, 이런 주장은 전연이 후조의 정통을 계승하게 된 문제 그 자체를 설명하기에는 적합할지 모르나, 처음에는 후조의 계승자를 부정했다가 무슨 이유로 이를 바꿔 자발적으로 그 계승자를 자처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89 『진서』 권111, 모용위재기, 2851쪽, “曄鍾律郎郭欽奏議以曄承石季龍水爲木德, 曄從之.”

였다.<sup>90</sup> 게다가 후조의 계승자를 자처한 자는 모용준이 아니고 모용위라고 주장한 학자도 있다.<sup>91</sup> 필자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데, 한항의 건의에 대해 모용준이 보인 행위(僞初雖難改, 後終從恒議)와 섭옹(聶熊)이 했던 독백은 그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수덕에서 목덕으로 바꾸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국 한항의 뜻에 따랐다는 기록을 통해 후조의 계승자를 자처한 인물은 모용준이고, 그 시기는 당연히 그의 재위 때임이 확실하다.<sup>92</sup> 그렇기 때문에 당시 비서감(祕書監)이었던 섭옹은 한항의 주장을 듣고 “군자가 없다면 나라가 어떻게 흥할 수 있겠는가? 이는 바로 한항을 두고 한 말(不有君子, 國何以興, 其韓令君之謂乎!)”이라고 독백했던 것이다.

중원으로 들어선 후 업성에 수도를 둔 모용준은 새 시대·새 환경에 부합하는 정치이념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국가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확신으로 가득찼기 때문에, 결국 후조(진의 계승자)의 계승자로서 모든 호·한인의 통치자로 거듭나기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따라서 후조의 계승자를 자임한 것은 모용준인 것이 확실하다. 그렇지만 이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약간의 변화를 거쳤으며 모용위 때에 이르러 이런 결정은 더욱 확고해졌다고 할 수 있다.<sup>93</sup>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모용준이 말년에 침질을 앓게 된 경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모용준은 어느 날 석호(石虎)가 자신의 어깨를 물어뜯는 꿈을 꾸게 되고, 잠에서 깬 후 이를 매우 불길하게 여겼다. 그래서 석호의 모를 파헤쳐 시신을 꺼내도록 명령한 후 그의 시체를 짓밟으며 어찌 살아 있는 천자를 해할 수 있느냐며 욕을 퍼부었다. 모용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어사중위(御史中尉) 양약(陽約)에게 명령하여 석호가 후조를 통치할 때 저지른 잔혹지죄(殘酷之罪)를 나열하게 했으며, 시신에 매질을 가한 후 장수(漳水)

90 羅新, 2004, 앞의 글, 51쪽.

91 高然, 2018, 앞의 책, 72쪽.

92 趙紅梅, 2011, 앞의 글, 77右쪽.

93 周倩倩, 2018, 「從祥應管窺慕容前燕政權的漢化」, 『敦煌學輯刊』 4, 139~140쪽.

에 버리도록 조치하였다.<sup>94</sup> 비록 석호의 시신을 찾아 분골이를 하긴 했지만, 꿈에서 받은 충격으로 모용준은 치료할 수 없는 침질을 앓게 되었고, 이 때문에 결국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다. 모용준이 이렇게 석호에 대해 강한 적대심을 갖고 있었음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이때 그는 전연이 계속해서 후조의 정통을 계승하는 것이 옳은 지의 여부를 대신들에게 논의하도록 분부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면, 이때 전연은 후조의 계승자인 것을 포기했을 수도 있다. 그런 후 모용위 때에 이르러 후조의 계승자 여부에 대해 다시 논의가 진행됐고, 결국 광흥의 상소를 통해 전연은 재차 후조의 수덕을 이어 목덕으로 오행의 순위(五行次)를 정한 것일 수 있다.

후조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과정에서 곡절은 있었으나, 모용선비는 이미 후조를 진의 정통을 이은 합법적인 왕조로 인정했으므로, 전연은 오호의 자격으로 모든 호·한인의 정치적 위상을 대변하는 최초의 정통왕조로 거듭날 수 있었다. 업성시대에 오행의 순위가 수덕에서 목덕으로 바뀐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내포한다고 하겠다.

이 장을 마무리하기 전 필자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용준이 대연 황제에 등극하기 전 연조(鸚鳥)와 이조(異鳥)의 출현이 가지는 의미이다. 이들 길조의 출현은 모용선비의 전연이 이후 화북에서 어떤 모습으로 발전 변화해야 하는지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즉 이념적으로 국가를 보다 더 중화왕조에 가깝게 전환시켜가는 전기가 되고 있다. 계성의 정양전 서쪽 고추나무에 서식하고 있던 한 마리의 연조가 세 마리의 새끼를 부화했는데, 이들은 모두 머리 위로 땅을 향해 늘어뜨린 털을 달고 있었으며, 범성(凡城)에서 현상한 한 마리의 이조가 오색(五色)으로 조화를 이뤄 한 치의 흠도 찾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한다. 이것이 무슨 징조인지를 묻는 모용준을 향해 호·한인 대신들은 해석하기

94 『진서』 권110, 모용준제기, 2841쪽, “僞夜夢石季龍齧其臂, 寤而惡之, 命發其墓, 剖棺出尸, 踣而罵之曰:「死胡安敢夢生天子!」遣其御史中尉陽約數其殘酷之罪, 鞭之, 棄于漳水.”

를, “연(鸛)은 연의 새입니다. 머리 위로 털로 관(冠)을 쓰고 있는 모습은 전연의 흥기를, 그리고 하늘과 연결된 관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어서 연조가 정양전의 서쪽 고추나무에 서식했다는 것은 모용준이 황제를 칭한 후 천하에 군림할 징조이며, 세 마리의 새끼를 부화했다는 것은 전연·동진·전진이 하나가 될 징표입니다. 게다가 신조[神鳥(異鳥)]가 오색을 갖추고 있는 것은 전연이 오덕종시론에 입각해 천하를 주름잡을 것임을 가리킵니다.” 모용준은 이를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sup>95</sup> 이런 상서로운 현상이 계성시대에 모용준이 대연황제를 칭하기 전 출현했지만, 이 현상 속에서 우리는 모용선비가 하복을 모두 차지한 후 중원으로 나아갈 것이며, 그럼으로써 새로운 중화의 주인으로 천하통일에 매진할 것이라 예측을 하게 된다. 특히 성조(聖朝), 즉 천명을 받은 전연은 오행지록(五行之錄)에 근거해 중화의 정통성 확보에 나설 것이며, 앞에서도 언급했듯 우선 고려됐던 대상은 천하를 통일하고 호·한인을 호령했던 진조였으며, 진조의 계승자로 나서는 것이었다.

이상에서 언급했듯 모용선비는 중화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 무력에만 의존하지 않았으며, 이념적으로도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인데, 이는 후조·염위를 멸한 후 중원을 차지하고 업성에 정도하면서 가지게 된 자신감과, 적극적인 화화정책의 실시를 통해 한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얻게 된 자긍심의 또 다른 발로였다고 할 수 있다.

95 『진서』 권110, 모용준재기, 2833~2834쪽, “是時鸛鳥巢于僞正陽殿之西椒, 生三雛, 頂上有豎毛, 凡城獻異鳥, 五色成章. 僞謂羣僚曰: 「是何祥也?」 咸稱: 「鸛者, 燕鳥也. 首有毛冠者, 言大燕龍興, 冠通天章甫之象也. 巢正陽西椒者, 言至尊臨軒朝萬國之徵也. 三子者, 數應三統之驗也. 神鳥五色, 言聖朝將繼五行之錄以御四海者也.」 僞覽之大悅.”

## IV. 왕도정치(王道政治)의 회복을 위한 노력과 좌절

유가사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정치로 여기는 것은 왕도정치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통치자는 우선 술선수범하며 부패를 척결하고 절검(節儉)을 강조하는 등 인정(仁政)과 덕치(德治)를 구사하여 결국에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사회의 안정과 나라의 발전을 이루게 된다. 업성시대 모용선비가 어떻게 중화정통을 장악하려 했는지와 관련하여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바로 전연의 왕도정치의 회복을 위해 나섰던 한인관료들의 노력이다. 이들은 인예(仁禮)로 대표되는 화하문화에 입각해 모용선비의 통치행위가 보다 근본적으로 민의(民意)에 부합하도록 노력했는데, 이를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로 여겼음은 물론이며,<sup>96</sup> 이것이 결국은 자신들이 전연에서 출사하게 된 실제 이유로 생각한 것이다.<sup>97</sup> 특히 업성시대 후기 가족훈후와 모용평이 섭정할 당시 전연은 정치·군사·사회·경제 등에서 여러 문제에 맞닥뜨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소를 비롯한 한인관료들이 나섰으며, 그래서 그들의 역할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비록 관련 기록의 부족으로 왕도정치의 회복에 나선 한인관료들의 이런 노력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이런 시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연은 계속해서 한·위·진과 같은 중화왕조로 탈바꿈해갈 수밖에 없었다.<sup>98</sup> 이밖에 당

96 鄭小容, 1990, 앞의 글, 159쪽.

97 『진서』 권110, 모용준재기 附韓恒傳, 2843쪽, “(韓恒)遷營丘太守, 政化大行.”; 『진서』 권111, 모용위재기 附皇甫眞傳, 2860쪽, “(皇甫眞)守遼東·營丘二郡太守, 皆有善政.”; 『자치통감』 권100, 「진기」 22, 목계영화 12년(356)조, 3159쪽, “(鞠殷爲東萊太守), 郡民由是大和.”

98 전연이 중화왕조로 탈바꿈해가는 과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355년 給事黃門侍郎 申胤의 ‘名尊禮重’과 ‘冠冕之式’ 등에 관한 상소이다(구체적인 내용은 『진서』 권110, 모용준재기, 2835~2836쪽 참고). 그의 상소를 크게 ① 황태자의 복식을 제왕들과 구분지어 그 지위를 제고하고, ② 각종 ‘祭饗朝慶’에 맞는 관복을 갖춰야 하며, ③ 동지·하지에 맞닥뜨려 진행해야 할 예의가 있으며, ④ 황제를 朝覲할 때 입는 관료들의 朝服이 ‘禮意’에 어긋나지 않도록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신유는 이상과 같은 내용을 ‘皇代永制’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

시 전진과 우호의 관계를 맺고 사신의 왕래가 빈번했던 상황에서 양침(梁琛)·황보진 등은 이런 관계의 이면에 내재된 위험성을 감지하고 부견이 언제 마음을 바꿔 침략할지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들의 제안을 전진에 대한 사전 방어의 차원을 넘어서 당시 전연이 군사적으로 맞닥뜨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주의를 환기시킨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면, 설사 왕도정치의 회복을 위한 노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을지 모르나, 이 또한 한인관료들이 사회의 안정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내세운 주장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연 통치계층 내부에 만연한 부패와 사치는 사실 업성시대 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업성으로 천도하기 전에도 있었으며, 그 정도의 여하에 따라 그 심각성도 달랐다. 원새 6년(357) 정월 모용준은 당시 유주자사(幽州刺史)로 용성에 있던 을일(乙逸)을 계성으로 불러 좌광록대부(左光祿大夫)에 임명한다. 그때 그의 아들 을장(乙璋)이 수십 마리의 말을 거느리고 화려한 복식으로 치장한 채 그를 마중 나왔다. 이 모습을 본 을일은 매우 못마땅하여 그에게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으며, 얼마 후 그를 심하게 꾸짖는다. 그러나 을장이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지 않아 후에 큰 낭패를 보지 않을까 염려했던 을일은 도리어 그가 중서령(中書令)·어사중승(御史中丞)으로 천임(遷任)되자 크게 놀라 탄식하게 된다. 즉, 절감을 솔선수범해야 할 관리인 을장이 사치와 방종으로 백성들의 본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현직(顯職)으로 천임되고 있는 것이 어찌 그 자신만의 문제가겠으며 당시의 시세(時世)가 이미 퇴폐로 흘렀기 때문이라고 탄식했던 것이다.<sup>99</sup> 을장의 사례를 통해 업성으로 천도하기 전 통치계층 내부의 부패·사치가 이미 사회 전반에 폭넓게 퍼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후 모용각의 ‘정상관화(政尙寬和)’<sup>100</sup>의 보정기간을 지나 가족훈후

---

해 모용준은 황태자의 복식을 바꾸게 되면 황제의 권위를 위협할 수 있다며 이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다른 상소의 내용을 모두 채납하였다.

99 『자치통감』 권100, 「진기」 22, 목제승평 원년(357)조, 3160쪽.

와 모용평의 섭정시기로 접어들면 통치계층의 부패와 사치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 사서에는 당시 가족훈화와 모용평이 국정을 농단하고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 정치에는 뇌물이 횡행하였고, 관직에는 인재가 등용되지 않아 많은 대신의 불만이 하늘에 닿을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다.<sup>101</sup> 이때 상서좌승(尙書左丞) 신소는 상소를 통해 당시 나라에 상존해 있던 문제들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비판하고 있다. 즉, ① 관료의 선발이 불공정하고 불필요한 관직이 많으며, 백성들은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② 동진·전진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성들은 불공정한 부역으로 그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③ 사치와 부패가 사회에 만연하여 미풍양속을 해치고 계층간의 대립을 확대시켜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④ 동진과 전진의 침공에 대비해 적극적인 방어조치를 취해야 한다.<sup>102</sup> 이렇게 비판의 내용이 정치·경제·사회·군사 등 거의 전 영역에 걸쳐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전연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으며, 또한 문제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① 불필요한 관직을 없애고 백성들을 농상(農桑)에 전념하도록 설득한다. … ② 군율을 엄하게 하며 병사를 반드시 충분히 배불리고 유효한 훈련을 실시한다. 동시에 군대를 효과적으로 편제하고 병사가 된 자 외에 다른 자들의 재산을 보장한다. 그러면 부형과 자제는 나라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것이므로 설사 곤란한 곳에 보내질지언정 어찌 따르지 않겠는가? … ③ 번잡하고 불필요한 요역을 없애

100 『십육국춘추집보』 권28, 전연록6, 223쪽.

101 『자치통감』 권102, 「진기」 24, 해서공태화 4년(369)조, 3225쪽, “是時太后可足渾氏侵撓國政, 太傅評貪昧無厭, 貨賂上流, 官非才舉, 羣下怨憤.”

102 흑자는 제문제에 대한 신소의 비판 내용을 다섯 가지로 구분했는데, 즉 ① 지방정치, ② 관리의 員數, ③ 징병문제, ④ 사치의 風潮, ⑤ 국방문제이다(谷川道雄, 1971, 앞의 글, 95~96쪽). 그런데 사서내용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필자는 흑자의 ①과 ②의 구분은 매우 불분명하고 애매하다고 생각했기에 이를 하나로 합쳐 모두 네 가지로 나누었다.

고 혼인·장례와 관련한 조항을 명확하게 한다. 동시에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사업을 폐지하고 궁녀의 수를 줄이며 상·농업에 대한 부세를 공정하게 부과한다. …  
 ④ 병주·예주를 효과적으로 치리하고 황하·회하에 직면해서는 조운과 연결하여 그 효과가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진양의 방어를 강화하고 동진과 인접한 지역에 병사를 늘려 적의 공격을 미연에 방어한다. 이어서 적들을 현혹시키고 실력을 키워 때를 기다리면 일거에 동진·전진을 멸할 수 있다.<sup>103</sup>

위의 방안을 모용위는 채납하지 않았다(曄不納). 채납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당시의 정국은 가족혼후와 모용평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어 있어 모용위가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기 곤란했으므로 이런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 짐작해본다.<sup>104</sup> 이번 방안에 맞춰 개혁이 진행된다면, 신소는 환온·왕맹을 사로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동진·전진까지도 멸할 것이므로 어찌 지금의 국경만 고수하고 백성들의 안위만 걱정하겠나면서 그 결과까지도 예상했던 것이다.<sup>105</sup> 상소가 채납되지 않으면서 전연은 실로 매우 위중한 상황으로 내몰렸다. 주지하듯 얼마 지나지 않아 부견은 왕맹(王猛)·양안(楊安) 등에게 명령을 내려 침략해 왔는데, 모용평 등이 30여 만의 정졸(精卒)<sup>106</sup>을 이끌고 방어

103 『진서』 권111, 모용위재기, 2855~2857쪽, “① 宜并官省職, 務勸農桑, … ② 宜嚴制軍科, 務先饒復, 習兵教戰, 使偏伍有常, 從戎之外, 足營私業, 父兄有陟岵之觀, 子弟懷孔爾之顧, 雖赴水火, 何所不從! … ③ 宜罷浮華非要之役, 峻明婚姻喪葬之條, 禁絕奢靡浮煩之事, 出傾宮之女, 均商農之賦, … ④ 宜攝就并豫, 以臨二河, 通接漕轂, 擬之丘後, 重晉陽之戍, 增南藩之兵, 戰守之備, 銜以千金之餌, 蓄力待時, 可一舉而滅.”(부호는 필자)

104 부소가 일찍이 전진을 배반하고 전연으로 귀향한 적이 있는데, 이때 모용덕은 모용위에게 그를 도와 關隴지역으로 진출할 것을 간언하였다. 이에 모용위는 모용덕의 뜻에 따라 군대를 보내려 했으나, 모용평이 결사 반대하자 결국 자신의 뜻을 철회하고 만다(『진서』 권111, 모용위재기, 2852쪽, “曄覽表大悅, 將從之, 評固執不許, 乃止.”). 이번 사례를 통해 당시 친정하지 못했던 모용위는 모용평에 의해 철저히 제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05 『자치통감』 권102, 「진기」 24, 해서공태화 4년(369)조, 3226쪽.

106 『십육국춘추집보』 권29, 전연록7, 229쪽, “曄使太傅評·下邳王厲等率中外精卒

에 나섰다고는 하나 나라의 명운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그 이듬해 전연은 맥없이 멸망한 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여기에서 신소의 상소 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은 양침과 황보진 등이 건의했던 전진에 대한 방어대책이다. 이는 사실 전연을 군사적인 위기에서 구하는 일이었으며, 특히 전연의 명운을 지킬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건희 10년(369) 10월 급사황문시랑(給事黃門侍郎) 양침은 산기시랑(散騎侍郎) 학구(郝晷)와 함께 전진으로 출사(出使)한다. 출사 도중 학구는 전진의 정치상황이 전연에 비해 매우 좋자,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채 왕맹에게 의탁한 후 전연의 내부사정을 폭로하게 된다. 그런데 그와 달리 양침은 장안에 머무는 동안 전진의 여러 관료와 접촉하면서 그들의 내부사정에 대해 잘 숙지할 수 있었다. 그런 그를 전연으로 되돌려 보내면 큰 화를 부를 수 있다고 여긴 왕맹이 부견에게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권한다. 그렇지만 부견은 왕맹의 제안을 물리치고 그를 전연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렇게 전진에서 몇 개월을 머문 양침이 업성으로 되돌아온 후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모용평에게 보고하는데, 즉 “전진은 매일 밤낮으로 병사를 훈련시키고 있으며, 다량의 군량미를 섬성 동쪽으로 운반하고 있다. 이는 전진과의 우호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없음을 말한다. 게다가 오왕(吳王) 모용수가 이미 전진으로 귀향했으니 부견은 반드시 그를 통해 우리의 허물을 알게 될 것이므로, 마땅히 하루빨리 전진의 침공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모용평이 자신의 보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자, 양침은 더 강하게 “지금 전진과 우리가 중원을 분점하고 있는데, 이웃 나라끼리 싸워 상대방을 병합시킨 일은 예로부터 있어왔다. 환온이 일찍이 우리를 침공했을 때 그들이 우리를 도운 것은 우리를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에게 허점이 있다면, 그들이

---

三十餘萬，距秦師於潞川。” 당시 모용평 등이 통솔했던 병사의 수를 사서마다 각각 30만, 30여 만 혹은 40여 만 등으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자치통감』 권102, 「진기」 24, 해서공태화 5년(370)조, 3231쪽, “八月，燕主曄命太傅上庸王評將中外精兵三十萬以拒秦。” 『진서』 권111, 모용위제기, 2857쪽, “曄使慕容評等率中外精卒四十餘萬距之.”). (밑줄은 필자)

어찌 우리를 병합하지 않겠는가?”라고 역설하였다.

양침의 계속된 제안에도 모용평은 꿈쩍하지 않았다. 양침은 어쩔 수 없이 모용위에게 직접 상언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렇지만 모용위 역시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 주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마지막으로 황보진을 찾아 고하게 되고, 이를 들은 황보진은 나라의 앞날을 심히 걱정하며, 모용위에게 “부견이 비록 우리에게 사신을 파견하며 우호의 관계를 맺어왔으나, 이는 사실 우리의 허점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덕의(德義)를 양모하지 않았으니 우리와 맺은 우호관계를 오래 유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일찍이 낙천(洛川)으로 군사들을 보내 우리를 돕고, 나아가 사신들을 계속 파견한 것은 우리의 험역(險易)과 허실(虛實)을 살피기 위함이며, 그들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지금 오왕 모용수가 그들에게로 귀항하여 모주(謀主)가 된 상태이니 오원(伍員)의 교훈을 잊지 말고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낙양·태원 그리고 호관은 군사적인 요충지이므로, 중장(重將)을 선발하고 병력을 그쪽으로 증강하여 그들의 침공에 대비해야 한다”고 상소한 것이다.<sup>107</sup>

황보진의 상소에 모용위가 믿고 의지할 자는 모용평밖에 없었으므로 그를 불러 어찌할 바를 논의한다. 모용평은 “전진은 나라가 작고 국력 또한 약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도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견이 흑시 선정(善政)을 실시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모용수의 말을 채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쉽게 겁을 먹고 놀라 사악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모용위를 안심시켰다. 모용위는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따랐던 것이다.<sup>108</sup> 이후의 일이지만, 부견은 바로 황보진이 굳게 지키라고 간언했던 상당군(上黨郡)의 호관과 태원국(太原國)의 진양<sup>109</sup>으로 각각 왕맹과 양안을 보내 공격해 왔던 것인데, 이렇게 해서 전연에 대한 본격적인 군사정벌이 시작되었다.<sup>110</sup>

107 『자치통감』 권102, 「진기」 24, 해서공태화 4년(369)조, 3224~3225쪽.

108 『진서』 권111, 모용위제기, 2854쪽.

109 『십육국강역지』 권3, 전연지, 155~156쪽.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신소 등 한인관료들의 왕도정치의 회복을 위한 노력은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그들의 이런 노력과 시도들이 계속될 때 전연은 중화왕조로 끊임없이 탈바꿈해갈 수 있었다고 하겠다.

## V. 맺음말

모용선비는 하북의 계성에 수도를 두었을 때(계성시대) 요방에서 실시됐던 일부 정책과 그에 상응하는 국가제도에 변화를 주고 이를 조정하여 이후에 있을 중원의 시대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하북 전체가 국가통치의 중심지역으로 전환되어 가던 357년 11월 당시 화북의 중심도시 업성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비로소 새 시대(업성시대)를 열 수 있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화하문화를 철저히 계승하고 중화정통을 장악하여 결국에는 진정한 중화의 주인에 등극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러면서 전연은 한·위·진과 같은 중화왕조로 부단히 탈바꿈해갈 수 있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업성시대가 가지는 성격을 전연이 동진·전진과 천하를 다투게 된 배경과 그 의미, 그리고 진조의 정통을 계승하여 수덕으로 오행의 순서를 정했던 전연이 어떤 이유로 목덕으로 바꾸게 되었는지, 이 밖에 모용위의 재위 후반 전연이 맞닥뜨렸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소 등 한인들이 강조했던 인정과 덕치, 이것들이 진정 중화정통의 기초 위에서 왕도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었는지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럼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글의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모용외와 모용황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온 모용준은 중원으로의 진출을 이룬 후 이곳에서 중화정통을 장악하기 위한 적지 않은 노력과 함께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우선 그는 강남의 동진과 관룡의 전진, 이들과 천하를 삼분하고는 진정한 중화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여겼는데, 업성으로 천도하고 1년이 채

---

110 『진서』 권111, 모용위재기, 2857쪽.

지나지 않은 때에 대규모 동원령을 내려 군사정벌을 준비한 것은 당시 그의 이런 절박했던 심정을 나타낸다. 이번 동원령에 불합리적인 요소가 없지 않았으므로 징병의 방법과 기한 그리고 장소를 새롭게 바꿔 반포하기에 이른다. 360년 정월 모용준이 업성에서 징집된 병사들을 대열했다는 기록을 통해, 동원령은 1년 이상에 걸쳐 이루어졌고, 전연은 이때 비로소 동진·전진에 대한 군사정벌에 착수할 수 있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계속된 침질로 인해 모용준은 심신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지만<sup>111</sup> 모용각과 양무를 선봉에 세워 동진에 대한 군사정벌을 감행하려 하였다. 그러나 결국 죽음을 맞게 되면서 그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다. 그럼 모용준의 뒤를 이어 대연황제에 오른 모용위도 동진·전진과 천하의 패권을 다투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겨갔을까? 모용위는 자신의 충유함으로 친히 정사를 주관할 수 없었는데, 그의 재위시기를 크게 모용각의 보정시기와 가족후후·모용평의 섭정시기로 나눌 때, 전자처럼 전연의 강역이 남·동으로 여·영(汝·潁)과 청·제(靑·齊)에 다다르고, 서·북으로 효·민(嶠·隄)과 운중(雲中)에 이를 정도<sup>112</sup>라 하여 후자와는 달리 이때 모용선비는 동진·전진과 계속해서 천하의 패권을 다투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업성시대에 모용선비는 분명 무력으로 동진·전진을 멸하고 천하의 통일을 이룬 후 진정한 중화의 주인에 등극하려 노력했던 것임에 틀림없다.

한편, 당시 여호·장평·풍양 등의 세력집단은 전연·동진·전진 사이를 오가며 귀항과 배반을 반복했는데, 언제든 모용선비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었고, 동시에 이들 삼국 간의 세력변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그래서 모용선비는 이들에 대한 군사정벌을 빠르고도 과감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부소의 귀항이 이후 전진과의 관계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그의 귀항을 두고 모용평이 보인 비상식적인 행위로 모용선비는 전진

111 『십육국춘추』 권27, 전연록5·모용준전 하, 536下쪽, “十二月, 辛酉, 僞寢疾, 謂大司馬太原王恪曰, 吾所患懼然, 當恐不濟, 修短命也.”

112 『讀史方輿紀要』 卷3, 歷代州域形勢3, 135쪽, “慕容燕盛時, 南至汝潁, 東盡靑齊, 西抵嶠隄, 北守雲中.”

을 정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이후 그들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렸던 것이다.

무력으로 동진·진진을 압도하여 중화정통의 확보에 나섰던 모용선비는 이 방법 외에 오덕중시론이란 이념적인 논리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한인들의 추대에 의해 대연황제에 오른 모용준은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일찍이 천하를 통일하고 호·한인들을 호령했던 진조의 금덕을 이어 수덕으로 오행의 순서를 정하게 된다. 이는 분명 화북의 한인들에게 전연이 중화정통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비쳐지기에 충분했으며, 특히 모용준 본인으로서도 오호 출신은 천하의 제왕이 될 수 없다는 관념을 철저히 부정하기 위한 행위였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되자 모용준은 중원을 버리고 강남으로 도주한 사마씨를 대신해 중화의 새로운 주인임을 자임하는 데 아무 꺼릴 것이 없게 되었다. 그런데 중원을 차지하고 업성으로 천도한 이후 모용선비에게 정통의 계승과 관련하여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항은 후조 석씨가 일찍이 중원을 차지하고 화북을 통일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면서, 그것은 사람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천명에 의한 결과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일찍이 모용선비가 용성에 수도를 두었을 때 용이 그곳에서 출현하였고, 이것은 목덕을 가리키므로 후조의 수덕을 이어 그의 정통을 계승할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즉, 후조가 천명에 의해 중원을 차지한 것이고, 이런 후조를 계승한 전연 역시 천명을 받아 중화정통을 장악한다는 논리이다.

한편, 사서에는 곽흠의 상소를 채납한 모용위가 후조의 정통을 이어 목덕으로 오행의 순서를 정했다고 했는데, 전후 사정을 보았을 때 이 조치는 모용준이 취한 것이 확실하다. 그는 새 시대에 부응하고 새 환경에 적응해가기 위해서 정통의 계승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하튼 후조의 정통을 계승하는 과정에서 곡절은 있었으나, 전연은 후조(진조의 계승자)의 계승자임을 선언하면서 오호의 자격으로 호·한인의 정치적 위상을 대변하는 최초의 정통왕조로 거듭날 수 있었다. 업성시대에 수덕에서 목덕으로의 변화는 바로 이런 의미를 내포한다고 하겠다.

오호 출신으로 중원에 들어선 모용선비는 자신들보다 먼저 이곳에서 나라를 세우고 발전을 도모했던 흉노·갈족보다도 더 화화문화를 보호하고 그 문화의 훌륭한 계승자라고 자부했는데, 이는 인예로 대표되는 화화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뿐만 아니라 그 실천에서도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업성시대 후기 통치계층의 사치와 부패가 심각하고, 그리고 사회 각계층의 대립과 모순이 만연했을 때, 한인관료들은 바로 왕도정치의 회복을 위해 분연히 일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전연에서 벼슬을 하는 실제 이유이며, 동시에 그들에게 맡겨진 일종의 사명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주장하길, 모용선비의 통치자는 절검을 직접 실천하여 백성들의 귀감이 되고, 인덕으로 나라를 치리하므로 민심을 얻어 결국 전연은 위기에서 벗어나 장기간 안정과 번영을 구가할 수 있게 된다(長治久安). 한인관료들의 이런 시도들이 계속될 때 전연은 오호왕조의 외피를 벗고 중화왕조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다. 당시 왕도정치의 회복을 위해 나섰던 대표적인 인물은 신소였는데, 그는 상소를 통해 전연이 정치·경제·사회·군사 등에서 맞닥뜨렸던 문제들에 대해서 비판했으며, 나아가 구체적인 해결방법까지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그의 상소가 채택되지 않으면서 전연은 더욱 더 위중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이 밖에 양침·황보진 등은 당시 전진과의 관계 속에서 전연이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도록 역설했지만, 이들의 간언 역시 모용평에 의해 묵살되면서 전연의 명운을 지킬 마지막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되었다.

필자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용선비는 후조와 그에서 파생된 염위를 멸한 후 갖게 된 자신감을 통해 동진·전진을 강하게 압박하여 천하통일에 대한 야망을 한껏 표출했으며, 화화문화의 발흥지, 중원을 차지한 후 싹트게 된 자긍심을 통해 보다 더 적극적인 화화정책의 실시로 사마씨를 대신하여 중화의 주인에 등극할 수 있는 의지를 힘껏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업성시대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시대라고 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 사료

- 『晉書』·『資治通鑑』(北京: 中華書局에서 출판된 標點校勘本을 이용함).
- 崔鴻, 1986, 『十六國春秋』, 臺北: 文淵閣四庫全書463冊, 臺灣商務印書館影印本.
- 李昉, 1998, 『太平御覽』, 北京: 中華書局影印本.
- 湯球, 1936, 『十六國春秋輯補』, 上海: 商務印書館叢書集成本.
- 洪亮吉, 1936, 『十六國疆域志』, 上海: 商務印書館叢書集成本.
- 顧祖禹, 1937, 『讀史方輿紀要』, 上海: 商務印書館國學基本叢書本.

### 단행본

- 강문호, 1999, 『中國中世政治史研究』, 국학자료원.
- 지배선, 1986, 『中世東北亞史研究-慕容王國史』, 一潮閣.
- 高然, 2018, 『慕容鮮卑與五燕國史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陳連慶, 1993, 『中國古代少數民族姓氏研究』,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 陳琳國, 2010, 『中古北方民族史探』, 北京: 商務印書館.

- 谷川道雄, 1971, 『隋唐帝國形成史論』, 東京: 筑摩書房.
- 三崎良章, 2006, 『五胡十六國の基礎的研究』, 東京: 汲古書院.
- 田村實造, 1985, 『中國史上の民族移動期』, 東京: 創文社.

### 논문

- 박한제, 2000, 「魏晉南北朝時代 각 왕조의 首都 선정과 그 의미-洛陽과 鄴都」, 『역사학보』 168.
- 이춘호, 2021, 「燕王國에서 大燕帝國으로-慕容鮮卑의 河北進出과 국가형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74.
- \_\_\_\_\_, 2022, 「慕容鮮卑의 薊城시대와 河北지역」, 『동북아역사논총』 76.

- 지배선, 1994, 「韓恒에 대하여」, 『동방학지』 86.
- 郭黎安, 1989, 「魏晉北朝鄴都興廢의地理原因述論」, 『史林』 4.
- 羅新, 2004, 「十六國北朝의五德曆運問題」, 『中國史研究』 3.
- 鄧樂群, 2004, 「十六國胡族政權의正統意識與正統之爭」, 『南通師範學院學報』 4.
- 楊洪權, 1991, 「鄴城在魏晉南北朝軍事上的地位」, 『烟台師範學院學報』 2.
- 姚宏杰, 2004, 「君位傳承與前燕·後燕政治」, 『史學月刊』 3.
- 王柯, 1998, 「五胡十六國時代における胡族政權の中華王朝思想」, 『神戸大學國際文化學部紀要』 10.
- 劉志玲, 2008, 「縱論魏晉北朝鄴城的中心地位」, 『邯鄲學院學報』 4.
- 李路·李德山, 2018, 「十六國時期慕容鮮卑正統意識의演變」, 『北華大學學報』 1.
- 李海葉, 2001, 「漢土族與慕容氏政權」, 『內蒙古師範大學學報』 4.
- \_\_\_\_\_, 2011, 「前燕中原時期胡漢分治制度考」, 『內蒙古社會科學』 2.
- 鄭小容, 1990, 「慕容鮮卑漢化問題初探」, 『文獻』 2.
- 趙紅梅, 2011, 「前燕正統觀의變化-兼及中原士人出仕前燕心態」, 『北方論叢』 6.
- 周倩倩, 2018, 「從祥應管窺慕容前燕政權의漢化」, 『敦煌學輯刊』 4.
- 鄒禮洪, 1985, 「論中原士大夫對前燕慕容氏封建化的影響」, 『新疆師範大學學報』 1.
- 鄒逸麟, 1995, 「試論鄴都興起的歷史地理背景及其在古都史上的地位」, 『中國歷史地理論叢』 1.
- 峰雪幸人, 2016, 「慕容政權遷都考-五胡十六國時代における胡族‘侵入’の一形態」, 早稻田大學長江流域文化研究所編, 『中國古代史論集-政治·民族·術數』, 東京: 雄山閣.
- 小林聰, 1988, 「慕容政權의支配構造의特質-政治過程의檢討と支配層의分析を通して」, 『九州大學東洋史論集』 16.
- 小野響, 2017, 「前燕國家體制考-慕容儁稱帝以後を中心として」, 『史淵』 39.

## 모용선비(慕容鮮卑)의 업성(鄴城)시대와 중화정통

이춘호

모용선비에게 업성은 어떤 의미를 가진, 어떤 영향을 끼친 수도였을까? 357년 11월 중원 진출에 성공한 모용선비는 업성에 수도를 두고 이후 370년 11월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이곳에서 13년의 시간을 보냈다. 이 기간 내에 모용선비의 대내외적인 발전과 그 변화해가는 모습들이 녹아 있다면, 이를 업성시대로 특정 화합은 물론이며, 이 수도가 가지는 의미와 그들에게 끼친 영향까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당시 동진·전진과 천하를 삼분하고 있던 전연은 이들을 무력으로 공멸하여 천하통일을 이루는 것이 중화정통을 장악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여겼으므로 대규모의 동원령을 내려 그 준비에 착수한다. 모용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대대적인 군사정벌은 이루어질 수 없었으나, 천하통일을 위한 시도는 모용위의 재위시기 모용각의 보정을 통해 계속되었다. 특히 귀향과 배반을 반복하며 도전해왔던 여호·장평 등 세력집단의 존재, 그리고 전진 부소의 귀향과 출병 요청은 모용선비의 천하통일을 향한 의지와 노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편, 무력에 의한 방법 외에 오덕종시론을 통해 중화정통의 장악에 나선 모용선비는 중원으로 진출하기 전 다수 한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지를 이끌어내

기 위해 진조(금덕)의 정통을 계승했으나(수덕), 이후 중원을 차지하고 업성에 수도를 둔 후 새 시대·새 환경에 적응해 가기 위해 일찍이 화북을 통일하고 진조의 계승자를 자처했던 오호왕조 후조의 정통을 계승하기로 결정한다(목덕). 이렇게 전연이 후조(진조의 계승자)의 계승자를 자처하면서 오호의 자격으로 호·한인의 정치적 위상을 대변하는 최초의 정통왕조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 밖에 업성시대 국내정세와 관련하여 모용위 재위 후기 모용평과 가족훈후의 난정으로 정치·사회적인 부패와 갈등은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소 등 한인관료들이 나서고 있다. 그들은 화하문화에 입각해 모용선비의 통치행위가 보다 근본적으로 민의에 부합하도록 노력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왕도정치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왕도정치의 회복을 위한 한인관료들의 노력이 계속될 때 전연은 오호왕조의 외피를 벗고 중화왕조로 계속해서 탈바꿈해갈 수 있었다. 게다가 당시 양침과 황보진은 전진과의 관계를 정확히 간파하고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간언했는데, 이를 대외적으로 위기에 빠진 전연을 구하고 명운을 지킬 묘책이었다고 한다면, 이 또한 그들이 다른 각도에서 취할 수 있는 왕도정치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하겠다. 이런 노력들이 결국 좌절될 수밖에 없었던 책임을 우리는 강력한 친정의 의지를 보이지 못했던 충유한 제왕 모용위와 모용평·가족훈후에게 물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주제어:** 모용선비, 전연, 업성, 중화정통, 중원, 모용준, 오덕종시론, 한인관료

## ABSTRACT

# The Ye City Era of Murong Xianbei and the Chinese Orthodoxy

Lee Chunho

Murong Jun called himself Yan emperor in November 352, so the dynastic form was transformed the Yan kingdom into the Yan empire. After the region of the ZhongYuan was conquered, Murong Jun decided to move the capital from Ji City to Ye City. It was November 357. Then, what does Ye City mean to Murong Xianbei? From this time, Ye City became a new capital of the Yan empire until November 370. In the thirteen years, Murong Xianbei continue to hold the Chinese orthodoxy. I think that this period is called the Ye City Era. How do Murong Xianbei hold the Chinese orthodoxy? They have implemented three methods. First, at that time, the Yan empire confronted the eastern Jin and the former Qin each other, wanted to attack and destroy them. The Chinese orthodoxy could be holded by it. Second, Murong Xianbei want to hold the Chinese orthodoxy through the theory of five elements circulation. Before they enter the region of the ZhongYuan,

had inherited the orthodoxy of the Jin empire. However, when they were in Ye City, actively declared to inherit the orthodoxy of the later Zhao. As we all know, the later Zhao inherited the orthodoxy of the Jin empire after unifying the northern China. Third, there were political corruption and social chaos in the late years of the Ye City Era. So, the Han officials tried to restore “the kingly politics”. This is a manifestation of holding the Chinese orthodoxy.

**Keywords:** Murong Xianbei, the Yan empire, Ye City, the Chinese Orthodoxy, the region of the ZhongYuan, Murong Jun, the theory of five elements circulation, the Han official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임진왜란기 대씨·태씨(조선시대 발해인)들의 활동 연구

– 『난중일기(亂中日記)』와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을  
중심으로

박순우 | 군산대학교 역사학과 강사

- I. 머리말
- II. 『난중일기(亂中日記)』 속 대씨 및 태씨들의 활동
- III.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 속 남원지역 태씨들의 활동
- IV. 맺음말: 조선시대 발해인들의 전쟁기 활동의 의미



## I. 머리말

그간 임진왜란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어왔다. 임진왜란사 전반에 관한 연구는 물론,<sup>1</sup> 동아시아 3국의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sup>2</sup> 의병에 관한 연구도 적지 않게 진행되었다.<sup>3</sup> 대표적 명장(名將)이었던 이순신과 그 휘하 인물들에 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졌다.<sup>4</sup>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시기의 역사적 사실이 모두 규명

---

\* 투고: 2022년 10월 30일, 심사 완료: 2023년 2월 3일, 게재 확정: 2023년 2월 13일

- 1 임진왜란사의 큰 흐름을 짚은 李炯錫의 『壬辰戰亂史』(新現實社, 1974)가 출판된 이래, 많은 연구성과가 발표되었다. 이 글은 임진왜란사를 본격적으로 다룬 글은 아니므로 자세한 소개는 생략한다. 임진왜란사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조원래의 『임진왜란사 연구의 새로운 관점』(아세아문화사, 2011)을 참고하기 바란다.
- 2 한명기, 1999,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정두희·이경순 엮음, 2007,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기타지마 만지(北島万次) 著, 김문자·손승철 엮음, 2019, 『北島万次, 임진왜란연구의 재조명』, 경인문화사.
- 3 임진왜란기 의병에 관한 연구성과로는 조원래, 2006, 「임진왜란사 연구의 추이와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비평사 참고. 아울러 임진왜란기 호남지역 의병 연구로는 하태규, 2015, 「임란 호남의병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 『역사학연구』 59를 참고할 수 있다. 현재 의병사 연구는 ‘지역’과 ‘의병장’을 중심으로 연구가 심화되고 있다. 조원래, 2003, 『임진왜란과 호남지방의 의병항쟁』, 아세아문화사; 김강식, 2001, 『임진왜란과 경상우도의 의병운동』, 해안; 최효식, 2003, 『임진왜란기 영남의병연구』, 국학자료원; 임진왜란사연구회, 2011, 『임진왜란과 전라좌의병』, 보고서; 이태진 외, 2019, 『김성일과 임진왜란: 의병과 진주 대첩』, 보고서.
- 4 이순신 휘하 인물들에 관한 연구는 최근 몇몇 연구자가 시도했는데, 이순신에 치중된 연구에 대한 반성과 극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순신 장군의 ‘막하’ 인물이란 이순신 휘하의 무관과 종사관(從事官)을 의미한다(협의적 개념). 반면, 『湖南節義錄』에는 ‘參佐·諸公’과 같이 의병 출신들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광의적 개념). 이에 대해서는 김영숙, 1992, 「이충무공 막하인물 분석」, 『충무공 이순신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병성, 2012, 「정유재란기 이순신의 전략과 의병막하인물」, 『역사학연구』 46, 68~69쪽 참조.

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특히 국난 극복 과정에서 노력한 민중의 활약상은 좀 더 검토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의병장 위주의 연구경향에서 일반민들은 흔히 동원된 존재들로 간주되지만, 그들의 활동에도 여러 다양한 측면이 존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국난극복에 노력한 조선인들 중, 조선의 백성이었음은 분명하되 그 출자와 성격이 여느 조선인들과는 다소 달랐던 발해인들이 임진-정유왜란기에 보였던 동향에 주목해보았다. 『난중일기(亂中日記)』에는 태씨와 대씨 등의 성씨를 가진 인물이 다소 등장하는데,<sup>5</sup> 여러모로 볼 때 이들의 성씨는 협계태씨나 영순태씨 문중과도 같은 발해성씨로 판단되며, 그들의 여러 활동이 매우 흥미롭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고려에 내투했던 발해인과 그 후손에 관한 연구는 적지 않게 이뤄졌지만,<sup>6</sup> 조선시대 발해인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sup>7</sup>

---

5 필자는 조선시대 기록에 등장하는 대씨와 태씨들이 ‘발해인’으로 묘사된 점에 착목하여 그들이 고려시대를 이어 조선시대에도 유지하고 있던 ‘발해출자의식’과 ‘발해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살핀 바 있다(박순우, 2022b, 「‘발해유민’인가 ‘발해인’인가?」, 『역사비평』 140호 참조). 발해 멸망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이었던 조선시대에 발해 출신자들의 후손들이 과연 그런 의식을 지니고 있었는지에 대해 학계에 이론도 없지 않음은 잘 알고 있으나, 그들이 조선시대 기록에 ‘발해인’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그런 의식의 존재 가능성을 상정하고 탐구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글은 그들이 ‘발해인으로서의 특별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국난극복기 독특한 기여’를 했을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아니며, 독특한 출자의식을 갖고 있던 이들 역시 여느 조선인과 다르지 않게 국난극복에 기여했음에 주목한 것일 뿐임을 밝힌다. 발해인들을 고려로 민간 기층의 국난극복을 살펴보려는 노력으로 받아들여지면 좋을 것 같다.

6 고려시대 발해인에 관한 연구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박옥걸, 1996, 『고려시대의 귀화인 연구』, 국학자료원; 한규철, 2005, 『발해의 대외관계사』, 신서원; 이효형, 2007, 『발해 유민사 연구』, 혜안; 박순우, 2017, 『10~14세기 ‘渤海人’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등이 참고할 만하다.

7 조선시대 발해인 연구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박순우, 2020, 「고려후기 발해인 세거(世居) 사례와 조선시대 ‘발해인(渤海人)’ 연구 시론-‘족당(族黨)’의 용례와 남원지역 협계태씨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62, 한국중세사학회; 박순우,

일찍이 고려 초 한반도에 내투한 발해의 유민과 그 후손들(‘발해인’)이 순조롭게 고려사회에 안착한 이래, 고려~조선시대 발해인들은 한반도의 일원으로 거듭 나면서도 자신들의 ‘출자’를 잊지 않았고, 동시대 한반도인들과 똑같이 자신들의 현달한 선대를 추념하며 새로운 본관(협계·영순)에 기반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갔다.<sup>8</sup> 그런 과정에서 그들에게는 어느 조선인들과는 다른 출자의식, 즉 발해 왕성(王姓) 출신으로서의 자의식이 구축되었다.<sup>9</sup>

이 조선시대 발해인들은 조선인과 같은 공간에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갔으며, 이는 임진왜란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순신의 『난중일기』는 물론,<sup>10</sup> 조선 후기 국난 당시 호남지역 인사들의 거의(擧義) 사실을 기록한 『호남절의록(湖南

---

2021, 「조선 선조대 임진~정유년 시기 남원지역 발해인의 활동 연구」, 『전북학연구』 4집, 전북연구원; 박순우, 2022a, 「조선전기 ‘발해인’의 사회적 동향-남원지역 협계태서 태웅진 가계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9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8 이 글에서의 ‘정체성’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며, ‘발해인’들만의 ‘특수’한 ‘정체성’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이 글의 ‘정체성’은 늘 ‘변화’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물론 ‘늘 변화’하기에 ‘정체성’이란 용어를 붙이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순우, 2022b, 「‘발해유민’인가 ‘발해인’인가?」, 『역사비평』 140호 참조.
- 9 고려~조선시대인들이 ‘발해’의 후손을 ‘발해인’으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는 긴 기간 발해인들이 나름의 자의식을 유지했고, 그를 정부나 민간에서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의 검토로는, 고려정부가 내투 발해인과 그 후손들을 고려로 수용했고, 발해 출신자들이 거란과의 전쟁이나 무신집권기 정국에서 두각을 드러냈으며, 그를 기반으로 생명력과 시의성이 유지된 ‘발해인’이란 용례가, 발해 출신자들의 후손들이 여말선초 영순, 협계 지역 등 새로운 지역에 연고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조선시대에도 살아남았는데, 이들이 다른 조선인들마냥 자신들의 출자와 선대를 추념하게 되면서, 그들의 출자의식 및 정체성 자각은 강해지는 한편 조선사회 역시 그들을 ‘발해인’으로 인식하고 기록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필자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다른 고리도 있을 수 있으나, 발해를 출자로 하는 이들이 고려시대를 이어 조선시대에도 활동했기에 고려와 조선의 지식인들이 그들을 ‘발해인’으로 기록한 것만큼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 중 민중에 해당하는 이들이 임진왜란기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 글의 주제라 하겠다.
- 10 이 글은 가장 최근에 발굴된 문헌들까지 정리·역주한 노승석 역주, 2021, 『(신완역) 亂中日記校註本』, 여해를 참고하였다.

節義錄』,<sup>11</sup> 남원의 읍지로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는 『용성지(龍城誌)』, 그리고 조선시대 남원지역 거주 발해인의 행적을 소략하게나마 전하는 협계태씨의 가승인 『협계태씨족보(陝溪太氏族譜)』 인물조(1856·1928년간)<sup>12</sup> 등에서 그런 정황들이 두루 발견된다. 이 기록들이 전하는 정황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그들을 비교 분석하면 그들의 활약상이 더욱 풍성하게 재구성되리라 기대한다.

이에 이 글은 Ⅱ장에서 『난중일기』에 기록된 발해인 대씨와 태씨들의 행적과

- 
- 11 『湖南節義錄』은 “국난 시에 호남출신 인사들의 절의 사적을 폭넓게 수록하고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호남 의향론(義鄉論)의 핵심 자료로서 인정”되면서도, “일부 내용 등에 오류가 꽤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김동수, 2011, 『호남절의록의 사료가치 검토(1)』, 『역사학연구』 44, 호남사학회, 32쪽). 김동수는 『湖南節義錄』과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南間倡義錄』(1799, 정조 23)·『湖南募義錄』(1760, 영조 36)·『丁卯學義錄』(1798, 정조 22)·『丙子倡義錄』(1770, 1858) 등을 검토하여 인물의 수록 및 누락, 수록된 인물의 다소(多少)를 중점적으로 비교·검토했으나, 『湖南節義錄』의 ‘5란사(亂事)’에 관계된 개별 인물 기록과 그 내용에 관한 검토는 다소 미흡했으며, 그 내용이 오류를 담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이 글에서는 당 기록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한하여 집필에 활용했음을 밝힌다.
- 12 『陝溪太氏族譜』(이후 『陝溪譜』로 약칭)는 그간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다.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견해(정영진, 2007, 「발해의 건국연대와 건국지, 건국집단과 국호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6, 287~289쪽)가 존재하지만, 이와 달리 사료로서는 부족하지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정사에 나오지 않는 족보상의 기록을 무조건 부정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채태형, 1992, 「『협계태씨족보』에 실린 발해관계 사료에 대하여」, 『발해사연구론문집』 1,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10쪽 참조; 김성호, 1992, 「발해와 후기 신라의 관계」, 『발해사연구론문집』 1, 288쪽 참조). 그런데 한편으로, 지금까지의 논쟁에서 문제된 부분은 ‘발해국 시기에 대한 기록’일 뿐, 조선시대 인물들에 관한 기록은 사실 그 신빙성 여부가 제대로 검토된 바 없다. 족보 일부 기록의 신뢰성 부족을 이유로 족보 기록 전체를 폄훼할 필요는 없으므로, 족보의 조선시대 기록은 족보 외 자료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신빙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배척하면 될 일이다. 이 글에서도 그리 하였음을 밝힌다. 『陝溪譜』의 신빙성 문제에 대해서는 박순우, 2020, 앞의 글, 263~272쪽 참조. 이 글은 『陝溪太氏族譜』 1856년刊과 1928년刊 두 본을 모두 참고했으며, 1856년본은 현존하는 족보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족보이다. 필요시에 몇 년도 본인지를 표기하였다.

면모를 정리하고, Ⅲ장에서는 『호남절의록』에 수록된 임진-정유왜란기 남원지역 협계태씨 발해인들의 행적을 정리 및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남부 지역에 거주한 조선시대 발해인 태씨와 태씨들이 임진왜란기 국난극복의 최선두에 섰던 이순신의 휘하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를 확인하고, 남원의 협계태씨 발해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병 활동을 통해 전략적 요충지였던 남원 수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펼쳤는지를 확인한 후 그에 대한 합당한 평가도 시도하고자 한다. 그간 발굴되지 못했던 기층의 조선시대 발해인을 추가로 발굴하는 동시에, 그간 상대적으로 덜 주목되어온 기층민들의 국난극복 노력도 환기해보고자 한다.

## Ⅱ. 『난중일기(亂中日記)』 속 태씨 및 태씨들의 활동

일찍이 발해국 시기 이래, ‘대(大)’와 ‘태(太)’ 자(字)가 혼용되었음은 물론 심지어 두 글자 대신 ‘태(泰)’<sup>13</sup> 자가 쓰이기도 하였다. 송대 간행된 『책부원귀(冊府元龜)』<sup>14</sup>나 조선 초에 간행된 『고려사(高麗史)』도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sup>15</sup>

그런데 고려시대 발해인 연구와 달리 조선시대 발해인 연구는 대개 태씨를

13 발해의 제9대 간왕(簡王, 재위 817~818)의 배우자 순목왕후(順穆皇后) 묘지명에는 “간왕의 황후 태씨(泰氏)”로 기록되어 있다.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2009, 「吉林和龍市龍海渤海王室墓葬發掘簡報」, 『考古』 第6期, 23~39쪽 참조.

14 『冊府元龜』 권996, 外臣部41, 納質, “(唐)太宗 大曆 9年(774) 2月 辛卯, 渤海質子大英俊還蕃, 引辭于延英殿.”, “(唐)德宗 貞元 7年(791) 8月, 渤海王遣其子太貞幹(一作眞幹)來朝 請備宿衛.”

15 조선 중기에 편찬된 권문해의 『大東韻府群玉』(1589)에는 ‘영순태씨’의 연원이 기록되어 있다. 『大東韻府群玉』은 당시 성씨 관련 자료로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평가되고, 더불어 편찬자 권문해가 ‘영순’과 이웃한 ‘예천’ 출신이라는 점에서 ‘태씨’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그가 영순태씨의 연원을 ‘泰’조에 기록하였다. 『大東韻府群玉』 권14, 去聲 ‘泰’조 참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씨 관련 기록은 고려시대 이후 점차 줄어들고, 태씨의 경우 가문이 세전하며 후손들이 계속 존재했던 결과로 여겨진다. 조선시대 자료에서도 대씨보다 태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관찰되며,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조선총독부는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의 전 분야를 망라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조선국세조사보고(朝鮮國勢調査報告)』(昭和 5년·1930)를 간행했으며, 여기에 조선의 성씨별 가구 수가 정리되어 있다.<sup>16</sup> 그리고 당시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934년 출판된 『朝鮮の姓』에 한반도의 성씨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sup>17</sup> 무엇보다도 이 자료에서 일제강점기의 발해인 대씨와 태씨의 집단 세거지 및 가구 수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대씨(大氏)는 12가구(250개 성씨 순위에서 193위)가 조사되었지만,<sup>18</sup> 태씨는 총 1,043가구(총 250여 개 성씨 순위에서 102위)로 조사되었다.<sup>19</sup>

고려시대에는 대씨와 태씨가 혼용되었지만(『고려사』), 조선시대에는 태씨의 등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동사집략(東史輯略)』 등), 고려 후기(협계태씨)와 조선 전기에(영순태씨) 태씨가 현달한 결과로 추정된다. 조선 말 『동사집략(東史輯略)』에 “지금 여항에 왕왕

16 이때 간행된 『朝鮮國勢調査報告』(昭和 5년, 1930, 朝鮮總督府 編)는 日本 國立國會圖書館 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 朝鮮總督府 編, 1934, 『朝鮮の姓』, 東京: 國書刊行會.

18 도별(道別) 대씨와 태씨의 가구 수를 보면 태씨와 달리 대씨는 매우 소수인데, 총 12가구 중 10가구가 전라남도에서 거주하였다. 朝鮮總督府 編, 1934, 위의 책, 163~176쪽 참조.

19 태씨는 거의 전국에서 확인된다. 그중 전북 남원의 협계태씨에서 분파하여 함경북도 명천군 아간면(阿間面)에 가계를 이룬 명천파(또는 남원파)는 대규모의 동족 부락(478가구)을 이뤄 거주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가구 수가 많았던 곳은 전라북도 122가구(협계태씨), 경상북도 118가구(영순태씨) 등이다. 그 뒤를 경기도, 함경남도, 충청북도가 있고 있는데, 각각 102가구, 90가구, 86가구를 보인다.

태씨라 하는 이들은 스스로 발해의 후손이라 말한다”는 기록이 있고,<sup>20</sup> 조선시대 최대의 국난이었던 임진왜란기 기록에서 태씨의 활동 기록이 더 많은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임진왜란기에 작성된 『난중일기』에서, 여러 태씨와 함께 다수의 대씨 또한 새로이 발견되어 흥미롭다. 이는 조선시대 발해인으로서 기록에 담기지 못한 자, 즉 사회적 신분이 낮은 자들이 적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sup>21</sup>

#### ① 이순신 휘하의 궁전장(弓箭匠) 대방(大邦)

이순신의 『난중일기』에는 ‘궁전장(弓箭匠)’, 즉 활과 화살을 만드는 장인으로 기록된 대방(大邦)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sup>22</sup> 같은 궁전 장인 옥지와 함께 귀환했다는 1593년 2월의 기록에서다. 이 대방의 생애나 신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데, 중·상위 신분의 소유자는 아닌 것으로 보여 노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럴 경우 대방의 ‘대’도 성씨가 아닌 이름의 일부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투 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물품인 동시에 그 제작에 상당한 기술 또한 요망되었을 ‘화살 장인’이었던 점이 눈에 띈다. 아울러 함께 기록

20 『東史輯略』 권5, 31面. “今閭巷中 往往有太氏 自言渤海後云” 참조. 『東史輯略』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청구기호: 古211-40-23]에서 원문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김택영(金澤榮)의 『東史輯略』은 이후 어윤적(魚允迪)과 여남섭(呂南燮)이 함께 교정, 증보하여 1905년에 『歷史輯略』[청구기호: 古211-35-153]이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21 지금까지 ‘조선시대 발해인’은 대체로 경상도 일대에 세거해온 영순태씨나 호남의 남원지역 일대에 계대(繼代)해온 협계태씨[함경도 명천의 협계태씨는 명천파(또는 남원파·관북파)로 불림]를 지칭해왔다. 『난중일기』 속 대씨와 태씨 모두를 발해인 또는 발해인 후손으로 단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도 있지만, 대씨·태씨가 혼한 성씨는 아니었다는 점과 이들을 발해인이 아니라고 할 증거도 아직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발해인 후손으로 추정하고 논의를 진행했음을 밝혀둔다.

22 노승석 역주, 2021, 앞의 책, 79쪽. 원문은 同書, 444쪽. 「癸巳日記」(1593) 2월, “十三日戊戌, … 弓箭匠大邦·玉只等還歸.”

된 옥지(玉只)는 종(奴)으로 기록된 반면, 대방(大邦)을 수식하는 표기는 없다는 점 역시 간과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대방은 일단 하위신분을 가진 양인이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대방의 성 또한 ‘대씨’였다고 보고자 한다.

이순신은 활과 화살을 제작하는 기술자들을 ‘궁인(弓人)’, 또는 ‘궁장(弓匠)’으로 지칭하고, 이들이 새 활(新弓)과 화살(“箭竹”: 화살대) 등을 만들었다고 적었다. 『난중일기』에는 활쏘기 연습 기록과 활과 화살을 만들었다는 기사가 자주 확인되는데, 왜군과의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전쟁이 장기화하자 이순신이 안정적인 군량 확보와 무기 수급에 나서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가장 대표적인 기사로는 1596년 5월과 6월의 기록을 들 수 있다. 『난중일기』는 1596년(「병신일기(丙申日記)」) 5월 24일(경인) 박옥(朴玉)·무재(武才)·옥지(玉只)가 ‘화살대(箭竹)를 처음 만들어 냈다’(“始造”)고 적고 있다.<sup>23</sup> 그리고 열흘 뒤인 6월 5일(신축) 이순신은 동명(同名)의 3인이 화살(“帳箭”) 150개를 만들어 아침에 바쳤다고 기록하였다.<sup>24</sup>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당연히 ‘화살’을 제작하는 장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옥지에 대한 언급이 1593년 이후 1596년에도 등장하는 것과는 달리, 대방에 대한 기사는 1593년 이후 다시 관찰되지 않는다. 그가 사망했기 때문인지, 이순신의 군영을 떠났기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1593년경 대방을 보조하던 옥지가 대방으로부터 궁전 제작 기술을 익히고,<sup>25</sup> 이후 수련을 거쳐 1596년에 박옥, 무재 등과 함께 개량된 궁전을 제작해 이순신에게 바친 것은 아

23 노승석 역주, 2021, 위의 책, 302쪽. 원문은 同書, 533쪽. 「丙申日記」(1596) 5월, “廿四日庚寅, … 朴玉·玉只·武才等, 箭竹一百五十介始造.”

24 노승석 역주, 2021, 위의 책, 302~304쪽 참조. 원문은 同書, 533쪽. 「丙申日記」(1596) 6월, “五日辛丑, 陰, 朝朴玉·武才·玉只等造帳箭一百五十介納.”

25 뛰어난 무기 확보는 전문 장인(匠人)을 육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일 테다. ‘활과 화살을 만드는 장인(弓箭匠)’으로 기록된 대방(大邦)은 전문 장인을 양성하는 임무도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닐까 추측해본다. 그러한 추측이 맞다면 대방의 당시 역할이 나를 중요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대남(大男)

『난중일기』에 기록된 또 다른 대씨는 대남(大男)이다. 그가 등장하는 기사는 2건이지만 내용은 두 건이 서로 동일하다.<sup>26</sup> “오후에 궁장(弓匠) 지이(智伊)와 태귀생(太貴生), 선의(先衣), 대남 등과 함께 들어왔다”는 1597년 8월 16일(갑술)자의 기사가 그것으로,<sup>27</sup> 그는 외부에서 미상의 임무를 수행하고 복귀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남이 수행한 임무는 무엇이었을까. 위 기사만으로는 그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함께 기록된 지이(智伊)는 궁장으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인 데 비해,<sup>28</sup> 바로 뒤에 언급된 태귀생은 일기의 다른 곳에 정탐인(“偵探人”) 또는 군관(“軍官”)으로 기록되어 있다.<sup>29</sup> 이순신이 지이에게 새로 만든 활을 직접 시험해볼 것을 명했던 기록을 감안하면<sup>30</sup> 그는 군영 내 최고의 장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대남은 지이를 도와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인물이 아닌가 싶

26 이순신의 『亂中日記』는 「丁酉日記Ⅰ」과 「丁酉日記Ⅱ」로 나뉘어 있는데, 「정유일기Ⅰ」은 4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고, 「정유일기Ⅱ」는 8월 4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다. 두 일기의 내용이 8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66일간 중첩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서는 노승석 역주, 2021, 앞의 책, 389쪽 참조.

27 노승석 역주, 2021, 위의 책, 378·393쪽 참조. 원문은 同書, 562, 569쪽 참조. 「丁酉日記Ⅰ」(1597) 8월, “十六日甲戌, … 午後, 弓匠智伊及太貴生·先衣·大男等入來.”; 「정유일기Ⅱ」(1597) 8월, “十六日甲戌, 晴, … 弓人李智及太貴生 見. 先衣·大男亦來.”

28 『난중일기』에는 이지(李智)로 쓰인 경우도 확인되는데, 지이(智伊)와 혼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29 노승석 역주, 2021, 앞의 책, 403~405쪽 참조. 원문은 同書, 576쪽.

30 노승석 역주, 2021, 위의 책, 314쪽. 원문은 同書, 538쪽. 「丙申日記」(1596) 8월, “初二日丁酉, … 使智伊等, 新弓張弛.”·“初三日戊戌, 晴, … 使智伊張新弓.”

은데, 그런 점에서 대남도 ‘궁장’이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렇다면 그의 신분은 무엇이었을까? 『난중일기』에서는 마땅한 단서를 찾을 수 없지만, 신원 불명의 또 다른 ‘대남’이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된다. 1619년 ‘안여눌(安汝訥)의 종(奴)’으로 기록된 대남이라는 자가<sup>31</sup> ‘양반의 종 세동(世同)이 여주인 김씨와 간통’했다고 관아에 고발했다는 기록, 그리고 인조 13년(1635) 6월 14일(임자)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보기 위해 무단으로 강을 건너려다가 평양부에서 체포되었다는 기록에서다.<sup>32</sup>

이 대남과 『난중일기』의 대남이 같은 사람이라면 『난중일기』의 대남은 천인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두 대남 사이에는 20여 년이라는 격차가 있고, 1635년의 기록까지 감안하면 양자를 동일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 현재로서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근거로 양자를 동일인으로 간주하기보다, 두 사람은 동명이인이었으며, 『난중일기』의 대남은 동일 기록의 대방의 사례에 견주어 양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sup>33</sup>

이상에서 궁전장으로 기록된 대방, 궁장으로 기록된 대남 모두 임진왜란기 이순신 휘하에서 전쟁 수행에 필수품인 무기 생산을 담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활동에서 발해인으로서의 출자가 일정하게 작용한 지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다른 사례들까지 살펴본 후 종합적 견지에서 고려해보도록 하자.

31 『光海君日記』 146권, 광해 11년(1619) 11월 30일(기유) 참조.

32 『仁祖實錄』 31권, 인조 13년(1635) 6월 14일(임진), ○壬辰/禁府啓曰: “罪人大男, 投屬從胡, 將欲過江, 幸而平壤府設機捕得. 『大明律』謀反條有曰: ‘謀背本國, 不分首從皆斬’云, 請斷以此律.” 答曰: “背國之狀, 殊極痛惡, 依律施行, 固無不可, 而然其父子間情理, 亦甚可矜, 減死照律.” 蓋大男之父, 被擄在胡中, 大男欲相見, 潛投而見覺故也.

33 대남의 ‘대’ 또한 성씨였을 것으로 간주해본다. 아울러 『난중일기』와 『조선왕조실록』의 대남이 서로 동일 인물이었다 하더라도, 그가 전쟁 당시 양인이다가 전후 천인으로 몰락했을 가능성도 상정해볼 수 있는데, 『난중일기』의 대남을 일단 양인으로 보는 것이 불합리할 것 같지는 않다.

③ 노비 신분으로 기록된 종(奴) 태수(太守)와 태문(太文)

이순신은 『난중일기』 계사년(1593) 7월 13일(을축) 기사에 “순천 귀선(龜船)의 격군(格軍)으로서 경상도 사람인 종 태수[太守(壽)]가 도망하였는데, 붙잡아 형을 행하였다(行刑)”고 기록하였다.<sup>34</sup> 태수가 노비 신분으로 거북선에서 수부(水夫) 노릇을 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가 이 일로 사형에까지 처해졌는지는 미상이다.

『난중일기』를 보면, 이순신은 군영 내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법에 어긋나다고 판단되는 휘하 군관과 병사를 엄격히 다루었다. 그래서 『난중일기』에는 “중죄(重罪)”로 처벌하거나 “효시(梟市)”했다는 기록이 종종 등장하며, 곤장을 쳤다는 등의 가벼운 형벌 기록은 물론 심지어 곤장의 대수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태문의 경우 『난중일기』에 2번 등장하며(1597년 4월 12일과 동년 7월 11일<sup>35</sup>), 두 군데 모두 그가 ‘종’의 신분이었음을 명시하였다. 태문은 이순신의 휘하에서 심부름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안흥량에서 돌아와 편지를 전하거나, 종이(終伊)라는 또 다른 종과 순천으로 떠났다는 기록에서 그를 엿볼 수 있다.

『난중일기』에는 이순신 집안의 종과 비(婢)가 수시로 많은 심부름을 수행한 것으로 등장하는데, 태문도 그런 경우로 생각된다. 그가 군영 내의 군사로서 이순신의 사적 업무와 공적인 업무에 함께 동원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태수와 태문은 천인으로 명기된 경우이나, 그 성씨만큼은 태씨로 보는 것이 합당하리라 생각된다. 태(太) 자는 고사하고라도, 수(守)나 문(文) 등의 글자 역

34 노승석 역주, 2021, 앞의 책, 124쪽. 원문은 同書, 463쪽. 「癸巳日記」(1593) 7월, “十三日乙丑, … 順天龜船格軍慶尙人奴太守(壽)逃走, 被捉行刑.”

35 노승석 역주, 2021, 위의 책, 337쪽. 원문은 同書, 547쪽. 「丁酉日記 I」(1597) 4월, “十二日壬申, 晴. 奴太文, 自安興梁入來, 傳簡則“天只氣息奄奄, 初九日上下無事, 到泊安興”云.”; 「丁酉日記 I」(1597) 7월, “十一日庚寅, 晴, … 奴太文與終伊, 往順天.”

시 노비의 이름으로 흔히 쓰이는 글자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사한 고려시대의 사례를 보더라도, 친인이 의심되는 인물명의 태자는 대개 발해성 태씨(대씨)로 간주된다.<sup>36</sup> 이 모든 것을 감안하면, 태수와 태문 또한 비록 친인이긴 하나 그 성씨는 태씨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 ④ 태구생(太仇生)과 태귀생(太貴生)

한편 『난중일기』에는 태구생(太仇生)이라는 인물도 한 차례 등장한다. 이순신이 늦은 시간에 나와 공무를 처리한 후 태구생의 죄를 판결했다는 1596년 2월의 기록에서다.<sup>37</sup> 그의 신분이나 직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경미한 위반행위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만 등장한다.

반면 같은 『난중일기』에 태귀생(太貴生)이라는 인물도 등장한다. 앞에서 대남과 관련해 소개했던 1597년 8월 16일의 기록에서다. 활 장인(弓匠) 지이를 비롯해 선의, 대남 등과 함께 등장했던 인물이다.<sup>38</sup> 이 태귀생은 이후에도 계속 등장하는데, 역시 상기한 바와 같이 한 번은 “정탐인(偵探人)”으로,<sup>39</sup> 한 번은 “군관(軍官)”으로 출현한다.<sup>40</sup> 1597년 10월 11일 “정탐인”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36 고려 후기 발해인 연구에서도 대정(大貞)과 대문(大文)이라는 인물에 대해 그 ‘성’이 대씨인지의 여부가 비록 불명확하긴 하나 발해 유민의 후예로 인정하는 편이다(이효형, 2007, 『발해 유민사 연구』, 해안, 263~264쪽). 태수와 태문도 이들이 발해인 태씨가 아니라는 확실한 자료가 출현하지 않는 이상 발해인으로 추정하는 것이 불합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

37 노승석 역주, 2021, 앞의 책, 280쪽. 원문은 同書, 523쪽. 「丙申日記」(1596), 2월, “十日丁未, 晴且和. … 晩出坐, 決太仇生罪.”

38 노승석 역주, 2021, 위의 책, 378, 393쪽 참조. 원문은 同書, 562, 569쪽. 「丁酉日記(I)」 8월, “十六日甲戌, … 午後, 弓匠智伊及太貴生·先衣·大男等入來.”; 「丁酉日記(II)」 8월, “十六日甲戌, … 弓人李智及太貴生見.” 이 기사는 「丁酉日記(I)」(1597)과 「丁酉日記(II)」에 실려 있는데 내용상 하나의 기사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에 대해서는 노승석 역주, 2021, 위의 책, 389쪽 참조.

39 노승석 역주, 2021, 위의 책, 403쪽 참조. 원문은 同書, 576쪽. 「丁酉日記(II)」 10월, “十一日戊辰, … 偵探人李順·林淡同·朴守選·太貴生送于海南.”

40 노승석 역주, 2021, 위의 책, 405쪽 참조. 원문은 同書, 576쪽. 「丁酉日記(II)」

돌아와 이순신에게 해남에 주둔 중인 왜군의 상황을 보고한 후, 이틀 뒤인 13일에 순천 부사 우치적, 금갑도 만호 이정표, 제포 만호 주의수, 당포 만호 안이명, 조라포 만호 정공칭 및 ‘군관’ 임계형·정상명·봉좌·박수환 등과 함께 해남으로 나아가 왜적을 공격하였다.

현재로서는 『난중일기』에 등장하는 태구생과 태귀생의 이름자가 서로 다른 만큼, 둘은 다른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sup>41</sup> 그리고 관련 기록이 매우 소략한 태구생보다는, 정탐인이자 군관으로 등장하는 태귀생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이 태귀생은 군관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만큼 당연히 양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성인 태씨 또한 발해성으로서의 태씨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42</sup>

⑤ 태구련(太九連)과 이순신 장검 제작자 태귀련(太貴連)<sup>43</sup>

마지막으로 『난중일기』에 보이는 태구련(太九連)을 살펴보도록 하자. 『난중일기』에 태구련은 2번 등장하는데, 「을미일기(乙未日記)」(1595) 7월 14일(을유)

10월, “十三日庚午, … 卽令順天府禹致績·金甲萬戶李廷彪·齊浦萬戶朱義壽·唐浦萬戶安以命·助羅浦萬戶鄭公清及軍官林季亨·鄭翔溟·逢佐·太貴生·朴壽還等, 送海南.”

41 이 문제는 두 인물이 ‘동일인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문제로서 제기된 바 있다(김동수, 2007, 「정유재란기 호남지역 의병의 향토방위전 사례 검토」, 『역사학연구』 30, 65쪽 각주 103번). 물론 태귀생이 이순신으로부터의 처벌받은 시점은 1596년 2월 10일(정미)이고, 그가 일기에 다시 등장하는 것은 1597년 8월 16일과 10월 11·13일이다. 두 인물이 동일인이라면, 태구생(태귀생)이 경미한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일선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추정에 불과하다.

42 한편, 협계태씨 가문의 구성원으로서 태귀생(太貴生)이라는 인물도 확인되지만, 협계태씨의 태귀생은 정유왜란 시 남원성 전투에 참여했다가 성이 함락되던 1597년 8월 16일에 순절했으나 『난중일기』의 태귀생은 공교롭게도 남원의 태귀생이 순절한 날 『난중일기』에 처음 등장한다. 따라서 『난중일기』 속 태귀생과 『陝溪譜』의 태귀생은 동명이인으로 판단된다.

43 필자는 이 글에 앞서 태귀생과 태귀련, 그리고 태구련이 한 명의 인물일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지만, 동일인으로 단정하지 않았다. 박순우, 2021, 앞의 글.

기사와 같은 달 21일(임진) 기사가 그것이다.<sup>44</sup> 앞의 기사가 태구련이 이상록, 공태원 등과 군영 밖에 나가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들어왔다(入來)’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면, 뒤의 기사는 태구련이 언복(彦福)과 “환도(還刀)”를 제작하자 이순신이 충청 수사 선거이와 두 명의 조방장에게 각각 한 자루씩 나눠 보냈다는 사실을 기록하였다. 이로 볼 때 태구련은 칼 장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활, 화살 만큼이나 중요한 전투물자를 생산하는 전문 기술의 소유자였던 셈이다.<sup>45</sup>

게다가 그가 여느 칼이 아닌 장검 제작 전문가였을 가능성은, 현재 현충사에 소장된 이순신 장검(국보 326호)의 습베에 제공되는 바가 있다. 습베에 새겨진 “갑오사월일조태구련이무생작(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茂生作)”이라는 문구가 그것으로,<sup>46</sup> 이순신 장군의 장검을 태귀련(太貴連)과 이무생(李茂生) 두 사람이 1594년 4월 어느 날에 만들었음을 전하고 있다. 『난중일기』 속 태구련과 장검에 기록된 태귀련은 동일인임이 확실해 보이며, 그의 이름도 장검에 기록된 태귀련이 정확해 보인다.<sup>47</sup>

44 노승석 역주, 2021, 앞의 책, 247, 249쪽 참조. 원문은 同書, 511~512쪽 참조. 「乙未日記」(1595) 7월, “十四日乙酉, … 李祥綠·太九連·孔太元等入來.” · “二十一日壬辰, … 食後, 太九連·彦福所造環刀, 忠清水使·兩助防將處, 各一柄分送.”

45 아울러 태귀련의 경우 태씨가 성씨(발해성)인 것이 확실한 만큼 그 신분도 ‘양인’으로 보는 것이 무방해 보이는데, 전문 기술의 소유자였던 그를 양인으로 볼 수 있다면, 비슷한 사례인 대방, 대남 또한 양인으로 간주할 추가적인 정황이 태구련의 예에서 제공되는 셈이라 하겠다.

46 문화재청 산하 현충사관리소에서 ‘충무공 장검 제작 7주갑 기념 특별전’ 개최를 위해 「겨레를 살린 두 자루 칼·충무공 장검」이라는 제목의 특별 도록을 제작한 바 있다(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2014, 『겨레를 살린 두 자루 칼·충무공 장검』, 가삼 기획), 도록의 72쪽에 1928년 조선사편수회에서 촬영한 충무공 장검이 실려 있고, 습베에 “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茂生作”이라는 명문이 남아 있다. 이후 『동아일보』가 충무공 유물을 배관(拜觀)하고 남긴 기사(「忠武公의 遺物을 拜觀하고」, 『동아일보』, 1931.5.13.)도 실려 있다.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2014, 위의 책, 123쪽 참조.

47 한편 구와 귀가 병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태구련-태귀련 사례는 역으로 앞서 살펴본 태귀생 사례의 ‘구(仇)와 ‘귀(貴) 자(字) 또한 상호 병용되는 글자였을 가능

### Ⅲ.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 속 남원지역 태씨들의 활동

지금까지 『난중일기』에 등장하는 여러 태씨와 태씨들의 행적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는 남원이라는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발해인들의 임진~정유왜란기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자.<sup>48</sup>

남원은 당시의 전략적인 요충지였다. 임진왜란기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물론, 조선 후기 남원의 역사, 지리, 문화를 상세하게 기록한 『용성지』가 그 점을 잘 드러낸다. 『용성지』는 우선 ‘용성(龍城: 조선시대 남원을 지칭, 필자 주)은 … 호남과 영남의 요충에 처한 국가의 보장(保障)’이라 했고,<sup>49</sup> 호남의 중요 6개 성 가운데 가장 먼저 취해야 하는 성은 (남원의) ‘교룡(蛟龍) 산성’이라 했다.<sup>50</sup> 아울러 ‘교룡(남원을 이름: 필자 주)은 영남과 호남의 두 남쪽지역(“南”)이 의거하는 곳이자 인후(咽喉)와 같은 곳’으로서, 호남과 영남의 요충지인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기록하였다.<sup>51</sup>

---

성을 시사하는데, 그러한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난중일기』 속 두 태귀생은 필자가 위에서 추정한 것처럼 서로 다른 이가 아닌, 동일인이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향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48 그간 임진왜란史 연구에서 남원성전투 역시 비중 있게 다뤄졌다. 남원성 전투에 관한 개괄적 연구는 이형석에 의해 이뤄진 후(李炯錫, 1974, 『壬辰戰亂史(中)』, 新現實社), 이희환에 의해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었다(이희환, 1983, 「정유재란시의 남원성전투에 대하여」, 『전북사학』 7, 전북대사학회). 이후의 연구로는 다음의 논고가 참고된다. 하태규, 1999, 「정유재란기 전라도 지방의 의병활동에 대하여-전라도 북부 지방의 의병활동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10; 정영태, 2014, 「정유재란시 남원성전투와 만인의충」, 『역사학연구』 56.

49 『龍城誌』 권1, 序.

50 『龍城誌』는 호남에서 가장 중요한 성 6개를 언급하고 있다. 금성(錦城: 나주), 입암(笠巖: 장성), 금성(金城: 담양), 용성(甕城: 화순), 수인(修因: 장흥), 교룡(蛟龍: 남원)을 기록하였다. 『龍城誌』 권2, 舊志, 蛟龍山城, 新增 조 참조.

51 『龍城誌』 권2, 舊志, 蛟龍山城, 新增 조 참조. 『龍城誌』 기록뿐 아니라 『宣祖實錄』에서도 남원의 중요성은 누차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宣祖實錄』 권87, 선조 30년(1597) 4월 21일(신사) 기사 참조.

남원의 이런 지정학적 의미를 고려할 때, 임진왜란기 이 지역을 방어해야 할 필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컸다고 할 수 있다. 여말~선초 시기에 남원에 정착해 일가를 이룬 남원의 협계태씨 발해인들 역시 그를 잘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난의 시기에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자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 1. 임진왜란기 협계태씨 태색(太穡) 일가의 병량미 모곡 활동

남원과 그 주변 일대에 세거해온 협계태씨는 고려 후기~말엽 남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sup>52</sup> 이후 대(代)를 거듭해 선초 태응진 단계에 이르러 지역사회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구축한 것으로 짐작된다.<sup>53</sup> 태응진은 협계태씨 가계의 중흥조라 부를 만한데, 그 손자인 태이(太異)가 네 아들을 두었고, 이 네 명의 아들이 각기 파조를 형성한 결과 협계태씨 가문은 4개의 지파로 분화된다. 첫째 태맹인(太孟仁)은 협계태씨의 종파를 잇고, 둘째 태맹의(太孟義)는 주촌파를 열었으며, 셋째 태맹례(太孟禮)는 남원파(또는 명천파·관북파), 넷째 태맹지(太孟智)는 매안파의 파조가 되었다.<sup>54</sup> 셋째 태맹례의 후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세 파의 후손들이 임진~정유왜란 시기에 활동한 발해인들에 해당한다.

그중에서도 이 절에서는 임진년 이듬해에 활동한 태색(太穡)을 살펴보도록 한다. 태색은 매안파 태맹지의 증손이었다.<sup>55</sup> 그런데 태색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 『용성지』와 『호남절의록』의 기록이 서로 달라 검토가 필요하다. 전자는 태

52 박순우, 2022a, 앞의 글, 244~246쪽 참조.

53 선초 태응진의 가계 상황에 대해서는 박순우, 2020, 앞의 글, 268~272쪽 참조.

54 이 내용은 『陝溪太氏族譜』 1856年刊과 1928年刊이 동일하다. 여기에서는 1928년본을 기준으로 하였고 『陝溪譜』 권1, 中祖世系, 63면 참조), 두 본이 서로 다를 때는 차이를 언급하였다.

55 『湖南節義錄』 권2下, 壬亂義蹟조 참조.

색이 정유왜란 때 ‘조(粟) 300여 곡(“三百餘斛”)을 군량미로 지원했다고 기록한 반면,<sup>56</sup> 후자의 경우 전자에 드러나지 않은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호남절의록』의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임진년 당시 태색은 의병을 일으키려 했으나, 부모가 병중이라 나아가지 못했다. 이에 그는 조카 태귀생과 재종질 태구, 태시경 및 서질(庶姪) 태천생 등을 불러 출전을 독려했고, 자신은 가산을 내어 병량미 300곡을 모아 명나라 군대를 도우며 여러 군무를 주선했다고 한다.<sup>57</sup> 그의 행동이 조정에도 알려져 선조가 그에게 군사감 참봉직을 제수하기도 했는데,<sup>58</sup> 흥미로운 점은 당시 태색이 ‘명군에게’ 병량미를 지원했다는 사실이다. 명나라 장수 유정(劉綎)은 병량미 지원에 감사하며 옥으로 만든 촛대(玉燭臺)와 대모반(玳瑁盤)을 태색에게 상으로 주기도 하였다.<sup>59</sup>

명나라 사천총병(四川總兵) 유정(劉綎)이 소모병(召募兵) 5,000명을 이끌고 조선에 입성한 것은 임진년 이듬해인 1593년 5월 1일(갑인)이다. 그가 조선에 와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은 경상도 성주(星州)였고,<sup>60</sup> 일본과의 강화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경상도 등지(대구·합천·상주)에 주둔하였다.<sup>61</sup> 그는 명 조정의 철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남원에서 3개월을 지체하며 형세를 관망하였고,<sup>62</sup> 이듬

56 『龍城誌』 권6, 人物中, 孝子·新增, 太槁조 참조.

57 『湖南節義錄』 권2, 下, 임진왜란 때의 의적(壬辰義蹟), 한 도에서 거의한 제공의 사실(一道學義諸公事實), 太槁조 참조.

58 『龍城誌』는 태색이 명나라 군사에게 병량미를 지원한 시점을 정유년 때의 일로 기록했지만, 『湖南節義錄』은 기사의 서술 순서로 보아 임진년 때의 일로 본 듯하다.

59 『湖南節義錄』 권2, 下, 임진왜란 때의 의적(壬辰義蹟), 한 도에서 거의한 제공의 사실(一道學義諸公事實), 太槁조 참조.

60 『宣祖修正實錄』 권27, 선조 26년(1593) 5월 1일(갑인) 기사.

61 『宣祖實錄』 권40, 선조 26년(1593) 7월 10일(임술) 기사; 『宣祖實錄』 권41, 선조 26년(1593) 8월 1일(임오) 기사; 『宣祖實錄』 권42, 선조 26년(1593) 9월 6일(정사) 기사 참조.

62 『宣祖實錄』 권51, 선조 27년(1594) 5월 15일(임진) 기사.

해인 1594년 9월에서야 본국으로 돌아갔다.<sup>63</sup> 그러나 전쟁이 재발(정유재란)하자 유정은 1598년 5월 16일(경자)에 의주에 도착하였고,<sup>64</sup> 6월 18일(신미)에 선조가 모화관에 나아가 그를 맞이하였다.<sup>65</sup> 유정은 정유재란 때에도 남원에 잠시 머물렀지만[1598년 9월 7일(기축)],<sup>66</sup> 9월 20일 예교(曳橋; 현 순천)로 이동하여 일본군과 교전하였다.<sup>67</sup>

이렇듯 유정이 남원에 머물렀던 시점은 임진왜란 당시인 1594년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로 추정되며, 태색의 병량미 제공도 이때 이뤄졌을 것이다.<sup>68</sup> 이 병량미 제공도 태색 개인의 후원이었다기보다는 협계태씨 일가의 후원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겠다. 당시 조선은 대기근(1593~1594: 이른바 계갑대기근)에 시달렸기에,<sup>69</sup> 조선군과 명군은 물론 의병 모두 군량 부족사태를 겪고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 이뤄진 군량미 지원이었기에 그 의미도 컸던 것이라 생각된다.<sup>70</sup>

63 『宣祖實錄』 권55, 선조 27년(1594) 9월 11일(병술) 기사.

64 『宣祖實錄』 권100, 선조 31년(1598) 5월 16일(경자) 기사.

65 『宣祖實錄』 권101, 선조 31년(1598) 6월 18일(신미) 기사.

66 『宣祖實錄』 권104, 선조 31년(1598) 9월 7일(기축) 기사.

67 『宣祖實錄』 권104, 선조 31년(1598) 9월 24일(병오) 기사.

68 이 기록과 관련하여 현재 추정되는 시기와 가장 가까운 자료는 협계태씨의 가승 자료인 『陝溪譜』이다. 가계의 족보는 1593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69 1593~1594년의 계갑대기근에 관한 연구로는 김성우, 2020, 「임진왜란과 1593~1594년 계갑대기근-경상도 성주 도세순 집안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88, 한국사연구회 참조.

70 조선군의 불안정한 식량 사정은 이순신의 『난중일기』에서만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1594년 김덕령이 호남 의병을 이끌던 시기에도 가장 큰 어려움은 군량을 조달하는 문제였다. 이에 대해서는 하태규, 2008, 「임란기 호남지역 의병운동의 추이」, 『전북사학』 32, 58쪽 참조.

## 2. 정유재란기 협계태씨 발해인들의 활동

조·명 연합군과 일본군이 협상에 돌입하면서 전쟁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일본군의 무리한 요구에 협상은 좀체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다.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조·명 연합군이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전라도와 충청도가 아직 온전했던 상황에서 찾은 것으로 보이며,<sup>71</sup> 일본군이 재침하여 전라도와 충청도를 겨냥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남원은 하필 두 곳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었던바, 일본의 정유년 재침 당시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조정이 남원 방어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sup>72</sup> 정작 병력은 매우 미흡하게 배치했던 탓이었다.<sup>73</sup>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이끄는 제1군이 1597년 1월 14일 울산의 서생포(西生浦)에 상륙한 후<sup>74</sup> 일본군은 호남에 화력을 집중하였고, 호남 보루의 최전선인 남원성은 힘없이 무너졌다.<sup>75</sup> 조·명 연합군이 전열을 정비하고 반격을 본격화한 9월 하순에 이르러서야 전세가 일부 역전되면서 일본군이 전라도와 경상도 남부지역으로 퇴각하기 시작하였다.<sup>76</sup> 이처럼 정유재란 초기 일본군의

71 『宣祖實錄』 권89, 선조 30년(1597) 6월 14일(계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유년 재침 목적과 호남지역 의병에 대해서는 조원래, 2003, 앞의 책, 298~325쪽 참조.

72 남원성 전투 이전 조정에 전달된 경상우병사 김응서(金應瑞)의 계문(啓文), 조신(朝臣) 회의에서의 선조의 발언, 어전회의에서의 유성룡(柳成龍)의 발언, 그리고 사헌부(司憲府)의 발언 등을 보면 조정관료들이 남원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원래, 2003, 위의 책, 301~305쪽 참조.

73 남원성 전투를 앞둔 조·명 연합군의 현실 인식과 병력 배치에 대해서는 李炯錫, 1974, 앞의 책, 945~949쪽 참조; 박순우, 2021, 앞의 글, 5~8쪽 참조.

74 정유재란 발발부터 이듬해인 1597년 11월 24일부터 일본군이 부산에서 퇴각하기까지의 상황, 그리고 일본군의 호남 공격과 조·명 연합군의 반격에 대해서는 김동수, 2007, 앞의 글, 31~36쪽 참조.

75 일본군에 의해 남원과 전주성이 점령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하태규, 1999, 앞의 글, 104~107쪽 참조.

76 조·명 연합군의 반격과 일본군의 퇴각 시점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차이가 있어, 여러 지역에서 일본군이 철병한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긴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화력이 호남을 유린하던 당시, 남원 일대에서 세전해온 협계태씨 발해인들의 행적을 통해 보통 사람들의 분투(奮鬪)를 확인해보도록 하자.

① 태구(太媯)-태시경(太時慶) 부자

남원의 협계태씨 발해인들은 임진년 전쟁뿐 아니라 정유왜란 시기에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였다. 그들의 행적은 임진왜란사 및 지역사 연구자들에 의해 비교적 일찍부터 조명되었다.<sup>77</sup>

태구(太媯)는 협계태씨 중파 태맹인의 증손자였다. 생년은 미상이며 정유년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하였다.<sup>78</sup> 그의 행적과 관련하여 『호남절의록』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전하는데,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았으며, 임진왜란 이듬해에는 아들 태시경(太時慶), 동족(同族) 태귀생(太貴生)과 함께 창의(唱義)하여 병량미를 모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정유년 재침 때에는 전라병사 이복남의 종사관으로 활동하다 남원성이 함락될 때 적군의 포로가 되었다. 이때 “왜군의 적장(倭酋)”이 그를 회유하자 ‘나는 동방의 충의지사(忠義之士)이며, 죽을지언정 어찌 추악한 무리를 따르겠는가?’라며 소리쳤고, 왜군이 그의 양쪽 귀를 잘랐으며, 마침내 성중에서 순절하였다. 후에 참봉으로 증직되었고, 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되었다.<sup>79</sup>

태구의 아들 태시경(太時慶) 역시 임진년 이듬해에 집안 어른들과 모곡(募

---

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김동수, 2007, 앞의 글, 35쪽 각주 13번.

77 남원성 전투에 참여했다가 순절한 49명의 인사를 정리한 이희완의 연구에 협계태씨 발해인들도 정리되어 있다(이희완, 1983, 앞의 글, 74~75쪽 참조). 이후의 연구에서도 정유재란기 태구-태시경 부자와 태귀생-태천생 형제를 간략하게 다룬 바 있으며(하태규, 1999, 앞의 글, 114쪽), 김동수 역시 태구-태시경 부자와 태귀생-태천생 형제를 언급한 바 있다(김동수, 2007, 위의 글, 64~65쪽 참조).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이들이 남원성 전투에 참여한 사실만 언급하는 데 그쳤다.

78 『陝溪太氏族譜』 권1, 宗派조 참조.

79 『湖南節義錄』 권3上, 壬辰義蹟, 李兵使福男同殉諸公事實, 太媯 조 참조; 『陝溪太氏族譜』 권1, 「南原八忠事實」, 太媯 조 참조.

穀) 활동을 펼쳤고, 정유년에는 남원성 전투에 참여하였다. 그의 생년은 미상이며, 정유왜란 때 남원성 전투에서 남원부 별감을 지낸 의사(義士) 오흥업(吳興業)과 함께 남원성을 수비하였다.<sup>80</sup> 전투 중 아버지 태구가 왜군에게 살해당하자 복수를 맹세하고 남원성이 함락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다 마침내 순절하였다.<sup>81</sup> 사후에 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되었다.

## ② 태귀생(太貴生)-태천생(太賤生) 형제

태귀생과 태천생은 임진년 이듬해 일가가 병량미 300곡을 모을 때 함께 하였다. 이들은 왜군의 정유년 재침 때에도 분연히 일어나 동족과 함께 남원성에 들어와 최후의 일전을 준비했고 마침내 순절하였다.

태귀생의 생년은 미상이며,<sup>82</sup> 남원성이 함락되던 1597년 8월 16일 순절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1555년(명종 10)에 무과에 급제하고 주부(主簿)를 지냈으며, 정유년 재침 때<sup>83</sup> 서제(庶弟) 태천생과 남원성 전투에 참여하였다. 수문장(守門將)을 지낸 아버지 태윤민(太潤民)의 영향으로 태귀생 역시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였고, 특히 담력이 좋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태귀생의 행적은 두 본(本)의 족보에도 전하지만 『호남절의록』에 자세한 내용이 남아 있다. 일찍이 임진왜란 이듬해에 서제(庶弟) 태천생, 아들 태상문(太

80 『湖南節義錄』 권3上, 壬辰義蹟, 李兵使福男同殉諸公事實, 太時慶조 참조.

81 『陝溪太氏族譜』 권1, 宗派조 참조.

82 태귀생의 생년 기록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오기가 확인된다. 족보 1928年刊에는 그의 생년이 ‘成宗壬寅三月三日生’, 즉 1482년 3월 3일로 기록되어 있다. 반면 1856年刊 족보에는 그가 嘉靖(명나라 세종의 연호) 을묘(1555)에 무과에 급제하고 주부에 제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1928년本의 족보에 따르면 태귀생의 卒年이 1597년이므로, 그가 115년을 살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115년을 살았다는 것도 믿기 어렵지만, 115세의 나이로 전투 중 순절했다는 것은 더욱 믿기 어렵다.

83 두 本의 족보는 그가 임진왜란 때 庶弟 賤生과 같은 날 순절했다고 기록하였다. 『湖南節義錄』은 이 사실을 ‘壬辰義蹟’조에 함께 기록했지만, 내용은 임진년과 정유년 시기로 나누어 서술되어 있다. 즉, 태귀생-태천생 형제는 정유 재침 때 남원성이 함락되던 날 순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尙文)과 창의하여 병량미를 모았고, 정유년에 전쟁이 재발하자 ‘중족 수십 명과 가동(家僮) 수백 명’을 거느리고 남원성에 들어와 병사 이복남과 함께 최후의 전투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sup>84</sup>

남원성 전투 중 탄환에 맞아 죽었는데,<sup>85</sup> 태귀생의 죽음을 전해 들은 황계 이대유와 전 목사(牧使) 만현 정염(丁焰)이 탄식하였다고 죽보는 전하고 있다.<sup>86</sup>

태친생의 생년은 1552년(명종 7)이며, 형 태귀생처럼 일찍부터 궁마(弓馬)를 익혔다고 한다. 그 역시 임진년 전쟁은 물론 정유 재침 때에도 동족 인사들과 함께 기의하여 싸우다가, 남원성이 함락될 때(1597년 8월 16일) 적에게 살해되었다.<sup>87</sup>

#### IV. 맺음말: 조선시대 발해인들의 전쟁기 활동의 의미

이상에서 임진왜란기 대씨와 태씨들의 행적을 『난중일기』와 『호남절의록』, 『용성지』, 『협계태씨족보』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발해인들에 대한 연구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뜻밖에도 임진왜란기 전후 자료에서 여러 대씨·태씨들이 포착되어 반가운 마음에 검토에 착수했던 것인데, 부유한 향촌 인

84 『湖南節義錄』에는 정유왜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 참여한 가문별 의병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의 성격상 약간의 과장이 가미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남원성 전투에 참여한 가문 중 협계태씨 가문의 참여 인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호남절의록』이 기록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85 『湖南節義錄』 권3上, 壬辰義蹟, 李兵使福男同殉諸公事實, 太貴生조 참조.

86 『陝溪太氏族譜』 권1, 朱村派 太貴生조 참조. 『湖南節義錄』에는 태귀생이 ‘병사(兵使) 이공(李公; 전라병사 이복남)과 함께 힘을 다해 적을 막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만현 정염은 임진년 시기에는 남원의 향읍을 지킨 수장으로 활동하였다(趙慶男, 『亂中雜錄』 권1, 壬辰年 6월 23일; 조원래, 2003, 앞의 책, 10~11쪽 참조). 이러한 활동 경력으로 볼 때 누구보다 남원에서 세전해온 협계태씨 일가의 구국 활동을 잘 알고 있었기에 태귀생의 죽음을 듣고 탄식한 것일 테다.

87 『湖南節義錄』 권3上, 壬辰義蹟, 李兵使福男同殉諸公事實, 太賤生조 참조.

사, 의병장, 장교, 장인, 노비 등 다채로운 모습이 확인되었다.

우선 『난중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았다. 대방과 대남은 공장(또는 궁전장), 태귀련(태구련)은 이순신의 장검을 제작한 도검 장인, 그리고 태귀생(貴)은 군관으로 등장하며, 이들의 경우 양인으로 짐작된다. 반면 신분이 노비로 기록된 태수와 태문 또한 이순신의 군영에서 활동했는데, 태수는 귀선(龜船)의 격군으로 활동했고, 태문은 이순신의 심부름을 담당했던 인물로 확인된다. 대부분 전문 기술을 보유했거나 이순신을 지근거리에서 섬겼던 인물들로, 그러한 행적으로 인해 『난중일기』에도 그 존재를 남기게 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선시대 발해인으로서의 그 존재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양인·천민 신분의 ‘기층 발해인’들에 해당한다.

한편, 『호남절의록』, 『용성지』, 『협계태씨족보』에 등장하는 남원지역 협계 태씨 발해인들의 경우, 기층 민중이라기보다 현달한 가문의 구성원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가문의 재화와 가세를 동원하여, 다량의 미곡을 전투병들에 제공하거나 대규모 거병을 주도하였다. 태색의 경우 전자의 사례라면, 태구-태시경 부자와 태귀생-태천생 형제는 후자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난중일기』에 등장하는 발해인들과는 다른 ‘상층 발해인’들이자 향촌사회의 일원으로서 국난극복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경우에 해당한다.

국난의 시기에 여러 발해인 태씨·태씨들이 보여준 이러한 행적들의 역사적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발해인으로서의 출자의식과 정체성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활동을 하게 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의 활동은 여느 조선인이면 당연히 취했을 행동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활동 사례들이 그 자체로 특수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전쟁 상황에서 향촌가문 출신이든 기층민 출신이든 많은 조선인이 활약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방식은 서로 달랐음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다.

특히 『난중일기』에 등장하는 발해인들의 경우, 평상시나 일상적 상황에서는 사적에 남지 못했을 기층 민중들이 전시(戰時)를 배경으로 한 기록들에 등장한 경우이자, 조선시대 발해인들이 현달한 가문의 구성원은 물론, 나름의 기술

을 가진 양인 및 기층 천인으로도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그간의 조선시대 발해인 연구에서 주로 중·상위급 사회적 위상을 갖춘 이들에 주목해왔다면, 전시 상황의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 발해인들이 다양한 신분·계층에 걸쳐 존재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고려 초에는 별다른 내부 구분 없이 모두가 발해 왕성 출신의 후손들이었을 발해인들이, 조선 중기에 이르러 사족의 신분을 유지한 경우, 일반 양인으로 기술을 익힌 경우, 그리고 장군의 노비(奴)로서 군영에서도 그를 섬긴 경우 등 다양한 존재양상을 보이게 된 연유는 무엇일까? 오랜 세월 한반도에서 살아온 발해인들이 조선의 다른 이들과는 결이 다른 의식과 정체성을 보유한 채 대씨와 태씨로 분화하는 한편으로,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양인의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천인의 신분으로 전락하는 경우 등 다른 조선인들과 다를 바 없는 다양한 처지에 놓인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 대씨·태씨들 역시, 천인이든 양인이든, 발해인이자 동시에 조선인으로서 국난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다. 한편에서는 병량을 제공하고 의병을 지휘하는 향촌의 지식인으로 활약했다면, 한편에서는 전쟁 도구를 제작하는 장인 또는 장군을 보좌하는 일꾼으로 활약했던 것이다. 그 행적들이 이순신 장군을 비롯해 해전사에 등장하는 고위관료와 무신들의 그것에는 못 미치는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이들 역시 당시 조선의 승전을 뒷받침했던 숨은 공로자들이었음은 분명하다. 사회 제 계층의 노력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당연한 깨달음을 이들 발해인의 사례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 참고문헌

### 자료

『亂中日記』, 『陝溪太氏族譜』(1856·1928년간), 『湖南節義錄』, 『龍城誌』,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亂中雜錄』.

### 단행본

김동수 校勘·譯註, 2010, 『(교감·역주) 호남절의록』, 경인문화사.  
남원문화원, 『용성지』(1752年刊); 오병무 외 譯, 1995, 『용성지』, 남원문화원·대흥기획.  
노승석 역주, 2021, 『(신완역) 亂中日記校註本』, 여해.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2014, 『거레를 살린 두 자루 칼\_충무공 장검』, 가삼기획.  
박옥걸, 1996, 『고려시대의 귀화인 연구』, 국학자료원.  
李炯錫, 1974, 『壬辰戰亂史』, 新現實社.  
이효형, 2007, 『발해 유민사 연구』, 해안.  
조원래, 2003, 『임진왜란과 湖南地方의 義兵抗爭』, 아세아문화사.  
한규철, 2005, 『발해의 대외관계사』, 신서원.

### 논문

김동수, 2007, 「정유재란기 호남지역 의병의 향토방위전 사례 검토」, 『역사학연구』 30, 호남사학회.  
김동수, 2011, 「호남절의록의 사료가치 검토(1)」, 『역사학연구』 44, 호남사학회.  
김성우, 2020, 「임진왜란과 1593~1594년 계갑대기근-경상도 성주 도세순 집안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88, 한국사연구회.  
김영숙, 1992, 「이충무공 막하인물 분석」, 『충무공 이순신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노기춘, 2009, 「호남절의록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4, 한국서지학회.  
박순우, 2017, 「10~14세기 ‘渤海人’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20, 「고려 후기 발해인 세거(世居) 사례와 조선시대 ‘발해인(渤海人)’ 연구 시론-‘족당(族黨)’의 용례와 남원지역 협계태씨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62, 한국중세사학회.
- \_\_\_\_\_, 2021, 「조선 선조대 임진~정유년 시기 남원지역 발해인의 활동 연구», 『전북학연구』 4집, 전북연구원.
- \_\_\_\_\_, 2022a, 「조선전기 ‘발해인’의 사회적 동향-남원지역 협계태씨 태응진 가계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9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_\_\_\_\_, 2022b, 「‘발해유민’인가 ‘발해인’인가?», 『역사비평』 140호.
- 이희환, 1983, 「정유재란시의 남원성전투에 대하여», 『전북사학』 7, 전북대사학회.
- 정영태, 2014, 「정유재란시 남원성전투와 만인의충», 『역사학연구』 56, 호남사학회.
- 조원래, 2006, 「임진왜란사 연구의 추이와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비평사.
- 하태규, 1989, 「임란기에 있어서 전북인의 창의활동-『호남절의록』의 분석을 중심으로-», 『전라문화논총』 3,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 \_\_\_\_\_, 1999, 「정유재란기 전라도 지방의 의병활동에 대하여», 『한일관계사연구』 10, 한일관계사연구회.
- \_\_\_\_\_, 2015, 「임란 호남의병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 『역사학연구』 59, 호남사학회.
- 황병성, 2012, 「정유재란기 이순신의 전략과 의병막하인물», 『역사학연구』 46, 호남사학회.

朝鮮總督府 編, 1934, 『朝鮮の姓』, 東京: 國書刊行會.

## 임진왜란기 대씨·태씨(조선시대 발해인)들의 활동 연구

— 『난중일기(亂中日記)』와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을 중심으로 —

박순우

이 글에서는 조선 선조대 임진~정유재란기를 배경으로, 발해인 대씨·태씨들이 보였던 활동을 재구성해보았다. 먼저 『난중일기』의 기록에 등장하는 대씨와 태씨들을 검토했으며, 이들이 이순신 장군의 군영에서 장교, 전문기술자, 군인, 심부름꾼 등으로 활동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호남절의록』에 기록된 전쟁기 남원지역 협계태씨 발해인들의 활약도 검토했는데, 병량을 모아 조선을 도우러 온 명군에 제공하거나, 대규모 의병을 조직해 남원성 방어에 목숨을 바친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이들 사례를 통해 조선시대 발해인들이 향촌 가계 구성원, 군인과 기술자 등의 양인, 그리고 천인 노비 등 다양한 신분·계층에 존재했음을 엿볼 수 있는 한편, 독특한 출자의식과 정체성을 가졌지만 국적상으로는 엄연히 조선인이었던 그들의 사례를 통해, 국난기 조선인들이 사회 상·하층을 막론하고 모두 그 극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왜란기 대씨(大氏)와 태씨(太氏), 『난중일기(亂中日記)』,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 남원의 협계태씨(陝溪太氏)

## ABSTRACT

# Study of the *Joseon Balhae* People(The *Dae* and *Tae* Figures), and Their Actions during the War with the Japanese: Examination of *Nanjung Ilgi* (『亂中日記』) and *Honam Jeol'eui-rok* (『湖南節義錄』)

Park Soonwoo

Examined in this article are the actions of individuals with the last name Dae or Tae. Analyzed in particular are certain actions of theirs displayed during the *Imjin Wae'ran* and *Jeong'yu Jae'ran* period, during which Joseon had to fight the invading Japanese army for seven straight years.

First examined were the Dae and Tae figures recorded in *Nanjung Ilgi* (『亂中日記』, *Wartime Journals*). The record reveals that several Balhae individuals played diverse roles during wartime, such as those of military officers, technicians with certain skills, soldiers and spies, and simple servants.

Then, the actions of members of the Nam'weon region-based Hyeobgye Tae house, recorded in *Honam Jeol'eui-rok* (『湖南節義錄』,

*Records of Honorable Figures in the Honam Region*), was also examined. We can see that they managed to secure vast amount of grains to be provided to the Chinese Ming troops who came to aid Joseon's war effort, and that they even organized a large Righteous army and gave their lives in the struggle to defend the Namweon fortress.

All these examples show us that the Balhae people in the Joseon period existed in various social classes, ranging from influential local beings to commoner-turned soldiers and technicians and even to lowborn servants. And as a group of people who harbored slightly different identity and consciousness due to their Balhae heritage, but still existed as part of the Joseon population, their example shows us that in Joseon, all people, despite their different social status, together endeavored to overcome a dynastic crisis that was the Japanese invasion.

**Keywords:** *Dae*(大氏) and *Tae*(太氏) figures' actions during Joseon's war with the Japanese in the 1590s(壬辰倭亂·丁酉再亂), *Nanjung Ilgi* (『亂中日記』, *Wartime Journals*), *Honam Jeol'eui-rok* (『湖南節義錄』, *Records of Honorable Figures in the Honam Region*), *Hyeobgye Tae House*(陝溪太氏) in the Namweon area

# 식민지기 지방사 편찬을 통해 본 지방 구현과 식민주의 역사학의 전개

— 『평안북도사(平安北道史)』(1938)를 중심으로

정상우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문사회교양학부 부교수

- I. 머리말
- II. 『평안북도사』 이전 평안북도의 지방사들
- III. 『평안북도사』의 등장과 그 특징
- IV. 맺음말



## I. 머리말

조선시대 이래로 중앙에서 통치에 필요한 지방의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 또는 지방사회의 주도층들이 교화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위상을 재고하기 위해 지지(地誌), 읍지(邑誌) 등을 작성했음은 잘 알려져 있으며, 현재도 지방사지류가 편찬되고 있다. 이처럼 오래된 지방사지류 편찬의 역사에서 조선시대와 해방 사이, 일제강점기 역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시에 도 지방 관청이나 지역민 등이 다양한 지방사지류를 간행했기 때문이다. 당시에 나온 지방사지류에 대해서는 이미 몇 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sup>1</sup> 이들 연구는 이른바 ‘식민사학’ 대 ‘민족사학’이라는 대립 구도에 입각해 당시 지방청이나 거류일본인들은 통치와 수탈에 필요한 지방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반면 지방 유림으로 대변되는 조선인들은 과거 읍지 편찬의 전통을 계승, 민족 보존의 차원에서 이를 편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외세의 침략과 지배는 19세기 말 이래 한국사를 관통하는 특징이다. 당시 일본인 역사가들은 그 합리화를 위해 한국사의 특징을 ‘정체’와 ‘타율’로 꼽으며 침략과 식민통치에 봉사했다고 정리되었으며,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과거 제국 일본의 상황은 고정적이지 않았다. 특히 1930년대 들어 대륙 침략의 본격화에 따라 식민지 조선은 ‘병참’으로 인식되고, 이를 위한 각종 정책이 시행되는 한편에서 일본인 역사가들은 한국사 연구 전반에 대해 정리하고 새

\* 투고: 2023년 1월 15일, 심사 완료: 2023년 2월 6일, 게재 확정: 2023년 2월 13일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8044597).

1 양보경·김경란, 2001, 「일제 식민지 강점기 邑誌의 편찬과 그 특징」, 『응용지리』 22; 최혜주, 2011, 「일제강점기 재조일본인의 지방사 편찬 활동과 조선 인식」, 『사학연구』 103.

로운 전망을 제시하고자 통사적 접근을 시도했다.<sup>2</sup> 한편, 일제의 침략과 지배는 ‘근대’의 모습을 띠었기 때문에 ‘침략’, ‘지배’와 더불어 ‘근대’는 식민지기를 이해하는 주요한 키워드 중 하나이다. 그런데 후발 국가로서 근대화와 제국주의화가 동시적으로 진행된 일본사의 전개 과정은 학문의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즉, 19세기 말에서 해방 이전까지 전개된 일본인 연구자들의 역사 연구(이하 ‘식민주의 역사학’)는 일본의 대륙침략과 일본에서 근대 역사학의 성립·확산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동시적으로 규정된다. 더군다나 1930년대는 제국 일본이 조선에 설치한 근대 학문·역사학의 전개에 필요한 학술기구들-경성제국대학, 공문서관으로서 조선사편수회(이하 ‘편수회’), 청구학회(靑丘學會) 등과 같은 학회-이 그 성과물들을 본격적으로 제출하던 시기로,<sup>3</sup> 이는 대륙침략과 더불어 일본인 연구자들의 한국사 연구에 변화를 추동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지방사 편찬의 성격을 고찰하는 데에도 이러한 측면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지방’은 ‘중앙’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자 용어이다. 특히 중앙집권의 전통이 긴 한국의 경우 지방의 자율성은 중앙에 의존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근대적 행정체계를 도입하여 통치가 이루어진 식민지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식민지기 지방사 편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중앙의 역사편찬 사업, 바로 편수회의 작업과 그 결과물인 『조선사(朝鮮史)』와의 관련성 역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편수회는 역사 서술이 아닌 사료의 수집·정리·간행에 주력했으며, 『조선사』 역시 사료집 혹은 색인집 성격의 책자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편수회의 작업은 근대 역사학이 요구하는 ‘실증’을 담보해주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이 작업은 한국사를 한민족의 역사가 아닌 제국 일본의 지방사로 전락시

2 정상우, 2017, 「일제 하 일본인 학자들의 한국사에 대한 通史的 이해-1930년대 중반의 저작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04.

3 경성제대 학부 개설은 1924년이지만 첫 졸업생이 배출된 것은 1929년이었다. 또 편수회의 작업 결과물인 『朝鮮史』는 1930년대 들어 발간이 시작되었으며, 역사 대중화 위주의 학회가 아닌 전문 역사가의 연구발표의 장이었던 靑丘學會가 결성되고, 학회지 『靑丘學叢』 1호는 1930년에 발간되었다.

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논의를 고려해볼 때<sup>4</sup> 당시 지방사 편찬, 특히 식민권력을 대변하는 지방청에서 발간한 지방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식민주의 역사학의 중추라고 이야기되는 편수회 작업의 성격과 의미 역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1938년에 발간된 『평안북도사(平安北道史)』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를 중심으로 평안북도 지방사지류의 변천은 물론 식민주의 역사학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점 이후에도 이 지역에서는 유림들에 의해 전통적인 형태의 군지(郡誌)가 발간되는 한편 거류일본인 또는 평안북도청(平安北道廳) 등에 의해 지방사지류가 꾸준히 간행되었다. 그런데 1930년대 들어 거류일본인이나 평안북도청에서 세 차례나 지방사지를 발간했다. 즉, 일제의 대륙침략이 본격화된 이후 평북지역의 지방사 편찬은 빈번해졌으며, 중일전쟁 발발 1년 후인 1938년 7월에 완성된 『평안북도사』는 그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었다. 한편, 당시 중앙사 편찬이라고 할 수 있는 편수회의 『조선사』 발간이 끝난 것은 『평안북도사』가 발간되기 불과 4개월 직전인 1938년 3월로, 『평안북도사』는 편수회의 『조선사』 완간 이후 처음 편찬된 지방사였다. 이와 더불어 『평안북도사』의 편찬자가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였던 점은 특히 눈길을 끈다. 식민지기에 활동한 일본인 역사가 중 한국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유일한 연구자로서 근대 역사학의 학적 권위를 체현한 이나바는<sup>5</sup> 대표적인 만선사학자로 알려져 있다. 이른 시기부터 한반도의 북방인 함경도와 평안도는 만주의 색채가 강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이나바가 『평안북도사』를 편찬했다는 것은 만선사의 관점에서 한국의 북부 지방의 역사가 어떻게 정리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대상이다. 더군다나 그는 1922년 『조선사』 편찬 사업의

4 정상우, 2018, 『조선총독부의 역사 편찬 사업과 조선사편수회』, 아연출판부, 263~292쪽.

5 稻葉(1932, 「光海君時代の滿鮮關係」)과 더불어 한국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은 「朝鮮古史の研究」로 박사학위를 취득한(1922) 今西龍으로, 둘 모두 교토제대에서 학위를 취득했다.

개시 이래 그 실무를 총괄하며 『조선사』 편찬을 위해 수집한 방대한 사료를 직접 정리해 고려·조선 시대의 상당 부분을 편찬한 연구자로, 편수회에 수집된 사료 현황에 가장 정통한 인물이었다.<sup>6</sup> 때문에 『평안북도사』는 중앙사와 지방사의 관계를 고찰함에도 주목된다. 즉, 『평안북도사』는 일본의 대륙침략, 식민주의 역사학의 주요 담론 중 하나인 만선사, 근대 역사학과 그 유지·확산에 필요한 학술기구 등이 교차하는 책이라 하겠다. 따라서 『평안북도사』를 중심으로 식민지기 평안북도 지역의 지방사지류를 검토하는 것은 평북의 지방사 편찬 경과만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으로의 학술기구의 이식, 일제의 대륙침략 전개 등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식민주의 역사학의 변화상을 살펴보는 데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평안북도사』와 그 이전 평안북도 지역의 지방사지류의 차이점, 『조선사』와의 관련성 등에 유의하여 평안북도의 역사적 특성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식민주의 역사학이 근대 역사학의 성격이 강해지고, 대륙침략이라는 상황과 조우하게 됨에 따라 식민지 조선의 역사가 어떻게 형해화되었는지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 II. 『평안북도사』 이전 평안북도의 지방사들

### 1. 조선시대 이래 식민지기 편찬된 지지, 읍지들

평안북도가 하나의 공식적인 행정구역으로서 등장한 것은 아관파천 이후 13도제를 시행하면서였으며,<sup>7</sup> 이후 식민지기까지 대체로 이때 구획된 평북의 영역은 유지되었다. 물론 전국을 8도로 나누었던 조선시대에 공식적인 행정구역으

6 정상우, 2018, 앞의 책, 227~268쪽.

7 『高宗實錄』 34卷, 高宗 33年 8月 4日.

로 평안북도도 없었지만, ‘청북’이라 불렸던 청천강 이북 지역은 대체로 평안북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이 보여주듯이 조선왕조는 개국 이래 통치를 위해 각지의 현황과 정보를 수집·정리했으며, 이들 지지에는 평안도 각지에 대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관찬 지지만이 아니라 1590년 윤두수(尹斗壽)의 『평양지(平壤誌)』 편찬 이래 평안도 지역에서도 사찬읍지가 등장했다.<sup>8</sup> 특히 조선 후기 들어 평안도를 통한 대외무역의 증가와 농업경제의 성장에 따라 평안도 각지의 유림들은 자신들의 지역에 대한 읍지를 편찬했는데,<sup>9</sup> 영조대 이후로는 청북의 군현에서도 다수의 읍지를 간행했다고 한다.<sup>10</sup>

조선시대 편찬된 지지·읍지들은 편찬 주체와 군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혁, 진관(鎭管), 풍속, 산천, 성곽, 봉수, 누정(樓亭), 학교, 역원(驛院), 명환(名宦), 효자, 제영(題詠) 등의 항목에 따라 군현의 사정을 정리했다. 왕조 서북단으로 중국, 여진과 접한 청북지역은 국방상 중요한 곳이었다. 이는 조선 전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잘 드러난다. 청북의 군현들에 대해서는 누정, 학교, 명환, 제영 등 성리학적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항목은 간략하거나 생략되기도 한 데 반하여 산천, 역원, 봉수 등의 사항들은 상대적으로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sup>11</sup> 이처럼 다른 항목에 비해 지리나 국방 관련 항목이 자세한 것은 조선 후기에 간행된 『여지도서』도 비슷하다.<sup>12</sup> 이는 조선시대 중앙정부에서 이

---

8 慎鏞廈, 1986, 「平安道邑誌 解題」, 『邑誌』 14,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3쪽.  
9 李泰鎭, 1990, 「平安道篇 解題」, 『朝鮮時代私撰邑誌』 48, 韓國人文科學院, 2쪽.  
10 河明竣, 2016, 「朝鮮後期~近代改革期 平安道の 政治·文物 伸長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4~75쪽.  
11 新增東國輿地勝覽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제공하는 판본(<https://db.itkc.or.kr>)에 근거해 서술했다.  
12 輿地圖書에는 淸北지역에 대해 旱田, 水田, 糶糴, 大同 등 농업경제 관련 항목이 추가된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국방 관련 사항은 모든 지역에 빠지지 않고 그 분량도 많다(輿地圖書는 문용식 외 譯註, 2009, 『輿地圖書』 23~26, 디자인 흐름에

지역에 어떠한 가치를 두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런데 18세기 이래 청북 각지에서 발간된 사찬읍지의 경우 그 강조점이 달랐다. 물론 국경 지역으로서 국방 관련 항목은 빠지지 않았지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학교, 충효, 사환 등 성리학적 가치와 입사 관련 항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sup>13</sup> 이러한 양상은 평안도에 대한 조선왕조의 인식 및 성리학적 가치의 확산에 따른 평안도, 특히 청북 지역민들의 대응과 자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조선왕조 당시 평안도는 성리학적 교화가 약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평안도민은 조선 후기까지도 관인 진출에 차별 대우를 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정부에서는 국경 지역으로서 국방이나 군사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지지를 작성한 것이다. 하지만 조선 후기 들어 평안도 지역의 경제적 성장 속에서 문과 급제자가 다수 배출되어 18세기 이래 8도 중 수위를 다뤘고, 그중 청북지역 급제자 수는 청남지역을 앞질렀다고 한다.<sup>14</sup> 18세기 이래 편찬된 청북 지역 읍지에 성리학적 가치와 입사 관련 사항이 자세히 기록된 것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조선 후기 평안도 지역의 사회경제적 성장과 함께 문풍이 확산되면서 왕조가 추구하는 성리학적 가치와 관련된 사항들이 대거 추가되고, 청북지역 읍지들은 군사적 요충으로서만이 아니라 성리학적 가치가 현현한 지역으로서의 특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읍지 편찬은 강점 이후에도 지속되어 평북 구성군(龜城郡)과 영변군(寧邊郡)에서는 각각 1911년과 1944년에 『구성군지』와 『영변지』를 간행했다. 지역 유림들이 주도하고 해당 군수의 협조 속에서 발간된 이들 읍지 역시 충절·효행, 명환, 명사 등과 같이 성리학적 가치를 드러내는 사항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군의 읍지는 각각 강점 직후와 식민지배 후반이라

---

근거했다).

13 여기서는 『朝鮮時代私撰邑誌』(1990, 韓國人文科學院)에 수록된 淸北지역 읍지를 근거로 했다.

14 평안도 지역의 문과 급제자 수에 대해서는 河明竣, 앞의 글, 65~69쪽을 참고했다.

는 서로 다른 시대적 맥락에 위치해 있다. 군수 김용래(金用來)와 유림들의 주도 하에 1911년에 완성된 『구성군지』는 지역민들의 ‘의연금’으로 학교를 설립한 직후 편찬된 것으로, 편찬자들은 읍지를 ‘일향(一鄕) 민족공동역사’라 평가했다.<sup>15</sup> 또 읍지 편찬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춘수(李春秀), 김응한(金應漢) 등은 1908년 이후 서북학회에 가입하여 구성지회의 임원으로 활동했던 것이 확인된다.<sup>16</sup>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구성군지』는 성리학적 가치의 실현을 통한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편찬된 것으로 추측된다. 지역 유림이 주도하고 해당 군수의 협조 속에 읍지가 간행된 것은 식민지배 후반에 발간된 『영변지』 역시 마찬가지였다.<sup>17</sup> 또 읍지의 편찬을 주도했던 차국원(車國轅), 지희전(池熙銓) 등 역시 강점 직전 서북학회에 가입했다.<sup>18</sup> 하지만 강점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총독부에서 하사하는 목배(木杯)를 받는다거나, 1920년대 중반 이후 평안북도평의회원을 역임하는 등 총독부 권력에 가까워졌다.<sup>19</sup>

잘 알려져 있듯이 조선총독부에서는 식민체제의 유지를 위해 유림 세력을 이용하려 했다. 특히 3·1운동 이후 대동사문회(大同斯文會) 등을 조직하여 독립에 대한 조선인들의 열망을 억누르려 했으며, 1930년대 대륙침략이 본격화된 이후 지역사회에서 인적·물적 수탈을 위해 유교 정신의 진흥을 내세워 지방 유림들의 협조를 요청했고, 일부 유림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이러한 시책

- 
- 15 『龜城郡誌』, 邑誌開刊辭(韓國人文科學院 編, 1991, 『韓國近代邑誌』 60, 2~5쪽). 당시 학교 설립을 위해 戶당 20錢을 거두었다고 밝히고 있다.
- 16 西北學會, 1908, 「會計員報告 第二十二號」, 『西北學會月報』 5, 33쪽; 西北學會, 1909, 「龜城郡支會任員氏名」, 『西北學會月報』 11, 52쪽.
- 17 일례로 『寧邊志』의 序를 당시 寧邊郡守였던 松下一晟이 썼다.
- 18 西北學會, 1908, 「會計員報告 第十九號」, 『西北學會月報』 2, 44쪽; 西北學會, 1908, 「會計員報告 第二十一號」, 『西北學會月報』 4, 38쪽; 西北學會, 1909, 「寧邊郡支會 改選任員氏名」, 『西北學會月報』 12, 53쪽.
- 19 池熙銓의 경우 1915년 공립학교에 물품을 기부한 대가로 총독부로부터 木杯를 하사받았고(『朝鮮總督府官報』 第996號, 3쪽), 車國轅은 1924년 平安北道評議會員으로 임명되었다(『朝鮮總督府官報』 第3491號, 4쪽).

에 협조했다고 한다.<sup>20</sup> 즉, 조선총독부는 유교 윤리·이념을 통해 민족주의나 사회주의와 같이 식민통치에 반하는 사상의 전파를 막고, 전쟁 수해를 위한 지역 사회의 안정을 도모했으며, 어떤 이유에서건 이에 호응했던 영변 지방의 유림들이 읍지를 편찬했던 것으로 보인다.<sup>21</sup>

## 2. 평북 거류일본인과 평안북도청에 의한 지방사지 편찬

이러한 한편에서 거류일본인과 평안북도청에 의한 지방사지도 등장했다. 여기서 주목하는 『평안북도사』(평안북도청) 이전 당시 거류일본인과 평북도청에서 발간한 지방사지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평북소개(平北紹介)』[평북도청, 1924], 『평북상류지방안내(平北上流地方案內)』[이노코 야스오(猪候耕夫), 1925], 『평안북도향토지(平安北道郷土誌)』[평안북도교육회, 1933], 『약진평북(躍進平北)』[고자코 신타로(子迫新太郎), 1937]의 4종이 있다.

가장 먼저 출간된 180여 쪽 분량의 『평북소개』는 평북의 역사에 대한 서술은 극히 적은 반면 호구, 교통, 통신, 행정, 교육, 각종 산업 등 당시 평북의 상황 전반을 소개하고 있다. 평북도청에서 이를 발간한 이유는 “본도(평안북도: 인용자)는 조선반도의 서북단에 치우쳐 있고, 기후는 한랭하며, 교통이 불편해 인문의 혜택이 박하다. 따라서 개발할 수 있는 유리(遺利)가 곳곳에 있지만, 산업이 떨치지 못하고, 민세도 오르지 못하여 … 벽추의 추운 곳이라고만 오인하여 부원이 있어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진실로 유감”<sup>22</sup>이라는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20 유준기, 2001, 「1910년대 전후 일제의 유림 친일화 정책과 유림계 대응」, 『韓國史研究』 114; 류미나, 2007,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유림정책」, 『역사와 현실』 63; 정옥재, 2016, 「1920년대 식민지 조선 유림과 일본의 湯島聖堂」, 『民族文化研究』 71.

21 이러한 양상은 大邱에서도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정상우, 2014, 「일제강점 말기 관찬 지방사에서의 지방 구현-『大邱府史』(1943)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45, 304~307쪽.

22 平安北道廳, 1924, 「緒言」, 『平北紹介』.

당시 부진한 평북의 산업 개발을 목적으로 지역 소개를 위한 것이었다. 때문에 『평북소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평북의 각종 산업과 경제 현황이었다.

이는 이듬해 간행된 『평북상류지방안내』도 마찬가지였다. 100여 쪽의 짧은 분량인 이 책자는 압록강 상류 지방의 7개 군(희천, 강계, 후창, 자성, 위원, 초산, 벽동)의 교통, 행정, 각종 산업 사정을 전하는 부분과 “국경지대여행안내”라고 명명된, 7개 군의 도로망, 교통기관, 여관이나 요정, 명물을 소개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특히 앞부분은 『평북소개』와 비슷하다.<sup>23</sup> 저자 이노코는 이 책을 저술한 이유를 “지방개발을 위해서는 지리, 인정과 부원 등을 소개해 자본가를 흡인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sup>24</sup> 이러한 구성과 저자의 발언을 통해 볼 때 이 책 역시 세간에 평북의 국경 지역을 소개하고, 여행객 유치를 위해 편찬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평북의 역사에 대한 서술은 매우 적다. 다만 책의 앞부분에 10여 쪽 정도로 “지방지”라는 부분을 두어, 책에서 다루는 7개 군의 지세와 해당 군의 명칭, 행정적 위상 변화를 정리하고 있을 뿐이다.<sup>25</sup> 『평북소개』에서는 이러한 서술조차 찾아볼 수 없으며, 평북의 주요 명승지를 소개하며 그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sup>26</sup> 이상을 통해 볼 때 1920년대 중반에 등장하기 시작한 평안북도청이나 거류일본인 편찬 지방사지

23 『平北上流地方案内』에서 압록강 상류 7개 군의 현황을 전하는 60여 쪽의 분량에서 農事, 工業, 鑛業 등 산업의 현황에 대한 부분이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4 猪候耕夫, 1925, 「序」, 『平北上流地方案内』, 國境通信社. 저자 猪候耕夫와 國境通信社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책의 판권지에 저자와 國境通信社의 주소가 平北 江界郡으로 되어 있고, 猪候가 “吾人은 朝鮮에서 수년간 操觚의 業에 종사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猪候는 國境通信社의 기자 혹은 이와 관계를 맺고 활동하던 문필가로 추측된다.

25 猪候耕夫, 1925, 위의 책, 2~12쪽. 이 부분은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등에서 제시한 각 군의 沿革과 거의 비슷한데, 저자 猪候耕夫가 이들 地誌의 내용에 근거하여 서술한 것으로 추측된다.

26 平安北道廳, 1924, 앞의 책, 3~7쪽. 일례로 妙香山의 普賢寺를 소개하며, “高麗光宗 59년에 창건했다”는 식이다.

는 여전히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평북을 알려 부진한 지역 산업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때문에 평안북도의 역사에 대해서는 행정적 위상 변화 정도를 정리한 것으로, 조선시대 편찬된 지지·읍지의 내용을 벗어나지 못했다.

도청이나 거류일본인들에 의한 지방사지의 편찬은 1930년대에도 이어졌다. 그런데 이들 지방사지들에는 대륙침략이라는 당시의 분위기가 나타나 있다. 일례로 1937년 고자코<sup>27</sup>가 저술한 『약진평북』은 1920년대 간행된 것들처럼 평북의 각종 자원, 경제 현황 및 명승을 소개하는, 산업과 관광 유치를 위한 소개서로서의 성격이 짙다.<sup>28</sup> 하지만 책이 출판된 당시를 평북이 “제2의 역사로 한 발짝 나아갈 가장 중요한 때”라고 규정했는데,<sup>29</sup> 그 이유는 바로 일본의 대륙침략이었다. 즉, “준비기”를 지나 “팽창시대”로 접어든 평북은 만주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선만일여(鮮滿一如)는 평북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sup>30</sup> 이처럼 대륙침략이라는 시대 분위기는 책의 곳곳에 드러난다. 경제개발의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만주국 탄생으로, 국경의 끝인 평북은 새로운 무대에 등장”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제반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며<sup>31</sup> 평북의 각종 산업·자원 등의 현황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편, 일제의 대륙침략이 진행되던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는 ‘향토교육’

27 『躍進平北』의 저자 子迫新太郎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朝鮮出版警察月報』 100호(1937년 1월)에는 그가 1936년 12월 『國境の華』라는 책을 신의주에서 발간했다고 하고, 『朝鮮總督府官報』 4646호(1942.7.24.)에 새롭게 신고된 法人·組合을 알리며 “社團法人平安北道土木建築業協會” 관련 인사로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子迫新太郎은 평북지역의 유지층으로 추측된다.

28 『躍進平北』은 1920년대의 지방사지류와 마찬가지로 평북의 역사에 대해서는 ‘沿革’에서 2~3쪽 정도로 道の 행정적 변화를 간략히 제시하고, 명승을 소개하며 관련 사건을 언급하는 수준이다.

29 子迫新太郎, 1937, 「序言」, 『躍進平北』, 新義州印刷株式會社.

30 子迫新太郎, 1937, 위의 책, 1~9쪽.

31 子迫新太郎, 1937, 위의 책, 163~164쪽.

이 강조되며, 이를 위한 향토지가 각지에서 편찬되었다. 주지하듯이 1920년대 말 경제대공황으로 일본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그 여파는 조선에도 미쳐 식민통치의 위기를 초래했다. 미가 하락으로 농촌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지는 속에서 농민운동이 고양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수습책으로 조선총독부에서 추진한 것 중 하나가 ‘향토교육’의 실시였다. 그런데 당시 강조된 ‘향토’는 단순히 자신이 속한 지역이라는 의미에 머무는 것이 아닌 일본의 한 지방으로서의 ‘향토’였다. 즉, ‘향토교육’을 통해 식민지 조선인들의 지역에 대한 애정을 배양시키고, 이를 국가=일본으로 흡수시켜 당면한 체제 위기를 극복하려 한 것이다.

이와 같은 ‘향토교육’을 위한 시책으로 가장 두드러진 것은 향토에 대한 조사인 ‘향토연구’와 향토지 편찬으로, 조선 각지에서는 ‘향토연구’에 근거한 전시회가 개최되고, 향토지가 편찬되었다.<sup>32</sup> 평북에서도 1932년 7월 도내 여러 학교에서 시행한 ‘향토교육’의 성과를 모아 향토교육전람회가 개최되었고, 평안북도교육회는 도내 여러 학교에 학교 소재지를 중심으로 향토지 편찬에 착수했다. 특히 1933년 5월 조선교육총회가 신의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평북 전체의 향토지 편찬을 서둘러, 5월 초 『평안북도향토지』가 간행된 것이다. 그런데 그 「서」에서는 이러한 저간의 사정과 함께 이 책자는 “본도(평북: 인용자) 향토교육에 비익”하기 위해 편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sup>33</sup> 즉, 이 책은 평북의 개발이나 관광 유치를 목적으로 외부인에게 평북을 소개하기 위해 편찬된 지방사지들과는 달리 해당 지역의 청소년 교육을 위한 보조교재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 이 책자가 신의주 각급 학교의 일본인 교사 3인에 의해 편찬된 점 역시 이러한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sup>34</sup> 물론 『평안북도향토지』도 다른 지방사지들

32 1930년대 일제의 향토교육에 대해서는 文知恩, 2018, 「1930년대 일제의 향토교육론과 향토교육 시책」, 『歷史教育』 146을 참고했다.

33 平安北道教育會, 1933, 「序」, 『平安北道郷土誌』.

34 이는 1930년대 등장한 다른 지역의 향토지 역시 비슷했다고 한다(文知恩, 앞의 글, 309~317쪽). 한편, 『平安北道郷土誌』를 편찬한 것은 新義州公立中學校, 新義

처럼 평북에 대한 소개 부분의 분량이 더 많다. 편찬자들 역시 이점을 아쉬워했지만, 최신 자료를 이용해 내용의 정확을 기했으며, 향토지 편찬에 활용한 18종의 자료를 제시했다.<sup>35</sup>

이렇게 별도로 편찬 근거를 제시한 것과 더불어 여타 지방사지들과 구별되는 『평안북도향토지』의 가장 큰 특징은 평북의 역사에 대한 서술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행정적 연혁이나 명승지의 유래를 언급하는 수준이었던 이전 지방사지에 비해 『평안북도향토지』는 전체 분량의 1/4인 제1장 “평안북도 연혁”을 기원전부터 18세기경까지 평북 역사의 개략을 기술하는 데 할애했다. 이 책자가 평북 청소년들의 ‘향토교육’을 위한 교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평북의 역사에 대한 서술을 늘려 책의 앞머리에 두었다는 것은 평북의 지역적 특성을 그 역사적 경과에서 찾고, 평북지역 청소년들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키우는 데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편저자들이 밝히고 있듯이 “평안북도 연혁”에서 부각하고 있는 것은 “국경선의 이동과 국경에서 일어난 전쟁”이었다.<sup>36</sup> 앞서 살펴보았듯이 18세기 이래 등장한 청북 지역민들에 의한 읍지에서 지역의 문풍을 강조했던 것을 고려할 때 평북 거류일본인인 지역 교사들이 편찬한 『평안북도향토지』는 지역 읍지 편찬

---

州高等普通學校, 新義州高等女學校의 敎諭 奧山盛孝, 增子俊, 中山豊喜 3인이었다.

35 3章 160여 쪽으로 이루어진 책자의 거의 절반인 2章 ‘地理’는 지세, 지질, 기후, 동식물, 산업, 교통, 주민, 금융 등의 현황을, 1/4의 분량인 3章 ‘處誌’는 府郡별 주요 명승지에 대한 사항이다. 이에 대해 편찬자들은 편찬 기간이 한 달뿐이어서 충분한 조사가 어려워 기존 자료를 활용한 결과 책이 “案内書” 수준에 그쳤다고 아쉬워했다(平安北道教育會, 1933, 앞의 책, 「凡例」, 2쪽). 한편, 편찬자들이 제시한 18종의 서술 근거 자료는 다음과 같다. 『朝鮮史大系』(朝鮮史學會 출판), 『國境之歷史』(矢野桃郎씨 연구), 『新增東國輿地勝覽』, 『史蹟照查報告』, 『三國遺事』, 『平安北道各學校郷土誌』, 『地理教育』, 『地理學評論』, 『日本地理大系 朝鮮編』, 『平安北道商工水産一斑』, 『平北の林業』, 『平安北道の教育と宗教狀況』, 『平安北道道勢一斑』, 『地理學研究』(帝國書院 출판), 『平安北道の農業』, 『朝鮮の鑛業』(總督府 간행), 『平安北道の地質圖』, 雜誌 『平北教育』.

36 平安北道教育會, 1933, 앞의 책, 「凡例」, 1쪽.

의 전통과 동떨어진 것이라 하겠다. 국경과 전쟁을 중심으로 그 역사를 정리했다고 밝힌 제1장은 압록강이 현재는 조선과 만주국의 경계라며-『약진평북』과 마찬가지로-대륙침략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환기로 시작한다. 하지만 과거의 국경은 그렇지 않았으며, 평안북도는 위치상 “대륙의 영향 … 그 지배를 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활동자가 한족(漢族), 만주족”이었다는 것이다. 즉, “중선(中鮮)·남선(南鮮) 지방은 활동 주체가 주로 한족(韓族)으로,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 평북의 “역사의 특색”이라며 국경 부근에서 벌어진 “침화”를 중심으로 평안북도의 역사를 정리했다.

그 시작은 후한서 기자(箕子)의 기사를 근거로 옛날부터 중국인이 대동강이 북지역에 이주했으며, 연(燕)의 진개(秦蓋)가 동호(東胡)를 정복하고 고조선 땅 2,000리를 확보해 압록강을 경계로 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시대에는 고조선 세력이 압록강을 넘었기 때문에 평북은 그 역사의 시작부터 북방의 여러 민족이 섞여 있었다는 것이다.<sup>37</sup> 이후 한사군 설치 이래 평북지역에서 벌어진 전쟁과 국경의 이동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그 역사를 정리했는데, 그 골자는 중국은 물론 대륙 세력에 대한 신라, 고려, 조선왕조의 “사대” 및 그 속에서 이루어진 전쟁, 이들 왕조가 압록강변으로까지 진출하는 과정이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려시대에 대한 서술이다. 고려 건국 이전 “여진족이 할거”하던 평북 지역은 고려왕조 개창 이후 북진 정책 추진 결과 고려의 영토가 되었기 때문이다. 즉, “거란에 조공하고 그 정식을 받는 대신 압록강 동쪽의 땅을 영유”했고, 여진·몽골 등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세력에 “신속(臣屬)”하는 한편 대륙 세력이 약화·교체되는 틈을 타 천리장성을 수축하고, 압록강 남쪽을 영유했을 뿐만 아니라 공민왕대에는 압록강 서쪽의 벽동, 창성 등을 경략하는 등 압록강까지 진출했다는 것이다.<sup>38</sup> 이는 조선 건국 이후 곧 강계부(江界府)와 자성군(慈城郡) 설치로 이어졌고, 병자호란으로 “조선이 만주의 책봉을 받은 후

37 平安北道教育會, 1933, 위의 책, 1~5쪽.

38 平安北道教育會, 1933, 위의 책, 13~28쪽.

두만강과 압록강이 양국의 국경이 되었”는데, 백두산 정계비문의 해석 문제로 20세기까지 간도 영유가 한·중 간 현안이었지만 러일전쟁 이후 “안봉선(安奉線) 문제와 함께 간도는 지나령(支那嶺)으로 결정”되었다며, 정계비문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sup>39</sup> 즉 평북 청소년들의 향토에 배양을 위한 공통의 기억을 환기하는 역사 서술로서 『평안북도향토지』는 북방의 세력 교체 속에서 압록강까지 고려왕조의 진출과정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대륙침략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조선 후기에 이루어진 국경 획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대륙으로의 팽창이 평안북도의 역사적 추세이자 미래의 과제임을 설파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시대 이래 평안북도에서는 여러 차례 지방사지가 간행되었다. 특히 강점 이후 식민권력을 대변하는 평북도청이나 평북 거류일본인들에 의해 지방사지들이 편찬되면서 평북의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평북의 현황을 제시하는 소개서 성격의 책자 위주에서 1930년대 들어 대륙침략이라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대동강 이남에 머물던 국경이 북방을 향해 확장되던 역사적 경과에 대한 서술도 등장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방사지들 간행 이후인 1938년에 편찬된 『평안북도사』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

### Ⅲ. 『평안북도사』의 등장과 그 특징

#### 1. 1930년대 이후 관찬 지방사의 증가와 『평안북도사』의 편찬

1938년 10월 출간된 『평안북도사』는 강점 이후 꾸준히 등장했던 평북지역 지방사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1930년대 들어 지방청의 지방사 편찬은 빈번했다. 1930년 목포부를 시작으로 인천부, 군산부, 부산부, 경성부 등에서 그 지역의 지방사를 편찬했으며, 1940년대 들어서는 전주부와 대

39 平安北道教育會, 1933, 위의 책, 29~35쪽.

구부에서도 그러했다. 즉, 『평안북도사』는 평북지역의 지방사지 편찬의 연장선상에 위치하면서도 1930년대 이후 대거 등장한 관찬 지방사 가운데 하나였다. 이러한 관찬 지방사의 편찬은 식민통치의 성과를 과시하고 그 지역의 부원 개발을 위해서였고, 『평안북도사』 역시 그러한 것이라고 평가되어왔다.<sup>40</sup> 그런데 평북도청을 비롯한 거류일본인들이 지역 산업 개발을 위해 지방사지를 편찬한 것은 앞서 보았듯이 1924년 이래 반복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평북도청에서는 1920년대와 마찬가지로 부원 개발이라는 같은 이유에서 새로운 지방사를 편찬한 것일까?

1930년대 등장한 『인천부사』, 『군산부사』 등은 개항 50주년(인천부) 또는 시구 개정에 따른 행정구역의 확장(군산부) 등 지역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기념 사업으로서 편찬되었다.<sup>41</sup> 따라서 그 내용 역시 해당 사건 이래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 현황이 주된 내용이었다. 즉, 개항과 식민통치가 지역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반면 지역의 역사와 관련된 사항은 행정적 연혁이나 명승을 소개하는 수준으로, 그 분량 역시 극히 적었다.<sup>42</sup>

그렇지만 193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관찬 지방사는 그렇지 않았다. 『경성부사』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1,000쪽 내외의 책 3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으로, 1934년부터 1941년까지 8년여에 걸쳐 이루어진 『경성부사』의 첫 권이 발간되었을 때, 당시 경성부윤 다테 요쓰오(伊達四雄)는 “경성은 구아(歐亞) 교통의 요충지로, 특히 이웃 나라인 만주국 발흥에 따라 국제도시로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어 “향후 세운의 진전에 순응하기 위해 많은 시설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때를 맞아 경성의 역사를 되돌아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sup>43</sup> 즉, 부사 편찬 이유로

40 최혜주, 2011, 앞의 글, 175~180쪽.

41 仁川府, 1933, 「序」, 『仁川府史』; 群山府, 1935, 「序」, 『群山府史』.

42 일례로 1,500여 쪽에 달하는 『仁川府史』에서 역사에 대한 서술은 舊蹟과 名所에 대한 소개까지 포함하여 20여 쪽에 지나지 않으며, 『群山府史』의 경우 총 320쪽 중 6쪽에 불과했다.

43 京城府, 1934, 「序」, 『京城府史』.

경성 관련 사건의 기념이 아닌, 1930년대 간행된 평북지역의 지방사지들처럼 만주국 건국이라는 일제의 대륙침략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경성부사』는 인천부, 군산부 등지에서 편찬한 지방사들과는 달리 지역의 역사에 대한 서술이 대폭 강화되었다. 물론 『경성부사』 역시 분량상 일제의 통치 이후 경성의 발전과 편찬 당시의 상황을 전하는 부분이 더 많다. 『경성부사』 3권 중 2·3권은 통감부 설치 이후 경성의 변화와 확대에 대한 사항이다. 하지만 1권은 기원전 1세기에서 러일전쟁 직후까지 경성의 역사적 변천을 다룬 경성에 대한 통사였다. 그런데 『경성부사』를 비롯하여 1930년대 중반 이후에 등장한 관찬 지방사들은 그 지역의 역사에 대한 서술이 대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sup>44</sup> 즉, 만주국 건국에 따라 “국제도시”로서 경성의 위상을 재고하기 위해 그 역사를 되돌아본다는 『경성부사』의 편찬 이유에서 드러나듯이, 대륙 침략과 만주국 건국,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 등에 따라 제국 일본의 판도 확대와 새로운 국제 질서가 모색되던 1930년대 중반 이후, 조선 각지의 지방청에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해당 지방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려 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확대된 제국의 판도에 걸맞게 그 역사를 정리하는 지방사지의 편찬을 요청했던 것이다.

『평안북도사』 편찬 당시는 전쟁의 장기화가 예상되며 식민지 조선에서도 경제 통제가 시작되던 때였다. 그 서문에서 평북지사 미자 사스가(美座流石)는 “현재 황국은 이전에 없던 어려움을 만나 시정백반에 경시쇄신(更始刷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왕의 문헌에 비추어 취사안배해야 하기에 도사편찬사업

---

44 일례로 전주부와 대구부에서 편찬한 부사가 그렇다. 총 1,000여 쪽 분량인 『全州府史』(1942)의 경우 140여 쪽에 달하는 제1편 ‘通說’은 태고 이래 조선 후기까지 전주의 역사를 개괄하고 있다. 이듬해 출간된 300여 쪽 분량의 책 3권으로 구성된 『大邱府史』 역시 가장 많은 분량의 제1권은 태고 이래 20세기 초까지의 대구의 역사를 정리한 대구의 通史였다. 정상우, 2015, 「일제 하 ‘全州’ 지방의 지방사 편찬-『全州府史』(1942)를 중심으로」, 『韓國文化』 71, 266~274쪽; 정상우, 2014, 앞의 글, 307~313쪽.

을 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sup>45</sup> 즉, 『평안북도사』 역시 대륙침략에 따른 지역의 위상 재고를 위해 편찬된 것이었다.

이는 1,000쪽에 달하는 『평안북도사』에서 20세기 이후에 관한 서술이 전혀 없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대신 『평안북도사』는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90여 쪽에 달하는 ‘권수(卷首) 평안북도사개설(平安北道史概說, 이하 ‘개설’)로, 이는 태고 이래 19세기 말까지 평북의 역사에 대한 서술이다. 다른 하나는 860쪽에 달하는 ‘대사지(大事志)’이다. 제1 ‘고려시대’, 제 2·3·4 ‘조선시대 전기’·‘중기’·‘후기’의 네 부분으로 구성된 ‘대사지’는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명사(明史)』, 『청조실록(淸朝實錄)』 등 방대한 사료에서 평북 관련 사항을 뽑아 요약한 후 편년에 따라 나열한 것이다.<sup>46</sup> 이처럼 『평안북도사』는 강점 이후 지역의 발달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이 평북에 대한 통사와 방대한 사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평북의 연표 내지 사료 요약으로, 그 서명처럼 역사서로서의 모습만 띠고 있었다.

1930년대 중반 이래 관한 지방사들과 같이 지방의 통사를 서술하는 것, 그것도 방대한 사료에 근거하여 서술하는 것은 근대 역사학의 방법론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지 않은 이들이 아니면 어려운 일이다. 실로 해당 지역의 통사로서의 성격을 띠는 경성, 전주, 대구의 지방사는 도쿄나 교토의 제국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하고 식민지 조선에 설치된 주요 학술 기구에서 활동하던 이들의 손을 거쳐 완성되었다.<sup>47</sup> 이는 이나바에 의해 편찬된 『평안북도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편

45 平安北道廳, 1938, 「序」, 『平安北道史』, 1쪽.

46 『平安北道史』는 ‘平安北道史概說’과 ‘大事志’ 외에도 肅宗에서 高宗까지 國朝榜目에서 평안북도의 인사들을 뽑아 제시한 第5 ‘人物一覽’(30쪽)과 大東輿地圖의 평안북도 부분을 비롯하여 20여 종의 평안북도 고지도를 실은 第6 ‘古地圖’(20쪽)가 첨부되어 있다.

47 당시 경성, 전주, 대구의 부사는 왕조실록을 비롯한 방대한 사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또 『京城府史』는 도쿄제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경성제대 조선사학 제1강좌를 담당한 小田省吾가 顧問으로서 편찬 전반을 주도했다(京城府, 1934, 「例言」, 『京城府史』). 이는 末松保和(도쿄제대 사학과 졸업 후 편수회와 경성제대 근무)가

수회의 『조선사』 편찬 총괄, 「광해군 시대의 만선관계」라는 박사학위 논문, 한국사에 대한 수많은 논고와 통사 서술<sup>48</sup>이 보여주듯이 이나바는 당시 근대 역사학의 학적 권위를 드러내며 한국사에 대한 통사적인 접근에 탁월했던 일본인 연구자였다.

한편, 이나바는 조선 부임 이전부터 역사적으로 “만선불가분”을 주장했고,<sup>49</sup> 만선사의 체계화를 시도한 유일한 연구자로 만주에 인접한 평안도, 함경도에 대한 관심이 컸다. 조선 부임 이후 『조선사』 편찬을 위한 사료 채방을 이유로 수차례 평안도와 함경도에 방문하여 새로운 사료들을 발견한 것은 조선의 북방에 대한 그의 관심을 보여준다.<sup>50</sup> 이러한 이나바에게 평북도청의 『평안북도사』 편찬 의뢰는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을 것이며, 그는 이를 불과 1년이 되지 않아 마쳤다.<sup>51</sup> 그렇다면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며 대륙침략을 가속화했던 당시, 한국사에 미친 대륙의 영향력을 강조하던 이나바는 평북의 역사를 어떻게 정리했던 것일까?

---

편찬한 『大邱府史』, 荻山秀雄에 이어 小倉親雄(모두 교토제대 사학과 졸업 후 조선총독부 도서관에 근무)이 편찬한 『全州府史』 역시 마찬가지였다(이에 대해서는 정상우, 2014 및 2015, 앞의 글을 참고할 것).

- 48 張信, 2022, 「근대 일본의 조선사 연구: 통계적 접근」, 『奎章閣』 61, 419쪽. 이에 따르면 한국사 관련 논저 발표량에서 37편인 稻葉은 今西龍(40편)에 이어 2위이다. 또 稻葉은 平凡社에서 1933~1936년까지 25권으로 발간한 『世界歷史大系』에서 ‘朝鮮史’ 부분을 집필했다. 稻葉岩吉 外, 1935, 『世界史大系 11-朝鮮史·滿洲史』, 平凡社.
- 49 稻葉岩吉, 1922, 「滿鮮不可分の史的考察」, 『支那社會史研究』.
- 50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상우, 2018, 앞의 책, 240~263쪽을 참고할 것.
- 51 平安北道廳, 1938, 「序」, 앞의 책, 2쪽. 이에 따르면 평북도청은 이미 편수회의 『朝鮮史』 마지막 권이 출판만 남은 시점인 1937년 가을 『平安北道史』 편찬을 稻葉에게 의뢰했다. 稻葉이 1938년 5월에 개교한 만주건국대학에 교수로 부임한 것을 고려하면, 이 책은 1년이 되지 않아 편찬되었다.

## 2. 『평안북도사』에 나타난 평안북도의 역사-만주에서 반도로

이나바는 역사가의 길로 접어든 초기부터 역사적으로 압록강은 국경으로서 의미가 약하며 만주와 조선의 경계는 대동강에서 원산을 연결한 선이라고 보았다.<sup>52</sup> 1925년 『조선사』 편찬을 위해 함경북도로 사료 채방을 다녀온 직후 함북에 남아있는 여진어 지명을 소개하며 “함경도와 여진인과의 관계는 조선민족 개벽 이래의 것”이라 할 정도였으며, 1930년대 중반에도 “현재 조선의 국경(압록강과 백두산: 인용자)은 국경으로서 의미가 적”을 뿐만 아니라<sup>53</sup> 함경도는 “최후 500년을 제외한 오랜 기간은 만주인의 것”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색채보다는 만주, 즉 여진인의 색채가 농후”하다고 생각했다.<sup>54</sup> 그가 볼 때 이는 평안도, 특히 평안북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즉, “반도의 근본은 평안·함경 양도에 있”지만, 조선 건국 이래 “여진인의 본지”로 인식되어, 정부로부터의 “애무가 더해지지 않은 지방이었다는 점은 서북면과 동북면이 동일”하고, “이씨조선의 문화, 즉 유교문화를 많이 받아들이지 않”아 “고유문화가 보유”되어 그 장래가 밝은 것은 평북만이 아니라 “함경남북 2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sup>55</sup> 이는 『평안북도사』에서 평북의 역사를 정리한 ‘개설’의 마지막 문단-결론에서 집약적으로 나타난다.

나는 한 두 가지 結語를 서술하고 싶다. 平北은 일찍이 三國時代에는 武力이든, 文化든 東方諸民族國家에서 冠한 高句麗國의 母體를 이루었다. 이때 鴨綠江은 國境의 險隘가 아니라 母體의 大動脈으로, 國際河川이었다. 반대로 … 高麗以來 李氏朝鮮에 들어 鴨綠江은 오직 國境이 界限을 이루고, 그 利用은 완전히 講되

52 稻葉岩吉, 1915, 『滿洲發達史』, 10~11쪽.

53 稻葉岩吉, 1935, 「滿鮮國境の史的考察の一二」, 『警務彙報』 356.

54 稻葉岩吉, 1934, 「咸鏡道の地方色」, 『警務彙報』 336.

55 平安北道廳, 1938, 앞의 책, 23, 79, 84~85쪽.

지 않아 犯越이라든가 潛墾이라든가 陰慘한 景象은 江面을 繞하여 層生했다. 平北의 평화가 平北만에 의해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다. ... 平北은 또 이 운명을 開拓把握하기 위해 하나로 뭉쳐서 民力民智를 總하여 文化의 全體의 昂揚에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56</sup> (강조는 인용자)

즉, 고구려의 모체이자 만주의 일부로서 번영했던 평안북도가 한반도에 수립된 고려나 조선 정부의 소관이 되면서 불행만 겪었기 때문에 고구려 당시의 면모를 회복하는 것, 바로 압록강 주변의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평안북도의 역사에 대한 서술은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기초에서 정리된 평안북도의 역사에 대한 서술은 중국 고서에 등장하는 압록강에 대한 기록 및 명도전이 압록강 이남인 위원, 영변 부근에서 출토되었다는 것으로 시작했다. 대거 발견된 중국 전국시대의 화폐가 말해주듯이 평북은 태고 이래 대륙과 반도의 교통로였으며, 압록강은 그 주요한 통로였다는 것이다. 기자전설이 나타난 것도, 위만조선이 등장한 것도 대륙과 활발했던 교통의 결과였다.<sup>57</sup> 한편, 이나바는 위만조선 멸망 이후 평북은 현토군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는 이른 시기부터 현토군을 주목했다. 1910년대 이래 역사적으로 압록강은 국경으로서 의미가 없었던 이나바에게 만주와 조선 양쪽에 걸쳐 있던 현토군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이다.<sup>58</sup> 더군다나 그는 고구려 성장의 근원은 만선을 아울렀던 현토군을 기반으로 국가를 일으켜 “지형의 편의”를 확보한 데에 있다고 보았다.<sup>59</sup> 이러한 시각은 『평안북도사』에서도 유지되었다. 압록강 좌우를 아우른 현토군은 대륙에서 반도로의 교통 요지인데, 고구려는 한(漢)의 지배를 받으며 그 문화를 받아들인 부여의 분파로 일찍부

56 平安北道廳, 1938, 위의 책, 85~86쪽.

57 平安北道廳, 1938, 위의 책, 2~5쪽.

58 稻葉岩吉, 1925, 『朝鮮文化史研究』, 雄山閣, 193~196쪽.

59 稻葉岩吉, 1937, 「朝鮮の歷史的對滿感情及び智識」, 『朝鮮』 260, 11~12쪽.

터 중국의 선진문물을 흡수한 데다가 동가강과 압록강의 합류 지점으로 함남과 평양으로 통하는, 현토군에서도 교통의 최요지인 환도성(丸都城)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른 시기부터 급속히 성장해 동방의 민족들 중 가장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sup>60</sup> 그런데 『평안북도사』에서 이나바가 과거의 주장을 반복한 것은 아니다. 그는 고구려 강성의 이유로 중국문화의 이른 수용과 만선을 아우른 지형의 편의 외에 고구려 고유의 민족성과 문화를 들었다. 동명왕 설화에 드러나는 태양 숭배라는 민족신앙, 활과 화살로 대변되는 무용(武勇), 고구려의 직관명에서 드러나는 고구려 고유의 언어가 그것이다.<sup>61</sup> 즉, 중국문화와 구별되는 상무적인 민족성과 문화라는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한의 선진문물이나 지형의 편의가 고구려의 강성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발전을 거듭하던 고구려도 쇠망의 길로 나아갔다. 흥미로운 지점은 그 출발점을 평양 부근 장안성(長安城) 천도에 둔 것이다. 『평안북도사』에 따르면 평양은 환도성에 비해 “교통이 더욱 편리한 옥토”이지만, 낙랑군 설치 이후 해로를 통해 산둥과 교통한 결과 중국문화가 침윤되었으며, 환도에 비해 험하지 않아 방어에 불리했다.<sup>62</sup> 즉, 중국문화의 뿌리가 깊고 외침에 취약한 지역인 장안성으로 천도하자 인구가 이곳에 집중했고, 이들이 중국문화에 빠져들며 고구려의 강성을 이끈 토대, 바로 고유의 민족성과 문화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된다. 하나는 당시 일본인 역사가들의 만주사 연구 경향과의 관련성이다. 20세기 이래로 일본인 역사가들은 고구려를 구성한 것은 북방의 통구스로, 그 역사는 중국사도, 한국사도 아닌 만주사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1930년대 이후 일본인 역사가들은 고구려를 비롯한 북방민족만의 고유한 민족성과 문화의 존재에 주목하고, 이러한 토양에서 성장한 북방

60 平安北道廳, 1938, 앞의 책, 5~9쪽.

61 平安北道廳, 1938, 위의 책, 10~17쪽.

62 平安北道廳, 1938, 위의 책, 17~18쪽. 稻葉은 唐 高宗代 長安城 함락 당시 丸都는 略取되지 않았던 것을 근거로 長安城이 丸都에 비해 외부 공격에 취약했다고 보았다.

의 민족들이 중국의 왕조를 압도했지만, 중국문화에 침윤되어 몰락한다는 시각을 공통적으로 드러냈다.<sup>63</sup> 고구려 성장의 토대를 고구려의 고유문화와 민족성에서 찾는 『평안북도사』의 서술은 당시 만주사에 대한 일본 학계의 시각을 공유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장안성으로의 천도가 쇠망의 시작점이라는 평가이다. 중일전쟁 이후 대륙의 안쪽으로 전선이 확대되던 때에 압록강변에 있던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남진은 만선불가분이라는 이나바의 학문적 입장에서만 아니라 일본이 당면한 시대적 요구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처럼 고구려의 강성과 쇠망에 대한 『평안북도사』의 서술은 당시 만주사에 대한 일본 학계의 시각은 물론 중일전쟁이라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었다.

고구려 멸망 이후에 대해 이나바는 관련 기록이 없어 “불명”하다면서도 가담(賈耽)의 도리기(道里記)를 통해 산둥반도에서 압록강의 수로를 이용하여 환도현성에 이르는 경로를 서술하며, 발해에서도 압록강을 이용한 대륙과의 교통은 빈번했으리라고 추측했다. 특히 발해는 당은 물론 일본과도 교통했기 때문에 압록강을 통한 교통로와 그 주변 지역의 변영은 상당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sup>64</sup> 이렇게 사료가 부족한 발해 당시의 평안북도에 대해 이나바는 압록강을 매개로 당과 일본의 연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상과 같이 『평안북도사』의 고대사 서술은 압록강이 “국경”이 아닌 “국제하천”으로 기능했기 때문에 이에 접한 평북은 대륙과 반도, 나아가 일본 사이의 교통 요지로서 변영했다는 것이다.

발해 멸망 이후 “대동강 서쪽은 곤궁해졌지만, 고려가 일어나 새롭게 개척의 보무를 내딛었다”는 서술이 보여주듯이 『평안북도사』에서 고려시대 서술은 고려왕조가 압록강변까지 영역을 확보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었다. 이나바가 볼 때 고구려 계승을 표방한 고려는 “평안·함경 양도의 확보”가 “건국의 욕구”였다. 물론 이 욕구는 쉽게 충족되지 않았고, 외침-특히 거란, 몽골의 침입으로

63 정상우, 2020, 「20세기 전반 일본인 연구자들의 ‘만주사’ 만들기」, 『만주연구』 30, 179~191쪽.

64 平安北道廳, 1938, 앞의 책, 19~20쪽.

평북지역은 가장 큰 참화를 입었다. 하지만 고려는 거란의 군대에 맞서 고구려의 영역이었던 요양(遼陽)까지도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의 경내라며 거란의 병사들을 몰려나게 한 후 압록강 하류에 성을 쌓았고, 신의주 동남쪽에서 동해안의 정평(定平)까지 천리장성을 수축했으며, 원이 약해진 공민왕 18년(1369) 이후 의주, 창성, 강계에 관청을 설치하고 초산 등지에 대한 지배를 실현한 결과, 조선 건국 직후인 태종 2년(1402)에는 벽동까지 아우르며 “압록강은 마침내 반도의 서계(西界)”가 되었다는 것이다.<sup>65</sup>

이러한 국경 확장에 대한 서술은 평안북도 청소년 교육을 위해 편찬된 『평안북도향토지』의 서술과 유사하다. 하지만 『평안북도사』의 고려시대 서술은 그와 다른 새로운 사항들이 있었다. 그 첫 번째는 금·송 사이에서 고려의 외교였다. 송의 황제가 금에게 잡혔을 당시 송은 고려를 통해 구출을 시도했지만, 고려가 이를 거절한 사건에 대해 “이이제이의 술책에 빠지지 않고, 금의 감정을 완화시킨 것”을 “멀리 내다보았다”며 높게 평가한 것이다.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금의 황제가 “고려의 구의(舊誼)”를 들어 조위충의 투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거란 이래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소속 역시 애매”했던 의주 방면이 “이쯤부터 완전히 우리 영토가 되었”기 때문이다.<sup>66</sup> 이렇게 고려 정부가 중국과 거리를 두고 금의 편에 선 결과 압록강 방면으로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다는 서술은 만선불가분이란 이나바의 신념을 드러내는 것이자-고구려의 장안성 천도라는 남진과는 상반되는 맥락에서-중일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세상에 드러내고자 했던 좋은 역사적 선례였다.

『평안북도사』 고려시대 서술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하나는 몽골 침입의 이유이다. 여기서 이나바는 고려가 몽골과 접하게 된 일련의 경과를 정리하고 몽골 침략 당시 평북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큰 참화를 입었다고 서술했는데, 그 원인을 북방 정세에 대한 고려 정부의 무지에서 찾았다. 몽골은 “처음부터 반도

65 平安北道廳, 1938, 위의 책, 22~33쪽.

66 平安北道廳, 1938, 위의 책, 26쪽.

를 제패하려는 것은 아니”라 “본국에서 얻을 수 없는, 또는 부족한 것을 충당”하려 했지만 “반도인은 몽고를 알지 못해” 몽골 사신들을 홀대해 양국 관계는 나빠졌고, 이후 저고여의 살해 등이 겹치며 전란에 휩싸였다는 것이다. 때문에 만약 고려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그에 응했다면 사태는 악화되지 않”았으리라고 보았다.<sup>67</sup> 이는 평북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는 만주를 비롯한 대륙의 정세에 달려 있다는, 한국사에 드리워진 만주-대륙의 영향력을 강조했던 만선사적 시각에 입각한 것이라 하겠다.

만주-대륙에 대한 무지가 한국에 불행을 불러온다는 것은 『평안북도사』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시대에 대한 서술에서도 반복된다. 그런데 이나바는 고려시대 서술 이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조선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들 사실을 종합하면 半島政府가 지금의 平安北道를 확보한 시대는 오래된 것이 아니라 대체로 高麗末期 이래였다고 하겠다. 그 이전은 無國疆時代라 할 수 있다. 즉, 어떤 시대에는 漢族의 소유에, 어떤 시대에는 滿洲族의 소유로 歸하였다. 洋洋한 鴨綠江의 흐름은 처음부터 國境河川으로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鴨綠江을 劃하여 國境線을 保有한다는 것은 半島에게 막대한 負擔이었다.<sup>68</sup> (강조는 인용자)

실로 『평안북도사』의 조선시대 서술의 한 축은 “국제하천”이었던 압록강을 “국경하천”으로 삼으며 조선 정부와 평북이 지게 된 “부담”에 대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거론한 것은 조선 건국 초부터 진행된 실변정책(實邊政策)이었다. “경성 정부에서 볼 때 여진인의 본지였던 평북 일대”를 “호속(胡俗)의 감염”에서 탈출시켜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압록강이 국경이 됨에 따라 국

67 平安北道廳, 1938, 위의 책, 28~30쪽.

68 平安北道廳, 1938, 위의 책, 33~34쪽.

방의 필요 역시 제기되었기 때문에 “남선(南鮮)의 사람을 이식해, 순수 한족 일색으로” 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북은 남선에 비해 따듯하지 않고, 토지 역시 척박해 농경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주민들은 함경도, 황해도는 물론 요동 방면으로 도피해 실변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더군다나 여진인들은 수시로 압록강을 건너 강계와 여연 등지를 습격하여 이 지역민들을 약탈했다. 조선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압록강변에 성을 쌓고 여연 이하 4군을 설치했지만, 이마저도 세조 당시 방기했다는 것이다.<sup>69</sup> 즉, “여진인의 본지”였던 평북의 지역색을 탈각시켜야 했던 것과 수시로 있던 여진인의 공격이 바로 압록강을 국경으로 하게 됨에 따라 조선 정부가 지게 된 부담이었다.

뿐만 아니라 “반도국가가 베이징 조정을 종실로 따랐”기 때문에 빈번했던 사행(使行)에 따른 일체의 비용과 인력 등을 조선 정부, 특히 평북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도 큰 짐이었다. 이나바는 조선에 파견된 명의 사신 대부분은 뇌물을 주고 출사한 “탐관행리(貪官行吏)”로, 이들은 사행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는데, 이는 사행의 길목인 의주에서 특히 심했다며, 세종대에서 17세기 초에 걸쳐 조선에 파견된 명 사신들의 행패를 제시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은의 유출이었다. 주지하듯이 명으로의 조선 사행은 무역을 했는데, 명은 은을 요구했기 때문에 대륙으로 은이 대량 유출된 것이다.<sup>70</sup> 이는 청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나바는 청의 요구로 압록강변에 교역장이 개설되었고, 청으로의 사행을 중심으로 의주와 개성의 상인들까지 연루한 무역을 상세히 기술하며, 조선 후기에도 지속된 인삼과 은의 유출 및 이에 대한 조선 정부의 고심을 서술했다. 이처럼 “사대의 예를 소략하게 할 수 없”던 조선 정부에게 명·청 사행에서의 폐단과 사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무역으로 인한 막대한 은의 유출이 평북은 물론 조선 정부가

69 平安北道廳, 1938, 위의 책, 34~42쪽.

70 平安北道廳, 1938, 위의 책, 44~45, 48~50쪽. 稻葉이 제시한 明使들의 폐단은 禮物로서 가져온 물품에 값을 치르라는 것과 詔書를 읽어주는 대가로 엄청난 양의 銀子를 요구하는 것이다.

깊어져야 했던 “부담”이었다.<sup>71</sup>

그런데 이나바는 이 부분에서 조선은 산은국이 아니며, 조선에서 명으로 유출된 은은 부산으로 유입된 일본산임을 누차 강조했다.<sup>72</sup> 그는 당시 “베이징”, “반도”, “부산”에서의 무역품 13종의 가격을 표로 정리하며, 명-조선-일본의 무역을 제시했다. 『평안북도사』에서 조명무역과 일본산 은에 대한 서술은 여기서 그쳤다. 하지만 16세기 조명무역에 일본산 은을 결부시킨 서술은 1970년대 이래 일본학계의 관심 대상이었던 동아시아 교역망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평안북도사』의 이러한 지적은 당시로서는 참신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반도를 통한 은에 의한 일명관계”라는 언급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듯, 이나바의 시선은 궁극적으로 반도를 교량으로 한 대륙과 일본의 관계를 향해 있었다. 즉, 조명무역에서의 일본산 은에 대한 서술은 한반도를 매개로 섬나라 일본을 대륙의 역사적 전개와 결부시키고자 했던, 이나바를 비롯한 당시 일본인 연구자들의 한국사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sup>73</sup>

압록강이 국경이 됨에 따른 평북과 조선 정부의 부담을 제시하면서 일본을 대륙의 역사적 전개에 접목시키는 것과 더불어 『평안북도사』 조선시대 서술의 또 다른 한 축은 16세기 후반 이래 여진의 집결과 청의 건국, 조청관계 및 조선인들의 대청인식이었다. 이나바는 임진왜란 이후 청의 건국, 가도(假島)와 모문룡에 대한 사항을 간단히 언급하고 정묘·병자호란 당시 만선관계에 대한 서술을 이어갔다. 광해군은 여진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인조는 필요 이상으로 금의 반감을 돌워 승덕(崇德) 원년 남한(南漢) 포위의 굴욕을 받았다”는 것이다.<sup>74</sup> 이러한 서술은 만선사적 시각에 입각했다고 지적되는 이나바의 박사

71 平安北道廳, 1938, 위의 책, 71~75쪽.

72 平安北道廳, 1938, 위의 책, 50, 75쪽.

73 식민지기 일본인 역사가들이 일본사를 대륙과의 관계 속에서 해명하고자 했던 시도에 대해서는 정상우, 2021, 「식민주의 역사학에서의 고려 시대 연구-‘蒙古襲來’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141을 참고했다.

74 平安北道廳, 1938, 앞의 책, 64~65쪽.

학위 논문에서도 주장한 것이다.<sup>75</sup> 『평안북도사』에서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병자호란 이후 “반도와 만주 사이에 일종의 중립지대가 발생한 것”에 주목했다. 여기서 그는 장 바티스트 뒤알드가 1735년에 서술한 『중국지(中國志)』와 그 지도를 근거로 당시 설정한 중립지대가 압록강 밖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특필했다. 즉, 청은 조선과의 사이에 “공광지대(空曠地帶)를 두만강과 압록강 두 강 좌안, 지금은 만주국 영토에 설정”했으며, 뒤알드의 지도에 따르면 “이곳의 주권은 코레아(코레아), 즉 반도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조선 정부는 조선 초 4군 폐지 이후 200여 년 만에 압록강 상류 개척의 기회를 얻어 조계원(趙啟遠), 남구만(南九萬) 등은 그 개척을 주장했지만, 이는 “당론의 대립투쟁 앞에서” 수용될 수 없었다. 이는 조선 개국 이래 평북을 “여진인의 본지”라며 멸시한 결과, 이 지역과 북방에 대해 무지의 소치였다. 북방과 청에 대한 멸시와 무지는 현실에 대한 오판으로, 이는 다시 북방 개척 기회 상실로 이어졌다. 만주인에 대한 모멸은 인조 이후 더욱 심해져 조선인들 당파를 불문하고, 청의 멸망을 원하여 매년 사행도 “베이징의 어두운 면만 과장하고 운남(雲南) 오삼계(吳三桂), 대만 정씨의 거병 등은 진상을 전하지 않”았다. 청의 최전성기를 이끈 강희제가 장백산 측회(測繪)를 명했을 때도 조선인들은 이를 청이 패퇴하여 베이징에서 퇴각해 장백산 부근으로 돌아오기 위한 것이라며, 이때 벌어질 평북과 조선의 혼란을 우려하는 등 현실과 괴리된 채 자신들 멋대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춘극을 벌였다는 것이 이나바의 진단이었다. 즉, 고려 당시 북방-몽골에 대한 무지가 평북은 물론 한반도에 참화를 불러왔듯이 조선왕조 역시 북방을 멸시했기 때문에 북방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청과의 정계도 많은 의문을 남겨 훗날 “간도문제의 소지”를 배태했다는 것이다.<sup>76</sup>

북방에 대한 멸시는 현실에 대한 무지와 오판만이 아니라 평안북도에 대한 차별로 연결되었다. “이씨조선은 함경도 방면을 발적(發跡)으로 하”지만 “태조,

75 한명기, 2000, 『광해군: 탁월한 외교정책을 펼친 군주』, 역사비평사, 26~31쪽.

76 平安北道廳, 1938, 앞의 책, 66~71쪽.

태종 등이 그 정부를 한성에 창건하며 오직 삼남의 지지”를 구했는데, 삼남의 사람들은 “여진인을 ‘오랑캐’라고 천시”했다. 조선시대 내내 서북인들은 고위직에 오르지 못했고, 서북지역은 차별을 받았으며, 그 결과는 흥경래의 난이었다. 이 난 이후 평북의 인구가 급감했다는 것이 『평안북도사』에서 전하는 평안북도 역사의 최후였다.<sup>77</sup>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평안북도사』에서는 평안북도의 역사를 대륙과의 관계 속에서 정리했다. 유사 이래 고구려 당시 압록강을 통해 대륙과 활발히 교류하여 강의 좌우를 아울러 만선이 하나가 될 때 평북은 번영했다. 반면 압록강이 국경이 된 이래 참상이 거듭 연출되었으며, 특히 조선왕조 이후로는 평북지역에 대한 무지와 차별이 어우러지며 더욱 비참한 경관을 초래했다. 즉, 만주와 조선이 어우러졌을 때 번영했던 평북은 만주와 분리되며 퇴락을 거듭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나바는 흥경래의 난 언급 이후, 앞서 언급했듯이 평안북도 “고유문화”의 현창과 “국경”이 아닌 “국제하천”으로서 압록강의 면모를 되찾는 것이 평안북도의 과제라며 그 역사에 대한 서술을 마쳤다.

### 3. 평안북도 역사에 대한 연표이자 사료 요약으로서 『평안북도사』

앞서 언급했듯이 ‘개설’과 더불어 『평안북도사』를 이루는 또 하나의 축은 860여 쪽에 달하는 ‘대사지’이다. 고려시대 이래 19세기 말까지 평북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 관련 사건들을 편년에 따라 나열한 ‘대사지’는 제1 ‘고려시대’, 제2 ‘조선시대 전기’(조선 태조 원년~선조), 제3 ‘조선시대 중기’(광해군 즉위년~정조), 제4 ‘조선시대 후기’(순조 즉위년~1890년)로 이루어졌다. ‘대사지’가 고려시대부터 시작되는 것에 대해 이나바는 평안북도가 “본래 고구려에 속했지만 고구려 멸망 후 신라의 세력은 본도에 미치지 않았으며, 압록강으로 경계를 하게 된 것

77 平安北道廳, 1938, 위의 책, 80~8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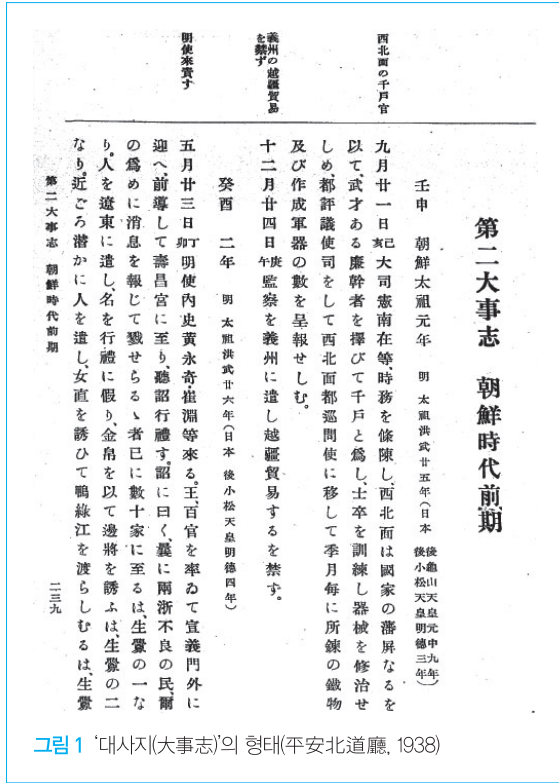


그림 1 '대사지(大事志)'의 형태(平安北道廳, 1938)

은 고려대에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sup>78</sup> 즉, 이나바는 만주의 일부였던 평북이 반도의 일부가 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대사지’를 편찬한 것이다. 한편 ‘대사지’에는 평안남도의 사향도 일부 포함하는데, 그 이유는 “평안도가 남북 2도의 구별이 없었고 그 치소가 평양이었기 때문”이다.

평북을 중심으로 평안도 관련 사건을 전하는 기사 3,738개로 이루어진 ‘대사지’는 연월일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기사 작성의 근거로 이나바는 “취재서목”이라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의 한국 사료는 물론 『요사』, 『금사』,

78 平安北道廳, 1938, 「例言」, 위의 책, 3쪽.

『원사』, 『명사』, 『청조실록』 등의 중국 사서들을 포함한 23종의 서적을 제시했다.<sup>79</sup> 이러한 ‘취재서목’은 대륙과 관계를 중심으로 서술된 ‘개설’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즉, ‘대사지’는 23종의 사서로부터 고려 건국 이후 19세기 말까지 평북 관련 내용을 발취·정리하여 시간순으로 나열한 연표이자 사료 요약집이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대사지’가 평북을 둘러싼 대외관계라 할 수 있는 내용으로만 채워진 것은 아니었다. 고려왕조 이래 1,00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을 포괄하고 있는 만큼 ‘대사지’는 평북과 중국, 거란, 몽골, 여진, 일본 등과 관련된 사항만이 아니라 평북지역 주요 관료들의 인사, 사민정책, 각종 지역 현황 등에 대한 사항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내적 사항에 관한 기사가 더 많다. ‘대사지’의 기사를 그 내용에 따라 크게 ‘대내적 사항’과 ‘대외적 사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몇 개의 주제에 따라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국방’으로 분류한 기사들은 군사적 시설이나 시책에 대한 것으로 대외적 사건의 성격을 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대사지’ 기사의

<표 1> 『평안북도사』 ‘대사지’ 기사의 주제별 분류

왕조	기사의 성격	대내적 사항					대외적 사항						
		경제	국방	정치	사회문화	합계	거란	몽골	여진	중국	일본	미국	합계
고려(총 400개 기사)		2	48	108	38	196	89	57	34	22	2	-	204
조선(총 3,338개 기사)		164	353	1,139	282	1,938	-	4	998	326	62	10	1,400

※ 대내적 사항에서 ‘국방’은 군대와 군사 물자, 城鎭柵保의 치폐, 군사적 방어책 등에 대한 것, ‘정치’는 人事, 각종 제도정비, 왕의 행차, 반란 등에 대한 사항이며, ‘사회문화’는 주요 시설 변화, 서북의 민심과 그에 대한 인식, 재해와 구휼, 위무 등에 대한 것이다.

79 이나바가 제시한 23종의 서적은 다음과 같다. 『三國史記』, 『三國遺事』, 『東國李相國文集』, 『高麗史』, 『高麗史節要』, 『三國史節要』, 『李朝歷代實錄』, 『日省錄』, 『同文彙考』, 『通文館志』, 『事大文軌』, 『東國輿地勝覽』, 『龍灣志』, 『懲悖錄』, 『燕巖集』, 『遼史』, 『金史』, 『元史』, 『明史』, 『清朝實錄』, 『盛京通志』, 『盛京典制備考』, 『朝鮮史』(朝鮮史編修會).

50%가량은 대내적 사항에 대한 것이라 하겠다. 대내적 사항 기사들은 ‘정치’ 해당 내용이 절대적으로 다수인데, 그 대부분은 인사 관련 사항이다. 대외적 사항은 대북방민족 관련, 특히 대여진 관련 기사가 대중 관계 기사를 압도한다. 이는 만산불가분이라는 시각에 입각하여 중일전쟁 당시 평북의 미래를 대륙과의 연결로 전망했던 이나바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평안북도 역사에 대한 통사인 ‘개설’은 그 이름처럼 개설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그 사료적 근거를 각주 형식으로 제시한 연구논문의 형태는 아니었다. 하지만 『평안북도사』는 ‘대사지’를 통해 평북을 중심으로 평안도의 역사적 흐름을 사료 요약 형태의 연표로서 방대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사지’는 ‘개설’의 서술을 사료적으로 얼마나 뒷받침해주는 것일까? 물론 ‘개설’에서 서술한 내용이 ‘대사지’의 기사와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며, 또 ‘대사지’ 기사가 인과관계가 아닌 편년순의 나열이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를 정량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개설’은 평안북도와 대륙과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국면들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때문에 ‘대사지’ 기사의 분포를 통해 그 대략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대사지’의 기사를 국왕별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를 보면 ‘대사지’의 기사는 특정한 시점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고려시대의 경우 현종, 고종, 공민왕대를 중심으로 기사가 작성되었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설’에서 고려시대는 북방민족의 침략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고려왕조가 평안북도 방면을 영유하여 압록강까지 확장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고려시대 ‘대사지’에서 집중하고 있는 현종과 고종대는 각각 거란과 몽골의 침략기였으며, 공민왕대는 원을 밀어내며 서북방면을 영유하던 시기이다. 실제로도 현종대 ‘대사지’의 대외적 사항 기사는 모두 거란의 동향이나 사신의 교환과 군사적 충돌에 관련된 것임은 물론 대내적 사항 기사도 서북지역에서 이루어진 축성 관련 기사가 다수이다.<sup>80</sup> 이는 고종과 공민

80 고려 현종대 대내적 사항 기사 15개 중 8개가 築城 관련이다.

〈표 2〉 『평안북도사』 '대사지' 기사의 국왕별 수

고려	태조	혜종	정종	광종	경종	성종	목종	현종	덕종	정종 (靖宗)	문종	순종	선종	헌종	숙종	예종	인종
	11(0)	—	2(0)	9(0)	1(0)	19(11)	7(0)	67(52)	3(1)	10(6)	12(3)	—	4(3)	—	3(1)	8(3)	24(7)
	의종	명종	신종	희종	강종	고종	원종	충렬왕	충선왕	충혜왕	충숙왕	충목왕	충정왕	공민왕	우왕	창왕	공양왕
2(1)	31(4)	—	1(1)	—	78(58)	10(5)	17(3)	1(1)	1(0)	5(0)	1(0)	—	49(32)	20(11)	—	4(1)	

조선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27(16)	3(3)	51(20)	380(124)	29(5)	21(2)	197(77)	9(1)	192(93)	144(48)	390(182)	4(1)	73(20)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430(185)	167(112)	247(198)	4(2)	39(14)	142(88)	16(4)	166(67)	92(27)	242(41)	80(20)	63(7)	130(43)	

※ ( ) 안의 숫자는 '대외적 사항'의 기사 수이다.

왕대 역시 마찬가지이다. 고종대는 금의 약화에 따른 거란 유민 야율유가(耶律留哥) 등의 반란 세력은 물론 포선만노(蒲鮮萬奴) 세력과 고려의 접촉 및 몽골과의 접촉·전투 관련 기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공민왕대는 서북방면에서 이루어진 홍건적과의 충돌과 고려군의 동녕부 일대 공격을 전하는 기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한편, 현종, 고종, 공민왕대처럼 기사가 집중되지는 않지만 인종과 명종대에는 다른 왕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기사가 실려 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대내적 사항 관련이 대부분이다. 주지하듯이 두 왕의 재위 당시에는 각각 묘청과 조위충의 난이 발생한 때이다. 그렇지만 대륙과의 관계를 위주로 평안북도의 역사를 정리한 '개설'에는 평북 밖이었던 서경(평양)을 중심으로 한 두 사건에 대한 서술은 없다. 다만 앞 절에서 서술했듯이 대어진 외교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조위충의 난이 한 차례 언급될 뿐이다. 하지만 평양이나 평남에서 벌어진 사건도 일부 포함하는 '대사지'에서는 묘청과 조위충의 난이라는 두 사건 관련 기사를 해당 시기에 다수 실었다.<sup>81</sup>

81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인종대 '大事志' 기사는 24개 중 17개가 대내적 사항 관련

‘대사지’ 기사의 90%에 달하는 조선시대의 경우 대내적 사항 관련 기사 1,938개에서 인사 및 지역사회 동향(학교 등의 시설·지역민심과 인식·재해와 구휼·농업·상업·조세 등 관련) 관련이 1,583개나 된다. 이러한 기사는 각각이 개별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는다. 때문에 ‘개설’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인과관계에 상관없이 날짜순으로 개별 사건을 제시한 ‘대사지’에서는 인사, 지역사회 동향과 같은 개별적 성격의 사건이 대거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성격의 기사는 모든 왕대에 걸쳐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조선시대 대외적 사항에서 이러한 성격을 보이는 기사로는 여진 관련 기사를 들 수 있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400개의 대외적 사항 관련 기사 중 여진 관련이 998개로 압도적인 수를 과시한다. 병자호란 이후에는 여진 관련 기사가 다수일 수밖에 없지만, 대여진 관련 사항은 조선왕조 전시대에 걸쳐 다수 등장한다. ‘개설’에서 압록강이 국경이 되며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여진인의 범월에 따른 평북인들의 고통을 들었던 것이 ‘대사지’의 조선시대 부분에는 개별 사건을 일일이 기록하는 형태로 대거 포함된 것이다.

앞 절에서 살펴본 ‘개설’의 조선시대 서술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사항은 ① 세종~세조대 실변정책 및 4군의 치폐, ② 16세기(중종~선조)를 중심으로 명을 상대로 한 사신 교환과 무역 및 이에 따른 폐해들, ③ 광해군에서 인조대에 이르는 후금(청)의 발흥과 이에 따른 변화들, ④ 숙종대 백두산 정계 및 이에 대한 당시의 논의, ⑤ 순조대 홍경래의 난의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조선시대 ‘대사지’ 기사의 분포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 다섯 가지 사항이 벌어진 시기의 기사 수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를 보면 태조에서 고종에 이르는 26명의 국왕 가운데 100개 이상의 기사가 실린 것은 세종 이하 12명이다. 이 12명 국왕 재위 당시 기사들을, 대내적 사항은 ‘국방’과 ‘정치 및 지역사회 동향’으로, 대외

---

이며, 이 17개 가운데 15개가 묘청의 난 관련 기사이다. 명종대는 31개 중 27개가 대내적 사항 관련일 만큼 대내적 사항의 비중이 높는데, 이 27개의 중 19개가 조위충의 난에 대한 것이다.

〈표 3〉 조선시대 ‘대사지’ 기사 100개 이상이 실린 국왕 12인의 기사 구성

국왕(기사 총수)	대내		대외	
	국방	정치, 지역 사회 동향	여진	여진 외
세종(380)	81	175	88	36
세조(197)	22	98	68	9
성종(192)	37	62	73	20
연산군(144)	32	64	48	0
중종(390)	36	172	122	60
선조(430)	28	217	46	139
광해군(167)	15	40	96	16
인조(247)	12	37	123	75
숙종(142)	9	45	88	0
영조(166)	8	91	67	0
순조(242)	8	193	41	0
고종(130)	13	74	31	12

※ 음영이 있는 부분은 ‘평안북도사개설(平安北道史概說)’의 조선시대 서술에서 부각되어 있는 다섯 가지 사건과 관계된 시기이다.

적 사항은 ‘여진’과 ‘여진 외’ 관련 기사로 분류·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을 보면 ‘개설’의 주요 내용인 위의 다섯 가지 사항이 벌어진 시기에 ‘대사지’의 기사 역시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느 왕대에나 다수를 차지하는 인사나 여진 관련 기사를 제외하면 세종과 세조대의 기사들은 북방으로의 사민과 성진책보의 설치, 행정적 변화에 대한 기사가 다수이다.<sup>82</sup> 중종대는 대

82 세종대 대내적 사항 기사 256개 중 인사 관련(49개), 매 등의 진상(4개), 재해와 구휼 관련(8개)을 제외한 나머지 기사들은 사민정책과 지역사회 민심, 성진책보의 증설, 군대 및 관련 제도 정비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대내적 사항과 관련하여 120개의 기사가 실린 세조대도 비슷하다. 세조대의 대내적 사항 기사 역시 인사 관련(44개), 개간·양전 및 특산물 진상(18개), 왕의 행차 및 재해·구휼(9개)을 제외

내적으로 성진책보 설치 관련 기사 외에 당시 유행했던 전염병과 이에 대한 구  
 홀 관련 기사가 23개 포함되어 있다. 또 대외적으로도 여진 관련 기사가 122건  
 으로 다수이지만, 명의 사신으로 인한 어려움이나 그와 관계된 무역 관련 사항  
 도 55건으로, 다른 시기에 비해 대 중국 관련 기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조선시대 ‘대사지’ 기사를 국왕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대내적 사항이  
 대외적 사항에 비해 조금 더 많은 것이 보통인데, 여진이 흥기하여 조선을 압박  
 했던 광해군과 인조대, 백두산 정계가 있던 숙종대는 그렇지 않다. 전자는 이나  
 바 개인의 학문적 관심과 직결된 부분이자 중국·여진과 조선 사이에 외교적·  
 군사적 문제가 벌어졌던 시기로, 이러한 사정이 ‘대사지’의 기사 구성에도 반영  
 되어 있다고 하겠다.<sup>83</sup> 반면 홍경래의 난이 발생했던 순조대는 대내적 사항 기  
 사가 순조대 전체의 83%를 점할 정도로 대외적 사항을 압도하는데, 난이 벌여  
 진 순조 11~12년(1811~1812) 두 해에 74개(37%)가 집중되어 있다.<sup>84</sup> 반면 ‘개  
 설’에서 주목한 5개 사항과 관계가 적은 시기이지만 성종, 연산군, 선조, 영조,  
 고종대에는 100개 이상의 기사가 실려 있다. 이들 국왕대 ‘대사지’에서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사나 지역사회 동향 및 대여진 관련 기사이다. 다만  
 조선 후기인 영조와 고종대의 경우 여진의 범월·무역과 관련하여 개시나 인삼  
 관련 기사가 등장한다는 것(영조),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관련하여 대미국 관계  
 기사가 등장(고종)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인사나 여진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시대 ‘대사지’에서 선조

---

하면 성진책보 치폐와 관련된 변화, 사민 등에 대한 기사들이다.

- 83 특히 인조대에는 毛文龍과의 관계로 인해 중국 관련 기사의 비중이 다른 시기에 비  
 해 높다. 한편, 백두산 정계 전체인 숙종 37년(1711)부터 淸人이 강변에 등장한다  
 거나 淸의 조사관 관련 기사가 등장하여 정계가 이루어진 38년(1712)까지 정계 관  
 련 기사(35개)가 집중되어 있다.
- 84 순조대 전체 기사에서 불과 17%를 점하는 대외적 사항 기사는 모두 여진의 범월과  
 무역에 대한 것으로 다른 왕대와 별다를 것이 없다.

대는 예외이다. 임진왜란으로 선조가 평양을 지나 의주, 정주 등 평북지역에 머무르는 동안 분조, 원군 요청, 평양성 공방 등의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선조대 기사들은 이와 관련된 것들이다. 선조대 대내적 사항 관련 기사들 역시 평북에서 거둔 승리에 기여한 평안도민에 대한 각종 포상과 위무, 전쟁으로 인한 지역 사회 민심, 군사 물자와 군대 확보·이동 등과 같이 왜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즉, 대륙, 특히 북방민족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서술된 ‘개설’에서 여진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언급되지 않았던 임진왜란 관련 사항 역시 ‘대사지’에는 관련 사료들이 꼼꼼하게 요약·제시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나바는 ‘대사지’의 조선시대 부분을 인사·지역사회 동향이나 평북에서 빈발했던 여진인과의 접촉 관련 기사를 포괄하며, 일본사와 직접 관계되는 임진왜란 관련 사항까지 정리하는 가운데 ‘개설’에서 자신이 정리한 주요 사건들이 벌어진 시기에는 그와 관련된 기사를 집중적으로 제시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안북도사』는 ‘개설’에서 정리한 평안북도의 역사에 대한 서술을 ‘대사지’를 통해 사료적으로 보강하면서도, 평안북도의 역사에 관심 있는 이들이 여기서 벌어진 사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연표이자 간략한 사료집의 성격까지도 가지고 있는 책자라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을 띠는 『평안북도사』를 편찬한 것은 이나바 1인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경성, 대구, 전주 등의 지방사들 역시 대표 저자가 있지만, 다른 이들이 보조했기 때문에 책의 서문에서 이들을 거론하며 감사의 말을 남긴 것에 비교해볼 때<sup>85</sup> 『평안북도사』에는 오직 이나바만 거론되기 때문이다. 앞서 밝혔듯이 『평안북도사』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완성된 것을 고려할 때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평북의 역사를 정리한 ‘개설’의 서술은 그다지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지만, 방대한 편년체 사료들에서 평북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

85 일례로 『大邱府史』의 경우 그 편찬에 경성제대에서 사학을 전공한 李仁燦의 도움이 있었으며, 『全州府史』 역시 전주의 통사인 ‘通說’은 小倉親雄이 서술했지만, 자료는 龜田正和 並松茂 2명의 교사가 수집했다.

지역 관련 사건을 선별·정리하여 편년에 따라 나열한 ‘대사지’의 편찬은 1명이 1년 안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언급한 ‘대사지’의 근거인 “취재서목” 23종 중 가장 마지막에 제시된 것은 편수회에서 간행한 『조선사』였다. 이는 1922년에 시작되어 1938년 3월에 마무리된 조선총독부 공식 역사편찬사업의 최종 결과물이었다. 『조선사』는 박혁거세의 탄생에서 청일전쟁 직전까지를 대상으로 방대한 사료로부터 주요 사건을 뽑아 사료를 편년에 따라 제시하거나(통일신라 이전까지) 사료의 내용을 정리한 ‘강문’을 시간순으로 제시하고, 해당 사건을 전하는 사료의 출처를 밝힌 형태인 한국사에 대한 방대한 사료집 혹은 색인집으로서 평가된다. 『조선사』의 고려시대는 한국 150종·중국 55종·일본 39종, 조선시대는 한국 1,224종·중국 59종·일본 264종, 이 외에도 미국·프랑스 등 21종이라는 방대한 사료에 기반하여 편찬되었다.<sup>86</sup>

이러한 『조선사』와 『평안북도사』 ‘대사지’는 왕조 중심으로 시대를 구분하면서, 특히 조선시대를 전기(태조~선조), 중기(광해군~정조), 후기(순조~청일전쟁 이전)로 3분한다는 점, 사료에서 관심 사항을 뽑아 편년에 따라 이를 요약·제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그 편찬자 이나바이다. 『조선사』 편찬 기간 내내 이를 총괄한 것이 이나바이기 때문이다. 그는 『조선사』의 내용에 가장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 편찬을 위해 편수회에서 수집한 사료의 현황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만약 『조선사』로 대변되는 편수회 수집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면 짧은 시간 안에 『평안북도사』를 완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사지’의 기사 3,738개를 『조선사』의 고려시대(3편) 및 조선 전기·중기·후기(4·5·6편)와 비교해보면 양자의 기사는 단 3개의 기사를 제외한 3,735개

86 『朝鮮史』에 대해서는 정상우, 2018, 앞의 책, 321~358쪽을 참고했다.

〈표 4〉 『평안북도사』 ‘대사지’와 『조선사』에서 일치하는 기사 수

일치	부분일치	일치하지 않는 것
3,699	36	3

※ ‘부분일치’라고 한 것은 『조선사』에서 비슷한 성격의 기사로 여러 지역의 사정을 길게 서술한 것에서 평북 사항만 뽑아 ‘대사지’에 수록한 것을 의미한다.

가 일치한다.<sup>87</sup> 〈표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대사지’에 실려 있는 기사의 거의 대부분은 『조선사』의 기사와 일치하며,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단 3개의 기사를 제외한 모든 기사가 『조선사』와 일치한다(99.92%). 또 일치하지 않는 3개의 기사는 모두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다. 그렇다면 ‘대사지’는 『조선사』를 저본으로 하여 『조선왕조실록』을 비교하면서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때문에 이나바는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평안북도사』를 편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대륙과의 역사적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된 『평안북도사』는 당시 중앙의 역사편찬사업이라 할 수 있는 『조선사』를 활용하여 사료적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평안북도가 대륙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역사적 전망을 확인한 것이었다.

#### IV. 맺음말

조선시대 이래 중앙정부에서는 물론 지역사회의 유림에 의한 지방사지 편찬은 강점 이후에도 유림은 물론 거류일본인이나 지방청에 의해 계속되었다. 조선 건국 이래의 지지에서 평북지역은 국방 관련 항목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는 조선 정부가 이 지역을 국방의 요충으로 인식했음을 드러낸다. 하지만 조선 후기 이

87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이 3,699개이며, 『朝鮮史』의 강문이 길거나 여러 지역의 사정을 전하는 경우 평안북도 사항만 떼어내어 ‘大事志’에 수록한 것이 36개이다.

래 평안도 지역의 사회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과거 급제자가 증가하자, 특히 평북에 해당하는 청북지역의 사찬읍지에는 국방의 요지로서만이 아니라 지역의 성리학적 가치 관련 사항이 격증했다.

강점 이후에도 평북 몇몇 군의 유림들은 애국계몽운동, 조선총독부의 유교 정책에 조용하며 과거와 같은 형태의 읍지 편찬을 계속했다. 이러한 한편에서는 평북도청이나 재평북 일본인 등에 의해서도 지방사지가 편찬되었다. 1920년대 부터 등장한 이러한 지방사지는 부진한 지역 경제개발을 위해 지역의 자원·경제 현황 및 관광지를 소개하는 성격의 책자로, 평북의 역사에 대해서는 단 2~3쪽으로 제시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1930년대 들어 경제공황과 대륙침략이라는 시대적 분위기에서 지방청과 거류일본인들에 의한 지방사지는 변화를 보였다. 그 해결과 수행을 위해 조선총독부 차원에서 지역 청소년들의 애향심과 향토애 증진을 위해 향토지 편찬을 조장하는 한편 제국일본의 팽창과 새로운 세계 질서의 구축이 전망되자 조선 각지의 지방청에서는 지방의 위상 역시 일신하기 위해 그 역사적 경과에 집중하는 지방사를 대거 편찬한 것이다. 이는 평안북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평안북도교육회에서 1933년 『평안북도향토지』를 간행한 것은 물론 평북도청에서도 1938년 『평안북도사』를 출간한 것이다. 향토애 증진과 새로운 제국의 판도에서 지역 위상의 재고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두 책은 평안북도의 역사적 전개에 대해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특히 『평안북도사』는 지역 현황 관련 서술이 전혀 없이 평안북도의 통사에 해당하는 ‘개설’과 고려 건국 이래 19세기 말까지 평북지역에서 벌어진 주요 사건들을 방대한 사료에 근거해 편년에 따라 제시한 사료 요약 성격의 연표이자 사료집인 ‘대사지’만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1930년대 중반 이래 지방청에서 발간한 지방사지들은 지역의 역사적 경과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도쿄나 교토의 제국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편수회나 경성제대 등 식민지 조선의 학술기구에 재직했던 전문 역사가를 기용하여, 방대한 사료에 근거해 해당 지방의 통사를 제시했다. 『평안북도사』도 한국사 관련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22년 이래 조선총독부에서 추진한

『조선사』 편찬을 총괄한 이나바가 편찬자였다. 그는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평안북도사』를 편찬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나바는 한국사에 미친 대륙의 영향력을 강조했던 만선불가분론자로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이 한국에 영유된 것은 긴 역사에서 보면 단기간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여진의 색채가 강하다며 한국 부임 이후 이 지역을 수차 방문해 여진의 흔적과 대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료를 발견했다. 이러한 이나바에게 『평안북도사』 편찬은 자신의 이론과 연구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나바는 『평안북도사』의 ‘개설’에서 평북의 역사에 대해 유사 이래 번영했지만 고구려 천도 이후 쇠락이 시작되었으며, 고려조 이후 대륙에서 떨어져 나오며 북방세력의 침입, 특히 조선 건국 이후 “국제하천”인 압록강을 “국경하천”으로 하게 됨에 따라 계속된 여진의 범월은 물론 중국 사신들의 행패와 명·청과의 무역에서 국부의 유출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고통에 시달린 과정으로 정리했다. 더군다나 “유교문화”에 입각한 조선왕조는 북방민족과 평북을 멸시해 이에 대해 무지했고, 그 결과 병자호란 이후 평북 개발을 통한 북방으로의 발전 기회를 잃은 채 왕조에 반하는 민란에 맞닥뜨렸다는 것이다. 평안북도가 이러한 고통과 쇠락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교문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여전히 평북에 살아 있는 “고유문화”를 현창하여 대륙의 일부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나바가 정리한 평안북도사의 결론이자 평북과 조선의 나아가야 할 미래였다. 이렇게 평북의 역사를 대륙에서 분리됨에 따른 고통과 쇠락의 과정으로 정리한 것은 한국사를 정체와 퇴보의 과정으로 보며 식민지화의 필연성을 이야기했던 당시 일본인 역사가들의 한국사 인식과 이나바 자신의 이론인 만선불가분론을 투영한 것이자 대륙침략이라는 당시의 시대 분위기에도 조응하는 것이었다.

이나바는 이에 그치지 않고 ‘대사지’에서 한국은 물론 중국 측 자료까지 포함하는 방대한 사료에서 고려 건국부터 19세기 말까지 평북을 중심으로 평안도 지역에 대한 사항을 발췌·정리하여 편년에 따라 3,738개의 기사를 제시했다. 평안북도 역사에 대한 방대한 연표이자 사료 요약인 이 기사들은 평안도 지역의

역대 인사, 지역사회 동향, 거란·여진·몽골·중국 등과의 각종 외교적·경제적 사항 등이 지역의 역사 관련 사항 전반을 포괄하면서도 ‘개설’에서 부각했던 국면이 벌어진 시기에 기사의 양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즉, ‘대사지’는 ‘개설’에서 그런 역사상을 뒷받침하는 사료적 근거이기도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안북도사』는 전문 역사가인 이나바가 ‘실증’이라는 근대 역사학의 방법론에 입각해 평안북도의 역사를 정리한 역사서였다고 하겠다. 그런데 ‘대사지’와 편수회의 『조선사』는 기사 형식, 시대구분 시점이 동일하며 이나바라는 편찬자를 공유했다. 뿐만 아니라 ‘대사지’의 모든 기사 중 불과 3개를 제외한 3,735개의 기사는 『조선사』와 일치한다. 즉, 『조선사』 편찬을 총괄하며 한국사 연구에 필요한 사료의 상황과 이용에 가장 정통했던 이나바는 『조선사』를 근거로 『평안북도사』 ‘대사지’를 작성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1938년 근대 역사학을 체현한 이나바가 편찬한 『평안북도사』는 평안북도의 역사적 특징을 대륙과의 관계 속에서 정리하며, 그 역사적 경과를 대륙과 멀어짐에 따른 고통과 쇠락의 과정으로 정리한 역사서였다. 평북의 역사는 대륙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역사적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상은 단순한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기 중앙의 역사편찬사업이라 할 수 있는 『조선사』에 의해 지지되었다. 대륙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띠게 된 평안북도의 역사는 식민권력에 의해 근대 역사학이 요구하는 ‘실증성’을 인정받은 사료들 위에 구축된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식민주의 역사학의 역사 서술이 근대 역사학으로서 속성을 더해갈수록 평안북도의 역사는 대륙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퇴색하는 역사로 전락했으며, 북방지역의 역사가 대륙사의 일부로서 인식될수록 한국사는 축소되고 왜소화할 수밖에 없었다.

## 참고문헌

### 자료

- 『高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警務彙報』, 『西北學會月報』, 『朝鮮』, 『朝鮮史』(朝鮮史編修會), 『朝鮮總督府官報』, 『朝鮮行政』.  
『邑誌』(韓國學文獻研究所 編), 『朝鮮時代私撰邑誌』(韓國人文科學院), 『韓國近代邑誌』 60(韓國人文科學院 編).

- 京城府, 1934~1941, 『京城府史』.  
群山府, 1935, 『群山府史』.  
稻葉岩吉, 1915, 『滿洲發達史』, 大阪屋號出版部.  
\_\_\_\_\_, 1922, 『支那社會史研究』, 大鏡閣.  
\_\_\_\_\_, 1925, 『朝鮮文化史研究』, 雄山閣.  
\_\_\_\_\_, 1938, 『稻葉博士還曆記念滿鮮史論叢』, 朝鮮印刷株式會社.  
仁川府, 1933, 『仁川府史』.  
子迫新太郎, 1937, 『躍進平北』, 新義州印刷株式會社.  
猪候耕夫, 1925, 『平北上流地方案内』, 國境通信社.  
平安北道教育會, 1933, 『平安北道郷土誌』.  
平安北道廳, 1924, 『平北紹介』.  
\_\_\_\_\_, 1938, 『平安北道史』.

### 단행본

- 정상우, 2018, 『조선총독부의 역사 편찬 사업과 조선사편수회』, 아연출판부.  
한명기, 2000, 『광해군: 탁월한 외교정책을 펼친 군주』, 역사비평사.

### 논문

- 류미나, 2007,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유림정책」, 『역사와 현실』 63.

- 文知恩, 2018, 「1930년대 일제의 향토교육론과 향토교육 시책」, 『歷史教育』 146.
- 양보경·김경란, 2001, 「일제 식민지 강점기 邑誌의 편찬과 그 특징」, 『응용지리』 22.
- 유준기, 2001, 「1910년대 전후 일제의 유림 친일화 정책과 유림계 대응」, 『韓國史研究』 114.
- 張信, 2022, 「근대 일본의 조선사 연구: 통계적 접근」, 『奎章閣』 61.
- 정상우, 2014, 「일제강점 말기 관찬 지방사에서의 지방 구현-『大邱府史』(1943)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45.
- \_\_\_\_\_, 2015, 「일제 하 ‘全州’ 지방의 지방사 편찬-『全州府史』(1942)를 중심으로」, 『韓國文化』 71.
- \_\_\_\_\_, 2017, 「일제 하 일본인 학자들의 한국사에 대한 通史의 이해-1930년대 중반의 저작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04.
- \_\_\_\_\_, 2020, 「20세기 전반 일본인 연구자들의 ‘만주사’ 만들기」, 『만주연구』 30.
- \_\_\_\_\_, 2021, 「식민주의 역사학에서의 고려 시대 연구-‘蒙古襲來’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141.
- 정옥재, 2016, 「1920년대 식민지 조선 유림과 일본의 湯島聖堂」, 『民族文化研究』 71.
- 최혜주, 2011, 「일제강점기 재조일본인의 지방사 편찬 활동과 조선 인식」, 『사학연구』 103.
- 河明竣, 2016, 「朝鮮後期~近代改革期 平安道の 政治·文物 伸長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식민지기 지방사 편찬을 통해 본 지방 구현과 식민주의 역사학의 전개

— 『평안북도사(平安北道史)』(1938)를 중심으로 —

정상우

사관을 중심으로 침략적 속성이 조명되었던 식민주의 역사학은 일본의 대륙침략만이 아니라 근대 역사학의 성립·확산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동시적으로 규정된다. 특히 1930년대, 제국 일본이 조선에 설치한 근대 역사학의 전개에 필요한 학술기구들(경성제국대학, 공문서관으로서 조선사편수회, 청구학회 등의 학회)은 그 성과물들을 본격적으로 제출했다. 대륙침략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 역시 식민주의 역사학의 변화를 추동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주의 역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지닌 침략성과 근대 역사학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1938년 평안북도청에서 이나바 이와키치에게 의뢰하여 편찬한 『평안북도사』는 제국 일본의 대륙침략, 식민주의 역사학의 주요 담론 중 하나인 만선사, 근대 역사학과 그 유지·확산에 필요한 학술기구 등이 교차하는 책자이다. 『평안북도사』를 검토한 결과 이 책자는 평안북도의 역사를 대륙과의 관계 속에서 정리한 역사서였으며, 이러한 역사상은 식민지기 중앙의 역사편찬사업인 『조선

사』에 의해 사료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식민주의 역사학의 역사 서술이 근대 역사학으로서 속성을 더해갈수록 평안북도는 대륙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퇴색하는 지방의 역사로 전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방의 역사가 대륙사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한국사의 왜소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주제어:** 『평안북도사(平安北道史)』, 『조선사(朝鮮史)』, 근대 역사학, 이나바 이와키치

## ABSTRACT

# The Development of Colonial Historiography through the Compilation of the Local History during the Colonial Period: with Emphasis on *History of North Pyongan Province*(1938)

Jeong Sangwoo

Historiography of Colonialism, whose invasiveness have been highlighted, is simultaneously defined in two factors: One is Japan's invasion to the continent. The other is the establishment and spread of modern historiography of Japan. In particular, academic organizations which was established by Japan in Joseon such like Keijo Imperial University(京城帝國大學), Society of Joseon History Compilation(朝鮮史編修會) and Cheonggu Association(靑丘學會), submitted their achievements in the 1930s. These, as well as continental invasions, were driving changes in historiography of colonialism.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historiography of colonialis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ts invasiveness and character as modern historiography at the same time.

*History of North Pyongan Province*(『平安北道史』) commissioned and compiled by the North Pyongan Province Office(平安北道廳) to Inaba Iwakichi(稻葉岩吉) in 1938, is a booklet that intersects Japan's invasion to the continent, *History of Manchuria-Joseon*(滿鮮史) which is one of the main discourses of historiography of colonialism, and academic institutions which is necessary for maintenance and spread of modern historiography. *History of North Pyongan Province* was a history book that summarized the history of North Pyongan Province in relation to the continent, and this historical story was supported by *Joseon History* compiled by Society of Joseon History Compilation in historical materials. In this sense, it can be seen that as the historical description of historiography of colonialism fortifies its attributes as modern historiography, North Pyongan Province has degenerated into a local history that fades without considering the continent.

**Keywords:** *History of North Pyongan Province, Joseon History, modern historiography, Inaba Iwakichi*

# 「정전협정」 이후 중국의 북한 경제지원과 북·중 관계, 1953~1957

이상민 |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강사

- I. 머리말
- II. 「정전협정」 이후 북한의 경제지원 요청 계획 추진
- III.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
- IV. 중국의 북한 경제지원 배경과 대북한 인식
- V. 맺음말



## I. 머리말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났다. 1950년 10월 19일, ‘항미원조(抗美援朝)’의 기치를 내걸고, ‘중국인민지원군(中國人民志願軍)’은 북한으로 출병했고, 10월 25일, 중국인민지원군의 제1차 공세(攻勢)가 시작되어 중국의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 서막이 올랐다.<sup>1</sup> 중국은 ‘항미원조전쟁’을 수행하면서 막대한 전쟁 비용이 투입됐고, 북한에 대한 원조도 제공했다.<sup>2</sup>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중국은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 지원을 감행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지원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됐다. 정전 이후에도 북한에 주둔했던 중국인민지원군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정치·군사·경제 측면으로 나눠 고찰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소련과 중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토대로 행한 압력으로 북한이 ‘주체’로 나가게 되었다고 규정했다. 휴전 이후 중국은 북한과 우호 증진의 일환으로 원조를 감행했고, 중국과 소련이 분쟁에 접어들면서 중·소 양국이 북한의 지지획득을 위해 원조를 제공했으며, 중국의 노력으로 북한에서 소련과 동등한 위상을 차지하게 됐다고 보는 견해도 제시됐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면서 북한의 정치와 경제 방면에 간섭하는

---

\* 투고: 2023년 1월 15일, 심사 완료: 2023년 2월 8일, 게재 확정: 2023년 2월 13일

1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2013a, 『毛澤東年譜(一九四九~一九七六)』第一卷, 1949年 10月~1952年,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16쪽;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所, 2014, 『抗美援朝戰爭史(第3版)』上卷,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364쪽.

2 ‘6.25전쟁’ 시기 중국의 지원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성과를 참조. 왕원주, 2011, 「한국전쟁기간 중국의 군비지출과 대북지원」, 『통일인문학논총』 제52집, 245~278쪽; 謝定元, 2017, 「한국전쟁시기 중국의 대북한 철도지원-전쟁지원에서 건설지원까지」, 『大東文化研究』 제98집, 39~62쪽.

정책이 유화정책으로 전환되어 추진됐다고 보는 견해와 함께 군사력의 영향을 받은 북·중 관계는 혈맹관계가 지속되었다고 보는 주장도 제기됐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정전 이후에도 중국인민지원군이 계속 주둔하여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억제했고, 중국 동부지역의 안정을 도모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인민지원군의 북한 주둔이 북한의 안보 부담을 경감시켜 북한의 국방비를 전후 복구 비용으로 유도하여 북한의 경제 재건에 지원했다는 점을 주목했다.<sup>3</sup>

중국과 소련의 공개 및 비밀 해제된 1차 사료를 활용하여 중국의 대북한 지원에 관한 연구도 시도됐다. 중국의 경제원조를 통해 첫째,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한층 더 긴밀한 관계로 발전했고, 둘째,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증대되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강화되었으며, 셋째, 북한에 대한 외교 기조가 확립됐다고 규정했다. 북한 실습생들이 중국으로 파견된 이후의 상황은 중국의 1차 사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sup>4</sup> 그러나 중국 측 입장만 강조하는 경도된 시각으로 인해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3 이종석, 1999, 「냉전기 북한-중국관계: 밀월과 갈등의 전주곡(1)」, 『전략연구』 제 17호, 153~180쪽; 박종철, 2007, 「순망치한의 혈맹: 중국의 북한 지원을 중심으로(1953~55년)」, 『사회과학연구』 31, 1~20쪽; 박영실, 2006, 「정전 이후 중국인민지원군의 對북한 지원과 철수」, 『정신문화연구』 105, 265~291쪽; 김보미, 2013, 「북한의 전후복구 시기 사회주의 진영의 원조와 ‘주체’의 제기(1953~1955)」, 『아세아연구』 제55권 4호, 305~349, 389쪽; 김동길·한상준, 2014, 「제2의 해방: 북한자주화와 1956~57년의 중국-북한관계」, 『국가전략』 제20권 2호, 69~108쪽; 임방순·한마크만균, 2015b, 「한국전쟁직후 중국의 대북한 원조에 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제5권 1호, 368~399쪽; 임방순·한마크만균, 2015a, 「중-소 분쟁 초기 중국의 대북한 원조-1956~1960년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 16권 제3호, 267~298쪽; 한상준, 2018, 「간섭정책」에서 「유화정책」으로-전후 중국의 대북정책, 1953~56」, 『중국근현대사연구』 80, 137~161쪽.

4 沈志華·董潔, 2011, 「朝鮮戰後重建與中國的經濟援助(1954~1960)」, 『中共黨史研究』 2011-03, 48~57쪽; 董潔, 2011, 「對在京朝鮮實習生的歷史考察: 基本狀況及政策變化」, 『華東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1-06, 50~56쪽; 沈志華, 2015, 「尊重與援助: 新中國對朝鮮外交方針的形成(1950~1955)」, 『歷史教學問題』 2015-06, 4~13쪽; 梁志, 2016, 「作為政治任務的技術培訓: 以在滬朝鮮實習生為例(1953~1959)」, 『黨史研究與教學』 2016-03, 24~33쪽.

남는다. 당시 마오쩌둥(毛澤東)은 중국 역대 왕조의 세계관인 ‘천조(天朝)’ 관념이라는 ‘상하(上下)’ 관계를 토대로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운용했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는데,<sup>5</sup>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한 정의는 통합적인 시각을 통해 당시 중국과 북한이 처한 국내의 환경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필자는 북·중 양국의 관계 기저에는 상호 ‘이해관계’가 작동한다고 생각한다.<sup>6</sup> 이 글에서는 당시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혈맹’의 기치 아래 ‘당대 당’의 관계를 토대로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을 통해 양국의 ‘이해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 과정을 통해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냉전 시기 중국이 대외관계를 어떻게 운용하였는지 그 일면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 시기를 1953년부터 1957년까지로 설정한 이유는 1953년 11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담판공보(中華人民共和國政府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代表團談判公報)」[이하 「북·중 정부대표단 담판공보(中朝政府代表團談判公報)」]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 기간을 1954년부터 1957년까지로 명시했기 때문이다.<sup>7</sup> 중국이 「제1차 5개년 계획」을 추진했던 시기와의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 생성된 ‘국가이익’이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으로 구체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 
- 5 이와 관련한 연구성과는 다음 연구저작을 참조. 선즈화 지음, 김동길·김민철·김규범 옮김, 2017, 『최후의 천조(天朝): 마오쩌둥·김일성 시대의 중국과 북한』, 도서출판 선인.
  - 6 이상민, 2022, 「北韓·中國의 國家關係 成立과 利害關係 衝突」, 『中國史研究』 第140輯, 223~253쪽.
  - 7 「中華人民共和國政府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代表團談判公報」, 『人民日報』, 1953.11.24, 第1版; 沈志華 主編, 2015, 「蘇聯駐中國大使館1956年工作報告(1957年 4月 18日)」, 『俄羅斯解密檔案選編: 中蘇關係』 第七卷, 1956.10.~1958.3, 上海: 東方出版中心, 214쪽.

관해서 소련, 중국, 북한 등의 1차 사료와 자료를 토대로 당시 중국과 북한 관계의 면모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 II. 「정전협정」 이후 북한의 경제지원 요청 계획 추진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휴전으로 전환됐다. 북한의 인민 경제 전반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전쟁으로 인해 입은 손실은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4,200억 원, 약 140억 루블에 달했다.<sup>8</sup> 공장 9,000여 개, 가옥 60만 호, 학교 5,000여 개, 병원 1,000여 개 등이 파괴됐다. 북한 중앙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북한 인민 경제의 주요 부문 생산액은 전쟁 이전 대비 공업과 교통운수업은 30~40%, 농업은 10%, 국가 합작사 기업과 공업 생산총액은 40% 이상 감소했다. 공업 부문에서 야금, 화학, 연료 등의 주요 시설이 전쟁으로 파괴되어 생산이 중단됐고, 농작물의 생산 감소 및 돼지 등의 가축도 대량 희생됐다. 1949년 대비 연료공업 77%, 야금 88%, 화학 80%, 에너지 생산 74%, 건축 54%, 방직 25%, 어업 70%, 임업 47%, 식품 12%가 줄었다. 제지 생산량은 82%로 급감하여 인쇄는 57%로 줄어들었다.<sup>9</sup> 생존에 필요한 물품 생산량의 대폭 감소로 인해 북한 인민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사회의 불안정은 확대됐다. 북한의 시급한 당면과제는 전후 복구와 경제 재건이었다.

1953년 8월 5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가 개최됐다. 8월

8 沈志華 主編, 2017, 「庫爾久科夫致波諾馬廖夫函: 提交關於朝鮮局勢的情報(1955年 4月 7日)」, 『中國周邊國家對華關係檔案系列: 朝鮮卷』第六輯(1954~1955年), 華東師範大學·周邊國家研究院, 2084쪽.

9 沈志華 編, 2003, 「蘇聯使館關於朝鮮在戰爭期間所受損失的報告(1954年 3月)」, 『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下冊,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341~1343쪽.

9일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정전협정」 이후 북한의 인민 경제 복구 및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sup>10</sup> 김일성은 제6차 전원회의에서 행한 보고에서 전후 북한의 복구를 세 단계로 나눠 시행한다고 역설했다. 먼저 6개월에서 1년 동안 인민경제 복구를 위한 준비가 1단계 계획이었고, 2단계에서는 3년 동안 인민 경제의 복구 발전 계획을 추진하여 전쟁 전 수준으로의 회복이 목표였으며, 3단계에서는 북한 공업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여 북한 공업화의 제1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sup>11</sup>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중공업의 우선 발전,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하는 방침도 결정했다. 북한은 자립 경제의 실현을 위해 중공업의 선행 발전을 토대로 농업과 경공업 분야에도 투자한다는 경제 건설 노선을 채택했다.<sup>12</sup>

북한의 파괴된 산업시설들의 복구와 경제 재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시급하고 중요했다. 북한은 먼저 소련에 지원을 요청했다.<sup>13</sup> 소련은 북한에 10억 루블 제공을 결정했다.<sup>14</sup> 1953년 8월 19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김일성이 이끄는 북한대표단의 소련 방문을 승인했다.<sup>15</sup> 1953년 9월

- 
- 10 조선 중앙 통신사 발행, 1955, 『해방후 10년 일지, 1945~1955』, 조선 중앙 통신사, 172쪽.
  - 11 김일성, 1997, 「모든 것을 전후인민경제복구 발전을 위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에서 한 보고(1953년 8월 5일)」, 『김일성전집』 16, 조선로동당출판사, 24쪽.
  - 12 김성보, 2012, 『북한의 역사 1- 건국과 인민민주주의의 경험 1945~1960』, 역사비평사, 175쪽.
  - 13 沈志華 編, 2003, 「蘇茲達列夫關於幫助朝鮮恢復大型企業的請示電(1953年 8月 7日)」, 『朝鮮戰爭：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 下冊, 臺北：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330쪽.
  - 14 沈志華 編, 2003, 「蘇共中央主席團關於同意援助朝鮮並答復金日成的決定(1953年 8月 10日)」, 『朝鮮戰爭：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 下冊, 臺北：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331쪽.
  - 15 沈志華 編, 2003, 「蘇共中央主席團關於同意朝鮮政府代表團訪蘇的決議(1953年 8月 19日)」, 『朝鮮戰爭：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 下冊, 臺北：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334쪽.

10일, 김일성과 북한대표단은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소련 정부와 북한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sup>16</sup>

소련에서 귀국한 김일성은 중국 방문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김일성은 중국 측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 목록 작성을 지시했다.<sup>17</sup> 1953년 11월 12일, 김일성은 대표단을 이끌고 베이징(北京)에 도착했다.<sup>18</sup> 11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주석 마오쩌둥은 북한의 정부대표단을 접견했다.<sup>19</sup>

1953년 11월 14일, 중국과 북한 양국 대표단의 회담이 시작되어 11월 22일까지 이어졌다. 중국 측에서는 정무원 총리 겸 외교부장 저우언라이(周恩來), 국가계획위원회 주석 가오강(高崗), 정무원 부총리 덩샤오핑(鄧少平), 무역부장 예지쑹(葉季壯) 등이 배석했다. 북한 정부대표단은 김일성 내각 수상,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박정애 부위원장, 홍명희 내각 부수상, 정준택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남일 외무상, 윤공흠 재정상, 김회일 철도상 등이 참석했다. 중국 주재 북한 임시 대리대사 허철과 중국 주재 소련 대리대사도 회담에 배석했다.<sup>20</sup> 회담에 참석한 구성원을 통해서 회담의 주요 의제는 경제 관련, 특히 북한의 전후 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월 15일, 마오쩌둥은 중공 중앙서기처 확대회의를 열어 북한과의 경제 및 문화 합작 협정에 대해 논의했다.<sup>21</sup>

16 조선 중앙 통신사 발행, 1955, 『해방후 10년 일지, 1945~1955』, 조선 중앙 통신사, 166쪽.

17 국사편찬위원회, 2013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임시대리대사 라자레프의 일지(1953년 9월 26일)」, 『北韓關係史料集』 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1, 국사편찬위원회, 75쪽.

18 「金日成元帥率領朝鮮政府代表團到京 周總理和中央人民政府各部門首長到車站歡迎」, 『人民日報』, 1953.11.13, 第1版.

19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2013b, 『毛澤東年譜(一九四九~一九七六)』 第二卷, 1953年~1956年 9月,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3쪽; 조선 중앙 통신사 발행, 1955, 앞의 책, 167쪽.

20 「中華人民共和國政府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代表團談判公報」, 『人民日報』, 1953.11.24, 第1版.

21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2013b, 앞의 책, 193쪽.

11월 22일, 중공 중앙은 민주당파, 공상업계 대표들을 소집하여 좌담회를 열어 북한과의 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했다.<sup>22</sup> 민주당파와 공상업계 대표들까지 소집하여 북한에 대한 지원 문제를 논의한 배경에는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지원도 염두에 둔 것이라 볼 수 있다.<sup>23</sup> 11월 23일, 중국과 북한은 양국 정부대표단 명의의 담판 공보를 발표했다.<sup>24</sup> 담판 공보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이 전쟁으로 입은 피해 복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12월까지 중국은 북한에 지원하고, 제공할 예정인 구인민폐(舊人民幣) 7조 2,900억 위안(약 14억 5,000만 루블) 규모 상당의 물자와 비용의 무상 제공을 결정했다.<sup>25</sup>

중국은 「정전협정」 체결 이전 ‘항미원조전쟁’에 참전하면서 북한에 대한 원조를 병행했다.<sup>26</sup> 중국은 1951년도의 북한 원조 계획에 따라 구인민폐 1조 6,000억 위안(약 2.37억 루블)을 지원했다. 1952년 중국의 예산에 북한 지원 예산 구인민폐 1조 5,000억 위안(약 2.22억 루블)을 책정했다. 중국인민지원군은 도로 복구와 농업 방면에 가용 노동력도 투입했다.<sup>27</sup> 마오쩌둥은 북한과 동독은

22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2000, 『陳雲年譜』中卷,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85쪽.

23 1951년 3월 14일, 귀모뤄(郭沫若)를 주석으로 하고, 쑹진(彭眞) 등을 부주석으로 하는 중국인민항미원조총회(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가 출범했다. 「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常委會舉行會議」, 『人民日報』, 1951.3.14, 第1版. 1950년 12월부터 1952년 1월 20일까지 중국인민항미원조총회가 모금한 액수는 구인민폐(舊人民幣) 1,828억 5,724만 1,030위안에 달했다. 「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公布一般抗美援朝捐款的情況」, 『人民日報』, 1952.2.23, 第4版.

24 「中華人民共和國政府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代表團談判公報」, 『人民日報』, 1953.11.24, 第1版.

25 「中華人民共和國政府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代表團談判公報」, 『人民日報』, 1953.11.24, 第1版.

26 1951년 4월, 3일 중국 江蘇省 북부 지역 인민들이 북한인민군과 인민 구호를 위해 인민폐 7억 5,000만 위안을 기부했다. 1951년 12월 5일, 중국 天津 소재 북한 난민 구제위원회에서 보낸 솜옷 13만 8,160벌이 북한에 도착했다. 조선 중앙 통신사 발행, 1955, 앞의 책, 153~154쪽.

적과 투쟁의 최전선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증송(贈送)’하는 것이고, 동독은 북한과 달리 전쟁을 겪지 않아 물물교환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sup>28</sup> 「정전협정」 이전, 중국은 북한과의 교역에 충분히 배려하면서도 원조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sup>29</sup>

1954년부터 1957년까지 4년 동안 중국은 북한에 구인민폐 8조 위안(약 16억 루블)을 무상으로 지원했다.<sup>30</sup> 1954년에만 구인민폐 3조 위안(약 6억 루블) 규모의 양곡, 석탄, 방직공업에 사용하는 원료, 건축자재, 농업 기구 등의 현물을 지원하기로 했다. 32킬로미터 직통선 건설, 파괴된 철도와 교량 복구, 철로 복구 등도 1954년도에 집행하는 구인민폐 3조 위안 원조에 포함되었다. 중국 정부는 1954년부터 1956년까지 3년 동안 중국 동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만 2,735명의 조선 난민 아동을 부양하고, 이 어린이들의 교육 사업에 종사하는 7,186명의 북한 사람과 가족 등 모두 3만 1,338명의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했다.<sup>31</sup>

1953년 11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경제 및

27 沈志華 主編, 2015a, 「毛澤東致斯大林電: 朝鮮希望停戰並得到糧食援助(1952年 2月 8日)」, 『俄羅斯解密檔案選編: 中蘇關係』第四卷, 1951.9.~1954.1, 上海: 東方出版中心, 176~177쪽.

28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2013b, 앞의 책, 180쪽.

29 中國社會科學院·中央檔案館 編, 2000a, 「對外貿易部副部長李哲人在第一次特派員會議上的總結(1953年 5月 19日)」, 『1953~1957 中華人民共和國經濟檔案資料選編』商業卷, 北京: 中國物價出版社, 1044쪽.

30 「中華人民共和國政府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代表團談判公報」, 『人民日報』, 1953.11.24, 第1版.

31 沈志華 編, 2003, 「費德林關於蘇聯和中國對朝鮮援助情況的調查報告(1953年 12月 31日)」, 『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下冊,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337~1338쪽. 1954년 북한의 예산에서 소련, 중국 등 국가들이 제공한 원조가 차지한 비중은 31.6%에 달했다. 沈志華 主編, 2017, 「庫爾久科夫致波諾馬廖夫函: 提交關於朝鮮局勢的情報(1955年 4月 7日)」, 『中國周邊國家對華關係檔案系列: 朝鮮卷』第六輯 (1954~1955年), 華東師範大學·周邊國家研究院, 2090쪽.

문화협력협정(中華人民共和國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經濟及文化合作協定)」이하 「북·중 경제 및 문화협력협정(中朝經濟及文化合作協定)」도 체결했다.<sup>32</sup> 「북·중 경제 및 문화협력협정(中朝經濟及文化合作協定)」에서는 양국이 서로 필요로 하는 경제와 기술 원조 및 협력을 진행함과 동시에 문화교류사업을 촉진하는 데 노력하고, 경제, 무역, 교통, 문화, 교육 방면의 구체적인 협정을 체결할 것을 합의했다.<sup>33</sup> 12월 9일, 중국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북·중 경제 및 문화협력협정」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sup>34</sup>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방안이 포함된 「북·중 정부대표단 담판공보(中朝政府代表團談判公報)」를 공포했고, 「북·중 경제 및 문화협력협정」 체결에 관한 심의를 신속하게 마무리했다. 「북·중 경제 및 문화협력협정」에 따라 1954년 1월 25일, 중국과 북한은 베이징에서 「북·중 국경 철로 협정(中朝國境鐵路協定)」을 체결했으며,<sup>35</sup> 1954년 4월 1일, 중국과 북한 직통 화물열차의 운행이 개시됐다. 1955년 4월 17일, 「압록강 수풍 수력발전소에 관한 협정(關於鴨綠江水豐水力發電廠的協定)」을 조인했고, 1956년 8월 13일, 「방송 협력 협정(廣播合作協定)」을 체결했다. 1957년, 북·중 양국은 3개의 협정을 체결했는데, 4월 10일, 「식물 검역과 농작물 병충해 예방 치료에 관한 협정(關於植物檢疫和防治農作物病蟲害協定)」, 12월 31일, 「과학기술 협력 협정(科學技術合作協定)」과 「수문 업무 협력 협정(水文工作合作協定)」이 조인됐다.<sup>36</sup> 「북·중 경제 및

32 「中華人民共和國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經濟及文化合作協定簽字」, 『人民日報』, 1953.11.24, 第1版.

33 「中華人民共和國政府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代表團談判公報」, 『人民日報』, 1953.11.24, 第1版; 국사편찬위원회, 2008, 「649.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 및 문화협력 협정」, 『北韓關係史料集』 62, 국사편찬위원회, 182쪽.

34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2000, 앞의 책, 190~191쪽.

35 「中朝國境鐵路協定在北京簽訂」, 『人民日報』, 1954.1.29, 第1版; 조선 중앙 통신사 발행, 1955, 앞의 책, 181쪽.

36 錢其琛主編, 2005, 『世界外交大辭典』 上 (A~L),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397쪽.

문화협력협정」은 협정 등의 체결을 통해 주로 북·중 양국의 경제 방면 협력을 지원했다.<sup>37</sup>

### Ⅲ.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

1954년부터 1957년까지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은 농업, 경공업, 면방직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중국은 중국인민지원군을 동원하여 북한의 재건사업 참여 및 북한 인민에 대한 지원을 수행했으며, 중국의 1953~1957 제1차 5개년 계획의 성공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제1차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자문했다.

#### 1. 중국의 대북한 농업·경공업 및 기술 지원

중국은 「정전협정」 이후 국방비 지출이 구인민폐 18조 위안 감소했다. 중국은 전쟁 수행에 투입한 예산을 경제 건설의 방향으로 전환하여 예산 계획성이 강화됐고,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했다.<sup>38</sup> 중국은 1953년 농업 분야 생산량이 크게 증대됐다. 곡식 생산량은 9% 증가하여 약 3,500억 근(약 1억 7,500만 톤)에 달했고, 면화 생산량도 16% 증가했다.<sup>39</sup>

중국은 북한의 부족한 식량을 제공했다. 1954년, 중국이 북한에 지원한 양

37 조선 중앙 통신사 발행, 1955, 위의 책, 181쪽; 「朝中貨物聯運開始」, 『人民日報』, 1954.4.3, 第1版.

38 中國社會科學院·中央檔案館 編, 2000b, 「李先念在全國財政廳局長會議上的報告(摘要)(1954年 10月 20日)」, 『1953~1957 中華人民共和國經濟檔案資料選編』財政卷, 北京: 中國物價出版社, 237쪽.

39 中國社會科學院·中央檔案館 編, 2000b, 「薄一波關於一九五三年國家預算的報告(摘要)(1953年 2月 12日)」, 『1953~1957 中華人民共和國經濟檔案資料選編』財政卷, 北京: 中國物價出版社, 145쪽.

곡은 13만 톤이었다.<sup>40</sup> 1954년 1월, 중국에서 들어온 식량 5만 톤은 노동자와 사무원들에게 공급했다. 1955년 1월, 양곡 5,800여 톤, 1955년 2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2,000여 톤의 양곡, 1955년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1만 4,000여 톤의 양곡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왔다.<sup>41</sup>

중국은 식량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 분야 지원 외에도 생활용품 및 건설 자재 등도 북한에 제공했다.

1954년 1월부터 중국은 북한 인민들이 필요로 하는 종이류, 철도용 침목, 생고무, 각종 농약, 시멘트, 석탄 등 각종 기자재, 화학제품, 각종 필수품을 포함한 5,000종에 이르는 물자를 수백 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보냈다. 그중 건축 자재와 일용 필수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954년 1월부터 3월 5일까지 30톤급 1만 8,900여 차량 분량의 일용 생필품과 화학제품 등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통해 중국에서 들어왔다.<sup>42</sup>

1954년 4월, 중국은 대접 1만 5,000여 개, 꽃 접시 1만 4,000여 개 등의 각종 접시와 수건 수습만 매 등 각종 일용품도 지원하여 북한 각 지역의 상점에 분배되어 북한 인민들에게 공급됐다. 1954년 5월 1일부터 20일까지 금속으로 만든 관, 각종 목공 도구, 화학제품, 의료도구와 의약품, 면직물, 모포, 양곡 등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왔다. 1955년 1월, 중국은 진동기 9대, 선박용 기관 4대, 직류 발전기 140대 등의 설비와 탄산 소다 200여 톤, 석고 2,000여 톤, 선철 160톤, 각종 석탄 2만 6,000여 톤, 생고무 수백 톤 등을 지원했다. 1955년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중국에서 30톤의 세탁비누, 각종 화학 원료 등이 들어왔다.

---

40 沈志華 主編, 2017, 「庫爾久科夫致波諾馬廖夫函: 提交關於朝鮮局勢的情報(1955年 4月 7日)」, 『中國周邊國家對華關係檔案系列: 朝鮮卷』第六輯(1954~1955年), 華東師範大學·周邊國家研究院, 2091쪽.

41 「중국 인민들의 지성어린 원조」, 『로동신문』, 1954.3.14, 3면; 「중국으로부터 다량의 양곡 계속 도착」, 『로동신문』, 1955.4.11, 1면; 「중국 인민들이 보내주는 원조 물자 계속 도착」, 『로동신문』, 1955.2.4, 1면; 「중국 인민들이 보내준 다량의 물자 계속 도착」, 『로동신문』, 1955.2.27, 1면.

42 「중국 인민들의 지성어린 원조」, 『로동신문』, 1954.3.14, 3면.

1955년 9월, 중국은 북한에 500여 톤의 환강, 100톤의 철판 등을 보냈다.<sup>43</sup>

1954년 6월부터 1955년 12월까지 중국은 북한에 방직공업과 경공업 등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를 파견하여 북한의 중공업성, 경공업성 산하 공장들의 복구 건설과 생산 부문 기술을 지원했다. 같은 시기 소련도 북한에 기술자들을 파견했는데, 주로 화학공업 등 중공업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이었다.<sup>44</sup>

1954년부터 1957년까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이 무상으로 지원됐지만,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55년 북한의 곡식 총 수확량은 수확 계획량 280만 톤에서 15% 감소한 250만 톤으로 예상됐다. 1956년 북한은 소련에서 5만 톤, 중국에서 20만 톤의 식량 요청을 결정했다.<sup>45</sup>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장 박영빈은 중국에서 15~20만 톤의 곡물이 들어오면 1955년 수확 전까지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소련 대사 수즈달레프에게 언급했는데,<sup>46</sup> 중국은 북한 측 요청한 곡식 20만 톤보다 적은 조 8만 톤, 콩 4만 톤, 쌀 3만 톤을 포함한 총 15만 톤만 공급했다.<sup>47</sup>

43 「중국 인민이 보내 주는 원호 물자」, 『로동신문』, 1954.4.9, 3면; 「계속 증대되는 중국 인민의 원조」, 『로동신문』, 1954.5.30, 1면; 「중국 인민들이 보내주는 원조물자 계속 도착」, 『로동신문』, 1955.2.4, 1면; 「중국 인민들이 보내 준 원조 물자」, 『로동신문』, 1955.5.25, 1면; 「형제적 중국 인민들이 보내 준 원조물자 계속 도착」, 『로동신문』, 1955.10.7, 1면.

44 「우리나라 복구 건설을 협조할 중국 기술자 일행 평양에 도착」, 『로동신문』, 1954.6.10, 2면; 「조선 인민의 전후 복구 건설을 도와 줄 중국 기술자들 또 도착」, 『로동신문』, 1954.7.17, 1면; 「소련과 중국의 화학 및 경공업 부문 기술자들 래조」, 『로동신문』, 1954.11.29, 1면; 「소련과 중국 및 불가리아에서 기술자들 계속 래조」, 『로동신문』, 1955.1.7, 1면; 「중국 기술자들 래조」, 『로동신문』, 1956.1.19, 1면.

45 국사편찬위원회, 2013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이바노프의 일지 (1955년 9월 5일)」, 『北韓關係史料集』 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1, 국사편찬위원회, 289쪽.

46 국사편찬위원회, 2013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수즈달레프의 일지 (1954년 8월 30일)」, 『北韓關係史料集』 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1, 국사편찬위원회, 172~173쪽.

47 국사편찬위원회, 2013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이바노프의 일지 (1955년 11월 25일)」, 『北韓關係史料集』 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 2. 중국의 대북한 방직 원료 지원

북한은 방직업의 발전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입는 문제를 해결코자 했다.<sup>48</sup> 방직업은 북한의 경공업 복구 발전에 중심이 되는 공업이었다.<sup>49</sup> 1953년 이후 3년 동안 북한은 적지 않은 방직공장이 복구되었으나 여전히 방직공장에서 필요한 원료가 부족했다.<sup>50</sup> 1956년 「인민경제 복구발전 3개년 계획」을 계획대로 달성하면 1957년부터 1억 미터의 방직물 생산이 가능하고 북한 주민 1인당 10 미터의 방직물을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sup>51</sup>

1954년 1월, 중국에서 면 8,500여 미터, 1954년 4월, 남색 면포 10만 미터와 각종 면직물, 1955년 1월, 508톤의 면사, 1955년 2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100톤의 면사, 50톤의 면화, 1955년 5월 1일부터 10일까지 24만 톤의 면사가 각각 북한으로 들어왔다.<sup>52</sup>

중국은 「북·중 경제 및 문화협력협정」에 따라 1954년부터 1955년까지 북

---

대사의 일지 1,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345~346쪽.

- 48 김일성, 1997a, 「잠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조선민주주의공화국 내각협의회에서 한 연설(1953년 10월 7일)」, 『김일성전집』 16, 조선로동당출판사, 109쪽.
- 49 김일성, 1997b, 「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과 고급군사학교의 과업-고급군사학교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한 연설(1954년 5월 14일)」, 『김일성전집』 17, 조선로동당출판사, 36쪽.
- 50 김일성, 1998b, 「황해제철소 복구건설을 다그치며 올해 강제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자-황해제철소 지도일군 및 모범로동자협의회에서 한 결론(1957년 1월 3일)」, 『김일성전집』 20, 조선로동당출판사, 3쪽.
- 51 김일성, 1997b, 「인민군대의 간부화와 군중, 병종의 발전전망에 대하여(발취)-조선인민군 군정간부회의에서 한 연설(1954년 12월 23일)」, 『김일성전집』 17, 조선로동당출판사, 414쪽.
- 52 「중국 인민들의 지성어린 원조」, 『로동신문』, 1954.3.14, 3면; 「중국 인민이 보내주는 원호 물자」, 『로동신문』, 1954.4.9, 3면; 「중국 인민들이 보내주는 원조물자 계속 도착」, 『로동신문』, 1955.2.4, 1면; 「중국 인민들이 보내준 다량의 물자 계속 도착」, 『로동신문』, 1955.2.27, 1면; 「중국 인민들이 보내 준 원조 물자」, 『로동신문』, 1955.5.25, 1면.

한에 면직물을 공급했다. 북한은 1956년부터 면직물 수요를 자체 생산으로 해결해야만 했다.<sup>53</sup> 1956년 4월 23일, 김일성은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에서 행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방직공업에 필요한 원료인 면화의 부족을 언급했다. 면화 재배 확대와 함께 갈대로 인견 펄프를 생산하는 연구사업 추진을 역설했다.<sup>54</sup> 전쟁으로 인해 파괴됐던 방직공장의 건설도 시급했다. 「인민경제 복구발전 3개년 계획」에 따라 평양에 6만 추 규모의 방직공장 건설을 추진했다.<sup>55</sup>

1957년, 북한은 면화 경작면적을 약 2만 4,750헥타르로 확장했지만 1957년 춘계 면화 경작 조건이 좋지 않아 풍작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북한은 제1차 5개년 계획에서 면화 경작면적을 약 6만 9,300헥타르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 계획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중국과 소련에 지원을 요청하고, 교역 관계를 수립했거나 앞으로 수립할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면화 수입을 추진하여 면화의 부족을 해소코자 했다.<sup>56</sup>

1957년 9월, 북한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매년 1만 2,000톤의 면화 공급을 요청했다. 중국은 내수 면화가 부족하여 5,000톤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매년 8,000톤 공급을 통보했다.<sup>57</sup> 1957년, 북한은 1인당 9미터의 천을 지급했다.

53 국사편찬위원회, 2013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수즈달레프의 일지(1954년 1월 28일)」, 『北韓關係史料集』 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1, 국사편찬위원회, 92~93쪽.

54 김일성, 1998a,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56년 4월 23일)」, 『김일성전집』 19, 조선로동당출판사, 139쪽.

55 김일성, 1997b, 「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과 고급군사학교의 과업-고급군사학교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한 연설(1954년 5월 14일)」, 『김일성전집』 17, 조선로동당출판사, 17쪽.

56 국사편찬위원회, 2013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푸자노프의 일지(1957년 6월 4일)」, 『北韓關係史料集』 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2, 국사편찬위원회, 129~130쪽. 1958년, 북한은 6만 헥타르에 면화를 재배하고, 모종용 화분에 면화를 심도록 결정했다. 모종용 화분에 면화를 심는 방식으로 더 많은 수확을 했다고 한다. 국사편찬위원회, 2013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푸자노프의 일지(1957년 10월 1일)」, 『北韓關係史料集』 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2, 국사편찬위원회, 251쪽.

북한 인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질 좋은 비단 수요가 늘어났다. 더 많은 천의 생산을 위해 목화 재배 방법을 지도했다.<sup>58</sup>

1958년 2월, 북한을 방문한 중국 국무원 총리 저우언라이가 평양 방직공장을 시찰할 때 북한 경공업 부상은 중국이 북한의 제1차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 기간에 면화를 공급해준다면 북한의 면화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저우언라이에게 말했다. 저우언라이는 북한에서 요청하는 면화량이 1년에 1만 톤 이내라면 중국의 면화 증산계획에 추가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sup>59</sup> 이는 1957년 9월 북한대표단이 방중했을 때 중국 측이 약속했던 매년 8,000톤의 목화 공급보다 2,000톤이 늘어난 양이었다.<sup>60</sup>

### 3. 중국인민지원군의 북한 재건 지원

‘항미원조전쟁’에 참전했던 중국인민지원군도 북한에 주둔하면서 전후 복구에 투입됐다. 특히, 건축물, 교량, 철교 등의 복구에 참여했다.

---

57 국사편찬위원회, 2013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푸자노프의 일지(1957년 10월 1일)」, 『北韓關係史料集』 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2, 1957.04.~1957.12, 국사편찬위원회, 251쪽; 국사편찬위원회, 2013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푸자노프의 일지(1957년 10월 16일)」, 『北韓關係史料集』 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2, 국사편찬위원회, 268쪽; 선즈화 지음, 김동길·김민철·김규범 옮김, 2017, 앞의 책, 596~597쪽.

58 김일성, 1998b, 「창성군 제3중학교 교원들과 한 담화(1957년 10월 11일)」, 『김일성전집』 201, 조선로동당출판사, 10쪽.

59 「周恩來總理訪問朝鮮期間允諾或交辦的事情(1957年 3月 1日~3月 30日)」,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檔案館 203-00111-04, 1쪽. 이 당안에는 1957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958년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저우언라이는 1958년 2월 14일 평양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60 국사편찬위원회, 20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푸자노프의 일지(1958년 2월 20일)」, 『北韓關係史料集』 7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3, 국사편찬위원회, 36쪽.

1954년 1월, 중국인민지원군은 중국에서 온 목수와 미장공과 함께 전쟁 중에 전사한 만경대 혁명 열사 유자녀 학원을 복구했고,<sup>61</sup> 1954년, 중국인민지원군은 김책 공대 복구도 지원했다.<sup>62</sup>

중국인민지원군 철도 부대는 파괴된 북한의 선로와 동선을 복구하고, 전화 교환 작업, 기관차 수리를 지원했으며, 공정 부대는 파괴된 대령강, 룡진강 철교 복구했다.<sup>63</sup> 1953년 10월 27일, 중국인민지원군 철도 부대가 축조한 평안북도 대령강 철교가 완공되어 개통식을 거행했다.<sup>64</sup> 1954년 6월 17일, 북한 인민군 제584부대 제1대대, 중국인민지원군 제31부대 직속 교량 대대 장병 전원이 투입되어 대동강 철교를 복구하여 개통됐으며, 1954년 6월 23일, 중국인민지원군 공병 제12지대 장병들이 투입되어 복구된 대동강 인도교 개통식이 거행됐다.<sup>65</sup> 1954년 7월 12일, 중국인민지원군의 지원으로 압록강 지류인 독로강 철교가 복구됐다.<sup>66</sup>

중국인민지원군도 북한에 식량을 지원했다. 군량미를 절약하여 북한 인민에게 제공했고, 농사 지원 사업에도 참여했다. 1955년 3월, 중국인민지원군은 1954년도의 군량미를 절약하여 500톤의 양곡을 북한 농민들에게 지원하여 북한 각 지역의 재해 농민, 군인 가족, 애국열사 유가족들에게 분배됐다. 중국인민지원군은 ‘항미원조전쟁’ 참전부터 1955년 3월까지 1,534만 1,839근, 약 7,670톤의 양곡을 북한에 지원했다. 중국인민지원군은 북한의 농번기에 발걸

61 「만경대 학원을 복구하는 의로운 중국 벗들」, 『로동신문』, 1954.1.25, 3면.

62 「중국 인민 지원군 용사들 김책 공대 복구 공사를 협조」, 『로동신문』, 1954.4.6, 3면.

63 「중국인민지원군철도부의 불멸의위훈」, 『로동신문』, 1954.2.24, 3면.

64 조선 중앙 통신사 발행, 1955, 앞의 책, 180쪽.

65 1954년 6월 17일, 김일성은 대동강 철교 복구를 지원한 중국인민지원군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대동강 철교 복구 사업에 참가한 중국 인민 지원군 제三四 부대 직속 교량 대대 전체 장병들에게」, 『로동신문』, 1954.6.19, 1면; 조선 중앙 통신사 발행, 1955, 위의 책, 182쪽.

66 조선 중앙 통신사 발행, 1955, 위의 책, 180, 181, 182, 183쪽.

이, 파종, 이앙, 제초, 추수, 저수지, 제방, 도로 등의 복구 및 관개 공사에도 노동력을 제공했다.<sup>67</sup> 6,000여 정보(町步), 약 5,940헥타르의 밭을 논으로 바꾸는 작업에 투입되기도 했다.<sup>68</sup>

#### 4. 중국의 북한 「제1차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 자문

중국은 북한의 요청으로 「제1차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자문했다. 1957년 4월, 북한은 「1954~195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 부흥 및 발전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sup>69</sup> 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제1차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 김일성은 1957년 5~6월경 「5개년 계획안」이 완성되면 중국에 「계획안」을 전달하고 조언을 청취하기로 했다.<sup>70</sup>

1957년 9월 12일, 북한 내각 부수상 김일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대표단이 베이징에 도착했다. 중국은 국무원 부총리 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리푸춘(李富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북한대표단을 맞이했다. 9월 13일, 북·중 양국은 북한 「제1차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계획안과 통상 문제들

67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이 조선 농민들에게 또 五백톤의 양곡 원조」, 『로동신문』, 1955.3.26, 1면; 「중국 인민 지원군 용사들 관개 공사를 협조하여 출동」, 『로동신문』, 1956.3.14, 1면; 「志願軍撥出節約的糧食贈送朝鮮受災人民 朝鮮各界代表團前往我志願軍歸國部隊駐地進行慰問」, 『人民日報』, 1955.3.29, 第1版.

68 「영농 사업을 협조하는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 『로동신문』, 1954.3.28, 3면.

69 김일성, 1998b, 「3개년인민경제계획실행총화를 잘할데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제3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57년 4월 6일)」, 『김일성전집』 20, 조선로동당출판사, 189~198쪽.

70 국사편찬위원회, 2013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이바노프의 일지(1957년 4월 9일)」, 『北韓關係史料集』 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2, 국사편찬위원회, 5쪽. 북한의 「제1차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성과를 참조. 조수룡, 2021, 「북한의 제1차 5개년 계획(1957~1961) 초안과 탈소련화의 개시」, 『歷史學報』 第249輯, 183~215쪽; 조수룡, 2022, 「악순환의 기원-1950년대 후반 북한의 재정위기와 제1차 5개년계획(1957~1961)-」,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12, 173~214쪽.

을 논의하는 회담이 시작되어 10월 6일 종료됐다. 중국은 북한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계획안에서 제시한 인민 경제의 발전 방향과 통계 수치를 승인했다. 중국은 「1953~1957 제1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겪은 경험을 북한 대표단에게 제공했다.<sup>71</sup>

1957년 10월 6일, 중국 국무원 총리 저우언라이는 북한 내각 부수상 김일과 북한대표단을 접견하면서 중국은 「제2차 5개년 계획」에서 중공업 우선 발전을 바탕으로 중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침에 대한 추진을 밝혔고, 농업의 발전 없이는 공업 발전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sup>72</sup> 중국은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농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조언했다. 중국은 북한이 5개년 계획을 자력으로 완수한다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sup>73</sup>

중국은 1954년부터 1957년까지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를 시행했다. 중국은 1954~1955년 2년 동안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지원을 감행했다. 1954년 1년 동안 구인민폐 3조 위안에 해당하는 원조물자를 북한에 보냈고, 1955년에는 상반기 신인민폐(新人民幣) 1억 8,000만 위안에 달하는 원조를 포함한 총 신인민폐 2억 5,000만 위안 규모의 물자를 지원했다.<sup>74</sup> 1956년은 9개월 동안 신인민

71 국사편찬위원회, 2013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푸자노프의 일지 (1957년 10월 23일)」, 『北韓關係史料集』 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2, 국사편찬위원회, 286~294쪽.

72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1997, 『周恩來年譜(1949~1976)』(中),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84쪽.

73 국사편찬위원회, 2013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푸자노프의 일지 (1957년 10월 16일)」, 『北韓關係史料集』 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2, 국사편찬위원회, 268쪽.

74 「중국인들의 거대한 원조」, 『로동신문』, 1955.10.1, 3면.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서기관 쿠르바츠키의 일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무역참사 슈에춘푸(薛春圃) 동지와의 대담록 (1957년 7월 26일)」, 『北韓關係史料集』 7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직원들의 일지와 대담록 2, 국사편찬위원회, 166쪽. 구인민폐(舊人民幣) 1만 위안은 신인민폐(新人民幣) 1위안이었다(中央檔案館·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2013, 「中共中央關於發行新的人民幣的宣傳通知(1955年 2月

폐 2억 1,970만 위안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여 지원계획의 90% 이상이 집행됐다.<sup>75</sup> 1957년, 중국은 신인민폐 5,000만 위안을 북한에 지원했다.<sup>76</sup> 1954년부터 1957년까지 중국은 북한에 구인민폐 약 8조 위안에 달하는 규모의 물자를 제공했다.<sup>77</sup> 1954년 10월 31일까지 중국은 구인민폐 8조 위안의 원조 가운데 구인민폐 3조 위안에 달하는 설비 기자재와 생활필수품을 북한에 지원했다. 시멘트 13만 1,400톤 등의 시설 자재와 석탄 59만 197톤 등 생산 원자재를 지원했다. 전동기 365대, 기관차 70대, 객차 210량, 화물차 3,200여량, 면포 4만 2,208킬로미터, 양곡, 면화 등을 제공했다.<sup>78</sup> 1953년 11월, 중국은 1954년에만 구인민폐 3조 위안(6억 루블)에 해당하는 물자를 북한에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했다. 이는 중국이 1954년부터 중공업을 먼저 복구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농업과 경공업의 발전 목표를 추진한 「인민경제 복구발

7日)』, 『中共中央文件選集(1949年 10月~1966年 5月)』第十八冊 1955年 1月~3月, 北京:人民出版社, 120~126쪽. 중국은 1955년 3월 1일부터 신인민폐(新人民幣)를 발행했다(「中國人民銀行遵照國務院的命令 今起在全國發行新人民幣 首都人民銀行對兌換新幣作了具體安排」, 『人民日報』, 1955.3.1, 第1版). 중국의 신인민폐의 사용으로 루블 환율도 바뀌었다. 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저작을 참조. 선즈화 지음, 김동길·김민철·김규범 옮김, 2017, 앞의 책, 397쪽.

- 75 沈志華 主編, 2015b, 「蘇聯駐中國大使館1956年工作報告(1957年 4月 18日)」, 『俄羅斯解密檔案選編: 中蘇關係』第七卷, 1956.10.~1958.3, 上海: 東方出版中心, 214쪽;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 무역 참사관 슈에춘푸도 1956년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은 (신인민폐) 2억 위안 규모라고 밝혔다. 국사편찬위원회, 2015, 위의 책, 166쪽.
- 76 「普黎諾夫與橋曉光的談話紀要: 朝鮮代表團訪華及中國的援助(1957年 10月 23日)」, 沈志華 主編, 2015b, 『俄羅斯解密檔案選編: 中蘇關係』第七卷, 1956.10.~1958.3, 上海: 東方出版中心, 327쪽.
- 77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 무역 참사관 슈에춘푸(薛春圃)는 중국의 대북한 지원은 상품 공급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곡식, 석탄 및 코크스와 강판, 목화화 및 면사 등이 북한 측에 제공한 품목이었다고 밝히면서 1954년 (신인민폐) 3억 위안(구인민폐 3조 위안), 1955년 (신인민폐) 2억 5,000만 위안, 1956년 (신인민폐) 2억 위안 규모의 상품을 제공했다고 소련 대사관 관계자에게 언급했다. 국사편찬위원회, 2015, 위의 책, 165~166쪽.
- 78 「의료운 중국 인민의 원조」, 『로동신문』, 1954.11.23, 2면.

전 3개년 계획」<sup>79</sup>을 중국이 적극 지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한은 1954년 11월, 국영 및 협동조합 기업소들의 총생산액은 1953년 상반기 대비 1.5배 증가했다. 중공업 부문 생산액은 170%, 전력 생산은 2.5배, 각종 농기구 생산은 약 2~4배, 생활필수품 생산은 1.5~2배 성장했다. 1954년도 3, 4분기 공업 총생산액은 기한 전에 초과 달성했다. 1953년 3, 4분기에 비해 벽돌은 30배, 시멘트는 10배 증가했다. 파종 면적은 1953년 보다 1만 8,000여 헥타르가 늘어났고, 양곡 작물의 총생산량은 32%가 증가했다.<sup>80</sup>

1957년 5월 6일, 김일성은 북한 주재 중국 대사 차오샤오광(喬曉光)을 접견하고, 북한의 경제 건설 상황과 인민의 생활에 관해 언급했다. 김일성은 북한의 북부 지역에서는 350만 톤의 양식 생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1956년, 북한은 287만 톤의 양곡을 생산했다. 1957년은 290만 톤의 양식 생산 목표를 세웠는데, 각 지역의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340만 톤의 목표를 세웠다. 정전 이후 북한 노동자의 급여는 늘어났고, 물가는 내렸으며, 일용품의 공급이 늘어나 노동자의 실제 급여는 전쟁 이전보다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sup>81</sup>

#### IV. 중국의 북한 경제지원 배경과 대북한 인식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으로 거둘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

79 김일성, 1997a, 「신년축하연에서 한 연설(1954년 4월 1일)」, 『김일성전집』 16, 조선로동당출판사, 305쪽.

80 김일, 「조선 인민과 형제적 중국 인민과의 영원 불멸의 친선」, 『로동신문』, 1954. 11.23, 2면.

81 「關於目前朝鮮經濟建設和人民生活的情況(1957年 5月 22日)」, 新華通訊社編, 『內部參考』第2210期, 22~23쪽.

안보 측면에서는 정전 이후 중국의 대외 정세가 연착륙되기를 희망했다.<sup>82</sup> 1953년 7월 29일, 마오쩌둥은 중국 주재 소련 대사 쿠즈네초프(V. V. Kuznetsov)에게 미국이 휴전을 제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치 및 군사적 측면에서 언급했다. 군사적 관점에서도 한반도의 한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약 1년 동안 미국과 전쟁을 지속하여 국경을 확대할 수 있지만 계속 남하하면 한국의 동해안과 서해안 측면이 상대에게 노출되어 위협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sup>83</sup> 중국인민지원군의 휴전선 이남 진군은 중국에 불리하다는 점을 표명한 것이고, 휴전선 이북의 안정 도모는 중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이었다. 1953년 7월 30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노력으로 ‘정전’이 실현된 것에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sup>84</sup> 마오쩌둥은 고대했던 ‘정전’의 현실화에 만족하는 것을 중공 중앙의 명의로 발송한 서한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1957년 12월 14일, 마오쩌둥은 항저우(杭州)에서 미얀마 우호대표단과 경제시찰단을 접견했다. 마오쩌둥은 인도,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모두 중국에 우호적인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서남부 지역은 안심할 수 있고, 북부 지역은 소련, 북한, 몽골인민공화국이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중국의 동부지역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sup>85</sup>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가 맞닿아 있고, 한반도의 남부지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

- 
- 82 김동길·한상준, 2014, 앞의 글, 70~78쪽; 김동길, 2020, 「개혁개방 이전 냉전 시기(1949~1980), 중국의 한반도 정책 연구」, 『歷史學報』第245輯, 285~291쪽.
- 83 沈志華 主編, 2015a, 「庫茲涅佐夫致外交部電: 毛澤東談停戰問題(1953年 7月 29日)」, 『俄羅斯解密檔案選編: 中蘇關係』第四卷, 1951.9.~1954.1, 上海: 東方出版中心, 395쪽.
- 84 沈志華 主編, 2015a, 「中共中央致蘇共中央電: 感謝蘇聯為實現停戰的努力(1953年 7月 30日)」, 『俄羅斯解密檔案選編: 中蘇關係』第四卷, 1951.9.~1954.1, 上海: 東方出版中心, 396쪽.
- 85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2013c, 『毛澤東年譜(一九四九—一九七六)』第三卷, 1956年 10月~1959年 3月,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62~263쪽.

음을 마오쩌둥이 언급한 것인데, 한반도 북부지역의 북한은 중국의 동북지역과 동부 해안지대 안보상 매우 중요한 곳이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은 경제 측면에서 수풍 수력발전소가 제공하는 전력을 중시했다.<sup>86</sup> 1955년 3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는 중국 측이 제안한 수풍 수력발전소 공동 운영 및 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북한과 중국의 수풍 수력발전소 공동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있지만 중국과의 우호를 위해 대등한 원칙 위에 발전소의 공동 관리를 결정했다.<sup>87</sup> 북한이 중국의 경제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전력 제공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북·중 양국이 수풍 수력발전소를 공동으로 소유한 이후 중국 동북 지역은 기존 10만 킬로와트 전력에서 20만 킬로와트로 늘어난 전력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sup>88</sup>

86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 보고에 의하면 수풍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중국 동북지역에 공급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지속하는 역할을 하지만 중국은 전력 공급에 대한 고려보다 북한에 대한 정치 및 군사의 이해관계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공산당에게 수풍 수력발전소는 수풍댐이 중국공산당의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적 이익의 주요 측면이 아닌 일부일 뿐이라는 견해도 제시했다. 국사편찬위원회, 2003, 「Intelligence Report, Office of Intelligence Research DEPARTMENT OF STATE, No.6436, October 26, 1953」, 『韓國現代史資料集成』 56 미국무부 정보조사국(OIR) 한국관련 보고서4, 국사편찬위원회, 302~305쪽.

87 국사편찬위원회, 2013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수즈달레프의 일지(1955년 3월 1일)」, 『北韓關係史料集』 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1, 국사편찬위원회, 245, 247쪽. 1957년, 수풍 수력발전소 5호 발전기 조립이 완료되어 발전기와 터빈이 가동됐다. 1957년 6기의 터빈이 가동되어 매일 43~45만 킬로와트의 전기가 생산됐다. 6기의 터빈 가운데 2~3기 중국을 위해 가동 중이었다. 1957년 수풍 수력발전소는 1.5~2m 두께의 콘크리트 제방 증축이 중국 측이 제공한 노동력과 장비로 진행되어 북한의 「1차 5개년 계획」에 의해 1958년 완공이 목표였다(국사편찬위원회, 2013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푸자노프의 일지(1957년 7월 25일)」, 『北韓關係史料集』 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2, 국사편찬위원회, 165쪽). 1955년 5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 주더(朱德)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대표단이 북한 방문 마치고 귀국 길에 수풍 수력발전소를 방문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대표단 구성 방직 공장과 수풍 발전소를 참관」, 『로동신문』, 1955.8.26, 1면.

88 中國社會科學院·中央檔案館 編, 2000c, 「阿爾希波夫: 對中國發展經濟的第

1958년 2월, 김일성은 방북 중인 중국 국무원 총리 저우언라이와의 회담에서 일본이 실측한 내용을 인용하여 압록강에는 수풍 수력발전소 외에 3개의 수력발전소를 더 지을 수 있다고 언급했고, 저우언라이는 앞으로 중국과 북한 양국이 공동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답했다.<sup>89</sup> 저우언라이는 중국이 산업 발전으로 대량의 전기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운봉 수력발전소 건설 추진을 요청했다. 1958년 8월 14일, 저우언라이는 북한 내각 부수상 이주연과 북한대표단을 접견하면서 중국과 북한 양국의 경제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 운봉 수력발전소의 건설은 양국의 경제 협력 의제 중 하나였다.<sup>90</sup> 저우언라이는 운봉 수력발전소의 조기 완공을 희망했다.<sup>91</sup> 저우언라이가 김일성에게 중국인민지원군이 철군하기 전에 북한인민군이 수행하는 건설공사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민족보위상 김광협에게 중국인민지원군 참모부에 지원 요청 계획 제출을 주문한 점도 운봉 수력발전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전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sup>92</sup>

1958년 9월 28일, 김일성은 소련 대사 푸자노프(A. M. Puzanov)에게 얼마

---

一個五年計劃(草案)的意見(1955年 4月 19日)』, 『1953~1957 中華人民共和國經濟檔案資料選編』綜合卷, 北京: 中國物價出版社, 403쪽; 中國社會科學院·中央檔案館 編, 2000c, 『國家計委黨組: 關於蘇聯顧問和蘇聯國家計劃委員會對我國發展國民經濟的第一個五年計劃草案的意見的研究結果的報告(1955年 6月 9日)』, 『1953~1957 中華人民共和國經濟檔案資料選編』綜合卷, 北京: 中國物價出版社, 419쪽.

89 「周恩來總理訪問朝鮮期間允諾或交辦的事情(1957年 3月 1日~3月 30日)」,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檔案館 203-00111-04, 2쪽; 國史편찬위원회, 20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푸자노프의 일지(1958년 10월 5일)」, 『北韓關係史料集』 7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3, 국사편찬위원회, 235쪽.

90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1997, 앞의 책, 161쪽.

91 沈志華 主編, 2015c, 「普欒諾夫與金日成會談紀要: 蘇聯和中國與朝鮮的關係(1958年 9月 28日)」, 『俄羅斯解密檔案選編: 中蘇關係』 第八卷, 1958.4.~1959.10, 上海: 東方出版中心, 256쪽.

92 「周恩來總理訪問朝鮮期間允諾或交辦的事情(1957年 3月 1日~3月 30日)」,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檔案館 203-00111-04, 1쪽.

전 중국과 60만 킬로와트 규모의 운봉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언급했다. 운봉 수력발전소의 설계와 건설은 북한이 맡고, 중국은 몇 명의 설계전문가 파견과 함께 수차, 발전기, 변압기, 전기장비, 건설장비를 제공하기로 했다. 북·중 양국은 건설 비용을 같은 비율로 지출하고, 운봉 수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도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북한이 투입하는 노동력, 자재, 설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에 10년 기한의 차관도 제공했다.<sup>93</sup> 중국이 대북 경제지원을 추진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는 북한으로부터 전력 지원을 받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 이는 북·중 양국의 경제 방면의 이해관계가 부합되는 요인이기도 했다.

앞서 살펴본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중국의 대북한 인식은 중국인민지원군을 둘러싼 북·중 양국의 인식, 1957년 중국이 북한 5개년 계획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 북한 주재 소련 대사의 중국과 북한 전시회 관람에서 나타난 북·중 상호 인식 사례들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인민지원군이 북한 철도, 교량 복구에 참여한 것은 중국의 북한 경제지원의 일환으로서 북·중 관계 발전에 긍정 요인이었지만, 북한에 주둔 중인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한 부정 요인도 병존했다.

소련 대사 푸자노프는 조선노동당 부위원장 박정애에게 중국인민지원군과 북한 주민 관계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다. 박정애는 중국인민지원군의 오만한 행동은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라 근절됐고, 북한 인민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중국인민지원군을 총살했다고 전했다. 박정애는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해 긍정 평가를 했지만,<sup>94</sup> 김일성은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 준비

93 국사편찬위원회, 20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푸자노프의 일지 (1958년 9월 28일)」, 『北韓關係史料集』 7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3, 국사편찬위원회, 213, 221쪽.

94 국사편찬위원회, 2013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푸자노프의 일지 (1957년 7월 29일)」, 『北韓關係史料集』 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2, 국사편찬위원회, 173쪽.

와 관련하여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었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으로 인해 철도의 운송 과부하가 발생했고, 1955년 3월 한 달 내내 북한의 건설에 투입해야 하는 자재 운송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 도시의 모든 건설이 중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sup>95</sup> 1957년 12월 20일, 중국 대사 차오샤오광이 소련 대사 푸자노프에게 중국인민지원군의 철수를 통해 일부 중국인민지원군의 군기 위반으로 발생하는 북한 주민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는데,<sup>96</sup> 중국은 이미 북한이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sup>97</sup>

둘째, 1957년, 중국의 북한 「제1차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자문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중국은 북한의 「제1차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1954~1955년도의 경제지원처럼 적극적 자세가 아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1957년 5월 6일, 김일성은 중국 대사 차오샤오광을 통해 중국 정부에게 「제1차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안」 협의를 위한 북한대표단의 방중을 요청했으나 중국의 반응은 없었다.<sup>98</sup> 중국은 1957년 5월 28일에 이르러서야 북한 측의 제안에 응답했다. 중국 정부는

95 국사편찬위원회, 2013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수즈달레프의 일지 (1955년 3월 1일)」, 『北韓關係史料集』 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1, 국사편찬위원회, 234~236쪽.

96 국사편찬위원회, 20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푸자노프의 일지 (1957년 12월 20일)」, 『北韓關係史料集』 7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3, 국사편찬위원회, 20쪽.

97 沈志華 主編, 2015b, 「蘇聯駐中國大使館1956年工作報告(1957年 4月 18日)」, 『俄羅斯解密檔案選編：中蘇關係』 第七卷, 1956.10.~1958.3, 上海：東方出版中心, 213~214쪽.

98 국사편찬위원회, 2013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푸자노프의 일지 (1957년 5월 20일)」, 『北韓關係史料集』 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2, 1957.04.~1957.12, 국사편찬위원회, 96~97쪽; 국사편찬위원회, 2013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푸자노프의 일지(1957년 5월 22일)」, 『北韓關係史料集』 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2, 국사편찬위원회, 99쪽.

1957년 7월 북한대표단의 중국 방문에 동의했다.<sup>99</sup> 이는 1956년 '8월 종파사건'이 발생했고, 1956년 9월, 중국과 소련이 '8월 종파사건'에 대해 공동 개입하여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경색된 점과 연관이 있다.<sup>100</sup>

중국의 북한에 대한 소극적이고 거리 두기 자세는 북한 주재 중국 대사 차오샤오광을 통해 구현됐다. 1956년 4월 평양에 부임했던 차오샤오광은 북한 정부 관계자와의 만남을 회피했다. 북한은 차오샤오광에 대한 불만이 클 수밖에 없었다.<sup>101</sup> 차오샤오광은 북한 정부 관계자와의 접촉은 적었지만, 소련 대사와는

99 국사편찬위원회, 2013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푸자노프의 일지(1957년 5월 28일)」, 『北韓關係史料集』 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2, 국사편찬위원회, 110~111쪽.

100 1956년 '8월 종파사건'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성과를 참조, 이종석, 2010, 「중·소의 북한 내정간섭 사례연구: 8월 종파사건」, 『세종정책연구』 제6권 2호, 381~419쪽; 김동길·한상준, 2014, 앞의 글, 69~108쪽; 이재훈, 2017, 「1956년 8월전원회의 직후 중·소의 개입과 북한 지도부의 대응」, 『역사비평』 119, 334~388쪽.

101 1957년 5월 22일, 북한 외무상 남일은 소련 대사 푸자노프(A. M. Puzanov)에게 중국 정부로부터 북한대표단 방문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재차 언급하면서 중국 대사 차오샤오광(喬曉光)과 드물게 교류하고 있음을 밝혔다. 1957년 7월 12일, 북한 부수상 겸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의완은 중국 대사 차오샤오광에 대한 불만을 소련 대사 푸자노프에게 토로했다. 박의완은 차오샤오광이 북한 측과의 교류를 추진하지 않아 북중 양국 간 우호 관계를 수립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대사라고 비판했다(국사편찬위원회, 2013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푸자노프의 일지(1957년 5월 22일)」, 『北韓關係史料集』 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1, 국사편찬위원회, 105쪽; 국사편찬위원회, 2013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푸자노프의 일지(1957년 5월 22일)」, 『北韓關係史料集』 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2, 국사편찬위원회, 158~159쪽). 북한 주재 중국 대사 차오샤오광은 1957년 8월 16일 소련 대사 푸자노프의 만찬 초청을 받았다. 8월 20일, 차오샤오광은 푸자노프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하여 소련 국가계획위원회와 국가경제관계위원회의 지적과 제안을 상세하게 청취했다. 沈志華 主編, 2015b, 「普黎諾夫與金日成·喬曉光的談話: 關於朝鮮的五年計劃(1957年 8月 16日)」, 『俄羅斯解密檔案選編: 中蘇關係』 第七卷, 1956.10.~1958.3, 上海: 東方出版中心, 309~310쪽; 沈志華 主編, 2015b, 「普黎諾夫與喬曉光的談話紀要: 通報蘇聯對朝鮮五年計劃的意見(1957年 8月 20日)」, 『俄羅斯解密檔案選編: 中蘇關係』 第七卷, 1956.10.~1958.3, 上海: 東方出版中心, 311쪽.

만남을 지속하면서 의견을 교환했다. 1956년 4월 17일, 중국 대사 차오샤오광은 소련 대사 이바노프를 만나 소련의 지원과 경험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바노프는 소련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험과 지원도 북한에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바노프는 차오샤오광에게 중국대사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북한 지원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표명했다.<sup>102</sup> 1956년 3월,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이 작성한 「북한주재대사관 1956년 교류 업무계획(駐朝大使館一九五六年交際工作計劃)」에는 북한 주재 각국 대사관과의 교류에 임할 때 숙지해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소련 대사관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sup>103</sup> 차오샤오광이 북한 측과 교류에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그의 개인 성향에 기인한 것이 아닌 본국으로부터의 지시 및 훈령과 연관이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sup>104</sup>

차오샤오광은 1956년 4월 북한 주재 중국 대사로 부임하여 5년 동안 대사로 재임하고 1961년 7월 귀임했다. 차오샤오광의 경우 제3대 북한 주재 중국 대사로써 초대 대사 니즈량(倪志亮), 제2대 대사 판즈리(潘自力)보다 재임 기간이 길었다.<sup>105</sup> 북한이 중국 대사에 대한 불만이 있었음에도 중국이 북한 주재 대사를

102 국사편찬위원회, 2013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이바노프의 일지(1956년 4월 17일)」, 『北韓關係史料集』 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1, 국사편찬위원회, 406쪽; 宋恩繁·黎家鬆 主編, 1997, 『中華人民共和國外交大事記』 第一卷(1949年 10月至1956年 12月),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356쪽.

103 「駐朝大使館一九五六年交際工作計劃(1956年 3月 21日~3月 28日)」,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檔案館 117-00479-03, 1~4쪽.

104 중국 국무원 총리 저우언라이는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개최한 행사에 참석하여 북한 측 대표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한다. 沈志華 主編, 2017, 「庫爾久科夫致波諾馬廖夫函: 提交關於朝鮮局勢的情報(1955年 4月 7日)」, 『中國周邊國家對華關係檔案系列: 朝鮮卷』 第六輯(1954~1955年), 華東師範大學·周邊國家研究院, 2093쪽.

105 宋恩繁·黎家鬆 主編, 1997, 앞의 책, 356쪽. 초대 대사 니즈량(倪志亮)은 1950년 8월 부임하여 1952년 3월 귀임하였고, 제2대 대사 판즈리(潘自力)는 1955년 1월 부임했다. 1956년 3월 25일, 중국은 북한에 판즈리 대사의 면직서와 제3대 대사

교체하지 않는 것을 통해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엿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했기 때문이다.<sup>106</sup> 북·중 관계를 우호 관계 나아가 ‘혈맹 관계’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이고, 중국은 북한과 일정한 거리 두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상황 관리를 지속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북한 주재 소련 대사들의 일지에는 북·중 양국이 서로를 어떻게 인식

차오샤오광의 부임장을 보냈다(「中國駐朝鮮大使潘自力召回國書, 中國駐朝大使喬曉光到任國書樣本(1956年 3月 25日)」,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檔案館 117-00503-03, 1~4쪽). 1952년 3월부터 1955년 1월 20일까지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 참사관 간에타오(甘野陶)가 북한 주재 임시 대리대사를 맡았다(「美帝國主義細菌戰罪行調查團」抵達平壤 平壤市各界人民舉行盛會歡迎 李德全團長致辭指出中朝人民必須再接再厲取得反細菌戰的徹底勝利」, 『人民日報』, 1952. 4. 8, 第4版; 「我新任駐朝大使潘自力到平壤」, 『人民日報』, 1955. 1. 20, 第1版; 「我國新任駐朝鮮特命全權大使 潘自力向金料奉遞交國書」, 『人民日報』, 1955. 1. 23, 第1版). 중국학자 선즈화는 약 1년 10개월 동안 북한 주재 대사를 공식으로 두게 된 배경을 중국이 조선 내부 상황에 관심이 없다는 점과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북한의 실정에 대해 어두웠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 능력의 결여로 『人民日報』를 통해 북한의 상황을 인지하였다는 예시를 중국 외교부 당안을 인용하여 제시했다(선즈화 지음, 김동길·김민철·김규범 옮김, 2017, 앞의 책, 437쪽). 1949년 9월 21일, 중국의 신화통신사(新華通訊社) 평양지사(平壤支社)가 설립됐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 평양지사가 개설되었다는 점은 중국이 북한 및 한반도에 대한 깊은 관심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신화통신사 평양지사는 북한의 대내 정세 관련 기사를 중국에 타전했다. 「朝鮮人民生活水平很低(1956年 10月 25日)」, 新華通訊社 編, 『內部參考』 第2034期, 1227~1232쪽; 「關於目前朝鮮經濟建設和人民生活的情况(1957年 5月 22日)」, 新華通訊社 編, 『內部參考』 第2210期, 22~23쪽; 「朝鮮最近採取的幾項重要的經濟措施(1958年 1月 7日)」, 新華通訊社 編, 『內部參考』 第2396期, 6~9쪽.

106 주북한 소련대사관이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김일성은 조선노동당과 북한 정부 내에서 연안파 출신 인사들이 맡고 있는 직무에서 배제시킬 계획이었다. 이는 북·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었다. 중국 측 인사는 북한 측에 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매우 자제하는 태도를 취했다. 북한 주재 소련 대사관은 1952년 3월 북한 주재 중국 대사 니즈랴이 귀국한 이후 1955년 1월까지 후임 대사를 중국 정부가 파견하지 않은 점을 주목했다(沈志華 主編, 2017, 「庫爾久科夫致波諾馬廖夫函: 提交關於朝鮮局勢的情報(1955年 4月 7日)」, 『中國周邊國家對華關係檔案系列: 朝鮮卷』 第六輯 (1954~1955年), 華東師範大學·周邊國家研究院, 2093쪽). 중국은 초대 북한 주재 중국 대사도 북한 보다 늦게 파견했다. 이상민, 2022, 앞의 글, 240~246쪽.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1954년 8월 21일, 북한 주재 소련 대사 수즈달레프(Suzdalev)는 북한 외무성의 초청을 받아 미국에 대한 북한인민군 투쟁을 주제로 하는 전시회를 참관했다. 수즈달레프 대사는 전시회를 참관하면서 김일성의 조각상, 반신상과 초상화를 비롯하여 김일성을 형상화한 그림이 많았다고 한다. 중국인민지원군을 주제로 한 전시는 전체 12개 전시 가운데 1개에 불과하다고 기록하면서 중국인민지원군의 역할이 축소 전시되어 있음을 지적했다.<sup>107</sup> 1954년 8월 25~26일, 북한 주재 소련 대사 수즈달레프는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측 초청을 받아 중국인민지원군 참모부가 개최한 전시회를 참관했다. 수즈달레프 대사는 전시회를 관람하면서 중국인민지원군이 전쟁에서 수행한 수많은 작전 가운데 하나의 작전에서만 북한인민군과의 협력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기록했다.<sup>108</sup> 북한 측의 전시에서 보여준 중국인민지원군의 역할이 과소 평가되고 있다는 점, 중국 측의 전시에서 보여준 하나의 작전에서만 중국과 북한의 협력을 보여주는 점은 북한이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한 부정 인식을 보여주는 단면이고, ‘항미원조전쟁’ 기간 중 북·중 양국이 갈등이 있었음을 직접 드러내는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 V. 맺음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한 다음 북한은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사회주의국가들에 원조를 요청했다. 사회주의국가들 가운데 소련과 중국이 북한

107 국사편찬위원회, 2013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수즈달레프의 일지 (1954년 8월 21일)」, 『北韓關係史料集』 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1, 국사편찬위원회, 169~170쪽.

108 국사편찬위원회, 2013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수즈달레프의 일지 (1954년 8월 25~26일)」, 『北韓關係史料集』 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1, 국사편찬위원회, 171쪽.

에 대한 대규모 경제지원을 감행했다. 소련은 중공업 중심의 원조를, 중국은 농업과 경공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했다. 중국은 '6.25전쟁'의 시작부터 1953년 12월까지 인민폐 7조 2,900만 위안 규모의 원조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1954년부터 1957년까지 인민폐 8조 위안 지원을 결정했다. 중국의 북한에 농업·경공업 및 기술 지원, 방직 원료 지원, 중국인민지원군의 북한 재건 지원, 북한의 「제1차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 자문 등의 경제원조를 제공했다. 북한은 중국의 지원을 받아 1954년부터 「인민경제 복구발전 3개년 계획」을 추진했고, 1957년, 3개년 계획의 목표를 달성했다.

1956년 5월 21일, 북한 외무상 남일은 소련 대사 이바노프에게 소련이 북한을 다시 한번 원조한다면 중국, 독일민주공화국, 체코슬로바키아의 원조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남일은 채무 면제와 추가적인 무상원조를 희망했다.<sup>109</sup> 1957년 4월 10일, 북한 주재 중국대사 차오샤오광은 소련 대사 푸자노프에게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에 대한 추가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sup>110</sup> 1958년부터 중국과 북한은 일반 상품 교환을 기반으로 하는 무역 관계로 전환하기로 했다.<sup>111</sup> 이는 중국이 1954년부터 1957년까지 대북한 무상 경제 지원 이외에 북한에 대한 추가 지원, 추가 무상 지원 계획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953년부터 1957년까지 중국과 북한의 경제 방면의 이해관계는 정치 방면의 이해관계 충돌, 1956년 9월 중국과 소련의 '8월 종파사건' 공동 개입과 북한

109 국사편찬위원회, 2013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이바노프의 일지 (1956년 5월 21일)」, 『北韓關係史料集』 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1, 국사편찬위원회, 439쪽.

110 국사편찬위원회, 2013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푸자노프의 일지 (1957년 4월 10일)」, 『北韓關係史料集』 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2, 국사편찬위원회, 15쪽; 沈志華 主編, 2015b, 「普紫諾夫與喬曉光會談紀要：中國援助朝鮮問題(1957年 4月 10日)」, 『俄羅斯解密檔案選編：中蘇關係』 第七卷, 1956.10.~1958.3, 上海：東方出版中心, 191쪽.

111 沈志華 主編, 2015b, 「蘇聯駐中國大使館1956年工作報告(1957年 4月 18日)」, 『俄羅斯解密檔案選編：中蘇關係』 第七卷, 1956.10.~1958.3, 上海：東方出版中心, 214쪽.

에 주둔 중이었던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을 둘러싼 문제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1957년, 중국이 북한의 「제1차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자문요청 과정에 보여준 소극적인 태도, 북한 주재 중국 대사의 북한 정부와 거리 두기 등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 양국 관계의 진면모를 볼 수 있었다.

1953~1957년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우호 협력이 전제된 중국의 일반적인 지원이 아니었다. 안보 측면에서는 중국인민지원군을 통한 중국 동부 지역의 안정 지속, 경제 측면에서는 수풍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공급받아 중국 동북지역에서 사용했고, 더 많은 전력의 수요 충족을 위해 운봉 수력발전소 등을 북한과 공동으로 건설하기도 했다. 1953년 11월 23일 체결한 「북·중 경제 및 문화협력협정」에서 규정한 중국과 북한 양국이 상호 필요로 하는 경제와 기술 원조 및 협력을 주고받는, 상호 간의 이해 관계에 부합하기 위한 지원이었다.

1957년 10월 7일, 소련 대사 푸자노프는 북한 외무상 남일에게 김일성은 매년 소련을 방문하고 있지만, 중국은 1953년 11월 방문 이후 1957년까지 방문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소련은 북·중 양국의 지도자 접촉이 빈번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sup>112</sup> 중국과 북한 양국 정상의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양자의 관계를 우호 관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957년,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이 결정되고, 1958년 2월, 중국 국무원 총리 저우언라이의 북한 방문으로 1954년 이후 중국과 북한의 정상 외교가 다시 가동되었지만 북·중 관계는 이해 관계의 틀 속에서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관계였다.

---

112 국사편찬위원회, 2013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푸자노프의 일지 (1957년 10월 7일)」, 『北韓關係史料集』 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2,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56~257쪽. 1954년 9월 28일 오후, 마오쩌둥은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5주년 경축대회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한 김일성과 북한대표단을 접견했다.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2013b, 앞의 책, 288쪽; 「毛主席接見朝鮮政府代表團」, 『人民日報』, 1954.9.29, 第1版.

## 참고문헌

### 자료

『로동신문』.

『人民日報』.

「關於目前朝鮮經濟建設和人民生活的情况(1957年 5月 22日)」, 新華通訊社 編, 『內部參考』 第2210期.

「朝鮮人民生活水平很低(1956年 10月 25日)」, 新華通訊社 編, 『內部參考』 第2034期.

「朝鮮最近採取的幾項重要的經濟措施(1958年 1月 7日)」, 新華通訊社 編, 『內部參考』 第2396期.

「周恩來總理訪問朝鮮期間允諾或交辦的事情(1957年 3月 1日~3月 30日)」,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檔案館 203-00111-04.

「駐朝大使館一九五六年交際工作計劃(1956年 3月 21日~3月 28日)」,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檔案館 117-00479-03.

「中國駐朝鮮大使潘自力召回國書, 中國駐朝大使喬曉光到任國書樣本(1956年 3月 25日)」,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檔案館 117-00503-03.

국사편찬위원회, 2003, 『韓國現代史資料集成』 56 미국구부 정보조사국(OIR) 한국관련 보고서4, 국사편찬위원회.

\_\_\_\_\_, 2008, 『北韓關係史料集』 62, 국사편찬위원회.

\_\_\_\_\_, 2013a, 『北韓關係史料集』 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1, 국사편찬위원회.

\_\_\_\_\_, 2013b, 『北韓關係史料集』 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2, 국사편찬위원회.

\_\_\_\_\_, 2014, 『北韓關係史料集』 7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3, 국사편찬위원회.

\_\_\_\_\_, 2015, 『北韓關係史料集』 7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

- 사관 직원들의 일지와 대담록 2, 국사편찬위원회.
- 김일성, 1997a, 『김일성전집』 16,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7b, 『김일성전집』 17,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8a, 『김일성전집』 19,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8b, 『김일성전집』 20, 조선로동당출판사.
- 조선 중앙 통신사 발행, 1955, 『해방후 10년 일지, 1945~1955』, 조선 중앙 통신사.
- 宋恩繁·黎家鬆 主編, 1997, 『中華人民共和國外交大事記』 第一卷 (1949年 10月至 1956年 12月),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 沈志華 主編, 2015a, 『俄羅斯解密檔案選編: 中蘇關係』 第四卷. 1951.9.~1954.1, 上海: 東方出版中心.
- \_\_\_\_\_, 2015b, 『俄羅斯解密檔案選編: 中蘇關係』 第七卷. 1956.10.~1958.3, 上海: 東方出版中心.
- \_\_\_\_\_, 2015c, 『俄羅斯解密檔案選編: 中蘇關係』 第八卷. 1958.4.~1959.10, 上海: 東方出版中心.
- \_\_\_\_\_, 2017, 「庫爾久科夫致波諾馬廖夫函: 提交關於朝鮮局勢的情報(1955年 4月 7日)」, 『中國周邊國家對華關係檔案系列: 朝鮮卷』 第六輯 (1954~1955年), 華東師範大學·周邊國家研究院.
- 沈志華 編, 2003, 『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 下冊,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1997, 『周恩來年譜(1949~1976)』 (中),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 \_\_\_\_\_, 2000, 『陳雲年譜』 中卷,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 \_\_\_\_\_, 2013a, 『毛澤東年譜(一九四九~一九七六)』 第一卷. 1949年 10月~1952年,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 \_\_\_\_\_, 2013b, 『毛澤東年譜(一九四九~一九七六)』 第二卷. 1953年~ 1956年 9月,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 \_\_\_\_\_, 2013c, 『毛澤東年譜(一九四九~一九七六)』 第三卷. 1956年 10月~1959年 3月,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中央檔案館 編, 2000a, 『1953~1957 中華人民共和國經濟檔案資料選編』 商業卷, 北京: 中國物價出版社.
- \_\_\_\_\_, 2000b, 『1953~1957 中華人民共和國經濟檔案資料選編』 財政卷, 北京: 中國物價出版社.

\_\_\_\_\_, 2000c, 『1953~1957 中華人民共和國經濟檔案資料選編』綜合卷, 北京: 中國物價出版社.  
中央檔案館·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2013, 『中共中央文件選集(1949年 10月~1966年 5月)』第十八冊 1955年 1月~3月, 北京: 人民出版社.

## 단행본

김성보, 2012, 『북한의 역사 1- 건국과 인민민주주의의 경험 1945~1960』, 역사비평사.  
선즈화 지음, 김동길·김민철·김규범 옮김, 2017, 『최후의 천조(天朝): 마오쩌둥·김일성 시대의 중국과 북한』, 선인.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所, 2014, 『抗美援朝戰爭史(第3版)』上卷, 軍事科學出版社.

## 논문

김동길, 2020, 「개혁개방 이전 냉전 시기(1949-1980), 중국의 한반도 정책 연구」, 『歷史學報』第245輯.  
김동길·한상준, 2014, 「제2의 해방: 북한자주화와 1956~57년의 중국-북한관계」, 『국가전략』 제20권 2호.  
謝定元, 2017, 「한국전쟁시기 중국의 대북한 철도지원-전쟁지원에서 건설지원까지」, 『大東文化研究』 제98집.  
왕원주, 2011, 「한국전쟁기간 중국의 군비지출과 대북지원」, 『통일인문학논총』 제52집.  
이상민, 2022, 「北韓·中國의 國家關係 成立과 利害關係 衝突」, 『中國史研究』第140輯.  
이재훈, 2017, 「1956년 8월전원회의 직후 중·소의 개입과 북한 지도부의 대응」, 『역사비평』 119.  
이종석, 2010, 「중·소의 북한 내정간섭 사례연구: 8월 종파사건」, 『세종정책연구』 제6권 2호.  
조수룡, 2021, 「북한의 제1차 5개년 계획(1957~1961) 초안과 탈소련화의 개시」, 『歷史學報』第249輯.  
\_\_\_\_\_, 2022, 「약순환의 기원-1950년대 후반 북한의 재정위기와 제1차 5개년계획(1957~1961)-」,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12.

## 기타 자료

錢其琛主編, 2005, 『世界外交大辭典』上 (A~L),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 「정전협정」 이후 중국의 북한 경제지원과 북·중 관계, 1953~1957

이상민

이 글에서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이후 1957년까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중국의 북한에 농업·경공업 및 기술 지원, 방직 원료 지원, 중국인민지원군의 북한 재건 지원, 북한의 「제1차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 자문 등으로 나눠 살펴봤다.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 시기를 1953년부터 1957년까지로 설정했는데 중국이 「제1차 5개년 계획」 시기였고, 1953년 11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 기간을 1954년부터 1957년까지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1953년부터 1957년까지 중국과 북한의 경제 방면의 이해관계는 정치 방면의 이해관계 충돌, 1956년 ‘8월 종파사건’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글에서는 1953년 11월 23일 체결한 「북·중 경제 및 문화협력협정(中朝經濟及文化合作協定)」에서 규정한 중국과 북한 양국이 상호 필요로 하는 경제와 기술 원조 및 협력을 주고받는, 상호 이해 관계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의 지원이었다는 점을 고찰했다.

**주제어:** ‘6.25 전쟁’, 「정전협정」, 중국, 북한, 경제지원

## ABSTRACT

# China's Economic Aid to North Korea and Sino-North Korea Relations after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1953~1957

Lee Sangmin

This article introduces PRC's economic aid to DPRK from the signing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on July 27, 1953 to 1957, divided into sections on agricultural, light industrial and technical assistance, assistance with textile materials, support for North Korea's reconstruction by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and consultation with North Korea on the First Five-Year Plan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People. The period of China's economic aid to the North Korea was set from 1953 to 1957, because China was in the period of the "First Five-Year Plan", and in November 1953, China specified the period of aid to the North Korea as 1954-1957.

From 1953 to 1957,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was negatively affected by the political conflict of interest and the "August Sectarian Incident" in 1956. This paper examines the

provision of necessary economic and technic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as stipulated in the Agreement on China's Economic and Cultural Cooperation signed on November 23, 1953, which is within the scope of mutual understanding.

**Keywords:** Korean War,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China, North Korea, Economic support

# 조중고고발굴대의 조사와 북한-중국의 고조선 역사 갈등

— 『안지민 일기』를 중심으로

강인욱 |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조중고고발굴대 조사의 배경
- III. 안지민 자료의 검토
- IV. 조중고고발굴대의 한계와 의의
- V. 맺음말



## I. 머리말

지난 100여 년간 고조선 연구에서 가장 큰 사건을 꼽는다면 고대사 쪽으로는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와 조중고고발굴대의 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최근 많은 연구가 출판되었다.<sup>1</sup> 특히 필자는 이전의 논문에서 이 두 사건은 별도의 것이 아니라 서로 연동되어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 이번에 새롭게 논지를 펼치기 전에 먼저 이전의 견해<sup>2</sup>를 정리하면 크게 다음과 같다.

①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는 그의 개인연구가 아니라 이상호, 림건상과 같은 반(反)도유호파의 집단 창작일 가능성이 크다. ② 고조선 재요동설은 당시 중국에 대응하는 북한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당의 결정이다. ③ 리지린의 혜성 같은 등장은 도유호로 대표되는 고고학이 잡은 헤게모니에 대한 고대사와 신화학계의 반발이었다. ④ 북한에서 리지린의 고조선설을 공식화한 고조선대토론회는 사실상 결론을 짜놓은 요식행위였다. ⑤ 리지린의 박사논문은 미리 북한에서 준비해놓은 것일 가능성이 크며, 리지린은 중국 체재 중에 고조선 유적의 발굴을 위한 자료수집에 열중했다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후 박준형<sup>3</sup>이 필자의 연구

\* 투고: 2023년 1월 15일, 심사 완료: 2023년 2월 7일, 게재 확정: 2023년 2월 13일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1093269).

1 강인욱, 2015, 「북한 고조선 연구의 기원과 성립: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와 조중고고발굴대-顧頡剛의 자료를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45; 宋鎬晟, 2015, 「리지린의 古朝鮮史 研究와 그 影響」, 『문화사학』 44; 조법중, 2016, 「리지린의 [고조선연구] 와 북경대 顧頡剛교수와의 관계」, 『신라문화』 48; 조중고고학발굴대, 1966, 『중국 동북 지방의 유적 발굴보고』, 사회과학원출판사.

2 강인욱, 2015, 위의 글.

3 박준형, 2020, 「리지린의 북경대학 박사학위논문 [古朝鮮의 研究]의 발견과 검토」, 『선사와 고대』 62.

에서 사진으로만 공개되었던 리지린의 박사논문 영인본 원문을 입수·공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리지린이 중국에서 받은 박사논문의 내용과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의 상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가 가능해지며 그의 북경유학을 둘러싼 많은 의문점이 해소되었다.

하지만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의 후속이며 궁극적으로 북한과 남한의 고조선 인식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조중고고발굴대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할 수 없었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대부분의 학자들은 북한의 보고서 『중국 동북지방의 유적 발굴보고』<sup>4</sup>와 『쌍타자여강상(雙砬子與崗上)』<sup>5</sup> 등 양국에서 발간된 발굴보고서의 분석에 집중했을 뿐, 이 발굴이 가져온 당시 정치적인 함의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사실, 그것은 1차 자료를 접할 수 없었던 태생적인 한계이기도 했다. 다행히 최근에 이러한 난맥상을 풀어낼 수 있는 단서들이 조금씩 공개되고 있다. 1960년대에 북한과의 학문적 교류를 담당했던 중국 측의 자료가 당시 중국의 고대사와 고고학계를 대표했던 인물인 고힐강, 하내, 안지민 등의 일기<sup>6</sup>를 통해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특히 조중고고발굴대에서 중국 측의 고조선 발굴대를 담당한 안지민의 일기를 중심으로 새롭게 밝혀진 조중고고발굴대의 내막을 살펴보고 고조선을 둘러싼 북한과 중국의 역사 분쟁의 시말과 그 의의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4 조중고고학발굴대, 1966, 앞의 책.

5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 1996, 『双砬子与岗上』, 考古学专刊丁种第四十九号, 科学出版社.

6 夏鼐, 2011, 『夏鼐日记-夏鼐考古笔记(共十册)』, 华东师范大学出版社; 安志敏, 2020, 『安志敏日记(全五册)』, 社会科学文献出版社; 顧頡剛, 2007, 『顧頡剛日記第9卷(1960~1963)』, 臺灣聯經經公司.

## II. 조중고고발굴대 조사의 배경

### - 소련의 『세계통사』와 후금박고(厚今薄古)

조중고고발굴대의 시작 동기는 당시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출판한 『세계통사』<sup>7</sup>의 조선 부분 때문이었다.<sup>8</sup> 이 책은 당시 사회주의권을 대표하는 첫 번째 세계사로 그 의의가 매우 컸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1956년에 출판된 고대 국가의 형성을 다룬 2권이다. 일본 및 한국고대사 부분을 보로비요프가 주로 작성했는데, 그는 철저하게 일제 강점기시대의 자료와 관점에서 한국의 고대사를 서술했다(그림 1). 『세계통사』 2권에 수록된 한국에 대한 내용에서 논란이 될 부분 몇 개를 본다면 ① 한국 역사의 시작을 고조선이라 언급하지 않은 채 기원전 1000년기에 중국에서 온 사람이 시작되었다고 보았고(기자조선을 염두에 둔 듯함), ② 이후 중국에서 온 이민(낙랑)이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한민족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577쪽)는 식의 서술이 되었다. 한문 사료와 일본어 자료에 기반하여 동아시아 고대를 연구한 보로비요프는 이후 1961년에 출판된 『고대 한국』<sup>9</sup>이라는 저서에서도 비슷한 논지를 유지했다.

북한 측은 이러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단순한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신생 독립국인 북한의 존립근거를 위협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간주했다. 당시 북한의 상황은 결코 안정적이지 못했다. 일본에서 해방 직후 중국이 연변자치주 등 간도 일대를 장악하였고, 남한은 분단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의권을 대표하는 역사 책에 북한은 그 역사의 시작부터 자주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쓰여진 것은 북한으로서는 간과할 수 없었다. 자칫 독립을 한

7 Всемирная история, 1956, том 2. Энциклопедия: в 10-ти т./Ред. А. Белявский, Л. Лазаревич, А. Монгайт. - 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полит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г. - с.900.

8 전체는 1983년까지 13권이 출판되었다. 1, 2권은 1955, 1956년에 출판되었다.

9 М. В. Воробьев, 1961, Древняя Корея (историко-археологический очерк) //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восточ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4 с.

и крайней северо-востоку (долина реки Туманган). С III в до н.э. по III в н.э. происходит переход к земству, бронзе и раннему железу. К этому времени относятся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дольмены, тесно связанные с дольменом Ляодун и областью Яньшань и курганы. Они распространены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в Центральной Корее и на юг. Последнее, основное уже и внутренне районы страны, знало земледелие (в равнинной части Кюкхэ и Пушан, относящихся к I—II вв. н.э., найдены зернышки риса).

**Племенные союзы** Древняя китайская историография — единственный источник по и образованию древнейшего периода истории Кореи — и утверждает, что первое плем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в Корею возникло в северной части полуострова и прилегающих частях Южной Маньчжурии, было образовано в конце II тысячелетия до н.э. в западной и восточной части территории в этот район во время междоусобных войн, сопровождавших падение древнего царства Иян и возникновение царства Чжоу. Во главе эт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получившего китайское наименование Чжаошань, в корейском переводе — Чосон, стал один из племенных вождей Иян — Хуади (Пе Иан), перешедший в Корею вместе со своей племенной группой.

Вскоре китайские переселенцы слились с основными жителями этой части полуострова, так что это объединение — если даже и достигла какой-либо стадии в его образовании — было по характеру корейским.

Местное население изучилось у китайских переселенцев, шло востру и впитывало элементы. На Корею проникли в Корею и некоторые земледельческие культуры (черный горох, гвонин, гречиха), а также изделия из бронзы и железа.

I—II вв. до н.э. — в годы падения в Китае империи Цинь и образования империи Хань — в эти места проникла новая волна переселенцев из Китая, среди которых был Би Мань (Вэй Мань) — один из вавов северного китайского царства Янь. Би Мань захватил власть в царстве Чосон (начало I в. до н.э.). В 108 г. до н.э. царство Чосон подпало под власть Ханьской империи и в его территории были образованы четыре области. Одна из них — Пэньин (Пэньин) в северной части современного Пхеньяна — достигла в первые десятилетия нашей эры высо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уровня. Отсюда китайское влияние проникает на юг Кореи и в Японию.

В Южной Корее уже в IV в. до н.э. складывается несколько плем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Махян, Чиншань, Пэньин. Племена Махян уже употребляют металлические орудия, жили оседло и занимались земледелием и скотоводством (разведение быков, лошадей). Племена Чиншань, среди которых было много китайских переселенцев, знали земледелие, строили небольшие города, добывали железо. Племена Пэньин по своей культуре были близки к Чиншань. По данным китайских хроник, население этих трех плем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по языку и обычаям было схоже между собой и более резко отличалось от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племен.

Постоянный приток новых переселенцев из Китая, безжалостно, по выражению китайских хроник, от оторванной судьбы, а также тесные связи с Китаем способствовали быстрому развитию равнинного строя у племен Кореи и появлению самостоятельных государств. Уже в I в. до н.э.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и образовались



Дольмен  
I тысячелетия до н.э.

три крупных племенных союза. В восточной части полуострова на месте племен Чиншань и Пэньин появился племенной союз Салха, в западной части полуострова на месте Махян — Пэньин,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и Юго-Восточной Маньчжурии — Кугурэ. Из этих племенных союзов в III—IV вв. выросли государства, сохранившие те же названия. Наиболее развитым из них было Кугурэ; оно утверждало китайское владычество не только в самой Коре, но и в Восточной Маньчжурии.

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 строе этих государств сведений в первые века сохранилось мало. Скорее вс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 говорят о классово-расслоенных обществах.

В источниках есть указания относительно существования частного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абства. Наиболе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о было рабство в работе за преступление. Существовало также долговое рабство с правом выкупа. Однако крупной роль в производ-



Корейские изделия из бронзы  
III—IV вв. н.э.

Секеры и выкопанные копья  
из Южной Кореи  
I тысячелетия до н.э.

ство рыбы не играли; они либо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в качестве дровяной чешуи, либо служили предметом вывоза в Китай (парочка, в сравнительно размерах). Корейская хроника сообщает, что когда в 385 г. в Пэньин было предпринят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боронительного вала на северной границе государства, по для эт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были привлечены те рабы, а свободные. Очевидно, развитие производства было недостаточным для массового применения труда рабов. Основной экономикой оставался труд свободных общинников.

Наиболее развитым отраслям производства в государстве Салха были скотоводство и горное дело. В Пэньин — пшенице и сухоу рисовосение и ремесле.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Кугурэ заключалась в его близости к более культурному Китаю, но эта же близость служила источником постоянных споров. Между всеми тремя государствами происходили частые междоусобные войны, в которых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принимали жители Китая, использовавшие эти раздоры в своих интересах. Южная половина Кореи неоднократно подвергалась набегам японских племен, которые особенно часто успешно отражались корейск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Особенно успешна была война в IV в. н.э., когда им даже удалось захватить вобольной.



## ВСЕМИРНАЯ ИСТОРИЯ

ТОМ II

Под редакцией:

С. Л. УЧЕНКО (ответственный редактор)  
Д. П. КАЛДАЗОВА, А. И. ПАРЛОВОЙ, В. В. СТРУЖ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ПОЛИТ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МОСКВА  
1956

**그림 1** 논란이 된 1956년판 『세계통사』의 한국 부분과 집필자인 V. 보로비요프(Всемирная история, том 2. Энциклопедия: в 10-ти т./Ред. А. Белявский, Л.)

북한의 자주권이 침해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0</sup> 이에 북한은 적극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당시 소련은 스탈린 사후 흐루쇼프의 수정주의가 발흥하고, 중국은 백화제방의 분위기로 북한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에 유리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런 북한의 정책은 매우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

북한이 선택한 전략은 중국과 연대하여서 고대 한국사를 밝히는 것이다. 이 미 『세계통사』가 출판된 직후인 1956년 11월에 북한고고학자 이여성(李如星)이 중국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소장인 하내(夏鼐)를 찾아왔으며 1957년 5월과 1961년 4월에는 고고학연구소의 소장인 도유호도 방문했다.<sup>11</sup> 이때까지 북한의 반응은 소련의 역사관을 비판하지만 구체적으로 큰 이슈를 만들지 않은 단계였다. 한편, 중국 역시 고고학과 고대사연구에 새로운 물결이 밀려들었다. 1957년에 모택동은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을 천명하였고 당시 고고학과 고대사계를 주도하던 곽말약(郭沫若, 1892~1978)은 이를 “후금박고(厚今薄古, 고대사보다는 현실의 문제에 참여할 것)”로 정리했다.<sup>12</sup> 이는 고고학이 사회주의 이념의 실현에 구체적으로 이바지해야 할 것과 노동자 계급을 대변하는 역사서술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역사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권의 통합이 더욱 중요한 덕목이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권의 협력을 위해서는 북한과 같은 이웃나라와의 역사갈등보다는 좀 더 개방적인 태도로 그들과 함께 고대사와 고고학을 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격적으로 북한이 자신들의 행동을 구체화한 것은 리지린의 졸업과 그 시기를 같이한다. 1961년 8월에 고조선문제연구토론회가 열리고

10 이러한 북한의 반발은 김석형·김희일·손영중, 1963, 「〈전세계사〉(소련 과학 아카데미 편), 조선관계 서술의 엄중한 착오들에 대하여」, 『근로자』 제18호(232), 47~64쪽에 공식 제기되었다.

11 『하내 일기』 해당 부분 참고.

12 강인욱, 2015, 앞의 글; 강인욱, 2005, 「區系類型論과 중국 동북지방의 고고학-중국 동북지방 고고학에 대한 이론적 접근」, 『한국고고학보』 56.

리지린이 1961년 10월에 귀국하면서 북한 측은 만주 일대에 대한 적극적인 고고/역사의 연구를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은 학자들만의 노력이 아니라 정치적인 활동과 병행되었다. 1962~1963년에 북한 측의 최룡건과 중국 측의 주은래는 몇 차례의 담화와 양국 학자들의 회의를 통해 이러한 공동연구를 공식화했다. 하내의 일기에 따르면 그가 집필 중인 논문에서 ‘고구려’ 항목은 한국의 역사이니 삭제할 것’을 당시 연구소의 사상을 담당하는 장우어가 검열을 지시할 정도였다.<sup>13</sup> 이상과 같이 조중고고발굴대는 리지린의 등장과, 도유호의 실각으로 대표되는 북한 고대사와 고고학계의 인적 변화와 함께 중국과 북한 사이의 정치 외교적인 상황의 변화와 연동되어 시작되었다.

### Ⅲ. 안지민(安志敏) 자료의 검토

이제까지 알려진 조중고고발굴대의 내막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2007년에 출판된 고희강의 일기와 2011년에 출판된 당시 고고학연구소의 소장이었던 하내의 일기에 기록된 북한 조사단과의 만남이 거의 전부였다. 물론, 그 이전인 1996년에 중국 측 발굴대를 담당한 안지민을 중심으로 간행한 『쌍타자여강상』의 서문, 그리고 북한 측이 『조중고고발굴대』의 보고서에서 그 전모를 간략하게 알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보고서는 상대측의 참여를 감춘 것이며, 하내와 고희강의 일기는 발굴 당사자가 아니고 단편적인 북한과의 교류만 언급되어 있어 전모를 파악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 반면에 2020년에 발간된 『안지민 일기』는 기존의 자료들과 달리 획기적으로 조중고고발굴대에 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의 딸이자 고고학자인 안가요(安家瑤)와 안가원(安家瑗)의 노력으로 총 5권으로 정리된 그의 일기는 평생 그가 종사한 발굴과 연구, 그리고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에서의 업무가 기록되어 있다.

13 夏肅, 2011, 앞의 책에서 1963년 11월 15일 부분.

물론, 문화혁명 기간은 아예 누락되어 있으며 『안지민 일기』의 서론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공간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검열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중고고발굴대에 대한 내용은 제2권에 실려 있는데, 전체 일기에서 공동작업을 한 기간만 수록되었으며 그나마도 북한과의 민감한 토론 부분은 자세한 내용이 생략되었다. 아울러 조중고고발굴대가 마무리된 직후는 모두 발표된 일기에서 빠져 있어 갈등 직후 중국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그 갈등을 마무리했는지는 자세히 알기 어렵다.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매일 관련 작업이 기록되었고 북한 측의 요구사항 및 발굴작업의 정황이 자세하게 기록되었다. 이는 단순한 조중고고발굴대의 일지를 넘어서 1960년대 중국 동북지역 고고학 발굴의 방법, 시대상황, 고고학 자료 관리 등을 총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고고학사에서 매우 귀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현재 필자는 그의 딸인 안가요의 동의를 얻어서 정지호(경희대 사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일기를 완역하여 주해작업을 마무리한 상태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간단하게 그 조사 과정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 1. 저자 소개

안지민(安志敏, 1924~2005)은 중국대학 사학과를 졸업하고 연경대학(燕京大學) 조교를 거쳐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에서 평생을 일했다. 사실상 중국의 성립 이후 초기의 발굴을 주도한 중국 고고학의 초기 세대를 대표한다. 안지민은 특히 중국의 고고학계에서 동아시아는 물론 서양의 다양한 나라와의 교류를 담당한 연구자였다(그림 2). 1940년대 말부터 연경학원에서 근무하며 도리이류조(鳥居龍藏)와 같은 일본학자들과 교류했다. 그 이후 1940~1950년대 하북당산 가각장(河北省唐山市賈各莊) 전국시대 유적을 발굴했다.<sup>14</sup> 당시 그의 보고서는 지금의 시각에서 보아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 층위관

14 安志敏, 1953, 「河北省唐山市賈各莊发掘报告」, 『考古学报』 1.



**그림 2** 1984년 일본에서 회동한 동아시아 원로 고고학자들. 외국 교류를 담당한 안지민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좌측부터 김원룡, 에가미 나부오(江上波夫), 안지민(安志敏), E. I. Derevianko(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 분소) (E. I. 데레비안코 제공)

계 및 형식학적 변천에 대한 보고가 정확한 편이다.

그가 이렇게 넓은 자료를 섭렵하고 동아시아고고학을 하게 된 동기 중 하나는 도리이 류조가 연경대학에서 말년을 보낸 것과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 일본의 패전이 명백해질 무렵 도리이는 ‘변질’하여 중국에 남게 되었고, 일본의 패망 이후에도 계속 연경대학에서 남아 있었다. 중일전쟁 당시에도 연경대학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학생 신분이었던 안지민은 그의 여러 편의를 봐주고 비서 역할을 하면서 그의 넓은 시야와 자료를 배웠다. 이때 그가 일본어도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화로 안지민은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에서 외국과의 고고학 협력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안지민은 1963~1965년의 기념비적 사건인 조중고고발굴대의 중국 측 대

장을 맡으면서 우리의 고고학과도 연관을 맺게 되었다. 안지민이 담당하게 된 이면에는 안지민 자신의 내력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지민 자신이 대련(大連) 출신이기도 하고 도리이 류조와 함께 일하면서 중국 동북지역의 연구 자료를 접하고 연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동아고고학회가 만주국 시절에 대련지역에서 조사한 내막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동북지역에 대한 이해는 조중고고발굴대로 작용했을 것이다.<sup>15</sup> 이후 조중고고발굴대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구체화되었다. 조중고고발굴대의 고조선 지역 발굴은 이후 두 나라의 국가적 갈등으로 인해 파국으로 이어졌음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의 중심에서 활동했던 안지민의 역할은 잘 알려진 바가 없었다. 다만 1996년에 발간된 『쌍타자여강상』 보고서와 남산근 102호 석곽묘, 정가와자 등 공동 발굴한 자료를 순차적으로 보고하는 과정<sup>16</sup>에서 단편적으로 그의 행적이 알려졌을 뿐이다.

1965년에 조중고고발굴대에서 발굴한 정가와자 유적을 끝으로 안지민은 현장 조사는 더 이상 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외국어 실력, 박람강기한 자료습득 능력, 국제적인 감각으로 자신의 연구를 중국 밖으로 확장시켰다. 특히 냉전 시절부터 그는 동남아시아, 러시아, 중원, 일본, 한국, 동북지방 등 넓은 지역을 포괄하여 중국 고고학계에서 외국 고고학 연구의 시장을 열었다. 그는 1990년대 이후에 한국을 자주 드나들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그는 1995년과 1998년에 한국을 방문했다.<sup>17</sup> 조중고고발굴대로 시작되어서 남한과의 고고학 교류로 그의 고고학 인생이 마무리된 셈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안지민은 자신의 조중고고발굴대 활동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에

15 安志敏, 1962, 「记旅大市的两处贝丘遗址」, 『考古』 2.

16 安志敏·郑乃武, 1981, 「内蒙古宁城县南山根 102 号石椁墓」, 『考古』 4; 安志敏·郑乃武, 1989, 「沈阳肇工街和郑家洼子遗址的发掘」, 『考古』 10.

17 일부 자료에는 2003년도에 삼불 10주기 추모기념모임이 전곡리선사기념관에서 거행될 때에 특강을 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 측의 자료에는 관련 기록이 없는 데, 초청을 받았으나 여러 사정으로 방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후 공개된 그의 일기는 당시의 자세한 활동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 2. 일기의 구성

『안지민 일기』는 모두 5권으로 안지민의 사후에 그의 가족들이 정리한 것이다. 1970년대 이전의 것은 그가 발굴장 현장에서 야장 형식으로 노트한 것이다. 특히 그의 첫째 딸 안가원과 둘째 딸 안가요(1947~)는 고고학자로 아버지의 대를 이었다(그림 3, 4). 특히 안가요는 중국 공산당의 국무위원을 지내며 한국도 자주 방문한 고대 유리 전공자이다. 즉, 고고학자의 세심한 교열을 거쳐서 출판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신뢰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매우 아쉬운 점은 발굴이 마무리된 이후 조중고고발굴대의 후속 과정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1966~1976년의 일기 부분은 중국 정부가 2019년 10월에 발효한 「중대선제비안방법(重大選題備案方法)」에 의거해서 모두 삭제된 채 간행되었다. 또한 발간되는 경우 일부 고유명사의 혼동을 제외하고는 교정을 거쳤으므로 그가 실제 조중고고발굴대를 추진하는 과정은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발굴 이후 중국과의 갈등이 촉발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 부분은 필자가 정리<sup>18</sup>한 고힐강(顧頡剛)의 일기 자료와 그 이후에 공개된 하내<sup>19</sup>의 일기 등에서 그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세부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의 고조선 발굴에 임하는 태도 및 중국 측의 반

18 강인욱, 2015, 앞의 글; Kang, In Uk, 2022, “Undercurrents of Go’joseon Research Reflected in the Diaries: With a Focus on Gu Jiegang’s Diary (顧頡剛日記) and An Zhimin’s Diary (安志敏日記)”,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Volume 18, Number 2 (Summer), pp. 179~192.

19 하내(夏鼐, 1910~1985), 중국 1세대 고고학자로 연경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런던 대학에서 이집트 고고학으로 학위를 받았다. 1950년부터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에서 근무하며 퇴직까지 소장을 지냈다. 조중고고발굴대 당시에 고고연구소의 소장으로서 중국 측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상황이었다.



그림 3 안지민과 가족(가장 오른쪽이 본 자료를 정리한 둘째 딸 안가요)  
 ([https://www.sohu.com/a/413532893\\_6925210](https://www.sohu.com/a/413532893_6925210)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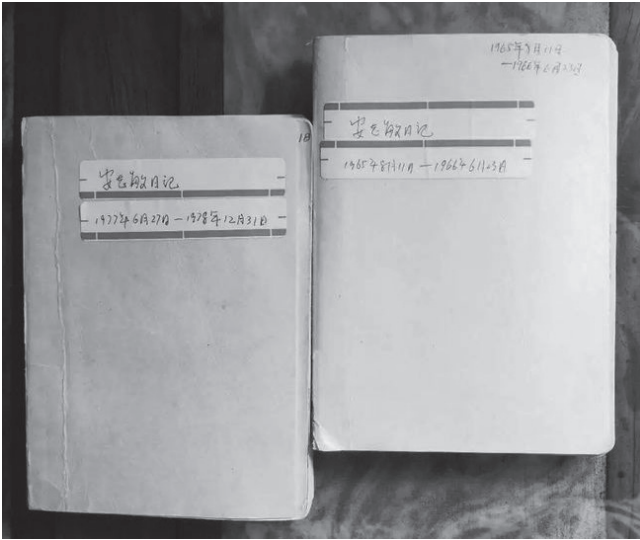


그림 4 『안지민 일기』의 원본([https://www.sohu.com/a/413532893\\_6925210](https://www.sohu.com/a/413532893_6925210)에서)

응과 갈등 등을 통해서 고조선과 관련된 정황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조중고고발굴대와 관련된 그의 활동은 크게 8기의 시기로 세분할 수 있는데, 각각 그의 사전조사와 공동조사 4건(1964년에는 2차례에 걸쳐서 조사함) 등이다. 각각의 주요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1963년 1차 사전조사(1963년 4월 10일~5월 5일)

북경-심양(요령성박물관)-본계(통강육 유적)-심양-장춘(길림성박물관)-길림시박물관-장사산, 후석산 등 서단산문화 석관묘 유적-하얼빈(흑룡강박물관과 동성문물연구회 자료)-대련시-장군산, 윤가촌 등 노철산 답사 (1차 사전 조사의 주요 경로)

북한과 중국의 공동발굴 조사가 결정됨에 따라 대련 출신인 안지민이 그 실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그는 진존세(陈存洗)에 함께 동북 3성을 돌면서 각 지역의 실무진들을 만나고 유적 현황을 조사했다. 그리고 본계, 서단산 및 노철산 등 단거리로 답사할 수 있는 유적과 박물관의 유물 현황을 조사했다. 그의 주요한 관심 분야는 청동기시대 석관묘유적이었으며 남산근으로 대표되는 요서와 적봉지역이 빠져 있었다. 또한 흑룡강성의 경우 하얼빈의 ‘동성문물연구회(東省文物研究會)<sup>20</sup> 소속의 러시아 학자들이 조사했던 양양계 신석기시대 유적을 조사했고, 길림시에서는 연변 자치주의 석관묘 유적까지 조사할 정도였다.

20 1899년 러시아 동정철도의 건설로 하얼빈을 중심으로 러시아인들이 거주하게 되었고, 당시 백러계 러시아인들이 만든 고고학 연구회이다. 발해, 말갈, 요금, 선비 등의 역사시대는 물론 양양계와 같은 석기시대의 유물도 사실 이들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 동성문물연구회의 활동은 포노소프의 발해 상경성 발굴에 대한 필자의 전고(강인욱, 2014, 「VV 포노소프의 발해 상경성 발굴과 동아고고학회」, 『고구려발해연구』 48)를 참고하기 바란다.

즉, 1차 사전조사의 경우 북한 측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북 3성의 청동기시대를 중심으로 하는 유적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한 준비단계였다.

한편, 행정적인 차원에서 각 성장(도지사)들에게 직접 보고되어 매우 긴장하고 있었다. 특히 길림성 문화국의 문제제기가 강했다. 구체적으로 ① 국경 및 민족관계에 대한 처리 문제, ② 북측 인원의 수준이 고르지 않으며 가끔씩 국경과 민족 등의 문제를 혼동, ③ 민족감정으로 인한 문제, ④ 민족감정 때문에 조선족의 통역은 적절하지 않음, ⑤ 길림성 경내에는 특히 조선족이 많음 등을 들었다. 간도지역이 중국에 포함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의 긴장감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긴장은 정치적인 것일 뿐 고고학과 역사학 차원에서는 조선족을 고려하는 상황이었다. 예컨대 길림성박물관의 전시에서 고구려는 한국을 고려하여 별도의 국가로 표시되어 있었다. 대신에 중국 측은 이 지역에서 청나라의 역사와 역할을 매우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영유권을 간접적으로 강조했다.

한편, 흑룡강에서는 러시아인들의 활동(동성문물연구회) 자료를 활용하고 대련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오랫동안 지배했던 일본인들과 그들의 어용단체인 동아고고학회의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사실상 신중국 성립 이전에 만주지역에 대한 중국의 제대로 된 연구는 별로 없었음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안지민의 적극적인 활동은 조중고고발굴대의 활동을 통하여 동북지역의 고고학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2) 1963년 2차 사전조사(1963년 8월 1일~8월 17일)

1차 사전조사를 마친 직후 북-중의 관계는 급히 진전되었다. 이미 북한은 1963년 6~7월에 다양한 경로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북한 측의 사절단은 6월 중순에 북경에 도착했고<sup>21</sup> 6월 28일에 북한 조선과학원 대표단 20여 명은 주은래와 면담하여 허가를 받으면서 조중고고발굴대의 활동이 공식화되

21 『고힐강 일기』에 리지린의 도착이 기록되었다.

었다. 이 자리에는 리지린과 김용간이 참석했다. 이렇게 6월에 방문한 조선방문단은 적어도 7월 8일까지 중국에서 머물렀음이 확인된다.<sup>22</sup>

안지민의 2차 사전조사는 북한사절단의 방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즉, 북한 측의 요구사항에 따라 기존 사전조사에서 변경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8월 1~17일間に 안지민이 새롭게 준비한 지역은 바로 적봉 일대의 내몽골과 요서지역이었다. 1차 사전조사에서 동북지역의 청동기~철기시대의 주요 유적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것과 달리 구체적으로 남산근 유적, 십이대영자 유적, 하가점 유적, 금서 오금당 등 당시까지 알려진 적봉과 발해만 일대의 유적을 사전조사했다.

또 다른 관심지역으로는 요동반도 일대가 추가되었다. 이는 바로 북한 측의 의지가 강하게 전달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요양 벽화묘, 무순 고이성, 해성 양갑산, 고인돌, 연화보 등 비파형동검과 전국~한대의 성터와 무덤으로 관심이 구체화되었다. 아마도 북한 측으로부터 조사를 희망하는 유적지의 명단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북한의 준비는 이전 연구에서 리지린의 북경 유학의 주요한 역할이 논문 작성이 아니라 조중고고발굴대의 운영을 위한 자료 수집이었다는 필자의 추정<sup>23</sup>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 3) 1963년도 조중고고발굴대(1963년 9월 1~11월 1일)

1963년에 이루어진 1차년도 조사는 시굴과 지표조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유적을 답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9월 2일<sup>24</sup>에 북한 측 조사단이 선양에 도착했다. 전체 북한의 조사단장은 김석형이 맡았으며(그림 5), 고조선 발굴대는 리지린이 실무를 담당했다. 중국의 경우 고조선팀(안지민 담당)과 고구려 발

22 『하내 일기』(夏鼐, 2011, 앞의 책)에서 1963년 7월 8일 부분이다.

23 강인욱, 2015, 앞의 글.

24 이하 언급되는 날짜는 별도의 주가 없으면 모두 『안지민 일기』에 기록된 일기에 근거한 것이다.



그림 5 조중고고발굴대 조사 광경 안지민(중간)과 김석형(좌측)  
(安志敏, 2020)

해팀(왕중수 담당)으로 나뉘어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때 중국 동북지역 일대에는 당시 중국 고고학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발굴 및 시굴 등이 이루어지고, 북한측은 각지를 돌면서 조사 상황을 보고 공동조사에 포함할지를 중국 측과 논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안지민의 일기를 통해 새롭게 발견한 가장 중요한 점은 제1차년도에서 리지린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 측 조사대의 주요 목적은 비파형동검이 아니라 성터였다는 점이다. 하가점상층문화와 하층문화의 유적지들을 집중적으로 탐사하여 고조선으로 편입할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 학자의 의도는 당연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고고학자라면 성터를 1~2일 조사해서는 무슨 국가의 흔적도 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북한 학자의 경솔한 판단은 고고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고대사 연구자들의 의견이 관철되었기 때문이다. 성터를 찾는 과정에서 성과는 없고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일으키던 중에 내몽골 조사단이 남산근 유적(후에 남산근 101호 석곽묘 명명)에서 대량의 청동기를 발견했다. 이에 조중고고발굴대는 9월 중순에 급히 방향을 선회해서 남산근의 조사로 전환한다.

이후 북한 측은 본격적으로 고조선의 중심지로 영구~해성 일대를 지목했다. 9월 중순 이후부터 해성~영구 일대의 고인돌과 성터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리지린은 9월 23일 ① 어니하(淤泥河)의 위치, ② 고분 유무 문제, ③ 웅악성(熊岳城)에 고성지가 있는가? 등을 묻고 현재의 개평에 고대 조선과 중국인들이 모두 살고 있음을 지적했다. 리지린은 영구는 요구(辽口)라고 불렸을 것으로 주장하는 등 해성현 일대를 왕검성으로 지목하고 그 증거를 찾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측은 리지린이 열거한 성터들은 대부분 명나라 시기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북한 측은 더 많은 알려지지 않은 성터들 사이에 단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각 지방의 ‘현지(縣志)’ 자료를 요구했다. 그리고 9월 28일에는 통역가가 안지민에게 북한 측이 따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이산 성에서 김(석형) 소장과 임견상 씨 등이 낙랑군은 어디인지, 그리고 중국이 낙랑군의 소재를 정말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는지를 두고 토론했다”는 보고를 받는다. 양국이 치열하게 서로의 정보를 엿탐하며 그 의도를 파악하려는 상황이었다.

이후 요서지역에서는 비파형동검과 하가점상-하층문화의 흔적을, 그리고 대련지역에서는 일제 때 발굴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각지에서는 이미 중국 측의 가용된 고고학자들이 모두 동원되어 발굴 및 시굴을 하고 있었으며, 새롭게 입수되는 정보를 두고 양측은 기민하게 서로의 의증을 파악하며 고조선을 향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그러한 논쟁은 3차년도 마지막 날까지 이어져서 편년과 문화명칭에 대한 의견대립이 심하게 있었음도 안지민의 일기에 잘 반영되어 있다.

안지민의 일기에 이후 북한 학자들이 언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본진은 대략 11월 초에는 돌아갔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부는 남아서 11월 8일에는 북한사절단과 주은래 총리의 제2차 면담이 이루어

졌다. 1차 조사를 끝낸 조선대표단을 만나는 자리에는 하나도 배석했다. 이미 1차년도 조사 과정에서 북한의 고조선 중심지에 대한 강력한 조사요구로 중국 측은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다. 이미 중국의 고고학연구소에서는 1차년도 보고서의 논란을 검토하고, 나아가서 북한 측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했다. 하내의 일기에 따르면 11월 중순에 하내가 집필한 「신중국의 고고학」<sup>25</sup>을 검토한 장우여가 고구려 고고학 부분을 삭제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북한 측에서 고구려는 중국 소수민족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sup>26</sup>

#### 4) 1964년도 사전조사(1964년 3월 19일~4월 2일)

1차 공동조사에서 협의된 대련의 후목성역, 정가와자, 남산근 등 발굴지의 현황을 파악했다. 이들 유적은 향후 조중고고발굴대를 대표하는 유적들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들 유적이 2차년도에서 주요한 유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차년도 과정에서 북한 측의 강력한 주장으로 이루어졌던 고조선의 중심지를 찾기 위한 노력 중에서 벌어진 큰 논쟁의 여파라고 생각된다. 1차년도에서 무리하게 성터를 찾는 것이 대부분 무소득이었던 바, 이때부터 공동발굴단은 연구조사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여 정가와자와 요동반도 일대의 유적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 5) 1964년도 1차 조중고고발굴대(1964년 5월 12일~7월 20일)

북한 측에서는 대련에서 5곳의 조사 지점[사평산(四平山)·문가둔(文家屯)·대공산(大公山)·대령둔(大嶺屯) 성터·망해과(望海壩)]을 요구했다. 하지만 실제 발굴은 후목성역 쌍타자 유적, 누상(樓上) 묘소, 강상(崗上) 묘소, 금현 양갑점 소서구(小西溝) 묘소, 동가구(董家沟)의 와룡천(卧龙泉) 등 5곳이 발굴되었다. 이 시기에는 한편,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초반에 금현 소서구 유적을 꽤 장

25 夏鼐, 1962, 「新中国的考古学」, 『考古』 9.

26 『하내 일기』(夏鼐, 2011, 앞의 책)에서 1963년 11월 15일 부분이다.



**그림 6** 유일하게 알려진 조중고고발굴대의 발굴광경(검은색 노동복 대신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북한 측 발굴단으로 추정됨) (中国社科院考古研究所, 1996)

기간 조사했다. 하지만 성과가 없어 그 대신에 이미 외부적으로 파괴가 심해서 1차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와룡천을 조사했다.

2차년도 조사에서 북한과 중국 측은 중요한 연구의 전환을 시도했다. 북한은 고조선의 중심지를 밝히려는 1차년도의 노력이 쉽지 않았음을 간파하고 누상과 강상의 무덤에서 다수의 화장 인골이 나오는 점을 순장제 노예제 사회라는 점을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그림 6). 물론, 대령둔성지와 같은 조사의 가능성을 계속 제기했다. 하지만 강상과 누상의 발굴이 워낙 크고 여기에 쌍타자 유적까지 추가되면서 실제로 성터의 발굴로 연결되지 못한다.

이 시기의 일기는 매일 발굴 상황에서 다양한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일종의 고고학 야장 역할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다. 해외 공동발굴에서 흔히 경험하는 발굴기법, 측량방법 등의 자세한 발굴 의견에서 고조선으로 해석하려는 북한과 중원 고고학에 기반을 둔 안지민의 논쟁이 매우 자세히 드러나 있다. 이는 고조선 연구의 차원을 넘어서서 북한과 중국의 초기 현장 발굴법을 파악하는 데 매

우 중요한 근거도 된다.

그럼에도 안지민이 발굴 자체의 기법과 유물의 정교한 수습을 주장하며 북한 측과 논쟁을 벌인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아마 고조선의 중심지라고 추정되는 성터의 발굴을 어떻게든 막기 위한 중국 측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6) 1964년도 2차 조중고고발굴대(1964년 8월 19일~10월 20일)

1차 조사의 후반기에 강상과 쌍타자로 하는 거대한 유적을 단기간 내에 조사할 수 없음을 절감하고 후속 발굴에 동의한 상태였다. 따라서 계속 발굴을 이어나가서 강상, 쌍타자, 윤가촌, 장군산 유적 등을 발굴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북한 측의 고고학 인원의 보충이었다. 그동안 북한 측의 작업을 주도한 임진상이 부대장에서 해임되었고(단원으로 참여는 했음) 리지린도 불참했다. 대신에 고고학자인 김용남이 보강되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고대사와 고고학의 괴리를 절감하고 실제 발굴을 위하여 고고학자들이 전면으로 부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 발굴 이외에도 임진상의 주도로 미야케 준조(三宅俊成)가 조사한 대령둔성지를 답사하고 요동반도 일대의 한대 성지를 조사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매우 비협조적으로 대응했다. 안지민은 이 지역에서 전국~한대의 유물이 출토되지만 그들은 성의 축조시기와는 관계가 없다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다. 즉, 고조선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북한 측의 주장에 반박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밖의 많은 성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9월 2일). 이후 북한 측은 요동지역 지지에 기록된 요동지역의 성터를 지목하여 향후 조사할 것으로 주장했다(10월 16일). 물론,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북한 측은 북경을 거쳐서 북한으로 귀국했다.

2차 조사 당시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이미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다. 1964년도 2차 조사 바로 직전인 1964년 8월 초반에 리지린의 박사논문을 지도한 고힐장은 이미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된 리지린을 도와준 혐의로 취조를 받는

상황이었다.<sup>27</sup> 당대 최고의 역사가자인 고힐강마저도 심한 고초를 겪는 상황이니 중국의 발굴단은 극도로 조심하며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북한과 중국 측의 갈등으로 표출되었다.

7) 1965년 사전조사(1965년 2월 20일~3월 1일): 고조선 성터의 탐사

안지민은 이 시기에 정가와자 일대를 정비하여 발굴을 준비했다. 아울러, 북한 측의 요구에 따라 요양 일대의 왕검성 흔적으로 추정되는 여러 성터를 답사했다. 상하백관둔(上下柏官屯), 유이둔(劉爾屯), 양수분(楊樹墳), 봉집보(奉集堡),<sup>28</sup> 고이산성, 무순의 노동공원(현도군터), 양갑산 성터(한대 거취헌), 안산 고수성(姑嫂城) 등이다. 이 사전조사는 북한 측의 요구가 대폭 받아들여져서 왕검성의 탐색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그리고 상하백관둔, 연화도, 고이산성 등에 대한 발굴의 사전 조사를 해두었다. 물론, 뒤에서 보겠지만 왕검성의 답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실무진 차원에서 리지린의 강력한 요구가 안지민에게 전달되어서 예비적인 차원에서 사전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8) 1965년 조중고고발굴대(1965년 5월 26일~6월 4일): 정가와자 유적의 발굴

안지민의 사전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과 달리 1965년도의 실제 발굴은 정가와자 마을의 일대로 한정되었다. 1965년 사전조사에서 의도되었던 왕검성에 대한 조사는 모두 축소되고, 정가와자 일대의 조사로 한정되었다. 대신에 대부분의 조사기간은 3년에 걸친 조사를 마무리하는 보고서 발간을 위한 논의로

---

27 고힐강의 일기(顧頤剛, 2007, 앞의 책)에서 1964년 8월 13일 부분에 이러한 상황이 극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조선사학가들은 고조선족이 우리나라 동북지역에서 살았던 것을 들어서 자존심의 회복을 바라며 잃어버린 땅을 되찾으려는 기도를 한다. 리지린도 이러한 임무를 집행하는 사람중 하나였다. 그 목적은 예전부터 동북 지역 각 민족(숙신, 예맥, 부여, 옥저 등)은 고조선의 밑에 있었다고 보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북지역이 조선의 강역이었으므로 보고자 한다. 지금 다시 동북 지역에서 고고발굴을 하고 그 유물로 실증하려고 한다.”

28 『성경통지』에 왕검성으로 추정된다는 기록 때문에 포함시킨 것 같다.

채워졌다. 이 시기 북한 측에서 임건상, 리지린 등 고대사 전공자들은 완전히 제외되고 고고학자들로만 구성되었다. 대신에 김용간, 김용남 등 이후 북한의 고조선 연구를 주도하는 소장학자들이 전면에 등장했다. 이때 북한과의 주요한 논쟁은 ① 장군산 적석층이 청동기시대에 속하는지 여부, ② 누상과 강상의 무덤이 순장인지, ③ 누상의 절대 연대 등이었다.

실제 발굴은 한 달간 지속되었지만 안지민은 8일 만에 현장에서 나와서 북경으로 돌아갔다.<sup>29</sup>

안지민의 일기는 1965년 6월 4일에서 먼저 북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하내 일기』에 따르면 김석형이 인솔하는 조선고고단 11인은 1965년 6월 16일에 북경에 도착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실제 조중고고발굴대는 6월 중순까지 발굴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안지민의 기록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하내 일기』의 해당 시기에 따르면 북경에서 북한의 발굴대는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에서 고구려-발해단을 담당한 왕중수와 고조선 발굴대를 담당한 안지민 등은 북한 측과 보고서 문제로 계속 협의했다. 이후 7월 26일에는 최종적으로 북한의 박세창 대사가 배석한 조선고고대표단의 환송회를 끝으로 북한의 공식일정은 마무리되었다.

### 3. 조중고고발굴대의 전모

안지민의 일기에는 전체 발굴인원이 단편적으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다행히 당시 발굴단에 참여했던 손병근(孫秉根)이 비교적 상세하게 당시의 기록을 남겼다.<sup>30</sup> 손병근은 1935년생으로 북경대를 졸업한 후에 은퇴까지 줄곧 사회과학

29 그리고 이 8일간의 조사는 안지민이 현장에서 지휘한 마지막 발굴조사가 되었다.安家瑤·安家瑗, 2014, 「考古人生 緬懷父親安志敏先生」, 『大眾考古』 7, 47~54쪽 참고.

30 孫秉根, 2003, 「關於中朝聯合考古發掘隊的一些情況回憶」, 『東北邊疆歷史研究的回顧與思考』(馬大正 主編, 『東北邊疆研究專刊·調研報告』 2003年 第

원 고고연구소에 근무하면서 발해와 신강성 일대의 수-당대 시대를 주로 연구했다.<sup>31</sup> 손병근은 발해조사단에 소속되어 육정산의 무덤과 상경성의 발굴을 담당했다. 물론, 손병근의 기록은 실제 발굴이 이루어지고 40여 년이 지난 후이며, 동북공정의 시작을 위하여 다양한 역사 공정을 하는 과정에서 마대정(馬大正)의 사업에 참여해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손병근의 회고는 일방적으로 북한 측의 입장을 비판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그의 관점을 객관적인 사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참석인원 및 조사 유적은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다. 이에 손병근의 회고록에 반영된 조중고고발굴대의 전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 기간의 조선 측 단장은 김석형(사회과학원 원장, 2조와 함께 활동)이 맡았고 중국 측은 하나를 대신해서 대리단장으로 우조훈(牛兆勳, 고고연구소의 부소장)이 1조와 함께 활동했다. 각 조의 주요 인원과 조사 유적은 <표 1>~<표 5>로 정리할 수 있다.

#### 1) 1963년 발굴팀 구성

<표 1> 1963년도 1조 고조선 발굴대

조장	리지린 (조장) 安志敏(조장)
단원	북한팀: 리지린(조장) 김용간, 정찬영, 황기택 전주농, 장주협, 이제선 중국팀: 安志敏(조장), 陳存洗(비서 및 당서기), 鄭乃武, 丁六龍, 張國柱, 劉玉, 任常泰(中國歷史博物館), 賈洲傑(內蒙古自治區文物隊), 許明鋼(旅順博物館), 통역: 박병작(조선족)
답사 유적	적봉 일대: 赤峰市(10개소) 撤水坡, 平頂山, 紅山後, 紅山前, 老爺廟, 東八家, 夏家店, 三家, 五里岔, 水上泉; 寧城縣(1) 南山根 요동반도: 旅大市(8개소) 將軍山, 樓上, 尹家村, 大塢崖, 牧羊城, 轉山頭, 郭家村, 羊頭崖; 海城縣 大屯; 蓋縣 關山城 심양 일대: 撫順市(4개소) 高爾山, 蓮花島, 大伙房水庫, 勞動公園; 遼陽縣 二道河子

1期), 北京: 东北边疆历史与现状系列研究办公室.  
31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의 공식 홈페이지의 정보에 근거함(<http://www.kaogu.cn/html/cn/renyuanxinxiku/2013/1026/43970.html>).

실제 조사 유적	요양 이도하자, 무순시 대화방 수고, 대련(어대시) 누상, 윤가촌, 내몽골 남산근
주요 여정	심양 체제 및 유물조사(9월 5일까지)-적봉도착-살수과고성(撤水坡古城)(9월 6일)-소오달맹문물참 유물 조사(7일)-평정산의 장성 조사(8일)-東八家石城 등(10, 11, 12)-남산근 조사(14, 15)-심양-이도하자(20)-해성 양갑산(21)-해성 기목성의 고인돌(22)-웅악성(24)-고이산성(28)-대화방 수고 석관묘-대련(10월 5일)의 남산리, 윤가촌 등-장군산 적석총-윤가촌 시굴 등 조사-후목성역 조사(10월 11일)-錦州(10월 18일) 도착, 사아보 및 오급당 조사-십이대영자(22일) 시굴-객좌 청둥기 매납유적 小轉子山 조사(24일)-심양 정가와자 조사(27일)-10월 30일 마무리
기간	1963년 9월 1~11월 1일

〈표 2〉 1963년 2조 고구려-발해 조사단

조장	주영현(조장) 王仲殊(조장)
단원	북한: 주영현(조장) 박시형, 채희국, 김기웅, 이병선, 이정기, 석광준, 崔云学 중국: 王仲殊(조장), 孫秉根(비서 및 당부서기), 謝瑞瑤, 張子明, 高興漢, 曹者社, 李殿福(吉林省博物館), 楊虎(黑龍江省博物館)
답사 유적	吉林省 集安縣: 好太王碑, 將軍墳, 城後遺址(黨校), 城後無名墓, 禹山人像石刻, 五盔墳四號墓, 五號墓, 牟頭婁墓, 洞溝12號墓, 臨江墓, 站前遺址, 太王陵, 舞踴塚, 角觚塚, 麻淺溝1號墓, 西大蠟, 千秋蠟, 萬寶汀墓地, 三寶墓, 山城子山城, 東台子遺址, 國內城遺址(총 22개소) 遼寧省 桓仁縣 五女山城, 高力墓子墓地, 連江墓地(총 3개소) 延吉市 城子山山城; 和龍縣 西古城, 八家子墓地(총 2개소); 琿春縣 八連城, 裴優城, 溫特赫城(총 3개소); 敦化縣 六頂山墓地, 敖東城, 二十四塊石遺址(총 3개소), 吉林市 龍潭山山城, 騷達溝墓地, 長蛇山遺址(총 3개소) 黑龍江省 寧安縣 上京龍泉府遺址, 牛場遺址, 三靈墳墓地, 南陽墓地, 大朱屯墓地(총 5개소)
실제 조사 유적	敦化县 六頂山墓地, 集安县 站前遺址, 宁安县 大朱屯墓地
조사기간	(1963년 9월 1일~11월 1일)

## 2) 1964년도 조사단 구성

〈표 3〉 1964년 1조 고조선 발굴조 구성 및 주요 활동

조장	리지린(조장) (2차조사에는 불참) 安志敏(조장)
단원	북한: 리지린(조장) 김용간, 정찬영, 황기덕 중국: 安志敏(조장), 陳存洗(비서 및 당서기), 鄭乃武, 丁六龍, 張國柱, 劉玉, 任常泰(中國歷史博物館), 賈洲傑(內蒙古自治區文物隊), 許明鋼(旅順博物館), 汪義亮
답사 및 발굴 유적	여순대련(旅大地区)의 발굴구역: 双砬子遗址, 樓上墓地, 崗上墓地, 金县亮甲店小西沟墓地, 董家沟卧龙泉, 将军山积石冢家과尹家村 유적(총 7개 지점; 1964년 8월 23일~10월 29일)
실제 조사 유적	1차: 강상, 누상, 쌍타자, 금서 외룡천, 금현 양갑집의 소서구 2차: 쌍타자, 강상, 여순 장군산, 운가촌
조사기간	1차 1964년 5월 12일~7월 20일 2차 1964년 8월 19일~10월 20일

〈표 4〉 1964년 2조 고구려-발해팀 구성 및 주요 활동

조장	주영헌 王仲殊
단원	북한: 주영헌(조장), 김기웅, 이병선, 이정기, 석광준, 장상열 중국: 王仲殊(조장), 孫秉根(비서 및 당부서기), 謝瑞琚, 張子明, 高興漢, 曹者祉 및 李殿福(吉林省博物館), 楊虎(黑龍江省博物館) / 郭義孚, 洗自強, 劉國強, 趙鎰, 王振江, 屈如忠
답사 유적	주요 조사 대상(약 40개): 길림, 흑룡강성 및 요령성 환인현 일대의 고구려와 발해유적을 중심으로 하되 일부 신석기, 청동기, 요금시기의 유적도 포함되었음
실제 조사 유적	미상
조사기간	미상

### 3) 1965년 조사

〈표 5〉 1965년도 발굴대 구성

조장	김석형(사회과학원 원장) 牛兆勳
단원	북한: 주영헌(朱永憲), 김용남(金勇男), 황학태(黃鶴泰), 황기덕(黃基德), 김중혁(金鍾赫), 김신숙(金信淑), 김기웅(金基雄), 이병선(李炳善), 장주협(張宙浹), 이재선(李濟善) 중국: 陳存洗, 任常泰, 許明鋼, 楊虎, 李文傑, 段鵬琦, 張子明, 丁六龍, 汪義亮, 樸尚勇, 金洪柱, 朴正一, 高興漢, 趙五龍
답사 및 발굴 유적	심양지역: 肇工街와 鄭家洼子유적(1965년5월28일~6월7일) (나머지 시간은 발굴유물의 정리와 보고서 작성에 소요)

## IV. 조중고발굴대의 한계와 의의

### 1. 리지린이 주도한 발굴대의 시작

북한 측의 조사단 구성을 보면 1963년과 1964년 1차까지는 리지린과 임건상 등 도우호를 누르고 고대사와 고고학계의 헤게모니를 잡은 역사학자들이 주도했다. 물론, 그 밑에 김용간, 황기덕 등이 참여했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도우호로 대표되는 고고학계를 누르고 북한 학계의 주도권을 잡은 고대사학계의 영향이 강하게 느껴진다.

북한 측은 시종 성급하게 고조선의 중심지를 찾기 위하여 여러 성터를 살폈다. 심지어 내몽골 남산근과 하가점 일대의 성터를 고조선과 연결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는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sup>32</sup>에서 난하와 대릉하를 고조선의 경계로 보았고, 그 선형적으로 규정된 안쪽에 해당하는 지역을 모두 고조선의

32 리지린, 1963, 『고조선 연구』, 과학원출판사.

후보지로 보았다. 그리고 고조선의 왕검성을 구체적으로 해성(海城)과 영구(營口)일대로 보고 그 흔적을 찾고자 했다.

고대사학계가 주도한 북한 측의 조사는 곧바로 고고학적 방법을 무시한 무리한 조사라는 중국 측의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사실 회령 오동, 서포항, 무산 범의구석 등 도유호가 발굴을 주도하던 시절에 북한의 다층위 주거지 발굴법은 꽤 안정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 하지만 조중고고발굴대에서는 독이나 층위에 대한 관심보다는 고조선이라는 선형적인 실체를 찾는 데 급급하여 중국 측의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성급함은 북한 발굴 조사단의 초기 실패로 이어졌다.

도유호로 대표되는 기존 고고학계의 세력을 잠재우고 등장한 리지린이 야심 차게 준비한 조중고고발굴대의 성과가 미흡해지면서 이는 반대로 그들의 실각을 자초했다.

한편, 중국에서도 처음 조중고고발굴대를 대하는 입장은 매우 우호적이었다.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고구려 및 만주 일대의 역사 연표를 조정하려 했으며,<sup>33</sup> 지방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준비를 했다. 하지만 1963년의 첫해 발굴이 끝나면서 태도는 돌변했다. 조선족 통역원은 세작으로 활동하며 북한 측의 의도를 파악하려 했고, 북한과의 토론에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가급적이면 협조를 피하고자 했다. 물론, 공식적으로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중국 측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 측의 태도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사실 주은래 총리의 담화에도 이미 북한 측의 의도는 공개되어 있었다. 그리고 북한 측이 요구한 대로 성터를 며칠 답사하는 것으로 쉽게 고조선의 중심지가 발견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럼에도 1963년경부터 중국 측이 고조선과 관련하여 강경한 태도를 취한 배경에는 중국 측의 정치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었다.

---

33 그러한 입장은 안지민의 1963년 사전조사 과정에서도 표출되어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북한의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게 조정하려는 안배가 있었다.

## 2. 왕검성에서 노예제 사회로: 리지린의 퇴장과 고고학자의 등장

1차년도에 다소 무모했던 시도는 곧 무위로 끝나고, 1964년 조사부터는 비파형 동검에 집중한다. 이때 먼저 중점을 두었던 유적은 양갑점의 소서구였지만, 무덤 지점을 잘못 찍어서 실패한다. 같은 시기에 와룡천에서 기대치 않은 상황에서 동검이 출토되어 적석묘에 관심을 기울였다. 때마침 1958년에 조사된 누상이 있었고, 누상을 조사하면서 근접한 강상에도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아울러 일제 때에 이미 알려진 쌍타자를 조사하게 되면서 발굴의 무대는 요동지역으로 기울었다.

이렇듯 노예제사회로의 전환은 고조선 왕검성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이후 1964~1965년의 발굴은 강상과 누상, 정가와자 등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1964년 2차 발굴에서 리지린과 임상선이 일선에서 후퇴하면서 본격화된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두 사람은 이때를 기점으로 거의 학계에서 사라지는데, 북한 내에서도 학문의 권력에 변동이 생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

## 3. 조사 과정의 갈등: 정가와자 6512호와 남산근 101호묘

안지민의 일기에 반영된 당시 조중고고발굴대의 작동방법은 중국 측에서 예상되는 조사지에서 각지의 연구원들을 총 동원해서 조사하는 식이었다. 그리고 조중고고발굴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면 조중고고발굴대에 포함하는지를 결정하고 보고서 및 유물의 분배 등을 검토했다. 이번 자료를 검토한 결과 비파형동검과 고조선을 연구할 때 대표적인 유적인 정가와자 6512호묘, 그리고 청동기문화의 원류인 하가점상층문화의 남산근 101호묘 등이 조중고고발굴대의 일환으로 조사되었던 유적임이 밝혀졌다. 북한 측의 입장에서 보면 정가와자 6512호묘와 남산근 101호묘와 같은 가장 중요한 유적을 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조중고고발굴대에 수록된 두 유적의 조사에서 이들은 빠져 있다.

정가와자 6512호묘는 1965년에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안지민은 1965년 초에 당시 심양의 대표적인 빈촌이었던 정가와자 일대를 정리하고 발굴 준비를 했다. 이 지역에서 이미 1958년에 비파형동검이 출토되었고 거대한 무덤군이 존재함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발굴은 매우 짧은 기간에 끝났고 북한 측에는 659호묘의 자료만 전해졌다.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중국 측이 고조선의 실체와 관련한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그 정보를 숨겼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중국 내의 잡지 『고고(考古)』와 『고고학보(考古學報)』에 중국 단독으로 보고한 정가와자 6512호묘, 659호묘의 보고문은 그 발굴 주체가 조중고고발굴대 당시 중국 측의 담당기관인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동북고고대’는 아예 빠져 있고, 대신에 심양고궁박물관(沈阳故宫博物院)과 심양시문화관리관공실(沈阳市文物管理办公室)이라는 지역에서 발굴을 전담한 하위 기관으로 되어 있다(그림 7). 북한과 관련 있는 고고연구소를 아예 빼서 논란의 소지를 숨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남산근 101호묘, 102호묘는 조중고고발굴대 기간에 남산근 유적에서 조사한 대표적인 대형 무덤이다. 때마침 조중고고발굴대가 오기 직전인 1958년에 마을 주민이 도랑을 파다가 대량의 청동기 유물을 발견한 직후였다. 그리고 조중고고발굴대의 조사 과정에서 101호묘, 102호묘 등의 대형 석곽묘가 잇달아 발견되었고 중국 측도 이 대형의 청동기를 조중고고발굴대의 성과로 넣고자 했다.<sup>34</sup> 그리고 북한 측도 남산근 101호묘의 엄청난 출토유물을 1963년 9월 14일에 실견한다.<sup>35</sup> 이 자리에서 리지린은 “동양 고고학의 위대한 발견”이라며 흥분했고 곧바로 발굴에 동의했다. 그리고 이날 이미 노출된 석곽의 내부를 모두 정리했다. 또한 이 지역의 마을 주민들과 함께 또 다른 청동기 발견지점을 찾는 작업도 했다. 6월 16일에 101호 석곽묘를 마무리 지으면서 또다시 리지린과 전주농은 위대한 공헌이며 위대한 발견이라 평가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에도 불구하고 남산근 101호묘는 정식 보고서에서 빠

34 『안지민 일기』, 1963년 9월 9일.

35 『안지민 일기』, 1963년 9월 14일.



그림 7 조중고고발굴대에서 누락된 6512호묘(좌측)와 포함된 659호묘(조중고고학발굴대, 1966)

졌다. 다만 북한의 보고서<sup>36</sup>에서 ‘중국 측이 원하는 도면을 제공하지 않아서 추 후에 공개하겠다’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중국 측에서 약속을 어기고 의도 적으로 그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1963년에 내몽골 동남부의 연구성과에 대한 리지린과 의 충돌이 관련되었을 것이다. 리지린은 이미 내몽골과 몽골 일대에도 고조선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심지어 “몽골공화국 내에도 고조선으로 보이는 도시 유적이 발견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sup>37</sup> 이후 리지린은 내몽골 적봉 일대의

36 조중고고학발굴대, 1966, 앞의 책.

장성과 하가점상층과 하층문화의 유적 일대를 돌면서 고조선의 흔적을 찾고자 했다. 이러한 입장은 중국으로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요동~서북한 일대가 아니라 내몽골, 나아가서 몽골까지 고조선의 영토로 상정한다는 것은 큰 충동로 이어질 것이 명약하기 때문이다.

단편적이거나 안지민의 일기에서 보이는 리지린의 강경한 태도와 깊어진 중국과의 갈등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고조선과 하가점상층문화를 대표하는 정가와자 6512호와 남산근 101호묘, 102호묘 두 유적은 의도적으로 조종 고고발굴대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 4. 조사의 여파와 역사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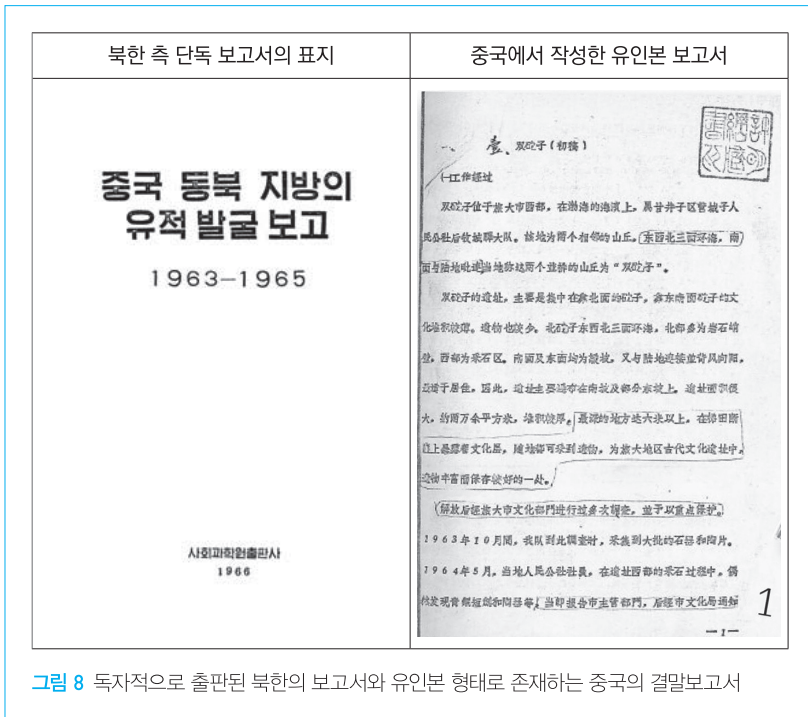
조종고고발굴대의 마무리는 양국의 최종 보고서로 마무리되었다.<sup>38</sup> 양국의 공동명의로 작성된 보고서는 각국에서 서로 다르게 처리했다. 북한에서는 정식으로 발간했지만, 중국에서는 유인물로만 비공개 회람을 했을 뿐이다. 다만, 세부적인 발굴 내용과 유물에 대한 서술은 층위 및 유물의 서술 등으로 볼 때 고조선 조와 발해 연구조 모두 주요한 부분은 중국 측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차년도 고조선 조에서는 북한 측도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신들만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서로 편년, 명칭 등에서 이견이 보였기 때문에 이 공동의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북한 측의 보고서와 이후 중국에서 단독으로 발간한 보고서의 내용이 완전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북한은 중국 측에서 제공한 보고서에 별다른 가감을 하지 않고 그냥 발간했음을 알 수 있다(별표 1, 2 참조). 하지만

37 『안지민 일기』, 1963년 9월 11일.

38 중국 측의 보고서는 『쌍타자여강상』 보고서 출판 이전에도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유인물의 형태로 유포되어 자료로 활용되었다. 안지민은 『쌍타자여강상』 보고서 서문에서 이러한 상황을 '1965년 7월에 초고(=未定稿)를 완성하고, 토론과 교류용으로 인쇄 배포하였으나, 출판은 사정상 보류되어, 추가적인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이 조사를 두고 두 나라 사이에 큰 차이가 드러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어정쩡한 마무리는 북한과 중국이 고조선과 관련된 보고서의 세부적인 사항에서 이견을 좁힐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 측은 각 유물 및 유적의 해석에 고조선 및 순장제라는 부분을 명기하고 싶어 했다. 반면에 중국은 신석기, 청동기 등 전통적인 편년체계를 고집했다. 두 국가로서는 고조선으로 큰 진통을 겪은 후였기 때문에 자칫 이것이 정치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 북한의 경우 이 발굴을 통하여 중국 동북지역에 ‘고조선시대’라는 새로운 편년의 틀을 수립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이번 발굴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단기간의 발굴로 동북지역의 편년을 북한의 역사 편년에 맞추는 것은 향후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되어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국가 명칭 대신에 신석기, 청동기시대 등 전통적인 삼시기법의 사용을 고집



함으로써 사실상 고조선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양국의 차이를 좁힐 수 없었기에 결국 양국은 논란이 될 법한 모든 결론은 삭제한 채 발굴 내용만 정리한 유인본 형태의 보고서를 각자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다(그림 8). 이는 사실상 양측이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 나라 간의 고조선관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라서게 되었다. 이후 더 이상 중국과 북한이 함께 고조선 문제를 토의하거나 연구하는 일은 없었다.

이렇게 파행으로 끝났지만, 북한 측은 곧바로 그 보고서를 단독으로 출판했고, 북한 측의 단독 보고서<sup>39</sup>는 1980년대 이후 일본을 거쳐 한국에도 알려지게 된 것은 잘 알고 있는 바이다.

## V. 맺음말-조중고고발굴대의 여파

1963~1965년의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중국과 북한의 고조선 관련 공동조사가 양국의 학계에 끼친 영향은 지대했다. 북한에서는 이 발굴을 거치면서 리지린으로 대표되는 고대사학계가 잡았던 고조선 연구의 체계모니는 다시 고고학계로 돌아갔다.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는 도유호로 대표되는 1950년대 북한 고고학계의 체계모니를 빼앗기 위한 투쟁의 일환이었다. 그렇게 세력을 잡은 리지린과 임건상은 자신들이 설정한 고조선 연구의 틀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중고고발굴대를 성사시켰다. 하지만 고대사학자들의 바람과 달리 만주 일대의 성터를 조사하는 것으로 고조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실패했다. 리지린이 관심을 가진 유적들은 명청대의 지방지지에 기록된 성터들뿐이어서 그것만으로도 고조선 수도인 왕검성의 증거를 찾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중국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왔다. 결국 고조선의 중심지를 찾으

---

39 조중고고학발굴대, 1966, 앞의 책.

려는 리지린의 시도는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리지린의 실패는 고고학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1964년 2차 조사부터 대련지역의 적석묘 발굴을 통한 다인장 무덤을 노예제 사회로 규정하고 비파형 동검을 고조선의 영역으로 인정하려는 고고학적인 연구가 대안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의 중심에서 있던 리지린과 도유호는 함께 퇴장했고 대신에 황기덕, 김용간, 장주협 등 조중고고발굴대에 참여한 젊은 고고학자들이 이후 30여 년 가까이 북한의 고조선 연구를 주도했다. 조중고고발굴대는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에서 촉발되었지만 결과는 오히려 고대사 전공자인 리지린의 퇴장을 유발했으며, 북한의 고고학 연구 세대교체로 이어진 셈이었다.

중국의 경우 처음 공동연구의 시작부터 북한의 고조선 연구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음을 안지민의 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 측의 성과 또한 적지 않았다. 바로 조중고고발굴대를 준비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1960년대 초까지 중국 내에서도 가장 연구가 미진한 지역 중 하나였던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동북지역 고고학의 기틀을 잡는 계기가 되었다. 문화혁명 이전 중국 고고학의 성립시기에 조중고고발굴대의 조사만큼 체계적으로 편년체계를 수립한 변방지역은 없었다. 안지민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고고학계는 조중고고발굴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 대해 대대적으로 조사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요동지역의 선사문화 편년안을 수립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제창되었던 소병기의 구계유형론이 광대순과 같은 연구자를 중심으로 동북지역에서 가장 먼저 도입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조중고고발굴대의 조사가 그 배경이 된 셈이다. 문혁의 암흑기를 지나서 198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제창된 소병기의 구계유형론과 다원일체 중화문명론은 조중고고발굴대가 주로 조사했던 적봉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촉발되었다. 아이러니한 점은 소병기의 구계유형론에 가장 강력하게 반기를 든 사람은 조중고고발굴대의 안지민이었다는 것이다.<sup>40</sup> 안지민은 요동반도에 다양한 문화계통이 공존했음을 들어서 각 지역

별 계통을 일원적으로 설정하지는 소빙기의 구계유형론을 반박했다. 물론, 안지민의 주장은 소수의견으로 묻혀버렸지만, 그의 이러한 반발은 요동과 적봉 일대의 편년 체계를 수립한 장본인인 자신의 역할이 인정받지 못한 상황도 반영되었던 것 같다. 여하튼, 1980년대에 중국 고고학에서 중화문명론이 형성될 때 가장 대표적인 case study로 중국 동북지역의 고대문화가 거론된 데에는 결국 조중고고발굴대의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중국 고고학계에서 고조선이라는 이름은 철저히 삭제되었고 대신에 각 지역의 문화 이름으로 대체되었다.<sup>41</sup>

결과적으로 조중고고발굴대는 중국 최초이자 마지막의 대형 국제 공동발굴이 되었다.<sup>42</sup> 이후 중국은 일대일로의 사업과 함께 다른 나라에서 활발한 발굴 사업을 진행하지만, 정작 자국의 변방에서 주변 국가의 발굴을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폐쇄성은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된 조중고고발굴대의 여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중고고발굴대 이후 문혁이라는 암흑기를 거친 중국은 곧바로 중화문명론을 거쳐서 동북공정과 같은 변방의 역사 체계 수립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지금은 현대 중국 영토를 넘어서 한족의 문명이 확산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듯 변방지역을 한족 중심의 역사가 확산되는 것으로 보려는 중국의 공세적이며 팽창적인 고고학 조사는 60년 전 북한과 고조선을 사이에 둔 분쟁의 반작용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과 중국 모두에게 조중고고발굴대는 결코 잊히거나 다름으로 끝난 사소한 사건이 아니었다. 오히려 중국과 한국의 고대사 분쟁의 서막을 열었으며 남한의 고조선 연구 방향을 규정한 거대한 암류(暗流)였다.<sup>43</sup>

40 安志敏, 1993. 『论环渤海的史前文化-兼评“区系”观点』. 『考古』 7.

41 2015년대 이후에야 요령성 일대 박물관의 패널에서 고조선의 이름이 일부 등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관련 논문이나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42 2000년대 이후 중국 경내에서 미국과 서방 학자들의 공동 발굴사업이 소수 있지만, 이는 개인 또는 기관 차원에서 소규모 분석 위주의 조사일 뿐이다.

43 Kang, In Uk, 2022, 앞의 글, pp. 179~192.

## 참고문헌

### 단행본

- 顧頡剛, 2007, 『顧頡剛日記第9卷(1960~1963)』, 臺灣聯聯經公司.
- 安志敏, 2020, 『安志敏日記(全五冊)』, 社会科学文献出版社.
- 中国社科院考古研究所, 1996, 『双砬子与岗上』, 考古学专刊丁种第四十九号, 科学出版社.
- 夏鼐, 2011, 『夏鼐日記-夏鼐考古筆記(共十冊)』, 華東師範大學出版社.
- Бутин, Ю. М., 1982, Древний Чосон (историкоархеологический очерк).  
- Новосибирск: Наука. -330 с.
- Белявский, А., Лазаревич, Л., Монгайт, А.(ред.), 1956, Всемирная история, том 2 в 10-ти томах, -М.: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полит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г. -с.900.
- Ларичев, В. Е., 2012, Путешествие археолога в Страну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Новосибирск: Изд-во ИАЭТ СО РАН. -234 с.

### 논문

- 강인욱, 2005, 「區系類型論과 중국 동북지방의 고고학-중국 동북지방 고고학에 대한 이론적 접근」, 『한국고고학보』 56.
- \_\_\_\_\_, 2014, 「VV 포노소프의 발해 상경성 발굴과 동아고고학회」, 『고구려발해연구』 48.
- \_\_\_\_\_, 2015, 「북한 고조선 연구의 기원과 성립: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와 조중고고발굴대-顧頡剛의 자료를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45.
- 김석형·김희일·손영중, 1963, <전세계사>(소련 과학 아카데미 편), 조선관계 서술의 엄중한 착오들에 대하여, 『근로자』 제 18호(232).
- 리지린, 1963, 『고조선 연구』, 과학원출판사.
- 박준형, 2020, 「리지린의 북경대학 박사학위논문 [古朝鮮的研究] 의 발견과 검토」, 『선사와 고대』 62.

宋鎬晟, 2015, 「리지린의 古朝鮮史 研究와 그 影響」, 『문화사학』 44.  
 이경섭, 2022, 「만주 표상의 조선고대사」, 『한국 고대사의 쟁점과 회고』, 한국고대사학회  
 제183회 정기학술발표회·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제17회 학술회의.  
 조법중, 2016, 「리지린의 [고조선연구] 와 북경대 顧詒剛교수와의 관계」, 『신라문화』 48.  
 조중고고학발굴대, 1966, 『중국 동북 지방의 유적 발굴보고』, 사회과학원출판사.

孙秉根, 2003, 「关于中朝联合考古发掘队的一些情况回忆」, 『东北边疆历史研究的  
 回顾与思考』(马大正 主编, 『东北边疆研究专刊·调研报告』 2003年 第1期), 北  
 京: 东北边疆历史与现状系列研究办公室.

安家瑶·安家瑗, 2014, 「考古人生 缅怀父亲安志敏先生」, 『大众考古』 7.

安志敏, 1953, 「河北省唐山市贾各庄发掘报告」, 『考古学报』 1.

\_\_\_\_\_, 1962, 「记旅大市的两处贝丘遗址」, 『考古』 2.

\_\_\_\_\_, 1993, 「论环渤海的史前文化-兼评“区系”观点」, 『考古』 7.

安志敏·郑乃武, 1981, 「内蒙古宁城县南山根 102 号石椁墓」, 『考古』 4.

\_\_\_\_\_, 1989, 「沈阳肇工街和郑家洼子遗址的发掘」, 『考古』 10.

夏鼐, 1962, 「新中国的考古学」, 『考古』 9.

Kang, In Uk, 2022, “Undercurrents of Gojoseon Research Reflected in the  
 Diaries: With a Focus on Gu Jiegang’s Diary (顧詒剛日記) and An Zhimin’s  
 Diary (安志敏日記)”,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Volume 18,  
 Number 2 (Summer).

Алкин, С. В., 2020,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изучении а  
 рхеологии Сибири 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звестия Иркутск  
 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ерия: История, 34.

Воробьёв, М. В., 1961, Древняя Корея (историко-археологический очер  
 к) //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восточ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4 с.

#### 기타 자료

[https://www.sohu.com/a/413532893\\_692521](https://www.sohu.com/a/413532893_692521)(검색일: 2023년 1월 10일)

<http://www.kaogu.cn/html/cn/renyuanxinxiku/2013/1026/43970.html>

## 조중고고발굴대의 조사와 북한-중국의 고조선 역사 갈등

- 『안지민 일기』를 중심으로 -

강인욱

이 글에서는 남북한 고조선 연구 인식의 획기가 되는 1963~1965년의 ‘조중고고발굴대’의 전모를 새롭게 발간된 중국 측 담당자인 안지민의 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비록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공동조사였지만, 그 배경은 사회주의권의 정치적인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1950년대 소련의 『세계통사』에서 고조선 부분이 누락된 것에 불만을 가진 북한은 중국과 연결하여 리지린을 북경대에 유학을 보냈다. 그리고 리지린은 새로운 고조선 연구로 만주를 고조선의 영역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도유호로 대표되는 북한 고고학계의 체계모니를 빼앗았다.

조중고고발굴대는 이러한 북한 학계의 고조선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의도한 결과가 나올 수 없었다. 만주국의 피해를 겪은 중국 측의 강한 반발과 명청대의 문헌을 근거로 고조선을 찾으려는 문헌사학자 리지린의 오판 때문이었다. 1차년도에 고조선의 중심지를 찾는 데 실패한 리지린은 일선에서 물러나고 대신에 2차년도부터는 고고학자들이 일선에 등장했다. 김용간, 황기덕, 장주협 등의 소장고고학자들은 방향을 전환해서 대련지

역의 강상과 누상 적석묘의 발굴을 통한 순장을 증명하고 노예제 사회로 규정시키는 쪽으로 연구를 전환했다. 이렇듯 조중고고발굴대는 역설적으로 리지린은 퇴장을 촉발했고 대신에 무리하게 패수와 왕검성을 찾고자 하는 문헌사 연구대신에 고조선 연구에서 고고학이 중심에 서는 기반이 되었다.

반면, 중국은 조중고고발굴대가 공식적으로 주은래가 공동조사를 승인하기 전인 1963년 봄부터 그 조사를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만주국 시절 및 하얼빈의 러시아인들이 조사한 유적들의 현황을 파악했고, 이는 당시까지 부진했던 중국 동북지역의 고고학의 기틀을 잡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에, 실제 조사에서는 지속적으로 북한과 충돌을 일으켰고, 만주에 대한 중국의 민족주의적 감정 또한 여과 없이 드러났다. 이러한 갈등으로 3차년도는 사실상 파행적으로 이루어져서 대부분의 조사는 중단된 채 정가와자 유적에서만 간단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고조선을 가장 대표하는 무덤인 정가와자 6512호와 하가점상층문화의 대형무덤인 남산근 101호묘 등은 정작 공동조사 보고서에서 누락된 것 또한 양국의 불편한 심기를 반영한다.

중국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시행된 대형 국제 공동발굴이었던 조중고고발굴대는 파행으로 끝나고, 중국에서는 금기시되는 사건이 되었지만 그 의의는 매우 크다. 이 조사를 기점으로 중국의 조사는 변방을 다양한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한족 중심의 역사가 확산되는 것으로 보려는 관점으로 전환되었다. 중국의 공세적이며 팽창적인 역사관은 60년 전 북한과 고조선을 사이에 둔 분쟁의 반작용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조중고고발굴대에서 설정된 고조선의 고고학에 대한 체계는 지금도 남한 고조선 연구의 주축을 이룬다. 이와 같이 북한과 중국 모두에게 조중고고발굴대는 결코 잊히거나 다름으로 끝난 사소한 사건이 아니었다. 오히려 중국과 한국의 고대사 분쟁의 서막을 열었으며 고조선 연구의 방향을 규정한 거대한 암류(暗流)였다.

**주제어:** 고조선, 안지민, 동북공정, 조중고고발굴대, 리지린

## ABSTRACT

# North Korea-Chinese Joint Excavation in 1963~1965 Years and the Beginning of Historical Conflict over Gojoseon, Based on Newly Published *An Zhimin's Diary*.

Kang Inuk

In this paper, the author reexamined the North Korea-Chinese joint excavation(NKCE as below) on Gojoseon, which was conducted from 1963 to 1965 years. This reexamination is based on the newly published *An Zhimin's diary* in the 2020 year, who headed the Chinese team of NKCE.

In 1955, immediately after the Korean War, the Soviet Union published colossal series of “The History of the World” which North Korea strongly opposed it. The reason was that this book describes the beginning of the ancient history of Korea since the Chinese prefecture and the Three Kingdoms period without mentioning Gojoseon. This caused Lee Ji-rin’s study of Gojoseon at Peking University. After receiving his diploma in 1961, to prove his research, Lee, Ji-Rin

organized NKCE in the 1963 year. However, contrary to Lee Ji-rin's wishes, he failed to find the center of Gojoseon. Subsequently, in 1964 year Lee, Ji-rin withdrew from the front line, and archaeologists from North Korea headed to the front to prove the existence of Gojoseon by proving accompanied burials (殉葬) on the excavation of the stone filed tombs like Gangshang and Loushang in the Dalian area and defining it as a slavery society. And North Korean researchers regarded this as significant evidence of Gojoseon's existence. On the other hand, NKCE paradoxically triggered the conflict between Korea and China. So, in 1965, the last term of joint research, most of the joint field work has canceled, but zengjiawozi burial site, Shenyang. Anyway, the most significant noble tomb No. 6512 of zengjiawozi has been ruled out from the joint excavation report. If considered the No.6512 tomb is the biggest tomb of Gojoseon during the 5th cen BCE, this was intended by the chinese team.

Shortly after the NKCE, china went through a severe period of the Cultural Revolution and the two countries never could communicate over the history of Gojoseon. These two countries soon began to experience conflict as nationalist views of history were spreading rapidly. Since 2002, China dramatically changes its view over ancient Korean history and claimed its historical authority over Manchuria as seen in the doctrine Northeast Asia Project.

The NKCE, regarded as China's first and last large international joint excavation, ended in disruption and became a taboo case in China. However, NKCE's meaning is very significant. After this joint work, China's point of historical view on Manchuria radically changed as a spread of Chinese people(漢族)-centered history.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China's aggressive and expansionary view of history began with the reaction to the conflict between Gojoseon and North Korea 60 years ago. In addition, the system for the archaeology of Gojoseon established by NKCE still retains its influence on the study of Gojoseon in South Korea. As such, for both Korea and China, NKCE was never a minor incident that was forgotten or ended in a conflict. Rather, it was a huge undercurrent that begins a lengthy historical dispute over Gojose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defined the contemporary study of Gojoseon research in South Korea.

**Keywords:** Gojoseon(Ancien Chosun, Ko Chosun), An Zhimin, North Korea-Chinese joint excavation, Lee Ji-Rin, Northeast Asia Project

**부록 1 조중고고발굴대가 조사하였으나 공동보고서에서 빠지고 별도로 중국이 단독으로 보고한 유적 일람**

처음 발견	유적 이름	조중고고대	중국 내 출판	북한 보고서	
1953년	해성 대둔양갑산	1963	孙守道; 徐秉琨 考古 64-6	×	안지민의 사전조사로 그 존재가 확인되어 공동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이후 유적의 규모가 작거나 파괴되었음이 밝혀져 최종 보고서에서 빠지고, 考古 64-6기에 별도로 발표됨
1955년	요양 양갑산 (=이도하자)	1963		×	
1956년	금서 사아보	1963		×	
1956년	무순 대화방	1963		×	
1958~1959	금서 오금당	1963	고고 60년 5기	×	
1958년 봄	십이대영자	1963	朱貴 考古学报 60년 1기	×	주귀가 조사한 일대를 확장조사했으나 추가 유적 발견에 실패함
1965	정가와자 6512	1965	考古学报 75-4	×	북한 측의 보고서와 분리
1965	정가와자 659	1965	考古学报 75-4	○	북한 측 보고서에 포함
1958	남산근 청동기	1963	李逸友 考古 59-06	×	영성현문화관에서 소장한 청동기를 재조사 및 도면 작성, 1975년도에 보고한 101호 무덤 보고서에 함께 수록
1961	남산근 1961 발굴	1963	汪义亮· 刘观民 고고학보 75	×	북한 측이 이미 발굴된 남산근 유물을 조사했으나, 보고서에서는 누락됨
1963년 6월	남산근 101호	1963	考古学报 73-2	×	북한 측을 위해서 발굴, 리지린과 북한 팀도 매우 좋아했다고 되어 있음. 하지만 중국 측이 유물을 수거하여 북한 측에서는 5줄 정도로 간략히 소개만 됨. 중국 측 보고서 발굴주체는 소오달맹과 과학원 공동으로만 표기함

**별표 2** 조중고고발굴대의 보고서에 포함된 조사 유적

처음 발견	유적 이름	조중고고대조사 시기	중국보고서 (雙砵子與崗上)	북한 보고서	비고
1934년, (당시 雙臺子로 표기)	쌍타자	1963년 10월, 1964년 6월 2차조사	○	○	
1930년대	장군산	1964년 10월 5일~15일	○	○	
1964년	강상	1964년 5월 25일~ 8월 31일	○	○	누상 무덤 발굴과정에서 강상 하층의 쌍타자문화 토기를 발견하며 알려짐
1958년	누상	1963년 10월	○	○	1960년에 미리 보고된 부분은 제외하고 소개됨
1964년 3월	와룡천	1964년 5월 28일~ 6월 6일	○	○	크게 기대했던 소서구 유적에서 성과가 없자 조사가 오기 전에 발견된 와룡천을 긴급조사함
1928년	윤가촌	1963년 10월 1964년 9월 11일~ 10월 12일	○	○	1928년에 일본의 동아고고학회가 발굴한 목양성의 즉주묘 일대의 발굴
1958년/ 1962년/ 1965년 발굴	정가와자와 조공가	1965년	×	○	1965년 정가와자와 일대에서 요령성박물관과 함께 안지민의 조중고고발굴대가 발굴한 구역. 중국은 1989년에 따로 보고(安志敏; 郑乃武考古 89-10)
1958년	남산근 101호, 102호	1963년 9월 14~16일 북한 답사	×	○	조중고고발굴대를 위한 중국 측의 사전조사 과정에 현지 농민의 신고로 발견되어 공동조사기간에 발굴한 것임. 단, 102호묘는 공동조사보고서에서 빠짐. 중국은 1981년(安志敏; 郑乃武考古 81-7)에 보고함. 북한 측은 답사 및 유물 조사를 했으며 중국이 제공한 보고서를 전재함.

# 자료소개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연구』

– 고구려 연구의 새로운 공간을 확장하다

윤성호 |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조교수

- I. 머리말
- II. 내용의 구성과 특징
- III. 연구사적인 의미와 향후 과제
- IV. 맺음말



## I. 머리말

사료를 중심으로 전근대부터 고구려 연구는 계속되어왔으나, 19세기 말 광개토왕비의 조사 이후 고구려 연구는 고고학 자료를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냉전시기를 거치면서 중국과 북한 지역의 고구려 유적을 직접 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학계의 고구려 연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국내 학계에서 고구려 유적과 유물에 대한 연구가 미진할 수밖에 없던 시기에 북한 학계는 고분을 중심으로 조사와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중국 학계를 중심으로 고구려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1980년대에 북한 학계에서 압록강 이북과 이남을 나누어서 사료에 등장하는 265개소의 성곽과 고고학적으로 조사된 79개소의 성곽 자료를 정리한 연구서가 나오기도 하였다.<sup>1</sup>

이 무렵인 1979년에 중원고구려비가 확인되면서 우리 학계의 고구려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으나, 여전히 중국과 북한 학계의 자료를 간접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sup>2</sup>

그런데 냉전 시기가 종식되고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 이후부터 중국의 고구려 유적과 유물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고구려 연구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고구려의 유적과 관련 자료를 직접 입수하면서

1 채희국, 1985, 『고구려력사연구-고구려건국과 삼국통일을 위한 투쟁, 성곽-』,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 고구려 고고학 연구의 시기를 제1기(1895~1945), 제2기(1946~1973), 제3기(1974~1994), 제4기(1994~현재)로 구분한 견해가 연구사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강현숙·양시은·최종택, 2020, 『고구려 고고학』, 진인진, 25~44쪽.

연구가 용이해졌다.<sup>3</sup> 또한 연구자들이 직접 현장을 답사하면서 관련 자료와 연구가 축적되었다.<sup>4</sup> 1993년에 “아! 고구려 1천 5백년 전 집안고구려벽화” 특별전이 개최되고 관련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연구자를 넘어서 고구려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까지 증가되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 연구는 활성화되었지만,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있는 고구려 유적과 유물에 대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sup>5</sup> 단편적으로 보고된 자료나 입수하기 힘든 자료들을 모두 파악하여, 의미를 추출하는 것은 개인적인 연구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다.

남한 지역에서도 1988년에 몽촌토성 출토 유물 중 고구려의 토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sup>6</sup> 지표조사를 통하여 한강 북쪽에 인접한 아차산 일대에 고구려의 보루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것을 1994년에 확인하였다. 1997년에는 아차산 4보루의 발굴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최근까지 고구려 보루 유적에 대한 조사가 꾸준히 진행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바로 이 시기에 주목해야만 하는 연구가 있었다. 현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전신인 국방군사연구소에서 1998~1999년에 2권으로 간행한 『고구려성』이다. 이 책은 중국 소재 고구려 성곽을 국내에서 정리한 선구적인 연구라고

- 
- 3 李殿福 著, 車勇杰·金仁經 譯, 1994, 『中國內의 高句麗遺蹟』, 學研文化社.
  - 4 徐吉洙, 1995, 「松花江 流域의 高句麗 山城 研究-제2송화강 중류 吉林市를 중심으로-」, 『高句麗研究』 1. 현재 고구려발해학회의 전신인 고구려연구회가 조직된 이후 중국 지역의 고구려 성곽에 대한 관련 논고들이 제출되기 시작하였다.
  - 5 일본학계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고구려 유적을 정리하려는 시론적인 시도가 있었다. 여기서는 중국 경내 87개소, 한반도에 71개소의 고구려 성곽의 수를 집계하였다(東潮·田中俊明, 1995, 『高句麗의 歷史と遺跡』, 中央公論社).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본 연구를 국문 번역서로 간행하였다. 東潮·田中俊明 著, 동북아역사재단 역, 2008, 『고구려의 역사와 유적』.
  - 6 최종택, 1995, 「漢江流域 高句麗土器 研究」, 『韓國考古學報』 33; 崔鍾澤, 1999, 「高句麗土器研究」, 서울대학교 考古美術史學科 博士學位論文.

할 수 있다.<sup>7</sup> I 권 압록강 중상류역 편에서는 집안, 환인, 신빈, 통화, 임강, 장백 지역의 성곽 38개소를 정리하였다. II 권 요하유역 편에서는 소자하 유역, 혼하 유역, 태자하 유역, 해성·개주 지역, 범하~구하 유역, 동요하 유역의 성곽 43개소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중국의 고구려 유적에 대한 접근이 시작단계인 상황에서 총 81개소의 성곽을 분석한 의욕적인 저서는 고구려 성곽과 교통로를 분석함으로써 입체감 있는 연구를 가능케 해준 기초자료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아직 중국 학계에서도 고구려 성곽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기 이전의 자료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이후 추가된 자료에 대한 분석은 개별 연구자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2010년대 이후 중국 학계에서 고구려 성에 대한 발굴조사 성과가 축적되었고, 관련 연구도 증가하였다.<sup>8</sup> 이러한 추가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심화된 연구가 진행되면서 2016년에 『고구려 성 연구(高句麗 城 研究)』, 2017년에 『고구려 산성 연구』의 고구려 산성 연구서 두 권이 간행되었다.<sup>9</sup> 두 연구서는 한반도와 중국 소재 고구려 성곽 자료를 집대성하고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고구려 성 연구』에서는 중국 소재 고구려 성 153개소, 북한 소재 고구려 성 47개소, 남한 소재 고구려 성과 보루 48개소를 표로 정리하였다.<sup>10</sup> 물론 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분량의 한계

- 
- 7 여호규, 1998, 『高句麗 城』 I -鴨綠江 中上流域編; 여호규, 1999, 『高句麗 城』 II -遼河流域編-, 國防軍事研究所.
  - 8 중국 학계의 연구에서 압록강을 기준으로 중국 소재 주요 고구려 성곽 37개소의 현황을 정리하고, 총 104개소 성곽을 표로 정리한 연구가 있다(王綿厚, 2002, 『高句麗古城研究』, 文物出版社, 118~124쪽). 북한 학계에서는 중국 동북지역의 고구려 성곽으로 환인 일대, 집안 일대, 단동 일대, 철령·심양·무순·본계 일대, 요동반도일대, 길림시 일대, 연변 일대로 구분하여 73개소를 정리하고, 북한지역의 성곽 46개소를 검토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조선 고고학전서』 27(중세편4) 고구려의 성곽, 진인진.
  - 9 양시은, 2016, 『高句麗 城 研究』, 진인진; 정원철, 2017, 『고구려 산성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10 해당 자료는 고구려 성 목록으로 고구려 고고학 개설서(강현숙·양시은·최종택,

로 인하여 세부 유적과 유물에 대한 자료집의 성격과는 차이가 있다.

중국 소재 고구려 고분의 경우에는 대체로 벽화고분에 대한 분석이나, 묘제를 중심으로 주요 유적을 검토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다보니 전체적인 고분의 분포 양상에 대한 정리는 상당히 늦게 이루어진 편이다.<sup>11</sup>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2013년부터 5개년에 걸쳐 고구려-발해 유적자료집 발간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물 중에서 『고구려의 고분문화』 3권이 자료집의 형태로 간행되었다.<sup>12</sup> I 권은 한반도 지역의 자료를 정리하였고, II~III 권이 중국 소재 고구려 고분 자료이다. II 권은 길림성 집안시 통구의 고분군 6개소, III 권은 통구 분지를 제외한 길림성·요령성 일대 92개 고분군을 대상으로 고분 자료를 정리하였다. 조사연혁, 위치, 입지, 조사현황, 내용 및 성격, 유물, 참고문헌을 표 형식으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이 책은 자료집으로서 의미가 있다. 다만, 고분과 유물 도면 외에 해당 고분의 위치도나 관련 역사적 의미 등에 대한 분석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분포 양상을 확인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기초지방자치단체 범위의 문화유적분포지도와 같은 유적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간행되었다. 그런데 기왕에 간행된 고구려 관련 연구는 이에 비해서 일정한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이 주관하여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집을 제작한 성과는 마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집필 전후 한국학의 발전만큼이나 한국고대사와 고고학 연구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

2020, 앞의 책, 366~385쪽)에 수정하여 게재되었다.

- 11 발굴조사를 통하여 실측이 이루어지고 유물이 확인된 자료의 검토 과정에서 주요 고분 75기에 대한 현황을 표로 정리한 연구(東潮, 1997, 『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 630~634쪽)가 확인된다.
- 12 중앙문화재연구원, 2015, 『고구려의 고분 문화』 II -길림성 집안시 통구고분군-; 중앙문화재연구원, 2016, 『고구려의 고분 문화』 III -길림성·요령성 일대-.

그렇다면 이제 장을 바꾸어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의욕적으로 간행한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자.

## II. 내용의 구성과 특징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2007년부터 지리적으로 중국에 소재한 고구려의 유적과 유물을 집대성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서적을 간행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2009~2010년에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고구려 문화권 전체를 범위로 고분과 성곽을 포함한 주요 고구려 유적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고구려 유적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책자를 간행한 바 있다.<sup>13</sup>

1권은 고구려의 도성과 성곽을 중심으로 정리가 진행되었다. 고구려 도성의 경우 ① 환인지구, ② 집안지역, ③ 평양지역로 구분하였고, 성곽은 ① 압록강 중상류, ② 혼하-요하 중상류, ③ 태자하-요하 하류, ④ 압록강 하류-요동반도, ⑤ 길림-연길지역, ⑥ 북한지역, ⑦ 남한지역으로 나누어 관련 조사현황, 도면, 사진 자료를 제공하였다. 반면에 고구려 고분의 경우에는 구조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적석총, 봉토석실분, 벽화고분을 다루었기 때문에 지역별 배치 현황이나 특징으로 고찰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고구려 유적의 어제와 오늘』을 통하여 고분군 246개소, 기타 개별 고분 269기, 성곽 301개소, 성곽의 개별 유구 31기, 기타 관련 유적 40개소와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보고된 84건의 자료 등 총 971건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지역별 현황이

13 동북아역사재단, 2009, 『고구려 유적의 어제와 오늘』 1 -도성과 성곽-; 동북아역사재단, 2010a, 『고구려 유적의 어제와 오늘』 2 -고분과 유물-.

나 유구별 특징과 같은 내용을 모두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결국 이 책을 자료집으로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도 일정한 한계가 지적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2018년에 이러한 방대한 자료를 자료집의 형식을 갖추어 출간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연구책임자는 1998~1999년에 『고구려 성』을 집필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여호규 교수가 담당하면서 성곽 부분의 집필을 담당하였다. 공동연구원으로 고구려 고분 연구의 권위자인 동국대학교 강현숙 교수가 고분을 담당하였다. 성곽과 고분의 유물 관련 내용은 고구려 보루와 관방체계, 기와 등 유물을 꾸준히 연구해온 한국교통대학교의 백종오 교수가 담당하였다.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김중은, 이정미, 정동민 연구원은 기왕에 간행된 보고서, 연구서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지지와 지도, 보도자료, 답사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된 연구진이 집필한 동북아역사재단의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권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sup>14</sup>

- I. 압록강 중상류 1 환인
- II. 압록강 중상류 2 집안-신빈
- III. 압록강 중상류 3 통화-백산·임강-장백
- IV. 통구분지 1 우산하·하해방·만보정·칠성산고분군
- V. 통구분지 2 마선구·산성하고분군, 벽화고분
- VI. 통구분지 3 성곽, 기타 유적, 유물

14 동북아역사재단, 2020,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VII -요동반도-태자하유역-;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VIII -혼하-요하 중상류-;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IX -심양 석대자산성-;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X -송하강-목단강-두만강 유역-; 동북아역사재단, 2021,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I -압록강 중상류-;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II -환인-; 동북아역사재단, 2022,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III -압록강 중상류-;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IV -통구분지 1-;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V -통구분지 2-;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VI -통구분지 3-.

- Ⅶ. 요동반도-태자하유역
- Ⅷ. 혼하-요하 중상류
- Ⅸ. 심양 석대자산성
- Ⅹ. 송하강-목단강-두만강 유역

10권으로 구성된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은 지역별로 압록강 중상류 지역이 3권(I~Ⅲ권), 통구분지가 3권(Ⅳ~Ⅵ), 요동반도 및 요하-송하강-두만강 유역을 4권(Ⅶ~Ⅹ)으로 묶었다.

압록강 중상류 지역은 고구려 초기의 도읍인 환인 지역을 I 권으로 구성하고, 두 번째 도읍인 국내성지 주변 지역(집안현, 신빈현)을 II 권으로 구성하였다. 기타 나머지 국내성지 주변 지역(통화시, 백산시, 임강시, 장백현)을 III 권으로 묶었다.

국내성지의 중심에 해당하는 통구분지 지역에는 가장 많은 수의 고분군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국내성지와 산성자산성과 같은 도성 유적이 위치한 관계로 관련 유구와 유물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지역을 3권으로 구성하였다. 통구분지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우산하, 하해방, 만보정, 칠성산 고분군과 산성자산성 인근의 마선구, 산성하고분군을 별권으로 구성했으며, V 권에서 벽화고분을 별도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국내성지의 경우 고분과 산성 외 도성 유적과 도성 내부의 건물지 등이 다수 확인되므로 VI 권에 관련 내용을 별도로 정리하였다.

고구려가 성장하면서 사방으로 팽창해나갔던 흔적들은 Ⅶ~Ⅹ 권에 배치하였다. 해당 지역에서는 고분군이 집중적으로 분포하지 않고, 발굴조사된 고분의 수도 부족하다. 이에 성곽을 중심으로 관련 분석이 이루어졌다. 우선 요동반도와 태자하 유역(단동시, 봉성시, 관전현, 동항시, 대련시, 와방정시, 장하시, 보란점시, 영구시, 개주시, 대석교시, 안산시, 해성시, 수암현, 요양시, 등탑시, 요양현, 본계시·현, 신빈현)의 유적은 Ⅶ권으로 정리하고, 중국 세력과 경계를 이룬 요하 중상류(무순시, 신빈현, 청원현, 철령시·현, 개원시, 서풍현, 요원시, 공주령시)의 자료는 Ⅷ권에서 정리하였다. 특히 Ⅷ권에서 검토한 성곽들은 고구려와 수·당과

의 전쟁 과정에서 사료에 등장하는 다수의 성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지역임을 강조하였다. Ⅱ권은 성곽 중 유일하게 심양 석대자산성 관련 자료를 별도로 분석하였다. 석대자산성은 1980년부터 지속적으로 조사되면서 환인 오녀산성, 집안 국내성지와 산성자산성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고고학적인 성과가 있었던 산성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사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타 성곽의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된다.<sup>15</sup>

마지막으로 Ⅲ권은 송하강-목단강-두만강 유역(길림시, 덕혜시, 농안현, 교하시, 만석시, 동풍현, 휘남현, 유하현, 청원현, 정우현, 무송현, 돈화시, 안도현, 화룡시, 용정시, 연길시, 도문시, 왕창현, 훈춘시)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검토 자료이다. 해당 지역은 고구려의 왕경에서 북동편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아울러 고구려의 뒤를 이어 건국된 발해의 중심 지역과 중복되는 지역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구려 문화와 발해문화의 양상에 대한 구분과 비교가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배려하였다.

각각의 권역에 대한 분석은 공통된 양식에서 세부적인 순서와 목차를 정하여 서술하였다. 각 권역에서 고분군과 고분, 성곽, 유물의 순서로 지역별 개관을 하였다.

I 권에서는 압록강 중상류편 전체 유적에 대한 개관이 앞부분에 배치되었다. 고분군과 고분의 경우 고분군의 분포 양상(지역별 현황)과 고분의 시공적 양상(구조분석)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성곽은 조사현황, 성곽의 입지와 유형, 축성 방식과 성곽 시설, 초기 도성 방어체제와 압록강의 수로 운영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다.

Ⅳ권에서는 통구분지에 대한 개관이 정리되었다. 여기서 고분은 고분군의

15 심양 석대자산성은 국내에서 개별 연구도 다수 진행되바 있다. 徐吉洙, 1999, 「石臺子山城을 통해 본 고구려 산성의 특징」, 『高句麗研究』 7; 李曉鍾, 2001, 「石臺子山城」, 『高句麗研究』 12; 백종오, 2017, 「中國內 高句麗山城의 發掘 現況과 主要 遺構·遺物の 檢討-2005年~2016年 發掘調査를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53.

분포 양상과 통구분지 고분의 구조와 특징을 검토하고 조사와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성곽은 건물지와 묶어서 국내성지의 성곽시설과 건물지, 산성자산성의 성곽시설과 건물지, 국내성지 주변 건물지 현황으로 나누어 유적을 정리하였다. 다수의 유물이 확인된 통구분지는 전체 정리현황과 연차별(2009·2010·2011년도) 유물 정리 현황을 제시하였다. V 권은 지역 개관은 아니지만, 집안지역 33기의 벽화고분을 별도로 편성하면서 벽화고분의 구조와 시기별 변화상에 대한 개관을 별도로 서술한 부분도 주목된다.

VII권에서는 압록강 하류-요동반도-태자하 유역에 대한 개관이 서두에 정리되었다. 이곳은 고구려의 영역확대와 교통로를 이해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39개소의 고분은 압록강 하류-태자하 유역-요동반도 일대의 분포현황과 구조, 시대를 정리하였다. 이 지역에서 3세기 이전 고구려의 기원을 확인하는 고분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에서 유의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121개소에 달하는 성곽은 세부 해당 지역별로 성곽 분포현황을 검토하였다.

VIII권은 혼하-요하 중상류 지역의 개관으로 시작한다. 이 지역은 고구려의 영역 확장과 중원 세력과의 충돌이 빈번한 지역으로 고분보다 성곽 중심의 조사와 연구가 집중된 곳이다. 고분의 경우 조사 사례가 부족하지만, 지역별 분포와 구조와 시기에 대한 간략한 정리가 이루어졌다. 성곽은 47개소가 분석대상인데 세부 지역별 분포 양상을 검토하였고, 기존 중국 군현성의 재 활용 사례나 고구려-발해 이후 점유 세력의 재 활용 현황 등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임을 강조하였다.

심양 석대자산성의 분석으로 구성된 IX권에는 산성의 현황이나 성격과 함께 주변 고분군에 대한 개관이 제시되었다.

마지막 X 권에서는 고구려의 동쪽 영역인 송화강-목단강-두만강 유역의 개관이 서두에 정리되었다. 이 지역은 고구려 진출 이전의 옥저와 동부여가 자리한 지역이나 명확한 고고학적인 흔적이 드러나지 않으며, 고구려 멸망 이후 발해의 문화가 중복된 곳이기도 하다.

고분의 경우 지역적 분포 양상과 구조적인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조사가 미

비한 측면이 있지만 고구려 초기 진출 양상과 발해 고분과의 차별성을 확인하는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성곽은 수계별로 휘발하 유역-북류 송화강 유역-목단강 유역-두만강 유역의 성곽 78기의 분포현황을 검토하였다. 성곽도 고분과 마찬가지로 고구려가 초축하고 발해가 재사용한 것인지, 발해의 성인지 또는 발해 멸망 이후 여진이 재활동한 것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I·IV·VII·VIII·IX·X의 서두에서는 해당 지역별로 고분과 성곽의 분포 범위나 구조적인 특징을 정리하였는데, 이러한 지역별 개관은 기왕에 간행된 어떠한 연구서나 자료집에 비해서도 분석 내용과 향후 과제의 제시가 연구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본 자료집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때 반드시 개관 부분에 대한 정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별 개관 뒤에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시·현) 단위로 고분군과 고분, 성곽, 유물의 순서로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지역별로 개별 유적의 검토는 행정 구역별로 유적분포도를 제시하여 수계와 해당 유적의 위치를 파악하기 용이하게 하였다. 이어서 세부 유적 중 고분군과 고분은 ① 조사현황, ② 위치와 자연환경, ③ 유적 현황, ④ 출토유물, ⑤ 역사적 성격과 참고문헌의 순서로 서술하였다.

성곽은 성벽이나 내부시설물에 대한 고고학 자료의 추가 설명을 위하여 ①~③은 동일하고, ④ 성벽과 성곽시설을 추가하여 후반에 ⑤ 출토유물, ⑥ 역사적 성격과 참고문헌의 순서로 구성하였다.<sup>16</sup>

개별 유적의 분석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도면 자료가 활용되었다. 해당 유적의 위치와 입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입체지형도를 이용하여 해당 유적과 주변 유적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댐 건설이나 도시화로 인하여 개발되기

16 성곽에 대한 검토는 ① 발굴조사 현황, ② 위치와 자연지형, ③ 성벽, ④ 성곽시설과 유적, ⑤ 유물, ⑥ 역사적 고찰의 순서로 분석한 기왕의 연구(여호규, 1998, 앞의 책)에서 시도한 안정적인 목차를 사용하였다.

이전의 지형과 교통로를 파악하기 위해 1930년대 이전에 재판되어 간행된 만주국 10만 분의 1 지형도를 함께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치도는 독자들의 입체적인 이해를 돕는다.<sup>17</sup> 그리고 본문 내에서 기존 보고서나 연구서에 수록된 고분이나 성곽 유구와 관련된 평면도 등의 각종 도면을 함께 수록하여 독자의 가독성을 높인 것도 구성상의 특징이다.

### Ⅲ. 연구사적인 의미와 향후 과제

이 총서는 중국 학계의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국내외의 연구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특징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우선 자료 정리의 기본이 되는 중국 학계의 조사 성과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보고 내용이 약보고 수준에 그쳤거나, 분석을 위한 풍부한 자료까지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국내외 연구에서 고분, 성곽, 유물의 특징을 규정하는 용어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총서는 연구진 사이에서 용어의 사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내 학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관련 자료를 정의하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향후 관련 고고자료의 연구에도 길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소재 고구려 고분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실상 지역별로 정치하게 자료를 종합한 첫 번째 자료집에 가깝다. 이와 같이 수계에 따른 대범주와 시·현 단위의 소범주에 따라 고분의 분포와 구조를 분석하게 되면서 기왕의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연구 주제가 제안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구려의 초기 도성이 위치한 혼강과 압록강 중상류 지역에서는 고분을 통

---

17 고구려 초기 도성이 위치한 환인 지역의 경우 혼강에 환인담이 건설되면서 고분과 성곽이 수몰된 상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국립문서보관소 소장 1960년대 위성사진과 현재의 위성사진으로 지형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던 간행물(고구려연구재단, 1995, 『위성사진으로 보는 고구려 도성』; 서울대학 교박물관, 2008, 『하늘에서 본 고구려와 발해』)이 학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하여 고구려의 형성과 성장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석실봉토석실 분과 대형 계단식적석총을 통하여 이 지역의 위상을 이해하게 해준다. 그렇지만 분포된 고분군의 수에 비해 아직 조사된 고분의 비율이 미미하여 모든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후 조사와 연구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압록강 하류와 요동반도의 경우에는 고구려 적석총의 기원지로 주목되는 곳이지만 실제 조사 성과를 통해서 이를 계기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고구려의 서진과 영역 확장이 이루어진 혼하와 요하 중상류 지역은 의외로 조사된 고분수가 많지 않으며, 가장 대규모 고분군인 무순 시가고분군도 6세기 후반 이후가 중심시기라는 점에서 요동지역 확보와 관련된 사료와 고고학적인 편년에 시간차가 발생함이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이른 시기부터 고구려사의 무대로 등장하는 송화강 유역에서도 관련된 고분이 확인되지 않는다. 두만강 유역에서도 고구려 고분인지 발해 고분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고구려 고분의 지역적인 분포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고구려의 성장과 발전 과정이 고고학적인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확인한 것은 바로 추후 조사의 방향과 연구의 과제들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성곽에 대한 자료는 기왕에 단행본으로 간행된 연구에서 집계한 성곽의 수보다 많은 자료를 다루었다. 사실 연차적인 조사를 통하여 산성의 축조와 운영 주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가능한 성곽 사례는 많지 않다. 부분적인 조사나 지표조사를 통하여 성벽 축조방식과 내부 출토 유물이나 주변 유적과의 정황을 통하여 고구려 성곽일 가능성이 있다는 선에서 분석된 사례도 많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고구려 멸망 이후의 발해, 여진, 명 등의 세력이 재활용한 흔적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본 총서가 자료집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조사 내용과 다양한 이견이 있는 연구 성과까지 함께 정리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바로 추후 연구의 과제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거쳐 간 다양한 세력의 축조 기술을 이해해야만 고구려의 축성 기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sup>18</sup>

한편, 이 총서에서는 성곽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분류 기준이 적용

되었다. 현지 명칭을 감안하여 성, 산성, 고성, 성지로 표기하였다. 이와 다른 특수한 성격의 관방시설은 장성, 관애, 초소로 분류하였다. 성곽을 연결할 일종의 2개소의 장성(공주령 노변강 유적, 연변장성), 교통로를 차단하는 11개소의 관애(환인 북부관애, 집안 땅파령관애·만구노변장관애·칠개정자관애, 통화 이도구문관애·석호관애, 장백 십이도만관애·십사도구관애, 반석 지방구관애·성자구관애, 관전 백채지관애)와 1개소의 초소(집안 대천초소)가 분석되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초소이다. 집안 대천초소의 이칭을 대천초잡으로 표기하였는데, 초소의 성격은 소규모 관방시설인 보루로 정리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 학계에서 길림성 일대 7개소의 소규모 관방시설을 초잡(哨卡)으로 구분한 연구도 있었다.<sup>19</sup> 본 총서에서는 집안 대천초소(대천초잡)만 초소로 분류하고, 통화 영과포산성, 임강 임성고성, 동마록포고성, 교하 동산산성을 소규모 산성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집안 대쌍안초잡, 유하 포어대초잡은 총서에서는 누락되었다.

주변의 성곽을 보조하는 초잡은 둘레가 100~300m이고, 축성 방식은 대체로 석축 또는 토석혼축이다. 토석혼축 구조는 석축부가 붕괴된 상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체로 요하 중상류 지역에 이러한 소규모 관방시설이 다수 확인되는데, 총서에서는 심양 영반산성을 기능상 석대자산성의 보조성이며, 입지와 규모가 남한지역 보루와 유사하다고 분석하였다.

길림성 일대 초잡도 남한지역의 고구려 보루와 유사한 면이 있다는 점에서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거점성으로 운영된 대형 성곽을 보조하는 군사적 성격의 소형성곽, 보루, 초소(초잡)의 개념에 대한 정의와 관련 연구에도

18 국내의 고대성곽도 삼국 간의 길항과정에서 서로 영유하고 수개월간 경우가 허다하며, 고려-조선시대에 재활용되면서 다시 수개월간 사례도 많다. 연해주 일대가 중심이지만 요하 중상류를 포함하여 여진 세력의 축성과 운영을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白杵勲, 2015, 『東アジア中世城郭-女眞の山城と平城-』, 吉川弘文館). 향후 관련 연구가 심화된다면 고구려 성곽의 축성 기법이나 특징을 구분해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 張福有, 2016, 『高句麗古城考鑑』下, 吉林文史出版社.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성곽의 운영과 함께 수반된 군사 통신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한 견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20</sup> 바로 사료에서 확인되는 고구려가 운영하였던 봉수의 존재이다. 국내에서는 조선시대 봉수에서 소급하여 가야지역을 중심으로 고대 성곽과 봉수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직 중국 소재 봉수 유적 중 명확하게 고구려 유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으나, 봉수가 대체로 소규모 성곽과 연결된다는 점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사와 연구도 필요하다.

한편, 총서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느낀 아쉬운 점을 뽑는다면, 상세한 수계와 시·현 단위의 유적배치도와 달리 광범위한 범위의 배치도가 누락되었다는 점이다. 많은 유적을 하나의 지도에 담아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교통로나 수계에서 전체 배치 관계를 보여주는 고분과 성곽의 배치도가 있었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고분이나 성곽의 도면 자료는 최대한 제시되었지만 사진 자료가 수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고구려 초기 도성이 위치한 환인지역의 경우 혼강에 환인담이 건설되면서 고분과 성곽이 수몰된 상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국립문서보관소 소장 1960년대 위성사진과 현재의 위성사진으로 지형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던 간행물이 학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sup>21</sup> 이러한 초창기의 상황과 다르게 현재는 구글 어스 등을 통하여 위성사진을 활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미 직접 조사하기 힘든 북한 소재 성곽의 입지와 배치를 파악하는 연구에도 활용 중이다.<sup>22</sup>

물론 사진 자료의 누락은 저작권의 문제나 총서의 분량이라는 한계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다. 따라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앞서 간행

20 이성재, 2016, 「최근 조사 자료를 통해 본 중국 소재 고구려 성곽의 운용양상-이해의 한계와 새로운 접근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3.

21 고구려연구재단, 1995, 앞의 책; 서울대학교박물관, 2008, 앞의 책.

22 양시은, 2016, 앞의 책; 윤성호, 2021, 「삼국시대 비열홀 지역 관방시설 연구」, 『白山學報』 121.

한 『고구려성 사진자료집』을 활용하고,<sup>23</sup> 총서에서 자세하게 소개된 다양한 전거 자료를 함께 보기를 권장한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작인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연구』가 간행된 배경, 총서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연구사적인 의미 등을 살펴보았다.

본 총서의 머리말에서 간행에 대한 기대효과를 고구려사와 고구려고고학의 연구의 토대를 확보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대국민 역사인식 고취에 중요한 기초도 마련하게 되었다고 기술하였다.

본 총서를 읽어나가면 이러한 기대 효과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서평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소소한 아쉬운 점을 언급했다고, 총서의 연구사적인 의의가 약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자료집을 펼치고 관련된 내용을 정독하는 것만으로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고구려의 유적 속으로 손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고분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고구려의 문화의 기원과 확산과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성곽을 통하여 교통로·방어체계·영역 확장·전쟁사 등 다방면으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 본 총서를 준비한 연구진들의 노력의 결실은 대단한 의미를 가진다. 기왕에 방대한 자료임에도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한 번에 모으기 힘들었던 고구려 유적 자료에 대한 연구자들의 분석 욕망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총서의 워홀을 지나서 이제 화이트홀로 튀어나오게 되었다. 고구려 연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연구의 공간은 무한하게 확장될 것이다.

---

23 동북아역사재단, 2006, 『高句麗城 사진자료집』 1 -中國 遼寧省·吉林省 西部-; 동북아역사재단, 2010b, 『高句麗城 사진자료집』 2 -中國 吉林省 東部-.

## 참고문헌

### 단행본

- 강현숙·양시은·최종택, 2020, 『고구려 고고학』, 진인진.
- 고구려연구재단, 1995, 『위성사진으로 보는 고구려 도성』.
- 동북아역사재단, 2006, 『高句麗城 사진자료집』1 -中國 遼寧省·吉林省 西部-.
- \_\_\_\_\_, 2009, 『고구려 유적의 어제와 오늘』 1 -도성과 성곽-.
- \_\_\_\_\_, 2010a, 『고구려 유적의 어제와 오늘』 2 -고분과 유물-.
- \_\_\_\_\_, 2010b, 『高句麗城 사진자료집』 2 -中國 吉林省 東部-.
- 東潮·田中俊明 著, 동북아역사재단 역, 2008, 『고구려의 역사와 유적』.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조선고고학전서』 27(중세편4) 고구려의 성곽, 진인진.
- 서울대학교박물관, 2008, 『하늘에서 본 고구려와 발해』.
- 양시은, 2016, 『高句麗 城 研究』, 진인진.
- 여호규, 1998, 『高句麗 城』 I -鴨綠江 中上流域編, 國防軍事研究所.
- \_\_\_\_\_, 1999, 『高句麗 城』 II -遼河流域編-, 國防軍事研究所.
- 李殿福 著, 車勇杰·金仁經 譯, 1994, 『中國內의 高句麗遺蹟』, 學研文化社.
- 정원철, 2017, 『고구려 산성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중앙문화재연구원, 2015, 『고구려의 고분 문화』 II -길림성 집안시 통구고분군-.
- \_\_\_\_\_, 2016, 『고구려의 고분 문화』 III -길림성·요령성 일대-.
- 채희국, 1985, 『고구려력사연구 -고구려건국과 삼국통일을 위한 투쟁, 성곽-』, 김일성  
종합대학출판사.
- 王綿厚, 2002, 『高句麗古城研究』, 文物出版社.
- 張福有, 2016, 『高句麗古城考鑑』下, 吉林文史出版社.
- 白杵勲, 2015, 『東アジア中世城郭 -女眞の山城と平城-』, 吉川弘文館.
- 東潮, 1997, 『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
- 東潮·田中俊明, 1995, 『高句麗の歴史と遺跡』, 中央公論社.

논문

- 백종오, 2017, 「中國內 高句麗山城의 發掘 現況과 主要 遺構·遺物의 檢討-2005年~2016年 發掘調査를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53.
- 徐吉洙, 1995, 「松花江 流域의 高句麗 山城 研究-제2송화강 중류 吉林市를 중심으로-」, 『高句麗研究』 1.
- 徐吉洙, 1999, 「石臺子山城을 통해본 고구려 산성의 특징」, 『高句麗研究』 7.
- 윤성호, 2021, 「삼국시대 비열흘 지역 관방시설 연구」, 『白山學報』 121.
- 이성재, 2016, 「최근 조사자료를 통해 본 중국 소재 고구려 성곽의 운용양상-이해의 한계와 새로운 접근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3.
- 李曉鍾, 2001, 「石臺子山城」, 『高句麗研究』 12.
- 최종택, 1995, 「漢江流域 高句麗土器 研究」, 『韓國考古學報』 33.
- \_\_\_\_\_, 1999, 「高句麗土器研究」, 서울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서평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근세 한일관계의 실체적 검증

— 『近世日朝關係と対馬藩』(酒井雅代, 吉川弘文館, 2021)

이해진 |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본서의 구성과 내용
- III. 본서의 학술적 의의와 추가적 고찰
- IV. 맺음말을 대신하여



## I. 머리말

근세(조선 후기, 에도시대)의 한일관계는 조선 조정과 일본의 에도막부가 직접 외교·무역을 실시하지 않고, 양국 사이에 위치한 쓰시마번(對馬藩)이 중개를 맡는 구조하에 이루어졌다. 이처럼 근세 한일관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쓰시마번의 사료(쓰시마 중가문서)는 현재 한일 양국에 12만 점이 넘는 방대한 규모가 전해진다. 2000년대 이후부터 일본에서는 쓰시마 중가문서의 목록화 및 디지털화가 진전되어 근세 한일관계사 연구의 다양화와 심화를 촉진하였다. 특히 최근 해당 분야에서 수 편의 박사논문이 집필되어 향후 신진연구자들의 괄목할 만한 활약을 기대하게 한다.

본서 또한 최근 근세 한일관계사 분야 신진 연구성과를 대표한다. 저자 사가이 마사요(酒井雅代, 이하 ‘저자’)는 2017년에 일본 나고야대학(名古屋大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학위 취득 후에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재임하면서 한국의 학회에도 참가하여 발표를 진행하는 등 한일 양국 학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는 일본 오쓰마여자대학(大妻女子大學) 비교문화학부에서 전임강사로 재직 중이다. 최근 일본에서 출간된 본서의 학문적 성과 및 연구사적 의의는 한국의 한일관계사 발전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본서의 구성 및 요지를 간략히 소개한 뒤, 연구사적 의의와 더불어 평자의 추가적인 고찰을 적어보도록 하겠다. 본서의 내용 및 취지에 대한 평자의 오독 및 오인이 있을 수 있기에, 이에 관하여 미리 양해를 구해두고자 한다.

## II. 본서의 구성과 내용

저자는 2017년에 제출한 박사학위논문(서장과 종장 외 총 5장)을 수정하고 2개의 장을 추가한 뒤, 2부로 재구성하여 2021년에 본서를 출간하였다. 목차는 아래에 적은 바와 같으며, 박사학위논문 이후 새로 추가한 장은 ‘新稿’로 표시하였다.

- 序章 研究史の動向と本書の課題
- 第一部 日朝間の諸問題と朝鮮・対馬藩・幕府
  - 第一章 寛文抜船一件からみる日朝関係
  - 第二章 一八世紀前半の沿岸警備体制と対馬藩
  - 第三章 寛政期における異国船の釜山来航と日朝海域 (新稿)
  - 第四章 朝鮮人の倭館「亡命」事件にみる日朝関係
    - 一八三六年「南必善一件」を事例として -
- 第二部 日朝外交と朝鮮通詞
  - 第一章 近世後期対馬藩の朝鮮通詞
  - 第二章 朝鮮信使易地聘礼交渉の頓挫と再開
    - 朝鮮通詞と倭学訳官の交流を中心に -
  - 第三章 朝鮮通詞の著作と最前線での日朝交流 (新稿)
    - 『通訳酬酢』を中心に -
- 終章 日朝接触からみる近世日朝関係史

서장에서 저자는 1960~1970년대 이래 근세 일본의 대외관계 체제를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제기된 ‘쇄국(鎖國)’이라는 역사용어를 둘러싼 연구사적 논쟁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서의 연구과제를 설정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논쟁의 전개 양상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1980년대에 접어들어 ‘쇄국’이라는 역사용어가 19세기에 형성된 조어(造語)이며,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근세

의 일본은 대외적으로 닫혀 있지 않고 주변 나라 혹은 민족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가해졌다. 나아가 ‘쇄국’이라는 역사용어의 대안으로서 근세 일본의 대외관계 체제를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보편적 개념인 ‘해금(海禁)’으로 지칭할 것을 주장하고, 그 속에서 각 나라가 자기를 기점으로 하여 국외와의 관계를 ‘화이질서(華夷秩序)’하에 위계적으로 편성하고 있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sup>1</sup> 이후 일본 학계에서는 이러한 ‘해금·화이질서’론의 재고 및 비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근세 대외관계사에 관한 풍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저자는 근세 한일관계사 분야의 연구 동향을 제시한 뒤, 선행연구의 전체적 현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4개의 연구과제를 설정하였다.

① 근세 일본의 대외관계 중에서도 특히 한일관계를 주제로 삼아 시대적 변화와 지역적 차이를 고려<sup>2</sup>하면서 분석을 진행한다. 그리고 선행연구가 ‘쇄국’ 혹은 ‘해금·화이질서’라는 구조의 형성과정 및 적합한 용어 문제를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주로 체제의 형성기(17세기)에 주목해왔기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설명된 근세 중후기(18~19세기)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각 시대에 나타난 동아시아 사회의 변화 및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 대외관계의 역사적 ‘실태’를 밝히고자 한다.

② 근세 한일 외교의 구조를 파악한다. 17세기 초반 이후 막부가 외교권을 통일적으로 장악하였다고 하는 선행연구의 설명에 대하여, 실제로 막부와 중개역인 쓰시마번 사이에서 어떻게 외교 실무를 분장하여 실시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에도막부를 중심으로 막번제(幕藩制)가 형성되어 있

1 荒野泰典, 1988,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学出版会.

2 각주 1)의 아라노 야스노리(荒野泰典) 저서가 제창한 이른바 ‘4개의 창구(四つの口)’론을 겨냥하여, 저자는 근세 일본의 대외관계를 담당한 지역 각각의 특성과 함께 해당 체제가 일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통시적인 과정을 거쳐 성립된 것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던 일본과는 달리 관료제에 기반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던 조선이 지닌 국가 체제의 차이를 고려하여, ‘해금’이라는 ‘공통성’에만 주목해서는 해명할 수 없는 양국의 외교 방식을 검토한다.

③ 역사를 동태적으로 파악하여 구체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낸다. 선행 연구가 주목한 ‘화이의식’ 혹은 ‘화이질서’가 근세 전 시기의 모든 민중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일본의 변경에서 항상 이민족과 접촉한 사람들’을 포함한 ‘근세 일본인’들의 의식을 생생히 제시한다.

④ 일국사적(一國史的)인 시각을 탈피하여 대외관계사를 논한다. 조선과 일본 양국의 사료를 두루 섭렵하여 사실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시점으로부터 역사상을 재구축한다.

그리고 본론의 분석을 통하여 ‘쇄국’하에서 이루어진 조선·일본 접촉의 구체상과 사람들의 미시적 동향을 밝히고, 이에 대비되는 쓰시마번·막부·조선이라는 ‘국가’의 거시적인 작용으로 시야를 넓히면서 한층 더 실태에 입각한 근세 한일관계의 역사상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본서의 최종 목표를 선언하였다.

다음으로 본론의 내용을 장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부 제1장에서는 1660년대에 있었던 대규모 밀무역 사건에 관하여 쓰시마번·조선·막부가 남긴 사료를 대조하며 사실을 재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본 내에서는 ‘해금’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민의 사적인 대외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권력과의 대항관계가 확인되는 반면, 조선 측에서는 밀무역에 조정이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대외관계의 독점과 장악 양상에 차이가 보인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선행연구가 제시한 ‘해금’의 틀로는 근세 동아시아의 대외관계를 충분히 설명해낼 수 없음을 논하였다.

제1부 제2장에서는 1720년대에 발생한 밀무역 사건을 둘러싼 조선과 일본(막부·쓰시마번) 측의 해역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제1장에서 다룬 앞선 시기의 사례와 비교하였다. 당시 밀무역 처벌의 관대한 처리와 더불어 나가사키(長崎)를 중심으로 편성한 연안 경비체제의 강화를 모색하던 막부의 입장과는 별개로 쓰시마번은 해당 사건을 조선과의 외교상 문제로서 처리하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조선은 쓰시마번이 규정 외의 사신을 파견해온 것에 난색을 드러내었음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과의 경계 해역을 대상으로 한 관리는 쓰시마번에 위임되어 있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조선·쓰시마번·막부 3자의 입장은 달랐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제1부 제3장에서는 서양 각국이 태평양 탐험에 열을 올리던 1790년대에 부산 왜관의 앞바다에 출몰한 이국선(영국 선박 프린스 윌리엄 헨리호) 문제의 처리 과정을 검토한 뒤, 같은 시기에 있었던 쓰시마 서쪽 해상의 이국선 출몰에 대한 일본 측의 조치 양상과 비교하였다. 먼저 조선은 부산에 출몰한 이국선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해당 사건들을 보고받은 막부는 부산 왜관의 문제를 쓰시마번에게 위임한 반면, 쓰시마 서쪽의 이국선 출몰과 관련해서는 규슈(九州) 지역의 다이묘들과 연동하여 방비할 것을 지시하는 등 국내 해역에 한정해서는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즉, 이 시기 왜관 인근의 해역 방비에 조선과 막부 모두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는 가운데, 쓰시마번만 대책에 고심하던 상황이었음을 이야기하였다.

제1부 제4장에서는 조선에서 세도정치기의 사회 혼란으로 인하여 민란이 한창이던 1830년대에 남필선(南必善)이라는 가명을 쓴 조선인이 왜관으로 망명을 신청함과 동시에, 조선의 일본 침략 계획을 허위로 전하며 쓰시마번 측에 조선으로의 병력 파견을 요청하여 국가 전복을 꾀한 사건(이른바 ‘남필선 사건’)을 다루었다. 당시 조선이 남필선에 대한 국가 주도의 엄벌을 기조로 일본 측과의 교섭에 임하는 가운데 막부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쓰시마번 내에서는 번 당국의 조치에 앞서 최전선의 외교교섭 기구인 왜관에서 자체적인 판단을 내린 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였음을 이야기하였다. 즉, 왜관을 무대로 한 한일 양국의 교섭 양상을 생생히 그려낸 본 장은 2부에서 수행할 조선통사의 역할에 관한 본격적인 분석을 예고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제2부 제1장에서는 이어지는 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조선통사의 기초적인 정보를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인원 구성, 계층 구성 및 승진 과정, 봉록과 수당, 직무 분장 및 일상적 업무, 상벌, 양성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조선통사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설명하고, 관련 사료를 통해 얻은 정보를 표로 제공하였다.

제2부 제2장에서는 1811년의 마지막 조선통신사가 에도가 아닌 쓰시마에서 외교 의례를 실시한 역지빙례(易地聘禮)가 결정되기까지 양국 사이에서 벌어진 기나긴 물밑교섭 속에서 조선통사가 수행한 역할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쓰시마번 측의 조선통사와 조선 측의 역관 사이에서 있었던 일상적인 교류·교섭이 근세 한일 외교 속에서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파악하였다. 역지빙례에 관해서는 교섭 과정에서 비리가 발각되어 조선(역관)과 쓰시마번(왜관 관수·조선통사) 측 실무자들이 처벌을 받은 뒤, 쓰시마번 측의 교섭 방침이 ‘강압’ 노선에서 ‘협조’ 노선으로 ‘전환’됨에 따라 양국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는 전전(戰前)에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가 제시한 역사상이 일반적으로 이어져왔다. 그러나 본 장에서 저자는 역관과 조선통사 사이의 일상적인 교섭을 생생히 그려내는 과정에서 쓰시마번 측의 ‘강압’ 노선 자체가 역관 측의 조언을 거쳐 펼쳐진 것이었으며, 또한 쓰시마번 측 실무자의 처벌은 조선 측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위장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음을 밝혀내었다. 게다가 실무자들의 처벌 후에도 표면상의 공식 교섭을 뒷받침하는 수면 아래의 일상적인 교섭이 계속되어 역지빙례의 달성을 이루어내었기 때문에 교섭 방침의 ‘전환’이 아니라 ‘계속’된 것임을 논하여 다보하시가 도출해낸 역사상에 수정을 가하였다.

제2부 제3장에서는 조선통사가 남긴 저작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왜관의 한일 교류 양상을 다루었다. 먼저 조선통사 저작의 주제들을 망라하여 그들이 수행한 조선 관련 정보의 수집과 보존의 전체상을 도출하고, 이를 표로 제시하였다. 이어서 대표적 조선통사인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가 만년에 남긴 저서로, 역관과 조선통사의 대화체로 이루어진 『통역수작(通譯酬酢)』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근세 한일관계의 최전선에서 이루어진 일상적인 교류의 모습과 조선통사가 수행한 역할을 고찰하였다. 『통역수작』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저자인 오다의 조선 인식과 대외관계 인식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저자는 『통역수작』의 ‘내부’에 그려진 특정 문제 외에도 해당 기록의 형성

에 영향을 끼친 ‘외부’적 동향(통사의 활동과 당시의 조선관계 상황)을 총괄적으로 고찰하려는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통사들의 저술 활동이 후진양성을 지향한 것이었음을 논한 뒤, 『통역수작』의 집필 배경 및 목적을 고찰하고 오다가 저서 속에 담아내고자 한 바람직한 조일외교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장에서는 서장에서 제시한 취지에 맞춰 본문에서 다룬 구체적 사례들에 다시금 의의를 부여하며 글을 맺었다.

### III. 본서의 학술적 의의와 추가적 고찰

2021년에 출간된 본서는 젊은 세대가 일구어낸 근세 한일관계사 연구의 최신 성과로서 일본 내에서도 주목을 받았으며, 그 결과 2022년에 3편의 서평이 학술지에 게재되었다.<sup>3</sup> 이하에서는 선행하는 서평들을 참조하며 평자가 느낀 바를 서술해가도록 하겠다.

근세 한일관계사 연구는 에도막부의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대외관계 체제를 규명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대체로 근세의 ‘국가 권력(에도막부)에 의한 대외관계의 ‘통제’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체제’ 혹은 ‘질서’라는 전체상을 도출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후 일본사학계에서는 이러한 역사상이 대외관계의 실제 모습과 다소 유리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 이루어졌다.<sup>4</sup> 그 결과 최근 외교·무역의 실체적 상황으로부터 기존의 ‘체제’론을 수정하고 새로운 역사상을 도출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본서 또한 이러한 경향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연구성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가 이

3 일본에서는 『日本歴史』 2022년 5월호에 야마구치 가요(山口華代), 『歴史学研究』 2022년 8월호에 후루카와 유키(古川祐貴), 『歴史評論』 2022년 12월호에 기무라 나오야(木村直也)가 각각 본서에 대한 서평을 게재하였다.

4 근세 한일관계사 분야에 검토 대상을 집중한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 쓰루타 게이(鶴田啓) 등의 연구가 이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진 대표적 성과이다.

른바 ‘체제’나 ‘질서’의 성립 과정에 주목해온 결과, 분석 대상이 된 시기가 주로 근세 초기(17세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본서는 상대적으로 검토가 미진하였던 근세 중후기(17세기 말~19세기)를 겨냥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분야 연구에 풍부함을 더해주었다.

또한 본서는 관련 사료의 치밀한 검토에 기초한 사례연구를 통해 실증적인 토대 위에서 근세 한일관계의 ‘실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과거 ‘국가’에 의한 대외관계의 ‘통제’라는 시각하에 밀무역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해외 활동을 지향하는 ‘민중’과의 대립관계를 그려내었던 선행연구의 도식화된 틀을 과감히 해체하고, 17세기 후반의 밀무역 사건에 영향을 끼친 당시 조선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가 주도한 밀무역이라는 성격을 재고한 제1부 제1장의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게다가 이어지는 제1부의 제2~4장에서는 18~19세기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근세 일본의 대외관계 관리 실태에 관한 통시적인 조망을 시행하였다.

이어서 저자가 서론에서 ‘일국사적 사관의 극복’을 선언한 취지대로, 본서는 근세 한일관계를 증개해온 쓰시마번, 그리고 쓰시마번과 조선의 관계를 증개해온 조선통사의 활약과 그들의 입장을 생생하게 제시한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넘어 한층 입체적이고 다면적으로 근세 한일관계사를 그려낼 수 있었다.<sup>5</sup> 그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사료를 균형 있게 다루었다는 점 또한 본서가 지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본서의 제2부는 근세 후기의 한일관계에서 쓰시마번의 조선어 통역관으로서 다양한 실무 교섭을 수행하였던 조선통사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제2부 제1장과 제3장에 제시된 표들은 저자가 직접 발로 뛰며

5 최근 일본에서 출판된 신진연구자의 또 다른 연구성과인 程永超, 2021, 『華夷變態の東アジア: 近世日本・朝鮮・中国三国關係史の研究』, 清文堂出版 또한 근세 중국(명·청)과 일본 사이의 조선, 그리고 조선과 일본 사이의 쓰시마번이라는 근세 동아시아 대외관계사 속의 ‘중개자’들이 수행한 역할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같은 취지를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집한 광범위한 분량의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정리해낸 소중한 결과물로, 향후 근세 한일관계사 연구의 확대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그리고 제 2부 전체에서 저자는 국경을 넘어, 때로는 공적인 임무와는 별개로 조선 측 역관과 쓰시마번 조선 통사가 나누었던 친분, 정서적 공감까지도 ‘사람들의 모습’으로서 놓치지 않고 담아내었기에 생동감 있는 역사 이해의 시각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본서를 통해 이루어진 한일 외교교섭 속 조선통사의 역할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는 1811년의 마지막 통신사에 관한 기존 역사상의 수정으로 이어졌다. 역지빙례에 관해서는 다보하시의 연구성과가 최근까지도 정설의 자리를 차지해왔으나, 저자는 통신사 의례의 수정 문제를 둘러싼 조선과 일본 사이의 교섭 속에서 조선통사가 주역이 되어 수행한 교섭의 실상을 밝힘으로써 오랫동안 고정적으로 이어진 역지빙례의 이해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연구사의 축적이 아직 부족한 19세기 한일관계사 연구의 진전을 자극하고 있기에,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하에는 본서를 읽은 뒤 평자가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느낀 사항을 적어보겠다.

가장 먼저 앞선 서평들에서도 지적된 내용이지만, 평자 또한 마찬가지로 다소간의 위화감을 느꼈기에 간략히 이야기해볼 사항이다. 저자는 서장에서 대외관계 통제의 주체인 ‘국가’의 범주에 쓰시마번을 포함하였는데, 중개자로서의 쓰시마번은 통제의 주체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막부로부터 대외관계상의 월권 행위를 통제받는 대상이기도 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개자’라는 주체의 입체적인 성격을 고려한다면 쓰시마번을 곧바로 통제의 주체가 되는 ‘국가’로서만 규정하는 데에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서장에서 이야기한 선행연구의 ‘쇄국’과 ‘해금’ 논쟁과 관련하여 저자의 입장을 고려해보고자 한다. 저자는 제1부 제1장에서 해금 개념으로는 근세 대외관계사를 설명할 수 없음을 주장한 뒤, 제1부 제2장부터는 바로 ‘쇄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논지를 전개해나갔다. 그러나 ‘해금’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곧바로 ‘쇄국’이라는 용어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다소 의문이 남는다. 서론에서 저자는 최근에 이루어진 근세 중후기의 ‘쇄국’과 ‘해금’에 관한 연구가 언설론(담론 연구)<sup>6</sup>으로 귀결되어 실패적인 검토는 후퇴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평자의 견해는 오히려 이러한 담론 논쟁을 통해 ‘쇄국’이라는 역사용어가 지닌 ‘실패’와의 괴리가 더욱 명확해졌다는 생각이다. 이와 같은 담론으로서의 ‘쇄국’ 연구사를 참조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쇄국’이라는 개념에 대한 저자 나름의 재정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제1부 제1장에서 저자는 조선 조정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밀무역을 이른바 ‘반합법적’인 것이었다고 규정하였는데,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와 같이 이는 조선 조정이 ‘은밀히’ 교역하도록 지시한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 조정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밀무역이 ‘불법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자인한 가운데 이를 실시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상황은 일정 정도 조선의 대외정책상에 이른바 ‘해금’의 아웃라인은 존재했지만, 불가피한 여건으로 인하여 이를 스스로 어길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조선의 대외정책이 보였던 이와 같은 다면적인 성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어서 제2부에서 주로 다룬 조선통사의 역할 및 그 영향에 관하여 저자는 메이지유신 이후에 출간된 소메자키 노부후사(染崎延房)의 저작이 오다가 지은 기록들을 수록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근대로 계승된 조선 관련 정보가 지닌 성격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고찰하였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제1부에서 이야기한 근세 일본의 대외관계 체제, 특히 쓰시마 연해의 연안경비 체제에 관해서도 후세로 이어지는 전망(내지는 단절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가령 막부 말기인 1861년에 러시아 함대가 쓰시마에 상륙하는 포사드니크(Possadnick)

6 大島明秀, 2009, 『「鎖國」という言説: ケンペル著・志筑忠雄訳「鎖國論」の受容史』, ミネルヴァ書房; 荒野泰典 편, 2017, 『近世日本の国際関係と言説』, 溪水社. 등이 대표적인 성과이다.

호 사건이라는 중대 사건이 있었기에, 저자가 고찰한 18세기 말 쓰시마번의 이국선 대응 및 해상 방어 체제가 해당 사건에서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관련 선행연구의 제시를 통해서라도 제1부 제3장의 마지막 혹은 종장에서 논하였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소메자키의 저작에 관하여 저자는 제2부 제3장의 결론에서 오다의 저작을 통해 근대 초기에 ‘발굴’된 조선 정보들이 일종의 실록물 엔터테인먼트로서 소비되었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저자가 분석해낸 이와 같은 소메자키의 집필 의도와 해당 출판물을 실제로 접한 독자의 감상이 반드시 같았다고는 볼 수 없다. 즉, 소메자키의 출판물을 통해 소비된 조선 관련 정보와 이미지가 해당 시대 사람들의 대외 인식에 집필 의도 이상의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역지빙례의 경과 및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조선통사와 관련하여 저자가 새롭게 밝혀낸 사실과 사료를 통해 19세기 한일관계사의 지평이 풍부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저자의 이와 같은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본서의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던 당시 조선통사들의 인식 및 해당 시기에 등장한 서사들의 논리·사상적 구조를 밝혀내는 작업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가령 역관과 통사 사이의 담화 속에서는 그들의 유대감을 서로 확인하는 논리로서, 양국 사이의 교섭을 원만히 중재하는 것이 각자의 나라에 대한 충성이라는 사명감이 공유되었다. 이러한 인식 내지는 서사가 근세 한일관계의 실무자들로 하여금 치열한 교섭의 장에서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독려하는 사상적 공통분모로서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 IV. 맺음말을 대신하여

이상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본서는 대외관계의 ‘체제’ 혹은 ‘질서’의 규명에 치중하였던 선행연구의 경향에 거리를 두고 대외교류의 최전선에서 벌어진 ‘사

람들의 모습'을 생생히 그려냄으로써 근세 한일관계사의 '실태'에 접근하고자 한 신진연구자의 성과로서 한일 양국의 향후 연구에 큰 자극을 주고 있다. 평가 또한 근세 한일관계사의 신진연구자 중 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천에 옮긴 저자의 세대적 '사명감'을 '공유'하는 마음으로 본서를 읽어나갔다.

현재까지도 한일 양국은 다양한 역사문제를 사이에 두고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의 전망을 보이지 못하고 계속 이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도 한일 양국 사이에 상호 몰이해의 영역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평자는 생각한다. 근세 한일관계사의 거시적인 관점하에서 도출된 '멸시관'이나 위계적 자타 인식 등이 역사문제에 접근하는 현재의 시각에도 선입관으로서 남아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점에서 근세 한일관계사 속 '사람들의 모습'을 미시적으로 그려낸 저자의 성과는 현재의 한일 상호이해를 모색하는 데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한일 간의 역사문제 논쟁과 관련하여 본서가 인용한 오다 이쿠고로의 『통역수작』 기사 중에 눈여겨 볼 만한 문장이 있어, 이에 대한 저자의 해석을 인용하면서 본 서평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아래의 서사는 오다가 조선 측의 잘못을 비판한 데에 역관이 변명으로 대응하자, 오다가 굳이 상대측의 잘못된 바를 세세히 지적하는 취지를 다시금 이야기한 내용이다.

“귀하(역관)의 말씀이 지당합니다”라고 대답한다면, 귀하도 저(오다)를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걸으로는 좋은 관계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언동과 내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니, 일본과 조선 사이의 '성신(誠信)'은 말뿐인 걸치레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sup>7</sup>

7 酒井雅代, 2021, 『近世日朝關係と對馬藩』, 吉川弘文館, 23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죽음의 운명공동체에 관한 기록

— 『너희는 죽으면 야스쿠니에 간다』(박광홍, 오월의 봄,  
2022)

조건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I. 제주 바다의 일제 전쟁유적이 남긴 의문
- II. 죽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 III. 야스쿠니(靖國)라는 살아 있는 제국주의
- IV. 제국주의 일본군의 정신사(精神史)를 위한 초고



## I. 제주 바다의 일제 전쟁유적이 남긴 의문

박광홍은 제주 ‘바당’에서 태어나 바다의 기운을 받고 자랐다. 그래서인지 해안 절벽 곳곳에 뚫린 일제 전쟁유적과 2012년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파괴된 구럼비 갯바위를 생각하면 그것이 마치 자신의 상처인 양 아팠다고 한다. 처음에는 그저 전쟁이 남긴 제주의 상처가 아팠지만 훗날 그 전쟁의 실상을 직면하게 되면서 해병대에서 복무했던 자신의 정체성까지 거둬 성찰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성찰은 결국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군 출신자들에 대한 인터뷰로 이어졌다.

특히 제주 해안에 남은 일제 전쟁유적이 ‘자폭 보트’를 은닉하기 위한 장소였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내던졌던 사람들”과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다. 저자는 어떤 사회가 구성원에게 죽음을 권장(강요)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공동체의 구성원이 죽음을 당연시하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의 해답을 찾고 싶었다.

이 책은 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인 「총력전 체제하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형성과 동요: 전 일본 군인·군속의 구술사를 중심으로」를 토대로 한다. 제주 출신인 자신의 유년시절 기억에서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그곳에 있었던 전쟁유적과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로 관심과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제목은 다소 자극적이지만 내용은 나름 사람 냄새가 묻어 있어 저자의 정서적 성향을 짐작하게 한다.

애초 논문 집필을 위해 저자가 만난 일본군은 해군 2명, 해군 군속(군무원) 1명 등 총 3명이었다. 히로토 아키라(廣戶章) 씨는 학병 출신으로 해군병과 예비학생 제4기생이며 패전 당시 육전병과(陸戰兵科) 중위였다. 기시 우이치(岸卯一) 씨는 해군비행예과 연습생, 일명 요카렌 출신이며 패전 당시는 통신병과 일등병조(一等兵曹)로 복무했다. 군속인 고타니 히로히코(小谷裕彦) 씨는 우즈라노(鵜野) 해군항공기지의 근로자로 일했다. 저자는 이들과 몇 차례 면담한 기록

을 토대로 일본의 근대와 전쟁, 그리고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참혹함을 함께 드러내고자 했다.

박광홍은 자신이 품은 의문의 첫 번째 실마리를 제국주의 일본의 교육에서 찾았다. 자신이 만난 일본군 출신자들은 모두 어릴 때부터 천황과 국가, 전쟁과 애국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받았던 교육의 지향점에 항상 죽음이 상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받은 모든 교육은 죽음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보였다. 요컨대 죽음을 통해서만 천황제 국가의 신민이자, 제국주의 일본의 진정한 국민으로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저자가 인터뷰했던 기시 우이치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그 당시 교육이란 결국 말이지요. ‘너희는 폐하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식의 교육이었어요. ... 그렇게 훈련되다 보면 이제는 나라를 위해 죽는 것만이 정말 소망이 되어버려요.<sup>1</sup>

제주 해안에 그토록 많은 ‘자살 공격’ 유적이 남아 있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방식의 교육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가르친다고 해서 교육받은 사람 모두가 똑같은 비중으로 ‘죽음’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개인별 성향, 주위의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환경 여하에 따라 같은 교육은 다르게 발현된다. 그러면 어떻게 제국주의 일본의 신민들은 국가의 죽음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였을까. 그것은 박광홍이 찾은 두 번째 실마리 ‘죽음의 공동체’에 있었다.

---

1 박광홍, 2022, 『너희는 죽으면 야스쿠니에 간다』, 오월의 봄, 127쪽.

## II. '죽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개인의 죽음이 애국의 이름으로 일상을 휘감아 옥죄던 시대. 죽음이 애국의 지상목표라고 교육받고, 전쟁과 전쟁이 이어지며 지속되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일본은 늘 승리하고 있다는 거짓 보도와 정보 통제의 일상 속에 갇혀서, 영웅적으로 죽은 사람들과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차고 넘치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의 사람들은 혹 죽음에 대한 가치와 기준이 다르다 해도 결코 이것을 이웃에게 들켜서는 안 되었다. 슬픔 따위를 불경스럽게 내비쳐도 안 된다. 오히려 서로에게 '사선(死線)'으로 한 발 더 가까워진 것을 축하하고 격려해야만 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지고, 이로써 죽음의 공동체가 완성된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 자리 잡는 불안과 두려움, 슬픔, 그것을 어떻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막아낼 수 있겠는가. 기시 씨가 입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은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다.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 제가 입대한다는 것을 알게 되시고 우시는데 ... 이걸 애처롭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미 가기로 되어 있는 이상 어쩔 수 없잖아요? 결정된 이상은, 이제.<sup>2</sup>

눈물은 가족들만 모인 자리에서 허락되었다. 그나마 기시 씨처럼 가족들 간에 눈물을 보인 경우가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도 없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아들의 입대를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했다. 오히려 이웃에 슬픔이 들길까 노심초사해야만 했다. 전쟁은 어쩔 수 없는 것,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다만 일본의 애국 교육은 거기까지였다. 어쩔 수 없으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히로토 아키라 씨는 학병으로 징집된 당시 기분을 담담하게 하지만 적지 않

2 박광홍, 2022, 위의 책, 77쪽.

은 것을 담은 채로 말했다.

어떤 기분이었냐구요? 저기요, 기분이라 하면 말이죠, 그 당시로서는요. 당장 전 쟁에 나가지 않을 수 없잖아요? ... 난처하지만 의무니까요.<sup>3</sup>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가진 가지만 그저 어쩔 수 없는 것, 마음 깊은 곳의 진정까지 죽음을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던 것이다. 일제 당국자들이라고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감정을 절대로 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동체적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책에도 인용되어 있는 역사사회학자 야마노우치 야스시(山之内靖)에 따르면, “국민이라는 명칭”은 “적국 및 적국에 속하는 모든 사람과 구별되며 ... 전쟁에서 죽음의 운명을 공유하는 자”를 가리키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내부에서 그 정체성을 공유할 수 없는 자는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비국민’으로 배척되었다고 한다. “죽음의 운명적 평등성을 전제로 하는 국민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세속 생활까지 지배하는 “사실상의 종교”가 됐다는 것이다. 즉, ‘국가를 위한 죽음’이라는 교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국민’으로 낙인찍혀 공동체에서 살아남을 수 없도록 했고, 이를 바탕으로 죽음을 담보로 한 공동체의 숨막히는 맹목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었다.

전시체제가 일본에는 입대하는 것을 슬퍼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죽음의 현실을 외면해야만 하는 가족들이 한 집 건너 한 집, 도처에 숨죽이고 있었다. 히로토 씨의 부모님 역시 그런 막다른 감정에 부딪혔다고 기억했다.

(부모님의 반응은) ‘살아서 돌아오너라’ ... 그렇지만 입 밖으로는 낼 수가 없었어요. ... 그럴 수 없었지만요, 살짝 ... ‘너 이 녀석 돌아오라’고, ... 정도로 말씀하셨죠.<sup>4</sup>

3 박광홍, 2022, 위의 책, 75쪽.

4 박광홍, 2022, 위의 책, 79~80쪽.

“죽어서 돌아오라”는 말이 오히려 일상적인 시대였다. 하지만 어떻게 부모가 일어나지도 않은 자식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히로토 씨의 부모님은 차마 ‘살아서’라는 말을 붙이지 못하고 그저 ‘돌아오라’고만 했다고 한다. 박광홍은 이 대목, 죽음의 공동체가 형성되었던 시대의 현실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죽어서 돌아오라’고 격려하는 부모는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다. 가족에 대한 사랑보다 몸과 마음을 바쳐 국가에 헌신하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였다. 이 때문에 ‘살아서 무사히 돌아오라’는 소망을 전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다.<sup>5</sup>

### III. 야스쿠니(靖國)라는 살아 있는 제국주의

죽음의 공동체 형성에 ‘시조격’이 되는 사람이 있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주지하듯 『학문을 권함』, 『문명론의 개략』 등의 책을 집필하여 메이지 근대 일본을 만든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후쿠자와 자신이 직접 발행했던 신문 『지시신보(時事新報)』에 실었던 「전사자의 대제전을 거행해야 한다」라는 글 중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가능한 한 최대의 영광을 전사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줌으로써 전쟁터에서 쓰러져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임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다.<sup>6</sup>

유족들에게 가족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

5 박광홍, 2022, 위의 책, 81쪽.

6 다카하시 데쓰야 지음, 이목 옮김, 2008, 『국가와 희생』, 책과함께, 105쪽.

야 한다는 말은 지금 들어도 섬뜩하다 못해 괴기스럽기까지 하다. 근대 일본이라는 국가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졌다. 그야말로 죽음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기점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죽음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일제가 고안한 시설이 바로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였다. 일본 도쿄의 야스쿠니는 일본 군국주의의 역사 그 자체였다. 야스쿠니는 설립된 당초부터 일본의 제국주의와 침략전쟁의 심장부로 기능해왔으며 지금까지 이를 상징하는 장소로 남아 있다. 야스쿠니는 그야말로 일본 제국주의의 이념적 상징이었고 실질적 안식이기도 했다.

야스쿠니는 후쿠자와의 말처럼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장소로 활용되었고, 전선의 군인들에게는 죽음을 수궁할 수 있게 한 명분이었다. 다시 저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자.

입대하기 전에 해군에서 말이죠. 들어가기 전부터 “너희는 죽으면 야스쿠니에 모셔질 수 있으니까” 하고 말해요. 이제 죽으면 신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야스쿠니 신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고 죽으러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상당히,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죠.<sup>7</sup>

죽으면 신이 되어 야스쿠니에 모셔질 테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는 기시 씨의 말이다. 일제가 노린 야스쿠니가 그 효용을 제대로 발휘하는 순간이었다. 저자는 이에 대해 “야스쿠니 신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야스쿠니 신앙은 일상화된 죽음의 동요를 억제하는 강력한 장치였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다”라고 적었다.

당시 신민들은 죽음의 교육을 받고, 죽음의 공동체에서 자라고, 죽어서 야스쿠니의 군신(軍神)이 된다는 믿음으로 가까이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과연 그렇기만 했을까.

---

7 박광홍, 2022, 앞의 책, 127쪽.

당시 죽음에 직면한 군인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각자의 감정을 다양한 형태로 표출했다. 답답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날뛰는 사람’도 있었다. 그럼에도 결국은 죽어서 야스쿠니에 간다는 말을 어쩔 수 없이 붙들고는 한 길웁씩 사지(死地)로 걸어 들어갔다. 그것을 꼭 믿었다기보다 그것밖에는 달리 위안을 얻을 단서가 없었던 까닭이었다. 유족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망한 가족이 정말 야스쿠니의 군신이 되었다고 믿는 것 외에 다른 안식은 찾기 힘들었다. 결국 야스쿠니는 ‘죽음의 공동체’가 믿었던 신앙의 출발지이자 종착지가 되었다.

그런데 야스쿠니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사망자를 신으로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전쟁이 끝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록 야스쿠니는 그 상징과 역할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박광홍에 따르면, 야스쿠니의 연명(延命) 이유 중 그나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우들이 모여져 있는 공간”이라는 부분이다. 저자가 인터뷰한 사람들은 다른 나라도 모두 전사자 추도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야스쿠니만 문제 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야스쿠니를 문제 삼는 것은 이곳이 단순히 ‘사망한 전우’들을 추념하는 시설을 넘어 제국주의와 군국주의 일본이 지속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사실 야스쿠니 인근에는 치도리가후치 전몰자묘원(千鳥ヶ淵戦没者墓苑)이라는 일본 정부가 관리하는 추도 시설이 있다. 그러나 치도리가후치는 국립 추도시설의 위상을 지니지 못하고, 이름 없는 군인과 민간인 사망자들이 안치되어 있어 야스쿠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시설이다.

그럼에도 인터뷰이들이 야스쿠니를 그저 추도시설로 인식하거나 과거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박광홍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제국 일본은 국체사상을 기반으로 한 국가·민족 정체성을 개인에게 주입했고, 이는 죽음의 운명공동체를 전제로 한 국민의식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인터뷰이들은 학교교육이나 일상생활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죽음의 운명공동체로 설정된 일본

국민으로 자각하게 됐다.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 체제 안에서 그들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해야 할 천황의 자식들, 일본의 국민이었다.<sup>8</sup>

일본군 출신자들이 야스쿠니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들이 전쟁광이거나 군국주의 극우의 선봉장이어서라기보다 죽음의 운명공동체 속에서 순응해야만 했던 ‘천황의 자식들’로 살았던 과거를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광홍의 저술이 갖는 특별함은 바로 이러한 인식을 직접 전쟁을 체험한 당대의 인터뷰이들로부터 끌어냈다는 점이다. 한국인이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일본 제국의 군인 출신 대상자를 선별하고 다시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어려웠겠지만, 인터뷰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라포(rapport)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읽어낼 수 없을 지점들을 저자는 잘 분석해내고 있다.

#### IV. 제국주의 일본군의 정신사(精神史)를 위한 초고

이 책은 제국 일본 해군의 군인과 군속으로 복무했던 3명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 단순히 3명과 나는 대화만 열거하지 않고 이들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사건을 작가 나름의 필체로 기술했다. 일본군대사를 관통하는 여러 사건과 사실을 독자들이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욕심이었을까. 다소 지나치거나 부족해 보이는 서술과 분석도 눈에 띈다. 우선 해당 시대를 독자들에게 잘 이해시키고 싶은 욕심에서였는지 저서 초반 역사적 배경 설명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둔 것 같다. 오히려 세 사람의 인생과 환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면 독자들이 인터뷰이들의 사고를 이해하기 쉬

---

8 박광홍, 2022, 위의 책, 231쪽.

있을 것이다. 역사적 상황, 특히 당대 일반적인 시대상을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인터뷰이들의 주변 환경에 조금 더 많은 지면이 할애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배경 설명에 대한 비중이 크면 클수록 왠지 이 책의 취지와 의도, 그리고 독자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점차 멀어지는 듯하다.

다음으로 대상자 3명이 모두 해군 출신인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직접 인터뷰했던 대상이 3명의 해군이라고 해도, 지금까지 일본군 출신자들의 회고와 자전이 상당수 공간되어 나온 만큼 이러한 사례들을 함께 살펴서 분석했다면 훨씬 풍부한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일본군의 정신주의를 분석 또는 해체해보겠다는 저자의 목적은 애초 반쪽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도였는지도 모른다. 물론 대상자 선별이 쉽지 않았던 점은 저자도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식민지 조선과 조선인의 상황이 거의 언급되지 않은 점은 이 책의 가장 큰 공백으로 여겨진다. 책의 중차점이자 군국주의 일본의 상징적 시설인 야스쿠니만 하더라도 식민지 조선인들과 밀접하게 연루되어 있다. 야스쿠니신사에는 아직도 유족의 동의 없이 합사된 무려 2만 1,000명의 조선인 피해자가 존재한다.<sup>9</sup> 유족들은 수십 년째 분사(分社)를 요구하고 있다. 야스쿠니 측은 전사자들이 하나로 합사되어 신이 되었기 때문에 분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유족 중 누가 이를 용납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이 글이 성취한 것 역시 적지 않다. 첫째, 일본군의 입장에서 다양한 역사적 시각과 사고력을 유도했다는 점이다. 우리 학계와 사회 일반에서 일본군은 대부분 가해의 측면으로만 등장한다. 일본군이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의 가장 큰 가해자였다는 사실은 결코 부인될 수 없다. 다만, 그 속에 존재했던 한 개인의 일상적 삶 속에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거대한 억압이 존재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

9 야스쿠니신사의 조선인 무단 합사 문제에 대해서는 남상구, 「동북아역사리포트 35-3.1절에 생각하는 야스쿠니신사 한국인 무단 합사 철회 소송」(2023.3.1.)을 참고할 수 있다.

둘째, 3명의 일본군의 이야기가 오직 제국주의 일본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라는 점을 지적한 대목이다. 저자는 “이것이 어찌 일본만의 이야기일까”라고 운을 댄 다음, “민주화의 진전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폭력적인 집합의식은 여전히 우리 사회 안에 살아 숨 쉬고 있다”고 꼬집는다.

셋째, 향후 “제국주의 일본군의 정신사”라고 명명할 좀 더 깊고 큰 저술 분야의 초고가 완성된 느낌이다. 이 책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저술이지만 저자가 앞으로 이를 성취를 기대하며 감히 ‘초고’라는 낱말로 의미를 부여해본다.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제정 2019. 11. 11. 규칙 제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재단 직원이 재직 중에 수행한 모든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물에 적용한다.

② 재단의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한 외부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 훈령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검증되지 않을 때는 본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과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7. 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4조(연구부정행위 범위와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벌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에서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연구자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인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확정된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결과물”은 재단 자체 연구사업 또는 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연구결과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방의무) 재단은 연구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첨 1) 요구, 연구윤리 관련 규칙 제공, 연구사업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 착수와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와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 처리, 후속조치, 재심의 또는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재단의 사무총장, 연구정책 실장,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 과『영토해양연구』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은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이 맡는다.

- ②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은 재단 연구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이사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검증 원칙) ① 재단 직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피조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②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접수한 제보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

당 사안을 검증 완료할 때까지 심의·의결·조사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이 때,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는 자
3. 제보된 연구결과물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제9조(검증시효) ①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기한)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 또는 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보 사안의 조사·심의·의결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소 3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전과 함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따라 해당 회의록 전체 또

는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와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에 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사업 기록, 연구결과물 등의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제보자는 제보 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 완료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사를 포함하여 재단 연구윤리위원 3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

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3. 예비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4. 본조사 실시 여부

④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면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본조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비조사 승인 후 2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위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재단 연구윤리위원 중 1인을 본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조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본조사위원으로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되, 재단이 아닌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제3자를 대신 참석시킬 수 없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회에 대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회의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본조사 착수와 조사기간) 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대 30일까지 한 차례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진술 기회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인지를 고려

2. 해당 행위 당시 '교육부 훈령'과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과 승인)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내용
4.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
5. 관련 증거와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본조사위원 명단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2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범위 내에서 제재 조치를 이사장에게 건의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제재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 수정

2.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3. 일정 기간 재단 연구 사업 참여 배제
  4. 주의 또는 경고, 재단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 ② 외부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사장은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단에서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2. 3년 이상 5년 이내 재단 연구사업 참여 배제
      3. 소속 연구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본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해서는 동 규칙 제15조와 제21조에 따르되, 재조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⑤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를 통해 심의·의결한 결과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3조(결과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조사결과를 승인하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 제24조(재심)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개시 여부를 포함하여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동일 제보 건에 관하

여 재심의·의결하고 최종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해당 제보 건에 관한 재단의 조치는 이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예비·본조사 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등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6조(경비)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지침)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조사기록과 정보 공개) 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음성, 영상,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은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부 칙<제정,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은 폐기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조에 따라 폐기된 규칙에 근거하여 임명된 위원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위원직을 면한 것으로 본다.

【별첨 1】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

소 속 기관 :

(소속부서)

위 연구(책임)자는 학문적 양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과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

연구(책임)자 : \_\_\_\_\_ (인)

##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 중,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소(한·중관계연구소, 한·일관계연구소, 독도연구소) 소장과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동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연구자로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여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하고, 재단소속 직원 중에서 논총의 편집과 간행 실무를 수행하는 편집간사 및 사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은 논총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3) 편집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에 관한 실무를 총괄한다.
  - 4) 사무간사는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 등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 만료 전 유고 시, [편집위원회 규정] 제1항의 편집위원 위촉 방법에 의해,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림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 및 사무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6.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논총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나 논총 기획연구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2017년 5월 19일, 2018년 2월 23일, 2020년 2월 14일, 2021년 12월 10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A, A, A)
  - 2)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 :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이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A, B, C) (B, B, C)
  - 3) 수정 후 재심사 : 1인이 A 또는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C, C) (B, C, C)
  -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고 C를 포함한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B, D, D)  
(C,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판정과 “검토 또는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 등의 심사 결과 내용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통보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후

재투고하더라도 논총 게재대상 논문으로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논문투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편파 또는 불공정 심사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위원 교체에 의한 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을 게재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투고자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접속하여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 내의 논문 투고 절차에 따라 저작권 활용 동의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회원 가입 후 투고 원고를 제출하고 사진 등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첨부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초록도 국문 800자, 영문 400자 내외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동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 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景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2018년 2월 23일, 2018년 8월 19일, 2020년 8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 편집위원장

**김현숙** 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

● 편집위원

**김영숙** 동북아역사재단 초빙연구위원

**김재홍**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교수

**박정민**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백종오**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이유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정선** 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정병준**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순일**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조영광**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홍성화**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 편집간사

**허란** 동북아역사재단 출판팀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79호(2023. 3)

초판 1쇄 발행 2023년 3월 31일

펴낸이 이영호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전화 02-2012-6065  
홈페이지 [www.nahf.or.kr](http://www.nahf.or.kr)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